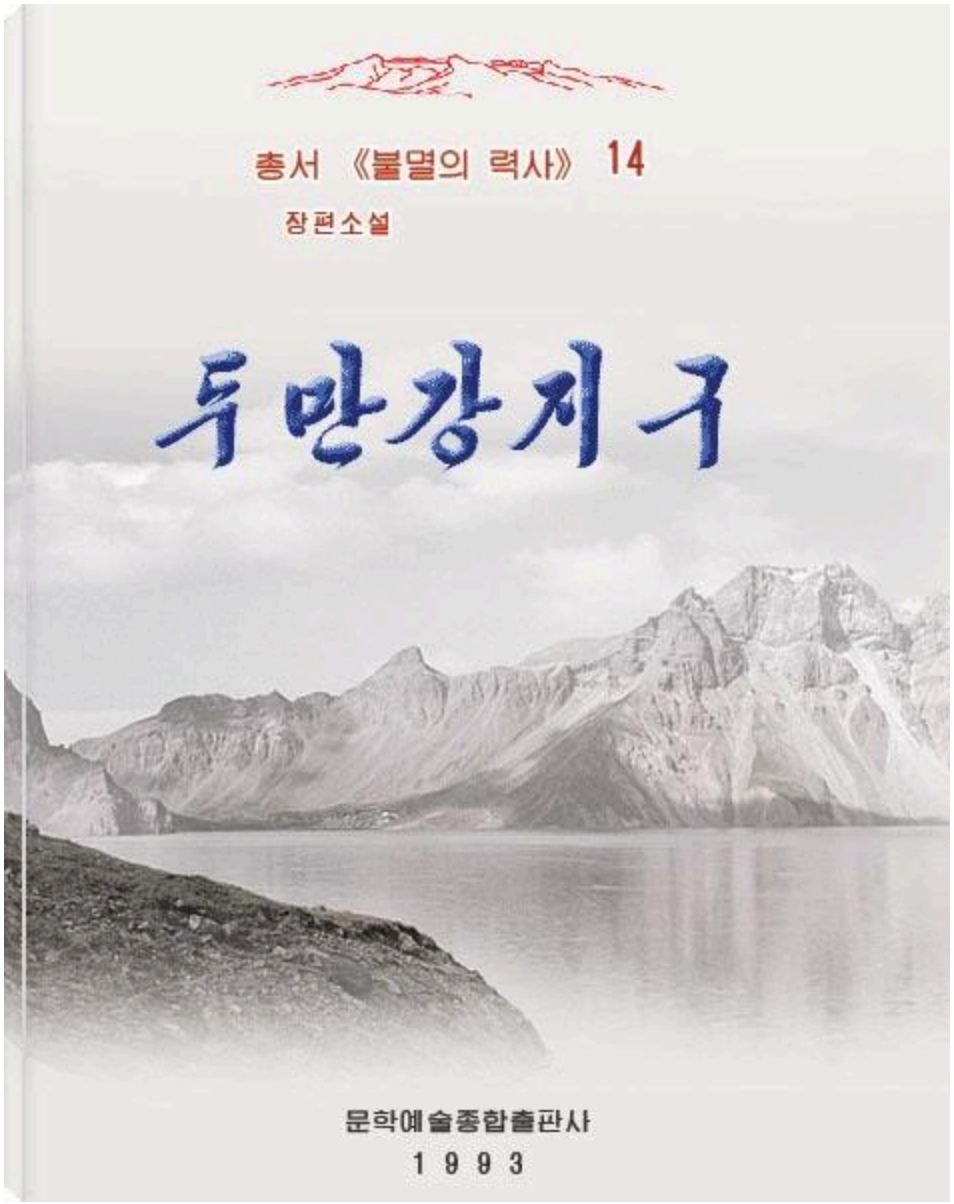
전체도서목록으로 →

총서 <불멸의 력사> 14
장편소설

두만강지구

석윤기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2009-05-23]


총서 《불멸의 력사》 14
장편소설
두만강지구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 9 9 3

제 1 편

1

아마 날씨도 무엇인가 느껴지는게 있는 모양같다. 아침나절 내내 구질거리며 바람질을 하던 하늘이 별안간 활짝 벗겨졌다.

광막한 그리고 몹시도 아름다운 숲이 방금 지나간 비에 미역이라도 감고난듯 싱그러운 송진내를 풍기며 선명한 자태를 아낌없이 드러내놓았다.

여기는 청봉이다.

1939년 5월 18일 아침 5호물동에서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에 들어선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금시 터져나오려는 환성을 힘겹게 억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극도의 은밀성을 요하는 행군인데다 강건너와는 사정이 달랐다.

그리하여 국경을 넘어 처음 한동안 들먹이는 심장밑에 깔려서 몸부림치던 기쁨이 이인적 드문 숲속에 이르자 폭발적으로 터져올랐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정찰조원들의 보고와 지도상에 나타난 백두산일대의 지형을 면밀히 분석해보신 다음 일단 이 청봉숲속에서 부대를 쉬우기로 결심하시였다.

휴식구령이 떨어지고 련대, 중대별로 자리를 잡고 흩어지자 유격대원들은 아이들처럼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이깔나무그루를 안고 빙빙 돌기도 하였다. 어떤 대원들은

두무릎을 꿇고앉아 조국의 땅냄새를 엎드려 들여마시기도 하고 어떤 동무는 질척한 풀밭에 그대로 쓰러져서 마구 뒹굴기도 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런 전사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볍게 웃음지으시였다. 웃으시기는 하지만 그이자신의 가슴도 조국땅을 그러안고 몸부림쳐보고싶은 감동에 축축히 젖어드시였다.

그이께서는 잠시 눈을 슴뻑이며 사위를 둘러보시다가 각 구분대들이 숙영지를 꾸리는 사이 천천히 청봉정점으로 오르시였다.

재영이와 상철이가 앞에서 길을 냈지만 어찌나 숲이 무성한지 도무지 자리가 나지 않았다. 숲정수리를 스치는 가벼운 바람결에 어디선가 맹수의 체취같은것이 풍겨오는듯도 하였다.

참으로 생명이 약동하는 진짜배기 밀림이다.

《그냥두라구. 나무사이를 빠져나가면서 조국의 냄새를 맡아보는것도 좋지.》

사령관동지께서는 공연히 헛수고를 하는 두 전령병에게 말씀하시며 거미줄처럼 눈앞을 가리는 앙상한 개암나무가지를 헤치시였다.

굵직굵직한 이깔나무들만 빼곡한 밋밋한 등판이 나졌다.

《상철이.》

사령관동지께서는 후련하게 트인 산기슭에 나서시자 조용한 목소리로 나어린 전령병을 부르시였다.

숲으로 덮인 산을 오르느라고 코등에 땀방울이 보송보송해진 상철이는 발깃한 볼을 돌려 그이를 바라보았다.

《상철이는 조국땅이 처음이지?》

《예.》

《그래 조국땅에 첫발을 들여놓으니 기분이 어떤가?》

《기분말입니까?》

《무슨 느낌이 없어?》

상철이는 점직한듯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저만치 앞서가며 길을 내고있는 재영이를 흘깃 돌아보았다.

재영이가 제 말을 들을가봐 저어한다는것을 느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나어린 유격대원가까이로 바투 다가가시였다.

《그래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사령관동지.》

상철이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큰한 입김을 풍기며 속삭이였다.

《왜 그런지 이 땅이 우리 조국땅이구나, 이 땅을 찾기 위하여 우리 전우들이 목숨을 바쳤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고생하면서 행군해오던 생각이랑 떠올랐어요. 그렇게 고생스럽던 행군도 조국에 오기 위한것이였다고 생각하니 또 눈물이 나자 하는데…》

상철이는 여기까지 말하다가 또 재영이쪽을 돌아보았다.

그때 재영이는 웬일인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다.

《웬일이요? 어디 다쳤소?》

사령관동지께서는 근심이 되시여 서둘러 다가가시였다.

《아닙니다. 여기 괴상하게 생긴 꽃이…》

그러면서 재영이는 입가에 어색한 웃음을 띠고 돌아보았다. 그 청청하게 맑은 두눈에 그렁하니 물기가 어린것을 보신 사령관동지께서는 문득 가슴에 하나가득 차오르는 눈물겨운 감동을 이기기 힘드시여 외면하시였다.

상철이는 그제야 조국땅을 밟고 막 울고싶어지는것이 저혼자만의 일이 아니요, 또 자기가 특별히 어리거나 마음이 약해서만 그런것이 아니라는것을 깨달았다.

청봉정점이라고 짐작되는 밋밋한 등성이에 다 올랐으나 어찌나 나무가 울창한지 눈앞을 가려버려서 전망은 좋지 않았다.

다만 발아래 멀지 않은 곳에서 물소리가 울려오는것이 느껴졌다.

《리명수물이 아주 가까이 흐르는 모양이군. 그러니 인가가 멀지 않겠소.》

잠시후에는 물소리너머로 아득히 개짖는 소리도 들려왔다.

산기슭에 앉은 오붓한 동네가 눈앞에 그려졌다.

재영이와 상철이는 시원히 제눈으로 바라보겠다고 높은 나무를 골라 타고올라서는 또 키돋움을 한다. 그래도 별로 보이는것은 없는지 나무가지만 이리저리 헤친다.

《내려들오시오. 떨어지겠소.》

이렇게 말씀하신 사령관동지께서는 그중 전망이 좋은 나무그루들사이에 나서시여 쌍안경을 쳐드시였다.

여전히 안겨오는것은 굵고 가는 나무가지들과 쌉쌀한 냄새를 풍기는 애리애리한 이깔나무의 신록들뿐이였다.

멀지 않은 벼랑밑에서는 비릿한 물냄새도 풍겨왔다. 갖가지 새소리도 들린다. 촘촘한 잎새들과 나무가지들사이를 뚫고 강한 색조를 띤 해빛의 길고 짧고 혹은 넓고 좁은 쪼박들이 숲속깊이 스며들어 무수한 거울쪽처럼 번쩍거린다.

아름답다. 무척도 아름답다.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들이 돌아온것을 조국은 아는것인가.

사령관동지의 눈앞에는 뭇꽃이 다투어 피여나는 삼천리조국의 전모가 떠오르시였다. 그 품에 안기기 위하여 전사들이 헤쳐온 길이 피에 젖었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조국의 품도 슬픔에 터갈리지 않았는가.

잊을수 없는 사연들이 너무나 많이 얽혀있는 품이였다.

16년전 열두살 잡히던 겨울에 홀로 압록강을 넘고 천리길을 걸어 만경대까지 가셨을 때 할아버님, 할머님께서 달려나와 하시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으시였다. 열둘에 잡힌 너를 두 나라지경 천리길에 홀로 보낸 너의 아버지도 범같은 사람이지만 사나이가 다르기는 다르다고 감탄하셨을 때 사령관동지자신께서도 기쁘시였다. 그렇게 이 세상을 꿋꿋이 걸어가느라면 할아버님, 할머님들과 부모님들이 그렇게도 바라시는 조국의 광복도 이룩되리라고 믿으시였다.

그러나 이태가 못되여 또다시 엄동설한에 그 천리길을 되짚어 압록강을 건느지 않으면 안되시였고 그 길우에서 아버님의 최후를 보지 않으면 안되시였다.

조국의 품은, 그 품에 이르는 길은 실로 피눈물에 얼룩져있다.

그 길우에 갈대 설렁거리는 소사하 뒤산에는 어머님의 봉분이 생겨나고 철주의 순직한 넋은 황막한 광야에 뿌려졌다. 삼촌도 철창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리하여 만경대고향집에는 할아버님, 할머님만이 굽으신 허리로 다가오는 이 봄에 씨붙임을 하시며 아득히 이곳-국경의 숲까지 뻗은 우불구불한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실것이다. 언제면 우리 증손이가 아버지, 어머니와 온 조선의 한을 풀고 돌아올것인가고…

하기는 할머님께서도 어떻게 되셨는지 딱히 알길이 없으시였다. 저 지난해부터 리경락이네 패거리들이 할머님을 눈덮인 밀림속으로 강제련행해다니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을 굴복시킬 한 방편으로 삼아왔으니 그놈들의 손에서 무사히 놓여나셨는지, 그 무도하고 비렬한 무리들로부터 무슨 봉변이나 겪지 않으셨는지 모를 일이였다. 다만 믿으신것은 만경대고향집을 뻗치고있는 애국의 기상, 불굴의 혁명정신이였다.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나라 찾는 한길에 바치시고서도 우리 증손이가 기어이 대사를 이룩하리라고, 원쑤를 향해서는 우리 장군이 네놈들을 가만두지 않을것이라고 당당히 맞서 싸우신다는, 이제는 늙어 허리굽으신 조부모님들의 그 굽힘없는 절개였다.

앙상하신 어깨들에 그 모든 시련과 슬픔의 짐을 감당하시려니 터갈라진 가슴들에 무엇이 남아있을것인가, 봄을 맞이하여 조국산천은 이렇게 새움이 돋고 향기로운 풋내가 떠돌며 신록으로 단장해가는데 할아버님, 할머님께서 힘겹게 밀고가시는 가대기날아래서는 남리의 척박한 먼지발이 매운재가 되여 그 슬픔과 분노에 터갈린 가슴들에 또다시 뿌려질것이 아닌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으스러지게 주먹을 부르쥐시였다.

《증손아, 증손아.》

하고 안타까이 부르시는 할머님의 다정하신 목소리가 귀전을 울리는것만 같으시였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장군이 이제 네놈들을 그냥 둘줄 아느냐!》 하고 원쑤들을 향하여 웨치시는 그 목소리가 가슴을 두드리는듯 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힘을 주어야 한다. 조선은 억세게 살아있으며 원쑤를 쳐부시고 한걸음한걸음 최후승리의 그날에로 드팀없이 다가가고있다는 이 엄숙한 진실을 온 천하에 알려야 한다.

적들은 지난 겨울에 조선혁명을 압살하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시 국경지대를 떠난 틈을 타서 혁명조직을 깡그리 파괴했으며 혁명군은 숲속에서 다 굶어죽고 얼어죽어버렸다는 요언을 대대적으로 퍼뜨렸다. 그러는 한편 실지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하겠다고 몽강, 림강, 장백 일대에 10여만대병을 풀어 악착한 《비류식토벌》을 감행하였으며 나중에는 진드기처럼 물고늘어져서 《장추작전》을 들이댔다. 조선의 숨결은 폭풍앞에 놓인 초불처럼 위태로왔다. 만일 그때 그 폭풍앞에 우리 혁명군전사들이 억센 가슴을 들이대지 않았더라면 저 푸른 하늘, 저 아름다운 땅은 다시는 조선의것이 될수 없을것이였고 오매에도 그리운 우리 겨레를 그러안아보지도 못할것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손끝에 잡히는 이깔나무의 새잎을 어루만지시였다. 피여오를듯이 아름다운 연두빛 신록은 콕 찌르는듯 한 송진내를 풍겼다. 볼을 갖다대여도 찌르지 않고 부등깃처럼 부드러운 그 촉감을 느끼실 때 불시에 눈굽이 화끈해지시였다.

이것이 아니였던가?

뒤에 적을 달고 숨가쁘게 달릴 때 더 큰 《토벌》무력이 맞받아 달려오던 가재수부근의 눈길우에서, 많은 동무들이 독소금을 먹고 쓰러졌던 눈덮인 골짜기에서, 한홉의 미시가루를 나누어먹으며 허기를 에우던 간고한 행군길에서 모든 동무들이 피눈물을 뿌리며 가슴치고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원쑤를 맞받아 달려나간것은 바로 이렇게도 부드럽고 아름다운 내 조국, 우리 겨레를 한가슴에 안아보기 위해서가 아니였던가.

적들가운데는 이미 조선의 숨통을 다 눌러죽인것처럼 생각하는 놈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겨레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조선의 해방과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있다는 사실이다. 간교한 적들은 바로 그것을 위하여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았으며 제놈들딴에는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만일에 이 사태를 방임해둔다면 그야말로 조선의 숨결은 초불과 같이 꺼지고마는것이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땅에 진출하여 원쑤들을 종횡무진으로 무찌를 때에만 조선의 숨결은 다시 억세게 이어질것이다.

조선혁명의 새로운 일대 앙양을 마련하려고, 간간해진 조선의 숨결을 억세게 뻗치자고 김주현이며 리동학이와 같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기둥감들이 목숨을 바치였고 태혁이를 비롯한 수많은 전사들이 혁명을 가슴으로 보위하다가 희생되였다. 그리고 전군이 무수한 시련을 헤치며 《고난의 행군》을 단행하였다.

일제 10만대군을 장백의 눈구뎅이에 처박고 조국땅에 안기기 위하여 우리 혁명군전사들이 헤쳐온 시련의 길이 그렇게 험난했지만 오늘은 조국땅의 흙냄새를 맡아보고 이처럼 애리애리한 나무잎과 꽃망울을 쓰다듬어보는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 눈물을 흘린다. 아무도 자기들이 겪은 고생, 뼈아픈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오직 이 조국땅에 다시금 혁명의 일대 앙양을 불러올 크나큰 포부에 가슴이 부풀어있다.

사실 조선인민혁명군의 춘기반타격에 의하여 국경일대에서 허리가 끊어진 셈이 된 적들은 어지간히 당황망조하여 미쳐날뛰고있다. 겨우내 혁명군《토벌》을 지휘하던놈의 목을 떼고 지난 겨울 오중흡이에게 끌려다니다가 졸경을 치른 혼마라는놈에게 중장견장을 달아 그자리에 앉혔다고 한다. 그놈이 지휘하는 《련합토벌사령부》관하 무력들이 지금 림강, 장백 일대에 밀집대형을 짓고 조선인민혁명군의 퇴로를 막아보겠다고 미쳐날뛴다는것이다.

대붕이 푸른 하늘을 향해 깃을 칠 때 참새, 제비의 무리가 어찌 그 뜻을 알겠는가.

조선인민혁명군의 퇴로를 차단하다니… 조선인민혁명군이 물러날 생각이 있었다면 무엇때문에 지난 겨울의 그 어려운 행군길을 헤쳐왔을것인가, 우리는 이해에 국경지대에서 떠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이미 조국에 들어왔다. 네놈들이 압록강 여울목에서 목을 길게 늘이고있는 사이 우리는 국내에서 큼직하게 전투의 불길을 지펴올릴것이며 이 불길을 그대로 두만강줄기로 옮겨갈것이다.

안도, 화룡을 중심으로 국내를 넘나들면서 적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혁명조직을 복구하여 인민들을 묶어세울것이며 다시금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을 마련할것이다.

일제와의 군사적대결뿐아니라 각종 기회주의와의 원칙적인 투쟁속에서 보낸 지난 한해에 조선혁명은 상처도 많이 입었지만 억세게 자라났다. 조선혁명은 이해 여름에 찬란한 개화기를 맞이할것이다. 그 봉화를 이 조국땅에 큼직하게 지펴올려야 한다. 그 불꽃이 튀여 3천리조국강토 방방곡곡에 혁명의 불길이 번져가게 해야 한다.

사령관동지의 가슴에는 이번 조국진군작전의 커다란 전략적지향이 새삼스럽게 밀물처럼 그득히 차오르는것이였다.

×

한편 숙영지일판은 온통 웃음소리, 노래소리로 들썽들썽하였다. 격정에 사로잡혀 무슨 뜻인지도 모를 소리로 마구 웨치는가 하면 손나팔을 해대고 하늘을 향해 《우리가 왔다,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들이 왔다－》 하고 소리치는 동무도 있다.

껑충껑충 뛰는가 하면 끝없이 바람을 안고 달리기도 한다.

모든 노래를 밀몰아 수심가조로 불러제끼는 공인된 《명창》 강철룡소대장이 《자유가》를 부르며 손벽춤을 들고나오고 흥에 이기지 못하여 인섭이와 최병규가 씨름을 안고 돌아가자 숲속은 마침내 화끈 단 열정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좋다－》

점잖은 7련대의 박태진중대장이 무릎을 철썩 내리치더니 어깨를 으쓱거리며 강철룡과 짝을 뭇고 돌아갔다.

그 모든 메아리가 하나의 화음을 이루어 가슴마다에 혁명하는 참된 보람을 뻐근하도록 안겨주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기쁨에 몸부림치는 동무들을 보고있느라니 자꾸만 눈굽이 젖어들어서 홀로 깊은 숲속에 들어가시였다. 실컷 달려도 보고싶고 말없는 산천이나마 마음껏 쓰다듬고 안아도 보고싶으시였다.

얼마나 그립던 조국인가!

김정숙동지께서는 저쯤 서있는 이깔나무를 향하여 달리시였다. 달려가던 기운으로 나무줄기에 팔을 휘감으니 그대로 나무를 안고 한바퀴 핑그르르 몸이 내둘리시였다. 그다음 고개를 번쩍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신다.

손바닥만한 파란 하늘에 반짝반짝 유리가루를 뿌리는것과 같은 해빛이 쏟아져내렸다. 눈을 쪼프리니 눈귀로 소리없이 눈물이 주르르 슴새여흘렀다.

고향 오산덕마루에 백살구꽃이 활짝 피여 그 꽃속에서 어머니며 오빠며 동생이 이제야 왔느냐고 손저어 부르는것만 같으시였다.

철도 들기 전에 하직한 조국, 그 조국으로 군복을 입고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이렇게 왔구나 생각하니 뭉클하는 감회가 가슴가득 차오르시였다. 공작임무를 띠고 신갈파와 도천리어간을 무수히 넘나들기도 하였지만 그때는 언제한번 마음놓고 울어볼수도 웃어볼수도 없으시였다. 장군님을 모시고 온 이날에야 고향땅에 찍혀진 자신의 작은 발자국을 되밟는듯, 참으로 부드럽고 포근한 어머니품에 안긴듯 싸움의 나날에 모질게도 억눌려오셨던 온갖 감회가 한꺼번에 되살아나 가슴을 두드리였다. 너무나

벅찬 생각이 뒤범벅이 되여 자신께서도 웃는것인지 우는것인지 종잡을수 없었고 그런것을 느껴볼 겨를도 없으시였다.

《어머니, 전 장군님을 모시고 어머니가 그렇게도 보고싶어하던 조국에 왔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머니가 누워계시는 아득한 부암의 하늘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속삭이시였다.

눈에는 함빡 눈물이 어리였고 떨리는 입귀에는 웃음이 피여있었다. 평생소원이 이룩된듯 한 벅찬 감동이였다. 동시에 가슴 에이는듯 한 충격이기도 하였다.

가슴속에 부푸는 감회때문인지 몸은 잠시도 한자리에 머물러있을수 없으시였다. 어딘가로 훨훨 날아가고싶으시였다.

하늘에서 반짝거리는 해빛이 그이의 눈길을 다른데로 이끌어갔다.

엄청나게 큰 이깔나무 저쪽에 진달래가 여기저기 피여 흐트러졌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방금까지 입귀를 떨며 외우던 혼자말을 문득 그치고 한달음에 달려가시였다.

길손 하나 없는 이 깊은 숲속에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도 곱게 피여났는가. 진달래는 한물이 져서 연분홍 꽃물이 만첩으로 드리운 꽃잎끝에서 뚝뚝 흐를것만 같다.

저쪽에도 꽃이 있다. 아니 꽃만이 아니였다. 묵은 잡초의 떡잎을 헤치고 파란 새풀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청취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옆에 무수해도 있고 찟개나물도 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눈이 빛나시였다. 그것은 산나물밭이나 같았다. 그중에도 청취가 많다.

꺼멓게 퇴색하여 얼기설기 뒤엉킨 떡잎을 뚫고 파랗게 돋아난 청취의 새잎에서는 봄내가 확 풍겨오는듯 하였다.

한참 그 만만한 연록색의 잎을 쓰다듬으며 그윽한 눈길로 사위를 둘러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옆차기에서 언제나 가지고 다니는 작은 치도를 꺼내여 나물밑을 우비시였다.

뿌리쪽에 묻어난 흙을 털어내시니 젖먹이의 살결같이 새하얗고 부드러운 밑줄기에 발깃한 혈색이 물들어있다.

코가 알싸하도록 봄내, 조국의 향취를 풍겨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제는 이 생각, 저 생각 다 버리고 나물을 캐는데 열중해버리시였다.

한잎한잎 우벼서는 부드러운 흙을 털어내고 곁묻어 일어난 떡잎을 다 골라내여 한쪽손에 쥐고 앞으로 나가시였다. 어느새 줌이 벌어져 어디다 건사할것인가 망설이는데 저만치 모록하게 우거진 관목덤불그늘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시였다. 씹어삼키는 흐느낌소리도 들리는듯 하시였다.

누굴가? 조국의 품에 안기여 눈물을 흘리는것은 유난스러운것이 아니였다. 장군님 모시고 10년세월 간고한 혈전의 길을 헤쳐온 지숙한 로대원도 듬직한 정치일군이나 지휘관들도 땅을 그러안고 눈을 슴뻑거리였다. 꽃포기를 그러안고 주르르 눈물을 흘리는 어린 대원들도 있고 진달래를 꺾어들고 흐느끼는 녀대원도 있었다. 자기가 운다는것을 감추려고 어색한 웃음을 짓는 전우들을 서로 바라보며 새로운 감동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누가 이런 으슥한 그늘에 혼자 와서 우는가?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덜컥하는것을 느끼시였다.

《금숙이.》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다가가시였다.

금숙이는 소리없이 돌아보았다. 역시 눈에는 함빡 눈물이 괴여있다가 서둘러 가져가는 손등을 적시였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얼굴은 밝았다.

《언니예요? 아이, 무슨 나물을?》

금숙이는 입귀를 바르르 떨며 웃었다.

《왜 이런데 혼자 와있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진달래꽃포기를 가운데 두고 나란히 앉으며 말씀하시였다.

《언니도… 내가 울고있는줄 알아요?》

《울었다 해도 나쁠게야 있어요. 강철룡소대장동무도 눈이 벌개서 주먹으로 나무를 탕탕 두드리던데… 허지만.》

《허지만 이 금숙이는 사정이 다르다는것이지요?》

하고 금숙이는 다잡아묻더니 대답할 사이도 없이 제절로 뒤를 이었다.

《나는 물론 그 동무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조국의 품에 안기니 멀지도 않은 곳까지 다 와서… 글쎄 여기서 간삼봉이 얼마 되기나 해요. 그렇게 조국을 지척에 두고 쓰러진 그 동무의 일이 가슴을 허비기도 했어요. 그러나 한태혁동무가 바란게 뭐겠어요? 우리 조국땅에 장군님을 모시기 위하여 그 동무도 목숨을 바친게 아니겠어요. 네, 언니… 난

여기 혼자 가만히 앉아 그런걸 생각하니 정말 그때 북대정자에서 장군님께 맹세한것처럼 그 동무몫까지 더 잘 싸워야겠다는 결의가 굳어지기도 했어요.》

《정말 금숙이는 어쩌면 이렇게 용할가…》

김정숙동지께서는 진심으로 감동되시여 금숙이의 손을 어루만지며 길다란 살눈섭이 슴뻑거리는 처녀의 생동한 얼굴을 살펴보시였다.

《아이, 언니도… 어린애처럼 그러네.》

금숙이는 날쌔게 몸을 날려 그이의 무릎에 부끄러운듯 얼굴을 묻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금숙이의 어깨를 쓸어주며 숲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북대정자의 하늘쪽을 바라보시였다.

지난 겨울 갖은 시련을 겪고 후방밀영에서 나왔을 때 금숙이를 기다리고있은것은 태혁이가 가재수 백바위골의 혁명조직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다가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는 소식이였다. 전부대의 사랑을 받던 유명한 기관총수이며 유명한 익살쟁이기도 했던 한태혁의 희생은 유격대원들의 무쇠같은 가슴에 오래동안 피얼룩진 상처를 남겼었다.

그중에도 한태혁이를 남달리 사랑하고 심혈을 기울여 키워오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얼마나 큰 아픔을 겪으셨는가 하는것은 그를 장례지내던 날 천지를 메우며 퍼붓는 함박눈속에 밤이 지새도록 서계셨다는 이야기만 듣고도 짐작할수 있었다.

《그때 우리는 북대정자로 가다가 양지바른 들판에서 냉이밭을 발견했지.》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금숙이는 아이들처럼 고개를 쳐들고 그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으슬막에 둘이서 나물을 캐러 갔을 때 사령관동지께서 오시지 않았어.》

《정말 언니, 난 어찌면 좋아요? 왜놈들때문에 슬픔을 안은게 나뿐이예요? 언니는 부모형제 다 잃지 않았어요? 우리 동무들가운데 누가 원한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유난히 나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못 놓아하시니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장군님께서야 모든 사람의 슬픔을 다 한가슴에 안고계시지, 그런중에도 금숙이때문에 늘 마음을 못 놓으시는것은… 그것은 아마 장군님께서도 한태혁동무를 잊지 못하시기때문일거야.》

금숙이는 부러지듯이 목을 꺾고 다시 김정숙동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갑자기 어깨가 세차게 물결치기 시작하였다.

《얼마나 그리워하던 땅일가. 우리 조국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고도 우리는 이 땅에 안기니 이렇게… 이렇게 눈물이 나도록 기쁜게 아니겠어.》

김정숙동지께서는 감동에 흐느끼는 금숙이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눈귀에서도 가는 이슬방울이 맺히여 주르르 두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총총한 나무가지사이를 뚫고나온 해빛이 그 눈물줄기에 아롱져 유리가루같이 반짝거리였다.

2

사령관동지께서 숙영지로 돌아오시니 어느새 새하얀 광목으로 만든 풍들이 여기저기 일어섰는데 련대들마다 자기 숙영지를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싱갱이였다. 땔나무를 장만해서 우물정자로 가려놓기도 하고 취사장을 널직이 잡아놓고 소랭이들을 부엌치장하듯 주런이 걸어놓기도 하고 지휘부며 우물로 통하는 길을 내고 하면서 아이들처럼 웃고 떠들고있다.

이 숲속에 아주 뿌리를 내리고 살 차비인듯 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묵묵히 숙영지를 돌아나오시였다. 사령부 장풍가까이로 오시니 두 녀대원이 새로 판 우물가에 앉아 열심히 무엇을 씻고있다.

금숙이를 보시는 순간 사령관동지의 가슴은 띠끔하시였다. 부대에 큰 경사가 났다거나 명절같은 때 모두가 즐겁게 웃고 떠들 때면 의례 살펴보게 되시는 얼굴이였다. 그 얼굴에 그늘이 가시고 가슴속에서 피여오르는 기쁨이 어려있을 때면 그이의 가슴은 실로 하나의 성시를 해방한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끼시였다. 그러나 그 얼굴에서 슬픔을 느끼실 때면 사람의 힘으로써는 허물어내기 어려운 요새같은것을 그 녀자의 마음속에서 느끼시는것이였다.

벌떡 일어나서 경례를 하는 금숙이의 눈가장자리는 발깃하게 물들어있었다. 그러나 얼굴빛은 밝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일부러 금숙이의 안색에는 큰 관심이 없으신듯 샘속을 들여다보시였다.

방금 판 샘이라 물은 아직 흙빛을 띠고있는데 그밑에서 대지의 맥박과도 같이 가는 물줄기가 퐁퐁 솟아서는 누렇게 흐린 물에 자그마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돌을 엎어놓은 도랑뚝으로 넘쳐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군복소매를 걷어올리고 야전밥통으로 물을 조심스레 퍼서는 무엇에 쓰자는것인지 열심히 돌을 씻고계시였다.

무슨 생각에 골몰했는지 장군님께서 다가가시는 기척도 못느끼는 모양같으셨다.

《우물을 아주 맞춤한데 팠습니다. 물이 잘 나옵니까?》

장군님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놀라서 일어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걷어올린 소매를 조심스럽게 훑어내리시며 말씀드리였다.

《샘이 면바로 터졌습니다. 높은 산속이기때문에 물이 나오겠는지 걱정했댔는데 얼마 안파서 인차 이렇게 샘이 퐁퐁 솟구쳤습니다.》

《저 하늘높이 솟은 백두산꼭대기에 물이 츠릉츠릉 괴여있으니까 웬만한데는 다 물줄기가 뻗었을것입니다. 그런데 산나물이 벌써 이렇게 자랐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우물가에 수북이 가려놓은 산나물 한줄기를 집어드시고 물으시였다. 어쩐지 그 만만한 연록색의 푸성귀에서도 이 땅의 만물에서 느껴지는 재생하는 생명의 탄력이 향긋한 풋내속에 풍겨오는듯 하시였다.

《음달에 자라는것들이 돼서 아직 성하지는 못하지만 강건너보다는 훨씬 이릅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이렇게 다르단말입니다. 가만 이건 무슨 나물입니까? 청취도 있고 참나물도 있고 별것이 다 있군. 그런데 이건 처음 보는 나물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산나물무지에서 노르께한 애잎 한줄기를 집어드시여 냄새를 맡아보시며 물으시였다.

《우리 고장에서는 무수해라고 하는데… 청취처럼 쌈을 싸먹으면 맛이 있습니다.》

《무수해라,… 원래 산나물이 좋습니다. 쌉쌀한것 같으면서 어딘가 심산의 향취가 깊숙이 배여있는것이 사람의 손때묻은 냄새와는 다른 탈속한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숙동무는 뭘 그렇게 자꾸 씻습니까? 그건 돌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돌을 처음 봤기때문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얼굴을 붉히시며 물에 젖은 돌을 치마뒤로 감추시였다.

《돌을 처음 보다니?》

사령관동지께서는 가볍게 되물으시며 소랭이와 김정숙동지의 얼굴을 번갈아보시였다.

그러고보니 우물둘레는 이미 한절반 자갈을 깔고 단단히 다져놓았는데 소랭이속뿐아니라 삽으로 깎아낸 우물터 저쪽에 무드기 쌓여있는 자갈이 모두 여느 돌과는 달랐다.

《속돌이 아닙니까?》

《저 많은 돌을 정숙언니가 다 날라왔습니다.》

금숙이가 옆에서 말씀드리였다.

《속돌이 돼서 무겁지도 않습니다. 저는 말만 들었지 이렇게 물우에 뜨는 돌은 처음 봅니다.》

김정숙동지의 목소리는 갑자기 젖어들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다시한번 우물터를 돌아보시였다. 누가 팠는지 우물을 파기도 알뜰하게 파고 도랑도 깨끗하고 방정하게 쳤다. 풀을 깎아낸 자리도 네모반듯 하고 길도 곧게 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돌을 그냥 깔기도 아까와서 한알한알 씻어 쪽무이를 하듯 자갈을 펴고계신다.

샘속에서는 어느새 흐린 물이 구름무늬를 이루며 흘러가고 샘줄기가 있는 저밑에서 금모래가 바글바글 끓는것이 보인다. 거기에 젖은 손등을 문지르며 고개 숙이고 서있는 녀대원의 모습이 푸르청청한 숲을 배경으로 어리여있다.

물에 뜨는 돌이 있다는바람에 눈이 휘둥그래져서 아까부터 기회를 엿보고있던 재영이와 상철이가 사령관동지께서 말없이 서계시는 사이 닁큼 속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게 뜬단말이야?》

《야- 가볍구나.》

《맨 구멍투성이니까 뜨지, 이런 돌이 왜 여기만 있을가…》

샘물은 한점 흐린데 없이 맑아졌다.

좁다란 수면에 초록빛 숲과 푸른 하늘과 그 한끝에 걸린 하얀 구름까지 선명하게 비쳐있는데 그 밑창에서는 끊임없이 용솟는 맑은 물줄기가 바글바글 금모래를 일어내고있다.

《물맛이 좋겠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신기한 보물이라도 바라보듯 샘속을 물리지 않고 들여다보며 말씀하시였다.

《정말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물을 계속 마시면 사람의 마음도 깨끗해질것 같습니다.》

금숙이가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서둘러 야전밥통을 정갈하게 부시여 남실남실 샘물을 길어 그이께 받쳐드리시였다.

《원래 이런 물은 두무릎을 꿇고앉아 코잔등을 적시며 흠뻑 들이마셔야 제맛이 나는건데… 어디 맛을 봅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야전밥통을 받아드시고 껄껄 웃으시였다. 어떻게 닦았는지 칠이 벗겨진 대신 알른알른 은빛을 뿌리는 밥통굽에는 뽀얀 김이 서린듯 가는 이슬이 맺혔는데 밥통속에서도 샘에 어리였던 푸른 숲과 푸른 하늘이 그대로 어리여있었다.

《어, 시원하군.》

단숨에 밥통을 절반이나 기울이신 사령관동지께서는 가슴 한끝까지 찌르르해지는것을 느끼시며 호탕하게 말씀하시였다.

《저는 정말 철이 들어서는 이런 물맛을 처음 보는것 같습니다.》

김정숙동지의 목소리는 기쁨에 떨리고있었다.

《조선의 물과 같이 맑은 물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사람들이 모두 조선의 물을 마시러 올 때도 있을것입니다. 자, 우리 꼬마들도 이 물을 좀 마셔보지.》

사령관동지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상철이가 그이의 손에서 야전밥통을 제먼저 받아들었다. 그러나 재영이가 아까 사령관동지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물전에 두무릎을 꿇고 코잔등을 물우에 갖다대자 상철이도 밥통을 놓고 그옆에 꿇어앉았다.

《허허허, 조심들하라구. 다른 사람이 보면 우물을 어지럽힌다고 말듣겠소.》

사령관동지께서는 통쾌하게 웃으시였다.

금숙이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소리내여 웃었다.

김정숙동지께서도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였다.

돌아오는길에 사령관동지께서는 두 꼬마를 한옆에 하나씩 끼시고 숲속을 천천히 걸으시며 백두산부석에 대해 설명해주시였다.

그리고 빽빽이 들어찬 아름드리나무들을 쓸어보며 말씀하시였다.

《부석만 신기한것이 아니요. 나무들을 보라구. 동무들은 내내 밀림속에서 살다나니 나무같은것은 무심히 보는것 같은데 이것은 다름아닌 우리 조국의 나무이고 우리 인민의 재산이요. 얼마나 좋은 나무들이요!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서는 큰 집도 지을수 있고 큰 배도 무을수 있소.》

그러시면서 조국을 해방한 다음 이 나무들로 높고 큰 집들을 지어 행복하게 살 그날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보이시였다.

전령병들은 사실 나무에 대해서는 무심히 보아왔기때문에 그이의 말씀을 듣고보니 부끄럽기도 하였지만 갑자기 새로 돋기 시작한 이깔나무의 연록색 새 순이 더없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이였다. 그들은 꺼실꺼실한 이깔나무의 밑둥을 끌어안고 아스라한 창공높이로 뻗어올라간 우듬지끝을 바라보며 《야- 이건 내 나무다!》 하고 소리치기도 하였다.

숙영지에 돌아오시니 사령부 장풍은 이미 일어선지 오래였다.

《중대장동무.》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아직도 무엇인가 미진한지 풍안을 손질하는데 여념이 없는 오백룡을 부르시였다.

《부르셨습니까?》

오백룡은 조그마한 손도끼를 손에 든채 허리를 폈다. 이때 박덕산이 나타났다.

《마침 잘 왔습니다.》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두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숲속에 우리 인민혁명군전사들이 와서 이렇게 기뻐하는것을 오늘은 별로 알 사람도 없지만 그 뜻은 얼마나 깊은것입니까?》

박덕산과 오백룡은 사령관동지의 말씀의 뜻을 더 깊이 새겨볼양으로 잠자코들 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잠간 두 지휘관의 얼굴을 바라보시다가 감회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조국에 오기 위하여 그 무서운 행군을 했고 마침내 적을 치고 오늘은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까 상철이가 이 땅에 안기기 위하여 우리가 그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했구나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 하던데 우리 동무들 생각이 모두 그럴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심정을 인민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큰 영향을 받겠습니까? 나는 우리 인민혁명군전사들의 이런 심정을 이 숲속에 남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백룡은 비로소 그이의 의도를 짐작하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가 신중한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우리 혁명군대원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긴 글 같은것을 남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을것입니다. 덕산동무, 우리 조선인민혁명군 전사들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싸워왔으며 싸워갈것인가 하는 결의가 어린 그리고 전체 조선인민들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구호를 남겨놓도록 합시다. 나무에 한창 물이 오를 때 나무껍질을 벗기고 좋은 글을 써놓으면 송진이 올라서 오래동안 지워지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면 기념도 되고 또 여기에 목재판로동자들이나 나물 캐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보면 힘을 얻을수 있습니다. 원쑤들은 그것을 보면 질겁할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박덕산은 힘차게 대답하고 달려나갔다.

오백룡이도 서둘러 칼을 찾아들고 뒤따라나갔다.

3

《누나, 빨리요, 빨리－》

상철이가 숨가쁘게 달려오며 소리쳤다. 그뒤를 재영이도 달려오는데 조그마한 손도끼를 한손에 들고 다른 한손에는 비서처의 정지성이가 정찰을 나가면서 맡겨두고 간 붓이며 먹통 같은것이 든 길다란 통을 들고있다.

《아니 왜 이렇게 덤벼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벌떡 일어서서 꼬마들을 향해 마주 다가가시였다. 금숙이도 웬일인가 해서 우물가에 벌려놓은 일감들을 주섬주섬 거두기 시작하였다.

《작식대의 칼 좀 줘요.》

상철이는 칼도마우에 놓인 칼을 넝큼 집어들며 말하였다.

《아니 작식대의 칼을 가져가면 점심은 굶겠어요?》

금숙이가 얼른 칼자루를 마주쥐고 깔끔하게 말하였다.

《야 참 답답하네. 구호를 쓴단말이예요, 구호를!》

《왜 이렇게 덤벼요? 차근차근 말하지 않구.》

김정숙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야 상철이는 시무룩해서 설명하였다. 뒤미처 재영이도 와서 지금 사령관동지의 말씀을 받들고 모두 구호를 쓰자고 나무껍질을 벗기는데 작식대 칼을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가 단연 일등을 한다는것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관동지께서 왜 그런 지시를 하시였을가 하는것이 마음속깊이 짚여오시였다.

《금숙동무, 서둘러요, 우리도 어서 가자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께서 쓰시던 칼을 집어드시고 달리시였다. 그뒤로 금숙이도 달려오고 두 전령병은 어느새 보얗게 앞서 달아났다.

숙영지중심에 오니 통로를 따라 유격대원들이 법석 끓고있었다. 나무꼭대기에 올라가서 두다리사이에 나무그루를 끼고앉아 도끼로 나무껍질을 벗겨내려오는 동무가 있는가 하면 손칼로 두터운 껍질을 벗기노라 서둘다가 손가락을 찔러서 한쪽다리를 들고 냉큼냉큼 뛰는 동무도 있었다.

7련대, 8련대, 독립대대- 구분대들마다 승벽을 부리며 떠들어대는데 사령부부근에서는 의례 붓글씨는 내가 써야 한다는 표정으로 벌써 먹을 듬뿍이 찍은 붓을 입에 물고 수첩장을 번지면서 구호를 고르고있는 오비서의 얼굴도 보이였다.

방금 강철룡소대장이 정찰에 나가고 없어서 그렇지 그가 있었더면 그 소란스러운 목소리와 체격에 어울리는 큼직한 치도로 한몫 단단히 막았겠는데 지금은 오히려 경위중대쪽이 덜 설레이는 편이였다.

여기에 두 꼬마가 달려들어 쨍쨍한 목소리로 숲속을 휘저어놓았다.

《여기요, 여기 이 나무가 제일이라는데… 아지도 없고…》

상철이가 다람쥐처럼 굵직한 이깔나무를 타고 올라가며 김정숙동지께 빨리 오시라고 손을 흔들었다.

정말 곧기도 하고 굵기도 하여 구호를 쓰기는 안성맞춤인 나무였다.

《도끼로 아래우를 어이고 벗겨요. 그렇게 억지로 덤비다간 손만 다쳐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재영이가 가져온 손도끼로 밑껍질을 쳐서 세로 어인 다음 칼을 가져다대면서 말씀하시였다. 꼭대기에 나무를 끼고앉아 억지로 껍질을 벗겨내느라고 갑자르던 상철이는 그제야

《도끼, 도끼, 도끼 좀 올려보내라는데.》

하고 소리쳤다.

눈치빠른 재영이는 잠시 무엇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손도끼를 상철이에게 넘겨주고 어디론가 힝하니 달아났다.

김정숙동지께서 칼로 껍질을 벗기시는 사이 금숙이는 도끼를 가지고 다른 나무로 달려갔다.

어느새 숲속에는 갑주같이 두텁게 둘렸던 껍질을 벗기우고 수십년 감추고있던 순결한 속살을 새하얗게 드러낸 나무들이 여기저기 나타났다.

저쪽에서는 벌써 구호를 다 썼는지 쓰는중인지 랑송조로 《꿈속에서 잠잘 때가 아니다… 일본제국주의는 사면포위에 빠졌다!》하고 읽는 목소리도 울려왔다.

오비서도 붓을 들고 나무앞에 붙어서서 아래우를 가늠하고있다.

《누나, 자 여기 올라서라요.》

어느새 재영이가 도끼모태같이 잘라낸 통나무토막을 방금 벗긴 멋진 나무밑에 갖다세우며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먹을 먹인 붓까지 들리여있었다.

벌써 석대째 껍질을 벗기고있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깜짝 놀라며 누가 듣지 못하게 말씀하시였다.

《어서 오비서를 청해와요. 난 이런 구호는 써본 일이 없어서 못써요.》

《오비서는 이런거 해보았어요? 사령관동지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건데… 우리가 벗긴 나무는 아무도 못써요. 누나가 써야 해요.》

그렇게 의젓하고 리해성있던 소년이 얼굴이 시뻘개서 고집을 썼다.

《누나, 빨리 쓰라요. 우리 혁명이 승리한 다음에 난 여기 와서 누나가 쓴 구호를 찾아보겠어요. 그때 누나가 쓴것이 없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상철이가 바로 나무꼭대기에서 이렇게 말하는바람에 김정숙동지께서는 당황해지시였다.

그러는데 금숙이가 재영이 손에서 붓을 받아들고 다가와서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언니, 다같이 혁명을 한다지만 혁명자마다 남다른 심정이 있지 않겠어요. 난 정말 언니의 심정이면 그대로 내 심정일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여기에 남기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겪은 시련이랑 또 잃어버린 전우들이랑 이런걸 남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언니가 꼭 써야 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손을 멈추고 금숙이를 돌아보시였다. 커다란 눈에 글썽하니 눈물이 괴여있다. 금숙이는 무엇을 말하고싶을가? 그 말에 얼마나 많은 호소가 담겨져있는가. 또 어린 나이에 부모형제 다 잃고 혁명의 총을 메고나선 나어린 상철이며 재영이의 가슴엔들 얼마나 절절한 소원이 간직되여있을것인가. 그것은 김정숙동지자신의 가슴을 두고봐도 그렇다. 실로 몇십권의 책을 써도 다 표현하지 못할

기구한 사연들이 가슴마다에 깃들어있다. 그것을 몇글자의 구호속에 어떻게 다 담으라는것인가.

김정숙동지의 사색은 차츰 깊은 곬으로 파고들어갔다. 상철이며 재영이의 부모형제들이, 부암땅에 묻고 떠난 어머니와 사슴페골짜기에 묻힌 동생이 무엇때문에 왜놈들의 총칼을 맞고 쓰러졌는가. 재주도 뛰여나고 인품도 의젓하던 전우들이 부모처자 기다리는 따뜻한 아래목을 마다하고 눈바람 사나운 《고난의 행군》길에 나서서 청춘의 가슴으로 혁명을 보위하다가 목숨을 바친것은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조국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헐벗고 굶주리는 근로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였다. 혁명의 길에 쓰러진 그들이 오늘 세상사람들을 위하여 웨치고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원쑤와의 결사전에 떨쳐나서라는 호소가 아닐것인가.

《언니, 내 생각을 해서라도 하나 써주세요.》

금숙이가 다시 이렇게 말하며 칼을 받아들고 붓을 쥐여드리였다.

형세가 피할길이 없게 되시였다. 김정숙동지자신의 심중에도 갖가지 감회가 소용돌이치면서 무엇인가 이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싶으신 절박한 생각을 몰아왔다.

《내 글씨가 서툴다고 흉보지 말아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세사람을 돌아보며 웃으시였으나 그들은 벌써부터 긴장되여 닭알침을 삼키며 그이의 손만 지켜보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재영이가 단단히 뻗쳐놓은 통나무우에 올라서서 잠시 감을 바라보시였다. 글자가 너무 많아도 안될것이다. 그러나 지내 짤막하게 쓰자면 우선

글자가 커야 하겠는데 큰 글씨에는 자신도 없거니와 이 절박한 심정들을 담아낼것 같지도 못하시였다.

《야, 저쪽에서는 벌써 다 쓰는것 같아요.》

하고 상철이가 마른침을 삼키며 재촉하였다. 아닌게아니라 독립대대숙영지에서도 7련대와 8련대의 숙영지에서도 와- 와- 끓어번지는 소리가 울려오고 멀지 않은 곳에서는 오비서를 둘러싸고 기관총소대원들이 웅성거리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번 쓰면 다시는 지울수도 고칠수도 없다는것을 명심하시고 머리속에 그리는 구호의 글자수와 감의 기장이며 폭을 몇번이고 가늠해본 다음 결단성있게 붓을 갖다대시였다.

《일어나라.》

몇자 쓰기도 전에 벌써 나무밑에서는 《일-어-나-라》하고 읽어내려갔다.

《일어나라 단결하라 전체 로력대중들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자.》

이러한 구호가 새하얀 나무결우에 선명한 먹자국을 남기며 두드러져올랐을 때 밑에서는 숱한 사람이 와- 하고 떠들며 손벽을 두드렸다.

이마에 보송보송 맺힌 땀방울을 훔치며 나무토막에서 내려서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깜짝 놀라서 돌아보시였다. 어느새 주변에는 수많은 유격대원들이 모여들어있었고 저쪽에서는 《김정숙동무가 구호를 쓴다!》하고 웨치며 달려오는 동무도 있었다.

《야, 이건 꼭 내 마음이로구나.》

기관총수 최병규가 이렇게 말하며 전에없이 활달한 태도로 김정숙동지께 악수를 청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붓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자고 하시였으나 아무도 받자는 사람이 없었다. 그중에는 직관물공작을 하던 동무도 있었으나 기를 쓰고 김정숙동지께서 쓰셔야 한다고 우기고 나섰다. 점심차비가 늦어진다고 걱정하시자 제가 가서 짓겠다고 팔을 걷우고나서는 사람까지 있었다. 결국 자신께서 벗긴 나무는 말할것 없고 다른 동무들이 벗긴 나무에까지 가서 구호를 쓰게 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석대째 구호를 쓰셨을 때였다.

농민복으로 변장한 기관총수 장경수가 달려와서 금숙이와 김재영이를 사령부로 불러갔다.

4

이무렵 사령관동지께서는 각지로 내보내신 정찰조들가운데서 일부 먼저 돌아온 정찰조들과 숙영지에서 나무찍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부근 목재판의 로동자들을 만나보시고 막 사령부 장풍에서 나오시는길이였다.

정찰조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5호물동을 건너오기 전에 적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기 위하여 진행한 24도구목재소와 횡산목재소로 가는 위만군 말파리떼에 대한 습격전투는 적들에게 큰 충격을 준듯 하였다. 지난 4월초 해동과 함께 련속 구가점, 15도구, 반절구 등 압록강기슭을 얻어맞은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이번에 틀림없이 압록강기슭에서 무슨 큰일을 치자고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관동군에서는 1군관구의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여 《련합토벌사령부》 관하에 넘겼으며 경찰《토벌대》들을 증설하여 내보냈다.

이에 발맞추어 조선총독부와 조선주둔군쪽에서도 호인, 신갈파, 혜산 방향에 철통같은 방위진을 구축하느라고 지금도 병력들이 그냥 압록강기슭쪽으로 쏠리고있다는것이였다.

그것은 다 사령관동지께서 이번 춘기반타격전으로 넘어가면서 국내진공작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포치하신 전투들이였고 전술적조치들이였다.

모든 징후는 사령관동지께서 타산하신것이 어김없이 꼭 들어맞았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뒤를 따라오는 지휘관들을 향하여 뜻밖의 과업을 제기하시는것이였다.

《동무들, 습격조를 두개만 조직합시다.》

이처럼 심상하게 하시는 그이의 말씀을 듣고 7, 8련대 두 련대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아까 말씀하신 서쪽에서 총소리를 울릴 습격조입니까?》

8련대 정치위원 박덕산이 성큼 그이곁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얼마만 한 규모로 언제쯤 하면 좋겠는지 구체적인 안을 세워야겠습니다.》

《그런데 정찰조의 보고를 들어보면 저놈들이 몹시 덤비는것 같은데 총소리를 울려도 일없겠습니까?》

경위중대장 오백룡이 난색을 짓고 말씀드리였다.

《총소리를 내면 저놈들이 우리가 강을 건너왔다는것을 눈치챈다는것입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용히 되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삼엄한 경계망을 펼쳐놓았다는데 어디서 총소리가 나기만 하면 우르르 쓸어들것 같습니다.》

하고 오백룡이 몹시 가빠하며 뒤를 잇대였다.

《제 생각에는 무산쪽으로 좀더 나가서 조직하는것이 사령관동지의 구상을 실현하는데도 좋고 또…》

《또 사령부의 안전도 담보된단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백룡은 처음에는 좀 우물쭈물하였으나 이 문제에서만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립장이 확고해야 한다고 믿고있었으므로 잘라서 말씀드리였다.

《7련대장동무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심각해진 오백룡의 표정을 웃음짓고 바라보시다가 생각에 잠겨있는 오중흡을 돌아보시였다.

《우리가 무산쪽으로 재빨리 나가서 백두산동쪽을 차지하자면 지금 그쪽에 있는 적들을 이리로 끌어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들을 어디서 타격하겠는지 하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투를 안한다면 몰라도 전투를 한다면 여기서 맞다드는것이 불리하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천천히 숙영지를 거니시며 미끈하게 자란 이깔나무줄기를 쓰다듬어보시고 두드려도 보시였다. 그러시다가 새순이 피여오르는 우듬지쪽으로 눈길을 보내시였다. 푸른 하늘도 연두빛의 새 순도 무엇인가 속삭여주는것만 같으시였다.

《우리가 원쑤를 치자고 조국에 왔는데 어떻게 전투를 안할수 있겠소? 전투를 해도 큼직하게 해서 놈들의 등심뼈가 부서지도록 쳐야겠습니다. 이러한 전투를 우리는 무산지구에다 적을 끌어다놓고 크게 벌려야 합니다. 그래서 숨죽이고 사는 우리 인민들에게 신심을 안겨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인민들과 혁명조직을 놈들의 야수적탄압에 내맡길수 없습니다. 그러자면 국내에서 총소리를 한번 울리는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여름에 우리는 두만강기슭을 넘나들면서 적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제압해놓고 정치공작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위중대장동무는 저놈들이 아직 우리가 강을 건너선것도 모를줄 알고있지만 적들도 그렇게까지 장님들은 아닐것입니다. 오늘 정찰조동무들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는가? 놈들이 우리가 국경지대로 나오는것을 알고있으며 또 대단히 급해한다는것입니다. 무엇때문에 그렇게 급해하는가? 물론 놈들의 통치체계전반에 타격을 주기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도 아닌것 같습니다. 저놈들에게 무슨 일인가 생긴것 같습니다. 무엇이 생겼는가 하는것은 차츰 밝혀질것이지만 놈들은 우리의 이번 국내진출에 대해 대단히 큰 반응을 보이고있으며 우리를 막아보겠다고 발악적으로 날뛰고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전략적구상을 실현하는데 오히려 유리한 국면을 열어준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놈들은 지금 우리를 막아보겠다고 국경을 따라 길게 늘어져있습니다. 적들이 정신없이 돌아치는 조건에서 저놈들을 몽땅 한곳으로, 즉 이 압록강기슭으로 불러와야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슬쩍 몸을 날려 두만강기슭으로 옮아앉으면 적들은 미친듯이 그쪽으로 다시 쓸어들것입니다. 그때 든든히 준비를 하고있다가 들이쳐야 합니다. 그래야 단꺼번에 적의 기본집체를 허물어뜨릴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총소리를 가볍게 울리면 무산지구의 적들을 끌어올수 있을뿐아니라 다시 압록강쪽으로 건너간듯이 만들어놓으면 저 관동군놈들도 압록강여울만 뒤지고 돌아갈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국내에서 적을 치고 그달음으로 두만강을 건너가서 든든히 차비를 하고있으면 뒤늦게 백두산줄기를 타고넘어오는 관동군놈들을 다시 호되게 족칠수 있을것입니다.》

《사령관동지.》

하고 박덕산이 흥분한 어조로 물었다.

《습격조를 두개 조직하는 까닭은 하나는 유격대가 조선으로 건너왔다는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유격대가 다시 압록강쪽으로 넘어갔다는것을 보여주자는것입니까?》

《대체로는 그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사령관동지.》

하고 오중흡이 심중한 낯빛으로 한참 손가락을 꼽으며 생각하더니 그로서는 드물게 웃음을 짓고 말씀드리였다.

《제 생각에는 그놈들이 상당히 급해할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일상 고정한 성미인 오중흡이라 다른 지휘관들도 좀 떨떨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제가 이제 사령관동지의 구상을 듣고 간단히 회계를 해보니 그놈들이 이 며칠사이에 수백리씩 헐떡거리며 뛰여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얼마나 숨이

가쁘겠습니까. 자 혜산가까이에서 총소리를 울려주면 이 어방에 있는 놈들은 말할것 없고 무산지방에 있는 놈들까지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와야 할것 아닙니까. 그게 아마 200리는 넘을것입니다.》

하고 오중흡은 다시 손가락을 꼽으며 전에없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른 습격조가 또 압록강기슭을 쳐놓으면 이놈들은 혁명군이 장백으로 건너갔는가 했는데 그쪽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넘어온것이 없대, 그러니까 이 숲속을 샅샅이 뒤지겠지요. 그럴 때 무산쪽으로 쭉 빠져서 총소리를 또 울려놓으면 이번에는 여기서 어스벙거리던놈들이 또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가야 할것 아닙니까. 혁명군의 총구가 바로 그렇게 헐떡거리는 가슴을 겨누고있다는것도 모르고… 참 숨이 가쁘겠습니다.》

오중흡은 심중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허허허, 오중흡동무가 이제 보니 회계가 여간만 밝지 않습니다. 나는 그놈들이 달릴 리수까지는 계산해보지 않았는데… 그래 경위중대장동무 생각에는 어떻소?》

오백룡은 더수기를 긁적거리며 시무룩이 웃다가 정색하고 말씀드리였다.

《제 생각에는 이런 숲속에서 적을 기다리는것이 아니라면 될수록 그 습격전투를 빨리 조직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놓이는군.》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우리 경위중대장동무가 국내에 들어오더니 더 엄격해졌습니다. 오백룡동무를 설복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위중대장동무도 찬성했으니

마음놓고 적들의 코에 낚시를 걸어봅시다. 이 습격전투는 박덕산동무가 책임지고 조직해야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다시 토론합시다.》

《알았습니다.》

《그럼 동무들은 가보십시오. 나는 장경수동무를 만나보고 곧 가겠습니다.》

막 지휘관들이 숲속으로 달려갈무렵 장경수가 금숙이와 재영이를 데리고 와서 보고를 드리였다. 상철이도 함께 달려왔다. 장경수는 어느모로 보나 뜨내기품팔이군처럼 차리고있었으나 그가 일상 그런 모양으로 정찰도 나다니고 통신원공작도 하기때문에 이제는 모두 버릇이 붙어 군복을 입은 그를 보는것이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아직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긴장된 표정으로 서있는 금숙이의 얼굴을 잠시 뜯어보시다가 인차 실무적인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금숙동무는 13도구에 공작나갔을 때 입고 갔던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 치마저고리말씀입니까? 그것은 김정숙동무가 공작다닐 때 입던 옷이기때문에…》

《그럼 김정숙동무에게 그런 옷이 아직 있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동무들은 우리가 북대정자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국에 진출하여 적들에게 군사적으로 타격을 주는 한편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 인민에게 신심을 주기 위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혁명조직을 많이 꾸려야 한다는것을 압니까?》

《예.》

하고 세사람이 한꺼번에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만강기슭으로 나갑니다. 그쪽에 가서 아마 전투를 큼직하게 하고 계속 적들을 달고다니며 족쳐서 두만강일대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장악하자고 합니다.》

재영이와 금숙이는 말할것 없고 미리 무슨 분분가를 들은듯 한 장경수도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까닭을 짐작할수 없어 그이의 안색을 우러러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령관동지의 안색은 언제나 다름없이 부드럽기도 하시고 엄숙하기도 하시였다.

《그러나.》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먼곳으로 눈길을 옮기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러한 전투를 아무리 크게 벌린다 해도 한두번의 전투로써 우리 혁명을 끝낼수는 없고 우리의 한을 다 풀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착실하게 우리 혁명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동무들중 몇사람을 지방조직에 공작을 보내자고 합니다.》

장경수는 비로소 사령관동지께서 전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까닭을 짐작한듯 하였으나 재영이와 금숙이는 좀 어리둥절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한참이나 동안이 지나서야 말씀을 이으시였다.

《장경수동무는 본시 경험이 많고 또 금숙동무도 이번에 조국으로 나오면서 13도구지방에 들리여 공작을 잘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에 국내에서 파괴된 조직을 복구하고 그에 의거해서 새로운 혁명가들을 대대적으로 길러내며 전체 인민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장경수동무와 금숙동무, 재영동무가 셋이서 조를 무어 풍산으로 나가야겠습니다. 혜산 괘궁정앞에 가면 흥아목재상이라는 목재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풍산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는것을 알려줄것입니다. 풍산에 가서 수행해야 할 과업은 우선 그곳 파괴된 조직의 성원들과 련계를 짓고 조직을 복구할 대책을 세우는것입니다. 그 방법도 혜산련락소에서 잘 토론해가지고 가시오. 기일은 5일간입니다. 공작이 끝난다음 삼수평부근에서 두만강을 건너 큰골로 찾아와야 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위장대책에 대해서와 련락소와 통하는 암호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주시고나서 정세가 정세인만큼 장경수동무와 김재영동무는 든든히 무장을 갖추고 뒤에서 금숙동무를 호위하며 공작을 하는것은 주로 금숙동무가 앞에 나서서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것으로 임무는 다 주신듯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곧 그이앞에서 물러나려 하였다. 그러나 그이의 안색에는 아직도 더 하실 말씀이 계실듯 하였다. 그들이 쭈밋거리는데 아니나다를가 사령관동지께서는 석쉼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닷새동안이면 련계를 짓는데 기일이 그리 촉박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가지 사사로운 부탁을 하자고 하는데… 이제 동무들이 가게 될 그 부락에서 갑산쪽으로 넘어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신양광산이라는 광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직도 그런 광산이 있기나 한지… 그게 바로 한태혁동무가 4년전에 누이동생을 두고왔다는 광산입니다.》

《예?》

네사람은 한꺼번에 고개를 버쩍 들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전혀 못 느끼시는듯 백두산쪽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가망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찾아보시오. 한필네라고… 그때 열일곱살이라고 했으니 이제는 스물이 넘은 다 자란 처녀일것입니다. 가서 찾아보시오. 혹시 찾거든… 데려오시오.》

《사령관동지.》

장경수는 눈물이 글썽해서 부르짖었다. 금숙이는 소리없이 어깨를 떨며 흐느꼈다.

그들은 사령관동지께서 자기들을 함께 부르시여 풍산지구로 공작을 떠나보내시려는 깊은 의도를 비로소 짐작한것이였다.

희생된 전사들을 제일 못 잊어하시는분은 사령관동지자신이시였다. 그러면서도 전사들의 가슴에 깃들인 그늘을 가시여주려고 조국진군작전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해나가시는 거창한 투쟁속에서도 이처럼 전사들의 사사로운 넘원까지 헤아리시여 사업조직을 하신것이였다.

사실 금숙이는 태혁이생각을 늘 하고있었지만 그의 누이동생이 있다는 광산으로 가볼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고 그 광산이 어데쯤 있는지 잘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 사령관동지께서 풍산지구에서의 공작임무에 이어 필네를 찾을데 대한 과업을 주셨을 때 금숙이는 자기가 바친 희생에 비하여 그이의 사랑은 너무나 크다는것을 뜨거운 눈물속에 깨달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뒤전에 서서 소매로 눈굽을 훔치는 상철이의 머리를 쓸며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재영이의 총을 건사하라구. 그리고 우리는 저 무산쪽에 나가 원쑤를 갚자구.》

상철이는 그이의 옷자락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이윽고 사령관동지의 뜻을 가슴깊이 새긴 세사람은 흐트러진 옷매무시며 얼굴들을 바로잡고 그이앞에 단정히 서서 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할데 대해 보고를 드리였다.

5

구질거리는 비안개속에 차가수물동이 저만치 바라보이자 필네의 발걸음은 절로 떠졌다. 찌르르 하고 무엇인가 아픈 정이 명치끝을 훑어내리는것 같았다.

일행은 는개비에 축축히 젖어서 부지런히 걸음을 다우친다. 맨앞에 나란히 걸어가는 장대선아바이와 춘길이는 곁눈 한번 팔지 않고 오솔길굽인돌이로 사라지고 큼직한 고리멜빵을 멘 윤원구는 아이를 업고 임보퉁이를 인 안해에게 무엇인가 또 지청구를 대다가 성이라도 났는지 와락와락 물탕을 튕기며 멀어져갔다. 류랑가수 김인수만이 물동다리우에서 어수선한 정경을 잠시 굽어보다가 부러진듯이 목대를 떨구고 터벅터벅 걸음을 옮겨놓는다. 나들나들 해여진 춘추외투우에 색날은 중절모를 쓰고 큼직한 등산배낭과 바이올린통을 둘러멘 그는 노래를 팔러 팔도강산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서 어찌어찌해 산판에 들렸다가 우연히 일행에 끼여들었다.

본시 광산에서 굴러온 윤원구네 일행이 하칠소토장을 털게 되니 다시 광산으로 밥벌이를 찾아가는것이나 요즘 노다지바람이 불어 인총이 물밀듯이 쓸어든다는 그곳 금천동으로 가서 노래를 팔아보겠다는 김인수의 생각이나 생의 막다른 몸부림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것이였다.

아무도 물동다리의 서글픈 정경같은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정섭이와 필네만이 비안개속에 떠오르는 그 어수선한 모습을 무심히 볼수 없었다.

말끔히 찍어넘긴 이깔나무의 등걸들이 마치 무덤앞의 표말처럼 는개비에 번들거리고 물동가에 앙상하게 서있는 잡관목가지들은 지나가는 바람결에 우수수 설레이며 비말을 휘뿌린다. 겨우내 실어낸 통나무들이 하얗게 눈을 쓰고있더니 이제는 첫떼를 띄울 때라 모두 헐리여 편벌장에 이리저리 헤쳐진채로 비를 맞고있는것이 불타다 남은 집터같이 허무한 생각을 자아냈다.

길가에 바투 나붙은 강기슭에 웬 낚시군 둘이 우장을 쓰고 앉아있는것이 보였으나 그것 역시 황폐한 자연을 강조해주는 고목같은 인상을 자아냈다.

낚시질을 할만 한 철도 아니고 그럴만 한 장소도 아니건만 그런 생각 역시 떠오르지 않았다.

두사람의 잊을수 없는 추억이 깃들어있는 곳이였다.

그 추억마저 궂은비를 들쓰고 황폐화돼버린듯 하여 떠나는 마음이 저리도록 가슴을 비틀어준다. 정든 땅을 떠나는것이 그리고 정든 사람들과 헤여지는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가 하는것을 수라에 넘치는 물소리, 앙상한 개버들가지를 울리는 바람소리가 가슴을 두드리며 하소하는듯 하다.

필네는 비풍이 치는 임밑으로 정섭이를 돌아보았다. 정섭이의 모습도 말이 아니였다. 등에 업힌 윤원구의 아들애에게 큰저고리마저 씌워주어서 홑잠뱅이에 토스레적삼을 걸쳤을뿐인 그는 퍼렇게 언 허리가 드러나서 비물에 번들거리지만 추운것도 느끼지 못하는지 침울한 눈매로 차가수의 흐름만 바라보고있다. 그렇게 비를 맞고도 길들지

않는 정수리의 총이 센 머리카락만이 뻗두룩하게 일어서있는것이 고집스러우면서도 우습강스럽고 서글서글한 성미를 엿보게 할뿐이였다.

이제 한 10리 더 가서 무포어방의 갈림길에 이르면 그는 자기 집이 있는 신사동쪽으로 갈라져갈것이다.

그는 말미를 얻어 부모동기가 있는 제집에 다니러 가는것이니 다른 사람들과는 사정이 다르다. 그러나 정섭이의 낯색은 그 누구보다도 어두웠다.

필네는 그 역시 이 리별을 괴로와한다는것을 몸으로 느끼였다. 그것이 고맙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섭이의 낯빛이 어두운것은 그것때문만은 아닐것이다. 그에게는 남다른 근심도 있다. 얼마전에 신사동으로 이와실이를 갔던 삼수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정섭이네 집 기별을 가지고왔었다. 두 동생이 모두 홍역을 중하게 앓는데다 동네에서 경비도로 부역이 심하여 돌볼 손이 없으니 벌구를 옮기는 기회에 며칠이라도 다녀가라는 할아버지의 전갈을 받았을 때 필네 역시 가슴이 덜컥하였다. 그 귀여운 영섭이가 홍역을 앓는다니 자기아래로 동생 셋이나 홍역마마에 떼웠다는 정섭이의 말이 생각났다. 필네는 제가 등이 달아나 한시바삐 다녀오라고 권하였다. 그러나 하칠소토장이 아주 산판을 옮기는판이라 마지막 회계를 보느라고 차일피일 며칠을 끌다가 결국 화룡땅 금천동으로 가는 일행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된것이였다. 동생들이 앓는것도 문제지만 3년전에 아버지가 죽고 60로인인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화전을 뚜져 근근 연명해가는 그 집의 살림살이 또한 말이 아니였다.

《홍역은 어려서 앓아야 쉽게 넘긴다는데…》

필네는 한걸음 떨어져서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으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작은놈들이 더 잘 죽더구만…》

정섭은 흥심없는 목소리로 대꾸하였다.

《홍역을 앓지 않고 넘길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흥, 무덤속에 들어가서도 한번은 앓고야 배긴다는걸.》

《그래서 모두 어릴 때 겪는게 좋다지 않아요. 작년에는 참 쉽게들 치렀다는데…》

이렇게 근심에 싸여 말하는 필네의 눈앞에 저 물동다리를 까치걸음을 치며 달려오던 영섭이의 모습이 선히 떠올랐다.

그때는 겨울이였지만 물동다리가 지금처럼 어수선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겨울보다도 더 밝게, 더 희망에 넘쳐서 물동다리를 건너서던 그런 때도 있었다.

그것은 언제였던가?

정섭이와 함께 즐거운 침묵속에 가쁜숨을 몰아쉬며 저 물동다리를 천천히, 천천히 될수록 오래 끌며 건너서던 지난해의 그 여름밤은 달이 밝았다. 여울에 흐트러지는 물속에서 절반쯤 이지러진 반달이 나란히 걸어가는 두사람을 마주 올려다보며 웃어줄 때 필네는 금시까지 밤길을 혼자 걸어온 무섬증도, 험한 숲속으로 혼자 가라고 내몬 밥집주인 김장로에 대한 원망도 다 잊어버렸었다.

그때만 해도 토장이 옮아가기 전이라 차가수를 따라 채벌장들이 널려있었다. 현장창고도 그 어름에 있었다. 밥집주인인 김장로와 함께 량식을 타러 갔던 필네는 밤이 깊어서야 두자루나 되는 호좁쌀을 이워주며 혼자 돌아가라는 그 늙은것의 말을 듣고 주저앉을번하였다. 지금은 뭇청부업자들이 송충이처럼 달라붙어 갉아대는바람에

한해사이에 홀랑 벗기우다싶이했지만 그때는 아름드리 이깔나무가 빼곡이 들어찬 원시림속이였다. 그런 숲속오솔길로 아직 달도 떠오르기 전에 어린 처녀를 혼자 보내다니… 제가 술추렴을 하겠으면 저물기 전에 가라는 소리는 왜 못한단말인가.

못가겠다고 발버둥이라도 치고싶었다. 그러나 필네는 입을 감쳐물고 군소리 한마디 없이 길을 떠났다. 더러운놈, 어차피 돈있는놈들이란 그런것이다. 오빠 태혁이가 유격대로 떠나가면서 아무리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말라고 당부했다. 더구나 돈푼 있는놈에게서는 절대로 동정이나 인심을 바라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마음을 모질게 도사려먹고 떠났다. 그러나 정작 숲속에 홀로 나서고보니 새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조막만큼 죄여들고 식은땀이 발발 내솟아 어느새 적삼이 화락하니 젖었다. 한참 깊은 숲속에 들어서니 달이 솟아올랐다. 달빛은 깊은 숲속에 더 무시무시한 그림자를 던져주었다.

너무나 겁이 나서 한절반 얼이 빠져 차가수물동다리에 접어들었을 때 귀에 익은 휘파람소리가 울리여왔다.

정섭이였다. 정섭이도 [redacted] 사무실에 회계를 보러 왔고 창고앞에서도 어슬렁거리다가 한발먼저 돌아갔었다. 그가 어떻게 이 물동가에서 혼자 기다리고있었을가? 실은 토장이나 밥집에서 제일 만나기 두려운것이 정섭이였다. 총이 센 머리카락이 뻗두룩하게 일어서가지고 아무에게나 덥적덥적 우스개소리를 던지고 싱글싱글 웃기 잘하는 그를 누구나 사랑하였다.

화전농의 집에서 태여난 그는 열대여섯살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겨울이면 이와실이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세상떠난 다음은 아예 벌목부가 되여 리명수, 압록강 줄기의

목재판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덩치가 크고 힘꼴이나 쓰는 정섭이는 남들이 손붙이기 싫어하는 일거리를 말없이 찾아가서 도끼를 휘둘러대기도 하고 둔장대를 어깨에 들이대고 힘을 쓰기도 하였다. 밥집에 돌아와서도 어려운 일손을 거들어주는것은 정섭이였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업고가는 윤원구네 아들형제를 끔찍이도 귀여워했다. 멀지 않은 신사동 자기 집에도 동생들이 있다고 하면서 진철이의 오줌을 잠뱅이에 몇번이나 받아냈는지 모른다.

그런 그가 한번은 군산림주사 리호철이와 대판으로 싸움을 하고 주재소에 잡혀가서 매를 맞은 일이 있다. 쉬쉬하고 돌아가는 소린즉 정섭이가 토장에서 쉴참에 전년 봄처럼 유격대가 쳐나와서 이놈의 세상 활딱 뒤집어놓았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했는데 그것이 마침 지나가던 리호철의 귀에 들어가서 크게 동티가 생긴것이라고 하였다.

필네는 자기 마음이 은근히 그에게 끌린다는것을 문득 깨달은 어느날 너무나 부끄러워 부엌에서 한동안이나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싸쥐고 쩔쩔맸으며 그날은 종일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누구와 말도 나누지 않았다. 그날부터 정섭이와는 일부러 푸접없이 굴었다.

오빠가 유격대로 떠나가서 고생하시는데… 왜놈들이 돌리는 말을 들어보면 유격대가 숲속에서 몽땅 굶어죽고 얼어죽었다고 떠드는데… 그것이 설마 사실은 아닐테지만 깨끗한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오빠를 기다려야 할 자기가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는 이런 때 마음이 들떠있다는것은 부정스러운 행실이라고 생각되였다.

하지만 그 사람도 유격대를 기다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였으나 모진 마음을 먹고 그런 생각을 눌러버렸다.

자기가 푸접없이 굴어주면 정섭이는 어이가 없는지 멍하니 바라보다가 흥 하고 코방귀를 내불고 휘적휘적 걸어가며 휘파람을 불어대군 하였다. 그 거동이 우스워서 때로는 모질게 먹었던 마음을 비집고 저도 모르는 사이 따뜻한 미소가 피여오르군 하였다.

그 정섭이가 그중 후미진 차가수물동가에서 기다리고있는것이였다. 거기서 하칠소토장의 밥집까지는 댓마장 잘되였다. 놀러나올만 한 길도 아니였고 그럴만 한 곳도 못되였다. 차가수가 굽이돌아가는 바위벼랑에는 언젠가 시라소니가 나타나서 사람을 해쳤다는 말도 돌아갔다.

필네는 정섭이라는것을 알자 금시 소리치며 달려가고싶도록 반가왔다. 그러나 정작 다가가서는 어떻게 알고 기다렸느냐는 말도 하게 되지 않았다.

《두자루씩 포개이고… 무슨 목대가 그렇게 든든한가.》

정섭이 역시 이런 소리를 하며 이고가던 낟알자루를 닝큼 빼앗아멨을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또아리를 탈아쥐고 꼬깃거리며 자루 하나는 도로 내라고 말하고싶었지만 인두로 지지는것처럼 입안이 말라들어서 한마디 말도 번질수 없었다. 결국 물동다리를 건너서도 5리나 되는 밤길을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걸었다. 밥집의 불빛이 바라보이는데 와서야 정섭이는 자루를 도로 이워주며 《에- 잠만 밑졌군.》 하고 싱거운 소리 한마디를 남기고 휘적휘적 먼저 사라져버렸다.

웬일인지 그날부터 두사람사이는 가까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버성겨진듯싶었다.

그무렵부터 벌써 하칠소토장의 분위기는 어수선하였다. 산판이 다 파먹은 김치독같이 되여 채벌장을 더 깊이 옮기는데 이 봄에는 어디에 가서 밥탁에 얻어걸릴것인가 하는 골치아픈 공론들을 밤마다 벌리고있었다.

필네와 함께 이태째 김장로밥집에서 거접하고있는 윤원구며 대선아바이, 춘길이 같은 사람들은 본시가 벌목부가 아니라 멀지 않은 고진동에서 광산이 망하는바람에 쫓겨난 광부들이였다.

하칠소토장이 파장이 됐다면 백두산기슭에 숲이 없겠는가. 지금 왜놈들이 《북선개척》이라 해서 남도치들을 《보국대》로 기수없이 끌어오는판에 걱정이 무슨 걱정이냐고 모두 말은 태평스럽게 했으나 속들은 다 편안치 않았다. 윤원구는 안해가 기다리다못해 아이들을 업고 찾아왔으니 별문제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돈을 벌어서 돌아가리라 다짐을 두고 떠나온 고향이 있고 식솔이 있는것이다.

그런판에 군산림주사 리호철이가 최근에 군청일을 그만두고 화룡땅 금천동에 금광을 벌렸다는 소문이 돌아가더니 김장로밥집에 오랜 굴쟁이들이 거접한다는것을 알고 밥집식솔을 통채로 끌어갈 꿍꿍이를 꾸몄다.

그 흥정이 근 한달가까이나 끌다가 마침내 오늘 이 길을 떠나게 된것이였다.

고진동에서 윤원구네와 함께 있으면서 밥집의 식모살이를 해온 필네는 강을 건너갔대야 식모살이하기는 매일반이였다. 그러나 필네도 윤원구네와 함께 김장로밥집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오빠가 유격대로 떠나갈 때는 유격대가 장백땅을 완전히 깔고앉아있을 때라 만날 날이 그리 오래지 않다고 오빠도 타일렀고 어린 필네도

그 말을 믿었었다. 유격대가 보천보를 들이칠 때 필네는 자기도 이제는 오빠를 만나더는 외롭게 살지 않아도 될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던게 지난해부터 차츰 흉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겨울에 접어들면서 왜놈들은 이제는 유격대를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떠들어댔다.

필네는 더는 앉아서 오빠를 기다릴수 없었다. 그래도 강을 건너가면 무슨 확실한 소식을 알수 있을것이였다. 잘하면 유격대를 찾아갈수도 있을것 같았다.

필네가 금천동으로 가겠다고 나섰을 때 정섭이는 기를 쓰고 말렸다. 말려도 듣지 않으니 성을 내고 돌아앉아버렸다. 다른 사람들도 말렸다. 어린 처녀가 거칠은 남의 나라 땅에 홀몸으로 가서 어떻게 살겠느냐는것이였다. 아무에게도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니 그럴만도 한 일이였다.

정섭이는 이 며칠째 통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도 무거울것이다. 한겨울 기를 쓰고 일했지만 정작 회계를 보니 밥값, 빚값 두루 제하고 남은것이 한달 품삯도 되나마나하였다.

그런데 집에는 어려운 살림이 기다리고 또 두 동생이 앓아누워있다. 동생을 셋이나 홍역에 떼운 그 집에서는 벌벌 떠는 눈치였다. 그나마 경비도로부역때문에 돌볼 손까지 없다니 그의 마음이 개운할리 없었다.

영섭이가 홍역을 앓는다는것을 알았을 때부터 필네 역시 까닭모를 불안에 시달렸다.

필네도 영섭이를 잘 안다. 할아버지가 보천장을 보러 가고오면서 큰손자 있는데 들려가군 하였는데 그때마다 영섭이가 놀러왔다. 한번은 형이 보고싶다고 추우나추운 겨울날 제혼자 달려온적도 있었다. 사납게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날 말파리꽁무니에

매달려 100리길을 와서 언 돌배를 내놓던 그 애의 수글수글하고 정다운 모습이 눈앞에 사물사물하였다.

영섭이가 앓는다는 말을 들은 그날로 필네는 진개에 사는 포수에게 달려가서 노루피 말린것을 얻어왔다. 홍역에는 그것이 제일 좋은 약이라니 이제 갈라질 때 정섭이에게 주어보내리라 마음먹고있었다. 정말 그 애가 그 노루피를 우려먹고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가. 하기는 벌써 털고 일어나서 또 할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며 온 산판을 돌아다닐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오죽이나 좋을가…

그렇게 걸음을 늦잡았지만 어느새 물동다리는 눈앞에 있었다.

두사람은 나란히 물동다리를 건넜다. 지난해의 그 달밝은 여름밤처럼 말없이 걸었다. 그날처럼 정섭이는 숨을 씩씩거린다. 필네의 가슴도 그때처럼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러나 그 밤의 그 따뜻한 느낌은 어디로 갔는가. 그 열정, 그 희망, 그 행복감은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터놓지 못한 리별의 애달픔, 그 리별을 강요한 세상에 대한 원한 그리고 장차 두 사람의 운명앞에 닥쳐올 불행에 대한 막연한 예감이 있을뿐이였다.

물동다리를 그때처럼 천천히, 천천히 걸었으나 종시 아무런 일도 없이 마지막 가름대를 짚고 저쪽 기슭에 한발을 내려놓자 필네는 저도모르게 눈시울이 화끈해지는것을 느끼며 뒤를 돌아보았다. 이제는 지난날과 완전히 갈라진것이다.

이제 십리나마 더 가면 새로 닦은 신작로가 나질것이다. 그 길을 따라 삼수평, 붉은바위를 거쳐 오늘중으로 무산지경까지 가대야 한다. 들리는 말에는 그 길이 경비도로인데다 아직 개통이 되지 않아서 여느 사람은 다니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무포에서 유곡쪽으로 꺾어져 대홍단, 신사동으로 해서 농사동으로 돌아갈수밖에 없다.

그래봐야 한 20～30리 돌뿐이라고 하지만 워낙 인적 드문 산골리수라는것이 대중이 없는것이다. 길을 물을 때 《한 십리 되오다》하고 턱을 쳐들어 가리키면 30리는 되는것이고 팔을 쳐들어 가리키면 줄잡아 50리는 되는것으로 봐야 한다. 어쨌거나 길을 좀 돌더라도 오늘중으로 삼장지경까지 나가기만 하면 래일은 국경다리를 건늘수 있을것이다.

필네는 적삼말기를 더듬어 노루피 말린 솜뭉치를 꼭 그러쥐였다.

이제 곧 신작로가 나지겠으니 이 굽이를 놓치면 단둘이 말을 나누게 되지도 않을것이였다.

필네가 줌을 폈다오무렸다 하며 망설이는데 정섭이의 갈린 목소리가 울리여왔다.

《자리잡거든 인차 편지하라구. 나도 집형편이 웬만해지면 이놈의 고장 뜨고말겠어.》

무슨 소릴가? 금천동으로 오겠다는 소리는 아닐가?

필네의 가슴은 활랑거리기 시작하였다. 무슨 말인가 해야 할것 같았으나 인차 대척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제발 리호철이와 엇서지 말아요.》

쭈밋거리다가 한다는 소리가 왕청같은 말이 돼버렸다. 하기는 그것이 은근히 가슴깊이 숨어있던 불안이기도 하였다.

《흥, 그자식하고 말썽없이 지낸 사람이 이 처서판에 어디 있어.》

정섭이는 코방귀를 내불며 희떱게 말했다. 필네는 안타깝게 덧붙였다.

《그래도 딴 사람과 같아요? 집에서도 리호철이네 빚을 많이 졌다지 않아요. 누가 말하는데 그 사람이 륙혈포를 차고있더래요.》

《나도 다 알아. 그자식이 제 애비랑 같이 혁명자들을 고발해넣은 값으로 만주에 가게 됐다는거야. 광산도 그래서 벌어들이고…》

《그런줄 알면서 왜 자꾸 엇설가…》

필네는 한숨처럼 중얼거렸다.

《그럼 내가 그자식한테 무엇을 잘못했다고 벌벌 긴단말이야. 더럽게시리 쳇!》

침을 탁 뱉더니 모처럼 부드러워졌던 성미가 살아나서 와락와락 걸음을 다우친다.

필네가 원망스럽게 한참이나 뒤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따라가자 정섭이는 얼마 못가서 다시 걸음발을 늦추었다. 저로서도 제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수가 없는것이다.

또다시 무거운 침묵속에 철떡철떡 진창을 밟는 발걸음소리만 오래동안 끌었다.

가까스로 비가 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시원히 개일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거…》

어수선한 생각에 잠겨 말없이 걸어가는 필네의 손끝에 무엇이 와닿는다. 돌아보니 정섭이는 무엇을 움켜쥔 주먹을 엎은채로 내밀며 얼굴이 벌개서 말을 갑자른다.

《별스럽게 생각지 말구 받으라구.》

엉겁결에 손바닥을 펼친 필네는 그 순간에 그것이 돈이라는것을 깨달았다. 손에 와닿는 느낌이 적잖은 액수였다.

낯선 땅, 거친 생활속으로 홀로 떠나가는 자기에게 다만 얼마라도 로자를 보태줄 생각을 했다는것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겁도록 고마왔다. 일상 셈평좋게 휘적휘적 돌아가는 그에게 이처럼 깊은 속이 숨어있다는것은 놀라운 일이였다.

그러나 그것이 구리반지나 분곽따위가 아니라 적잖은 액수의 돈이기때문에 그대로 받을수 없었다. 지금은 자기보다 그 집 사정이 더 절박하다.

필네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돈을 어떻게 돌려줄것인가 궁리하다가 아무래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저도 무작정 손을 내밀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노루피약과 함께 감싸쥐였다.

그러나 필네가 손을 내뻗치려는 순간 곧게 열린 길이 툭 트이면서 바로 그 굽인돌이에 일행이 몰켜있는것이 눈에 띄였다.

무봉 《이와이구미》토장을 지난지는 5리나 되였다. 그러니 새로 닦은 신작로에 접어든것이다.

6

윤원구네는 신작로까지 다가가지 못하고 안개비가 락수물이 되여 뚤렁뚤렁 떨어지는 커다란 봇나무밑에 엉거주춤 서성거리고있었다.

윤원구는 고리멜빵을 아예 벗어붙이고 척척한 나무밑둥에 기대앉아 담배를 피우고있다. 그래도 진호 어머니는 울지도 않는 진철이를 다독거리며 당장 떠날것처럼 임보퉁이가 지지누르는 목을 뽑아 신작로의 동정을 살피고있고 대선아바이와 춘길이는

책상다리를 하고 마주앉아 무엇인가 수군거리고있다. 김인수는 좀 떨어진 이깔나무줄기에 비스듬히 기대여서서 신작로를 쏘아보고있는데 그 여윈 볼이 가볍게 떨고있다.

《어떻게 된거예요?》

필네는 진호 어머니곁으로 다가가 입안의 소리로 물었으나 까맣게 탄데다 추위에 얼어들기까지 하여 더욱 앙상하게 보이는 그 녀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신작로를 눈길로 가리킬뿐 말을 안했다.

정섭이는 진호를 어머니곁에 내려놓더니 휘적휘적 신작로쪽으로 걸어간다.

《이사람아.》

대선아바이가 놀라 소리쳤다. 날카롭게 소리를 치면서도 그것이 신작로의 왜놈들과 경관들에게 들리지 않게 씹어삼키는 소리여서 높지 않은 대신 긴장한 분위기를 한층 강조해주었다.

정섭이는 울상이 되여 어서 돌아서라고 다급하게 손짓하는 대선아바이와 춘길이를 돌아보며 알수 없다는듯이 고개를 기웃하더니 그 자리에 엉거주춤 서버렸다.

그가 선 곳에서 신작로까지는 불과 10m도 되나마나한 거리였다.

신작로를 내느라고 지난해가을에 찍어넘긴 크고작은 이깔나무들이 한절반 황이 든채 얼기설기 가려져있고 그것을 지나면 두어자폭으로 도랑을 쳐올린 석비레땅이 누렇게 드러나있다. 거기서 퍼올린 석비레자갈과 모래가 고르롭게 깔린 신작로－《갑무경비도로》는 방금 지나간 비에 축축히 젖어서 차분하게 뻗어있는데 그우에서 지금

한개 소대의 북선제지자위대와 자전거를 뻗친 경부보 그리고 그를 수행해온 순사사이에 옥신각신이 벌어지고있었다.

자위대대렬은 도로한복판에 멈추어서서 헤여지지도 못한채 저희들끼리 웅성거린다.

일제가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막는 한편 백두산기슭의 산림자원을 략탈하기 위하여 1937년에 조직한 이 북선제지자위대는 회사경비로 유지한다는것이 다를뿐 사실상 편제나 무장, 장비에 있어서 정식군대와 꼭같을뿐아니라 태반이 라남사단의 제대병들로 꾸려져있어서 전투능력이나 실전경험은 오히려 정규군보다 더 나은 능구렝이들의 무리였다.

《여보, 기무라상, 당신네 정 이러기요?》

자위대 소대장 스즈끼중위가 흰 장갑을 한손에 움켜쥐고 내흔들며 소리쳤다.

《소용없어, 소용없어. 정식군대도 통과시키지 말라는거야. 돌아가라구.》

경부보는 오만하게 팔을 내저으며 대렬을 짓고있는 자위대를 보고 소리쳤다.

《바쁘면 돌아가라는 속담도 모르는가.》

《아니 여보.》

하고 스즈끼는 경관의 팔을 잡아채며 주의를 자기쪽으로 끌었다.

《그래 당신은 유격대가 당장 강을 건늘 태세라는 통보도 못들었는가?》

《못듣기는 왜 못들어. 그 통보는 바로 내가 받아서 내가 자네네 중대장한테 전해준거야. 자네네 중대장이 지금 우리한테 와있단말이야.》

《혜산경찰서에?》

《그렇지 않구. 거기에 지금 도경찰부장각하도 나와계시구 75련대장각하도 나와계신단말야. 잔소리 말구 돌아가라구. 천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가. 총독부에서 총독각하가 아니면 경무국장각하가 오늘래일 도착한다는거야. 뭘 알기나 하구 이래.》

스즈끼는 기무라의 입에서 연방 쏟아져나오는 어마어마한 직함들을 무표정하게 듣고있었다. 그 눈길은 《촌놈이란 할수 없군.》하는 조소를 띠고있었다.

말이 자위대 소대장이지 실상 헌병대의 끄나불인 스즈끼는 기무라가 요란하게 떠벌이지 않아도 오늘의 이 사태가 얼마나 중대한가 하는것을 짐작하고있었다. 가뜩이나 사방에 펼쳐놓은 전쟁형편이 어려운판에 조선인민혁명군이 기다리고있었던듯이 대거 춘기반타격으로 나와서 언제 강을 건너설지 모르는 형세이고보면 그 모든 어마어마한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드는것은 너무나 응당한 일일것이다. 다만 일반장교들과 경찰들에게는 아직도 이런 내막까지는 알려주지 않고있다. 그러니 얼뜨기같은놈들이 유격대가 37년 초여름처럼 쳐나온다 하고 떠들어대고있어도 그 사태의 중대성을 아직 다 알자면 아득히 멀었다. 아무리 경비도로라 하지만 한개 군과 군을 련결하는 도로를 개통하는데 총독이 나온다는것만 봐도 오늘날 조선인민혁명군의 움직임이 얼마나 큰 문제로 된다는것을 짐작할수 있겠는데… 촌놈들같이…

그러나 어쨌든 자기네 자위대소대가 개통을 앞두고 깨끗하게 손질해놓은 경비도로로 경찰과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그 모든 《각하》들을 앞질러 통과한다는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적당치 못할것 같았다.

스즈끼는 흔연히 웃었다. 그는 장갑 쥔 손을 귀옆까지 슬쩍 들어올려 기무라에게 다 알아들었다는 뜻을 표시하고 돌아서는참 호기있게 구령을 쳤다.

《소대 차렷! 날따라 앞으롯!》

그리고는 다시한번 기무라에게 고개를 끄덕거려보인 다음 용감하게 물탕을 차며 삼장방향을 향해 숲속길로 들어섰다.

기무라는 흡족한 표정으로 자전거뻰치개의 용수철을 호기있게 걷어찼다. 너무 기세를 올리는바람에 우둔한 군화가 바퀴살까지 울려서 지르릉하고 소리를 내였다. 그 소리 역시 기무라의 허영심을 만족시켜주어서 그는 다시한번 흡족한 웃음을 입가에 짓고 막 자전거안장에 몸을 실으려다가 문득 앞길을 내다보고 이마살을 찌프렸다.

《요시다, 이리 좀 오너라!》

기무라는 그 우둔한 편상화로 자전거를 다시 뻰치고 장갑낀 두손을 절도있게 뒤로 가져다가 허리어방에서 정확하게 맞쥔 다음 길을 따라 아래우로 서성거리며 앞뒤의 전망을 살폈다.

막 자전거를 따라 달려가려고 모자턱걸이를 내리던 농사동주재소 순사 요시다는 두손을 맞비비며 상관의 곁으로 다가갔다.

《참, 여기 주재소놈들 일을 망탕 한단말이다. 저기 길이 구부러진데를 좀 보아라.》

기무라는 창대로 찌르듯이 손을 쳐들어 무포쪽으로 구붓하게 휘여돌아간 길목을 가리켰다.

《예…》

요시다는 아무리 봐야 미끈하게 잘 정리된 길이 보일뿐이라 표표한 기무라의 얼굴을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이리 오너라!》

기무라는 요시다의 어깨죽지를 끌어다 자기앞에 내세우고 다시 문제의 그 굽인돌이를 가리켰다.

《너도 유격대가 무시로 출몰하는 일선지대의 경찰관으로서 유격대가 가장 잘 쓰는 전술이 뭣이라는것쯤 알테지?》

요시다는 이때 제꺽 대답을 해야 기무라가 좋아하겠는지 우물쭈물해야 좋아하겠는지 몰라 잠시 망설이는데 성급한 기무라는 제김에 내리엮기 시작하였다.

《그렇다. 매복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전술이다. 그런데 바로 유격대를 소멸하자고 몇해째 공사를 해온 이 경비도로에 저런 으슥한데를 남겨놓다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저 길가의 나무들을 더 쳐내야 하겠다.》

《예, 그런데 지시는…》

요시다는 잘못하다가는 자기가 관할구역도 아닌데서 애매한 봉변을 당할수 있다는것을 깨닫고 서둘러 변명하였다.

《물론 지시에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직선상에서는 좌우 5m만 나무를 치면 되는것으로 되여있다. 그러나 여기는 곡선이란말이다. 도대체 이런 곡선을 낸것부터가 잘못이다. 설계한놈들을 잡아족쳐야겠다.》

요시다는 할말을 찾지 못하고 흐릿한 하늘을 쳐다보며 내심 오늘 신수를 저주하였다. 항일유격대의 국경진출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경비증강대책을 세우는 가운데 함남도,

함북도의 경찰, 군대가 모두 통일적인 지휘체계하에 들어가게 되여 어제 왕청같은 혜산경찰서의 기무라경부보가 개통을 앞둔 갑무경비도로상태를 검열하러 삼장까지 왔었다. 삼장읍내에서 하루밤을 묵은 기무라는 아침나절에 농사동을 지나게 되였는데 그를 도, 군의 경계까지 배웅하러 나온 사법주임이 호의를 보이느라고 요시다를 딸려보낸것이다. 《특설토벌대》본부가 혜산경찰서에 들어앉아있고 총독이나 경무국장이 온다 해도 거기에 우선 들릴것이기때문에 아무쪼록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 좋은 보고를 해달라는 소리였다. 요시다는 속으로 딱 싫었으나 재간이 없었다. 사실은 오늘 옥암동구장 리덕선이와 청결검사를 나가게 되여있었다. 그것 역시 총독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의 하나였다. 어쨌든 리덕선이와 같이 나서면 오래간만에 배불리 먹고 클클증을 풀만큼 충분히 마실수도 있는것이다. 그런데 구질거리는 비속을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놈을 따라가자니 우선 숨이 가빠 못견디겠다. 그러나저러나 여기는 혜산서 관할구역이 아닌가. 그렇게 똑똑한 소리 하고싶으면 미리미리 할것이지 이제와서 왜 이 야단인가.

《요시다!》

기무라는 촌순사의 속이 환히 들여다뵈는 말상을 당장 집어삼킬듯이 노려보며 또박또박 잘라서 말했다.

《지금 어째서 도와 군의 경계를 무시하고 이런 초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는가 하는것을 경찰관으로서 명심해야 한다. 관할구역을 따질 때가 아니다.》

《예!》

요시다는 제 속을 다 꿰뚫어보고 하는 기무라의 말에 흠칫하여 덜컥하고 발뒤축을 모아붙이며 차렷자세를 취했다.

《너는 즉시에 저 벌목구역을 적어도 5m이상 더 넓혀서 차후 군대와 경찰의 이동에 사소한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겠다.》

《그런데 여기는 무인지경이 돼서…》

《왜 무인지경이란말이냐? 저기 수상한자들이 있지 않느냐?》

기무라는 또다시 손을 창대처럼 뻗쳐 봇나무가에 옹송그리고 앉은 윤원구네 일행을 가리켰다.

《저자들을 다 단속해라! 앞으로 이 어방에 나타나는 통행인들은 모두 단속해야 한다. 그것들을 공사에 내몰면 된다.》

《그래도 무슨 연장같은것이 있어야겠는데…》

요시다는 나무를 쳐내라는 길목을 돌아보며 엄청난 일감에 기가 차서 중얼거렸다.

《밥통같은놈!》

기무라는 빽하고 소리쳤다.

《여기 나다니는것들은 대개가 벌목부이다. 연장은 가지고있을것이다. 모자라면 <이와이구미>에 사람을 보내서 빌려오면 된다. 보아라, 저놈들도 다 도끼와 톱을 가지고있지 않느냐!》

기무라가 가리키는쪽을 돌아보니 아닌게아니라 이사짐보따리나 멍구럭같은데 도끼자루며 톱자루가 비죽이 솟아있다.

요시다는 할말을 못찾고 멍청히 서버렸다.

《오늘 오전중으로 일을 끝내야 한다. 내가 저녁에 다시 알아보겠다.》

기무라는 이런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엉치를 잔뜩 내밀고 서서 경례를 오래도록 붙이고있던 요시다의 말상은 기무라의 모습이 나무에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자 별안간 흉맹스럽게 이그러졌다.

오늘은 신수에 옴이 붙어도 단단히 붙었다. 리덕선의 술을 놓친것은 그만두고라도 이런 어수선한 날씨에 벌목공사를 벌려야 하다니 경찰관이 처서판의 십장인가, 게다가 인부라도 똑똑하다면 모르겠다, 저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오전중으로 일을 끝낸단말인가.

그러나 기무라의 말을 생각하니 사태가 중한것은 사실이다. 설사 그것이 공연히 사람을 골탕먹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무라가 한번 말한 이상 안하고는 못배기겠는데 항차 저 으슥한 숲속에 유격대가 숨어있다가 불쑥 달려나온다면 그 총알이 자기 가슴인들 뚫지 못할것인가.

요시다는 빠질 구멍이 없다는것을 통감하였다. 그러자 까닭도 없이 자기의 손탁에 걸려든 뜨내기들에 대한 증오가 부걱부걱 괴여올랐다.

그는 봇나무밑을 가로쏘아보았다.

그의 시선이 봇나무가로 돌아서자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한곳에 모여들었다.

요시다는 칼을 한손으로 거머잡고 달려드는참 소리쳤다.

《오이, 오이, 이리 오너라. 증명서 있는가? 모두 어디를 가는가?》

요시다는 물어보나마나 뻔한 뜨내기들이였지만 어떻게 하나 언치를 걸어야겠기때문에 처음부터 사납게 굴었다.

《각자 보따리를 들고 한줄로 서서 증명서를 꺼내라. 너는 뭐야? 한줄로 못서겠는가?》

요시다는 주린 승냥이처럼 봇나무밑을 오락가락하며 소리치다가 한옆에 따로 떨어져서 어정거리는 정섭이를 보고 사납게 으르릉거렸다.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오다.》

정섭이는 별소리 다한다는듯이 코김을 내불며 저쪽으로 외면하였다.

《이놈아, 다르기는 뭐가 달라. 여기 와 서란말이다.》

요시다는 단숨에 거기까지 달려가서 정섭이의 어깨죽지를 잡아끌었다.

《이거 놓라요, 넨장.》

정섭이는 송충이라도 털어버리듯이 그놈의 손을 쥐여뿌리고 제발로 성큼 필네뒤에 다가섰다. 필네의 커다란 눈이 원망스럽게 정섭이를 지켜보고있었다.

《쳇!》

정섭이는 이런데서까지 공연한 화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느냐는 필네의 말없는 책망에 대해서도 거칠게 코김을 내불며 먼 하늘로 눈길을 돌려버렸다.

《망할놈의 자식! 너 신사동 있는놈이지?》

하고 요시다는 당장 잡아먹을듯이 쏘아보다가 단단히 속치부를 해두었다는듯 턱을 한번 끄떡하고는 모두에게 소리쳤다.

《증명서는 반대로, 이렇게 내가 보기 좋게 들고있어야 한다. 글자가 반대쪽으로 되게말이다.》

요시다는 맨앞에 서있는 윤원구의 려행증명서를 들고 보란듯이 내흔들며 설명을 하다가 대선아바이와 춘길이가 증명서를 가지고 서로 쑥덕거리는것을 보았다.

《뭔가, 이자식들이!》

요시다는 다짜고짜로 그리로 달려가 춘길이의 면상을 후려갈겼다.

《아이쿠!》

춘길이가 증명서와 함께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풀썩 주저앉자 대선아바이가 그앞을 막아서며 우들우들 떨리는 소리로 말하였다.

《내가 증명서를 어느쪽으로 내대라고 했느냐고 물어서 그렇게 됐습네다. 이 사람한테는 잘못이 없습네다.》

《증명서를 이렇게 내대라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겠는가? 멍텅구리같이…》

한참 무시무시한 분위기속에서 증명서를 검열했지만 도경찰부의 시뻘건 공인이 찍힌 도강증명서까지 가지고있는판이라 트집을 잡을데라고 별로 없었고 그중 증명서가 부실한 정섭이조차 그 자신이 서뿔리 신사동에 있다는것을 여러 사람 면전에서 미리 확인한셈이니 더 시비를 걸어볼데가 없었다.

그러나 요시다는 그런것쯤에 동요를 느낄 위인이 아니였다.

《에- 너희들은 민간인으로서 엄격히 통행이 금지된 경비도로를 함부로 통과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아니 여보시오.》

아까 큰길우에서 경관들이 주고받는 소리를 대충 엿들은 김인수가 한팔을 쳐들고 말했다.

《우리는 경비도로로 가려고 하지 않았소. 길이란 천하의 공유물인데 다녔다해봐야 그게 무슨 잘못이겠소. 항차 우리는 여태 근방에 가지도 않았단말이요.》

《아, 아, 무슨 소리까? 내가 네놈들의 마음속을 다 안다. 너희가 이 길로 가려고 오지 않았는가?》

《왔다는데는 어떻단말이요?》

윤원구가 씹어삼키듯 침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경비도로를 위해서 일을 좀 해야겠다. 이것은 제국의 안녕을 지키는 경비도로인것만큼 국민은 누구나 다 여기에 동원될 의무가 있다. 에- 그래서 이제부터 저 굽인돌이의 안쪽에 있는 나무를 깨끗이 쳐버려야겠다.》

《여보시오, 나리님.》

장대선아바이가 쳐버려야 되겠다는 길가의 나무들을 바라보다가 너무나 어이가 없어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먹고살 길이 없어 고향땅을 버리고 강을 건너가자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나무를 찍느라고 지체를 하게 되면 입에 풀칠은 어떻게 하라는것인가요? 품삯은 주는가요?》

《이놈의 두상이나!》

요시다는 고리눈을 부릅떴다.

《아직 매나 적게 맞아서 품삯이나 달라는가? 애국로동에 무슨 품삯이 있는가? 두상이 매를 좀더 맞아봐야 알겠는가?》

《아이구, 나리, 내인들이랑 앓는 아이들까지 있는데… 사정 좀 봐주시오. 이 무인지경에서 날이 저물면 어떻게 하갔나요?》

대선아바이는 통사정을 들이댔다.

그러나 요시다가 눈을 딱 부릅뜨고 《뭐야!》하고 악을 쓰는바람에 대선아바이는 미처 마무리지 못한 말을 입안에서 중얼중얼하며 삼키고말았다.

《순사나리!》

정섭이가 성큼 나섰다.

《나 혼자 이 나무를 다 치겠소.》

《호- 너나 용감한 청년이다. 그래 네가 다 베겠는가?》

《그렇소, 그러니 이 사람들은 보내주시오. 강을 건너갈 사람들인데 숲속에서 날이 저물면 어떻게 하겠소. 보시오, 이 아이는 진짜 앓는단말이요.》

《너나 다른 사람 걱정 안해도 좋다. 아이는 내려놓고 녀자도 일이나 해라.》

요시다는 진호 어머니를 향해 돌아서더니 다짜고짜 띠개에 손을 가져갔다.

《여보, 나는 그러면 일 못하겠소.》

정섭이가 소리치자 요시다는 잠시 손을 멈추고 노려보았다.

《일이나 못하겠는가? 좋다. 일이나 안하면 죽여버리겠다.》

요시다는 사납게 울부짖더니 진호 어머니에게서 억지로 아이를 풀어냈다.

《나리님, 나리님, 살려주시오. 일하겠소다. 아이를 업고 일하면 되지 않소다.》

진호 어머니는 울음섞인 소리로 애원했으나 요시다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나무밑에 아무렇게나 내려놓인 진철이는 발버둥치며 울었다. 그옆에 정섭이의 큰저고리를 쓰고 쪼크리고앉았던 진호도 울음을 터뜨렸다.

《네놈이나 일 안하겠는가?》

요시다는 정섭이의 어깨죽지를 잡고 길가로 내끌었다.

《가자구. 이사람들, 가서 얼른 해버려야지 이 날벼락을 피하는수가 어디 있나.》

대선아바이가 주섬주섬 보짐속에 찔러둔 도끼를 들고 나섰다.

7

이무렵 삼지연쪽에서 두사람의 행인이 신작로를 따라 걸어오다가 굽인돌이어방에서 벌어진 참경을 먼발치서 띠여보고 얼른 길가의 덤불속에 숨어서 동정을 엿보고있었다.

둘 다 후리후리한 키에 날파람이 있게 생겼는데 나이 좀 들어보이는쪽이 더 검실검실하고 가로찢어진 눈이 유난히 빛을 뿌렸다. 척 보는 인상에 벌써 갖은 풍상을 다 겪어서 웬만한 일에는 눈섭도 까딱 안할 그런 느낌이였다. 몸을 봐도 굵직굵직한 골격이 늘씬늘씬한게 탄력에 넘쳐서 마치 살과 뼈로 되여있는것이 아니라 강철로 빚어놓은것 같았다.

《에익! 내 저놈을 쏘아버리겠습니다.》

젊은쪽이 얼굴이 해쓱하게 질려서 입술을 푸들푸들 떨며 손을 괴춤으로 가져갔다.

《성림동무, 정신이 있소?》

눈이 가로찢어진 사나이가 얼른 성림의 후들거리는 손을 꽉 움켜잡고 낮게 속삭였다.

《임무를 잊어버렸소? 또 무슨 재구를 치자고 이러오. 손을 싹 거두오.》

이처럼 엄하게 상대를 눌러놓은 사나이는 비분에 글썽거리는 성림의 눈을 이윽히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물었다.

《참아야 하오. 더 큰 복수를 해야 할게 아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흥분했소? 동무야 왜놈들의 행패를 처음 보는것도 아니지 않소? 저기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게 아니요?》

성림은 잠시 고개를 수굿하고있더니 정찰조를 책임진 김준삼을 바라보며 애원조로 말했다.

《중대장동무, 내가 흥분한것은 아는 사람이 봉변을 당하기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저기 저 고리멜빵을 지고있던 사람은 윤원구라고 전에 내가 고진동광산에 있을 때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가족들 걱정때문에 운동에는 관계하지 않았지만 사상동향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고진동에서도 살길이 막혀 허우적거리더니 종시 어디로 또 흘러가는 모양이군요. 그런데…》

하고 성림은 준삼에게 잡힌 손을 슬그머니 뽑아내며 짧게 한숨짓고나서 이었다.

《이제 말하는걸 듣지 못했습니까. 저까짓 왜놈순사 한놈이 무엇이길래 저런놈에게 저 숱한 사람들이 코를 꿰여 끌려다닌단말입니까. 저 발버둥치는 아이를 보십시오. 내가, 내가 조국의 이런 현실을 물론 처음 보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에 바로 이런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의무와 신념을 똑바로 새기지 못해서 과오를 범한 내가 아닙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짓밟히는 조국의 현실을 보니 참을수 없습니다. 총을

차고있는 나까지 무엇때문에 참는단말입니까. 중대장동무, 저놈을 제낍시다. 총소리를 내지 않고도 감쪽같이 해치울수 있습니다.》

《성림동무, 거 참 야단났구만.》

하고 준삼은 이제는 별로 말릴 생각도 없다는듯이 돌아앉아 길가를 살폈다. 신작로 굽인돌이에서는 이미 나무치는 작업이 벌어져서 밸풀이겸해하는 도끼질소리와 신세타령처럼 쓰르릉거리는 톱질소리가 울려오고있었다. 요시다는 때마침 유곡쪽에서 나타난 로인 두사람을 또 억지다짐으로 나무찍는데 끌어넣느라고 게사니청을 돋구고있었다.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야 준삼은 말을 이었다.

《성림동무, 제 밸이나 풀고 기분이 나는대로 돌아치는것이 혁명이 아니요. 지난 겨울의 행군을 생각해보오. 사령관동지께서 바로 우리 조국의 이런 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 험한 길을 헤쳐오시지 않았소. 그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 시련을 이겨냈소? 동무는 참을성이 없는게 야단이야.》

성림이는 고개를 푹 떨구고앉아 숨을 몰아쉬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그건 사실입니다. 나는 지난 겨울을 끝내 견디여내지 못했지요. 절벽으로 둘러막힌 후방밀영에서 그 엄광호라는놈의 독설과 고문만 겪다나니 이제는 우리 혁명의 앞길이 정말 막혔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니 아무것도 귀중한것이 없고… 그래서 그놈이 요구하는대로 자백서라는것도 써냈습니다. 이런 더러운 행동을 한 내가 분노에 대해 말한다는것부터가 주제넘습니다.》

《동무가 왜 주제넘는단말이요? 이 동무가 점점 한심한 소리 하는구만. 내 이담에 말하자고 했는데 안되겠소. 저리로 좀더 깊이 들어가기요. 내 동무에게 할 말이 있소.》

김준삼은 성림의 소매를 툭 건드리더니 나무사이로 소리없이 몸을 빼여 숲속 깊이로 들어갔다. 성림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뒤를 따랐다. 신작로와 오솔길에서 퍽 떨어진 으슥한 나무그늘에 들어가서야 김준삼은 성림을 진대통우에 앉히고 저는 서서 서성거리더니 짐짓 엄하게 말을 꺼냈다.

《내 솔직히 말해서 사령관동지로부터 동무가 이 일대 지형에 밝으니 정찰에 데리고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과 바꿔달라고 제기했댔소. 내 동무를 잘 모르기는 해도 짐작에 꼭 이러루한 일이 있을것 같더란말이요. 그런데 사령관동지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오? 그 동무가 한번 과오를 범했다고 그러는가? 나는 그 동무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개조하려고 애쓴다는것을 믿는다. 반절구전투때도, 구가점전투때도 그 동무는 잘 싸웠다, 그 동무가 바탕이 나쁜 사람이 아니다, 과거에도 잘 싸웠고 또 지난 행군때 과오도 범했지만 전우들을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하였다.-이렇게 말씀하셨소. 참 성림동무, 7도구 못미쳐서 눈구뎅이에 쓰러진적이 있소?》

준삼은 갑자기 활기를 띠며 성림의 옆에 나란히 앉아 물었다.

《있지요. 아주 눈구뎅이에 묻혀서 얼어죽을번했습니다. 그런걸 김정숙동무가 까맣게 멀어진 행군대렬에서 되돌아와서 나를 구해주었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령관동지께서 아신단말입니까?》

성림은 놀라서 준삼이에게로 마주 돌아앉아 다급하게 물었다.

《아시오. 그것뿐만아니라 성림동무가 거의 의식을 잃게 되여가지고도 적탄이 날아오자 김정숙동무를 막아주었다고 하시더군.》

《내가요?》

성림은 벌떡 일어났다.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다만 적탄이 날아오는데 김정숙동무가 나때문에 거기 서있기에…》

《아마 김정숙동무가 사령관동지께 다 말씀드린것 같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정말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했소. 나야 입으로는 전우들을 사랑한다고 떠들지만 실지 동무들에 대해 깊이 알고있는것이 없단말이요. 그때 사령관동지께서는 말씀하시였소. 이렇게 바탕이 좋은 동무도 혁명투쟁속에서 부단히 단련하여 우리 혁명에 대한 신념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면 과오를 범하게 된다, 그런것만큼 이런 동무들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혁명을 더잘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단련할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어야 한다, 조국에 와서 조국인민들이 살아가는 형편도 보고 그속에서 억척만번 죽더라도 끝까지 혁명을 하겠다는 각오도 다지고 또 자기 힘에 대한 신심도 가지게 만들어야 한다— 사령관동지의 이런 말씀을 듣고 나는 진심으로 자기비판을 했소. 그래 성림동무, 동무가 사령관동지의 이렇게 큰 사랑에 대해 생각해본적이 있소?》

성림은 말을 못하고 어깨만 들먹거렸다.

김준삼은 머리를 가슴에 묻고 깊은 회오에 잠긴 성림을 이윽히 바라보다가 진대통에 걸터앉은채 석쉼하게 갈린 목소리로 뜨직뜨직 말했다.

《우리는 그이의 사랑을 다 헤아릴수도 없고 그이의 구상을 다 짐작할수도 없소.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이든 사령관동지께서 말씀하신대로 꼭 그대로 집행해야 한단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촌순사 한놈때문에 소동을 일구어서야 되겠소.》

성림은 여전히 말을 못하고 서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보이지도 않는 서남쪽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이미 사령관동지께서 도착하시여 자기들을 기다리실지도 모르는 청봉이 그쪽에 있었다.

《사령관동지!》

성림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 부르고는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잠시 그를 지켜보던 준삼은 본시가 쾌활한 사람이라 금시까지 엄숙하던 얼굴에 밝은 웃음을 띠우고 성림의 어깨를 툭 쳤다.

《자, 알아들었으면 임무수행에 달라붙어야지. 사령관동지께서는 동무의 참회를 바라시는것이 아니라 진정한 혁명가가 되기를 바라신단 말이요.》

《알겠습니다.》

성림은 삑 돌아서서 갈린 목소리지만 힘차게 대답했다.

《우리도 도로에 나가잡니까?》

《그렇소. 기회가 마침 좋지 않소? 경비도로때문에 나온 순사놈도 있겠다, 아는 사람도 있겠다, 뭘 알아내는데는 안성맞춤이요. 보오, 저놈들이 놀아나는것만 봐도 뭐가 든든히 있기는 있는 모양이요.》

두사람은 일부러 신작로로 해서 벌목현장으로 코노래를 슬슬 부르며 다가갔다.

요시다는 한참 악을 쓰며 사람들을 강제로 일에 붙여놓고보니 이제는 어지간히 맥이 나는지 찍어넘긴 통나무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담배를 끄스르고있었다.

등뒤로 다가간 두사람은 일부러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다.

《나리님, 문안드립니다.》

《누구얏?》

요시다는 화닥닥 놀라 뛰여일어났다.

《수고를 하시는군요. 저희들은 품팔이군인데 어디 일자리가 없을가 해서 돌아다니는판이올시다. 여기서 오늘 밥값이나 좀 벌게 해주십사고 해서 이렇게…》

《일공군인가?》

요시다는 두사람을 아래우로 훑어보며 물었다. 보매 둘 다 힘꼴이나 씀직한게 이런판에 부려먹기는 제격일것 같다. 그러나 일부러 거드름을 부리며 제빠두해서 물었다.

《예, 일공군입지요.》

하고 김준삼은 나긋나긋하게 대답했다.

《일공군노릇을 하고파서 하나요. 실은 우리들도 저 히가시목재판에서 똑똑한 일자리를 가지고있었습지요. 그런데 대차를 타고 가다가 내림받이에서 [redacted]가 먹지 않아 두어차판 굴려팽개쳤소다. 이거야 신수놀음이지 나나 이 사람이 제 죽고싶어서 그노릇을 했겠나요. 그래도 구미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디다. 손해배상을 시켜도 어찌 톡톡히 시키는지, 10년동안 고향 가서 장가들겠다고…》

김준삼의 이야기가 길게 늘어지자 요시다는

《아, 아 알겠다. 무슨 말이 그리 긴가?》 하고 손을 내저었다.

리성림이도 놀랐다. 생판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앉은 자리에서 꾸며대는데 그러고보면 실지 그러루한 이야기가 준삼의 지난날에 있었던게 아닐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어수룩한 촌순사놈은 세마디안팎에 김준삼의 줌안에 들고말았다.

《좋아, 좋아, 그럼 오늘 여기서 나무나 찍어봐라. 일이나 잘하면 내가 이시가와구미나 호리모도구미에 넣어주겠다. 거기 십장, 감독 다 나하고 형님 동생하는 사이다.》

그러면서 요시다는 지금 진행하고있는 벌목공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다 《불온분자》이기때문에 잘 감시하라고까지 하였다.

김준삼은 어느새 십장격이 되였다. 그는 공작에 필요할가 해서 주머니에 넣고나온 로획품 《미도리》 담배를 요시다에게 권하면서 지금 혜산경찰서에 《특설토벌본부》가 들어앉고 래일이나 모레쯤 총독이 아니면 경무국장이 경비도로개통 겸 국경경비상태를 순찰하러 내려온다는것까지 알아냈다.

그러는 과정에 김준삼은 윤원구네 일행을 비롯한 강제부역에 동원된 사람들의 미움을 샀다.

《자, 바싹 다굿자구요. 갈길이 급하다고만 말고 일을 빨리 끝낼 궁리를 하잔말이요.》

김준삼이 이처럼 열을 올리며 베여넘긴 통나무를 둔장질해서 숲속으로 굴리는데 별안간 찌륵찌륵하고 가죽포대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다음순간 솨- 하고 바람소리를

일구며 통나무가 면바로 준삼의 정수리를 향하여 넘어왔다. 준삼은 둔장대고 뭐고 집어팽개치고 몸을 날렸다. 이깔나무가지가 잔등을 후려치더니 질쩍한 땅바닥에 태질을 하며 넘어졌다.

《무슨짓이야? 사람을 못봐!》

김준삼이 소리치자 나무를 떠넘긴 정섭이가 도끼를 찾아들고 수건으로 목덜미를 문지르며 곱지 않게 눈을 치떴다.

《여기 나무는 눈깔이 없어서 그렇소다.》

사람이 상하는가싶어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던 윤원구며 여러 부역군들도 정섭의 비뚤어진 대답이 우스워서 소리내여 웃었다. 준삼이도 웃고말았다. 그러면서 심술을 피우는 그 청년이 대단히 마음에 들었다.

얼마후 담배들을 한대씩 피우자고 한곳에 몰켜앉았을 때였다. 사람들은 준삼이가 꺼림직해서 일부러 멀찍이 돌려놓고 피해앉았는데 그는 청하지도 않는 곳에 일부러 찾아와서 한가운데를 쩍 가르고 나앉았다.

《그래 임자가 나를 왜놈앞잡인가 해서 편포짝을 만들자고 한것 같은데.》

하고 준삼은 정섭이의 무릎을 철썩 치며 꺼리낌없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같은 조선사람끼리 그럴것이 아니라 해볼테면 저런 왜놈하고 해봐야 할게 아닌가.》

《왜놈하고는 못해볼줄 알고 그러오!》

정섭이도 만만치 않게 맞받아쳤다.

《왜놈하고 해본다는게 그따위 밸풀이나 해서 소용이 있는가, 해볼테면 전년에 **김일성**장군님의 혁명군이 보천보를 들이치듯 그렇게 본때있게 해야지 소용이 없단말이야.》

사람들은 그 한마디에 눈이 둥그래졌다. 모두 10여m 떨어진 곳에 두다리를 뻗치고앉아 건들건들 졸고있는 요시다쪽을 돌아보았다. 이게 무슨 사람이 그렇게 비위를 돋구어주더니 이제는 또 이모양으로 조심성이 없는가 하는 눈치들이였다.

준삼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야 어떻든 제 할말은 하고싶은대로 다했다.

《지금이 꼭 그때 비슷한 땐데… 그때도 왜놈들이 조선사람들을 다 제놈들의 노예로 만들고 조선의 명줄을 아주 끊어놓자고 할 때 **김일성**장군님께서 강을 건너오시지 않았소. 지금이 꼭 그때 비슷하단말이요. 지금이야 그때보다 더 하지요. 지금 조선사람치고 어디 사람 사는것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있소. 죽지 못해 살아가지. 조선은 아주 망하게 된판이란 말이요. 이런 때 조선의 혁명군이 쳐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래 어디서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에 대한 소식을 더러 들어본게 없소?》

《우리는 그런 소리 들은게 없소.》

윤원구가 아직 준삼에 대한 의심을 풀지 못하고 단마디로 잘라매였다.

《허, 이 형님이 아직 나를 믿지 못하시는 모양이군. 그런게 아니라 나도 세상 살아가는 일이 하도 답답해서 여러분네들과 터놓고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일부러 저놈을 얼려넘긴거요. 내가 저놈의 앞잡이는 아니란말이요.》

준삼이가 소탈한 목소리로 이처럼 솔직하게 말을 하니 어쩐지 사람들의 생각에도 앞잡이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구석이 느껴졌다. 림시 발뺌으로 순사를

업어넘긴것이라면 그의 말을 들어볼만도 하다. 어쨌든 그의 입에서 **김일성**장군님의 이야기가 나왔다는것은 희한한 일이 아닌가.

이래서 준삼이가 사람들의 가슴에 맺혀놓았던 불신의 매듭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풀어놓았을 때는 리성림이 이미 구면지기들과 인사를 나눈 뒤였다.

성림이가 광산을 떠난 뒤에 온 필네와 김인수를 내놓고는 윤원구네 일행이 모두 성림이를 잘 아는 처지였으나 요시다의 눈길이 따르고있었기때문에 마음놓고 회포를 나눌길도 없었다. 같이 톱질을 하면서, 혹은 베여넘긴 나무를 둔장질하면서 몇마디 인사를 주고받았을뿐이였다. 윤원구의 안해만은 준삼이의 롱간질에 넘어간 요시다가 아이를 보도록 내버려두었기때문에 그 어방의 나무에 도끼질을 슬렁슬렁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수 있었다.

《그런데 곱단이랑은 다 어떻게 하고 아이가 둘밖에 없소? 그 젖먹이는 내가 못보던 아인데…》

성림의 말에 아낙네는 쿨쩍거리기부터 하였다.

《야학선생이 간뒤로 아이를 둘씩이나 떼웠다우. 하나는 곱밸을 앓아서 떼우고 큰놈은 광차에 깔려죽었다우.》

《아니 진수가 광차에 깔렸단말이요? 그놈이 장난이 세차더니 종내…》

《장난이나 치다가 죽었다면 이 에미 가슴이 덜 아프겠소다. 겨우 열셋에 난걸 푼전이라도 벌어보자고 이 미련한게 광차 미는데 데리고 나갔지요. 허기가 져서 배들배들하는걸 끌고다녔더니 하루는 그 남사갱 올리굴에서 광차가 아래로 짐이

쏠리는바람에 같이 뿌리웠는데 이 죄많은것은 피여나고 그 애는 종시 숨을 거두었소다.》

성림은 힘껏 도끼를 내리쳤다. 손바닥같은 도끼밥이 찍혀나갔다.

《그래 만주에 가면 살길이 열린답디까?》

울분에 못이겨 한참 숨을 씩씩거리며 도끼질을 하던 성림은 몇참 못가서 나무가 넘어지게 된것을 보고 허리를 폈다. 이처럼 세차게 도끼질을 해서 나무가 넘어져버리면 일자리를 옮겨야 되고 따라서 이 아낙네와 이야기를 더 나눌수 없게 될것이였다.

《금천동에 노다지바람이 불었다우다.》

《금천동에 노다지바람이 불면 아주머니한테 금덩어리를 나누어주겠답디까?》

《그래도 리호철이는 거기에 가기만 하면 한밑천 잡기는 어렵지 않다는데요. 우리 진호 아버지는 이제는 술, 담배 다 끊었소다.》

《허허허.》

성림은 너무 기가 차서 한참 속궁근 소리로 웃다가 물었다.

《대체 그 리호철이란 작자가 누구요?》

《여기 군산림주사 하다가 화룡의 광주가 됐다는데 권세가 뜨르르하답디다. 륙혈포도 차고다닌다오다. 참 그 남사갱의 살짝곰보덕대 모르겠소다? 그 살짝곰보의 동생이라구 해요.》

《남사갱의 살짝곰보? 리룡철이말이요?》

《옳소다. 그 살짝곰보가 돈 떼먹고 달아났다가 붙잡혀서 징역을 산다더니 웬걸 이제 오면서 보니까 차가수물동가에서 한가스레 낚시질만 합디다. 동생이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니 그 살짝곰보도 이제는 신수가 훤했습디다.》

《개같은놈들, 이제는 기왕 강을 건느게 됐으니 할수는 없지만 그놈들 덕에 조금이라도 신수가 펴지려니 생각지 마시우. 그저 어디 가서든 제 주먹 하나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조선사람 못사는게 다 나라가 없는탓이란말입니다.》

《글쎄 전에도 야학선생이사 늘 그렇게 말하지 않았소다? 허지만 우리 조선이 언제 독립을 하겠다구 그날만 기다리고있겠수.》

《그렇게 기약 없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머니, 맥을 놓지 마시오. 이제 머지 않아 좋은 소식을 듣게 될거우다.》

성림이가 진호 어머니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동안 준삼이는 남정네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푸짐하게 벌려놓았다. 그는 일도 걸싸게 하였다. 도끼질을 해도 온 산판이 쩡쩡 울리게 해제꼈고 톱질을 할라치면 구수하게 흥부의 박타령을 불러넘기며 힘도 들이는것 같지 않게 쓰렁쓰렁 잘도 당겼다.

이제는 윤원구도 정섭이도 지어 김인수까지 그와 짝패가 되여 일하자고 들었다.

《세상이란 보기에 따라서 바로 뵈기도 하고 꺼꾸로 뵈기도 한단말입니다. 진펄에 살던 개구리가 금강산에 가서 허리를 쭉 펴고 일만이천봉을 바라보니 이게 웬일인가, 절승경개 이름높던 금강산이 자기네 진펄과 똑같더라는 이야기도 그게 다 눈알이 어디에 박혔는가 하는 문제란말입니다. 눈알이 바로 박히지 않으면 세상을 똑바로 볼수가 없지요. 지금 세상으로 말해도 자, 사방에 왜놈의 군대, 왜놈의 경찰, 왜놈의 말,

왜놈의 신문, 왜놈의 권세, 이런것만 보이고 조선사람 싸우는것은 보이지 않고 조선사람 힘도 보이지 않고 나중에는 제 몸에 붙어있는 이렇게 큼직하고 든든한 두주먹도 보이지 않거던요. 그래서 저따위 얼간같은놈앞에서도 벌벌 기게 된단말입니다.》

《그래 당신은 그 조선사람이 싸우는것을 어디서 봤기다 그런 소리 하우?》

윤원구는 철색도는 얼굴에 심각한 그늘을 짓고 김준삼에게서 어떤 진실을 파내보려고 끈덕지게 캐고들었다.

《참, 이 나그네가 말도 그럴듯하게는 하누만. 그러니 이 장대선이도 이 소라같은 제 주먹을 못보고 살아가는 셈이야. 허허허.》

장대선이는 아직도 준삼의 말뜻을 깊이는 새기지 못했지만 그 구수한 입담에 끌려들어 연신 턱을 끄덕거렸다.

《내가 조선사람 싸우는것 봤느냐구요?》

준삼은 윤원구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그래, 윤형은 저 15도구랑 반절구에서 왜놈들이 **김일성**장군님 부대에 되게 얻어맞았다는 소문을 못들었소?》

《아니, 그럼 그게 사실이요? 일전에 우리 토장에 다니는 말파리령감이 쉬쉬하며 그 비슷한 소리를 하더니…》

윤원구는 감질이 나서 바싹 다가들었다.

《이제 두고보시오. **김일성**장군님 부대가 머지 않아 조선으로 쳐나오지 않나.》

준삼은 이렇게 사람들과 친해져서 그들의 어두운 가슴에 희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또 그들로부터 적지 않은 적정자료를 알아내기도 하였다.

요시다 역시 김준삼에 대해 대만족이였다. 그리하여 5m이상 치라는 벌목구역을 가까운곳만 적당히 치고 좀 떨어진데는 3m도 치나마나했지만 준삼이가 너스레를 떠는바람에 넘어가서 일을 아주 잘했다고 치하까지 하고 작업을 마감지었다. 김준삼과 성림이에게는 래일 농사동주재소에 찾아오면 자기가 꼭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고 거듭 약속하였다.

8

리룡철은 차가수물동가에 쭈그리고앉아 자기 팔자를 저주하고있었다.

낚시대는 제갈데로 가라고 내버려둔채 큰저고리소매속에 두팔을 잔뜩 지르끼고 우들우들 턱을 떨었다.

이렇게 으시시할 때는 따끈한 매운탕에 소주 한잔만 들이키면 온갖 잡병이 다 떨어지고 심화도 가라앉는 법인데… 그러나 지금은 요지부동이다. 팔자에 없는 끄나불노릇을 하자니 술조차 먹고싶을 때 마음대로 먹게 되지를 않는다.

끄나불이라도 어디 내놓고 말할만 한 버젓한 끄나불이 아니라 제 동생놈의 끄나불이다. 맏이라는게 애비의 재산도 저는 푼전한잎 손대보지 못하고 동생놈의 금광바람에 다 처넣었지 용돈을 얻어쓰는것도 매번 동생놈의 지청구를 들으며 몇잎씩 동냥얻듯 한다. 그런끝에 이제는 동생의 끄나불이 되여 벌써 며칠째 낚시대를 들고 리명수물가를 오르내리며 행인을 살피고있다. 호철의 말인즉 자기는 동생의 끄나불이

아니라 관동군의 특수선무공작반장 시마끼소좌의 정보요원이며 머지 않아 정식증명서도 받게 된다고 한다.

(흥, 개떡같다. 내가 증명서는 해서 뭘해? 돈이면 그만이지.)

룡철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돈때문에 동생한테 매여사는 몸이 됐는데 이제 동생의 수족이라는것을 더 뚜렷이 확증해줄 그따위 증명서가 무엇에 필요하단말인가.

하기는 생각해보면 자기가 형이면서도 동생의 괄세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것은 이미 팔자에 찍혀져있는 일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형제가 차례를 헛갈려나왔다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는지 모른다.

이제는 20여년전 일이지만 룡철이와 호철이형제는 함께 마마를 앓았다. 얼굴에 손만 대면 곰보가 된다고 아버지 리덕선은 엄하게 단속하였다. 당시 룡철은 열살이 넘은 나이였고 호철은 겨우 여섯살이였다. 룡철은 장차 곰보가 되는 한이 있어도 당장 살고봐야겠다고 얼굴을 긁어서 결국 살짝곰보가 되였다. 호철은 얼굴에 여드름자국 하나 없었다. 그것을 보고 부모들은 말할것 없고 이웃사람들까지 벌써 형이 동생에게 눌려살게 될 오늘을 내다보았다.

룡철이가 고진동에 나들면서 덕대질을 할 때까지만 해도 맏아들이고 그러다 혹 돈을 걷어쥘지도 모르기때문에 집안에서나 친지간에 그렇게까지 돌리우지는 않았다. 그러던게 투전판에 휘말려다니다가 로동자들의 임금을 잘라먹고 뛴것이 빌미가 되여 종당에는 류치장출입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의 운명과 처지는 결정되였다. 당시 군산림주사이던 동생은 두루 힘을 써서 일을 무사히 수습해주었으며 호리모도목재판에 십장자리 하나를 얻어주었다. 그러나 거기서 또 한해가 못가서 검척때 협잡을 해먹다가

싸움이 붙어 둔장대로 회계원을 병신이 되도록 패준것때문에 혜산까지 끌려가 재판을 받았다. 그것 역시 동생의 힘으로 집행유예가 되여 풀려나왔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아버지의 재산상속자자리도, 형으로서의 위신도 다 들짱이 난 뒤였다.

《형님, 이거 자리라도 좀 옮겨봅시다.》

짝패인 하늘소가 부르르 진저리를 치며 사정하였다. 이놈은 호철이가 직접 달고다니는 진짜 끄나불인데 새벽부터 궂은비를 맞으며 강가에서 떨자니 정 급한 모양이다.

《자네 정신있나? 유격대가 나들 길목을 지킨다는걸 잊어버렸나? 자리를 옮길바에야 무산옥이나 리명수 개장집에 가서 술이나 한잔 할판이지.》

《흥, 너무 그러지 마시우. 유격대가 무슨 유격대란말이요. 유격대가 조선에 나왔다면 하필 갈데가 없어서 형님이나 내앞을 지나가겠소. 공연한 소리지. 헌데말이요.》

하늘소는 바싹 다가붙으며 수군거렸다.

《이사람아, 그 낚시를 보라구. 이건 왜 마구 엉클어놓으며 이 야단인가. 이제 고기가 달렸는가 했는데…》

《헤헤헤, 형님 고기는 무슨 고기… 그러지 말고 이와이구미에라도 잠시 들려서 몸 좀 녹이자구요. 이게야 살이 떨려서 견디겠나요.》

《이젠 날이 개였으니 몸이 떨리는것은 좀 나아지겠지. 헌대 임잔 옛날에 경찰물이랑 먹었다는 사람이 왜 그모양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걸 몰라서 이러는가?》

룡철은 제법 의젓하게 나왔다. 그러나 하늘소는 차츰 더 기막히다는 상을 지었다.

《아니 형님, 그럼 여기서 진짜 유격대라도 한둘 잡을 작정을 하시우?》

《맞다들리면 잡아야지.》

《아이구 맙시사. 이건 진짜 맹물단지로군. 형님, 그런 소리는 동생이나 저 시마끼소좌앞에 가서 하시오. 오늘날 **김일성**유격대를 잡겠다고 나선 사람이 수만, 수십만이 되지만 진짜 유격대하고 맞다들리고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보기에 관동군사령관도 그렇고 조선총독도 그렇단말이요. 될수만 있으면 유격대가 강건너쪽으로 건너가주었으면, 제발 이쪽으로는 건너오지 말았으면 해서 조선에서도 만주에서도 압록강을 철통같이 지키고있단말이요. 맞다들리면 제가 죽겠는데 그걸 누가 바라겠소. 내 호철씨의 형님이기때문에 다 터놓고 하는 이야긴데 이다음에라도 유격대와 맞다들리면 피하는게 좋아요. 어디서 유격대를 보았다고 찔러바치기만 해도 돈이 생기겠는데 공연히 앞장에 나서서 돌아치다가 여벌이 없는 모가지나 잘리우게요.》

《뭣이 어째 이놈, 네놈이 가만보니 천하 건달이가 아니면 나를 중떠보자는 수작이구나.》

룡철은 하늘소의 말이 가슴에 띠끔하였으나 겉으로는 드센척하며 눈을 지릅떠보였다. 그러나 하늘소도 사람을 능갈쳐먹는데 이골이 난 위인이라 룡철이따위의 위협에는 눈섭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쉿, 허튼수작 말고 정신 바싹 차리우. 다리목에 수상한자들이 나타났소.》

하늘소가 저쪽으로 떨어져가며 튕기는 말에 찔끔해서 뒤를 돌아본 룡철은 긴장되였다. 다리목으로 다가가던 두 행인이 곧장 낚시터로 다가오는것이였다.

룡철은 허둥지둥 낚시대를 쳐들어서 미끈거리는 미끼를 한참 신고해서야 겨우 꿰였다. 벌써 발자국소리가 다가온다. 저놈들이 무엇때문에 이쪽으로 오는가? 이쪽으로는 길도 없고 인가도 없는데… 낚시를 다시 치며 얼핏 스쳐보니 웬 까닭인지 벌써 여느 길손과는 다르다는 그 어떤 직감이 머리속을 인두처럼 지지였다. 그 순간부터 룡철은 벌써 제정신이 아니였다. 여느 길손과 다르다면 무엇인가? 호철이가 어느때 유격대가 쳐나올지 모르는 형편인데 유격대가 쳐나온다면 그 길잡이들이 먼저 들어와서 정찰을 한다고 했지. 이게 혹시 바로 그 유격대정찰병이나 아닌가…

《이런 날씨에 고기가 물립니까?》

어느새 바로 등뒤까지 다가온 행인이 이렇게 물었다. 잔뜩 마음의 탕개를 죄였던것이 맹랑하게 느껴질만큼 부드럽고 쾌활한 목소리였다. 그런 기분을 타고 룡철은 뒤를 힐끔 돌아보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고기가 물릴게 뭐요?》

《그럼 다른 낚시질을 하는게 아니요?》

《뭐요? 이 량반이 장히 오지랖이 넓다. 여보, 남이야 무슨 낚시질을 하든 웬 상관이요?》

룡철은 마음이 좀 놓이자 어느새 불량배의 본바탕을 드러내며 시비를 걸고들었다.

《여보, 리룡철씨, 초면도 아닌데 그만한게야 못묻겠소.》

룡철은 홱 고개를 돌렸다. 과연 낯익은 얼굴이 웃고있다. 오늘 고진동 남사갱에 있던 패거리들이 금천동으로 갔는데 그 패거리는 아닌가? 아니다!

순간 룡철의 마마자국마다에서 혈기가 가셔졌다. 야학선생이다. 파업을 선동하던 사회운동자다.

《유격대다! 하늘소, 뛰여라!》

룡철은 낚시대를 성림의 면상에다 활 쥐여뿌리는참 냅다뛰였다.

그러나 하늘소는 그보다 먼저 수를 썼다. 워낙 이런 일에 문리가 트인 하늘소는 두사람이 다가오는 그 순간부터 뛸 차비를 하고있었던것이다.

《중대장동무, 이놈은 내가 맡겠습니다.》

성림은 멍구럭멜빵을 죄여서 틀어쥐며 내달았다.

《총질은 하지 마오.》

김준삼은 숲속으로 여우새끼처럼 빠져달아나는 하늘소를 뒤쫓으며 귀띔하였다.

룡철이는 숲속 오솔길을 한참 달리다가 갑자기 큰길쪽으로 빠졌다.

술독에 파묻혀 살다싶이 하다보니 사지가 비탈린 몸이지만 정작 목숨이 경각에 달린이 마당에는 돌개바람을 일구며 어찌나 빨리 달아나는지 성림의 달리기솜씨로도 따르기가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이 아근의 지형을 샅샅이 꿰고있는놈이라 급하면 으슥한 숲속으로 몸을 감추군 하여 첫참에 놓쳐버린 성림이로서는 차츰 따라잡기가 어렵게 되였다. 더구나 그놈이 큰길로 빠진것도 목재판과 림산마을이 가까운쪽으로 달아나는것도 다 꿍꿍이수가 있는것이였다. 총질을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한정 따라가다가 행인이라도 나타난다면 문제이다.

다행히 곧장 열린 큰길이 아득히 뻗었는데 사람그림자라고는 얼씬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좌우로 숨어들어갈만한데도 없었다.

룡철이란놈도 이 모퉁이에서 자기 명줄이 끊어지든 이어지든 결판이 난다고 느꼈는지 숨가쁘게 달리면서 연신 좌우를 살피다 못해 하늘까지 쳐다보았다. 마음속으로 하느님을 부르는 모양이다.

밋밋한 고개가 나타났다. 허항령초입이다. 룡철은 더는 숨을 쉬여내지 못하겠는지 두팔을 물레바퀴 돌리듯 휘저으며 마치 취한놈처럼 비틀비틀 그 고개를 톺아올랐다. 이때라고 생각한 성림은 마지막 기력을 모아 고개를 냅다 올리뛰였다.

룡철은 뒤따르는 발자국소리가 바투 다가오자 뒤다리로 흙을 걷어차며 대가리만 앞으로 내밀고 허우적거렸다.

《리룡철씨, 이제는 그만하고 말 좀 해보지 않겠소?》

성림은 그의 뒤덜미로 손을 뻗치며 침착하게 말했다.

《으흐흐, 살려주, 정말 살려주. 나, 나는 잘못한것 없소.》

토막토막 찢어진 비명을 내지르던 룡철은 마침내 고개길에 어푸러졌다. 땅바닥에 가슴을 대고도 그는 필사적으로 기였다. 그러나 성림의 모습이 허리어방에 얼찐하자 방금 죽어가던놈답지 않게 화닥닥 몸을 뒤채더니 벌떡 일어나면서 손을 괴춤에 가져갔다.

그놈의 손에서 시퍼런 비수가 번쩍 하고 묻어나오는 순간 성림은 몸을 날려 놈의 정갱이를 걷어찼다.

룡철은 2~3m 비칠거리더니 땅바닥에 태질을 당했다.

성림이가 서둘지 않고 그놈의 뒤덜미를 잡아일으키자고 하는데 고개마루에 인기척이 났다. 성림은 주춤해서 손을 괴춤으로 가져갔다. 만일 적이라면 별수없이 쏘아제껴야 할것이였다.

다행히 고개마루에 나타난것은 내외간인듯 한 젊은 남녀와 숙성한 총각인데 어느모로 보나 수수한 나들이군들이였다.

방금 죽어가던 룡철이도 인기척을 느끼자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사람 살리오. 강도요. 사람, 사람 살리오-》

놈은 살수가 났다고 화끈 단 목청을 내뽑으며 행인들에게로 뒹굴어갔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벌벌 기여오는 룡철이와 우뚝 선 성림을 번갈아 바라보던 행인들은 짧게 몇마디 수군거리더니 그중 건장해보이는 남정이 리룡철을 맞받아내려왔다.

《강도가 어느게요? 어서 이리 피하시오. 그 칼은 나 주고…》

그 사람은 성큼 리룡철을 안아일으키더니 듬직한 가슴에 리룡철을 바싹 다가끼고 그의 손에서 비수를 비틀어빼였다.

《성림동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특무요. 조심하오. 그런데 장동무는 웬일이요?》

성림은 이런 로상에서 장경수를 만난것이 기쁘기도 하고 뜻밖이기도 하여서 부르짖었다.

《내 성림동무가 이 모퉁이에서 이러루한 고생을 할줄 알고 목을 지키는길 아니요. 허허허.》

성림이와 장경수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듣고 리룡철은 봄볕에 눈사람녹듯 제풀에 허물어져 주저앉아버렸다.

×

특무를 처단해버린 다음 네사람은 길가에서 숲속으로 좀 들어가앉았다.

성림이가 어디를 가느냐고 묻자 장경수는 심상해서 지방공작을 간다고 대답하는데 금숙이의 표정은 굳어지더니 별안간 눈물이 글썽해졌다. 성림이의 질문이 어딘가 그의 가슴의 여린 부분을 건드린것 같았다.

무엇인가 곡절이 있는 모양이다. 재영이의 표정도 그러고보면 평범한것 같지를 않았다.

그들이 장군님으로부터 어떤 과업을 받고 떠난다는것을 알리 없는 성림은 아무래도 새길수가 없어 다시 말했다.

《아니 그렇게 낯빛이 굳어가지고야 어떻게 공작을 하겠소? 참 금숙동무가 이럴줄 몰랐구만.》

《그런게 아니요.》

하고 장경수가 방금 리룡철이에게서 빼앗은 비수랑, 증명서따위 소지품을 성림에게 넘겨주며 그답지 않게 심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지방조직에 가서 공작할 임무만 받은게 아니라 사실은 장군님의 부탁도 받고 간단말이요.》

《부탁이라니? 아니 장군님께서 하시는 일에 무슨 과업이 따로 있고 부탁이 따로 있단말이요? 장군님의 말씀이면 그게 그대로 우리의 혁명임무이지.》

《그러게말이요.》

하고 장경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사사로운 부탁이라고 하시면서 신양광산에 가서 한태혁의 누이동생을 찾아오라고 하셨단말이요.》

《뭐 한태혁의 누이동생!》

성림은 외마디소리로 되묻고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신양광산이라면 자기가 있던 남사갱에서 10리안쪽에 있던 광산이다. 태혁이가 살아있을 때 그가 은근히 신양광산 이야기를 물은적도 있고 거기에 누이동생을 두고 왔다는 말을 한적도 있다. 그런데 나는 이 그리운 조국땅에 와서 왜 그 생각을 못했는가.

《그래서 금숙동무를?…》

성림이가 떨리는 소리로 말하자 금숙이는 마침내 무릎우에 놓인 자그마한 보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달비를 들이고 쪽진 머리가 흔들리면서 피마주기름냄새를 풍겼다.

성림은 깊숙이 고개를 떨구었다. 조선혁명이 사령관동지의 인간에 대한 위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였다는 생각이 다시는 드놀지 않을 확신에로 승화되는것을 스스로 느낄 때 성림의 눈귀에도 가는 이슬이 배여나왔다.

성림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기는 신양광산 바로 옆굴에서 일했지만 한태혁이의 누이동생 생각을 못했다고 허심하게 말하자 금숙이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난… 사실 태혁동무때문에 내가 동정을 받는다는것이 부끄럽고 송구해서 견딜수가 없어요. 나는 남몰래 우느라고 했지만 내 얼굴은 얼룩져보였던거예요. 그런 꼴을 장군님께서 보시고 걱정하시던것을 생각하면 장군님의 그 큰사랑앞에 너무나 송구해서 얼굴을 들수가 없어요.》

재영이도 심란한 얼굴로 앉아서 이제는 퍼그나 멀어진 청봉의 하늘을 바라보며 어른같이 석섞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 이제는 그치라요. 이제 성림동무가 가서 우리를 만났다고 보고를 드리면 꼭 어떻게 하고들 가던가고 물으시겠는데 찔찔 짜면서 가더라고 하면 장군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이녀석 말버릇 봐라!》

장경수가 재영의 무릎을 철썩 치며 말했다.

《그만두라요. 자꾸들 그러니까 나두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녀자 혼자 울어도 모르겠는데 나까지 울상을 짓고 다니면 우리 공작은 영낙없이 실패란말이요.》

《하기는 재영이 말이 옳아. 금숙동무, 이제는 눈물을 거두라구. 그리고 친정나들이 갔다오는 새각시답게 한번 아장아장 걸어보라구, 자 성림동무, 이런걸 가서 보고드려주게.》

장경수의 너스레에 네사람의 얼굴은 비로소 활짝 개였다.

금숙이는 치마말기에서 수은이 좀 벗겨진 동그란 손거울을 꺼내여 들여다보며 머리를 다듬었다. 단발한 머리라 아무래도 머리단장에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

성림이는 새끼손가락을 까부리고 귀밑머리를 달비밑으로 정성스레 찔러넣는 금숙의 모습을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형수님, 그럼 잘 다녀오시우.》

성림은 오래간만에 이런 롱담을 하며 풍산으로 떠나는 일행과 헤여졌다.

9

천고의 밀림속에 밤이 깊었다. 그렇게 웃고 떠들고 노래하던 대원들도 이제는 다 잠들었다. 하기는 오늘 로정이 간단치 않았다. 가슴에 안았던 흥분도 컸다. 그래서 밤을 새우며 노래할것 같더니 그믐달도 기울자 마침내 조국의 향취를 풍겨주는 풀밭에 볼을 대고 잠들어버렸다.

사령관동지께서도 고깔불빛에 비쳐보시던 지도를 접으시였다. 두개의 습격조는 이미 떠나갔다. 이제는 필요한 군사적조치를 다 취하시였다. 그래서 그런지 지도를 들여다보시면 등고선과 산줄기, 강줄기 같은것이 아니라 그리웠던 조국인민들의 생활화폭이 그대로 군용지도우에 펼쳐지는것이였다. 줄당콩더기 늘어선 동구길을 들어서면 매질을 한것 같은 마당이 있고 동기와지붕우에 박꽃이 주렁진 귀틀집이 있다. 아니다, 지금은 이른봄이라 씨붙임도 할지말지 한데 박꽃은 아직 없을것이다. 오히려

겨우내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리면서 썩은 동기와짬으로 잡초가 돋아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차 그런 생각은 지워지고 또다시 빨간 고추를 널어놓기도 하고 제비둥지가 달린 처마끝에 씨강냉이를 매달아놓기도 한 철을 초월해버린 풍경이 떠오르는것이였다. 생각에 따라 그렇게 집모양, 동네모양은 달라져도 사람들의 모습은 언제나 한모습으로만 그려지시였다. 부지런하고 마음씨 어진 할아버지들의 주름진 얼굴, 물레질에 손바닥이 갈라지고 베매는데 목이 다 쉬여버린 할머니들, 배고프다고 보채는 아이를 달래다달래다 울어버리는 아낙네들- 번갈아 허공중에 떠올라 무엇인가 호소하고 애원하는 그 얼굴들을 그리실 때 장군님의 가슴은 그리움에 젖어드시였다.

《난 몰라, 난 몰라. 삼촌이 그랬는데뭐.》

방금까지 고깔불을 지키며 졸던 상철이가 어느새 모로 쓰러져서 잠꼬대를 한다. 솜털이 보르르한 도톰한 입을 벌리고 해죽해죽 웃는다. 삼촌과 장난질을 하다가 들킨 꿈을 꾸는가? 그에게는 이미 부모도, 형제도, 삼촌도 아무도 없다. 그래도 조국의 품에 안기니 고향집에 돌아온것만 같아서 삼촌과 함께 지내던 그 시절의 꿈을 꾸는것인가.

사령관동지께서는 상철이를 편안히 불무지곁에 눕히시고 담요를 덮어주시면서 이윽히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시였다. 어느새 웃음은 사라졌다. 아까 불무지를 손질하며 우리는 언제 마을에 들리느냐고 검질기게 캐묻더니 이제 또 무슨 꿈을 꿀것인가.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용히 일어서시여 풍바깥으로 나서시였다. 싸늘한 5월의 밤공기가 가슴에 스며든다. 하늘을 쳐다보시니 그믐때라 백사장의 모래를 쥐여뿌린듯 별도 많았다. 그 모든 별들이 저마다 할말이 있고 여쭐 사연이 있다는듯 눈을 깜빡거린다.

그것들이 모두 눈물을 글썽히 담고 바라보는 인민들의 눈동자같기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찬이슬 내리는 숙영지를 거니시였다. 잠든 전사들을 깨울가봐 소리없이 풍들사이를 걸어가시던 그이의 발걸음은 독립대대 숙영지를 좀 지나서 주춤 멎어서시였다. 웬 대원이 풍과는 퍽 떨어진 외딴 이깔나무그루에 등을 대고서서 하늘을 쳐다보고있었다.

어둠속에 잠시 살펴보시니 리성림이였다.

조국의 품에 안기여 잠들수 없는 사연이 많을 동무였다. 더구나 오늘 정찰에 나가 가까왔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다니 충격이 클것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성림이와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싶으시였다. 그의 심정도 들어보고 그가 본 인민들의 생활형편에 대해 간접적이나마 더 좀 구체적인것을 알아보고싶으시였다. 아직 부대행동의 성격으로 보아 사령관동지자신께서 직접 인가에 들리시기는 당분간 어려울것 같으시였다. 그것이 단 며칠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리워하던 조국인민들과의 상봉을 미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때 참을수 없이 안타까우시였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가까운 목재판에서 도끼소리를 듣고 찾아온 로동자를 몇사람 만나보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으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 다가가시니 성림이는 놀라서 돌아섰다. 그가 소리칠듯 하기에 미리 손을 들어 제지하신 사령관동지께서는 낮게 말씀하시였다.

《나요, 왜 혼자 나왔소?》

《아, 사령관동지!》

《목소리가 너무 크오. 그래 왜 혼자 나왔소? 잠이 오지 않소?》

성림은 고개를 떨구더니 머뭇머뭇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의 손을 잡으시고 더 좀 멀리 숙영지를 벗어나시였다.

《나도 잠이 오지 않소. 동무도 잠이 오지 않아서 나왔겠지?》

《그렇습니다. 암만해도 잠들수 없는데 자꾸 돌아누우니 옆사람을 깨워놓을것 같아서…》

《그건 그렇소. 잠든 사람들의 한복판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챈다는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요. 내가 그전에 지하공작을 할 때 변장을 하고 객주집같은데 들리면 모두 태평으로 코를 고는데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통 잠들수 없지… 그럴 때는 애를 먹었소. 자, 여기 앉아서 이야기나 해봅시다. 여기쯤 나앉으면 아무도 모를거요.》

사령관동지께서는 거밋하게 누워있는 진대통을 가리키시며 성림이의 어깨를 눌러 먼저 앉히시였다.

성림이는 어쩐지 사령관동지의 말씀이 가슴에 스며드는것을 느끼면서도 그이께서 다지새여가는 이밤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자는것인지 짐작을 못하여 어리둥절하였다.

《내가 이제 오다가 보니 김준삼동무는 한잠이 들었더군. 낮에 특무놈을 놓쳐버렸다고 그렇게 분해하더니 벌써 다 잊어버린 모양이요.》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성림이곁에 허물없이 걸터앉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정말 성격이 좋습니다. 날카로울 때는 칼날같은데 누그러지면 꼭…》

성림이는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쭈밋거렸다.

《누그러지면 떡반죽같지. 나도 짐작이 가오. 성림동무도 혁명을 하자면 성격이 그런 맛이 있어야 해.》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성림의 어깨를 쓰다듬으시였다.

《그래 오늘 정찰에 나가서 본 이야기를 좀 해보시오. 낮에는 정찰보고다보니 사실만 골라서 내놓았겠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고 시간도 푼푼한 셈이니 본것, 들은것 다 이야기를 해보시오.》

《저 중요한것은…》

하고 성림은 벌떡 일어났다.

《자, 이러지 말고 앉아서 말하시오.》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급히 성림의 어깨를 눌러앉히며 말씀하시였다.

《그래 중요한것은 다 이야기했소. 경찰, 군대의 배치와 이동상태도 이제는 대체로 짐작이 가오. 낚시군으로 가장한 특무를 한놈만 잡고 한놈을 놓쳐버린것도 너무 분해할것이 없소. 우리가 미리 그럴줄 알고 습격조를 내보냈는데 이제 도망간놈의 보고까지 들어가면 효과가 더 클수 있소. 특히 경비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군대나 경찰들도 얼씬 못하게 엄중단속한다는것이 매우 흥미있소. 흠, 총독이나 경무국장놈이 내려오기를 기다린다고 했지. 아주 흥미있는것을 알아냈소.》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성림의 어깨를 쓸어보시면서 말씀하시였다.

《동무들도 느꼈겠지만 이건 아주 흥미있는 일이요. 그러니까 그놈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수 있소. 요점은 그게요. 그러니 이제부터 중요치

않다고 하는것을 말하란말이요. 나한테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것이 따로 없소.》

사령관동지께서는 갑자기 어조를 낮추어 말씀을 이으시였다.

《성림동무, 터놓고 말하면 나는 우리 인민들의 일이 궁금해서 그러오. 어떻게들 사는지, 우리가 이태만에 조국땅에 온셈인데 그지간에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러니 말이요. 우선 동무들이 인민들과 접촉하던 이야기부터 빠짐없이 있는대로 다 말해보시오.》

성림은 비로소 사령관동지의 말씀의 뜻을 새겨들었다.

그는 잠시후 떠듬떠듬 말하기 시작하였다.

《중대장동무가 처음에 그 순사놈을 업어넘기기 위해 비위를 맞추어주고 나중에는 서로 어깨까지 두들기면서.…》

《준삼동무가 그렇게 푸접이 좋소?》

사령관동지께서는 본시 그런줄 알고 내보내시였지만 새삼스러운 흥미를 느끼고 물으시였다.

《어떻게 구슬려놓았는지 나중에는 그놈이 불평을 다 했습니다. 에- 경찰관이 십장인가, 나는 못해먹겠다, 너나 다 감독하라, 이러면서 저는 뒤전에 물러나앉고 중대장동무를 무슨 반장같은것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윤원구네랑 처음에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렇겠지, 왜놈한테 알랑거린다고 생각했겠지.》

사령관동지께서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지으시였다.

《신사동에서 왔다는 청년은 일부러 나무를 중대장동무 있는데로 넘겨뜨려서 다칠번했습니다. 워낙 중대장동무가 몸이 날래니 무사했지 다른 사람같으면 다쳤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설복을 해도 귀를 잘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대장동무는 그 순사놈을 멀찌감치 밀어내놓고 판을 가르고 나서더니 보천보전투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래 반응이 어땠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거기 별로 나쁜놈같은것은 없었지만 불과 10m도 못되는곳에 왜놈순사를 두고 그런 말을 꺼낼줄은 몰랐습니다.》

《준삼동무가 그만한 판단이야 못하겠소. 다 타산이 있었겠지. 그래 놀라더란말이지?》

《눈들이 둥그래졌습니다. 중대장동무는 자기가 유평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가만보니 왜놈들의 말은 모두 거꾸로 들으면 랑패가 없더라는것입니다. 왜놈들이 유격대를 다 없앴다고 떠들어대자 보천보를 들이쳤는데 요즘 왜놈들이 또 와짝 혁명군을 다 없앴다고 떠드는것을 보면 또 그때처럼 유격대가 쳐나올것 같다, 그래서 저놈들이 경비도로공사를 이모양으로 다그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떼놓자 사람들이 중대장동무곁에 줄줄 묻어다니게 됐습니다. 그다음에야 가슴깊이 품고있던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민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령관동지께서 보천보를 치실 때처럼 다시 나오실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있습니다.》

이야기는 차츰 생활적인데로 들어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럴수록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였다.

《윤원구는 주름살이 늘고 퍽 늙었습니다. 아직 마흔밖에 안됐는데 얼핏 보면 늙은이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림동무와 헤여질 때 그 사람이 서른대여섯 됐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사이 아이를 둘이나 죽였다니 겉늙을수밖에 없지. 그런데 데리고가는 아이가 또 앓는다면서?》

《뭐 자꾸 개핀다고 합니다.》

《개피는데는 아편이 약인데… 미리 그런것을 알았으면 우리 군의한테 좀 얻어가지고 갈걸 그랬습니다. 앓는 애를 데리고 어떻게 천여리길을 그 고생을 하면서 가겠소?》

《…》

성림은 입을 다물어버렸다. 사실 그는 벌목할 때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앓는 사람이 그 아이만이 아니였습니다.》

이윽고 성림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다.

《그 류랑가수라는 사람도 기침을 쿨럭쿨럭하고 유곡에서 장보러 간다고 바구니를 몇개 결어가지고 떠난 로인은 허리증이 심하여 간신히 걸음을 옮겨놓는 형편인데 그렇게 강제로 부역에 내몰렸습니다.》

《앓는 사람이 왜 많지 않겠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우에 그런 비인간적인 학대와 굴욕을 받으면서 고역에 시달리니 어찌 앓지 않을수 있겠소.》

사령관동지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일어서시였다.

어느새 은하수도 숲정수리우에 낮추 드리워 길게 비껴갔다. 밤이슬에 사령관동지의 군복은 축축히 젖었다.

성림이는 몇번이고 우등불곁으로 가시자고 권하였으나 그이께서는 그냥 화전촌이며 처서판사람들의 이야기를 캐여물으시였다.

조국진군작전의 웅대한 구상을 품고계시는 사령관동지의 가슴속에 화전촌의 씨붙임이며 잇지 못한 지붕이며 하는것들이 그처럼 큰 비중을 가지고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을 커다란 경탄속에 느낀 성림은 망국의 설음에 허덕이는 우리 인민이 **김일성**장군님을 해와 같이 따르며 목마르게 기다리는 진정한 원인을 새삼스럽게 깨달은듯 하였다.

10

《아무래도 우리는 유곡에서 묵을걸 그랬나보네.》

신사동의 불빛이 빤하게 바라보이자 윤원구는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별소릴 다하우다. 유곡에서 자면 앓는 아이를 데리고 래일 삼장까지 가댈것 같소다?》

정섭은 업고있던 진호를 춘길이에게 넘겨주며 말을 이었다.

《이쪽 끝머리집이 우리 집이오다. 슬슬 따라들 오시오다.》

정섭이가 손님들이 온다는것을 알릴양으로 한걸음 먼저 달려가자 일행은 실개울우에 놓인 나무다리앞에서 주춤거리며 멎어섰다. 우중충한 숲그늘이 절벽인듯 그들앞에 막아섰다.

《아닌밤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덮쳐들면 그 집에서 딱해하지 않겠소? 내남없이 어려운 봄철인데…》

진호 어머니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한숨을 지었다.

장대선아바이가 그런중에도 반죽좋게 위안의 말을 하였다.

《아주머니, 걱정 마시오. 그 집 형편이야 뻔하지요. 허지만 우리도 정섭이 할아버지와 모르는 처지도 아닌데 먼길을 떠나면서 문전을 스쳐지날수야 없지 않소. 앓는 아이가 둘씩 된다니까 어렵기는 하겠지만 시원치 못하면 인사나 하고 <이시가와구미>에 나가서 하루밤 묵어갑시다레.》

《참 <이시가와구미>에 나가면 되겠소다. 거기에 하칠소에서 넘어간 친구들도 있으니…》

춘길이가 또 몸을 뒤트는 진호를 다독거리며 말했다.

큰 임보퉁이를 이고 뒤전에 처져있는 필네와 김인수만이 말이 없었다.

무포어방에서 강제부역에 내몰리다나니 길이 늦어진데다 또 신작로로는 가지도 못하게 해서 결국 밤이 들어서야 지친 다리들을 끌고 신사동까지 와닿았다. 길이 지체된것도 된것이지만 그놈들에게 당한 천대와 모욕을 생각하면 밤길을 내처 걸어서라도 강을 건너가버리고싶었다. 그러면서도 필네는 기왕 신사동을 지나게 되였으니 고맙게 대해주던 정섭이의 할아버지와 심하게 앓는다는 귀여운 영섭이를

마지막으로 만나볼수 있다는것이 그런중에도 다행스럽게 생각되였다. 그 애가 아직 앓는다면 하루밤 병구완이라도 해주고 갔으면싶었다. 그러나 어둠에 잠긴 괴괴한 산골동네의 풍경은 까닭없는 불안을 몰아왔다. 아직 밤이 깊지도 않았는데 불켠 집이라고는 몇집 되지 않았다. 그중 불이 밝은 외따로 떨어진 큰 귀틀집이 《이시가와구미》의 밥집이거나 현장사무실인 모양이고 나머지는 반디불만도 못한 빤한 불빛이 숲사이로 가냘프게 새여나올뿐인데 그나마 정섭이의 집이라고 짐작되는 집에는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귀신의 화를 입은 옛말속의 동네같았다.

일행이 불안스럽게 기다리는 사이 정섭이는 서둘러 자기 집 문전으로 다가갔다. 울바자도 없는 마당에 껑충하니 서있는 가래나무아래에 서자 음침한 랭기가 확 풍겨왔다. 이게 정다운 집이 옳기는 옳은가. 잠시라도 집을 비웠다 돌아오면 동구밖에서 울리는 발자국소리만 듣고도 문을 열고 나서던 어머니, 밤이 이슥토록 자새질을 하며 피곁바를 드리다가 짐승이 나오는데 밤길을 다닌다고 꾸짖군하시던 할아버지는 벌써 잠드셨는가.

《거 누가 왔소?》

웃간 바라지가 열리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리여나왔다. 동시에 정지간에서도 겨릅대에 불을 붙여든 어머니가 한절반 문에 몸을 기대고 《정섭이가 왔구나.》하고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정섭이는 가슴이 덜컥하였다.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번개같이 머리를 쳤다. 그는 멍구럭을 가래나무밑에 내던지고 한달음에 방안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소다?》

다급하게 물었으나 어머니는 포대기를 어깨에 걸친채 등디에 겨릅대를 꽂느라고 팔을 떨뿐 말을 하지 못했다. 포대기를 걸치고있는것부터가 전에 볼수 없는 모습인데다 신색이 말이 아니게 축갔다. 웃간의 할아버지도 《어험, 어험》 하고 기침을 톺아올리며 담배대로 재털이를 두드리는것이 어딘가 기가 죽어보였다. 어머니의 포대기밑에서 선잠이 깬 여섯살짜리 경섭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앉더니 《형!》하고 까칠하게 여윈 얼굴에 반갑다는 미소를 띠고 정섭이의 잠뱅이자락밑으로 조심스럽게 다리를 어루만졌다. 전같으면 깡충하며 뛰여올랐겠는데 앓고나서 맥이 없는지 그 어떤 불행이 철없는것까지 짓눌러놓았는지 알길이 없다.

《어머니는 어디 편치 않소다?》

정섭이는 조급증을 못이겨 다시 물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등디를 향해 앉아있을뿐 말이 없다.

《네 에미가 저 경비도로 부역에 끌려나갔다가 허리를 다쳤다.》

담배를 빡빡 빨고있던 할아버지가 바라지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다치다니요? 어디를 다쳤소다?》

정섭이는 놀라서 어머니옆에 꿇어앉아 포대기를 쓰고있는 앙상한 어깨를 더듬었다.

《일없다. 허리를 좀 다쳤지만 이제는 기동을 한다.》

어머니는 왜 그러는지 정섭이의 시선을 피하며 다시 돌아앉았다.

《아니 부역을 어떻게 했기다 허리를 다쳐요?》

《어떻게 할게 있니, 경비도로가 급하다구 순사랑 자위대랑 떨어나서 사람을 그렇게 치고 박고 하더구나. 그래도 이제는 다 나았다.》

등디에 겨릅대를 다 꽂아놓고도 그대로 옹송그리고앉은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되였다.

《영섭이는 어데로 갔소다?》

아래웃방을 휘둘러봐야 제일 반갑다고 달려나올 영섭이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인가 자꾸 다그쳐묻는 형의 얼굴이 무섭게 보였던지 경섭이는 어머니에게 가서 매달리며 어머니의 겨드랑밑에서 빠끔히 얼굴만 내밀고 말하였다.

《영섭이 죽었다. 토끼 잡으러 간다구 몰래 나갔다가 죽어서 할아버지가 땅속에다 묻어버렸다.》

《뭐?!》

정섭이는 비칠거리며 경섭이를 끌어안았다.

《어머니, 정말이오다?》

어머니는 포대기우에 얼굴을 파묻고있더니 애원하듯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손을 뻗쳐 격한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흐느끼듯 말하였다.

《모두 이 에미 잘못이다. 내가 그날 집만 비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었겠니. 활짝 꽃이 피여나서 가뜩이나 성미가 세찬놈을 집에 가두어놓고 부역에 끌려나갔더니 그사이 일이 벌어졌구나. 집에 가두었다고 가만있을 아이가 아닌줄 번연히 알면서도 그 구장이 하두 무섭게 다몰아치니 하는수없이 끌려갔구나…》

《그럼 할아버지한테 맡기면 되지 않소다. 이웃집 아낙네들한테 맡기든지…》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무슨 일이 있었겠니, 동네에 사람이라고 남기지 않았다. 저 봉식이네 로할아버지까지 끌려가고 치갑이네 새색시까지 다 끌려갔다. 내가 아이들을 눕혀놓고 일에 손이 붙겠니. 그랬다고 그 순사놈이 그렇게 행패질을 하더구나.》

정섭이는 우들우들 손을 떨뿐 할말을 찾지 못했다.

《그 리덕선이라는놈이 그렇게 악착한놈인줄은 몰랐다.》

하고 로인이 담배연기를 시름겹게 날리며 중얼거렸다.

《기왕에 무슨 독립군 뒤바라지를 한답시고 돌아치던놈이 구장벼슬을 하더니 악착하기가 짝이 없구나. 그놈이 빚을 좀 주었다고 그러는지 우리 집에 대해서는 더 각박하게 군다. 그날도 그놈이 앓는 아이 둘을 눕혀놓은것을 제눈으로 다 보고도 강억지로 끌어내더구나. 저물녘이 다 되여 허리를 상한 네 어미를 들것에 담아싣고 돌아오니 영섭이녀석은 벌써 어디로 빠져나갔더라. 아무리 철없는것이기로서니 그놈이 죽자고 귀신한테 홀렸지. 홍역이라는게 바람만 맞으면 그르치는 법인데 꽃이 새빨갛게 피여난 놈이 그 산속까지 들어갔다 나왔으니 일은 글렀지. 그날밤부터 다 피여났던 꽃이 싹 잦아들더니 이틀밤을 까맣게 타도록 몸이 달아서 앓다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

정섭이는 너무나 억이 막혀 귀가 웅웅할뿐 도무지 무슨 말을 듣는지 가늠할수 없었다.

《그럼 경비도로때문에 영섭이도 죽고 어머니도 다쳤다는거오다?》

그는 저도 뜻모를 소리를 한마디 묻고는 벌떡 일어났다.

《그래 영섭이는 어디 있소다? 영섭이를 어디다 묻었소다?》

그는 토방에 나서며 물었다.

《진정해라. 사람의 목숨이 파리목숨같은 세상이다. 그 애가 죽지 않은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조련하겠니. 차라리 잘 죽었지.》

할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먼 옛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이미 이 세상의 인간감정을 다 초월해버린듯 한 목소리였다.

그렇게 잔정이 많고 그중에도 영섭이를 귀여워해서 마을돌이를 가도 끼고다니고 백리가 넘는 장에도 데리고다니던 할아버지가 어찌면 저렇게 눈물 한방울 없이 말할수가 있을가. 그것이 탕개를 지내 죄여서 매듭이 물러난것과 비슷한 허탈상태라는것을 느끼는 순간 정섭이는 새로운 타격을 받은듯 하였다. 그는 제몸도 마음도 가눌수가 없어 귀틀벽에 이마를 짓찧으며 울었다.

《얘 정섭아, 바깥에 누가 오지 않았니?》

등디목에 옹송그리고 앉았던 어머니가 파리한 얼굴을 내밀며 물었다.

《저게 왠 사람들이냐?》

할아버지도 가래나무아래 들어서는 사람그림자를 보고 무릎을 일으켜세웠다.

쇠메로 머리를 단단히 얻어맞은듯 어리쳐있던 정섭이는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다. 자기가 이 순간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갈피를 못차리면서도 자기의 슬픔때문에 딴 사람들의 마음까지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칠소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우다. 접때 장날에 오셨을 때 고진동에서 왔다는 사람들 만나보지 않았소다? 그 사람들이오다.》

《아니 그럼 그때 구장아들한테 팔려 화룡으로 간다더니 종시 길을 떠난 모양이군. 저 처녀는 식모가 아니냐?》

할아버지는 서둘러 토방으로 내려서며 말했다.

어머니도 허리를 한손으로 짚고 마당에 내려섰다.

《어이고, 기어이 먼길들을 떠났구만. 고생이 막심하오. 날래 올라들 오시오다.》

강로인은 방금 한숨짓던 사람같지 않게 이 사람 저 사람 번갈아 인사를 나누며 엉거주춤해있는 그들을 방으로 들이몰듯 하였다.

《이사람아, 이 처녀가 우리 그녀석을 그렇게 고와하던 그 처녈세. 우리 집 아이에미가 자네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보고싶어했는지 모르네.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구. 애기엄마도 임이랑 내려놓고 들어서랑이.》

할아버지는 필네와 윤원구 처를 보고 이렇게 말하며 며느리쪽을 돌아보았다.

《우리 집 아이에미가 허리를 다쳐서 꼼짝을 못한다네.》

동구에 들어서면서부터 막연한 예감으로 엄습해오던 불안이 이때문이였구나 하는듯 사람들의 눈길은 정섭이의 어머니에게로 쏠렸다.

《참 아버님두, 허리 좀 다친게사 무슨 대수겠다구… 어서 구들에 올라들 가시오다.》

정섭이의 어머니는 입가에 웃음을 지으며 제먼저 방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거두었다.

남정네들은 할아버지가 거처하는 웃방에, 아낙네들과 아이들은 정지간에 자리들을 잡고 엉거주춤 앉았다.

정섭이만이 토방에 걸터앉아 골을 싸쥐고있다가 문득 일행이 아직 저녁전이라는것을 상기하였다.

그는 말없이 정지로 들어가서 아궁에 불을 살라넣었다. 아궁에서는 언제 불을 지펴봤는지 서늘한 랭기가 풍겨나왔다. 귀밀이나마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얘 정섭아, 네 어찌자고 그러느냐? 내가 이제 내려간다.》

어머니는 필네의 손을 잡고 한참 그 험한데를 찾아갈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을 보고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는 가마전에 엎어놓은 가달박을 집어들고 허둥지둥 정지바당으로 내려서려고 하였다. 겉보기에도 몸이 불편한것이 헨둥하고 여간 축가지 않았는데 또 동자질까지 하러 나서겠다니 필네로서는 가만 앉아 배길수가 없었다.

《어머니, 좀 앉아계세요. 앉아서 말씀들이나 하세요.》

필네는 급히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며 진호 어머니에게 눈짓을 해보였다. 그러지 않아도 옹색해하던 윤원구의 안해는 정섭이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놓지 않았다.

《형님, 두어두시우. 필네가 가만 있자 하겠소.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이야기나 합시다. 이 애가 홍역을 심하게 치른다더니 이제는 다 나은갑수다.》

아낙네는 진호또래인 경섭이를 쓸어보며 혀를 끌끌 찼다.

《에그, 얼마나 심하게 겪었기다 다리가 이 모양으로 새들새들 해졌을가… 그래도 일이 없소다. 병만 들리면 살이 오르는게사 잠간입지. 그런데 영섭이녀석은 어데로 갔소다?》

눈치가 좀 무딘 편인 진호 어머니는 새삼스럽게 아래웃방을 살펴보며 물었다.

필네는 바당으로 내려서던 발을 멈추고 어머니의 대답에 귀를 기울였다.

《마실돌이를 갔소다. 아이가 어찌나 세찬지… 밤이 깊어도 돌아올줄 모른다우다.》

《에그, 이런 산속에서 혼자 밤길 다니다가 짐승이라도 만나자고 그런당이, 원체 그 애를 보니까 부모속깨나 썩이겠더구마.》

《자식들때문에 속을 썩이는기사 어찌겠음.》

정섭이의 어머니는 턱을 무릎우에 놓으며 한숨처럼 중얼거렸다.

필네는 이 집에 무겁게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어머니의 허리때문만이 아니라는것을 어렴풋이 느끼였다.

정섭이를 밀어내고 아궁앞에 앉아서 살펴보니 어디라없이 어수선한 랭기가 풍긴다. 정섭이는 방금 길을 올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더니 갑자기 풀이 죽어서 시리죽은 상을 하고있다. 그는 어물거리며 뒤주옆에 놓인 회땜을 한 오지항아리에서 귀밀을 가달박에 퍼냈다. 가만히 엿들으니 바닥 긁히는 소리가 난다.

《구들에 올라가라요.》

가달박을 넘겨받으며 필네가 말하자 정섭이는 멍하니 바라보더니 《뒤울안에 김치움이 있어.》하고 바깥으로 나갔다.

잠시후 귀밀 일은 물을 버리려고 마당에 나서보니 정섭이는 가래나무아래 팔짱을 끼고 우두커니 서있었다.

캄캄한 그믐밤이였다.

웃간에서는 장대선아바이가 무슨 말끝엔가 깽깽이소리를 내서 모두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중에서도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는 높았다. 아래간에서는 아이들이 김인수의 색다른 짐을 건드린다고 어머니가 경섭이를 꾸짖더니 이어 진호가 얻어맞았는지 쿨쩍거린다.

음침한 불행의 그늘은 이미 가셔지고 사람다운 생활이 이 귀틀집마당에 깃들인것만 같았다.

필네는 그럴수록 가슴이 죄여들었다. 그는 정지문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정섭이에게로 다가갔다.

《어떻게 된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필네의 너무나 또렷한 물음에 정섭이는 당황한듯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였다.

《영섭이 어디 갔어요?》

필네는 어둠속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정섭이의 얼굴륜곽을 두려움에 차서 바라보면서도 다시 물었다.

《묻지 말라구.》

《왜 그래요? 영섭인 어떻게 됐어요?》

불행을 예감한 필네의 말소리는 벌써 떨리고있었다.

《그쯤 알고있으라는데…》

정섭이는 맥없이 중얼거리더니 걸음을 옮겨놓으며 뜨직뜨직 말했다.

《필네가 진개포수한테 갔다온거랑 내가 다 알아. 하지만… 이제는 다 소용이 없어, 그 자식은… 죽었어.》

정섭이는 얼이 빠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행길로 걸어나갔다. 아무래도 불행의 그늘이 짙게 깔린 지붕아래 손님들을 다 칠수 없으니 밥집에 잠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으나 그의 발걸음은 저도모르는 사이 영섭이를 데리고 돌배를 따러 가던 산속으로 향했다. 그러다가 뒤에서 울리는 씹어삼키는 흐느낌소리에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필네에게 공연한 소리를 했구나 하고 후회했다. 할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고통을 안고서도 흔연히 손님들을 대하는데 비하면 자기의 사람됨됨이 부끄럽게 생각되였다. 하지만 필네가 그렇게도 영섭이를 귀여워하던것을 생각할 때 어차피는 알려지고말 일이니 어쩔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뚜벅뚜벅 가래나무아래로 되돌아왔다.

《진정하라구, 모두 알면 할아버지나 어머니가 더 딱해할것 아니야.》

만나서 이태째 처음 들어보는 정섭이의 진정이 담긴 조용한 말에 필네는 눈물이 그렁한 얼굴을 들었다. 아무리 어둠이 첩첩해도 자기를 이윽히 바라보는 눈에 따뜻한 정이 어려있었다.

그런것을 느낄수록 필네의 가슴은 슬픔에 차올랐다. 이 세상은 어질고 착한 사람들에게만 불행을 덮씌우는 세상인가. 웃간 바라지를 통하여 정섭이의 할아버지가 껄껄 웃는 소리가 울리여온다. 손님들앞이라고 저렇게 흔연히 웃는 로인의 앙상한 가슴이 얼마나 쓰릴것인가. 그런것을 생각할수록 설음이 북받쳐올랐다.

《그걸 이리 내라구.》

정섭이는 흐느끼는 필네를 멀끄러미 바라보더니 가달박에 손을 뻗쳤다.

필네는 정섭이의 손을 뿌리쳤다.

《어쩌면 세상은 이렇게 모질가요? 난 너무 분해서 그래요. 다 큰 애를 죽이다니…》

필네는 잠시 서서 어깨를 떨다가 입을 감쳐물고 정지로 사라졌다.

11

막막한 백두밀림 한끝에 자리잡은 손바닥만 한 동네, 찌그러져가는 귀틀집추녀에 제아무리 불행의 그늘이 짙게 깔렸다 해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 불행이 한둘, 한두가지인가, 온통 불행으로 빚어놓은듯 한 이놈의 세상에 밑천 안드는 위안의 말이나마 푼푼히 나누어주기도 쉽지를 않다. 그래서 불행에 우는 인간들이 잠못드는 깊은 밤에 골고루 바라보라고 실날같은 그믐달이 하늘 한끝에 떠서 바르르 떨고있다.

타향살이 몇해런가
손꼽아 세여보니…

바이올린의 선률이 흐느끼듯 떨더니 김인수는 눈물이 그렁해서 감기에 쉬여버린 목소리로 그가 그중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다.

《이시가와구미》밥집의 식솔들은 저마끔 귀틀벽에 등을 비스듬히 기대고앉아 그렁한 눈으로 뙤창밖의 그믐달을 바라보고있다. 신문지로 봉한것이 바람에 찢어져서 바람개비처럼 펄럭거리는데 그 짬으로 하늘 한끝이 바라보였다. 너무 담배질을 해서

담배연기와 남포등의 그을음이 마치 굴뚝을 빠져나가듯 그 펄럭거리는 종이구멍으로 꾸역꾸역 빠져나간다.

정섭이네 집에서 귀밀밥이 퍼질무렵에는 벌써 크지 않은 동네에 손님이 들었다는 소문이 퍼져서 사람 그리운 화전촌사람들이 무슨 대사집 찾아들듯 하였다. 이웃집 물동지기령감네와 삼수집에서는 두 량주가 다 오고 봉식이며 치갑이또래 정섭이의 동무들도 찾아왔었다. 밥집에는 기왕에 하칠소에 있다가 먼저 넘어온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을 앞세우고 목재판로동자들도 우르르 밀려들어 밤이 깊도록 이야기판을 벌리다가 정섭이네 집 형편이 손님들을 다 치르기 어렵겠다고 해서 남정네들은 옆집인 《이시가와구미》밥집으로 옮아앉았다. 옮아앉아봐야 이야기는 뻔한 신세타령이였지만 그래도 물리지 않고 어디 가면 좀 살기 좋은데가 없는가, 이놈의 세상 언제 망한다는 소문은 못들었는가, 요즘 왜놈들이 경비도로요 뭐요 하고 돌아치는것을 보면 암만해도 무슨 일이 난것 같지 않느냐- 하는따위 이야기들을 벌려놓았다. 시원한 소리는 하나도 없었다.

《금천동에 노다지바람이 분다는 소문은 짜합데만 그게 사실은 사실이요?》

한 40나보이는 체소한 사나이가 윤원구곁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수군거렸다.

《내니 알겠소. 뭔가 불기는 불기다 숱한걸 끌어가지. 우리사 노다지바람이 불면 어떻고 진흙바람이 불면 어떻단말이요.》

윤원구는 피곤하였다. 몸도 지쳤지만 자기자신 무수히 마음속으로 되풀이해온 질문이라 이제는 대답하기도 짜증스러웠다.

《여보, 그래도 일가식솔을 다 거느리고 갈 때에는 무슨 생각이 있을것 아니요?》

상대는 집요하게 파고든다. 풍산 어디에서 이와실이를 왔다가 소를 죽이고 고삐만 감아쥐고 돌아가게 됐다는 사람이다.

《여보.》

하고 윤원구는 풍산사나이를 측은하게 바라보다가 잘라서 대답했다.

《딴마음 먹지 말고 웬만하면 집으로 돌아가우. 뭐니뭐니 해도 태를 묻은 제고장이 그래도 낫소. 나도 스물소리 들을 때 고향을 하직하고 이제는 20년가까이나 떠돌아다니며 안다녀본데 없고 못해본 지랄이 없소만 다 그식이 장식이요. 나라가 망한판에 어디 가서 잘살기를 바라겠소.》

《여보, 그래 내가 잘살기를 바라서 이러는줄 아오? 내, 내 이 고삐를 탈아쥐고 돌아갈 때 우리 집 문전에서 터져오를 통곡소리를 생각해보란말이요. 어이구 답답해라.》

풍산사나이는 입은것도 없는 앞가슴을 와락 잡아헤치며 갈비뼈가 서까래같이 건너간 가슴을 꽝꽝 두들겼다.

저편 구석 남포등의 그을음이 피여오르는 뙤창아래서는 김인수가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바이올린활을 그어대더니 취한 사람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울음 섞인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있다.

부평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젊은패들은 김인수를 둘러싸고앉아 저마다 마음속으로 그 구슬픈 가락을 따라부르며 버리고온 고향, 눈이 까매서 기다리는 부모처자들을 그리는듯 눈을 감고있었다. 그들은 대개가 《보국대》에 끌려온 남도내기들이였다.

정섭이는 구름노전이 새까맣게 눌어서 부스러진 등디목에 웅크리고앉아 태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있었다.

태호는 형 만호와 함께 북선제지가 도끼를 들고 백두산원시림으로 쳐들어오던 당초부터 이 증산사업구의 산판들을 두루 옮아다닌 오랜 벌목부였다. 그의 집은 멀지도 않은 운흥땅이지만 벌써 몇해째 집소식을 모르고 지낸다.

그런데 그 형은 며칠전 신개척에 있는 자위대영창에 잡혀갔다는것이다.

《형은 매를 좀 맞겠지. 매한가지야. 둔장질에 어깨가 터지나 매맞아서 어깨가 터지나 같지. 대두박이야 먹여주겠지.》

정섭이는 여전히 입을 꽉 앙다물고 들을만해있다가 노전밑을 들치였다. 비벼던진 담배꽁초 몇개를 주어서 주글주글해진 태호의 담배쌈지에서 신문지쪼박을 찢어내여 두툼하게 말아물고 캑캑 개키며 몇모금 한꺼번에 들이키였다. 아직 다 배우지 못한 담배라 독하고 썼다. 그는 눈물을 찔끔 쏟으며 담배를 다시 노전밑에 쓸어넣고 그 누군가의 목을 비틀듯 힘껏 비틀어 구겨던졌다.

영섭이가 죽은것이나 어머니가 다친것만이 불행이 아니다. 슬픔이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비좁을지경으로 들어앉아있다.

《형은 왜 잡혔나?》

정섭이는 꽉 잠겨버린 목소리로 물었다.

《왜 잡힐게 있나, 그놈들이 아무나 잡아가두었으면 하던차에 형이 말마디나 했으니까 잡아넣었지. 요즘 참 판이 무시무시하다.》

정섭이는 힐끔 태호를 돌아볼뿐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눈을 이글이글 불태우며 태호의 입에서 무엇인가 터져나올것 같은 다음말을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형이 그러는데…》

아니나다를가 태호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수군거렸다.

《저놈들이 혁명군이 다 없어졌다고 떠드는것은 멀쩡한 거짓말이래.》

《그건 어떻게 하는 소리야? 누가 보기라도 했다는가?》

《그야 나도 모르지. 형이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소리 하더란말이야. 야- 정말 전년에 보천보를 들이칠 때처럼 장군님께서 한번 이놈들을 되게 족쳐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난 그것을 한번 보기만 하면 그자리에서 죽어도 원이 없을것 같다.》

정섭이는 태호의 입을 그냥 지켜보았지만 더는 신통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잔뜩 갈증에 시달리다가 물을 보고도 못먹게 됐을 때 목이 다 타는것처럼 금시 가슴이 터져나올것 같았다. 목을 휘저으며 바라보니 뙤창짬으로 바라보이던 그믐달도 기울어져버렸다.

밤이 이슥하여 문이 벌컥 열리더니 봉식이가 소랭이를 받쳐들고 들어왔다.

《에- 무슨놈의 날씨가 이렇게 쌀쌀한가.》

허우대가 껑충한 그는 등디목에서 진저리를 한번 치더니 《이거 우리고장 인심이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대접할것이 없소다. 다시였지만 김치국이라도 시원한 맛으로 맛들 좀 보시우다.》 하고 소랭이를 방 한복판에

갖다놓았다.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갓김치였다. 철이 늦은 때라 좀 걸어졌지만 보기에도 시원한 김치물이 그득하였다.

《허, 봉식이가 색시를 잘 얻었거던.》

한 친구가 부엌에 나가 보시기와 숟가락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다.

《이놈은 언제 봐야 제 형님 고마운줄 모르고 형수만 따르거던.》

하고 봉식이가 괴춤에서 불룩하게 채워가지고 나온 쌈지를 꺼내놓고 제먼저 한대 말면서 우스개소리로 응수를 했다.

모두 시큼한 갓김치를 어적어적 씹기도 하고 김치국물을 마시기도 하였다.

그러느라고 잠시 동강난 이야기의 실머리를 《보국대》에 끌려온 한 젊은이가 투박하게 이어놓았다.

《자위대가 태반 혜산쪽으로 밀려가고 나머지는 소홍단수 건너편에 구뎅이를 파고있다는데 그건 뭘 어떻게 하자는건가? 우리를 모두 그속에 쓸어넣고 묻어버리자는것은 아닌가?》

그러자 온 방안의 주의가 그 이야기에 쏠렸다.

《요즘 자위대가 몹시 갈갠다 했더니 다 그런 쪼간이 있댔구만.》

윤두소를 죽였다는 풍산의 이와실이군이 불안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갈개는게 어디 자위대뿐이요? 여태까지는 경비도로다 하고 고아치더니 래일부터는 또 청결검사를 나오겠다오다. 그 구장놈 놀아나는것은 더 못보겠더랑이.》

태호가 봉식이의 쌈지에 손을 뻗치며 퉁명스럽게 맞받아쳤다.

《해볼대로 해보라지. 아무리한들 죽기밖에 더 할라구.》

봉식이가 이러면서 김인수를 다시 집적거렸다.

《거 어떻게 하면 노래를 그렇게 눈물이 나게 잘하우다? 우리 집에서는 바라지를 열어놓고 형씨 노래를 들으면서 어른 아이 할것 없이 다 눈물들을 흘렸소다. 세상 답답한 이야기 자꾸 해야 소용 있소다? 그 빠요린이나 한번 더 들려주오다.》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그게 좋겠다고 간청을 하였다.

정섭이는 래일 또 먼길을 가야 할 사람들인데 좀 재웠으면싶었으나 그래봐야 아무도 잠들수 없는 숨가쁜 밤이니 내버려두자 생각하고 저도 귀틀벽에 허리를 기대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이윽고 구슬픈 바이올린의 떨리는 소리가 답답한 가슴들을 우벼대며 또다시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정섭이의 코허리는 저도모르게 시큰해났다.

12

강로인은 지팡막대를 짚고 신사동고개마루까지 배웅을 나왔다.

일행은 한걸음 먼저 작별인사를 나누고 고개아래로 사라졌다.

정섭이도 동구앞까지 따라나왔다가 돌아섰다.

로인은 필네의 일이 그중 마음놓이지 않는듯 다심한 부탁을 곱씹으며 어느덧 고개마루까지 올라서고야말았다.

《인심도 모질군. 네가 어린것이 외지에 홀로 가서 어떻게 살겠느냐?》

《할아버지, 이젠 그만 들어가보세요. 여태도 홀로 살았는데 못살게 뭐 있겠어요. 제 걱정 마시고 할아버지 몸조심이나 하세요.》

《나야 몸조심을 안해도 너무 목숨이 질겨서 야단이다. 일행이 벌써 저 굽이를 돌아섰구나. 어서 따라가거라.》

로인은 돌아서서 다시 인사를 하는 필네더러 어서 가라고 지팽이를 들어 앞을 가리켰다.

필네는 자꾸만 뒤로 끌리는 마음을 다잡고 걸음을 다우쳤다.

밤사이 등디목에 앉아 밀린 바느질도 해주고 챙챙 감겨드는 경섭이랑 윤원구네 아이들과 엇섞여 실뜨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영섭이를 여의던 이야기를 눈물속에 들었고 분해서 구들바닥을 치며 넉두리를 하는 정섭이의 어머니를 위로도 하였다. 불쌍한 어머니는 한번 서러운 사정을 터쳐놓자 기가 바싹 성해서 새벽에는 신열이 몹시 높아지고 허리증도 심해졌다. 그래서 밤을 꼬바기 밝히다싶이 하면서 병구완도 해드렸다. 그사이 웃간의 로인과도 세상 살아갈 막막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불과 하루밤, 그것도 어수선한 분위기속에 경황없이 보낸 하루밤이였지만 그 귀틀집 문전에 꼭 자기 집같은 정이 끌리여 발걸음을 무겁게 잡아당겼다.

《참, 할아버지.》

필네는 이깔나무가 듬성듬성 들어선 고개길을 넘어서려다가 돌아섰다.

한자리에 멎어서있던 로인도 서둘러 마주 다가왔다.

《저 노전밑에 제가 수건 한감 끊어넣었어요.》

《그래? 그건 뭘, 저나 쓸것이지.》

《전에 장로네 옷 짓다가 자투리가 났길래… 그럼 편안히 계십시오.》

필네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노전밑에 넣어둔 그 명주수건은 어쩌면 정섭이의것이 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집의 어려운 형편에서 적지 않은 삯전을 제손에 쥐여주었으니 그걸 돌려주자면 달리는 수가 없었다.

필네는 앞선 일행을 따라잡으려고 부지런히 걸음을 다우쳤다. 그런데 얼마를 못가서 발자국소리가 마주 다가오는바람에 걸음발을 늦추었다.

《왜 이렇게 꾸물거리는가? 저기서 윤원구네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리호철이였다. 이런 산골에서는 아직 흔치 않은 《국민복》, 《국민모》에 각반을 깡뚱하게 둘러치고 딱따구리지팽이를 비껴짚은 모양이 함께 오는 제지회사 자위대 소대장 스즈끼중위보다 더 서슬푸르러보인다.

《아, 이 처녀식모도 리상이 데려가는가?》

스즈끼가 호기심이 가득찬 눈으로 필네를 찬찬히 뜯어보며 별로 감탄한듯 한 소리를 질렀다.

《말 마시오. 김장로가 장담하기에 요즘 유럽에서 류행하는 무슨 집단계약같은것을 했지요. 저쪽에 가서 내가 골탕을 먹지 않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철은 일본말로 이렇게 말하고나서 다시 필네를 향했다.

《국경다리에서 흐지부지하거든 스즈끼상이랑 만났다고 하라구. 내 윤원구한테도 일렀지만 앞으로는 모든 일을 빨랑빨랑하고 단체에서 떨어지지 말란말이야.》

필네는 별놈이 별수작 다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잠자코 들을만해있었다.

《저쪽은 조선과는 달라. 여기서는 이런 숲속에도 황군이 나와있고 자위대랑 있어가지고 수고를 해주니 마음놓고 아무데나 다니지만 강만 한번 건너서면 비적이 득실거리고 공산군이 아무데나 나타난단말야. 내 인차 뒤따라갈테니 도착하는 즉시로 딴생각들 말고 일이나 잘들 하라구. 그러면 내 다 섭섭잖게 해줄테니.》

그래도 필네는 듣고만 있었다. 필네가 금천동으로 밥집을 따라갈 결심을 한데는 바로 그 《공산군》을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가슴깊이 간직되여있다는것을 호철이 제가 어찌 알랴.

처녀를 떠나보낸 스즈끼와 호철이는 이마에 번지르르 내배인 땀을 훔치며 숲속을 걸어갔다.

두놈 다 겉은 흔연한척하고있지만 실상 마음속은 대단히 번거로왔다.

《스즈끼상, 그래 15도구와 반절구에 나타났던 공산군이 이미 국경을 넘어선 기미가 보인다는것은 무슨 근거가 있는 소리요? 아니면 그저 그러루한 추측이요?》

《그야 나도 모르지, 명령이니까 그대로 집행할밖에…》

스즈끼는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매번 보면 무슨 토벌놀음이 벌어질 때마다 스즈끼상같이 충실한 사람만 고생을 한단말이요. 그래봐야 뭐 특별한 승진도 시키지 않으면서…》

《아, 아 그런 소리는 무엇때문에 자꾸 하는가? 이미 명령이 내렸는데 말을 자꾸 하면 좋지 않아. 그런 소리는 그만두고 여기 형편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 나는 사실 이 지대는 아는것이 없다.》

스즈끼는 날콩 씹은 상을 하고 말했다. 그는 방금 삼장에 있는 중대본부로 가서 중대는 당장 혜산, 포태리계선으로 진출하는만큼 여태 중대가 맡아보던 구역을 소대무력으로 맡아서 보되 종전보다 더 만전을 기하라는 엄명을 받고오는 길이였다.

처음에는 일거리가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후방에 떨어진셈이니 괜찮게 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리호철을 만나 이 수작, 저 수작 건늬는사이 자꾸만 의심증이 생겨났다. 호철의 말을 들어보면 관동군특수선무공작반원들이 무산대안일대에서 활발히 움직이고있다고 한다. 리호철이도 지금은 광산업주로 변신했으나 그가 군산림주사로 있을 때부터 관동군특수선무공작반장 시마끼소좌의 끄나불이라는것을 스즈끼는 알고있었다. 그런자가 이 일대에 나타났다는것부터가 심상치를 않다. 하기는 이자의 집이 옥암동에 있고 또 기업을 꾸리는 일때문에 화룡땅과 무산사이를 분주히 드나들어왔으니 새삼스러울것이 없다고 볼수도 있다. 그러나 공산유격대가 대판 국경으로 진출하고있는 이때 이렇게 후미진 곳을 텅 비우다싶이해도 일없을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는 이 일대에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있는 리호철이도 같은 불안을 느끼고있었다.

그들은 기왕부터 술친구이면서도 상대가 하나는 헌병대의 끄나불이요 하나는 관동군 특수선무공작반의 요원이라는것을 알면서 모르는척하고 지내왔었다. 그러나 같은 불안에 시달리는 지금 어느새 그런 허울들을 벗어버렸다. 두놈 다 이것이 정보사업에서 넘어서는 안될 계선을 멀리 벗어져났다는것을 느끼면서도 바로 이렇게 서로 협조하는것이 도문회담정신이 아닌가 하고 내심으로 변명하고있었다. 사실 그사이 약간의 마찰이 없지 않았던 관동군과 조선주둔군사이에서도 조선인민혁명군이 두

계선을 쳐가르고 국경지대로 진출하자 혼연일체가 되였으며 시마끼소좌가 직접 두 군대의 련계를 짓기 위해 혜산에 나와있다는것이다.

《문제는 백성들이란말이요. 중대가 다 있다 하더라도 군대만 가지고 이 밀림을 메꿀수야 없지요. 유격대가 발을 붙이고있는것이 백성들이기때문에 여기에 주목을 돌려야 한단말이요.》

《그러게 내가 아까부터 당신의 협력을 요청하는것이 아닌가.》

《그런것은 새삼스럽게 요청하고말고 할것도 없지요. 옥암동은 걱정 마오. 거기는 우리 아버지도 있고 또 그러루한 눈이 박혀있소.》

리호철은 회좁은 얼굴에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스즈끼는 어쩐지 자식이 놀아나는것이 목이 요골요골해서 저도모르게 한마디 긁었다.

《그 당신이 달고온 하늘소같이 생긴자말인가?》

《허- 스즈끼상 눈이 밝은데…》

호철은 띠끔하였으나 아닌보살하고 너스레를 피웠다.

《여보, 당신네 관동군만 똑 제일이고 우리 눈은 모두 곰발바닥같은줄 아는가. 그러지 말고 툭 터놓고 말하란말야.》

《허허허, 덜미를 단단히 잡혔군. 그러면 내 고스란히 다 게워놓지.》

하고 호철은 별안간 신중한 낯빛이 되여 수군거렸다.

《옥암동에서는 주목해야 할 대상이 류석진이라는 령감네 집이요.》

《나도 그 령감이야기는 알아. 손녀를 찾아 장백땅을 헤매다가 어제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령감네 집이 본시 이 일대에서 모든 말썽의 중심이라더군. 여차직하면 잡아넣어버리겠다니까.》

《아직 그렇게까지 소란을 피울 필요는 없소. 어쨌든 옥암동에는 우리 집이 있으니 퀴퀴하면 인차 냄새를 맡을거요. 그뒤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것이 중요하지. 그 령감자체야 제 아무리 용을 쓰면 별수 있소? 따귀만 한대 갈겨도 숨을 거두겠는데… 문제는 옥암동이 아니라 이 신사동과 두지바위요. 이게 행정상 다 농사동에 속해있기때문에 우리 집 령감이 구장으로서 자주 드나들기는 하지만 일본제국으로 볼 때는 완전히 통제밖에 있으나 같단말이요.》

《흐흠- 그래서 우리 소대를 여기다 구겨박은게로군.》

스즈끼는 신음소리처럼 중얼거리며 흰자위만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뒤쪽을 돌아보았다.

《그렇다고 뭐 대단할것은 없소. 이러루한것을 알고 감시의 눈만 떼지 않으면 고작해야 제까짓 화전농과 처서군들이 뭘 하겠소. 일없소. 오늘 우리 집 령감도 농사동주재소의 요시다랑 같이 청결검사다 하고 떠났는데 아마 여기 어디서 돌아갈거요. 이렇게 사방에서 각종 명목으로 감시를 하면 샐 구멍이 있겠소? 이 일판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대상이 몇이 있소.》

하고 리호철은 스즈끼의 볼에 뜨뜻한 입김을 불어대며 더 낮추 수군거렸다.

《첫째 <이시가와구미>에 만호, 태호라는 형제패가 있소. 이놈들이 그중 불량하고 불평이 많은놈들이요. 들으니 그 형이라는놈은 그제 당신네가 영창에 쓸어넣었다더군.》

《흠, 그놈인가? 지금 조금이라도 수상한 눈치만 보이면 엄단하라는 토벌본부의 지시니까 <이시가와구미>의 요청을 받고 잡아넣기는 했다는데 본시 그런놈이였군. 그렇다면 단단히 조겨봐야지.》

《그래봐야 별건 없을거요.》

하고 호철은 랭랭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놈들이라는게 본시 화전농출신으로 몇해째 처서판을 돌아다니다가 페가를 했으니 걸핏하면 당국을 물고늘어지는것이지 애초에 무슨 사상같은것이 있어서 그러는것 같지는 않소. 문제는 이러루한 기분, 말하자면 분위기란말이요. 스즈끼상은 광산이나 탄광 같은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자들의 기분이라는것이 꼭 탄광굴속에 가스가 잔뜩 들어차있는 상태와 비슷하단말이요. 여기에 불만 달리면 튀오. 그래서 냄새를 잘 맡아야 한다는거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제국에 대한 감정이 제일 나쁜것이 강석보라고 아까 그 옥암동 류석진령감과 아주 가까운 령감이 있소. 게다가 강정섭이라고 그 령감의 손자가 다 커서 여태 하칠소토장에서 벌어먹고있소. 이놈이 원체는 나한테 팔려서 금천동에 가게 되여있었는데 딱 맞서서 돈을 떼먹을 차비요. 내가 하칠소에서 알아보니 이놈이 거기서 불온한 말을 많이 했소. 유격대가 쳐나왔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소. 그러니 이놈의 집과 가까운것들은 늙은것이나 젊은것이나 다 일단은 점을 치고 봐야 한단말이요.》

《가만, 이제 그 령감 이름이 뭐라고?》

스즈끼는 웃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여 제창 그 뒤등에 꽂혀있는 가는 연필의 심을 혀끝으로 추기며 물었다.

《강정섭이 그리고 령감은 강석보던것 같소. 보오, 바로 저놈이요.》

하고 리호철은 마침 나무사이로 바라보이는 동구길을 가리켰다.

《대체 어떤놈이야?》

스즈끼는 서둘러 수첩에다 몇자 적어넣더니 그것을 웃주머니에 건사하느라고 몇번 헛손질을 해가며 호철의 곁으로 다가왔다.

《저 동네로 들어가는놈 있지 않소?》

두놈은 땀내를 맡을만큼 바투 붙어서서 나무사이를 기웃해보았다.

토스레적삼을 걸친 더벅머리 총각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겨 터벌터벌 걸어가고있다.

《저건 애숭이가 아닌가? 저런게 그렇게 말썽인가?》

스즈끼는 리호철을 경멸에 찬 눈으로 돌아보며 말하였다. 어떻게 놀았으면 저런 애숭이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가 하는 눈치다.

호철은 속으로 발끈하였지만 참았다.

《난 이제는 아무래도 여기를 떠날 사람이니 스즈끼상이 한번 겪어보오. 어떤가?》

《여보, 여보, 당신네 조선인들은 과연 말을 좋아한단말이야. 무슨 긴말이 필요한가. 말 안들으면 들을 때까지 잡아족칠판이지.》

《흥, 덮어놓고 그래보오. 그들은 몽땅 공산당을 찾아가서 당신을 고발할게요. <일시동인>정책이 왜 나온줄 아오?》

《지금은 비상시국이란말이야. 불온분자는 모조리 잡아족치라는 토벌본부의 엄명이 내렸단말이야.》

그들은 이런 수작을 나누며 산비탈을 다 내려서서 우선 《이시가와구미》 현장사무실로 향했다.

13

정섭이는 윤원구네를 바래주고 돌아오는 길에 영섭이를 묻었다는 곳에 찾아갔었다. 새빨간 한갈피 흙무지가 되여버린 동생곁에 앉으니 너무 억이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 애가 이렇게 죽어서 사람의 가슴을 허벼주자고 그렇게 챙챙 감겨돌았던가. 사내자식이 새물새물 웃으며 목덜미에 매달리군 하던 모습이 눈앞에 밟혀와서 차마 눈을 뜨고있을수가 없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이번에는 너무 열에 떠서 이틀 밤낮을 제손으로 제 입술이며 목을 피가 나도록 쥐여뜯다가 숨을 거두었다는 그 참경이 삼삼히 떠오르는것이였다.

홍역에 벌써 동생을 넷이나 떼웠다. 전에는 철도 덜 들었거니와 원체 병이 그런 병이니 어쩔수 없는 일이겠거니 하는 체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만은 얼마든지 살아날수 있는 아이를 지르밟아죽인것만 같아 아무리 달래여도 원통한 마음을 삭일수가 없었다.

《이자식아! 그래 하루를 못참아서 이 모양이 됐니?》

하고 정섭이는 새빨간 흙무지를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다. 아직 잘 다져지지 않은 생흙이 주르르 허물어져내릴뿐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형을 주겠다고 돌배를 따가지고 그 추운 날 100리씩이나 말파리 꽁무니에 매달려오던 아이가 어쩌면 이렇게도 무심히 누워있을수가 있는가.

아이들 무덤이라 나무막대기에 이름석자도 써붙이지 않은 자그마한 흙무지였다. 될수록 빨리 흙으로 변하여, 될수록 빨리 산 사람들의 추억에서 사라져버리라는 구슬픈 풍습이였다. 그러나 어떻게 잊을수 있는가.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어린것을 일부러 한지에 꾀여내여 죽인셈이 아닌가.

묘비를 세울수 없다면 내 이다음에 와서 돌배나무라도 한그루 심어주마… 이렇게 생각하니 불시에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섭이는 혼자 동생의 무덤가에 앉아있다가 가슴이 텅 비여서 터벌터벌 동네로 내려왔다.

동네는 청결검사때문에 발칵 뒤집혔다. 삼수집의 고삭은 울바자는 순사놈의 발길에 채여서 시궁창에 구겨박히고 봉식이네 두엄무지도 사나운 닭새끼가 널어놓은듯 한마당 헤쳐놓았다. 삽들을 든 늙은이, 아낙네들이 도랑을 치겠다고 엉거주춤 허리를 구부리고서서 지금 치갑이네 집에서 한참 목청을 돋구고있는 농사동주재소 순사 요시다와 구장 리덕선이쪽을 힐끔힐끔 살피고있다.

《춘기청결검사를 처음 받아보는가? 이게 뭔가? 문짝이나 구멍투성이다. 마당이나 쓸었는가? 여기로 총독각하께서 시찰나오신단 말 못들었는가? 쌍간나들, 돼지나 한가지다.》

치갑이는 오늘 첫떼를 띄운다고 일찌감치 물동으로 나갔으니 치갑이 어머니가 아니면 그 집 새댁이 그 험한 상욕을 먹고있을것이다.

《이사람아, 내가 어제 와서 떡먹듯이 당부했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어른들 말을 그렇게 귀등으로 듣고서야 어찌 편안하기를 바라겠는가.》

리덕선이 나서서 핀잔을 하는것을 들으니 필경 치갑이네 새댁이 그 욕을 보는 모양이다.

리덕선의 목소리만 들어도 정섭이는 밸이 꿈틀하였다. 이놈의 두상태기 우리 집에만 와봐라— 이렇게 윽벼르며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니 자기 집 역시 두엄무지며 구새통이 헤쳐지고 넘어진것이 이미 봉변을 겪고난 꼴인데 할아버지가 사닥다리를 지붕에 세우느라고 혼자 모지름을 쓰고있었다.

《할아버지, 웬일이오다? 그놈들 왔다갔소다?》

《그래, 방금 다녀갔다. 온통 헤집어놓더니 당장 저 지붕 허물어진것을 고치라고 해서 이 야단 아니냐.》

《개자식들! 거 뭐 그놈들 하라는대로 하다가 세월 있소다. 내버려두시오다. 이담에 내가 하지오다.》

《아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이것은 먼눈에도 인차 뜨이기때문에 지붕만은 손질을 해야겠다. 그 구장이 다시 오는 날이면 빚독촉이 성화같겠는데 아예 무슨 언터구를 잡히지 않는게 좋다.》

《그렇다고 그놈의 두상이 돈받을 생각을 잊어버리겠다구요. 저리 비키시오다. 내가 할테니…》

정섭이는 할아버지의 정상이 하도 가긍해서 내키지 않는것을 억지로 참고 사닥다리를 지붕에 갖다 뻗쳤다.

《그래도 그놈이 오늘은 순사하고 같이 와서 그러는지 빚말은 입밖에 내지 않더라. 그나저나 너는 이제 삼장엘 당장 갔다와야겠다.》

《삼장에는 왜요?》

정섭이는 사닥다리에 한발을 올려놓았다가 떨떨해서 할아버지를 돌아보았다.

《그럴 일이 생겼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로인은 서둘러 웃간으로 들어가더니 명주수건을 들고나왔다.

《그 필네라는 아이가 이 할애비를 생각해서 명주수건 한감을 끊어넣었다기에 집에 와서 들추어보니 글쎄 이 끝에 약차한 돈을 싸매놓았구나.》

《돈이요? 얼마게요?》

《돈도 약차한 돈이다. 은전, 지전 합해서 5원이나 된다. 내가 그 어린것이 남의 나라 땅에 팔려가는것이 가슴아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로자를 보태주지 못할망정 그 불쌍한것의 신세를 이렇게 질수야 있느냐. 냉큼 가서 돌려주고 오너라.》

정섭이는 멍하니 서서 명주수건을 받아들고 삼장쪽 숲을 바라보았다.

자기가 하칠소를 떠나면서 억지로 로자를 보태주느라고 한것이 은전 네잎-2원이였다. 필네가 집형편을 보고 너무 한심해서 그렇게 도와주면서도 자기가 성을 낼가봐 몰래 감추어두고간것을 생각하면 고맙기도 하였지만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다. 어째서 이놈의 세상에는 푼푼치 못한 성의도 서로 마음놓고 주고 받아들일수 없는가. 필네가 5원씩이나 되는 돈을 뭉턱 잘라내놓고 앞으로 천리 넘는 두 나라 지경을 어떻게 갈것이며 가서는 또 무슨 곡경을 치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안타까왔다.

《넨장, 남의 속은 모르고…》

정섭이가 이렇게 중얼거리며 손바닥의 돈을 다시 명주수건에 싸려고 하는데 리덕선이가 불쑥 문전에 나타났다.

바투 깎은 중대가리에 회색두루마기를 떨쳐입고 개화장을 짚은 그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단추를 해단 검정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던것이 최근에 와서는 겉모양부터 신체제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리덕선은 마당으로 들어서는참 왜가리청으로 소리를 질렀다.

《아니 강령감, 사람의 도리가 이럴수 있소? 내가 경찰관나으리를 모시고 공무를 집행하는중이라 사사로운 일을 꺼내기 뭣해서 입을 떼지 않았지만 그쪽에서야 어찌 그럴수가 있단말이요? 내 경찰관나으리와 함께 신개척으로 넘어가다가 아무리 해도 삭일수가 없어 다시 들렸소. 그래 손자가 저렇게 돈도 벌어왔겠다 약조한 기일도 벌써 몇번째 밀어오겠다 하다면 무슨 인사가 있어야 할게 아닌가말이요? 내 돈은 돈이 아니요?》

리덕선은 개화장끝으로 정섭이의 손에 쥐인 명주수건을 가리키며 야료를 부렸다.

《구장 이사람, 너무 그러지 말게.》

강로인은 그자리에 오금을 꺾고앉으며 담배쌈지를 꺼냈다.

《내 수중에 돈이 있으면 그 집 단련을 받기가 싫어서라도 선뜻 갖다바치겠네. 내 여북하면 그 집 빚을 졌겠나. 허지만 돈이 없으니 별수가 없네그려.》

《거 참, 말도 더럽게는 한다.》

리덕선이 그러지 않아도 푸르딩딩한 상에 사나운 빛을 띠우더니 다잡고들었다.

《하여간 좋소다. 이 리덕선이 워낙 변변치 못하다보니 인심을 쓰고도 욕을 보는게 처음이 아니지오다. 내가 원체 강령감의 칭찬을 받을만 한 위인이 못되는것은 사실이고… 허니 제잡담하고 회계를 깝시다. 령감 말투로 보아하니 손자가 벌이를 괜찮게 해온 모양인데 내 그렇다고 공돈을 넘보는것은 없소. 피차 문세에 올린대로 아퀴를 짓고 일후 거래를 끊읍시다.》

《내 이제도 말하지 않았나. 저 애가 겨우내 처서판을 돌아다니다가 왔다는게 제 입에 풀칠하고 쥐고왔다는것이 푼전에 지나지 않네. 그 집 아들이 그 산판 마무리를 짓는데 간참했다니 대강 짐작을 하겠는데 그러는군.》

《여보시오, 강령감.》

하고 리덕선은 개화장으로 로인의 눈앞에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이 리덕선이를 뭘로 알고 그런 소리를 하오? 강령감네 집에서는 지체가 높아서 저런 돈쯤 푼전으로 아는 모양이지만 이 리덕선이는 돈발라서 저 손자가 쥐고있는 돈만 해도 큰 목돈이야. 지나가는 과객을 구들이 비좁게 들어앉히고 치를만 한 힘이 있으면 다문 얼마라도 빚을 갚아야 할게 아닌가. 원금은 다 못갚아도 리자나마 제 날자에

갖다바치고 사정을 해야 옳지, 이건 되려 돈이 있으면 더러워서도 갚겠지만 돈이 없으니 잡아잡수 하는 본때란말야, 그래 이건 돈이 아니고 뭔가?》

하고 리덕선은 개화장으로 정섭의 손을 후려쳤다.

리덕선을 보기만 해도 분이 치받쳐서 숨을 씩씩거리던 정섭은 그놈의 수작이 점점 밸을 돋구어주어서 당장 쳐넘기고싶던차에 뜻밖의 타격을 받아 수건을 떨구었다. 그러나 리덕선이 흩어진 돈을 집으려 하자 앞뒤 돌아볼 사이 없이 활 밀쳐버렸다. 리덕선은 뒤로 두어걸음 비칠거렸다.

《이건 안되오. 이건 남의 돈이요.》

하고 정섭은 명주수건과 함께 흩어진 돈을 도로 움켜쥐며 소리쳤다.

《야, 이놈 봐라! 이놈이 사람 친다.》

리덕선은 일부러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사납게 악을 썼다.

《구장, 이거 뭘 이러나. 일어나라구. 그 돈은 간밤에 묵어간 과객이 떨구고 간것일세.》

강로인은 리덕선이 하도 펄펄 뛰니 후환이 두려워 이렇게 달래며 부축해주려 하였다.

《에익 듣기 싫다. 도둑놈의 새끼들! 너 이놈! 어른 몸에 함부로 손을 댔지. 네놈이 하늘 높은줄 모르는구나.》

리덕선은 강로인을 와락 밀어던지고 무서운 기세로 일어나더니 개화장을 쳐들고 정섭이에게로 달려들었다.

짚고다니기보다는 사람을 치기에 더 편리하게 만들어진듯싶은 개화장은 정섭이의 어깨를 당장 두쪽으로 갈라낼듯이 짝짝 먹어들었다. 정섭이는 머리를 안맞자고 몸을

피하다가 이마에까지 정통으로 한대 맞고나자 머리속이 아찔하더니 다음순간 억지로 분을 누르고있던 리성의 동아줄이 끊어져나가버렸다.

《쌍놈의 두상!》

정섭이는 어림짐작으로 손을 뻗쳐 개화장 한끝이 손에 잡히자 그것을 활 잡아채서 멀찌감치 내던져버렸다.

《이놈 봐라, 어른 개화장을! 이놈! 이놈!》

리덕선은 새까만 반구두로 땅을 구르며 고래고래 소리쳤다.

정지간 문이 열리더니 어머니가 밤새 앓던 신열을 가시지 못한 파리한 얼굴을 내밀며 울음섞인 소리를 질렀다.

《아이구 정섭아, 네가 웬일이냐. 어서 사과해라, 어서…》

어머니는 빵대같은 팔로 문지방을 더듬으며 토방으로 기여나왔다. 그뒤로 경섭이도 울음보를 터뜨리며 뛰어나왔다.

때마침 《이시가와구미》현장사무실에서 나와 신개척으로 넘어가던 리호철이와 스즈끼가 리덕선의 악쓰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크지도 않은 동네라 소리만 치면 온 동네가 들썩하였다.

벌써 정섭이네 집 문전에는 동네아이들이 오구구 모여들었고 가래나무뒤에서는 늙은이들과 아낙네들이 목을 길게 뽑고 마당을 넘겨다보며 살을 떨고있었다.

《보시오. 아까 말하던 그놈이요.》

리호철은 야멸차게 입술을 감쳐물더니 입안의 소리로 내뱉었다.

《그놈인가? 좋다! 내가 버릇을 떼놓겠다. 당신 아버지나 데리고 가라.》

두놈은 골목에 우글거리는 아이들을 왁살스럽게 밀어헤치고 씽하니 바람을 일구며 마당으로 달려들었다.

리호철은 아들을 보자 더 기가 승해서 악청을 돋구는 애비곁으로 다가가 핀잔조를 섞어 달래였다.

《아버지는 뭘 인간같지 않은것들한테 와서 이 봉변이십니까. 어서 가십시오. 저기서 요시다가 기다립디다.》

《아니 내가 앉아서 내 돈 꿔주고 서서 받겠다는것도 잘못이란 말이냐?》

리덕선은 아들을 향해 들으란듯이 소리쳤다.

《그것도 웬만해야지 어디 말할만 한 상대가 됩니까. 뒤수습은 내가 할테니 어서 가보십시오.》

리덕선은 못이기는체하고 개화장을 주어들더니 《이놈들 어디 보자!》하고 게두덜거리며 골목으로 빠져나갔다.

험하게 째진 정섭이의 이마를 무엇으로 처매주려고 천쪼박을 가지고 나오던 정섭이의 어머니는 호철이와 스즈끼의 어마어마한 형상을 보자 기가 질려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버렸다.

그사이 스즈끼는 강로인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험하게 번져가는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 허둥거리는 로인을 면바로 쏘아보더니 별안간 악청을 돋구어 소리쳤다.

《나쁜놈의 령감이나!》

로인은 얼굴이 거멓게 질려 왜놈을 서늘하게 마주 쏘아보았다. 여태까지는 자식들에게 무슨 화가 미칠가봐 허둥거렸지만 자기자신앞에 닥친 일에 대해서는 설사 그것이 죽음이라 하여도 두렵지 않았다.

《령감이나 나쁜놈의 령감이라는것을 우리는 다 안다. 령감이나 이름이 강… 강…》

스즈끼는 더듬거리며 군복 웃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여 벌컥벌컥 뒤지더니 큰것이나 알아낸듯이 소리쳤다.

《령감이나 이름이 강석보, 강석보가 옳은가?》

로인은 조용히 담배쌈지를 건사하더니 말하였다.

《나는 귀가 먹어서 말을 못알아듣겠으니 할말이 있으면 우리 손자애하고나 하오.》

그리고는 웃간문을 열고 들어가버렸다.

너무 뜻밖의 반응에 닭 쫓던 개 울 쳐다보는 격이 된 스즈끼는 잠시 뗑해서 리호철이쪽을 돌아보는데 호철이가 눈을 찡긋해보였다.

스즈끼는 다짜고짜 로인이 사라진 웃간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령감, 이리 나와!》

담배를 쟁여서 부시를 켜대고있던 로인은 스즈끼를 아래우로 훑어보았다.

《나쁜놈의 령감이나, 남의 돈 떼먹겠는가.》

스즈끼는 구두발채로 한발을 구들바닥에 내짚고 로인의 앙상한 어깨를 잡아일으켰다.

《이놈! 이것 놓지 못해!》

강로인은 끌려나오면서 소리쳤지만 놈은 우악스레 마당밑까지 힘껏 잡아끌었다.

《아이구, 이게 무슨 일이요. 세상에 로인을 이럴데가 어데 있소. 말 좀 해주시오.》

하고 정섭이의 어머니가 그래도 리호철이의 소매를 잡고 애원했다. 호철이는 매정하게 뿌리치며 쌀쌀하게 말했다.

《군대가 성이 났는데 말을 한다고 소용이 있소.》

로인은 힘에 견디지 못하여 마당복판에 태질을 당하다싶이 하였다.

《에그 저런.》

로인이 일어서기보다 먼저 병든 며느리가 토방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네 이놈, 이 무도한놈들!》

로인은 일어설 기력도 없는지 한쪽무릎을 땅에 꿇은채 고개만 돌려대고 웨쳤다.

《령감상이 왜 남의 돈이나 떼먹고 물지 않는가?》

스즈끼는 허리에 두손을 짚고 당장 집어삼킬듯이 호령을 하였다.

《이놈아, 내가 누구 돈을 떼먹었단말이냐? 네놈은 에미애비도 없느냐.》

《좀 맞아나보겠는가?》

스즈끼는 당장 장화발로 걷어찰듯이 한걸음 다가섰다.

《마, 마 스즈끼상 참으십시오.》

뒤전에서 구경하던 호철이가 앞으로 나서며 스즈끼의 팔소매를 잡고 사정하다싶이 말했다.

《워낙 산속에서 궁하게 사는 백성이니 법을 잘 모릅니다. 내가 잘 타일러보겠습니다.》

《나쁜놈의 령감이나 이런 못된 령감은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

스즈끼는 호철이를 떠밀치며 다시 로인의 등덜미를 잡아일으켰다.

《에그 사람 살리우다, 아버님, 어서 잘못했다고 비시우다.》

하고 병든 며느리는 토방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참고참아오던 정섭이의 분통은 마침내 터지고야말았다. 그는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스즈끼의 팔목을 비틀어잡고 와락 내끌었다.

《여보, 무엇때문에 로인에게 행패요? 할말이 있으면 나하고 하시오.》

《옳지, 네놈이나 나도 알고있다, 건방진놈의 자식!》

스즈끼는 정섭이의 멱살을 틀어잡고 이를 으드득 갈더니 따귀를 철썩 올려붙였다. 정섭이의 눈앞에서는 불꽃이 날렸다. 그래도 틀어잡은 한손을 놓지 않으니 연방 따귀를 갈기던 스즈끼가 별안간 발길로 정갱이를 걷어찼다.

《아이쿠!》

정섭이가 불의의 타격을 받고 주저앉아 스즈끼는 달려들어 장화발로 사정없이 옆구리를 조졌다.

《나쁜놈의 자식이! 죽어나봐라!》

강로인이 스즈끼의 한쪽소매를 붙잡고 늘어지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여보시오, 사정을 좀 봐주시오. 철없는것이 세상물정을 몰라서 그럽니다…》

《아이구, 정섭아, 제발 잘못했다고 빌어라!》

어머니는 울음섞인 소리로 아들을 부르며 허둥지둥 다가왔다.

방안에서 경섭이가 울음보를 터뜨렸다.

골목앞에 늘어선 아이들도 모두 겁에 질려 오돌오돌 떨고있었다.

《좀 맞아봐야 정신을 채린단말야.》

호철이가 차겁게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뭐야?》

죽은듯이 머리를 싸고 엎드려있던 정섭이가 악- 소리를 치며 벌떡 일어나더니 호철이의 면상을 나는듯이 들이받았다.

호철이는 찍소리도 못치고 마당 한가운데 나가번져졌다.

스즈끼가 쭝해서 잠시 어물거리다가 접어들자 이번에는 그놈의 정갱이를 힘껏 짓모았다. 스즈끼는 비틀비틀하고 가래나무그루에 엉덩판을 메때리며 주저앉았다.

정섭이는 이미 걷잡을수 없는 흥분상태에 이르러 두놈을 번갈아 치고 박고 발로 짓이겼다.

《네 이놈, 정섭아-》

할아버지가 그의 두다리에 매달려 아우성을 쳐서야 가까스로 진정이 되였다. 그러자 너무나 엄청난 광경에 얼이 빠진듯 멍하니 서있는 그를 강로인이 지팽이로 내몰다싶이 집에서 내보냈다.

정섭이는 그달음으로 산을 향하여 내뛰였다.

《서라! 서라!》

스즈끼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권총을 뽑아들고 달려갔다. 정섭이는 나무그루들사이를 누비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다.

탕, 탕-

성이 머리꼭뒤까지 오른 스즈끼는 마구 방아쇠를 당기였다.

강로인이 스즈끼의 두다리를 그러안고 매달렸다.

앙상한 로인의 몸뚱이를 질질 끌며 앞으로 가던 스즈끼는 겨냥이 잘되지 않으니 연신 장화발길로 거치장스럽게 끌려오는 로인을 걷어찼다. 그러다가 종시 정섭이를 놓쳐버리자 이를 으드득 갈며 돌아섰다. 그제야 호철이도 일어섰다. 면상이 피자박이 되였다.

정섭이의 어머니가 후환이 두려워 옹배기에 세수물을 떠왔으나 호철은 물을 옹배기채 병든 녀인에게 뒤집어씌우더니 두손을 독수리발톱모양으로 벌려들고 강로인에게 접어들었다.

강로인은 그놈의 두눈에서 뻗쳐나오는 살기를 보고 이제는 빌어야 소용이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로인은 조용히 맨땅에 일어나앉았다. 그 순간 호철은 로인의 목을 덮쳤다. 동시에 스즈끼는 장화발길로 마음껏 허리를 걷어찼다.

두놈의 미친듯 한 분노와 잔인성을 견디기에는 로인의 몸은 너무나 허약하였다. 만일 강로인이 종일 견디여준다면 이놈들은 종일이라도 늙고 병든 육체를 차고 박고 비틀고 꼬집었을것이다.

그러나 놈들이 분을 풀 사이도 없이 강로인은 의식을 잃고말았다.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리자 스즈끼는 좀 당황하였다. 아무리 그럴듯 한 구실이 있다 해도 대낮에 사람을 죽였다면 말썽을 피할수 없을것이였다.

그러나 호철은 태연하였다.

《일없소, 갑시다. 이제 피여날거요.》

그놈은 손수건을 찢어서 아직도 피가 배여나오는 코구멍을 틀어막고 나머지쪼박으로 피자박이 된 얼굴을 문대며 내뱉었다. 스즈끼가 보기에도 그의 형상은 무시무시하고 스산하였다.

《그래 어떻게 하겠는가?》

골목에 나왔을 때 스즈끼가 물었다.

《어떻게 할게 있소? 그놈을 잡아야지. 농사동주재소에 전화를 걸어 비상수배를 합시다.》

《우리 자위대를 몽땅 풀어서 산을 샅샅이 뒤지겠다. 국경초소에도 련락해야겠다. 가만 어제 이놈의 집에서 자고갔다는 놈들도 취조해봐야겠다.》

《그것들은…》

리호철은 잠시 주저하였다. 윤원구네한테는 돈을 들였고 또 한시바삐 금천동으로 들여보내야 한다. 그러나 정섭이가 내뛴 지금 그들을 취조해야 한다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일것 같았다.

《당신 돈벌 생각만 하지 말고 국가적립장에 서란말이다.》

《여보, 내가 국가적립장에 못선게 뭐있소. 삼장국경초소에는 내가 수배하겠으니 걱정 말란말이요.》

리호철은 결김에 소리치고 간다온다 말 한마디 없이 전화가 있는 신개척 《호리모도구미》쪽으로 걸어갔다.

14

조선인민혁명군의 습격조가 3호물동과 포태리의 목재판을 들이쳤다. 부랴부랴 자료를 종합한 결과 50명내외로 추측되는 잘 무장되고 훈련된 유격대원들의 세련되고 과감한 그리고 면밀히 조직된 습격이라는것이 밝혀졌다. 창황중에 뛰여다니고 전화질을 하고 욕설을 퍼붓고 하다나니 당장은 그 습격의 의도도 지어 피해정도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일으킨 파문은 실로 컸다. 국경일대에 그물코처럼 늘여져있는 각종 군, 경 《토벌대》와 수비대, 경찰서, 주재소들에서는 온통 그 소문으로 바글바글 끓어번졌다. 벌둥지 한복판에 무슨 정체모를 막대기같은것이 쿡 박혀들었다가 사라진것 같았다. 뭇벌들이 막대기가 헤집고 나간 그 구멍을 둘러싸고 저마끔 웅- 웅- 거리듯 수많은 경관, 헌병들이 습격당한 3호물동과 포태리어방에서 돌아칠 때 그 의의로 보아 그만 결코 못지 않은 또하나의 중대한 사건이 건창부근의 리명수물가에서 벌어졌으나 정신이 나가버린 이 제복 입은 뭇벌새끼들은 한동안 그것을 알지도 못했다.

낚시군으로 가장하고 리명수물가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행동을 감시하고있던 한 특무가 감쪽같이 행방불명이 된것이였다.

어찌보면 3호물동과 포태리의 습격사건보다 더 직접적인것을 시사해주는 이 사건이 애초에 문제시되지부터 않았다는것은 현지의 경찰, 군대들이 당황망조한데만 원인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러한 특무가 그러한 때 그러한 곳에 박혀있었다는것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는데도 원인이 있었다. 그것은 총독부관하의 경찰이나 조선주둔군계통의

특무가 아니라 관동군의 특수선무공작반에서 은밀히 강을 건너와서 박아넣은 밀정들가운데 하나였다.

호철이는 이 일을 위하여 시마끼소좌와 함께 강을 건너와서 갑산, 무산 지경을 분주히 돌아쳤었다. 시마끼의 복잡한 주문에 응하기는 쉽지 않았다. 한꺼번에 여러명의 밀정을 박아넣다보니 리호철은 제 친형까지 끌어들이게 되였는데 리명수물가에서 가까스로 도망쳐온 하늘소를 통하여 형의 신상에 불상사가 생겼다는것을 이튿날에야 알게 되였다.

그날 호철이는 정섭이에게 얻어맞은 눈등과 코가 퍼렇게 부어오르면서 얼얼하고 후끈후끈 달아오르는게 딱 움직이고싶지 않았으나 어떤 복수심에 다쫓기듯 강정섭이를 잡을데 대한 수배를 빈틈없이 해놓고 곧장 혜산쪽으로 넘어왔었다.

(제까짓놈, 뛰여야 벼룩이지 갈데가 있나.)

호철은 얼얼한 눈등을 조심스레 눌러보며 중얼거렸다. 삼장국경다리초소에도 련락을 하고 윤원구네 일행까지 심문하도록 조치를 취했으니 강정섭이를 체포하는것은 시간문제일것이다.

그러나 시마끼에게 이러한 내막이 알려지면 재미없을것이기때문에 될수록 그를 직접 면대하는것을 피하자고 일부러 길을 에돌아가며 요소요소에 박아놓은 밀정들을 만나보고 그지간의 보고를 받아내였다.

그러다가 맞받아 달려오는 하늘소를 만나 형의 참변을 알게 된것이였다. 호철은 얼얼한 코마루를 매만지며 진저리를 쳤다. 하늘소의 말을 들어보면 형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대진평까지 형을 찾아헤매던 호철은

거기서 날이 저물어서야 혜산으로 들어오는 화물차를 가까스로 얻어탔다. 코가 터지든 눈이 터지든 당장 시마끼를 만나 대책을 세워야 하였다. 날이 저무니 바람이 차졌다. 들추는 화물차의 뒤꽁무니 가마니짝틈에 비비대고 앉아 일으켜세운 두무릎사이에 머리를 틀어박았다. 그래도 찬바람은 막을수 없었다. 바람만이 아니였다. 황토먼지가 사정없이 덮씌웠다. 군대와 경찰을 실은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마주 달려왔다. 그때마다 이쪽 자동차는 길 한옆에 비켜서서 상스러운 군가를 악다구니처럼 불러제끼는 그 자동차행렬이 다 지나가도록 고스란히 먼지를 들쓰고있어야 하였다.

포태리와 3호물동을 얻어맞은것들이 그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느라고 발광한다는것을 짐작한 호철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그 어리석음이 분하기도 하여 울음이 북받칠 지경이였다. 눈등과 코마루는 점점 더 부어오르는지 온통 얼굴전체가 눈과 코로 변해버린듯 했다.

머리가 사타구니에 가닿도록 두무릎사이에 온몸을 웅크려넣은 호철은 자기의 무릎에 더운 입김을 내불며 홀로 중얼거렸다.

《죽을 때 소리라도 치고 죽을게지, 이왕 죽는걸… 그러면 저 우둔한것들도 공산군이 리명수언저리에서 움직인다는것을 알텐데… 아– 군대는 그냥 왕청같은데로만 가는군.》

혜산경찰서는 그야말로 악마구리 끓듯 하였다. 보천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자동차를 내린 호철이가 절뚝거리며 경찰서앞에 다가가니 중대급의 경찰《토벌대》가 막 떠나려고 정렬하고있었다.

(저것들은 또 어디로 가는고?)

호철은 까닭없이 반감을 가지고 검은 제복에 장총을 둘러멘 경찰관대렬을 돌아보는데 현관층계를 탕탕 구르며 기무라경부보가 달려내려왔다. 볼만 한 꼴이였다. 일상 비밀사찰에서는 무슨 솜씨나 있는것처럼 떠벌이기 좋아하던놈이 넓은 가죽띠를 제복우에 질끈 동이고 큼직한 권총을 드러나게 찼을뿐아니라 전투가방과 쌍안경을 엇갈아메고 모자의 턱걸이까지 목이 조이게 내려건 품이 당장 그 누구를 요정낼것만 같은 기세였다.

《기무라상 아니요? 어디로 이렇게?…》

정 모르는척할수도 없어 우정 걸음을 멈추고 인사수작을 거니 그자는 한발을 내짚으며 힐끔 돌아보고 쌀쌀하게 말했다.

《아, 호철군인가? 지금 바빠서… 다음에 만나자구…》

(별 거지같은놈 다 보겠다. 토벌대장자리가 그리 대단해뵈는 모양인가?)

호철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기무라가 대기하고있던 《토벌대》대렬을 끌고 선자리에서부터 내달려가는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개판이군.)

서장실은 지금 함남도경찰부장이 내려와서 《토벌본부》를 가로타고앉았다.

함남도뿐 아니였다. 함북도의 고등과장도 나와있고 74련대와 75련대의 참모들, 북선제지자위대의 중대장, 어딘가로 떠날 차비를 하고 대기중인 완전무장한 경시, 경부, 경부보들이 씨글씨글 하였다.

《각하, 2려단장각하가 직접 나왔습니다.》

앙바틈한 몸집에 코수염을 쫑긋하게 길러서 어딘가 검정고양이같은 인상을 주는 서장이 자기 책상우에 놓인 전화송수화기를 황송스레 받쳐들고 자기 자리를 가로타고앉은 도경찰부장에게 내밀었다.

《아, 장조가 나왔는가.》

경찰부장은 함지박같은 배를 가진 사나이로서 밑이 쑥쑥 빠져들어가는 회전의자에 앉기가 대단히 거북할듯 하였지만 어쨌든 이 건물안에서는 그자리가 제일 높은 상관이 앉는 자리라 래일이나 모레쯤 총독부 경무국장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숨가쁘더라도 그자리에 앉아배기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송수화기를 받아쥐기 전에 우선 제복저고리단추를 아래로부터 두개 풀어놓고 몸을 한번 뒤로 젖혀 숨을 쉰 다음 목을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매우 힘들게 손을 뻗쳤다. 송수화기를 받아든 경찰부장은 뜻밖에도 방금과는 판다른 간사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장조장군이시오? 내 함남도 사까이요. 그래 어떻게 됐소? 통보는 받았소? 그렇소, 포태리를 치고 3호물동으로 해서 그쪽으로 건너간것 같단말이요. 하여간 지금 이쪽은 철통같소. 개미 한마리 못새게 그물을 늘였다니까. 허허허, 글쎄 어떻겠는지… 아마 이번은 틀림없을거요. 그래 어떻게 됐다구? 포부대는 다 이동했다? 그리구 오니시도 24도구쪽에… 아, 알겠소…》

전화는 이쪽에서 포위진을 튼튼히 형성하는데 대응하여 강건너에서도 유격대가 새여나가지도, 발붙이지도 못하게 하라는 협동작전에 대한것이였다. 그것은 이미 조선주둔군과 관동군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해당한 명령이 경찰뿐아니라 새로 혼마

《련합토벌사령부》에 배속되여 압록강대안일대에 주둔하고있는 봉천 2려단과 길림 1려단에 하달되여있었다.

미타하게 생각했던대로 시마끼는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다. 본래 그는 이런 자리에 나타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장 만나자고 하니 우선 **김일성**유격대문제를 가지고 끓어번지는 《토벌본부》에 혹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하고 미심결에 들려보지 않을수 없었다. 사복을 입고 기웃거리는 호철을 발견하자 서장이 그 검정고양이같은 상을 찌프리며 엉뎅이밑으로 부채질하듯 손을 흔들었다. 소리없이 나가라는 수작이다. 무슨 술추렴에 청하러 온줄 아는 모양인가.

호철은 잔뜩 부어오르는 코를 싸쥐고 이사이로 침을 찍 내뱉으며 거리로 나왔다. 그는 한참이나 새골목에서 망설이다가 결심을 하고 최종련락장소인 청료리점으로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하기는 좋자면 이렇게 직접 찾아가지 말고 혜산경찰서같은데서 우연히 만난척하고 눈짓을 할수 있다면 일이 훨씬 순조로울것이였다. 그러나 시마끼는 조선주둔군관하에 나와있다는것을 나타내는것이 재미 없기도 하겠지만 그자들이 놀아나는 꼴이 보기 싫어 몸살을 앓을 지경이였다. 호철이가 경찰들이 하는 일을 우습게 보는것도 시마끼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실상 호철이가 보기에 **김일성**유격대문제에 대해서 시마끼만큼 믿음성있는 견해와 실력을 가진 사람은 있어보이지 않았다.

한때 모리보도과장이 본신사업은 젖혀놓고 이 부문사업을 보게 되면서 시마끼의 빛갈은 상당히 퇴색한감이 있었지만 모리가 이미 죽어버린데다 하시모도의 후임으로 온

이와구니소장이 마침 시마끼의 동향이라 특수선무공작을 전적으로 그에게 의탁하고있다는것이였다.

호철이는 바로 시마끼의 끄나불이였다. 그러나 그가 특수선무공작반의 요원이라는것은 말할것 없고 반장 시마끼와 직접 련결되여있다는것은 비밀중에서도 극비에 속하는 비밀이였다.

호철은 결심을 품고 청료리점을 향해가면서 비로소 자기의 말이 시마끼를 꽤 설복해낼수 있겠는가하는 점을 곰곰히 따져보았다. 아무리 자기의 추리가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제 눈으로 직접 **김일성**장군을 본것도 아니고 유격대를 잡은것도 아니다. 그러니 시마끼가 그 매부리코우에 우묵하게 패워들어간 올빼미눈으로 자기 정수리를 쏘아보는 날이면 선무공작반 요원자리는 말할것 없고 금천동의 금광도 하늘로 날아날수 있다. 그러나 일본제국이 국력을 다 기울이다싶이하여 없애보겠다고 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맨주먹으로 사로잡으려고 나선 이상 어차피 모험을 피할수는 없다. 사실 이번 길만 해도 형까지 횡사하게 되지 않았다면 굳이 위태로운 대목에 제 목숨을 내댈 생각까지는 못했을지도 모른다. 평소에 별로 사랑이라고 느껴보지 못한 형이였지만 정작 유격대에 의해 처단되였다고 생각하니 복수심이 끓어올랐다. 형의 죽음은 또한 자기자신의 죽음을 시사하는것이기도 하였다.

으슥한 청료리점 구석진 방에서 짜장면 한그릇씩을 앞에 놓고 마주앉은 시마끼소좌는 조급하게 주어섬기는 호철의 말을 묵묵히 듣고있었다. 장사군차림으로 소리없이 방안에 들어선 그 순간부터 사소한 변화도 없는 가면같은 표정을 봐서는 호철의 말을

그럴듯하게 듣는것인지 아니면 아무 쓸모없는것으로 치부하는지 도무지 대중할수가 없었다.

생각같아서는 기왕 청료리집에 들어온길이니 배갈을 단 한잔만이라도 들이켰으면 이처럼 목에 벼겨가 걸린듯이 깔쭉거리지 않을것 같았지만 시마끼는 어지러운 식탁우에 놓인 짜장면그릇을 깨끗이 비워치우고 사기주전자에서 더운물 한잔을 따라 양치질을 울렁울렁 한 다음 손수건으로 입술을 꼭꼭 눌러 닦더니 그린듯이 앉아있기만 하였다.

《**김일성**사령부는 틀림없이 새 유격구를 개척할 심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독부관하의 경찰과 군대에서는 포태리를 습격한 유격대가 3호물동으로 해서 다시 압록강을 건너간것이나 아닌가 하는 견해를 세우고있는데 참 한심합니다. 리명수물가에서의 사건은 그후의 일입니다. 이러고 볼 때 **김일성**유격대는 틀림없이 아군의 주목을 딴데 쏠리게 해놓고 전혀 예상외의 방향으로 진출할 기도인것이 명백합니다. 하여간 그들이 아직도 조선국내에 있고 아군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어딘가로 날아갈 태세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시마끼의 우묵한 눈구석에서 비로소 음울한 빛이 번쩍하고 빛났다.

호철은 초조해서 시마끼를 훔쳐보았다. 그러나 시마끼의 올빼미눈구석에서는 한번 빛을 내뿜었을뿐 다시 눈덕을 깔고 빈 짜장면그릇의 황토빛 물결무늬를 지켜볼뿐이였다. 뒤를 재촉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고 그만두라는 표정도 느껴지지 않는다. 만일 호철이가 잠자코 앉아있다면 그는 종일이라도 말없이 앉아있을것 같았다.

호철은 마치 황구렝이앞에 앉은 참새새끼처럼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것을 느끼며 또다시 초조하게 주어섬기기 시작하였다.

그는 궁한김에 다시 강정섭이의 사건을 과장하고 그것을 자기형의 사건과 련결시키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 모든것은 겉보기는 따로따로 떨어진 사건이고 그것자체로서 볼 때는 이런 지방에 흔히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산군의 감시를 위하여 박아놓은 비밀요원이 사살된 바로 그 시각에 역시 관동군의 비밀요원과 자위대장교에게 폭행을 가하고 도주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 사건들자체가 미리 계획된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이 일대에 공산군의 일정한 세력이 움직이고있다고는 봐야 한다고 봅니다.》

시마끼는 여전히 말이 없다. 그 랭랭하고 무표정한 시마끼의 안색은 자기가 흥분때문에 사태를 지나치게 과장해보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고 공연히 청하지 않는 곳에 찾아든데 대한 후회가 은근한 공포감과 함께 등줄기로 스며들었다. 그러자 입도 차츰 얼어붙어 아가미가 잘 놀지 않는다. 그는 마침내 죄나 지은 사람처럼 입을 다물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버렸다. 코가 얼얼하여 저절로 손이 갔지만 억지로 참았다.

《형의 시체는 찾았는가?》

베천에 대고 문대는것 같은 시마끼의 갈린 목소리가 울리였다. 호철은 너무나 놀라 번쩍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나 인차 입을 벌릴 짬이 없어 허둥지둥 고개만 가로흔들었다.

《안됐다. 찾아서 잘 묻어주도록 하라. 그리고 그 신사동사건에는 네가 전면에 나서지 말고 스즈끼에게 맡겨두어라. 그자는 너도 알겠지만 헌병대의 끄나불이다. 그자들

조선주둔군이나 경찰들이 그러루한 몽둥이놀음은 곧잘 한다. 너는 그 젊은놈의 뒤를 잘 밟아라. 그자는 네가 과장하는것처럼 그런 굉장한 물건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유격대가 움직인다면 그런자들에게 손을 뻗칠수 있고 그자 역시 갈곳이 거기밖에 없다. 이것이 요점이다.》

시마끼는 잠시 입을 다물고 앉아있더니 별안간 벌떡 일어나서 간다온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호철은 엉겁결에 벌떡 일어났다. 자기의 배웅도 인사도 바라지 않는 시마끼의 의사표시는 너무나 명백했지만 그는 몇걸음 따라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소리없이 청료리점출입문이 여닫기고 고개를 푹 수그린 시마끼의 버쩍 마른 몸매가 거리의 소요속에 녹아없어지듯이 사라져서야 호철은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 펄쩍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니 팔다리에서 맥이 다 빠져나가는듯 마디마디 매시시해났지만 시마끼가 자기의 정보와 의견을 대단히 중시할뿐아니라 자기라는 인간의 충성심을 믿어주고 따뜻한 인정까지 베풀어준다고 생각하니 메말랐던 눈굽을 적시며 축축한 물기가 배여나와 어느덧 속눈섭에 이슬방울이 큼직하게 맺히였다. 그제야 이미 시마끼의 눈에 띄여버린 부어오른 코마루와 눈등을 조심스레 매만져보았다. 낮보다 훨씬 더 붓고 훨씬 더 얼얼하였다.

15

윤원구네 일행은 점심참이 좀 지나서 삼장읍거리에 들어섰다.

이런 벽지에 이런 거리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만큼 번창하는 거리였다.

두만강기슭을 따라 양철지붕을 이은 건물들이 주런이 늘어섰다. 경찰서, 면소, 세관하는따위 관청들뿐아니라 들쭉회사며 제지회사출장소도 여기에 있고 증산일판의 숲을 갉아먹는 청부업자들도 큰놈들은 대개 이리로 모여든다.

두만강으로 흘러드는 서두수와 소홍단수의 하구도 아래우로 열려져있어서 떼군들을 위한 객주집들이 추녀를 늘여세웠고 잡화상, 포목상, 리발소, 양복점에 색주가집까지 촌스러운 화장을 하듯 커다란 간판으로 초라한 몰골을 가리우고 어깨를 비비대며 서있다.

국경다리라는것은 생각과는 달리 산골에 흔히 있는 좁다란 나무다리에 지나지 않았다. 좀 색다른것은 그 한가운데 문짝을 매달고 밤이면 자물쇠를 채우게 되여있는것이였다. 그 다리문앞에 총대를 멘 수비대의 보초놈이 서있고 이쪽과 저쪽기슭에는 각각 경관과 세관관리가 서서 통행인들을 단속하고있었다.

일행은 그 어떤 행운의 나루배라도 기다리고있을듯이 땀을 발발 흘리며 길을 다우쳤지만 정작 넘어서야 할 국경에 이르자 모두 떡심이 풀려 강기슭에 풀떡풀떡 주저앉아버렸다.

필네도 강기슭에 비뚤서하게 서있는 백양나무에 등을 대고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았다. 봄시위에 불어난데다 소홍단수와 서두수의 물을 받아안은 두만강은 어느덧 장강을 이루어 도도히 흘러간다.

무엇때문에 모두 그렇게도 서둘렀던가. 과연 저 강을 넘어가면 배불리 먹고 편안히 잠잘수 있는 생활이 있을것인가. 모든 사람이 그렇게도 못 잊어하는 고향에 돌아갈 그 길을 저 음침한 산발너머로 가면 찾을수 있단말인가.

필네는 땀발에 젖은 귀밑머리를 쓸어넘기며 볼에 와닿은 강바람의 습습한 물비린내를 가슴껏 들이마셨다.

그것은 다 빈말이다. 거기에 가면 무슨 수가 날듯이 안해를 설복하던 윤원구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간다. 장대선아바이며 김인수며 세상풍파 다 겪었다는 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갈가. 하지만 가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할것인가. 그저 죽지 못해 허우적이는 몸부림이다.

자기에게는 그래도 강을 건너가서 유격대소식을 듣고 오빠를 찾아보겠다는 희망이 있다. 그런 자기의 가슴도 이처럼 젖어드는데 아무런 기약없이 이 기슭에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뿌릴것인가.

눈물이 그렁해서 새삼스럽게 떠나온 길, 아득히 멀어진 정든 산발들을 돌아보던 필네는 옆에서 들려오는 너무나 심상한 목소리에 오히려 놀라서 귀를 기울였다.

《내가 이자 상점에서 마꼬 한갑을 샀는데 한대 피워보오.》

장대선아바이가 김인수에게 하는 말이다.

《아바이는 그냥 우는소리하더니 돈푼이나 있는 모양이요그려.》

김인수는 시답지 않게 중얼거리며 담배 한대를 뽑아물었다.

《임자들도 한대씩 태우라구. 넨장, 아무리 따라지목숨이기로서니 내가 조상의 땅을 마지막으로 하직하면서 담배 한갑을 못사피운단말인가.》

《거 로자를 아껴써야지, 이게 다 문어 제다리 잘라먹긴데…》

윤원구가 담배를 뽑아물며 핀잔비슷하게 말했다.

《아낄만 한 로자도 없네. 허 여기 물부리도 하나 있군. 그러나 저러나 담배맛이 괜찮네. 좀 슴슴한것 같긴 해도 역시 량반들 담배가 다르긴 다르군.》

하고 장대선아바이는 여태 피워보지 못한 권연의 중둥을 어색하게 쥐고 마치 처음 담배를 배우는 사람처럼 후–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히죽이 웃었다.

《여보시오, 가수선생.》

그는 침울한 눈매로 물결을 바라보는 김인수에게 별로 다사하게 말을 건다.

《그 댁은 세상 안가본데가 없다지만 이 장대선이로 말해도 열다섯에 구성군 관서면 향교리를 나서서 서른해나마를 안다녀본데가 없소. 그러다나니 고향에 대해서 남은것이라고는 구성군 관서면 향교리 16번지 하는것밖에 머리에 새겨진게 없는데 그래도 그 땅이 그냥 잊혀지지 않는것은 무슨 까닭인가? 가수선생은 손에 먹물깨나 묻혔으니 이런 리치를 알갔지?》

《그게 다 사람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것이지요. 잘먹고 잘사는놈들을 보시오. 그것들이 어디 고향이요, 인정이요 하는것들때문에 눈물을 짭디까?》

김인수는 그 어떤 모멸감에 불타는듯 격렬한 어조로 말했다. 장대선이도 그렇고 다른 일행도 그의 너무나 세찬 반응에 어리둥절하여 고개를 들었다.

《앞으로라도 잘살 생각이 있으면 그런것을 싹 머리속에서 걷어내야 해요.》

《허지만 선생.》

하고 장대선이는 당황하여 말하였다.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하나? 사람이 고향이나 인정을 버리고야 어떻게 산단말인가?》

《그럼 별수 없지요. 한평생 따라지목숨으로 살아가야지요.》

《하기는 가수선생의 말이 옳은지도 모르겠소. 가령 이 춘길이를 봐도 그렇지. 나는 그래도 고향의 번지수나 알고있지만 이사람은 철이 들어 세상을 둘러보니 자기는 고향도 부모도 없는 어린

(광산의 정대심부름군)가 되여있더라지 않소. 이사람이 이제는 스물다섯이니 나이도 먹을만큼 먹었고 광산에 갖다놓으면 한다하는 선산이지만 아직도 제 고향이 어딘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가수선생이 <타향살이>를 부르면 눈등이 벌개지거던. 저한테 무슨 고향이 있다고 <타향살이>에 눈물을 흘린단말인가.》

《에이, 아바이도 그만두라구요. 내가 언제 울었다고…》

방금까지 풀을 쥐여뜯으며 두만강물결을 눈물이 그렁해서 바라보던 춘길이가 질색해서 소리쳤다.

《허, 이사람 눈등이 또 불깃해졌군. 그러니 임자도 이 가수선생 말마따나 한평생 신수가 궁할밖에… 헌데 가수선생, 그러고보면 또 모를 일이 한가지 있는데… 그 댁은 봐하니 세상리치도 그만치 알고 또 사괴보면 마음씨가 착한 사람같은데 어찌자고 매번 우리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해주는가말이요. 그렇게 눈물을 쥐여짜면 따라지신세를 면할수 없다고 하면서말이요.》

《그야 나도 모르지요.》

김인수는 장대선아바이의 소박한 질문에 가슴이 찔린듯 잠시 허둥거리더니 침울한 어조로 말했다.

《참 별소리를 다 하시오. 내가 뭐 아바이들 보고 울라고 노래를 했겠소. 내가 아는 노래란 다 그런게지요. 세상이 만들어낸 노래란 다 그런 노래밖에 없단말입니다.》

《허- 세상엔 맨 슬픈 노래라… 그러니 정말 별수없군.》

장대선아바이는 기가 찬듯이 중얼거렸다. 우스개처럼 시작된 말이 까닭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어주었다. 춘길이는 무엇인가 해명을 바라듯 김인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으나 그는 어쩐지 모욕당한 인간처럼 얼굴이 살핏해서 물결만 쏘아보고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침울한 그늘이 비꼈다. 해빛이 설핏해지면서 강물에 어수선한 멀기가 일었다.

《그 객적은 소리들 그만하고 이제는 건너갑시다. 강 하나 건넜다고 설마 산천이 그렇게야 변하겠소.》

윤원구가 무거운 분위기를 깨뜨릴양으로 푸접없이 말하며 몸을 일으켰다.

이때 행길쪽에서 자전거종소리가 나더니 낯익은 왜놈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울려왔다.

《오, 여기들 있었는가? 왜 그렇게 빨리들 걷는가? 도망치자고 하는가? 따라오느라고 혼이나 났다.》

돌아보니 농사동주재소 순사 요시다였다. 그놈뒤에 또 한놈의 순사가 달려있다. 일행은 까닭없이 가슴이 덜컥하여 일어났다. 무포어방에서 그놈때문에 어지간히 경난을 치른 일행은 그놈의 말상을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였다.

《자, 빨리빨리 돌아서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가야겠다.》

《가기는 어디로 간단말이요?》

윤원구가 맞받아 소리쳤다. 국경에 다 온 이상 무서울것이 없다는 생각이였다. 그러나 요시다는 자전거를 돌려세우더니 태연히 턱질을 하였다.

《농사동주재소로 가자. 네놈들을 취조해야겠다.》

《무엇을 취조한단말이요?》

《그런것은 가보면 안다.》

《우리는 못가겠소.》

윤원구는 단호한 태도로 뻗쳤다.

《못가겠다? 너나 죽고싶은가?》

요시다는 자전거를 뻗치고 다가왔다. 결국 또 한놈의 순사까지 접어들어서 윤원구와 장대선아바이 그리고 춘길이는 허위단심 걸어온 길을 50리나 되돌아가 농사동주재소에 잡혀들어갔다. 나머지 일행도 그들의 뒤를 따를수밖에 없었다.

방금 조국을 떠나는 리별을 한탄하던 생각을 하면 기가 막혔다. 조국에서 쫓겨나기도 헐한 일이 아니였다.

×

윤원구네 일행은 농사동주재소에 와서 취조를 당하면서야 비로소 일이 정섭이때문에 벌어졌다는것을 알았다. 그것도 정섭이가 무슨 일을 치고 어디로 내뺐다는것을

어렴풋이 짐작할뿐 다른것은 통 알길이 없었다. 놈들은 덮어놓고 사람을 치고 박으며 정섭이 간곳을 대라는것이였다.

아무리 다그쳐도 이쪽에서 댈것이 없고 또 사실자체가 너무나 명백했기때문에 한밤중에 사람들은 내놓았다. 그러나 도강증을 압수한채 내주지 않았다. 보매 정섭이의 사건이 락착되기 전에 훌 강을 건너가버리면 후에 다시 취조할 일이 생길수도 있는데 그런 때 랑패를 볼가봐 그러는 모양이였다.

이튿날 남정들이 번갈아 주재소에 찾아갔으나 막무가내였다.

놈들이 심술을 부리는 까닭이 차츰 밝혀지자 필네는 답답하게 객주집에 남아있을 재미도 없거니와 첫째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또 정섭이가 어디로 내뛰였다면 그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견딜수가 없었다.

신사동에서 어떤 젊은이가 왜놈장교를 패주고 산으로 뛰였다는 소문이 주막집에도 번져왔다. 그러던게 다음날에는 왜놈장교를 패준것은 젊은이가 아니라 늙은이라는 말이 돌아가더니 한편에서는 역시 왜놈장교를 패준것은 젊은이인데 그 젊은이가 달아났기때문에 할아버지를 대신으로 잡아갔다는 말도 돌아갔다.

여러 사람이 나가서 두루 수소문한 결과 정섭이대신 할아버지를 신개척에 있는 자위대영창에 잡아가둔것은 거의 확실한듯 하였다.

그래도 제눈으로 본것만 같지 못하고 또 정작 그렇게 됐다면 그 집 형편이 어떨것인가 생각하니 필네는 한시도 가만있을수 없었다.

일행가운데는 자기네도 그 사건에 련결되여있는셈이고 또 친분으로 보아도 찾아가는게 도리가 옳다는 사람도 있고 공연히 찾아가서 그놈들의 눈에 뜨이면 재미가 없다는 공론도 있었으나 필네는 큰 마음먹고 길을 떠났다.

전날 할아버지와 헤여지던 그 고개마루에서 내려다보니 벌써 동네꼴부터가 무슨 재화를 입은것 같은 랭기를 풍기였다.

정섭이네 집은 초상 치르고난 뒤끝처럼 어수선한 풍경에다 괴괴한 침묵으로써 필네를 맞이하였다.

필네가 저도 모르는사이 두려움에 차서 발소리를 죽이고 집안팎을 살펴보는데 느닷없이 떨어진 웃방문을 넘겨뜨리며 경섭이가 달려나와 매달렸다.

아이의 얼굴에는 쥐마당을 그려놓은 눈물자국과 함께 아직도 공포의 그림자가 가셔지지 않고있었다.

한순간에 떠도는 소문이 모두 사실이였구나 하는것을 깨달은 필네는 말없이 경섭이를 와락 그러안았다.

깨여진 옹배기쪼박이 한마당 널려있고 재털이가 토방에 떨어져있었다. 문의 돌쩌귀가 빠져나간것만 보아도 로인이 순순히 잡혀가지 않았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아이구, 필네가 아직도 안갔구만.》

정섭이의 어머니 역시 울어서 뗑뗑 부은 얼굴을 내밀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된거예요?》

필네는 경섭이를 끼고 그 까칠한 머리를 쓸며 앓는 녀인쪽으로 다가갔다. 정섭이의 어머니는 인차 대답을 하지 않고 필네를 이윽히 바라보기만 하였다. 필네도 더 물어볼 말이 없었다. 이제는 물어보나마나 뻔한 일이였다.

《내 정신 좀 보지. 이렇게 앉아있을 사이 없네. 어서 떠나라구, 여기 있다가 큰일나겠어. 그놈들이 무시로 찾아든다네.》

《찾아오겠으면 오라지요. 우리도 도강증을 빼앗기고 잡혀있어요.》

《그래?》

정섭이의 어머니는 기가 막힌듯 서둘러대던 팔을 맥없이 놓고 주저앉아버렸다.

《어머니.》

필네는 병든 녀인의 살이 쑥 빠진 앙상한 손을 제 손바닥우에 올려놓고 쓸었다.

《할아버지가 상하지는 않았어요?》

《왜 안상했겠니, 밤중에 느닷없이 달려들어 묶자고드니 그러지 않아도 기가 성한 로인이 고분고분 끌려가자고 하시겠니. 바라지가 저 지경이 되였으니 늙은이가 어떻게 성하기를 바라겠니? 그런데 도강증은 왜 빼앗았더냐?》

《모르지요. 경섭이 형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행여나 해서 그러겠지요.》

《에그, 덩치가 커다란것이 무슨 재구를 이렇게 저질러놓았단말이냐.》

녀인은 치마끈을 눈굽으로 가져가며 넉두리를 하였다.

잠시후 필네는 사건의 경위를 대충 듣고는 정섭이의 어머니가 떠미는바람에 그 집 문전을 나섰다. 불쌍한 아낙네는 필네를 떠밀어내면서도 혹시 정섭이를 만나거던 행여 집에 얼씬 않도록 귀띔을 해달라고 신신부탁하였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것 같았다. 산턱에 외따로 떨어진 정섭이네 집을 나와 《이시가와구미》밥집앞을 돌아서는데 스키모를 제껴쓴 사나이가 뒤를 따라왔다.

주먹코에 하늘소처럼 귀가 벌쭉한것이 보기부터 을씨년스러웠다.

동네를 벗어나자 그자는 옆에 붙어섰다.

《그 집에 누구를 만나러 왔는가?》

《할아버지랑 어머니랑 만나러 왔어요.》

《마침 잘됐다. 령감을 만나게 해줄테니 같이 가자.》

필네는 말없이 걸음만 다우쳤다.

될대로 되라지, 하는 생각이 옹골차게 맺혀들자 겁도 사라졌다.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을 쳐들고 꼿꼿이 걸어갔다.

16

정섭이는 집을 뛰여나온길로 대로은산마루의 산불감시막에서 하루밤을 보내고 이튿날은 여기 소로은산기슭까지 튕겨와서 옛날에 시라소니가 살았다는 바위굴에서 뜬눈으로 밝혔다.

아무리 생각해보아야 무엇때문에 자기가 이런 짐승소리가 울려오는 깊은 산속으로 도망쳐다니게 됐는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평소에 밉다고 보아온 리호철이와 자위대 소대장놈이 바로 할아버지에게 행패질을 하니 참을수가 없어서 받아준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번져 총소리까지 울려나올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산판에서 사람을 치는것쯤 아침저녁으로 있을수 있는 일이고 사람이 죽어가는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쩐지 이번 일만은 무사히 가라앉을것 같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우선 집일이 궁금하였다. 그놈들이 할아버지를 그냥 두었을것 같지 않았다.

어제 종일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저녁녘에 동네가까이 내려갔으나 마침 어머니를 들여다보고 오는 길인 물동지기령감네 어머니에게 손목을 잡히고말았다.

바로 자기네 집뒤에 각반을 친 웬 젊은놈이 서성거리고있는데 필경 자네를 잡으러 온것이니 아예 이 어방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것이였다.

하는수없이 그길로 소로은산쪽으로 넘어가 한지에서 하루밤을 새우고나니 이제 더는 궁금증을 누를수가 없었다.

잡혀서 죽을 때는 죽더라도 우선 판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라도 해야 할것 같았고 첫째 춥고 배고파서 견딜수가 없었다.

소로은산 남쪽골안을 타고 편벌장가까이 내려오니 목도질소리, 든장질하는 선소리가 골안을 타고 울려온다.

머지 않은곳에서 도끼질소리, 통나무 넘어가는 소리도 울려왔다.

정섭이는 가맣게 내려다보이는 편벌장이며 힘찬 률동이 느껴지는 도끼질소리가 어쩐지 가슴을 쩌릿하게 훑어내리는것을 느꼈다.

신랑자는 말을 타고

새각시는 가마 타고

안깐령 넘어갈 때

고개넘어 또 고개…

편벌장에서 늘어진 목소리로 엮어대는 노래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목소리는 맑고 해빛은 쨍쨍했지만 정섭이에게는 어쩐지 그 소리가 구슬픈 신세타령같이만 들려왔다.

정섭이는 버릇처럼 나무가지 하나를 뚝 분질러 내던지고 걸음을 옮겨놓았다. 어쨌든 사람을 만나 동네형편을 알아보고 별일 없으면 하칠소쪽으로 내뛸 작정이였다. 도끼질하는데로 가면 많은 사람 눈에 뜨이지 않고도 그 누군가를 만날수 있을것이였다.

정섭이가 빽빽한 관목덤불사이를 빠져나와 좁다랗게 난 운재길우에 나서려고 하는데 아래쪽에서 불쑥 사람그림자가 나타났다. 흠칫하여 내뛸 차비를 하면서 찬찬히 살펴보니 마침 만났으면 하던 편벌부 봉식이였다.

《너 정신이 있니?》

봉식이는 한아름 안고있던 자작나무단을 아무렇게나 내동댕이치고 벗어놓았던 지게를 한쪽 어깨에 걸치더니 사방을 휘휘 살피며 정섭이의 등을 다짜고짜 후미진 산비탈쪽으로 떠밀었다.

《미친놈의 자식!》

정섭이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도 못하고 밀려가는데 으슥한 나무그늘에 들어서자 봉식이가 다시 퉁명스럽게 한마디 내쏘았다.

정섭이는 성이 난듯 한 봉식이를 멀뚱멀뚱 바라볼뿐 입을 벌리지 못했다.

《내 그러지 않아도 너를 만나려고 혼자 빠져나온길이다.》

《내가 어데 있는줄 알구?》

《네가 갈데라고 있니, 아침나절에 대로은산의 산불막까지 타리개감을 하러 갔댔다. 거기서 네가 피우던 담배꽁초를 보고 여기까지 넘어왔지. 이젠 만났으니 됐다. 저리 좀더 깊이 들어가서 요기나 해라. 정신빠진놈의 자식, 이게 어느때라고 이런데 게바라나와서 어정거린단말이냐? 저 꿱꿱하는 소리 들리지 않니? 지금 산판마다 경찰, 자위대뿐아니라 십장, 감독까지 다 떨어나서 돌아간다.》

《십장, 감독은 왜?》

정섭이는 아직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쩡쩡하게 물었다.

《허, 미친놈, 통 세상문세를 아는것 같지 않군. 모두 너를 잡겠다고 그런다는걸 알아라. 네가 무슨 굉장한 혁명잔가 하는 모양이더라.》

《내가 혁명자야?》

정섭이는 어이가 없어 물었다.

《너뿐이 아니다. 태호며 좌상령감까지 잡아가겠다고 떠든다더라. 돌아가는 말이 지금 저놈들한테 무슨 일인가 생긴 모양같다. 그래서 조선사람은 조금만 수상해도 잡아가는 판이라는구나. 너도 만호도 무서운 판에 걸렸다.》

정섭이는 기가 죽어 고개를 떨구고 나무가지를 헤치며 묵묵히 걸어갔다.

《조선사람 다 죽게 됐다.》

봉식이는 정섭이의 등을 떠밀면서 시름없이 중얼거렸다.

《어제 <이시가와구미>에서 간죠를 내줬다. 만호를 잡아가두고 당장 사람들을 쳐죽일것처럼 기광을 부리면서 내줬다는게 일당 50전도 안된다는구나. 그것도

전표예매바람에 다 떼우고 단돈 1원 한장 쥔 사람이 쉽지 않다더라. <호리모도구미>도 같애. 그래서 모두 윽윽하지만 저놈들이 자위대까지 끌어다놓고 하도 무섭게 돌아치니 말들을 못하고 신세타령만 하는 판이다.》

《에익! 개새끼들! 그래 그자식들을 가만둔단말이야? 입은 두었다 무엇에 쓰구 주먹은 두었다 무엇에 쓰는거냐?》

정섭이는 밸이 꿈틀거려 참다못해 소리쳤다.

《이자식이 왜 또 펄펄 뛰면서 이래? 네깐놈이 펄펄 뛰여서 벌어들인게 뭐냐? 숱한 사람을 고생시킨것밖에 있느냐?》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만호형님이 나때문에 잡혀갔단말이냐?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게 아니냐?》

정섭이는 봉식의 소매를 잡아흔들었다.

《저리 나앉자. 그러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그 이야기를 하러 오는길이다.》

소로은산의 남쪽기슭에 나서니 채벌장의 소요는 들리지 않는대신 나무사이로 소홍단수의 구붓한 흐름이 빤히 내려다보이고 봉식이가 일하는 편벌장과 물동다리도 손에 잡힐듯 하였다.

바위너설이 비죽하게 내솟은 풀밭에 들어앉자 봉식이는 우선 지게목발에 달아가지고온 동고리를 풀었다. 빤빤한 고비밭에 보자기를 펴고 동고리를 헤치니 감자가 듬숭듬숭 박힌 잘 퍼진 귀밀밥이 무드기 담겼는데 토장 한덩어리가 한옆에 박혀있다. 무던한 봉식이 색시의 얼굴이 떠올랐다.

《시장하지? 어서 들라구.》

봉식이는 자루 부러진 숟가락을 보자기에 썩썩 문대서 내밀며 비로소 살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거냐?》

정섭이는 숟가락을 받으면서도 눈만은 친구의 입을 지켜보고있었다.

《먹으면서 들으라구.》

하고 봉식이는 옆차기에서 쌈지를 꺼내여 담배를 말다가 무엇을 보았는지 허리를 솟구었다.

《수라를 열었군.》

잠시 긴장된 침묵끝에 봉식이는 도로 풀밭에 주저앉으며 한숨처럼 중얼거렸다.

물동에서 갑자기 솨- 하고 바람치는 소리가 울려왔다. 그앞에서 편벌장을 덮씌우며 허연 물기둥이 치솟았다. 물기둥밑에서 한폭 또 한폭 련달아 세폭의 떼가 쏜살같이 빠져나온다. 물동가에 목도군, 든장군들이 하얗게 모여들어 손을 흔들며 떠들어댄다.

《어제 첫떼가 내렸지…》

봉식이는 담배연기를 구수하게 날리며 조용히 입을 벌렸다.

정섭이는 밥 한술을 큼직이 떠넣고 우물거리며 친구의 입을 지켜보았다. 첫떼가 내렸는데 어쨌단말인가. 봄이 오면 농사군들이 화전을 일구고 씨를 뿌리듯 해마다 이맘때 첫떼를 띄우는것을 이 산판 사람치고 누가 모를것인가.

《치갑이가 그 떼를 타고가다가 지난밤에 부랴부랴 돌아왔다.》

정섭이는 또 한숟갈 떠넣으려던 숟가락을 슬그머니 드리우고 다음말을 기다렸다.

그러니 아까 신랑자와 새각시가 안깐령을 넘어간다는 서글픈 노래는 치갑이가 부른것이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봉식이는 왜 이렇게 갑자르는가. 치갑이가 아무데나 바람처럼 나돌아다니기 좋아하는것은 그가 아무데서나 노래를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이 로은산기슭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이 아닌가. 아무래도 눈치가 심상치를 않다.

봉식이는 한참이나 동안을 두었다가 뜨직뜨직 입을 열었다.

《지금 삼장일판에 너를 잡겠다고 강기슭에 순사들이 개싸다니듯 한다누나. 너하고 하칠소에 같이 있다가 강 건너가느라고 <이시가와구미>밥집에서 묵고간 사람들말이다…》

정섭이는 저도 모르는 사이 무릎을 끌고 나앉았다.

《그런데? 어서 시원히 말하라구. 이거야 답답해서 견디겠나.》

《그 사람들도 여태 강을 못건너가고 객주집에 잡혀있다는구나. 치갑이가 두만강초입의 삼일객주집에서 밥사먹다가 아무래도 네가 강쪽으로 게바라나올것 같아서 떼를 매놓은채 달려왔다더라.》

《아니 그 사람들을 왜 잡아?》

정섭이는 숟가락을 동고리에 꽉 박으며 한쪽무릎을 일으켜세웠다.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해서 그러겠지.》

《아니 그 사람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말이냐?》

정섭이는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다.

《이자식 성미도 더럽다. 내가 상관이 있다나, 왜놈들이 그러지. 그것은 또 약과야. 어서 먹기나 해.》

하고 봉식이는 담배연기를 시름없이 날리며 이제는 잔잔해진 흐름을 타고 량기슭에 늘어선 묵은 채양버들사이를 누벼나가는 세폭의 떼를 바라보았다.

에헤 어허루야

물길이 좋다

첫떼의 뒤동갱이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지난밤에 삼일객주집에서 부랴부랴 달려왔다는 치갑이의 목소리가 분명하였다.

《저녀석도 친구를 잘못 만나서 고생을 한다. 회령까지 가야 할 떼를 두만강초입에 매놓은채 달려왔다고 호리모도란놈한테 경을 쳤다. 그래도 저녀석은 흥타령만 부르고있으니… 어서 밥을 먹으라구.》

봉식이는 측은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하며 다시 숟가락을 쥐여주었다. 정섭이는 숟가락을 받아쥐기는 했으나 이미 무엇을 입에 떠넣을 생각이 나지 않았다.

치갑이에게도 미안했지만 윤원구네 일이 궁금하여 입안이 불시에 깔깔해지도록 몸이 달아났다.

그는 당장 치갑이를 잡고 똑똑히 물어볼 생각이 나서 벌떡 일어나며 떼가 흘러가는쪽을 바라보았다. 이제 달려가면 소홍단산을 돌아갈 때는 흐름이 순하니

따라잡을수도 있을것 같았다. 그 눈치를 챈 봉식이가 담배불을 집어던지고 정섭이의 어깨를 잡아눌렀다.

《놓아라, 내가 가서 알아봐야 직성이 풀리겠다.》

정섭이는 봉식의 팔을 뿌리치며 부르짖었다.

《네가 아직도 정신이 덜 들었구나. 이번에는 치갑이랑 나까지 잡혀가는 꼴을 보고싶어 그러니? 이 어방에 자위대, 순사, 형사가 꽉 덮였다. 물동지기령감네 어머니한테서 무슨 말을 못 들었어?》

정섭이는 그 말에 기가 꺾이여 무너져앉고말았다. 너무나 절통하여 주먹을 움켜쥐고 땅을 내리치니 노르께한 고비밭에서 풀물이 튀여올랐다.

이제는 퍽 멀어진 떼우에서 놀대를 잡고 흔들거리는 치갑이의 구성진 노래소리만 가물가물 울려왔다.

님은 청산에 두고
이내 몸은 어디로 가나
록수구만리에
타고가는것이 칠성판이라
어허루야— 물길이 좋다

《자식두.》

봉식이는 이미 숲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떼쪽을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너도 저녀석처럼 성미가 누긋했으면 좋지 않니. 어서 밥을 마저 먹어라. 밥을 다 먹기 전에는 말하지 않겠다.》

정섭이는 봉식의 뜨거운 진정을 저버릴수가 없어 숟가락을 다시 들었다.

정섭이가 밥을 퍼먹기 시작하자 봉식이는 담배 한대를 다시 말아물었다. 그리고는 정섭이의 손을 잡아끌어 꼭 눌러잡더니 말하였다.

《너네 할아버지도 자위대영창에 잡혀갔다.》

《뭐?》

정섭이는 벌떡 일어났다. 내내 근심스럽던 일이 종시 현실로 되고만것이다. 할아버지가 잡힐바에야 자기가 무엇때문에 몸을 피해다닌단말인가. 그는 입술을 푸들푸들 떨며 숲에 가리워 보이지 않는 《호리모도구미》창고쪽을 쏘아보았다.

《어제밤에 우리 물동지기령감이 구미사무실에 갔다가 오는 길에 너 할아버지를 피뜩 만나본 모양이더라. 할아버지가 너더러 이 어방에 얼씬 말고 멀리 내뛰라고 당부하시더란다. 내 생각에는 하칠소쪽에도 얼씬 안하는게 좋을것 같다.》

정섭이는 《할아버지.》하고 입밖으로 새여나오려는 웨침소리를 가까스로 눌러참았다.

《너 어머니도 몰래 우리 집까지 나왔더라. 아무래도 일이 심상치를 않으니 어디 멀리 피하라는거다.》

《야, 내가 이 지경이 돼가지고 어디로 피한단말이냐. 나 혼자 살겠다고 피하란말이냐.》

정섭이는 눈물이 그렁해서 부르짖었다.

《네 마음도 짐작이 간다. 하지만 너는 잡히면 살아남지 못해. 다른 사람들이야 좀 고생스럽더라도 한다리 건너가 아니냐. 허지만 넌 경우가 다르단말이다. 이 험한 세상에 왜놈장교를 그 지경으로 쳐놓았겠다, 또 산림주사란놈이 들리는 말에는 비밀형사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저러나 저놈들이 지금 꼬리에 불이 달린것처럼 미쳐돌아가는판에 네가 잡히기만 해봐라. 당장 목을 썩둑 자르고말것이다.》

정섭이는 이미 봉식이의 말을 귀담아듣고있지 않았다.

윤원구네도 자기때문에 갈길이 막히고 할아버지까지 그 봉변끝에 묶여갔다니 인두겁을 쓰고야 어떻게 자기 몸을 돌아볼 궁리를 하겠는가.

징역을 살아도 내가 살고 목을 잘리여도 내 목이 잘려야 한다. 그는 당장 어쩌자는 작정도 없으면서 벌써 마음이 급하여 오금을 일으켜세웠다.

《너 왜 그러니? 덤비지 말아라. 네가 이럴가봐 내가 품을 팔고 찾아다닌다지 않니.》

봉식이는 마주덤비며 그의 팔목을 단단히 움켜잡았다.

《봉식아, 나는 어찌라니! 개새끼처럼 빌어먹으며 돌아다니다가 죽으라니…》

정섭이는 붙잡힌 팔목을 비틀며 한손으로 가슴을 두들겼다.

《야, 조용해라, 저기 무엇이 또 온다.》

봉식이가 그를 나무그늘로 밀어던지며 앞을 막아섰다.

《보아라, 저놈이 바로 너네 집을 지키고있던 형사놈이다.》

봉식이가 가리키는쪽을 내려다보니 두지바위쪽으로 통한 길을 따라 웬 녀자가 앞장서 걸어오고 그뒤에 스키모를 쓴놈이 바투 따라온다.

《아니?》

정섭이는 저도 모르는 사이 무릎걸음으로 바위끝까지 나섰다. 눈을 부릅뜨고 내려다보는 그의 입귀는 푸들푸들 떨리였다.

《아는 녀자냐?》

봉식이의 물음에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저 침만 꿀꺽 삼켰다.

《옳지, 그저께 너네 집에서 같이 묵고간 처녀로군.》

정섭이는 잠자코 내려다보기만 하였다.

편벌장에 이르러 물동다리를 건넌 필네는 그대로 강기슭을 따라 꼿꼿이 걸어오더니 신개척쪽으로 꺾어져 듬숭듬숭한 이깔나무사이로 사라졌다.

틀림없이 자위대병영으로 쓴다는 《호리모도구미》현장창고로 가는 길이다. 다시 운재길우에 나타났을 때 스키모를 쓴놈이 필네와 나란히 서더니 무슨 수작질인가 붙이는 모양이나 필네는 들은체 않고 걷기만 한다.

《그럼 또 잡혀가는 모양이군.》

그들의 모습이 나무사이로 아주 사라져버릴 때까지 지켜보고있던 봉식이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다.

정섭이는 그의 말이 사실인가 확인하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너 왜 그러니?》

봉식이는 정섭을 마주보다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정섭이의 얼굴에는 피기라곤 하나 없었다. 둥글둥글하고 부리부리하던 모습은 간곳없고 백지장같이 하얗게 질린것이 꼭 실성한 사람같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정섭이는 그냥 친구의 얼굴을 뻔히 바라보면서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어디 아프지 않니?》

《아무렇지도 않아,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난 곧 떠나겠다.》

정섭이는 이미 결심을 한듯 나지막한 어조로 말했다.

《잘 생각했다. 그래 가면 어디로 가겠니?》

《좌우간 가겠다.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난 그렇게 데데하게 죽지는 않겠어.》

《그럼, 그러찮구. 어디 가거든 곧 기별을 해라.》

《기별을 하겠는지 그건 모르겠다. 내가 인차 못 돌아오더라도 우리 집을 좀 봐다구.》

《자식 별걱정 다 하지 않니. 동네에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탁을 안하면 너의 집을 돌아보지 않겠니. 걱정 말고 림시 몸이나 피해라.》

《고맙다.》

정섭이는 잠시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앉았다가 동고리를 정성스레 쌌다.

《너 색시한테 잘먹었다고 말해다고. 그리고 치갑이 그자식이 돌아오거든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전해다고.》

《이자식이 미치지 않았니? 너 그러다가 치갑이한테 든장대로 좀 얻어맞아보려구 그러니? 익은 밥 먹고 그따위 선소리는 하지도 말아라. 옜다, 이거나 껴입고 가라. 널 주려고 일부러 껴입고왔다.》

그러면서 봉식이는 제 큰저고리를 벗어서 어깨에 걸쳐주었다.

정섭이는 그 소매자락을 한참 내려다보며 쓰다듬다가 조용히 끌어내려 봉식이에게 도로 걸쳐주며 쓸쓸한 어조로 말했다.

《난 일없다. 물동에서 사는 너나 껴입어라.》

그리고는 잠시 멍하니 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뜻모를 웃음을 입가에 짓고 돌아섰다.

소로은산 깊은 숲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뒤모습은 마치 술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뒤모습만 봐도 착잡한 생각에 시달리고있다는것이 뚜렷이 느껴졌다.

《엎친데덮친다더니…》

봉식이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중얼거리며 지게를 어깨에 걸쳤다.

그러다가 문득 돌아서서 정섭이의 모습을 찾았다.

어쩐지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혹시 정섭이가 또 무슨 재구를 치자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러고보니 아까 한 말들이 다 심상치를 않다.

《야– 정섭아.》

봉식이는 다시 다짐을 두려고 소리쳐 부르며 그가 사라진쪽으로 달려갔으나 정섭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17

필네는 불과 한시간전에 그렇게도 마음을 다잡고 걷던 그 길을 허탈에 빠져서 걸음마다 비틀거리며 되돌아왔다. 소홍단수기슭의 좁다란 오솔길에 나서니 채양버들가지가 옷자락을 잡아채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헝클어놓기도 하였다. 그래도 손 한번 움직이고싶지 않았고 몸을 피할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애초에 무엇이 자기 몸을 건드린다거나 발부리에 무엇이 걸채인다는 느낌부터 떠오르지 않았다. 하늘에는 종다리가 높이 떠서 울었다. 자유로이 내리꽂혔다가 가맣게 솟구쳐올라서는 목청껏 울어대는 그 새가 부러웠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는 필네의 눈굽에는 저도 모르는 사이 물기가 핑 하니 어리였다.

그 하늘소같은놈한테 떠밀리여 이 길을 갈 때까지는 무섭기도 하고 걱정도 스러웠지만 떳떳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호리모도구미》현장창고에는 면상에 반창고를 붙인 자위대 소대장도 있고 눈과 코가 퍼렇게 부어오른 리호철이도 있었다.

《네가 강정섭이때문에 삼장에서 모두 끌려온것을 알면서도 그 집에 갔단말이지?》

하고 리호철은 어금이속으로 씹어뱉듯이 사납게 웅얼거리고 자위대 장교놈은 격검채로 책상을 땅- 하고 내리쳤다.

《강정섭이 련락을 갔댔지?》

그럴즈음에 투박하게 무은 창고문이 쩡하니 열리더니 정섭이가 성큼 들어섰다. 그가 나타나자 방안에 우글거리던 모든 놈들이 마치 무서운 사람이라도 맞다들린듯이 황급해 돌아가며 쩔쩔매였다.

자기 역시 얼마나 놀랐던가. 할아버지가 잡히고 금천동으로 가던 일행이 몽땅 도강증을 떼운우에 자기까지 끌려온것이 모두 정섭이때문이였다. 그래도 누구 하나 그를 원망하는 사람은 없었다. 틀림없이 놈들의 눈에 단단히 덧난것 같은 그가 잡히지 말기를 바라며 자기들의 고통을 참고있지 않는가. 그런데 본인당자가 제발로 나타나고보니 그처럼 긴장하여 뻗치고 섰던 아래다리가 매시시해나며 떡심이 풀렸다.

정섭이가 나타나자 필네는 뒤전으로 밀려났다.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내쫓기다싶이 문밖에 나서고보니 허무한 생각이 났다.

정섭이는 바로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제발로 그 무시무시한 곳에 나타났을것이다. 생각하면 그의 마음속도 알것 같았다. 할아버지와 동무들을 생각해서… 혹시는 내 생각도 해서 그렇게 제몸을 위험앞에 내댔을것이다.

그럴수록 필네는 분하였다. 그 호철이와 자위대 장교놈이 정섭이에게 복수하려고 지지고 볶을 생각을 하면 걸음이 걸려지지 않았다.

가까운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 그렇게 할길밖에는 없단말인가.

그 원쑤같은놈들을 쳐눕히고 사람들을 빼낼수는 없단말인가.

이제 정섭이가 붙잡혔으니 도강증을 내줄것이고 할아버지는 놓여날것이다. 그러나 하나도 기쁘지 않았다. 도강증을 찾는다 하더라도 이 마음을 안고 그대로 이 한이 맺힌 땅을 떠날것 같지도 않았다.

힘들게 산을 넘어 신사동으로 내려오니 해가 기울어졌다. 저녁바람이 분다. 구새통들에서 꾸역꾸역 연기가 피여오르고 아이를 불러들이는 아낙네들의 목소리가 울리여온다.

검부레기가 날려다니는 정섭이네 집 마당에 들어서니 썰렁한 랭기가 떠도는것이 사람 사는 집같지 않았다.

그러나 마당에서 인기척이 나자마자 정지문이 열리였다.

《누가 왔소?》

이런 병약한 어머니의 목소리에 이어 경섭이가 빠끔히 바라보더니 《누나다!》 하고 달려나왔다.

어머니도 맨발바람으로 허둥지둥 뛰여나왔다.

《에그, 일없이 나왔구만. 그래 욕을 보지는 않았나?》

경섭이를 그러안고있던 필네는 어머니의 숨가쁜 물음에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욕은 무슨 욕을 보겠어요? 죄가 있어야지요.》

《죄야 그놈들이 만들면 죄지. 내가 필네를 보내놓고 오만가지 생각을 다 했더니 이제는 마음이 좀 놓이는군. 어서 들어가자구. 혹시 할아버지를 보지는 못했나?》

어머니는 먼저 방안으로 들어가다가말고 물었다.

《만나보게 하지 않아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무고하신것 같아요.》

《에그, 그만해도 다행이지.》

아직 아들이 붙들렸다는것을 모르는 녀인은 필네가 무사히 나온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상한 얼굴에 그나마 활기를 띠였다. 그는 서둘러 오지화로에 겨릅대를 찔러 불을 붙이더니 아직도 토방에서 서성거리는 필네를 어서 들어오라고 독촉했다.

필네는 잠시 망설이다가 구들에 올라섰다. 어쩐지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실컷 울고싶었다. 그러나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럴수도 없었다. 선채로 둘러보니 빤한

등불아래 휑뎅그렁한 방안모습이 떠올랐다. 그제는 아래웃방에 사람이 그득했고 또 영섭이 생각에다 아이들에게 볶이노라고 미처 돌아볼 겨를도 없었던 방안이였다. 이제 모두 죽고 잡히고 한끝에 병든 어머니와 나어린 아들 하나가 남고보니 그 오돌막같던 귀틀집이 별로 휑하고 쓸쓸해보였다.

등디에 불을 켜자 어머니는 밝은 얼굴로 돌아앉았다.

《할아버지가 잡혀가셨지, 이 애 형은 어디로 튕겨났는지 모르지, 그런데다 필네까지 끌려가니 무엇을 끓일 생각이 나더라구. 마침 앞집에서 죽 한그릇을 가져왔길래 이 애를 먹이고 그냥 한끼를 굼때자고 했더니 필네를 보니까 나도 시장하구만. 조금 기다리라구. 우리 이제 감자를 쪄먹자구.》

《어머니, 나는 아무것도 먹고싶지 않아요.》

《먹고싶어서만 먹나. 아침에 나섰다는게 여태 굶었겠지. 내가 입맛 덧난대로 하면 아마 굶어죽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어떻게 하겠나. 모진 마음을 먹고 어떻게든 살아갈 궁리를 해야지.》

《그럼 여기 앉아계셔요. 내가 찌겠어요.》

《에그 좀 앉아있으라는데, 오늘 종일을 돌아다니고 그놈들 단련을 그만큼 받고 또 무슨 기력이 남아있겠다구…》

필네는 어머니가 서두르는것을 보니 기가 막혔다. 아들이 잡혔다는것을 알려주면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을것 같았다. 감자를 찌겠다는것도 더는 말릴 힘이 없었다.

하는수없이 둘이 나란히 아궁앞에 앉았다. 정지구석에서 싹을 도려낸 감자 한바가지를 물함지에 쏟아놓고 숟가락날로 껍질을 벗기였다.

《그때 영섭이가 구운 감자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더구만. 하칠소의 누나가 구워주더라구. 처음에는 제 동생녀석에게도 나누어주고 인심을 쓰더니 한참후에는 또 무슨 심술이 났는지 싸움질을 벌려놓고… 에그, 그녀석이 집에 있기만 하면 소란도 피우더니 이제는 집안이 이렇게 적적해졌구만.》

새로 살라넣은 장작이 피면서 불빛이 수척한 녀인의 얼굴에 어룽어룽 진한 음영을 지어놓았다.

《어머니, 편치 않은 몸으로 이 고생을 어떻게 겪겠어요?》

필네는 시름없이 중얼거렸다.

《그러니 별수 있나, 할아버지만 무사히 놓여나면 감자나 묻어놓고 그럭저럭 싹트기를 기다려야지. 그녀석은 지금쯤 어디에 가있는지…》

어머니가 불시에 숟가락 놀리던 손을 멈추고 정지문밖으로 어두운 밤하늘을 내다보는바람에 필네는 무슨 죄나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는 인차 생각을 돌리고 우선우선하며 말했다.

《그녀석이야 동무도 많겠다, 젊은 나이에 어디 가선들 못배길라구. 그저 불쌍한것이 내인들이라니까. 자, 대수해서 안치자구.》

한바가지 되나마나한 감자는 인차 김이 올랐다. 그것을 바가지에 담아서 또 대단한 손님이라도 치를듯이 개다리소반에까지 받쳐왔으나 어머니도 필네도 한개를 다 못먹었다. 경섭이만이 필네의 무릎에 앉아 두어개 주어먹더니 그 애도 중병끝에 또 죽까지 먹은 뒤라 인차 물러나앉고말았다.

어머니는 의례 필네가 자고갈것으로 알고 자리차비를 하였다. 밤도 깊었다.

필네도 어머니와 나란히 하루밤을 실컷 이야기나 하면서 자고싶었다. 그러면 외로운 마음도 답답한 속도 풀릴것 같았다. 그러나 객주집에서 눈이 까매서 기다릴 일행을 생각할 때 그럴수 없었다. 밤이 열둘이라도 돌아가야 한다.

《어머니, 암만해도 가야겠어요. 내가 어머니곁에서 자고싶은 마음이야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모두 너무 기다릴거예요. 래일 길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암만해도 가야겠어요. 갔다가 래일 못떠날 형편이면 다시 오겠어요.》

몇번이나 일어났다가 도로 앉았다가 한 끝에 필네는 결정적으로 문밖에 나섰다. 어머니도 더는 말리지 못하고 마당끝까지 따라나왔다.

《그저 마음이 다심해서 그런당이. 이 밤중에 누가 기다리겠다구 험한 산길로 혼자 갈고.》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캄캄한 숲속을 두려움에 차서 바라보았다.

필네는 종시 정섭이의 소식을 알려주는것이 옳은지 알리지 않는것이 옳은지 판단을 못내린채 캄캄한 밤길에 나섰다. 처음에는 길을 꽤 찾아내겠는지 조마조마하였다. 그저께 한번 가본적이 있을뿐이다. 그러나 정작 동네를 벗어나서 산길에 홀로 접어들자 차라리 마음이 가라앉았다. 차가수물동다리에서 정섭이를 만나던 지난해 여름밤은 밤길을 걷는것이 무서웠다. 짐승도 무서웠고 귀신도 무서웠다.

그러나 한해가 못됐는데 이제는 낯선 밤길을 가도 무서운 생각은 없었다. 그저 가슴이 터져나갈듯이 답답하고 서러웠다.

륙십로인인 할아버지와 친한 사람들을 구원하자고 정섭이는 제발로 그 무도한놈들앞에 나타났을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깨끗한 마음인가. 그러나 그때문에 그는 지금도 죽도록 매를 맞을것이다. 그놈들이 제 밸풀이까지 하자고들테니 때리면 얼마나 악착하게 때릴것인가.

두서없는 생각에 잠겨 걷다나니 길을 잘못들어 한참 허둥거렸다. 어느 구새먹은 나무우에서 부엉이가 귀신같이 소리를 지르며 깃을 치고 날아갔다.

그래도 무섭지 않았다.

그래 정섭이가 그 깨끗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할길이 그 길밖에 없단말인가.

《오빠, 오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필네는 안타까운 나머지 마침내 앞에 와 막아서는 나무그루에 머리를 쓸어박고 목메여 부르짖었다.

18

1939년 5월 20일 백두산기슭은 자욱한 안개속에 뒤덮여있었다. 이 일대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다가도 불시에 새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하는 일이 하루에도 몇번씩 되풀이되였지만 이렇게 진득진득하도록 진한 안개가 덮이는 일은 그리 흔치 않았다.

백두산은 그 분화구를 통하여 몇백년동안 내뿜지 못한 울화를 한꺼번에 토하듯 마치 화염이 그가운데 뭉쳐서 타래치는듯 한 안개를 마구 내뿜었다.

안개는 하늘로 번지다못해 산을 삼켜버린듯 하였다. 나무도, 길도, 지어 바로 옆에서 걷는 사람의 형체도 모두 안개속에 녹아없어지듯 희미해지고 마감에는 제몸조차 가려보기 어렵게 되였다. 안개가 온몸을 감싸고 굼실굼실 기여다니는것이 감각으로 느껴졌다.

《아이쿠!》

누가 나무뿌리에 걸채여 넘어졌다.

《조심하라구.》

옆에서 비칠거리는것을 부축해주며 기관총수 박인섭이가 하는 말이다.

《지독하군, 한밤중이야.》

넘어진 사람은 가까스로 나무그루를 쓸어안고 몸을 바로잡으며 중얼거렸다.

《아직 유격대원이 되려면 멀었군. 캄캄한 밤중에도 소리 하나 없이 걸을수 있게 돼야 한단말이야.》

《밤중이라도 이런 한밤중이 어디 있겠나? 헌데 이거 우리가 바로 가기는 하는가?》

《걱정 말게, 맨앞에 사령관동지께서 계시네.》

《그래?》

김일성동지께서는 안개의 장막을 헤치시며 대렬선두에서 걸어가시였다.

그이의 한손에는 지도가 접힌채로 쥐여져있었고 다른 손에는 라침판이 있었다.

그저께부터 이 일대를 드나든 정찰조가 한둘이 아니였지만 이렇게 짙은 안개속에서는 밀림속의 오솔길을 찾아내기가 어려울것이였다.

이동은 불가피하였다. 간밤에는 청봉에서 떠나 멀리 가는척하고 10리안팎의 건창에서 숙영하였지만 남북포태산일대로 넘쳐나는 적의 세력이 차츰 청봉가까이로 접근하는데다 밤이면 숲속에 우등불을 피워놓고 이 백두산일대를 다 뒤질것처럼 돌아친다는것이였다.

그러고볼 때 이 안개는 이동에는 더없이 좋은 위장물이였다. 백두산이 오래간만에 조국에 돌아온 아들들을 이렇듯 포근한 안개로 감싸주는것인가.

건창을 떠난 대오는 서두르지 않고 동북방향으로 나갔다. 자욱한 안개속에서도 차츰 지대가 높아진다는것이 느껴졌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가끔 지도를 들여다보시며 라침판 하나로 대오를 이끌어나가시였다.

눈앞에 하나하나의 나무, 하나하나의 길은 떠오르지 않지만 명백한 구상을 안으시고 일직선으로 숲속을 꿰고나가시는 이러한 길이 오히려 그이의 사색을 심화시키는데는 유리한듯싶었다.

지난밤에 종합된 정찰자료를 보면 적들은 분명 혼란에 빠진듯 하다. 18일에 포태리를 얻어맞은 놈들은 예상한대로 유격대가 3호물동으로 해서 도로 24도구쪽으로 건너갔다고 떠들어댄다는것이다.

그래서 모든 무력들이 서남쪽으로 움직여갔다. 그러나 다른 징조도 없지 않다.

우선 건창부근에 낚시군으로 가장한 적의 밀정이 나타났다.

그중 한놈은 처단되였지만 한놈은 내뛰였다. 그놈이 도망가서 유격대의 정찰원들한테 걸렸다는것을 다 고해바쳤을것은 틀림없다. 하기는 그놈이 직접 부대를 본것은 아니니

그것자체를 그리 크게 생각할것은 없다. 그러나 적들가운데 그러한 밀정을 그러한 곳에 박아넣을 필요성을 느낀놈들이 있다는것이 문제이다. 다른 하나의 징조는 어제밤부터 《토벌》부대의 발작적인 이동이 즘즛해지고 그대신 수색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손길이 차츰 청봉, 건창 부근으로 뻗어온다는것이다.

하나의 검부레기가 날린것이 미구한 태풍을 예고하듯이 얼핏 보매 보잘것 없는것 같은 이 조짐들이 다 심상치 않은 뜻을 풍기고있었다. 첫째로 혁명군이 건창부근의 밀림속에 있다는것을 눈치챈 적들이 있다는것이고 다음으로 그 혁명군을 포위하기 위하여 긁어모을수 있는 무력은 얼추 다 끌어왔다는것이다.

정황은 급속한 이동을, 그것도 적들이 전혀 눈치를 못채게 은밀히 무산지구로 진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단숨에, 은밀히— 유격대의 대부대를 기동시키는데 이 모순되는 두 요구를 어떻게 결합시킬것인가.

사령관동지의 사색속에서는 무수한 대답이 떠올랐다. 그러나 정세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킬만 한 대답은 없었다. 아니 대답이 있기는 하였다. 그것은 항용 이런 전술문제를 생각하실 때 자료에 대한 과학적분석을 심화해들어가시는 사이 자주 섬광처럼 떠오르군 하는 그런 생각이였다.

빨리 가자면 가장 가까운 길을 가야 하는것이고 가장 가까운 길은 가장 곧은 길이다.

그러나 유격대가 가장 가까운 길을 간적이 있으며 갈수가 있는가. 더구나 삼엄한 국경지대의 적 경계속에서…

얼핏 보매 이것은 현실성도 없고 상식을 가지고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문제같기도 하다.

그러나 사령관동지의 가슴속에서는 강력한 의지와 패기가 용솟음쳤다.

필요하다면 길을 내기도 해야 한다. 항차 있는 길이야 왜 못 간단말인가. 상식으로는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가장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는 없는가.

(경비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왜놈의 우두머리가 내려온다고 했지? 하여간 이제 토의에 붙여보자. 아마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리라고는 적들은 상상도 못할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적여유가 있지 않는가. 그 시간을 리용하여 적들을 한놈이라도 더 많이 이 일대로 끌어붙이는것이 필요하다. 곧은 길을 간다면 출발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며 건창을 떠나 20리도 오나마나한 베개봉에서 숙영할것을 명령하시고 곧 지휘관들의 회의를 부르시였다.

그런데 무산지구로 단숨에 빠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어느 길로 어떻게 행군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지휘관들사이에서는 실로 분분한 론쟁이 벌어졌다. 백두산밑에 무연히 펼쳐진 고원을 횡단하여 단숨에 무산지구로 나가자는 동무도 있고 유격대가 숲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내우기는 동무들도 있었다. 박덕산은 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문제에 원만한 대답을 올릴만큼 준비되여있지 못한데 대해 심각한 자기비판을 하면서 밤중으로 다시 정찰을 나가 무산지구로 재빨리 빠지면서도 은밀성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안전한 지름길을 찾아보고 그런것이 정 없으면 길을 내놓고 오겠다고까지 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이미 열려있는 곧은 길로 우리 인민혁명군대오가 나간다는것을 누구나 쉽게 생각할수 없고 또 누구나 쉽게 생각할수 없다는 바로 그 점이 이 이동의 성과를 담보하고있다고 타산하시였기때문에 거듭 암시를 하시고 계발을 해보셨지만 종시 아무의 입에서도 《갑무경비도로》라는 말조차 울려나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시간도 많이 흘렀고 자기생각을 다 말해버린 지휘관들은 한사람두사람 입을 다물었다.

토론과정에 문제의 초점은 더욱 뚜렷해졌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확신을 가지시고 일어서시였다.

《그럼 회의를 결속합시다.》

하고 결론을 시작하신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론의된 의견들에 대해 하나하나 옳고 그른 점을 지적해주신 다음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동무들!

우리는 북대정자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간부회의의 방침에 따라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적인 타격을 주고 국내인민들에게 혁명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기 위하여 또다시 조국땅에 진출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있는 조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고 그이께서는 그지간에 이미 료해장악된 자료에 기초하시여 강도 일제의 전고미문의 략탈과 탄압이 지배하는 조국의 암담한 현실과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펼쳐보이시면서 조국에 진출한 조선인민혁명군의 목적과 과업을 다시금 상기시키시였다.

계속하여 사령관동지께서는 무산지구로 진출할 필요성과 무산지구에서 수행해야 할 군사정치활동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일제의 두가지 약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시였다.

《장악된 적정자료에 의하면 일제는 함남, 함북 국경지역의 국경수비대와 경찰대들을 총동원하여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지대에 경비력량을 증원배치하고 장백현 24도구계선에 일제관동군 오니시부대와 위만군 장조부대를 비롯한 수많은 병력을 내몰아 포위태세를 갖추고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인민혁명군부대들이 마천령산맥을 따라 백두산동남방향으로 진출하리라고 판단하고 우리를 포태산계선에서 저지시켜보려 하고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움직임으로 보아 놈들은 산지 특히 백두산동남부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큰길에는 주의를 적게 돌리고있는데 이것이 적의 약점의 하나이며 다른 하나의 약점은 놈들이 주간보다 야간에 주의를 더 많이 돌리고있는것이라고 지적하시였다.

사령관동지의 정연하신 분석은 중중첩첩한 밀림속에서 마구 뒤얽혀돌아가는 적의 움직임과 앞으로 변화될 적정에 대해서까지 선명한 화폭을 그려볼수 있게 하였다.

지휘관들의 얼굴에서 충분히 납득된 표정을 읽으시자 그이께서는 자신의 결심을 요약하여 말씀하시였다.

《이와 같은 적정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험한 산발을 탈것이 아니라 놈들의 새 국경경비도로인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행군하며 야간행군을 할것이 아니라 주간행군을 단행하고 대담한 군사활동을 전개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천막안은 술렁거리였다. 오백룡은 놀라서 한쪽 무릎을 일으켜세우고 절반쯤 몸을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밀림지대를 벗어나서 버덩으로 나간다는것만 해도 께름직해서 선뜻 응해나서지 못하는데 항차 놈들의 경비도로로 그것도 대낮에 행군하자고 하시니 그로서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놀란것은 오백룡이뿐이 아니였다. 박덕산이나 오중흡은 말할것 없고 바로 백두산동쪽고원으로 단숨에 빠져야 한다고 주장한 동무들도 눈이 커다래져서 웅성거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고 가볍게 한손을 드시여 그들을 진정시킨 다음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언제나 조성된 정황에 따르는 림기응변의 전술을 취할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위력의 원천의 하나이며 승리의 요인입니다.

적들이 산속에서 우물거리고있을 때 우리는 국경경비도로를 따라 일행천리동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적들로 하여금 우리 인민혁명군을 찾아헤매다가 허탕을 치게 하며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불의타격을 받고 전률케 할수 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계속하여 일행천리전술이 결코 그저 쭉 빠져나가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림기응변의 기동전술을 잘 배합하며 특히 이번에 전개하게 되는 군사행동에서는 민첩성과 기동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장내는 사령관동지의 대담하시고도 과학적인 타산을 리해하게 되면서 차츰 경탄의 목소리가 입밖으로 새여나와 또다시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 이 백일행군을 발기하시면서 단순히 적의 약점을 찔러 행군의 신속성을 보장하자는 전술적타산만 앞세우신것이 아니라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며 나아가서 적에게는 공포를 주고 우리 인민에게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자는데 목적이 있다는것을 강조하셨을 때 모든 지휘관들은 새삼스럽게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모든 지휘관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기쁨과 신심을 읽자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재치있는 씨름군이 상대방의 약점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선손을 써서 이기는것과 같이 적들이 생각조차 못하고있는 곳으로 빠져나가 놈들의 약한 모퉁이를 들이쳐야 합니다.

조국에 진출한 우리의 심정이 감개무량한것처럼 우리의 당당한 모습을 보는 인민들의 심정도 무한히 격동될것입니다.》

계속하여 사령관동지께서는 모든 인민혁명군전사들이 정치적군대로서의 사명을 자각하고 군사활동과 함께 인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강력히 벌릴데 대해서와 행군준비를 빈틈없이 갖출데 대해 강조하시고나서 말씀을 맺으시였다.

《일행천리로 동정한다는 의미에서 래일의 군호는 <동정>이라고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불타는 조국애와 끓어넘치는 전투적열의를 안고 이번 조국진군의 길에 오른 우리의 모든 지휘원들과 대원들이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조국진군목적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모든 지휘관들이 와- 들고일어나서 손벽이 부서져라고 열렬한 박수를 쳤다.

회의는 그것으로 끝났다.

《야- 사령관동지께서 그렇게 자꾸 튕겨주셨는데… 이거야 너무나 뜻밖이니 알아맞힐수가 있어야지.》

《<동정>이라, 멋이 있는데…》

《경무국장놈이 개통식을 하러 오기를 기다린다지? 우리가 개통하기 전에는 그 어떤놈도 개통 못한다는것을 알아야지.》

지휘관들은 동무들끼리 툭툭 건드리면서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다.

19

어디라없이 풋내가 떠돈다. 꽃냄샌지 풀냄샌지 분간되지 않는 알싸하고 향긋한 냄새가 콕 찌를듯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모두 코날개를 벌름거리며 그 냄새를 량껏 들이마셨다. 5월의 다양한 해빛이 따뜻이 내리쬐여 노르끼레한 석비레의 모래가 깔린 정갈한 행군길은 포근한 맛을 자아냈다.

유격대원들은 연신 코날개를 벌름거리며 숲속을 더듬기도 하고 하늘을 쳐다보기도 한다. 온갖 새가 지저귄다. 숲속을 누비고 하늘을 가르며 종횡무진으로 날아다닌다. 그것들도 꽃냄샌지 풀냄샌지 모를 그 알싸하고 향긋한 풋내에 취해서 그렇게 우짖으며 돌아치는지 모르겠다.

아름답다. 이 신선하고 그윽한 향기, 싱싱한 빛갈, 조화 그리고 포근하고 살뜰한 느낌을 어떻게 말했으면 좋으랴.

유격대원들은 《야- 저 새!》《야- 저 구름!》하고 외마디소리를 지를뿐 자기들이 느끼는 그 감동을 표현하지 못했다. 모두 입은 웃고있었으나 눈들은 자꾸만 슴뻑인다.

꿈결에도 잊지 못하던 조국이 이처럼 아름다운데 대해서 새삼스럽게 경탄하였다.

벌어질가말가 망설이며 해님의 눈치라도 보듯 하얀 꽃잎이 가느다랗게 배죽이 내민 은방울꽃의 도톰한 망울이 고비, 고사리의 덤불 한옆에 줄줄이 드리워있다. 그우에서는 아가위 역시 해빛이 눈에 부셔 차마 바로 뜨지 못하겠다는듯 제 열매모양의 망울을 드리우고있다.

벼랑에는 들나리, 길에는 냉이, 길짱구- 눈에 뜨이는 모든 나무, 모든 풀이 꽃을 간직하고있다.

이제 며칠이면 만발할것이다. 아마도 조선인민혁명군의 장엄한 총소리가 이 땅에 메아리칠 때 그것들은 짝자꿍을 치며 춤을 추듯 활짝 벌어질것이다.

삼지연은 갓 짜놓은 비단필과 같이 찬란하였다.

파란 호수를 배경으로 피여오르는듯 한 이깔나무의 신록이 줄무늬를 놓았는데 연분홍빛 진달래가 기슭에도 피여나고 물속에도 어리여 눈부신 색채의 조화를 이루고있었다.

《야-》

유격대원들은 휴식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호수가로 달려갔다. 이쪽 호수에서 저쪽 호수에로 줄달음치듯 돌아가는 동무가 있는가 하면 부석으로 이루어진 백사장가에 넙적 엎드려 코잔등을 적시며 뼈속까지 얼어드는듯 한 물을 숨도 안쉬고 들여마시는 동무도 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혜산과 무산방향에서 들어오는 길에 각각 한개분대의 감시조를 파견하시는 한편 《갑무경비도로》와 그 주변에 정찰을 내보내시고나서 정찰조원들이 돌아올동안 휴식하면서 간단히 점심도 치르고 또 앞으로 100리어간은 물이 없으니 이 맑은 물을 실컷 마시고 가자고 말씀하시였다.

점심요기들을 한후 모두 기껏 물을 마시였다. 그리고는 야전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넣었다. 그러나 잠시가 못되여 그 물을 쏟아버리고 또 새 물을 채운다.

박덕산은 마치 들놀이에 온 아이들처럼 물탕을 튀기고 뜀박질을 하고 모래불에 서로 그러안고 뒹구는 대원들의 모습을 한옆으로 바라보며 슬금슬금 혼자 걸었다.

누가 옆에 와서 집적거릴가봐 일부러 입을 꾹 다물고 근엄한 표정을 지었다. 속이 근질근질한게 누구와 씨름이라도 한번 안아보고싶지만 체면상 그럴수도 없고 또 대상이 될만 한 적수도 없다. 오중흡이를 만나서 좀 이야기라도 나누고싶었으나 원체 꼼꼼한

사람이라 또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7련대주변을 몇번이나 지나며 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럴바에는 혼자 슬쩍 빠져나가서 그놈의 《갑무경비도로》를 먼저 봐두는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밤 지휘관회의에서 그렇게 열을 올려 론쟁을 벌리던 일이며 자기가 체험한 뼈아픈 자책감을 생각할 때 사령관동지께서 놈들이 새로 닦아놓은 《갑무경비도로》로 대낮에 행군하여 일행천리동정하자고 하시던 그 말씀이 지금도 우뢰처럼 머리를 치는것이였다.

덕산은 행복하였다. 그리고 온몸에 자부심이 뿌듯하도록 넘쳐났다. 그러는 한편 도무지 궁금해서 견딜수가 없었다. 그러지 않아도 이미 정찰조가 나갔고 감시조가 배치된것만큼 별일은 없겠지만 이제 곧 사령관동지를 그 길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할 때 더구나 궁금증을 누를수 없었다. 그러나 경비도로에 나간다는 눈치만 보이면 그 누구든 또 줄줄 묻어나올수 있기때문에 일부러 찌뿌드해서 걷자니 마음이 자꾸만 들떠지는게 훌 회파람이라도 불어질것 같아서 장히 참기가 어려웠다.

마침내 큰길에 접어들었다.

덕산은 교차점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과연 곧게는 내뻗었다. 길을 닦기도 잘 닦았다. 포장을 안했달뿐이지 바닥이 석비레판이라 저 큰 도시의 아스팔트길 못지 않다. 이러한 길이 300리나 뻗어있는것이다.

덕산은 처음 한동안 주변을 경각성있게 살펴본 다음 별다른 정황이 아무것도 없다는것을 확인하자 아까부터 힘들게 다물고있던 입을 히죽이 벌렸다.

《네놈들이 보천보를 얻어맞고 너무 혼이 나서 이 길을 닦기 시작했다더니 그만하면 길은 괜찮게 닦았다. 헌데 이 길로 우리가 먼저 네놈들을 치러 갈줄은 몰랐겠지.》

덕산은 혼자 소리내여 말하고 껄껄 웃었다.

그러다가 저편 길가에 별로 꺼져들어간듯 한 곳이 눈에 띄여 서둘러 다가갔다. 바투 가서 보니 유난히 패운것 같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비가 오면 물이 좀 고일것 같았다.

《길도 더럽게는 닦았군.》

덕산은 두팔을 옆구리에 척 짚고 아래우를 살펴본 다음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꼼꼼히 길도 살피고 길가의 이깔나무숲속을 샅샅이 훑어보며 천천히 무산방향으로 걸어나갔다. 한참을 올라가니 강철룡이가 한개분대의 감시조를 데리고 경계근무를 서다가 놀라서 다가왔다. 그는 의례 련대정위가 순찰을 나왔거니 생각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하였다. 덕산은 방금까지 입가에 떠돌던 웃음을 싹 거두고 근엄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았다.

《무슨 정황이 없소?》

《개미새끼 한마리 얼씬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좋은 길에 사람그림자 하나 볼수 없으니…》

강철룡은 고개를 기웃거리며 의논조로 말했다.

《그야 그럴수밖에 있소? 어제밤회의에서 사령관동지께서 다 말씀하시지 않았소? 개통을 아직 안했으니 인민들은 다니지 못하게 하지, 그런데 왜놈들은 지금 정신이 숲속에만 쏠려있고 또 우리가 밤에 움직이려니 생각해서 지금쯤 어디서 낮잠이나 자고있을지 모른단말이요.》

《허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강철룡도 덕산이와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누어봤으면 하는 눈치를 보이며 옆차기에서 담배쌈지를 꺼내자고들었다.

《그래도 동무네는 경각성을 늦추지 말고 잘 살피란말이요.》

덕산이는 말을 많이 했다가는 지금 자기 심중에 깊이 간직하고있는 그 어떤 소중한것이 어쩐지 그런 말속에 다 새여나갈것만 같아 다시 근엄한 표정을 짓고 감시조앞을 지나쳐갔다.

길은 여전히 곧게 열려있다. 자동차가 마주어길만큼 넓은 길이다. 굵지도 가늘지도 않는 노르스름한 모래가 차분히 깔려서 다양한 해빛에 반짝거린다.

길 좌우에 늘어선 이깔나무의 연두색 신록이 길우에까지 비치는듯 하다.

《네놈들이 우리를 잡겠다고 만들어낸 바로 그 총을 빼앗아서 네놈들을 치라고 우리 장군님께서 근 10년전에 말씀하셨지. 그래 지금도 네놈들은 네놈들이 만들어낸 총으로 얻어맞고있는데 아직도 그 맛을 몰라서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가 갈 길까지 닦아놓았군. 에- 너절한놈들, 그러다가는 밥 빌어서 죽도 못쒀먹겠다.》

성미가 어진 덕산이로서는 상당히 모진 욕이나 한것 같이 생각되여 기분이 후련해서 활개짓을 하며 척척 길한복판을 걸어가는데 구붓하게 휘여들어간 저끝에서 웬 사람그림자가 얼씬하였다.

덕산은 얼른 몸을 숨기려다가 멎어섰다. 찬찬히 보니 오중흡이다. 어디까지 갔다오는지 소풍이나 나온듯 몸가짐이 여간 홍그럽지 않다.

박덕산은 《으흠-》하고 턱을 한번 끄떡거린다음 길가에 소리없이 퍼더앉아 오중흡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특별히 몸을 숨기지는 않았지만 될수록 눈에 잘 뜨이지 않게 숨을 죽이고 앉아서 오중흡의 거동을 살폈다.

과연 그것은 혼자 보기 아까운 광경이였다. 그렇게 무게있고 빈틈이 없으며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 서서 자신의 모범으로 사령관동지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7련대장 오중흡이가 저렇게 10대소년처럼 놀아날줄이야 누가 짐작이나 하겠는가.

오중흡은 혼자 나지막하게 코노래를 흥얼흥얼하다가 돌멩이를 하나 발견하더니 아이들 망돌차기하듯 한발을 쳐들고 툭 걷어찼다. 그것이 아마 견준 방향으로 제대로 안갔는지 재빨리 따라가서 이번에는 반대쪽을 향하여 조심스럽게 슬쩍 찬다. 이번에는 너무 조심을 해서 그런지 거의나 나가지 않았다. 오중흡은 한쪽 다리를 들고 한참 겨냥을 하여 좀 세게 툭 찼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돌은 발딱 일어서며 커다란 원을 그리며 빙그르르 돌다가 길옆으로 굴러떨어져버렸다. 오중흡은 집요하게 돌멩이를 쫓아갔다. 그러다가 주의력이 분산되기 쉬운 소년들처럼 주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머리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에 정신이 팔려버린것이다. 오중흡은 불시에 새를 잡을 생각을 한 모양으로 한참 빤빤한 길우를 더듬다가 집어들만 한것이 없으니 방금 쫓아가던 돌을 찾아쥐고 멋지게 돌팔매질을 한번 하자고 하는데 새 두마리가 먼저 눈치를 채고 포르릉 날아나버렸다.

오중흡은 돌멩이를 겨누어든채 날아가는 새를 분한듯이 바라보며 고개를 돌린다.

박덕산은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기 위하여 고개를 숙였다. 무릎옆으로 살펴보니 할일없이 손에 쥐인 돌을 멀리 날아간 새쪽으로 집어던진 오중흡은 문득 길우에서

삭정이토막을 발견하고 그것을 길밖으로 집어던졌다. 그리고 또 무엇이 없는가 해서 주위를 살핀다. 아마 가며오며 길에 무엇이 널린것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깨끗이 거둔 모양 덕산이가 새삼스럽게 자기 주변을 돌아보아도 검부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다.

덕산은 어쩐지 눈시울이 시큰해졌다. 오중흡이라 하면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 지휘관으로서 적들치고 벌벌 떨지 않는놈이 없다. 사실 사령관동지의 비범하고 신출귀몰한 전략전술을 몸으로 받들어나가는 그가 겪어보지 않은 위험이 없고 당해보지 않은 고생이 없다. 그렇지만 언제나 사령관동지의 새로운 전법이 나올 때마다 그 의도를 제일 깊이 리해하고 그것을 온몸에 끓어넘치는 환희로써 받들어나가는것이다. 《갑무경비도로》로 백주대낮에 일행천리하라는 사령관동지의 명령이 내렸을 때 너무나 뜻밖이면서도 너무나 기묘한 그 전술적타산에 경탄한 나머지 기쁨에 겨운 자기 마음을 묵새길길이 없어 저렇게 홀로 즐기고있다는것을 자신의 마음을 통하여 거울처럼 비쳐볼수 있는 덕산이였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오중흡이가 어디서 주어들은 막대기를 휘휘 내저으며 다가오자 오히려 마주 일어서기가 난감한것을 느꼈다.

어쩐지 자기가 엿본것을 눈치채면 오중흡이가 면구해할것도 같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어지럽혀서는 안될 곳에 발을 들이민듯 한 느낌이 들었다.

다행히 오중흡이 먼저 이쪽을 발견하고 곧 평소의 그 고정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무슨 정황이 있습데?》

덕산은 오중흡이 그렇게 멀리까지 홀로 걸어갔다온것은 의례 적정을 살펴보기 위한 순찰이라는것을 자기는 다 안다는듯이 심상한 어조로 물었다.

《없습데.》

오중흡은 더 좀 그럴듯한 대답을 찾아낼만 한 여유가 없는지 단마디로 받아외웠다. 그러자 이쪽도 좀 멋적게 되여 다시 그 말을 받아외웠다.

《없습데?》

《없습데.》

《아무것도?》

《아무것도.》

그제야 덕산의 눈에 오중흡이가 쥐고있는 막대기가 띄였다.

《그 막대기는 어디서 났소?》

《이 막대기말이요?》

한동안 무슨 말인가 해서 얼떠름해있던 오중흡은 자기가 쥐고있는 막대기를 쳐들어보더니 별것을 다 묻는다는듯이 심드렁해서 대답했다.

《저기서 주었소. 왜 그러오?》

《사람두,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는줄 아오.》

박덕산은 오중흡의 어깨를 툭 쳤다.

《나는 동무의 심정을 모를것 같아서 그러오.》

두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것을 확인하자 별안간 와락 그러안고 어깨를 두드리다가 서로 마주보고 눈을 슴뻑거리며 껄껄 웃었다.

위대한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그이의 품에서 함께 자라며 살아도 죽어도 오직 혁명의 한길에 충성을 바쳐나가는 기쁨과 자랑이 사선을 수없이 헤쳐온 두사람의 무쇠같은 가슴을 감동의 눈물로 젖게 하는것이였다.

×

삼지연못가에서는 아직도 짝짜그르르 떠드는 녀대원들의 목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물가에 앉아 무엇인가 씻고 빨고 하더니 서로 머리를 빗어주고 꽃을 꽂아주고 하면서 호수에서 떠나기를 아수해한다. 방금 세수들을 하였는데 잠시후에는 또 소매를 걷어올린 손끝에서 맑은 물을 연신 털며 귀밑머리를 쓸어넘기고 턱밑을 문지르고 한다.

마침내 녀대원들도 물가에서 떠났다. 진달래가 무더기로 피여난 꽃그늘속에서 그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홀로 꽃그늘에 앉아서 방금 채운 야전물통의 물을 기슭에 쏟아버리고 새 물을 다시 채우시였다. 콜록콜록하고 수통아가리에서 소용돌며 들어가던 물이 꼴깍 하고 넘쳐나자 잠시 쳐들었다가 다시 물속에 잠그시였다. 장군님께 조금이라도 더 맑은 물을 올리기 위하여 출발직전까지 물속에 채워두고싶으시였다.

물통을 잡고계시는 손이 짜릿하도록 차고 생신한 기운이 번져왔다. 그것은 삼지연의 덮지 않은 기품같이도 느껴지셨다.

김정숙동지의 눈길은 어느사이에 백두산봉우리를 더듬고계시였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일어서시였다.

장군님께서 천천히 삼지연기슭을 거닐고계시였다. 장군님의 뒤로 백두산은 흰 메부리를 구름속에 절반쯤 감추고 장엄하게 솟았는데 지금 장군봉아래 천지에서는 한창

바람이 뒤설레이고 안개가 피여오르는듯 서리발같은 흰 띠구름이 하늘높이 타래치며 솟구쳐오르고있었다.

그 장엄한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시였다.

세상에서 **김일성**장군님을 백두산장수라고 부르는것은 얼마나 뜻깊은 일인가.

바람사나운 민족수난의 력사우에 조선혁명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어리신 나이에 홀로 싸움길에 나서시여 오늘은 마침내 일제 100만대군과 온갖 사대망국풍조를 발아래 굽어보시며 천하를 호령하시는 장군님의 기상이 그대로 백두산의 그 장엄하고 숭고한 모습에 어리여있는듯 하였다.

그래서 이 땅은 삼지연못가에 이렇게도 아름다운 진달래꽃을 피우고 거울같이 아름다운 풍치를 수놓아서 백두산이 주인을 맞이한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조국인민들의 죽지 못해 살아가는 참담한 처지를 생각할 때 장군님을 민족재생의 태양으로 모시게 된 행복감이 가슴가득히 차올라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느새 눈시울이 축축히 젖어드시였다.

장군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조선사람들의 앞날에 언제 번할 날이 있을것이며 무슨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이 고생을 참고 견디여나갈것인가.

장군님께서는 어느새 가까이로 모여드는 대원들에게 둘러싸이시였다.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는 그이의 목소리가 울리여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일구월심 장군님을 기다리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이께 아름다운 꽃다발을 엮어 올리고싶으시였다. 그래서 탐스럽게 피여난 가지들을 골라 진달래꽃을 꺾으시였다.

가지가지 추억이 떠오르시였다. 올케와 함께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터로 달려가던 생각, 나물하러 갔다가 호젓한 산기슭에 피여난 진달래를 꺾어 어머니 몰래 등뒤에 감추어 다가가서 고생속에 세여버린 흰머리가 가리우게 꽂아드리던 일, 동생 기송이가 배고픔에 못이겨 철쭉꽃을 뜯어먹고 배를 앓던 일— 지나간 세월 피맺힌 한과 뼈아픈 설음이 갈피갈피 스며있는 그 어둠침침한 생활속에서도 꽃은 피여있었다.

물통을 호수에 채워놓은채 추억에 잠기여 한가지 두가지 진달래를 꺾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숨가쁘게 달려오는 인기척에 고개를 드시였다.

순간 그이께서는 심장이 뚝 멎는듯 한 충격을 받으시였다. 방금 가슴을 후벼주던 기송이가 나팔을 메고 달려오는것이다.

한손을 쳐들고 《누나—》 하고 소리쳐부르는 그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옥죄였던 마음을 스르르 늦추시였다. 그것은 상철이였다. 신호수가 어디로 갔는지 나팔까지 척 메고보니 신통히 기송이를 련상시키는데가 있었다.

《누나 여기 있는걸 수태 찾았네.》

《장군님 모시지 않고 왜 왔어요?》

《장군님께서 정찰나간 동무들의 점심을 준비해두었다가 돌아오면 인차 식사를 시키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다 준비해놓았다고 장군님께 말씀드려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도톰하게 부풀어오른 봉오리가 방금 벌어질것 같은 꽃가지 하나를 골라 상철이의 군복웃주머니에 꽂아주며 웃으시였다.

《나도 다 해놓았을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나.》

하고 상철이는 돌아서려다 걸음을 멈추고 눈을 반짝거렸다.

《휴양소라는거 어떻게 하는건지 알아요?》

《그건 무슨 말이예요?》

《아까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담에 혁명이 승리한 다음 여기다 휴양소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휴양소라는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나도 잘은 모르겠어요.》

하고 김정숙동지께서는 장군님께서 휴양소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던 푸른 물결 남실거리는 못가를 굽어보시였다.

《그걸 지금이야 장군님 아니시고 누가 똑똑히 알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나라에 언제 휴양소라는게 있어봤어야 그게 어떤것인지 짐작이라도 할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는 그런것이 다 들어가있어요. 언젠가 장군님께서 10대강령 제9조를 해설하시면서…》

김정숙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달래꽃덤불 저쪽에서 까르르 하는 웃음소리가 터지더니 녀대원들이 몰려왔다.

《여기 있었구나.》

《정말 오누이같네.》

저마다 한마디씩 떠들며 덮칠듯이 달려드는 녀대원들을 보고 상철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입을 비쭉 내밀며 두덜거렸다.

《야, 과연 드살도 세구나.》

《아니 뭐 어쨌어요? 아이구 요렇게 깜찍한게 벌써 어른흉내를 내네.》

채옥이가 손벽을 딱 치며 눈을 흘기더니 다짜고짜로 상철이의 귀를 비틀어올렸다.

《자, 바른대로 대요. 여기서 무슨 이야기했어요?》

《아야, 이거 놓지 못할테야! 야— 귀 떨어지네.》

상철이가 엄살을 피우며 채옥이의 팔을 비틀었다.

《안댈테야,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혼자 들었어요?》

《이야기하게나 하구선 이 야단이야, 막 재미있는 이야기하자는데 접어들구선…》

두사람이 이러고있는데 옥금이랑 철구아주머니랑 벌써 김정숙동지를 둘러싸고 앉았다.

《자, 부산을 피우지 말아요. 그래 장군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옥금이가 정색해서 묻는바람에 상철이와 채옥이도 서로 마지막으로 눈을 한번씩 흘기고 싱갱이를 그치였다.

《흥, 우리도 다 들었다나.》

채옥이는 상철이를 향하여 이렇게 한마디 약을 올려주고는 김정숙동지의 무릎앞에 바싹 다가앉으며 말했다.

《언니, 우리도 거기서 휴양소라는게 어떻게 하는델가 하고 이야기들을 하다가 언니를 찾았댔어요. 글쎄 장군님께서 여기다 휴양소를 짓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어떤겐지도 모르니 한심하지 않아요. 철구아주머니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휴양소라는데는 혁명투쟁이랑 일이랑 많이 한 사람들이 늙어서 자식들이 없을 때 이렇게 조용하고 경치좋은데다 집을 짓고 푹 쉬우면서 거두어주는델거라고 했어요. 언니, 그게 옳아요?》

《쳇, 락후한 소리만 하네.》

꽃나무뒤에 서있던 상철이가 말같지도 않다는듯이 퉁을 놓았다.

모두 손벽을 치며 까르르 하고 바스러지는 소리를 내였다. 철구아주머니당자도 허리를 잡고 꺼이꺼이 갑자르며 웃었다.

김정숙동지께서도 웃음이 북받치여 견딜수 없으시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가슴이 징하니 젖어드시였다. 세상에 녀자의 몸으로 태여났지만 언제한번 녀자답게 아늑한 집안이나 구들에서 살아보지 못하고 오직 혁명을 위하여, 로동자, 농민이 주인된 새 사회를 세우기 위하여 청춘시절을 다 보내고있는 동무들이였다. 눈속에 딩굴고 숲속에 굶으면서 총을 그러안고 한지잠을 잘 때 이네들이 그려본 미래의 내 나라는 그렇게도 아름답고 훌륭하였지만 그 사회는 오늘의 참담한 현실과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때문에 휴양이란 말자체의 뜻을 딱히 가늠하기 어려워하는것이다.

《정말 철구아주머니가 말하는 그런데도 장군님께서 꼭 세워주실거예요. 허지만 휴양소란 그런데가 아닐것 같아요. 장군님 말씀을 들어보면…》

김정숙동지께서는 겨우 웃음이 가라앉자 철구아주머니의 터갈라진 손을 끌어당겨 다정히 쓰다듬으며 꿈꾸듯 말씀하시였다.

《앞으로 우리가 세우게 될 나라에서 주인은 로동자, 농민인데 그러니까 우리모두가 주인이 아니겠어요. 그때는 모든 권리가 로동자, 농민에게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그 권리가운데는 선거하고 선거받을 권리라든가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한다든가, 언론, 출판, 집회를 하는 권리뿐아니라 누구나 다 배울 권리, 치료받을 권리, 일할 권리가 있고 또 누구나 쉴 권리가 있다는거예요.》

《아니 쉴 권리도 있다나? 쉬는것도 권리가 되나?》

철구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여러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쉬는것이 왜 권리가 아니겠어요.》

하고 김정숙동지께서는 측은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보세요. 철구아주머니가 이렇게 험하게 손이 터갈라지도록 우리 혁명을 위해 싸웠는데 이것은 우리가 장군님을 모시고 싸우는것이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의 자유를 위한 떳떳한 길이고 또 누구도 막을수 없는 권리라는것을 깨달았기때문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숱한 방해가 있었지만 다 물리치고 싸움의 길에 나서지 않았어요. 이 다음에 우리 조국이 해방되면 우리는 또 새 사회를 위하여 누구나 힘껏 일하고싶어질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학습에서 배웠지만 로동자, 농민에게 일할 권리가 없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아무리 일을 하고싶어도 일할데가 없어서 실업자가 우글거리고있어요. 그대신 겨우 일자리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열다섯시간, 열여섯시간, 어떤데서는 스무시간이상 고역에 시달리다가 죽어간다지 않아요. 얼마나 쉬고싶겠어요. 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쉴 권리가 없기때문에 죽기 전에는 쉴수가 없는거예요. 장군님께서는 로동자, 농민이 행복하게 잘살 참된 인민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벌써 10대강령에다 8시간로동제를 실시한다는것을 밝히시고 로동조건을 잘 지어주며 임금도 많이 줄뿐아니라 로동자의 여러가지 보험법을 실시한다고 규정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을 하고 오래 살자면 알맞춤하게 일할뿐아니라 푹 쉬기도 해야 할것이 아니겠어요. 생각해보아요. 만일에 우리가 하루에 8시간씩만 딱딱 일하게 되면 나머지시간에 공부도 하고 얼마든지 푹 쉬기도 할것 아니예요.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그렇게 쉴뿐아니라 1년에 한두번씩 나라에서 돈을 대주면서 학교아이들이 방학하듯 목으로 쉬우기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실컷 일하고나서 그렇게 쉬게 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건 정말 꿈같은 세상일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날을 한꺼번에 쉬게 되면 밤낮 자기가 살던 고장에만 있고싶지는 않을거예요. 아이들이랑 데리고 나들이도 가고싶고 또 금강산이나 한나산같은데도 가고싶고 경치가 좋다는 곳마다 찾아가보고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보고싶어하고 놀기도 좋은, 경치좋은 곳마다 우리 로동자, 농민들이 모여서 푹 쉴수 있는 곳을 짓게 되는데 그런것을 휴양소라고 한대요.》

《아이구 황송해라. 그냥 쉬는것만도 모자라서 경치좋은 곳마다 찾아다니겠구만…》

철구아주머니가 너무 기가 차서 한숨처럼 중얼거렸으나 이번에는 아무도 웃지 않았다. 채옥이도 상철이도 눈을 슴뻑거리며 어딘가 먼곳을 바라보고있었다. 저마다 머리속에 무엇인가를 그리고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그 황홀한 새 세상을 세우기 위하여 장군님을 모시고 헤쳐온 피어린 싸움의 길일수도 있었다. 혹은 장군님께서 구상하고계시는 그 꿈과 같이 아름다운 새 사회에로 뻗어있는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일수도 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조국땅에 와보니 우리가 장군님을 모시고 그렇게 훌륭한 조국을 건설할 그때가 바로 눈앞에 닥친 일같지 않아요. 그날을 생각하면…》

김정숙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수집음을 머금은 목소리로 뒤를 이으시였다.

《우리가 바친 희생도, 겪은 고생도 하나 아깝지 않고 앞으로 닥칠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장군님의 그런 훌륭한 뜻을 받들고 싸우다가 죽은들 무슨 한이 있겠어요.》

옥금이가 맞받아 부르짖었다.

《우리모두 더 잘 싸우자요. 불쌍하게 살아가는 우리 조선사람들이 이런데 와서 휴양을 하게 되다니… 나는 그런 앞날이 있다는것만 생각해도 힘이 솟는구만.》

철구아주머니는 눈을 슴뻑슴뻑하며 남자들처럼 석쉼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름할수 없는 감동의 물결이 가슴마다에 차고넘쳤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진달래꽃포기에 볼을 대이고 조용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시였다.

이십세기 용감한 녀성투사들
문명한 활무대에 나서 싸우자

모두다 눈물이 글썽해서 그 노래를 따라불렀다.

로동자와 농민의 자유해방은

무산자의 굳고굳은 단결에 있다

×

얼마후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은 출발하였다.

기관총으로 무장한 선두척후는 벌써 길을 떠나 《갑무경비도로》에 접어들었다.

주력부대도 행군을 시작하였다. 앞에는 7련대, 가운데는 사령부를 옹위한 경위중대가 가고 뒤에 독립대대와 8련대가 섰다. 기본대렬이 저만치 사라진 다음에 역시 기관총으로 무장한 후방경계가 따른다. 길좌우의 밀림속에도 측방척후가 나간다.

길은 곧게 열려있고 눈앞에는 개미 한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비자루질까지 깨끗이 한 길이였다.

행군대오는 천하에 두려울것이 없다는듯 씽씽 나간다. 어떤놈이 접어들어보라는 심정이였다. 그러나 촌순사 한놈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사령관동지의 예언과 대담한 작전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다는것을 느낄수록 행군대오에는 기쁨과 신심이 넘쳐흘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행군의 비상하고 심오한 뜻을 깊이 새길수록 긴장되고 준엄해지기도 하였다.

오중흡은 련대의 선두에 서서 나가다가 조급증을 이기지 못하여 멀리 앞에서 나가는 척후를 몇번이고 따라잡았다. 아까 혼자서 이 길을 미리 돌아보았을 때는 사령관동지의 너무나 기묘한 착상에 감탄한나머지 기쁘고 행복하기만 하던것이 정작 이 길에

전대오가 들어서고 사령관동지께서도 이 길을 걷고계신다고 생각하니 어쨌든 이 길이 놈들의 이른바 《경비도로》라는것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지 않을수 없었고 더구나 이 행군이 결국에 가서는 이번 국내진공의 성과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때 이 뜻깊은 행군을 위하여 헤쳐온 로정이 떠올라서 가슴을 옥죄여주었다.

척후를 따라잡아보니 그저께부터 이 일대를 정찰한 김준삼이와 성림이 그리고 박인섭이가 길라잡이로 앞장에서 걸어가고있었다.

《아무것도 없소?》

오중흡은 별 의도없이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허참, 아무러면 이렇게 개새끼 한마리 얼씬 안할수가 있습니까?》

김준삼은 긴장한나머지 쉰목소리로 대답하였다. 세상에 반죽좋기로 소문난 그로서는 드문 일이였다.

《그게야 동무들이 미리 다 정찰해서 사령관동지께 보고까지 올린게 아니요.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남의 말하듯 하는군.》

오중흡은 그의 마음을 풀어줄양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직접 사령관동지께 정찰보고를 올린 그로서는 이 비상한 행군의 앞장에 서나간다는것이 간을 말리우는 일일것이다.

슬쩍 곁눈질을 해보니 박인섭이의 표정도 여간 심각하지 않고 더구나 성림이는 긴장한나머지 이마에 번지르르 땀까지 솟았지만 닦을념도 못한다.

《좀 활개짓이나 하며 걸을게지. 누가 볼지도 모르는건데… 땀이나 훔치오.》

오중흡은 이러며 허리에 찬 제 수건을 슬그머니 뽑아 내밀어주었다.

《련대장동지, 보기는 누가 보겠습니까. 다 사령관동지께서 예언하신건데…》

리성림은 얼핏 돌아보더니 너무 마음을 옥죄인것이 쑥스러운듯 이렇게 말했다.

《알기는 아는군. 사령관동지께서 결심하신 일에는 틀림이 없단말이요. 그러니 마음 푹 놓고 가기요.》

오중흡이 이렇게 말했으나 척후대원들은 자기들의 마음이상으로 그의 마음 역시 긴장되여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이때 사령관동지께서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시고 행군종대를 따라가시며 마음속으로는 벌써 이해여름에 두만강기슭에서 진행하실 군사정치활동의 구상을 하나하나 무르익혀나가고계시였다.

(우리가 2～3일후에 강 이쪽에서 전투를 하게 된다면 대안의 적들은 적어도 보름이상 걸려야 《토벌》무력을 재편성할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응당 다음번 큰 전투는 증봉산부근이 될것인가? 역시 두만강의 한가닥이니 매우 좋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일을 할수 있을것이다. 우선 국내의 조직을 급속히 복구하고 국내와 통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두보를 튼튼히 꾸리고…)

새로운 구상이 뭉게뭉게 피여오르시였다.

무엇보다도 인민들을 만나실 생각을 하시니 벌써부터 가슴이 뛰시였다. 이제까지는 부대행동의 은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렇게도 그리워하시던 인민들을 찾아보시지 못했지만 어차피 전투를 하게 된것만큼 이제는 마음놓고 인민들을 만나실수 있을것이다.

남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소박한 인민들의 손을 잡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그들의 낯익고 친근한 살림살이걱정이랑 함께 나누실 생각을 하시니 절로 걸음이 빨라지시였다.

20

별빛 찬란한 무포의 밤에 벌써 대홍단에서 진행될 전투계획이 빈틈없이 세워졌다.

무포에 도착해서야 척후에 섰던 인섭이와 성림이는 화락하니 땀에 젖은 군복옷도리를 활 벗어헤치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만. 천문지리가 모두 장군님의 손바닥안에 들어가있다더니 이게 바로 그게란말이요. 허허허, 성림동무, 내 이 속옷을 좀 보오. 다 젖지 않았나. 야- 경비도로 한복판을 걸어올 때는 급하기도 하더니. 이름그대로 그게 어마어마하게 닦아놓은 경비도로가 아니요.》

성림은 눈을 슴뻑슴뻑하며 대답을 안했다.

그는 다른것을 생각하고있었다. 혹 정찰을 면밀히 해서 적의 도로상태를 다 알아낼수도 있을것이다. 그렇다고 그 길로 백주대낮에 전부대를 행군시킬 그런 의지, 그런 신념이 과연 또 있을것인가. 직접 경비도로를 정찰한 우리들도 등줄기로 식은땀을 흘리며 살얼음판을 건느는 심정으로 걷지 않았던가.

한참이나 동안이 지난 다음에야 성림이는 자기 생각을 말하였다.

《사실을 꿰뚫어보기만 해서도 안된단말이요. 사실을 제 마음대로 휘여잡고 제 마음대로 주물러야 한단말이요. 내 <갑무경비도로>를 땀에 떠서 걸어오면서 그걸 깨달았단말이요. 우리 사령관동지께서는 세상만물을 꿰뚫어보는 천리안을 가지고계실뿐아니라 세상만물을 혁명의 목적에 맞게 굽혀내고 휘여내는 무궁무진한 힘과 강철의 의지를 지니고계신단말이요. 안그렇소?》

《가만.》

인섭이는 잠시 눈을 껌벅껌벅하더니 무릎을 철썩 쳤다.

《참 그렇소. 천리안에다 이 통이…》

인섭이는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흥분해서 말하였다.

《저 하늘만큼 크단말이요.》

조선인민혁명군은 아침 일찌기 무포를 떠나 대홍단방향으로 숲속을 행군하였다.

대홍단벌 사득판은 지도에 표시된것보다 훨씬 넓게 보였다. 삼수, 갑산이며 무산, 청진으로 통해있는 오솔길이 나있기때문에 주변의 나무들이 도끼날을 더 맞은 모양이였다.

까치봉기슭을 에돌아 사득판에 들어서는 초입에 다 찌그러져가는 국사당이 있고 그앞에 샘물터가 있었다. 가까이에 인가도 없으니 이 국사당에 행운을 빌 사람은 길손밖에 없을것이였다. 빌어도 빌어도 아무런 행운을 안겨주지 못한 국사당은 마침내 박대를 받기 시작한듯 천 한오리, 제떡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길손들이 안명수라고 부른다는 샘물만은 예이제없이 맑게 괴여 고달픈 행인들의 목을 추겨주었다.

서쪽으로 까치봉, 북쪽으로는 증산, 동쪽으로는 대로은산에 둘러싸인 대홍단벌은 스무정보가 잘 되는 벌판인데 얼핏 보면 소털같은 물자작따위 관목들이 빈틈없이 들어차고 군데군데 동녹이 쓴것 같은 물이 질쩍하게 개핀 진펄이라 쓸쓸한 인상을 자아냈다. 그래도 철은 다툴수 없어 진펄가운데 무덕무덕 솟아난 관목덤불이며 사득판 굽도리를 따라 연분홍 진달래며 철이른 철쭉꽃이 곱게 단을 두르고 수를 놓았다.

유격대원들은 여기서 날저물 때까지 지형을 익히며 휴식을 하였다. 그사이 까치봉이며 대로은산, 삼수평과 창평, 유곡 방향으로 보초대, 전초대, 차단대가 떠나갔다. 전투를 대홍단벌에서 큼직하게 벌리기 위하여 사방을 철통같이 막아놓자는것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날이 저물자 먼저 7련대를 두지바위, 신개척방향으로 내보내시면서 명령을 주신 다음 따로 오중흡을 부르시여 그의 어깨에 두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시였다.

《주민지대에서 전투를 크게 벌릴 생각은 하지 마시오. 대부대가 쳐나가면 놈들은 내뛸것입니다. 더러 내뛰는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들어갈 때 아예 전화줄을 다 끊어버리시오. 혼이 나서 내뛴놈들이 몇십리 달려가서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계획한 시간에 알맞춤하게 그놈들이 일제히 쓸어들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만나서는 무포에서 결정한대로 선전사업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도 하고 집체적으로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오. 깊은 숲속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라 처음에는 좀 놀랄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희망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나는 그쪽까지는 못가보겠으니 나를 대신해서 불쌍한 인민들을 잘 위로하고 고무해주시오.》

《알았습니다. 우리 련대가 임무를 잘 수행해야 래일 전투가 계획한대로 진행된다는것을 명심하겠습니다.》

《됐소.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말입니다.》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시였다.

《련대장동무도 알겠지만 정찰조의 보고에 의하면 그 신개척목재판창고에 갇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하지 않게 따로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시간적여유를 주면 그놈들이 사람들을 해칠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임무는 제가 직접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소.》

사령관동지께서는 오중흡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신 다음 이미 저만치 멀어져간 대렬쪽으로 떠밀어보내시였다.

7련대가 떠나서 얼마 못되여 사령관동지께서는 곧 8련대와 경위중대, 독립대대를 이끄시고 신사동쪽으로 진출하시였다.

이때 박덕산이와 오백룡이가 한꺼번에 그이앞에 나타났다.

《사령관동지, 생소한 주민지구로 몸소 나가시렵니까?》

박덕산의 말에 이어 오백룡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드리였다.

《사령관동지, 저희들에게 명령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무슨 임무든지 다 수행하겠습니다. 지금 적들이 포태산모퉁이에서 우리를 놓치고 사방에서 모여드는데 사령관동지께서 이 밤중에 직접 생소한 동네로 나가셔서는 안됩니다.》

《동무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무엇때문에 내가 동네에 가면 안된단말입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만면에 넘치던 웃음을 거두시고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위험합니다. 신사동앞까지 림철이 들어갔다는데 그사이 어떤 <토벌>무력이 기여들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위대도 날친다고 합니다. 저희들 8련대가 먼저 들어가서 동네형편을 봐가며 사령부를 모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사이 경위중대가 사령부를 모시고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령관동지, 이번만이라도 저희들 청을 들어주십시오.》

오백룡은 사령관동지의 소매에 매달릴듯 안타까이 말씀드리였다.

《나는 동무들의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수 없소. 필요한 군사적조치는 다 취했소. 내가 혁명하러 나선 사람이지 호사하러 다니는 사람이요?》

엄하신 그이의 음성에 두 지휘관은 잠시 입을 다물었으나 인차 고개를 들고 더 절절한 목소리로 다시 청을 드렸다.

《사령관동지, 여기서 신사동까지는 불과 10리도 안됩니다. 우리 련대와 독립대대가 적들을 제압한 다음 련락을 띄운다 해도 한시간이면 충분할것 같습니다.》

《제가 경위중대 전령병들을 8련대와 함께 달려보내겠습니다. 사령관동지, 잠시만 참아주십시오.》

육중한 두 지휘관의 청은 너무나 간절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캄캄하게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시였다.

《내가 2년만에 조국땅에 들어와서 벌써 닷새가 되였소. 지금 내 소망은 고생에 터갈라진 우리 조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손등을 내 손으로 한번 쓸어보고 불쌍한 어린것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우리 조선사람들의 앞날이 결코 험하지만 않다는것을 말해주고싶은것뿐이요. 그날을 생각하며 나도 고생을 참아왔고 조국에 들어와서도 우리의 목적이 너무나 크고 중요한것이기때문에 지척에 그리운 인민들이 사는 동네를 두고도 들리지 못했소.》

사령관동지의 목소리는 떨리였다. 박덕산은 그만 고개를 깊숙이 떨구어버렸다.

오백룡이 울먹한 목소리로 말씀드리였다.

《사령관동지, 용서하십시오. 후날 제가…》

《후날은 후날이요. 내가 이제 인민들과 만난대야 몇시간을 만나겠소. 동무들이 10리를 앞질러가서 무슨 차비를 하느라면 날이 다 밝겠소.

동무들, 우리가 <갑무경비도로>를 왜 대낮에 행군해왔소? 물론 적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한꺼번에 자루속에 걷어넣듯 저 대홍단벌에 몰아넣자는것이 첫째 목적이요. 다음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만큼 시간을 앞당겨서 우리 인민들과 만날 여유를 더 많이 얻기 위한것이요. 인민들과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정치사업도 하고… 그러자면 시간이 있어야 할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대낮에 놈들의 경비도로를 행군해왔단말이요. 우리 인민들을 만나서 정치사업을 하는것은 어디 가나 어길수 없는 우리 혁명군의 원칙이요. 또 이번 국내진공작전과 이해 여름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전략적과업의 하나요. 나는 우리 인민들에게로 가겠소. 고생속에 시들어가는 인민들의 쓰라린 마음을 두고 내 몸이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내 마음은 편할수 없소. 동무들, 부탁이요. 같이 갑시다. 아무 일도 없을게요. 놈들은 이미 우리 수에 걸렸소.》

사령관동지의 너무나 절절한 말씀에 두 지휘관은 더는 드릴 말씀을 잊고 눈만 슴뻑거리며 서있었다. 그러나 그이께서 단호하게 걸음을 내떼시자 두사람은 황급하게 자기 부대로들 달려갔다. 사령부호위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해서였다.

21

강정섭이의 사건은 처음에 이 사건을 턱없이 과장한 리호철이와 스즈끼의 말이 삼장경찰서를 통하여 그대로 올라갔기때문에 복잡해졌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무산지구로 진출한듯 한 눈치를 뒤늦게 채고 유곡방향으로 이동해온 기무라경부보는 강정섭이가 붙잡힌 그날로 당장 자기에게 넘기라고 전화를 해댔다. 그것을 거절하자 다음날은 사까이경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고 자위대 중대장은 경찰이 해야 할 일에 쓸데없이 나서지 말라고 스즈끼를 추궁하였다.

중대장은 포태리근방까지 나갔다가 부랴부랴 돌아와서 붉은바위, 농사동일대에 중대를 전개시키고있었다.

어쩔수없이 강정섭이를 경찰의 손에 넘기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제는 밸풀이도 그만큼 하였으니 그것들을 데려가서 삶아먹든 데쳐먹든 띠끔할것이 없었다. 그러나 윤원구네 일행은 이제는 사건과 관계가 없으니 한시바삐 국경을 넘겨보내야겠는데

경찰에서 압수한 도강증을 내주려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강정섭이를 넘겨주고 이 문제를 아퀴지어야겠다고 호철은 생각하였다.

지금 영창에는 정섭이와 할아버지, 그리고 신사동 《이시가와구미》의 만호외에 《호리모도구미》에서 역시 만호처럼 검척때 감독놈과 맞선것때문에 붙잡혀온 벌목부가 두사람, 자위대식량을 싣고가던 말파리를 진창에 굴려서 쌀이랑 밀가루를 못먹게 만들었다는 말파리군령감이 한사람 해서 도합 여섯사람이 갇혀있었다.

영창이래야 말만 요란했지 실상 그것은 가마니, 새끼툿구리, 바줄따위를 넣어두던 자그마한 헛간같은 현장창고였다. 자위대에서 쓰게 되면서 대충 걷어내가느라고는 하였으나 지금도 헌 가마니짝들과 북데기, 새끼타래가 여기저기 널려있다. 바닥은 맨땅이고 벽, 천장 할것없이 몽땅 나무로 무은 귀틀이다. 창문이라는것은 하나도 없고 여느 집보다는 좀 클가말가한 문조차 연목감나무로 무었다. 해빛이라고는 귀틀틈새기로 새여들어오는것뿐이였다. 흐린 날은 그나마 없어져서 해가 뜨고지는것도 료량할수 없었다.

정섭이는 그래도 몸이 든든한 만호가 옆에 붙어있어서 한결 의지가 되였다. 더구나 만호는 밥집에서 했다는 유격대소식을 꽤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반절구에서 건너온 친구를 만났는데 장군님께서 유격대를 이끄시고 반절구로 쳐들어오시자 대낮같이 환하던 보름달이 갑자기 캄캄해졌다는것이였다. 적들은 장군님의 신출귀몰한 전법에 우들우들 떨기만 하다가 맞아죽고 찔려죽고 하였다. 장군님께서 떠나시자 또다시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였다. 이렇게 천지조화를 임의로 하시는 우리 장군님이시니 저 악독한 왜놈들을 언젠가는 시원히 쳐눕혀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실것이다. 이러한

만호의 말은 영창안사람들에게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 북돋아주었다. 그는 지금도 강로인의 팔을 말없이 주무르고있었다.

정섭이는 가랑가랑 담이 끓는 할아버지의 숨소리를 지켜보며 입을 다물고있었다. 자기가 붙잡히면 할아버지는 놓아줄줄 알았는데 벌써 이틀째 내보내지 않는다.

할아버지가 여기서 숨을 거둔다면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고통은 충분히 각오하고 왔지만 눈앞에서 자기때문에 죽어가는 할아버지를 본다는것은 참을수 없는 고통이였다.

정섭이는 자기의 무력이 분하고 원통하였다.

《할아버지, 물이라도 좀 마시지 않겠소다?》

너무 숨이 가빠하는것 같아 우그러든 양은그릇에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는 물을 숟가락에 떠들며 말하였다.

할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고 천천히 도리질을 하였다.

《물을 드시우다, 물이 아직 많수다.》

만호도 옆에서 권했다. 물이 몹시 귀하다. 매를 맞고 들어와서는 갈증이 나서 여섯사람앞에 우그러든 양은그릇으로 하나밖에 안주는 그 물을 약마시듯 한다.

《나는 괜찮당이…》

강로인은 힘겹게 입을 떼더니 정섭이쪽을 돌아보며 한숨처럼 이었다.

《내 걱정은 마오. 이 못난놈을 두고는 내가 쉬 죽을수도 없소, 에끼! 못난놈같이…》

강의한 로인은 정섭이가 잡혀들어온 때부터 벌써 몇번이나 되풀이한 그 욕설을 퍼부었다. 숨이 간간한 지금에도 로인의 기상은 엄하였다. 그러면서도 정섭의 이마에 난 험한 상처를 보고는 한참씩 뚫어지게 살펴보다가 가벼운 한숨과 함께 외면하군 하였다.

어둑시그레한 창고안인데다 눈빛이 흐리여진 로인에게는 그 상처가 가슴만 긁어줄뿐 똑똑히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정섭이는 할아버지의 화들화들 떨리는 손을 붙잡고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내가 다 잘못했소다. 할아버지, 기운을 차리시오다.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겠소다.》

《못난놈! 제발로 찾아오다니…》

로인은 중얼거리듯 한마디 하고는 입을 꾹 다물어버렸다. 정에 끌리지 않자는것이였다.

자물쇠소리가 나더니 문이 벌컥 열리였다. 문이 열려서도 별로 밝아지지 않는것을 보아서는 날이 이미 저문 모양이다.

《강정섭이 나와!》

전날 필네를 잡아오던 하늘소같이 생긴 스키모가 소리쳤다.

《우리 아이는 어째 찾는거요?》

하고 강로인이 방금전과는 딴 사람같이 기상이 꿋꿋해서 먼저 일어나앉았다. 하늘소는 아무 소리도 못듣는척하고 곧장 강정섭이에게로 뚜벅뚜벅 다가가 어깨를 잡아일으켰다. 그리고는 옆구리에서 포승줄을 꺼냈다.

여느날과는 벌써 잡도리가 달랐다.

《어쩌자는거요? 어디로 데려가오?》

만호가 함께 묻어일어나며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다른 사람들도 일어났다.

《이것들이 왜 이래? 죽고싶은가?》

능란한 솜씨로 정섭이에게 오라를 지운 하늘소는 창고안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네 이놈 정섭아!》

강로인은 거적우에 단정하게 일어나앉더니 엄한 소리로 불렀다.

《암만해도 네 걸음이 보통걸음이 아니다. 아무데 가서나 사람구실을 똑똑히 해라. 할애비나 에미보다 사람의 도리가 중하니라.》

하늘소는 스키모를 밀어제끼더니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사람의 도리가 중해? 령감이 엄살을 피우더니 말은 잘하는군. 교수대에 매달려서 꼿꼿이 뻗는게 사람의 도린가? 가자!》

정섭이는 영창문으로 떠밀려나가면서 웨쳤다.

《할아버지, 몸조심하시우다. 우리 할아버지를 부탁하오다…》

하늘소가 걷어차는바람에 정섭이의 말은 중단되였다. 만호가 왁살스럽게 닫기는 문짬으로 입을 내대고 소리쳤다.

《걱정 말라구, 할아버지는 우리가 돌볼테니…》

막막한 어둠이 좁은 영창안에 숨가쁘게 들어찼다. 남은 사람들은 문가에 선채로 움직일념을 못했다.

거적우에 단정히 틀고 앉았던 강로인이 별안간 캄캄한 천장을 우러러 채머리를 떨며 울부짖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김일성**장군님, 내 손자를 살려주십시오.》

서있던 네사람도 모두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바깥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김일성**장군님을 불렀다.

×

실낱같은 초생달이 두텁게 깔린 구름짬을 누벼나갔다. 산촌은 으스레 밝아졌다가는 갑자기 캄캄해지군 하였다.

편벌장에서 호리모도며 《이시가와구미》의 도감독과 마주서서 무슨 이야긴가 나누고있던 리호철이가 피우던 담배를 그대로 휙 내던졌다. 담배불은 어둠속에 빨간 포물선을 긋더니 물동다리밑에서 꺼져버렸다. 그놈은 자전거를 뻗치고 정섭이를 기다리고있는중이였다.

《리상, 수고하겠소.》

호리모도가 한잔 걸쳤는지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그놈 아예 천당에 보내주라니까.》

도감독이란놈은 딱따구리지팽이로 정섭이의 등을 쿡 지르고는 껄껄 웃었다. 그놈들은 《호리모도구미》사무실쪽으로 멀어져갔다.

리호철이가 자전거를 돌려세우며 하늘소에게 말했다.

《내 한걸음 먼저 갈테니 토벌대로 곧장 가지 말고 유곡작업소 사무실에 먼저 들리라구. 사무실에 없으면 무산옥에 있을테니…》

하늘소는 포승줄을 쥔 손을 바지주머니에 지른채 고개를 끄덕해보였다.

수라에 넘치도록 물이 그득 고인 물동가에서 정섭이는 걸음을 멈추었다. 물속에서 별들이 마치 영섭이의 눈처럼 해죽해죽 웃는다. 편벌장에는 새벽에 띄울 모양인 떼들이 조용히 흐느적거리고있다. 수라짬으로 새여나가는 물소리가 주절주절하는것이 꼭 뜻있는 속삭임소리 같다.

정섭이는 본능적으로 사위를 두리번거렸다. 편벌장에는 사람그림자 하나 없고 불빛도 보이지 않는다. 봉식이는 어데 갔는가? 이밤에는 물동지기령감도 자리를 뜬 모양 막막한 숲만 물속에 어리여있다.

정섭이는 묵묵히 물동다리를 건넜다. 차라리 누구의 눈에도 띄우지 않는것이 좋을는지 모른다. 이꼴을 하고 묶여가는것을 누가 보았다면 그길로 집에 알려지겠는데 가뜩이나 편치 않으신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실것인가. 정섭이는 고개를 떨구고 걸었다.

《이사람.》

오돌오돌 떨리는 목소리가 물동막에서 울려온다. 물동지기령감이다. 역시 사람이 영 없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까닭없이 눈굽이 찡해졌다.

로인은 허둥거리며 스키모를 쓴놈의 눈치를 살폈다.

《이게 이사람 옷일세. 전날 여기다 벗어두고 간건데… 입혀보내도 일없겠지?》

하늘소는 로인이 펼쳐든 처서군 큰저고리자락을 아래우로 훑어본다.

정섭이가 보니 봉식이가 입고가라던 그 큰저고리다.

《안돼, 손을 묶었는데 어떻게 입힌단말야.》

《걸치구라도 가게 해주오.》

《안된다는데…》

하늘소는 로인을 밀쳐버렸다.

《할아버지, 일없소다. 봉식이에게 내 인사나 전해주오다.》

《그럼 이거라도…》

로인은 덤비며 큰저고리주머니를 더듬더니 감자 두개를 꺼냈다.

《그게 뭐야?》

《감자요, 삶은 감잔데…》

《저리 비켜! 시간이 없다는데…》

하늘소는 이번에는 정섭이를 밀쳤다.

《이사람아, 입을 벌리게, 한개라도…》

로인은 옆에 붙어서서 정섭이의 입에 감자 한알을 밀어넣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정섭이가 비칠거리는바람에 감자는 데그르르 굴러나서 수라밑에 떨어지고말았다. 가는 파문이 일고 물속에 어리였던 쪼각달이 이지러졌다.

《죽일놈같으니…》

이렇게 중얼거리며 큰저고리를 한손에 드리운채 물동가에 맥을 놓고 서버린 로인의 모습은 오히려 묶여가는 정섭이보다 더 외롭고 더 서글퍼보였다.

정섭이는 끝없이 주절거리는 소홍단수를 따라 그냥 머리를 푹 숙이고 걸었다. 두지바위동네가 나타났다. 동네를 지나 얼마를 못 가서 흡사 뒤주와 같이 생긴 바위가 있다. 그 바위에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들어있었다. 저우로 올라가면 영섭이에게 돌배를 따주던 그 돌배나무도 있다.

하늘소는 포승줄을 잡아챈다. 사람눈에 뜨이는것을 그놈도 좋아하지 않는 눈치다. 정섭이 역시 이제는 그 누구가 봐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러나 빨리 걸을 생각도 없어서 여전한 걸음으로 10여호 되는 동네를 한번 돌아보지 않고 지나쳤다. 초저녁인데도 불 켠 집 하나 없이 캄캄하다는것만은 어쩐지 가슴아프게 느껴졌다.

도룡봉마루가 저만치 바라보이는 버덩에 나섰을 때 앞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자국소리가 들리였다.

하늘소는 본능적으로 정섭이를 나무그늘에 밀어넣고 저는 권총을 뽑아들었다.

가까이 오는것을 보니 리호철이였다. 자전거는 어디다 쥐여뿌렸는지 맨몸으로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온다. 달려오면서도 연신 뒤를 돌아보는 꼴이 무엇에 쫓겨온 모양이다.

《웬일이시오?》

하늘소가 길로 나서며 물었다.

리호철은 흠칫하고 멎어서더니 우선 《국민복》 단추를 다 끄르고 숨을 태웠다. 가슴이 골풀무처럼 씩씩거리며 오르내린다. 그 짬짬으로 토막토막 찢어던지는것 같은 말마디들이 새여나왔다.

《유격대다!… 대부대다! 산으로… 소리를… 소리를 내지 말고…》

《뭐요?》

하늘소는 유곡방향을 피끗 돌아보고나서 대들듯이 물었다.

《벌써 왔단말이요?》

《왔다, 왔단말이다. 내가 뭐라던가…》

호철은 벌써 풀밭을 헤치고 산턱으로 들어가며 술주정뱅이처럼 말했다.

《그럼 자위대로 가야 할것 아니요?》

《자위대쪽으로 가면 죽는다. 유격대가 지금 그리로 가는것이 틀림없다. 이리 와!》

하늘소는 정섭이의 포승줄을 끌고 자신없는 걸음으로 몇걸음 따라갔다.

리호철은 정신없이 한참 산으로 올라가다가 무엇을 보았는지 다시 흠칫 멎어섰다. 도룡봉마루가 벌써 기울어지려는 초생달빛아래 우렷이 떠올랐다. 그우에 총을 든 사람들이 서있었다. 저 아래쪽 길도 보이는데 껑충하게 선 전주대에 웬 사람이 올라가는것이 훤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호리모도구미》목재판으로 통하는 전화줄이다.

《야- 쫙 덮였구나.》

《경찰이 아닐가요?》

하늘소가 고개를 기웃거리며 미타한 소리로 말하였다.

《정신빠진 소리 하지 말아라. 네놈은 공산당을 그렇게 겪고도 몰라? 저것 봐라! 전화줄이 끊어진 모양이다.》

하늘소는 어둠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건만 리호철이가 륙감으로 느끼는 그 모든것이 의심할나위가 없다는것을 깨닫고 우들우들 떨기 시작하였다.

리호철의 눈길은 정섭을 지켜본다. 도적고양이처럼 빛을 뿌리는 그 눈은 살기를 뿜고있었다. 정섭은 본능적으로 몸을 가드라뜨리고 숨을 죽였다.

리호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하늘소를 눈짓으로 불렀다. 무엇을 수군거린다.

《…총소리를 내면… 소리도 못치게…》

이런 말마디들만 가까스로 들려온다.

정섭은 막다른 골목이라는것을 깨닫고 아래우를 살펴보았다. 나무라도 빽빽하면 좋겠는데 여기는 전날 화전을 일구다가 산불이 나서 앙상한 강대만 듬성듬성 남아있을뿐이다.

하늘소가 별안간 포승줄을 힘껏 잡아채더니 한손을 쳐들었다. 비칠하고 앞으로 어푸러지는 순간 그놈의 손에서 비수가 번쩍하는것이 보이였다.

《악-》

면바로 목을 겨누었던 칼은 정섭이가 넘어지는바람에 빗나가서 어깨를 찔렀다.

정섭이는 꼬꾸라지려는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고 옆으로 돌아섰다. 두손을 다 결박당했으니 이놈들에게 꼼짝 못하고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무맥하게 칼을 받고있을수는 없었다. 하늘소가 재차 달려드는 순간 정섭이는 몸을 날려 그놈의 아래배를 걷어찼다. 칼은 넙적다리 어방을 째고 허공에 날아났다. 그놈은 벼랑에 뒹굴었다.

호철이가 권총손잡이로 정섭이의 정수리를 힘껏 내리쳤다.

정섭이는 다시한번 외마디소리를 지르고 뒤로 번져졌다.

하늘소가 일어나서 칼을 찾았다.

《야! 저것 봐라! 저쪽에서도 온다, 뛰여라!》

두놈은 쓰러진 정섭이를 한번씩 힘껏 걷어차고 산으로 올리뛰였다.

22

어둠만 깃들면 불빛 한점 새여나오지 않던 한적한 숲속—칭칭 동아줄에 휘감기여 신음소리도 지를수 없던 답답한 생활의 시꺼먼 심연속에서 아닌밤중에 새들이 하늘로 날아올랐다. 선잠이 깬 그것들은 불시에 터져오른 함성과 불빛에 놀라 어두운 하늘높이 치솟아오르기는 하였으나 아무리 내려다보아야 이날 이밤에 신사동일대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사변의 뜻을 리해할수 없었다.

새들은 종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채 어딘가 더 깊은 숲속으로 날아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차츰 이 꿈만 같은 일이 꿈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라는것을 깨달았다.

정섭이의 집에서는 초저녁부터 불도 켜지 않은채 외롭게 남은 모자가 포대기 한쪼박을 걸치고 쓰러져있었다.

정섭이까지 잡혔다는것을 알았을 때 어머니는 더는 살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그대로 죽을수도 없는 처지였다. 경섭이가 칭얼대고 보채니 하루에 한끼든 이틀에 한끼든 끓이지 않을수 없었다. 감자나 귀밀죽을 바가지에 퍼담아들고 구들에 앉으면 눈물이 앞을 가려 들었던 숟가락도 내려놓게 되였다. 그러나 어린 자식앞이라 마음놓고 울수도 없었다.

《어서 많이 먹어라.》

눈물을 가리우기 위해 돌아앉아 이렇게 말하면 경섭이는 암만해도 이상한지 빤히 올려다보군 하였다.

남편을 앞세우고 영섭이까지 자식 넷을 떼우고 거기에 시아버지와 맏아들까지 잡혀가고보니 그러지 않아도 종이장같은 가슴에 재무지만 남은것 같았다.

썰렁한 구들에 걸리는 허리를 조심하며 힘들게 드러누우면 번한 뙤창밖에서 또 무슨 흉한 소식이 쳐들어올것만 같아 잠도 들지 못하면서 몸을 한줌만하게 옹송그렸다. 그러나 밤마다 뜬눈으로 밝혀도 음침한 산속의 밤은 멀리서 새로운 불행을 장만하느라고 윽벼르듯 소리 하나 없이 고요히 지새군 하였다. 별일 없이 지나가는 그러한 밤들이 불행에 습관된 아낙네에게는 안도의 숨보다도 새로운 불안을 가져오는것이였다.

오늘밤은 꼭 무슨 일인가 일어날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초저녁부터 누워있는데도 가슴이 활랑거려 정신은 새록새록해지기만 하였다.

아니나다를가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로 들어오는것이 느껴졌다. 동네집 문들이 여닫기고 골목으로 뛰여다니고 하는것이 캄캄한 어둠속에 누워서도 환히 느껴졌다.

녀인의 가슴은 후두둑후두둑 뛰기 시작하였다. 무슨 일일가? 모두 불들을 켜는 모양인데 누가 왔을가? 웬 손님들이 이 밤중에 이리도 많이 왔을가?

어머니는 갈피를 잡을수 없는 생각을 더듬으며 여전히 불안에 후둑거리는 가슴을 옹송그리고있는데 마침내 밥집쪽에서 함성이 터져올랐다. 만세소리가 쩌렁쩌렁한다. 이게 무슨 일인가?

집앞으로 난 골목길로 급히 달려가는 발자국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웬 발자국소리가 문득 멎더니 정지문을 쾅쾅 두들긴다.

《정섭이 어머니, 혁명군이 왔소다. 어서 나오시오다.》

혁명군이라니? 어머니는 어망결에 포대기를 들추었다가 경섭이가 일어나려고 꼼지락거리는것을 보고 서둘러 아이를 다가끼고 몸을 더 옹송그렸다.

이 깊은 산골에 혁명군이 오다니, 그럴수가 있는가? 내가 너무 원통해서 원쑤갚을 생각만 하다나니 무슨 꿈이라도 꾸는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그냥 높아지기만 하는 함성에 다시 귀를 기울이지 않을수 없었다.

이제 소리친것은 봉식이 같았는데… 봉식이가 무슨 일로 그런 말을 했을가…

여태 어머니의 겨드랑밑에 누워있던 경섭이가 갑갑해 못견디겠는지 포대기자락을 와락 잡아헤치면서 소리쳤다.

《엄마, 누가 왔대. 빨리 나오래.》

《경섭아, 제발 너나 덤비지 말아라.》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다시 포대기를 씌워주며 눕혔다.

《아니야.》

하고 경섭이는 도리질을 하며 발딱 상반신을 일으켰다.

《저것 봐, 소리를 막 치지 않아? 엄마 우리도 가보자.》

어머니는 다시 귀를 기울였다. 아닌게아니라 혁명군 만세라고 웨치는 함성이 울려온다.

혁명군이라면? 시아버지와 정섭이가 그렇게도 목마르게 기다리던 그 혁명군이라면…

《경섭아, 불을 켜라! 내 좀 나갔다오마.》

어머니는 문을 쩡 열어젖히고 앓는 사람같지 않게 토방에 내려섰다.

《엄마, 나도 갈래.》

하고 경섭이가 치마꼬리를 잡고 맨발로 마당에 내려섰다.

어머니는 당장 달려갈것처럼 문을 열고 나섰으나 눈앞에 벌어진 동네의 정경을 바라보자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캄캄한 방안에서도 이집 저집에서 불을 켠다는것은 느꼈으나 이처럼 동네가 대낮같이 환해진줄은 짐작도 못했다. 밥집에서는 남포등을 바깥처마에 매달기까지 하였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씨글씨글 넘쳐났다.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집집으로 찾아들기도 하고 《이시가와구미》의 창고앞이며 밥집앞에서는 연설도 한다.

녀인은 너무나 심한 충격에 머리가 휘 내둘리여 실그러져가는 구새통을 붙잡았다.

물동지기령감네 집앞에 동네사람들과 군복입은 사람들이 엇섞여 한마당 몰켜있더니 누가 집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지 모두 이쪽으로 움직여온다. 아마 혁명군들이 동네의 집집을 죽 돌아보며 이쪽으로 오는 모양같다.

어머니는 당황하였다. 물동지기령감네 집 다음은 바로 이 집이다. 이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이라도 하고싶었다. 그런데 이렇게 캄캄한 곳에 어떻게 손님들을 맞이하랴. 어머니는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가 부지깽이로 재무지를 헤치고 불씨를 찾아냈다.

가까스로 등디에 불을 밝혀놓았을무렵 벌써 집뒤를 흐르는 개울의 나무다리를 건너선 사람들이 가래나무아래에 들어섰다.

《이 집이 강령감네 집입니다. 정섭이 에미, 좀 나오라구.》

물동지기령감의 목소리에 어머니는 머리를 쓰다듬어넘기며 마당으로 나갔다. 짚신이 발끝에 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벌써 가래나무아래로 키가 후리후리하신분이 다가오시였다.

어머니는 이런 후미진 곳, 더구나 자기 집 문전에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시리라는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만 혁명군이 왔다니 반가운 나머지 짚신을 겨우 발끝에 걸치고 앞으로 나가 두손을 모으고 공손히 인사를 드리였다.

장군님께서는 서둘러 다가오시여 어머니의 두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아주머니가 고생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고생이사 내남없이 다 하는것이지만서두 실루 고생하는것은 혁명군들입지. 날래 올라들 오시오다. 집안을 거두지 않아서…》

어머니는 자신이 그렇게 목메여 구원을 청하던 장군님앞에 서있다는것은 모르고 이렇게 말씀드리며 손님들을 구들로 청하였다.

장군님께서는 허물없이 토방으로 다가가시였다. 처져내린 추녀를 올려다보신 장군님께서는 실그러진 구새통을 바로세우시며 말씀하시였다.

《굴뚝이 이렇게 넘어져서야 불이 들겠습니까. 이런 귀틀집이란 원래 겉바람이 심한데 구들이라도 뜨뜻해야지.》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토방에 올라서시여 열려진채로 있는 방안을 들여다보시고 구들을 만져보시였다.

희미하게 비쳐나오는 등불빛을 통해서도 그이의 안색에 그늘이 비끼는것이 느껴졌다.

《산에 다른것은 몰라도 나무는 흔하겠는데 불도 때지 않았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누구에게라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어머니더러 물을 한사발 청하시였다.

어머니가 허둥거리며 그릇을 두세번 거퍼 부신 다음 물을 정히 떠서 갖다올리자 사령관동지께서는 몹시도 속이 타시는듯 그 물한사발을 다 드시였다.

《아주머니, 여기 와 좀 앉으십시오. 내가 아주머니 고생하시는 이야기를 대충 듣고 왔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사발을 받으려고 내미는 어머니를 곁에 와 앉으라고 부르시면서 사발을 방바닥에 내려놓으시였다.

어머니는 엉거주춤 그이앞에 서서 두손을 치마자락에 감추고 문대였다. 경섭이가 어머니뒤에서 머리를 배죽이 내밀고 장군님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한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자꾸 뒤로 밀었으나 철없는것은 그냥 고개를 내민다.

장군님께서는 두손을 뻗치시여 경섭이를 덥석 안아올리시더니 자신의 무릎우에 앉히시였다.

《이름이 뭐냐?》

《경섭이.》

어머니는 질겁해서 아들을 꾸짖으려 하였지만 그럴사이도 없이 경섭이는 장군님의 가슴에 드리운 가죽띠를 매만지며 대답하였다.

《경섭이, 강경섭이로구나, 그래 몇살이냐?》

《여섯살.》

어린것은 장군님께서 자기를 귀여워해주신다는것을 느끼자 점점 어려움을 잊고 이번에는 쌍안경을 만지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어찌할바를 몰라 괜히 손만 허공에서 내밀다가 거두었다가 하였다.

《애가 중병을 치렀다더니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용타. 혼자 병을 견디고 이렇게 일어났으니… 가만, 상철동무, 아주머니가 허리를 다쳐서 몸이 불편한 모양인데 누가 군불을 좀 지피시오.》

《알았습니다.》

그이를 수행해온 유격대원들이 우르르 부엌으로 달려가는것을 보고 어머니는 더구나 당황하여 몸둘바를 몰라하다가 부엌으로 갔다.

《제발 이러지들 말아주오다. 내가 지금 마음에 경황이 없어서 그렇지 불이사 내손으로 못때겠슴메.》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장군님께서 동네에 들리시여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모릅니다. 장군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도 어머니는 가만 계세요.》

벌써 아궁앞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구들고래를 들여다보고있던 나어린 대원이 상냥하게 말했다.

《아니 장군님이시라니? 그럼?》

어머니는 너무나 놀라 허공중에 손을 멈추고 다급히 물었다.

《그럼 저분께서 우리 **김일성**장군님이시란말이요?》

어머니는 우르르 쓸어드는 혁명군을 번갈아 돌아보며 애원하듯 물었다.

《그렇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아주머니네 집에 불행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진중하게 생긴 한 대원이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어머니는 그만 멍 하니 서버렸다. 시아버지도, 아들도, 동네사람들도 가슴이 터져나갈 지경으로 분하고 원통하면 하늘에 대고 구원을 청할 대신 장군님을 불렀다. 어머니 역시 그렇게 장군님을 부르며 힘겨운 고생살이를 참아왔다. 그러나 세상에 이름 높으신 장군님께서 아무리한들 이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화전촌 처서판에 몸소 들리시여 그런중에도 볼꼴없는 자기 집 문지방에 저렇게 허물없이 걸터앉으실수가 있는가.

어머니는 믿을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장군님이 아니시고야 어찌 이런 궁상맞은 집까지 찾아오시여 구새통을 바로세워주시고 불 땔 걱정까지 하시며 저런 부엉이새끼같은 자식을 무릎우에 앉히시고 저렇게도 따뜻이 머리를 쓰다듬어주실것인가.

어머니는 불시에 천대받고 모욕당한 온갖 설음이 한꺼번에 떠올라 울음이 북받쳤다.

남의 구박을 받던 아이가 제 친어버이를 만났을 때와 같은 심정이였다.

어머니는 새삼스럽게 머리를 쓰다듬고 토방으로 나갔다.

《장군님, 이 산골아낙네가 장군님을 몰라뵙고…》

하고 어머니는 그이의 앞에 허리를 굽혀 절을 드리였다. 그러나 인사의 말씀을 미처 드리기도 전에 울음이 북받쳐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아주머니, 웬일입니까? 아이들이 보는데서 이러면 됩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장군님께서도 당황하시여 경섭이를 한옆에 내려놓으시고 어머니의 두손을 잡아일으키시였다.

《이리 와 앉아서 진정하십시오. 내가 아들을 잃은 이야기도 듣고 시아버지와 큰아들이 왜놈들에게 잡혀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식을 여읜 어머니의 가슴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굳세게 가져야 합니다. 듣자니 잃었다는 아이도 그저 병때문에만 죽은것이 아닌데 슬프다고 울고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원쑤를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큰아들은 걱정 마십시오. 신개척쪽에도 우리 부대가 나갔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는 어머니의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시며 타이르시였다.

《장군님!》

어머니는 한순간에 푹 잠겨버린 목소리로 조용히 말씀드리였다.

《저는 방금까지도 제 설음이 크고 제 걱정이 큰것 같아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는것은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오다. 이런 화전촌에 버림받은 우리같은 불쌍한 인간들도 골고루 돌봐주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 기뻐서… 기뻐서…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살아갈수 있다는 힘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주책없이 웁니다. 장군님, 우리 장군님…》

어머니는 다시금 울음을 터쳐놓았다.

《너무 이러지 마십시오. 아주머니가 이러시면 우리 마음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군님의 목소리도 떨리시였다.

가래나무아래 서성거리며 서있던 유격대원들도 마을사람들도 모두 눈굽을 훔치였다.

기우뚱하던 구새통굴뚝에서 연기가 피여올랐다. 골목에 사람들은 더욱 넘쳐났다.

잠시후 동구쪽이 술렁거렸다. 아까 어머니에게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셨다고 알려주던 진중한 유격대원—오백룡이 무슨 정황이 생겼는가 해서 달려나가더니 얼마 못지나 되달려왔다.

《사령관동지, 7련대에서 보고를 보내여왔습니다. 신개척과 두지바위의 적들은 완전히 제압되고 자위대, 십장, 감독, 두루 한 20명 생포했답니다. 그런데 자위대 영창에서 풀려난 인민들이 전령병을 따라왔습니다. 이 집 로인도 옵니다.》

《아니 몹시 상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산을 넘어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안고계시던 경섭이의 머리를 다독거려 내려놓으시고 성큼 토방으로 나서시였다.

《좀 상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련대장동무도 말렸지만 사령관동지를 기어이 뵙겠다고 해서 어쩌는수가 없었답니다.》

《상한 로인이 이밤중에 산을 넘어오다니… 어서 가봅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몹시 마음이 급하신듯 걸음을 다우치시였다.

골목길우에 길을 메우며 사람들이 나타났다. 부축되여오는 사람도 있고 지팽이를 짚고 절뚝거리면서도 마음이 급하여 모둠발로 뛰는 사람도 있다.

맨앞에서 만호와 유격대원에게 부축되여오던 강로인은 너무나 변해버린 동네를 보고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온통 대낮처럼 불이 환한데 노래소리, 북소리가 들썽들썽하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다닌다.

《이걸 놓아주오. 내발로 걷겠소. 내발로 걸어가서 장군님께 축수를 올려야 하겠소.》

로인은 방금까지 부축되여오던 사람같지 않게 기운이 뻗쳐서 두팔을 뿌리치고 혼자힘으로 비틀비틀 몇걸음 걸었다. 그런데 다시 유격대원이 곁으로 다가가서 귀전에 대고 속삭였다.

《저기 장군님께서 몸소 나오십니다.》

《아니 장군님께서 나오시다니… 그럼 내가 종시 로상에서… 이런 법이…》

로인은 동구밖으로 급히 걸어나오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뵈옵자 정중히 두손을 읍하고 앞으로 나갔다. 그러나 마음만 급했지 쇠잔한 육체는 말을 듣지 않아 미처 다섯걸음도 못가서 무너져앉듯 쓰러져버렸다. 쓰러져서도 앞으로 나가겠다고 허우적거렸으나 허사였다. 겨우 한팔을 짚고 길바닥에 퍼더앉아버린 로인은 마침내 땅을 치며 통탄하였다.

《내 앉아서 장군님을 맞이하다니… 천하에 이런 일도…》

서둘러 마주 걸어가시던 장군님께서는 어둠속이라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알길이 없어 무춤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다가 쓰러져앉아가지고도 앞으로 나오겠다고 허우적거리는 로인을 보시고 급히 다가가시였다.

로인을 부축하여 안아일으키시는 장군님의 두손에 로인의 눈물이 비발처럼 떨어졌다.

아들 셋, 손자 넷을 앞세우고도 눈물 한방울 보이지 않았다는 강의한 로인의 어디에 이처럼 뜨거운 눈물이 많이도 괴여있었단말인가.

로인은 장군님의 가슴에 백발을 묻고 흐느끼더니 꺼이꺼이 갑자르며 말씀드리였다.

《장군님, 이 늙은 백성의 축수도 받으신것으로 치부해주십시오. 제 평생에, 제 평생에 장군님을 흠모해오다가 큰절 한번을 올리지 못하니 죄가 막중합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인사야 의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올리고 로인들이 받는 법이 아닙니까? 듣자니 뜻밖의 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데 너무 이러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장군님, 제 이제 죽어도 눈을 감겠습니다. 이 백발을 날리며 저 원쑤놈들에게 갖은 수모를 당해도 이 늙은것한테는 호소할데가 없어 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을 뵈온 이 자리에서 이렇게 눈물이 나오다니 장군님, 부디 이 주책없는것을 용서하여주십시오.》

로인은 마침내 철부지처럼 꺼이꺼이 갑자르며 흐느껴 울었다.

정섭이 어머니도 시아버지가 온다니 무슨 소릴가 하고 따라나섰다가 비로소 영문을 깨닫고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여 흐느껴 울었다. 경섭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발돋움을 하더니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운다.》하고 달려나가겠다고 몸부림쳤다. 어머니는 앓고난 뒤끝이라 조심을 하느라고 내내 품에 끼고있던 아이를 골목으로 놓아보내며 마음속으로 목메여 외웠다.

《아버님, 실컷 우시우다. 그렇게 속을 태우시며 장군님을 부르시더니 하늘같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님을 구해주시고도 모자라 이렇게 몸소 우리 집에까지 오셨소다.》

뒤전에 서서 눈물이 글썽해있던 만호가 두팔을 높이 쳐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웨쳤다.

《**김일성**장군님 만세!》

그러자 골목에 넘쳐나는 사람들이 일제히 만세를 받아불렀다.

《**김일성**장군님 만세!》

《조선인민혁명군 만세!》

장군님께서는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시고 손을 높이 드시여 화답하신 다음 다시 두손으로 강로인을 부축하시고 말씀하시였다.

《얼마나 고생들을 했습니까? 우리도 조국의 동포들이 왜놈들의 학정아래 숨도 못쉰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급히 왔습니다. 서로 고생을 한끝에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리 서로 그리워하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그지간에 쌓이고쌓였던 회포를 풀어봅시다.》

그러자 또다시 숲이 들썩들썩하도록 만세소리와 환호소리가 터져올랐다.

×

김일성장군님을 모신 신사동막바지 강로인네 귀틀집에는 툭 터지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웃간에는 강로인과 물동지기령감, 《이시가와구미》의 좌상령감같은 로인들, 혁명군의 지휘관들 그리고 신개척에서 강로인과 함께 고생하다가 놓여난 사람들과 만호가 들어앉고 정지간에는 주로 봉식이며 태호또래 젊은 패들이 서로 무릎우에 올라앉을 지경으로 모여들었다. 추녀끝에는 어디서 얻어왔는지 남포등을 매달았는데 마당과 골목은 아이들 세상이였다.

정섭이의 어머니는 부엌에 나섰다. 그는 그렇게 뺑대같이 서글퍼보이던 몸에 갑자기 젊음이 되살아난듯 장군님께 저녁을 지어올리겠다고 살궁에서 함지박을 다 내려놓고

가달박을 들고 돌아갔다. 여기에 동네 아낙네들과 유격대 녀대원들이 모여들었다. 봉식이네 아주머니, 삼수집어머니, 물동지기령감네 로친, 모두가 함지에 고사리며 도라지, 오가리따위들을 불구어들고 달려왔다. 정지간은 아낙네들로 넘쳐나고 모랭이, 함지, 토장그릇따위들이 부엌바닥에 널렸다.

《아주머니들, 이러시면 안돼요. 장군님의 식사는 우리가 지을테니 어머니들과 아주머니들은 구들에 올라가서 이야기들이나 하세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부의 작식도구를 들고오셨다가 놓을데가 없는 형편이라 웃음을 머금고 말씀하시였다.

《앙이, 우리가 어째 구들에 올라가겠습메. 산에서 고생하던 혁명군들이 쉬여야지. 장군님의 저녁은 우리가 짓겠으니 날래 구들에들 올라가우다.》

물동지기령감네 며느리가 이러며 김정숙동지의 작식도구를 빼앗으려들었다. 그러자 철구아주머니가 좀 엄하게 말했다.

《장군님께서 식사를 동네사람들에게 준비시킨줄 아시면 우리가 욕을 먹는답니다.》

《참, 별소리 다 하우야.》

하고 본시 좀 더퍼리인 봉식이 처가 맞받아쳤다.

《우리가 평생 한번 장군님 저녁을 대접하자는데 간이 없어서 욕먹었다면 몰라라 누구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욕먹겠슴메.》

도무지 막무가내였다.

하는수없이 유격대 녀대원들과 동네아낙네들이 한데 어울려 장군님의 진지를 지었다.

아낙네들은 저마끔 제집으로 뻔질나게 달려가고 달려오고 그래도 모자라서 《쌍가매야.》, 《막동아.》하고 아이들을 불러대여 고추장단지를 가져오라, 들깨가루를 가져오라 하고 소리쳤지만 이렇다하게 상에 올릴만 한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새삼스럽게 자기들의 가난이 원망스러워 차츰 말수더구가 줄어들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런 아낙네들을 달래며 우리 장군님께서는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성이 담긴것을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장군님께서 제일 바라시는것은 자신께서 잘 잡수시는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가난한 조선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될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는것이라고 차근차근히 깨우쳐주시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배낭에서 자그마한 보자기 하나를 꺼내시였다. 동네아낙네들의 눈길은 절로 거기에 쏠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 말은 비록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장군님께 올릴 무엇인가 색다른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다니는가부다 하고 생각하는 눈치들이였다.

그런 눈치를 채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웃음을 머금으시고 차근차근 보자기를 헤치시였다.

파란 산나물무지가 나타났다. 연록색의 야들야들한 풀빛은 음침한 겨울과 가난의 그늘이 짙게 깔린 부엌바닥에 산뜻하고 향기로운 봄의 향취를 몰아왔다.

《앙이, 이게 청취가 아니요?》

봉식이 처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쳐 나물을 어루만졌다.

《어디서 이렇게 산나물을 벌써…》

아낙네들은 저마다 감탄의 소리를 지르며 한줄기씩 가져다 들여다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한다. 아닌게아니라 쌉쌀하고 향긋한 봄냄새가 풍겨왔다.

《청취가 옳아요. 저 대홍단벌에 많더군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미 정성스럽게 다듬어놓은 나물무지를 헤치시고 한줄기한줄기 알뜰하게 손질을 하면서 말씀하시였다.

《지금 모두 없는 살림에 먹을것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산에 가면 양지쪽에는 벌써 산나물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 취로 나물을 무친다든가 쌈을 싸면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맛은 돈있는 부자놈들도 맛볼수 없는거예요.》

《그러채이쿠. 나물이사 여북 맛있는 나물이게. 헌데 혁명군새애기.》

하고 물동지기령감의 로친이 정색을 하고 물었다.

《장군님께서도 이런 산나물을 좋아하시나?》

《그럼요. 장군님께서는 이런 신선한 나물은 다 좋아하신답니다. 그저께도 베개봉에서 무수해를 무쳐드렸더니 얼마나 달게 드셨는지 몰라요. 아마 오늘 저녁도 여러 어머니들과 아주머니들이 이런 구수한 토장에다 이렇게 파릇파릇한 산나물을 무쳐드리면 기뻐하실거예요.》

《하기는 정성이 여북해야지…》

아낙네들은 김이 서리는 컴컴한 부엌바닥에 파랗게 떠오르는 산나물과 김정숙동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장군님을 모시는 혁명군녀전사의 그윽한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였다.

《우리도 변변한 찬은 없지만 장군님을 받드는 우리 마음을 정성스럽게 괴여보자구요.》

정섭이의 어머니가 새힘을 얻은듯 이렇게 말하며 새물을 길어오겠다고 항아리를 이고 나섰다.

한편 웃방에서는 장군님께서 상한 사람들을 골고루 돌보시고나서 만호의 으깨여진 무릎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씀하시였다.

《모두 어혈이 졌습니다. 겉으로 난 상처는 곧 아물겠지만 어혈이 진것은 좀 오래갈수 있습니다. 어혈이 진데는 두부가 약인데… 참 군수관동무, 그놈들의 창고에 콩은 없었소?》

《있습니다. 그놈들의 창고에 별의별것이 다 있습니다.》

조진범은 신명이 나서 대답을 올렸다.

《그러면 그 콩을 이 집에 좀 나누어주시오. 그리고 외상에 쓸 약도 좀 구해보시오.》

《알았습니다.》

장군님께서 눈길을 돌리시니 사람들이 빼곡이 들어찬 토방가에 경섭이가 맨발로 나와서서 장군님을 바라보며 입을 비죽거리고있다. 장군님께 안기고싶은데 너무 사람이 들어차서 발을 옮겨놓을수가 없으니 그러는 모양이였다.

《경섭이로구나. 자, 이리 오너라.》

장군님께서는 일부러 몸을 일으키시며 경섭이를 안아다 자신의 무릎우에 앉히시였다.

《장군님, 옷 마추겠습니다. 저런놈이…》

강로인이 당황하여 손자를 떼내려 하자 경섭이는 장군님의 가죽띠를 꼭 잡고 다리질을 하였다.

《허허허, 일없습니다. 두어두십시오. 아이들을 안아보는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러시면서 옆에 앉은 만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딴데로 말씀을 돌리시였다.

《참 악착한놈들입니다. 바른 말을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사람을 때리니 분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장군님, 저는…》

만호는 더듬더듬 갑자르다가 겨우 말씀드리였다.

《저는 매를 좀 맞았지만 장군님을 뵙게 되여 더 좋습니다.》

《허허, 나도 동무를 만나니 반갑소. 그러나 앞으로는 매를 맞을것이 아니라 그놈들과 싸워야 합니다.》

《장군님.》

하고 강로인이 벽에 기대였던 몸을 일으키며 정중히 말씀드리였다.

《이 사람이 말은 좀 투박하게 했지만 그것이 모두 우리 조선사람들의 마음이올시다.》

장군님께서는 로인의 파리한 손등을 쓸어주시며 잠시 생각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선사람들의 힘이 결코 작은것이 아닙니다. 뭉치기만 하면 오히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을만큼 큰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모두 한탄만 하고 억압받고 천대받는것을 타고난 팔자처럼 생각하면서 맥을 놓고 앉아있을것이 아니라 일어나 원쑤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조선인민이 힘을 합하여 싸우면 반드시 해방과 독립을 찾을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무릎우에 앉아서 군모를 가지고 장난질에 정신이 팔려버린 경섭이를 이윽히 내려다보시다가 옆에 단정히 앉아있는 상철이를 돌아보시였다.

《여러분들뿐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교양하고 열심히 가르쳐서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하고 장군님께서는 상철이를 가리키시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이 소년은 부모도 없고 어린 나이지만 유격대에 들어와서 글도 한자두자 배우고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배워서 지금은 글도 잘 읽게 되였고 이처럼 나라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있습니다.

우리 조선인민이 모두 한마음한뜻으로 뭉치여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며 우리 자제들을 모두 이렇게 가르쳐서 훌륭한 투사로 만든다면 일본강도놈들이 제아무리 강한들 배겨내지 못할것입니다.》

마당에서도, 방안에서도 감격의 파도가 걷잡을수 없이 설레였다. 이때 목재판로동자들이 골목을 메우며 다시 쓸어들었다.

장군님께서는 경섭이를 강로인에게 넘겨주시고 옆에 있는 밥집으로 가시였다. 사람들은 더욱더 죄여들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신사동사람들이 다 모여든듯 마당과 골목에 넘쳐나는 군중들의 환호에 손을 높이 들어 화답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하시였다.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조국에 진군하여 그립던 동포들과 이처럼 상봉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렁찬 박수가 터져올랐다.

장군님께서는 다시 손을 높이 드시여 설레이는 군중들에게 화답하신 다음 조선인민혁명군과 인민들의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인 련계에 대하여 격조높이 말씀하시면서 혁명군을 지지성원하여준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시였다.

계속하여 일제의 악랄한 탄압과 략탈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전변된 조국의 현실을 펼쳐보이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과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풍만한 자원을 가진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인민이 일제의 영원한 식민지노예로 되여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어이 침략자 일제를 내쫓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성취할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진정한 혁명무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하여 기어이 소멸되고말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장군님께서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해설하시면서 그 강령이 실현될 앞날의 휘황한 전망을 펼쳐보이시였다.

《우리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밝힌대로 조국땅에 살기 좋은 인민의 나라를 수립하기 위하여 강도 일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 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하나와 같이 반일전선에 굳게 결속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였다.

《전민족이 반일전선에 하나로 뭉치자면 로동계급이 선봉이 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은 조선민족의 가장 선진적인 부대입니다. 무산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반일전선의 선두에는 바로 당신들, 로동계급이 서야 합니다.》

장군님앞으로 부채살 모이듯 죄여들었던 처서판로동자들이 와– 하고 환호를 올리며 박수를 쳤다.

장군님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마당끝에서 누군가가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반일혁명투쟁마당에 떨쳐나서자!》하고 구호를 웨쳤다. 그러자 온 집이 떠나가도록, 신사동과 온 산판이 들썩하도록 **김일성**장군님 만세의 환호성이 메아리쳤다. 장군님께서는 강로인의 권에 못이기시여 다시 정섭이네 집으로 오시였다.

×

정섭이는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할수 없었다.

하늘에는 별빛이 총총하다. 또글또글하던 별빛들은 흐릿해지더니 엄청나게 커지면서 뿌옇게 흐려들었다.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서럽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기다리고기다리던 유격대가 와서 그놈들이 꽁지가 빳빳해서 달아나는판에 이 꼴이 된것이 원통하였다. 이제 할아버지, 어머니, 동생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것인가…

정섭이의 생각은 호철의 권총손잡이에 머리를 단단히 얻어맞아서인지 맥락이 닿지 않고 섞갈려있었지만 그자신은 그런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옆구리며 머리가 깨여져나가는것처럼 쑤셨다.

사지가 안아픈데라고 하나 없이 돌아가며 다 쏘고 쑤셨다. 그래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메아리와 같은 함성이 울려온다. 처음에는 그것도 무슨 소린지 짐작할수 없었다. 그러나 차츰 그 소리가 만세소리와 환호소리라는것이 뚜렷해지고 그것이 바로 신사동과 신개척에서 울려온다는것을 깨달았을 때 문득 아까 리호철이가 하던 말이 다시 생각나고 그 뜻이 뚜렷이 떠올랐다.

정섭이는 허둥지둥 일어나앉았다. 사방 쑤시고 아픈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움직일수는 있을것 같았다. 포승줄을 바위에 쓸고 팔목을 비틀고 해서 풀어던진 그는 벌떡 일어났다.

《나는 살아있다. 유격대가 왔다! 나는 살아났다!》

한순간에 온 천지를 다 그러안을것처럼 팔을 쳐든 정섭이는 이렇게 웨쳤다.

봉식이가 하던 말, 영창에서 만호가 들려주던 소문— 그것이 다 빈말이 아니였다.

《유격대가 왔다!》

왜놈들이 바로 이때문에 그렇게 미쳐서 돌아쳤던것이다.

그는 무작정 만세소리나는쪽을 향하여 산을 탔다. 걸음을 옮겨놓으면서 다시 살펴보니 어깨와 아래다리가 휘주근히 젖었다. 칼맞은 자리였다. 토스레우로 손더듬을 해보니 상처가 그리 깊은것같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피는 멈추어야 할것이였다.

정섭이는 풀밭에 주저앉아 잠뱅이자락을 찢어냈다. 마음이 급하여 대충 한바퀴 동이고 걸었더니 다섯걸음도 못가서 풀어져버렸다. 하는수없이 다시 주저앉아 이번에는 아예 푼푼히 한쪽가랭이를 다 찢어가지고 상처를 동이고나서야 절뚝절뚝 걸음을 옮겨놓았다.

동네가 내려다보이는 산기슭에 이르러 그는 우뚝 멈추어섰다.

저게 신사동이 옳기는 옳은가? 온통 불이 환히 켜져 동네는 숲우에 둥실 떠있는듯하다. 그속에서 노래소리, 북소리가 두리둥둥 바람타고 날아온다. 명절날도 이렇지를 못하였다. 이 궁벽한 화전촌, 처서판에 명절이라는것이 있기나 했던가. 사실 유격대가 왜놈들을 물리치고 온 이날처럼 큰 명절이 어데 있겠는가.

정섭이는 상처의 아픔도 잊어버리고 허망에 빠져 딩굴고 나무에 걸채여 넘어지면서 단숨에 동네까지 달렸다.

불이 환한 골목에 들어서서야 제 주제가 사람들앞에 나설 형편이 못된다는것을 깨달았다. 한쪽가랭이는 아주 발가벗다싶이 된데다 불빛에 비쳐보니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있었다.

《이시가와구미》창고앞에서 녀대원들이 치마자락을 날리며 춤을 추는것을 잠시 서서 넋없이 바라보다가 어서 옷을 갈아입고 저판에 나가봐야지 하고 으슥한 뒤골목으로 돌아 동네끝에 있는 자기 집 문전으로 다가갔다.

《이건 또 어떻게 된거야?》

정섭이는 집 못미쳐서 다시 멎어섰다.

집집마다 불을 내걸었지만 그런중에서도 제일 밝고 제일 휘황한데가 바로 자기 집이였다.

어둠속에 숨어 기웃이 고개를 뽑아보니 활짝 문을 열어젖힌 웃간에 사람들이 앉아있다. 동네사람도 있고 유격대도 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앉아있지 않는가. 만호형님도 있고 자위대영창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 있다. 모두 풀려나왔구나. 아까 신개척에서도 만세소리가 울려오더니 그쪽에도 유격대가 간것이다.

정섭이는 같이 고생하던 사람들이 풀려나온것을 보니 불시에 눈굽이 뜨거워올랐다.

그는 기왕 이렇게 된바에는 이대로 유격대앞에 나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문앞으로 다가갔다.

《장군님, 그런 걱정은 말아주십시오. 그놈이 설마 죽기야 했겠습니까?》

할아버지의 말이였다. 정섭이는 또다시 가래나무 그늘아래 걸음을 멈추었다. 장군님이시라니… 그럼 할아버지와 마주앉아계시는 저분께서 바로 장군님이시란말인가.

그제야 정신을 가다듬고 바라보니 그분의 눈이 번쩍하고 빛났다.

《나는 갇힌 사람들이 다 놓여났다니 그런줄로만 알았습니다. 손자 이름을 정섭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정중히 인사를 하시고 토방에 나서시였다. 할아버지와 동네사람들이 우르르 따라 일어섰다.

정섭이는 그만 옆에 선 가래나무줄기를 안고 그 터실터실한 줄기에 이마를 비비며 어깨를 떨었다.

장군님께서 우리 집에까지 오시여 매를 쳐도 시원치 않을 이 말썽군의 이름을 외우시며 걱정을 하시다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수 있는가.

(아, 장군님, 장군님.)

그는 마음속으로 장군님을 부르고 또 부를뿐 자기가 느끼는 이 크나큰 감동, 끝없이 샘솟는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똑똑히 분간할수 없었다.

다만 죽을번하다가 장군님 덕분에 살아났을뿐아니라 세상에 태여나서 단 한번도 느껴본적 없는 통쾌감속에서 하염없이 흘려보는 이 눈물이 곧 장군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뜯기고 짓밟히고 억눌리다가 마침내는 짹소리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원쑤의 손에 죽을수밖에 없는 가련한 조선사람들이 그렇게도 목마르게 기다리던 **김일성**장군님의 넓고 억세고 따사로운 품에 안긴 그 감동이라는것만은 똑똑히 깨달았다.

그는 두손을 벌리고 온 누리를 향하여 웨치고싶었다.

《보아라. 우리 조선사람들에게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신다. 우리 조선사람들을 수모하던놈들은 다 여기 나서라! 어디 한번 맞서보자!》

정섭이는 실지 장군님앞으로 나서려고 하였다. 한쪽다리를 발가벗었다고 꾸중을 하시면 곧 옷을 갈아입겠다고 사과를 드리면 될것이 아닌가. 그런데 피칠갑을 한것을 보시면 어떻게 한다? 머리를 만져보니 큼직한 혹까지 불거졌다.

정섭이가 잠시 가래나무 그늘에서 망설이는데 웬 지휘관이 달려들어온다. 경위중대장 오백룡이였다.

《사령관동지, 적들이 림철종점까지 다가왔습니다. 얼마전에 전초대동무들에게 얻어맞고 달아났다는놈들이 다시 대부대를 끌고 온것 같습니다.》

《이제야 나타났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군님의 얼굴에는 방금까지 그리도 부드럽고 인자하게 느껴지던 모습우에 실로 한번 노하시면 산천초목도 땅바닥에 엎드린다는 기상이 내풍기였다.

그러나 이어 적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신듯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시고 할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몸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신 다음 경섭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였다.

장군님께서 거듭 동네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골목으로 나오시자 유격대지휘관들이 그이의 곁으로 다가왔다.

장군님께서는 조용조용하면서도 우렁우렁하게 잘 울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타산한것보다 놈들의 기동속도가 좀 굼뜬것 같습니다. 아마 그놈들은 우리가 이렇게 빨리 신사동에 나타났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아서 좀 꾸물댄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파놓은 함정으로밖에 찾아갈데가 없는놈들입니다. 저놈들을 계획대로 대홍단벌로 끌어내시오. 이 새벽에 우리 조선사람들의 한을 풀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립던 동포들을 만나 반갑게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웃기도 하였지만 억울하게 짓밟히고 매를 맞아 험하게 갈라진 그 상처를 볼 때 치가 떨려 견딜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선인민혁명군이 총을 들고있는 한 그 어떤놈도 우리 조선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것을 놈들에게 똑똑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장군님의 말씀은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처럼 부드럽게 웃으시던 장군님께서 가슴깊이 품고계시던 서리발찬 분노의 분출이고보니 삽시에 사위가 얼어드는듯 숭엄해졌다.

장군님께서는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인민들과의 사업을 잘 결속지어야겠습니다. 적들은 이미 우리 낚시에 걸려들었으니 우리가 끄는대로 끌려올것입니다. 그러니 은밀하게 신사동을 출발하여 예정된 계선을 차지하고있다가 적을 무리로 섬멸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얼마후 노래와 춤도 멎었다.

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은 바람과 같이 어둠을 누비며 대렬을 지었다. 어느새 로획물자들은 다 꾸려져서 대오마다에 배정되였다.

한오리 흐트러지지 않는 이 정연한 군사행동에 약간한 혼란을 준것은 어떻게나 장군님을 돕고 혁명군을 돕겠다고 로획문자를 빼앗아지고 따라나선 인민들과 작별이 아쉬워 멀리까지 따라나온 동네 늙은이들, 아낙네들때문에 인사를 두번, 세번 거듭 나누지 않으면 안된것이였다.

정섭이는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것을 깨닫고 집으로 달려들어갔다.

《어머니, 나 잠뱅이 하나 주오다.》

혁명군을 배웅하러 나가던 할아버지와 어머니가 놀라서 정섭이의 어깨며 머리를 어루만지며 무엇인가 물었으나 그는 외마디소리를 몇마디 내던지고 제절로 어머니의 웃보퉁이를 와락와락 잡아헤쳤다.

《원, 저런 덜퉁한놈이 어데 있나. 장군님께서 제놈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것도 모르고… 어서 옷을 갈아입혀서 내보내라. 떠나시기 전에 내가 장군님께 저놈이 돌아왔다고 말씀올려야겠다.》

할아버지는 지팽이를 질질 끌며 유격대가 지나가는 골목길로 허둥지둥 달려나갔다.

23

아침해살이 엷은 빛을 뿌리자 물자작가지에서 이슬이 쭈르르 미끄러져내렸다. 대로은산뒤로 불타던 아침노을이 차츰 금빛을 띠더니 어느새 수묵화같던 주위의 산발이 륜곽을 드러냈다. 숨죽은듯 고요하던 숲속에서 별안간 새들이 시끄럽게 우짖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대홍단벌은 찬란한 색조속에 온몸을 드러냈다. 어제날의 황량한 모습은 어데로 갔는가. 물자작가지에서, 묵은 새초잎에서 이슬이 무수한 금구슬처럼 빛을 뿌리고 새벽바람에 하느적거리는 진달래꽃잎들이 별무리처럼 번쩍거린다.

버덩을 넘어 저편, 7련대와의 련계를 위해 련락조를 남겨둔 찌글사한 국사당도 마치 선경의 단청무늬 령롱한 루다락같이 보인다.

어디에도 불꽃튀는 격전을 예상케 하는것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다.

경위중대의 매복진도, 8련대와 독립대대의 매복진도 가뭇 소리없이 누워있다. 구붓한 지형에 맞게, 적들이 나타날것으로 예견되는 대홍단버덩을 향하여 매복진을 손수

펼쳐놓으신 사령관동지자신께서도 쌍안경으로 꼼꼼히 살펴보셔야 가까스로 그렇다는것을 짐작하실뿐 겉보기는 더없이 아름답고 고요한 벌판이였다.

다만 지휘처로 정하신 못나무밑에서 좀 나가서 10m간격으로 엎드린 세명의 기관총수의 등이 보일뿐이였다.

마침내 날이 활짝 밝았다. 대홍단벌은 다양한 색조를 벗어던진 대신 생명이 약동하는 봄날 대지의 훈향을 내뿜었다.

《사령관동지, 옵니다.》

상철이가 버덩너머를 쏘아보고있다가 입안이 바싹 마른 소리로 보고를 드리였다.

《알고있소. 7련대동무들이 틀림없소.》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시며 천천히 쌍안경을 눈으로 가져가시였다.

《허허허, 로획물자들을 많이들 졌구만. 인민들도 많이 따라오는것 같소.》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냥 쌍안경을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이때 오백룡이가 소리없이 다가왔다.

《사령관동지, 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7련대가 도착하는 즉시로 다음 계선으로 이동해도 일없겠습니까?》

《그럴수가 있소? 그놈들이 안나타나고 어디로 가겠소. 가만 두고 봅시다. 이제 나타날것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더 볼 필요도 없다는듯이 쌍안경을 내리시더니 오백룡의 긴장된 얼굴을 살펴보시였다.

《저걸 보오. 오중흡동무가 아마 놈들을 큼직하게 해치우고 마을에서 정치사업도 괜찮게 한것 같소. 이제 이야기도 그만큼 많을거요. 이놈들을 빨리 때려엎고 그 이야기를 푸짐히 좀 들어봅시다.》

이때 상철이가 쨍쨍한 목소리로 보고를 드리였다.

《사령관동지, 적입니다. 7련대 뒤에 적이 달렸습니다.》

《어디 좀 봅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다시 쌍안경을 눈으로 가져가시였다.

아닌게아니라 7련대의 후위가 버덩에 들어설무렵 200～300m 떨어진 숲속에서 길다란 행군종대가 따라섰는데 아침해살에 철갑모가 번쩍하는것이 똑똑히 알렸다. 얼핏 보매도 대대규모는 되는 긴 대렬이였다.

《음－ 역시 오중흡동무가 일을 빈틈없이 했소. 능숙한 몰이군에게 걸린 승냥이가 갈데라고 있소, 덫에 걸렸지. 자, 모두 시작해봅시다. 상철동무는 7련대장동무에게 가오. 그리고 봉수동무는 8련대와 독립대대로! 어－ 시원한 아침이로군.》

사령관동지께서는 시계를 들여다보신 다음 군복웃단추를 터놓으시고 싱그러운 아침바람을 량껏 마시시였다.

7련대는 여전히 서두르지 않고 대홍단 물자작밭을 건너온다. 적들도 아무런 눈치를 못채고 똑같은 간격을 두고 똑같은 속도로 따라온다. 숲도 벌판도 여전히 평온하게 누워있다. 그러나 사령관동지의 가슴속에는 벌써부터 격전의 전국면이 하나의 화폭처럼 선히 그려져있었다.

새초밭사이를 다람쥐처럼 누벼나간 상철이가 오중흡이를 만나서 몇마디 속삭이더니 되돌아 달려온다. 그앞은 바로 7련대와 경위중대의 매복진이다.

오중흡이가 매복진을 지나자 한중간에 서서 대원들을 떠밀어보내며 엎드리라고 소리친다. 그래도 적들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7련대를 놓치지 않겠다는 한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꼿꼿이 따라온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천천히 권총을 쳐드시였다.

그이의 신호권총이 울리는 순간 하늘을 두동강이 내는듯 한 일제사격의 무시무시한 메아리가 고즈넉하던 벌판과 광막한 숲을 뒤덮어버렸다.

7련대는 허리를 낮추고 제꺽 매복권을 벗어났다. 적들은 거대한 낫가락이 휩쓸어간 풀밭처럼 선자리에서 풀떡풀떡 엎어졌다.

산놈이고 죽은놈이고 모조리 나가 엎어졌다. 진펄이든 둔덕이든 가릴 경황이 없었다.

지휘관이 산개하라고 소리소리 질렀지만 듣고도 뜻을 모르는지 여름철 양떼처럼 한곳으로 몰려들어 비비적거린다.

성림은 자기의 사격솜씨가 결코 서툴지 않다는것을 이때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사실 여태까지 전투에 몇번 참가하기는 했지만 모두 번개처럼 치고 바람처럼 달려나가는 전투여서 언제 자기의 사격에 대해 생각해볼 짬이 없었다. 오늘은 전투의 성격자체가 매복했다가 사격권에 들어온 적을 하나하나 묘준해서 쏘는것이니 충분히 사격솜씨를 검열해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철갑모를 정면으로 내대고 깊숙이 풀밭에 들어박힌놈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옆으로 기기 시작한다. 총소리가 콩닦듯 하니 아무래도 한자리에 들어박혀있을수가 없는

모양이다. 옆으로 나가봐야 그 이상 좋은 은폐지는 있을것 같지 않는데 놈은 필사적으로 팔굽을 세워 상반신을 먼저 한옆으로 비스듬히 가로눕히고는 엉뎅이를 끌어붙이군 한다. 한번씩 그런 동작을 반복할 때마다 엉뎅이가 한순간씩 올려솟군하였다. 그놈은 그런것을 전혀 못느끼는 모양이다. 대가리만 깊숙이 틀어박고있으면 엉뎅이쯤 맞아도 일이 없겠다는 생각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어디 한대 맞아봐라. 성림은 다음에 엉뎅이가 솟아오를만 한 높이에 묘준을 하고있다가 발끝에 긴장이 오는 순간 지그시 방아쇠를 당겼다.

탄알은 풀대를 쓸어눕히며 면바로 솟아오른 엉뎅이에 가 맞았다. 발사소리며 비명소리가 온 벌판에 차고넘쳐 소리는 가려들을수 없었으나 그놈은 그렇게도 소중히 감추고있던 대가리를 번쩍 들고 무릎을 꿇고앉았다. 손을 엉뎅이에 가져가는가싶더니 이번에는 또 어디서 날아오는 누구의 탄알을 받았는지 철갑모가 쟁그랑하고 벗겨져 달아났다. 그놈은 엉뎅이를 쓸어보려던 손을 허리우에 드리운채 천천히 모로 쓰러졌다.

적들은 대홍단벌 복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의 앉은자리에서 몰살된듯 하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총소리는 그냥 자지러지고 적탄은 더욱 비발치듯 날아온다.

해가 이깔나무숲우에 솟아올랐다. 눈앞이 확 열리였다. 너울을 벗은듯 한 대홍단벌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성림은 눈을 부릅떴다.

여태 어둠속에서 싸우던 적은 다 죽고 뿔뿔이 흩어진듯 한데 진펄너머 저쪽 숲변두리로 길다랗게 산개진을 친 적의 새로운 공격서렬이 보였다.

성림은 무의식중에 뒤를 돌아보았다. 사령부는 아까 위치해있던 두드럭한 등성이우에 그냥 자리잡고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불뿜는 기관총옆에서 쌍안경으로 적진을 살피고계신다.

적들이 주목하는 기관총옆에 사령관동지께서 계시는것이 마음에 걸리였다. 그러고보니 자기는 너무나 몸을 깊이 감추고있는것만 같았다. 적들도 눈을 밝히고 이쪽을 살필텐데 유독 사령부위치만 적들에게 두드러진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성림은 무의식중에 몸을 일으켰다. 풀대들이 앞을 가려 전망이 좋지 않았다. 그보다는 자기 몸을 더 많이 드러내는것이 사령관동지께 미치는 위험을 다소라도 덜어드릴것만 같이 생각되였다.

무릎을 꿇고 일어서니 한결 눈앞이 시원하게 열리였다. 굵다란 이깔나무밑둥에 내뻗친 기관총의 총신이 보인다. 그 총구에서 예광탄이 번쩍번쩍 불을 뿜는다. 그러나 사수놈은 골을 나무뒤에 틀어박고있기때문에 좀체로 조성우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놈의 총구는 분명 사령부를 겨누고있는듯 하다.

성림은 옆으로 몇걸음 자리를 옮겼다. 좀 비켜앉으면 적기관총수의 몸체가 사격권안에 들어올것 같았다.

《엎드렷! 성림동무! 엎드리시오!》

뒤에서 사령관동지의 웅글은 목소리가 울리여왔다.

성림은 엎드리기 전에 뒤를 돌아보았다.

누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가? 설마 이 불꽃튀는 싸움판에서 자기를 지켜보실수야 있는가?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사령관동지께서는 한팔을 드시여 엎드리라는 손짓을 하시였다. 그이의 얼굴에는 분명 따뜻한 웃음이 어리여있었다.

순간 성림은 눈굽이 지지는듯 확 달아났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적들을 살피고계실뿐아니라 우리 전사 한사람한사람을 그렇듯 세심하게 살피고계신다. 그이의 그 눈길속에 자신도 한자리를 차지하고있다는것을 의식하니 걷잡을수 없는 감동이 다시금 가슴을 꽉 채웠다.

성림은 납작 엎드려 적을 겨누었다. 눈앞이 부옇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것이다. 총소리가 귀청을 찢고 피와 살점이 흩어져 달아나는판에 눈물이라니…

싸움판에서는 응당 용감해야 하지만 이렇게 죽음을 초월해버려서는 안된다. 용감한 전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의무에 충실한데 있다.

나는 사령부를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은폐하여 적을 효과적으로 소멸하여야 한다.

성림은 소매로 눈앞을 빡 훔치고 아까 그 기관총을 겨누었다. 이번에도 철갑모만 보였다. 저놈을 정통으로 내갈기리라 결심한 그는 인내성있게 묘준을 하였다. 그제야 귀청을 멍멍하게 하는 총소리, 풀대와 진흙을 파헤치는 적탄이 정신을 어지럽게 만드는것을 느끼였다.

성림은 입술을 앙다물고 다시한번 적기관총수의 철갑모를 조성우에 올려놓았다. 자칫하면 또 벗어날수 있다. 초조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숨을 천천히 내보내다가 딱 멈추었다. 그리고도 조성우에 놓인 적의 철갑모를 다시한번 확인한 다음 방아쇠를 당겼다. 철갑모는 정통을 맞고 팽그르르 돌더니 옆으로 굴러났다.

성림은 총을 내리는 순간 고개를 번쩍 들고 앞을 살폈다. 그런데 이깔나무뒤에서 기관총은 여전히 불을 뿜는다.

《동무들, 허위목표에 속지 마시오. 적들은 철갑모를 내세워놓고 그옆에 숨어있소.》

이런 목소리가 울리여왔다. 사령관동지이시였다.

해는 차츰 높이 솟아올랐다. 밤이슬이 번쩍거리던 풀대들이 목대가 부러져서 진흙탕우에 너저분하게 널렸다.

성림은 다시 서너걸음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에는 나무뒤에 엎드린 기관총수와 부사수 두놈의 몸집이 똑똑히 보인다.

그는 자기 탄알이 날아갈 탄도를 곰곰히 머리속에 그려보며 이번에는 퍽 수월하게 겨냥하여 연거퍼 두발을 쏘았다. 적기관총은 아가리를 다물고말았다.

성림이가 기관총을 소멸하느라고 옮겨다니는 사이 적의 대렬은 눈에 알리게 설피여졌다. 이제 돌격해나가면 놈들을 일격에 물리칠수 있을것 같았다.

성림은 신바람이 나서 돌격구령을 이제나저제나 하고 기다리고있는데 왕청같이 서북쪽 릉선쪽에서 적의 큰 무리가 나타나서 불질을 해댔다. 성림은 머리속이 아찔하였다. 적들은 교활하게도 허위목표뒤에 얼마 안되는 력량만 남겨두고 은밀히 측면으로 우회하여 포위를 형성하려고 하는것이였다.

성림은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너무 놀라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번쩍 들었다. 사령부 좌우에 그쯘히 늘어져있던 아군의 서렬은 보이지 않고 직접 사령부를 보위하던 석정의 기관총도 한자루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성림은 온몸의 피가 머리로 확 몰리는것을 느끼였다. 사령부를 지켜야 한다.

그는 중대장이 뭐라고 구령을 치는것을 느꼈으나 그것을 미처 가려들을 사이도 없이 적의 화력이 집중되는 곳을 향하여 제 온몸으로 사령부를 지킬듯이 달려갔다. 적탄이

비발치듯 하였으나 웬일인지 터럭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였다. 성림은 무엇인가 복잡하게 엉켜들던 자기의 머리속이 비발치는 적탄속을 달려가는 100m도 못되는 그사이에 시원히 정돈되고 개여오르는것을 느끼였다.

사령부를 지켜야 한다! 머리속에 남아있는것은 오직 이 한가지 생각뿐이였다. 어느새 중대의 서렬이 모두 익측으로 공격해오는 적을 향하여 돌아섰다. 그러고보니 아까 중대장의 구령은 바로 이것을 요구한것이였다.

성림은 정신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방아쇠를 한번 당기고는 뒤를 돌아보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여전히 침착하게 쌍안경으로 적진을 살펴보고계신다. 그런데 그앞에 있던 동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럴 때 누군가가 사령관동지를 좀더 안전한 곳으로 모셔갔으면 얼마나 좋을것인가.

앞을 살펴보니 적들의 력량은 상당히 우세한듯 하였다. 탄막은 점점 조밀해지고 놈들은 한걸음한걸음 죄여든다.

비록 아군의 방어진이 좀 설피여지기는 했으나 그만큼 매 전사가 더 정확히 쏘고 몇갑절 더 용감하게 싸워서 저놈들을 소멸해야 한다.

성림은 배밀이로 몇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앞에 찍어넘긴 이깔나무의 등걸이 솟아있었다. 그렇게 홀로 삐여져나가도 두렵지 않았다. 얼마나 좋은 은폐지인가. 다문 얼마라도 거리가 밭으니 명중률도 더 좋을것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탄알이 안나간다. 고장이 났는가? 새 총인데… 다시 방아쇠를 당기니 빈 격침소리가 찰칵한다. 그제야 혼자 욕설을 퍼부으며 탄띠에서 알쌈을 더듬었다. 앞가슴에 가득 채워넣었던 알쌈을 언제 다 빼냈는지 탄띠가 주글주글하다.

성림은 잠시 탄알 재울 생각을 잊어버리고 메뚜기처럼 껑충껑충 뛰며 새까맣게 덮쳐드는 적진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후두두하고 손발이 절로 가드라들었다.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성림은 자신을 향하여 소리쳤다.

《정신을 차렷!》

자기 마음이 솔직하게 대답하였다.

《뭘 그렇게 소리치는가? 나는 나의 의무를 다 알고있다.》

성림은 전선을 좀더 넓게 바라보며 후둑거리는 심장이 가라앉기를 침착하게 기다렸다. 자신에게 믿음이 갔다. 그는 아직도 좀 후들거리는 손으로 천천히 탄띠를 더듬었다. 그것을 조급하게 빼내기전에 나머지 탄알을 다 만져보았다. 새 알쌈이 열두개 남았다. 그러니 60발의 탄알이 있다. 하나도 헛방을 쏘지 않는다면, 우리모두가 침착하게 사격을 한다면 이 탄알을 절반쯤 쓰고도 적을 소멸할수 있을것이다.

성림은 한알의 탄알로 한놈의 적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알한알 탄알을 세면서 사격을 하였다.

그러나 적은 줄어들지 않았다. 어쩐지 점점 더 불어나면서 차츰 더 가까와지기만 하는것 같았다. 이제는 사령부가 있는 둔덕으로 날아가는 적탄의 탄도를 환히 가려볼수 있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성림은 너무나 안타까와 벌떡 상반신을 일으켰다.

그 순간 맹렬한 사격소리가 적의 배후에서 자지러졌다. 앞으로 죄여들던 적의 서렬이 벼락을 들쓴듯 뭉청 허물어져나갔다. 적들은 등뒤로 사격을 받고 둥지를 털리운 개미새끼들처럼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난다.

성림은 너무나 기뻐 아주 허리를 일으키고 입안으로 중얼거렸다.

《그랬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벌써 적들의 잔꾀를 꿰뚫어보시고 사령부를 지키던 동무들을 적들의 뒤로 내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그는 싸움판한복판에 서서 어린애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껄껄 웃었다.

《네까짓것들이 감히 조선인민혁명군을 어째보겠다고… 가소롭기란…》

성림은 침착하게 이깔나무등걸뒤에 꿇어앉아 뿔뿔이 흩어지는 놈들을 한놈한놈 겨누어 쏘아제꼈다.

24

유격대가 동네를 떠날 때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병든 몸을 무릅쓰고 동구까지 따라나왔고 경섭이는 막대기총을 어깨에 메고 대렬에 섞여들기까지 하였다.

정섭이가 로획품밀가루포대 하나를 메고 앞에 섰을 때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거리였다.

《몸들 편히 계시우다.》

정섭이는 아예 먼길 떠나는 인사를 하였다.

《오냐, 이제 유격대를 따라가면 장군님을 만나뵈올 때도 있을것이다. 그러니 그때 주눅이 들어 어물거리지 말고 꼭 인사를 드려라. 네가 돌아왔다는것을 말씀올렸더니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 이제 모든 시름을 놓고 신사동을 떠나신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 너도 이제는 철이 좀 들어라.》

할아버지는 벌써 몇번이나 한 당부를 또 곱씹었다. 그것을 또 어머니가 받았다.

《에그, 네가 꽤 혁명군이 되겠는지. 우리 집에 온 혁명군을 보니 영섭이보다 좀 큰 나어린 혁명군도 어찌 의젓하던지…》

《나도 이제 그렇게 되지오다.》

정섭이는 모든 말이 다 좋게 들려 벌쭉 하고 웃었다.

어느새 행군대오는 동구밖을 저만치 벗어져나갔다.

정섭이는 자꾸만 뒤로 끌리는 마음따라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뒤돌아보며 총총히 유격대의 뒤를 따랐다.

멀리까지 따라나온 경섭이의 까칠한 머리를 쓸어주고 돌려보낸 다음에야 명주수건에 매놓은 돈생각이 나서 되돌아가 경섭이의 손에 돈을 쥐여주었다. 그것이 정든 집과의 리별이였다. 대홍단벌을 가로질러 진펄을 건너뛰며 국사당방향으로 걸어갈 때까지도 집생각이 발꿈치에 매달린듯 자꾸만 걸음발을 잡아챘다. 그래서 언제 물자작버덩을 다 지나쳤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총소리가 터져올랐는지 미처 가늠할수 없었다. 그는 풀덤불속에 태질을 당하듯 나뒹굴어서는 골을 쳐들지 못했다.

《움쩍 말고 여기 가만히 엎드려들 있소. 이제 조금만 참으면 왜놈들을 다 쓸어버릴테니…》

걸걸하게 생긴 유격대 지휘관이 기관총을 들고 저쪽으로 달려나가며 소리쳤다. 누가 움쩍하라고 해도 움쩍할 형편이 못되였다. 별안간 터져오른 총소리는 점점 더 세차게 번져가더니 눈앞에 자욱하게 덮여있던 풀대들이며 나무가지들이 회오리바람에 휘말려든 검부레기처럼 날아가버리고 어느덧 눈앞이 훤해졌다.

귀를 꼭 틀어막았지만 총소리는 바로 제 정수리우에서 울리는것처럼 물어뜯는 소리를 질렀다.

전투는 정섭이 생각에 하루종일 끄는듯 하였다. 암만 봐야 어느쪽이 이기는지 판세를 가려낼수 없다. 판세고 뭐고 애초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부터 않았다.

그도 유격대에 들어가면 의례 총을 쏘게 되리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었다. 그러나 그가 상상한 전투라는것은 권총같은것을 차고 몇사람이 밤에 몰래 스며들어가서 느닷없이 쏘아눕히고 나오는것과 같은 전투이지 이렇게 큰 벌판에서 수백명이 마주대고 여러시간 싸움을 하는것과 같은 전투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처음에는 너무 얼이 빠져서 골을 땅바닥에 박고만 있었으나 하도 오랜 시간을 끄니 어느정도 마음이 가라앉아서 차츰 머리를 쳐들고 앞을 내다보게 되였다. 내다보아야 뭐가 뭔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러나 한참을 내다보고있느라니 그에게도 차츰 적들이 나가넘어지고 쓰러지는것이 하나 둘 눈에 띄였다. 그리고 점점 왜놈들의 수가 늘어나고 유격대가 엎드린 둔덕쪽으로 조금씩조금씩 좁혀들어오는것도 알려졌다.

《왜놈들을 한놈도 살려보내지 말라!》

퍽 가까운 곳에서 이런 구호소리가 비교적 뚜렷이 들려왔다. 아까부터 총소리속에 형형색색의 웨침이 엇갈려 들려왔으나 정섭이에게는 분간되지 않았었다.

《쏘아라! 쏘아라!》

아까 움쩍하지 말라던 지휘관이 스무나문걸음 잘되는 이깔나무밑에 엎드려서 기관총을 쏘아대며 웨치고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주변에 엎드린 유격대원들은 정신없이 총을 쏘아대고있었다.

총소리가 눈에 알리게 높아졌다. 바싹 좁혀들었던 왜놈들이 풀떡풀떡 나가넘어진다. 허리를 더 좀 솟구고보니 대홍단 넓은 버덩에 온통 송장이 한벌 덮였다.

《야!-》

정섭이는 저도 모르는 사이 환성을 지르며 달려나갔다. 어쩌자는것인지 그자신도 알수 없었다. 그저 무작정 내달리고싶었다.

《동무, 정신있소! 엎드렷!》

누군가 발목을 잡아채는바람에 나가넘어졌다. 나이 지숙한 대원이 총을 겨누다가 엄한 눈매로 쏘아본다.

《왜놈들이 막 쓰러지오다.》

정섭이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많이 잡았소. 그런데 동무는 저쪽에 가 숨어있으란말요.》

유격대원은 곁을 주지 않고 여전히 엄하게 말했다.

《저놈들 막 도망치는데 뭘 그러오다? 난 여기서 좀 구경하겠소다.》

《이 동무 셈평좋군. 그럼 이 배낭을 저 박인섭동무에게 가져다주오. 저 기관총말이요.》

그 대원이 내미는것을 어망결에 받아들고보니 어방없이 무겁다.

《고맙수다.》

정섭이는 뜻도 없이 이런 인사말을 하고 엉거주춤 허리를 굽힌채 기관총 있는데로 갔다.

《배낭 가져왔수다.》

《배낭? 응, 탄알이요? 고맙소.》

모자채양이 뒤로 가게 제껴쓰고 기관총을 휘둘러대던 박인섭은 나이 지숙한 대원을 돌아보고 히쭉 웃으며 소리쳤다.

《군수관동무, 고맙소다.》

《인사할새 있소? 풍산에 간 장경수몫이요. 제꺽 쏘아제끼오.》

박인섭은 익숙한 솜씨로 배낭을 풀더니 탄띠에 탄알을 서둘러 끼워넣었다.

《동무, 제꺽제꺽 좀 섬기랑이. 가만, 내 이것 가지고 우선 쏠테니 그동안 이 탄띠에다 이렇게 좀 끼워놓소.》

정섭이에게는 그럴듯한 일거리가 생겼다.

따따따— 기관총은 신나게 불을 뿜었다. 명중률은 더없이 좋았다.

《또 새로운 패가 나타났소. 개자식들! 얼마든지 디밀어봐라. 오는족족 천당에 보내줄테니…》

박인섭이가 중얼거리는바람에 일손을 멈추고 앞을 바라보니 아닌게아니라 바싹 다가붙었던 적들은 얼추 죽고 나머지 얼마 안되는놈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져가는데 숲속에서 옆으로 길다랗게 늘어선 새로운 서렬이 숲으로 돌아섰다. 이번에는 군대복장도 경찰복장도 아닌 괴상하게 희끗희끗한 옷을 입은 대렬이였다.

《사격 그만! 쏘지 마시오. 인민들이요.》

몸집이 우람찬 지휘관이 이런 소리를 치며 저쪽으로 뛰여갔다.

삽시에 유격대진지에서는 사격이 멎어버렸다. 적들만이 멀리서 눈먼 총질을 해대며 다가왔다.

구불구불하게 천천히 접근해오는 그 서렬을 보자 정섭이는 눈을 한껏 부릅떴다. 자위대놈들과 경찰이 엇섞여있었다. 동네사람들과 처서판로동자들을 방패막이로 앞장에 세운놈들은 그뒤에 숨어서 어서 나가라고 인민들을 밀치고 총탁판으로 내지르고 발길질을 하면서 바싹바싹 좁혀들고있었다.

《스즈끼로구나!》

정섭이는 긴칼을 휘두르며 그중에도 악착하게 인민들을 내보는 적 지휘관놈을 보고 이를 부드득 갈았다.

《저놈을 그저…》

그는 주먹으로 땅을 쳤다.

유격대가 사격을 멈추자 적들은 수가 났다고 공격속도를 높였다. 총창으로 인민들을 빨리 나가라고 떠미는것이 뚜렷이 바라보인다.

정섭이는 안타깝고 분하여 사격을 멈춘 유격대원들을 번갈아 돌아보며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서둘러댔다.

《이거 야단났군.》

옆에서 조진범이 정섭이의 어깨를 잡아눌러놓고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렸다.

《정말 야단이우다.》

박인섭이도 격분에 치를 떨며 중얼거렸다.

그 다음 침묵이 흐른다.

정섭이는 더는 참을수가 없어 벌떡 일어났다. 누구에겐가 안타까이 호소를 하고싶은 심정이였다.

그의 이런 심정에 대한 대답인듯 뒤쪽 풀밭너머에서 호탕하게 웃으시는 사령관동지의 목소리가 울리여왔다.

정섭이는 깜짝 놀라 도로 주저앉았다.

사격을 멈춘 유격대원들이 모두 사령관동지만을 지켜보고있었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아무 특별한 일도 없다는듯이 지도만 들여다보신다.

적의 총소리가 높아졌다. 꽥꽥 고아치는놈들의 호령소리도 들려왔다. 인민들을 빨리 나가라고 내모는것이다.

이윽고 눈길을 드신 사령관동지께서는 무엇을 보셨는지 서둘러 쌍안경을 눈으로 가져가시였다. 그이께서 초점을 맞추시는 곳을 어방짐작으로 바라보던 정섭이는 거기서 또다시 스즈끼를 발견하였다.

그놈은 칼끝을 한 아낙네의 등에 대고 내밀면서 다른 손을 휘둘러 졸병들을 내몰고있었다.

《저놈을 그저!》

정섭이는 다시 허리를 솟구려 하였다. 그러는것을 박인섭이가 적삼자락을 잡아당겨 눌러앉혔다.

《악착한놈이요. 누가 쏘아버리시오.》

노하신 사령관동지의 명령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성큼 앞으로 나서시였다.

《제가 쏘겠습니다.》

《좋소, 정확하게 단발로 갈기시오.》

《알았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앞을 가리는 풀대를 헤치고 엎드리시였다.

언덕우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묘준은 오랜 시간을 끄는듯하였다. 칼끝에 등을 찔리여 비틀비틀 걸어오는 방패막이 아낙네뒤에서 어찌다가 몸을 드러내군하는 놈을 한순간에 쏘아눕혀야 하는 어렵고도 복잡한 사격이기때문에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바로 그래서 보는 사람들의 가슴은 더 타는것이였다.

마침내 침묵에 잠기였던 언덕우의 무거운 공기를 뒤흔들며 한발의 총소리가 울렸다. 유격대진지가 잠잠해있으니 마음을 놓고 옆에서 꾸물거리는 졸병놈을 발로 걷어차려던 스즈끼는 그대로 하늘을 걷어차며 뒤로 번져졌다.

《야—》

정섭이는 저도 모르게 환성을 질렀다.

《허허허, 정숙동무가 역시 사격을 잘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행동으로 넘어갑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미 그 일은 잊어버리신듯 드넓은 전장을 굽어보시며 통쾌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보시오. 저게 아마 저놈들의 마지막 공격력량인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곳에서 또 황급히 긁어모아가지고 달려오겠지만 그것은 벌써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력량은 이미 소멸되였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손을 들어 가리키시는 대홍단 넓은 버덩에는 각색 《토벌대》들이 한데 어울려 죄여드는 적의 공격서렬이 바라보이고 그뒤로 어수선하게 파헤쳐진 진펄에 왜놈들의 시체가 너저분하게 구겨박혀있었다. 증산기슭의 나무들도 란도질을 당한듯 마구 헤쳐지고 부러져 널렸는데 그밑에도 적의 시체들이 한벌 덮여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여느때와 같이 지휘관들과 전사들에게 전투의 국면들을 리해시키시려고 차근차근히 말씀을 이으시였다.

《처음에 7련대 뒤를 따라오던놈들이 아마 이 일대에 제일 먼저 진출한놈들 같습니다. 그놈들은 얕은 꾀를 써서 우리의 진지를 돌파해보려다가 오히려 매복에 걸려 완전히 소멸되였습니다. 그 뒤로 달려든놈들이 혜산방향에 나갔던 적들의 기본력량인것 같습니다. 놈들은 우리 정면에다가 허위목표를 세워놓고 소수력량으로 아군을 견제하면서 주력을 우회시켜 우리를 포위하려고 하는것부터가 만만치 않은놈들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의 기도를 미리 간파하고 오히려 적들을 역포위하여 소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저렇게 인민들을 탄알받이로 삼고 아군의 방어선을 돌파해보려고 악착하게 날뛰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대라는것이 저 지경으로 타락하여가지고는 그 어떤 전투도 진행할수가 없습니다. 저놈들은 이제 종국적으로 소멸되고말것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까마귀무리처럼 소란스럽게 떠들며 죄여드는 적들을 눈아래 굽어보시며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가 엄숙한 어조로 계속하시였다.

《우리는 크게 이겼습니다. 무산지구전투는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을 보여주었을뿐아니라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총화한 뜻깊은 전투입니다.》

사령관동지의 말씀이 묵중하게 울리자 지휘관들과 유격대원들은 자기들이 방금 치른 격렬한 전투의 국면들을 다시한번 되새겨보면서 그 모든 국면들에서 자신들이 체험한 정신적흥분과 전투행동들이 사령관동지의 령활한 전법에 의하여 커다란 위훈으로 빛나게 되였다는것을 새삼스러운 감동속에 느끼는것이였다.

스즈끼가 얻어맞는바람에 잠시 주춤했던 적들은 유격대방어진에서 더는 사격을 하지 않으니 또다시 덤벼치며 달려왔다. 넓은 대홍단벌에 보이느니 적들이요, 들리느니 총소리였다. 적의 서렬은 꼬리를 물고 련달아 내달아와서 벌판에 차고넘치다못해 숲속에서도 비비적거리였다.

《허허허, 이제 보시오. 우리가 여기서 슬쩍 몸을 빼면 빈 버덩만 차지한놈들이 어지간히 놀랄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일부 력량이 이 증산기슭에서 가볍게 총소리를 울려주면 놈들은 불가피하게 인민들과 분리되여 그쪽으로 쏠릴것입니다. 그 순간을 리용하여 7련대는 인민들을 뒤로 빼고 적을 배후로 타격하시오. 8련대와 경위중대, 독립대대는 매복진을 치고있다가 7련대의 배후타격과 때를 같이하여 일제히 공격하시오. 그러면 저놈들을 여기서 포위섬멸할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다음 목적지로 갑시다. 혹 뒤늦게 달려오는 놈들이 있을수 있지만 그놈들은 아마 제놈들끼리 골받이를 할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전투만 잘 결속지으면 무산지구로 기여든 놈들을

거의다 소멸하게 됩니다. 그만하면 우리 속도 좀 풀리고 인민들도 시원해할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두만강을 넘어가서 다시 총소리를 높이 울리면 인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포위섬멸전을 잘 결속해야겠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죄여드는 적진을 굽어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지휘관들에게 각 구분대들이 차지할 계선과 철수지점, 로정들을 짚어가시며 하나하나 설명하시였다.

《마지막으로 떠날 유인조는 될수 있는대로 적들이 바싹 다가온 다음에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적들의 혼란이 더 커질수 있습니다.》

사령관동지의 말씀이 끝나자 각 부대들은 여태 차지하고있던 계선을 강철룡이가 지휘하는 유인조에 내주고 재빨리 이동하였다.

별안간 유인조의 기관총들이 세차게 불을 내뿜었다. 그것은 적들의 넋을 빼놓기 위한 위협사격이였다. 그때문에 적들은 유격대진지에서 일어난 변화를 눈치챌 겨를이 없었다. 놈들은 잠잠하던 둔덕에서 갑자기 기관총소리가 울려오니 인민들을 앞장에 내세우고 빨리 나가라고만 다그쳤다. 그러다가 둔덕계선에 거의 이르자 그 기관총소리마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마침내 유격대가 전투를 단념했는가? 적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공격속도를 높이였다.

놈들은 유격대진지를 제먼저 돌파해보겠다고 제법 용감하게 접어들었다. 그러나 마지막 돌격선에 이르자 너무나 조용한 물자작버덩이 오히려 무시무시하게 느껴져서 한동안 망설였다.

공격서렬의 밀도는 엄청나게 조밀해졌다. 탄알받이로 내세운 인민들도 마구 죄여드는 각색 《토벌대》 서렬속에 휘말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유격대가 자기들때문에 사격을

안한다는것을 진작 깨닫고있었기때문에 혼란이 일어난 틈을 타서 뒤로 빠졌다. 적들도 이제는 유격대진지까지 다 왔기때문에 될수록 앞에 나서려고 비벼댔다. 마침내 한놈이 만용을 부려 돌격함성을 지르며 등성이로 치달아올랐다. 그러자 공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다른 서렬도 일제히 유격대방어진을 향하여 치달아올랐다.

동쪽에서 공격하던놈들은 서쪽으로 꿰고나가고 서쪽에서 공격하던놈들은 동쪽으로 꿰고나가 마주오던놈들이 서로 엇갈려돌아가며 총질을 하고 칼부림을 하였다. 그러나 유격대는 한사람도 없었다. 놈들이 휴지장 하나 남아있지 않는 빈 버덩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 펄쩍펄쩍 주저앉는데 별안간 증산기슭에서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유격대다!》

주저앉으려던놈들은 불에 덴것처럼 벌떡벌떡 일어났다. 이번에는 총소리 울리는쪽으로 앞을 다투어 달려나갔다.

탄알받이로 끌려나온 인민들은 어쩔수 없이 따로 떨어져 대홍단벌기슭의 숲속에 몸을 숨기고 마치 수많은 물줄기가 동이 터진 곳으로 쏠리듯 엄청난 수효가 되여 멀어져가는 왜놈들의 모양을 살을 떨며 바라보고있었다.

25

필네는 길을 버리고 숲속으로 들어섰다. 마음은 급하여 막 날아가고싶은데 길에는 왜놈《토벌대》의 시체와 부상병들을 처실은 들것이 널려있고 떼를 지어 달리는 경찰, 군대들이 무시로 오르내려서 천천히 걷기도 어려웠다.

이제 총소리가 울려오는 대홍단벌은 고대다. 총소리를 대중하여 숲을 꿰질러가면 인차 유격대를 만날수 있을것 같았다. 유격대를 만나기만 하면 뒤일은 아무래도 좋다. 오빠를 만날수만 있다면 두려울것이 없었다. 게다가 정섭이도 유격대를 따라갔다고 한다.

총총히 들어찼던 이깔나무숲이 좀 성기여지는가싶더니 빠끔히 트인 림간공지는 한참을 못가서 끝나고 빽빽한 혼성림이 나졌다. 허리까지 치는 진대가 앞길을 막고있다. 곧장 타고넘자고 허리를 실어봤으나 어림이 없었다. 어찌나 오래 됐는지 겉껍질은 다 썩어 없어지고 이끼가 검푸르게 돋아난것이 함빡 물을 먹어서 발을 갖다붙이기 무섭게 미끄러졌다. 그런 진대가 총총히 가로놓여있었다. 가까스로 진대나무를 돌아나오면 칡이며 머루, 다래의 묵은 넝쿨이 잡관목가지들을 마구 휘감고 그물처럼 앞을 막아섰다.

필네는 머리며 목덜미를 휘감는 나무가지들을 두손으로 엇바꾸어 헤치며 곧장 총소리를 따라 앞으로 갔다.

봇나무의 가는 회초리가 볼을 후려쳤다. 아래종아리는 긁히고 터져서 얼얼하다. 그래도 돌아볼 경황이 없었다. 혹시 너무나 늦지 않았을가? 이런 불안이 가슴에 차서 언제 숨을 톺아볼 겨를도 없었다.

신사동쪽에서 총소리가 울린것은 한밤중이였다. 림철종점어방에서 가소린차를 타고 달려갔던 《토벌대》가 유격대의 불벼락을 맞고 도망쳐왔다는 소문은 이튿날 아침에야 농사동까지 번져왔다. 그때까지도 필네는 똑똑히 영문을 모르고 막연한 불안속에서성거렸다. 큰길로 경찰과 군대들이 떼를 지어 몰려갔다. 가소린차를 타고 몰려가는 패들도 있고 어디선가 자동차를 타고 쓸어드는 패들도 있었다.

아침에 불시에 먼 신사동쪽에서 몰방으로 터져오른 총소리의 메아리가 아득히 울려왔다.

윤원구가 도강증때문에 주재소에 갔다가 도강증은 못찾은대신 지금 유격대의 대부대가 신사동일판에 쳐나와서 굉장한 전투가 붙었다는 소문을 듣고왔다. 필네는 그길로 달리는것이였다. 처음에는 림철종점을 끼고 달리다가 몇번이나 놈들의 단속에 걸리는 바람에 그렇게 숨가쁘게 달렸는데도 근 2시간이나 걸려서야 신사동에 들어섰다.

신사동부근에는 왜놈군대와 경찰이 씨글씨글하였다.

필네는 놈들의 눈에 뜨일가봐 나무사이를 누비며 간신히 정섭이네 집에 뛰여들었다.

놓여나온 할아버지가 그를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어머니와 경섭이가 한꺼번에 그러안았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바로 그 집까지 오셨다는것을 알았을 때 필네는 벌떡 일어났다. 너무나 뜻밖이여서 그랬던지 너무나 기뻐서 그랬던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정섭이까지 살아돌아와서 유격대의 짐을 메고 따라갔다는것을 알았을 때 필네는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류를 물리치고 다시 대홍단으로 달렸다. 산에 숲에 왜놈들이 넘쳐나고 사방에서 총소리가 벼락치듯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고 할아버지는 엄하게 꾸짖기까지 하였었다. 그러나 제가슴에 깊이 묻어둔 사연을 불시에 터놓을수가 없어 한번 웃어보이고는 무작정 달렸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유격대를 몸소 이끄시고 오신이상 제가 무엇때문에 머나먼 길을 에돌아 금천동까지 간단말인가. 그렇게도 그리운 유격대를 지척에서 만날수 있는데… 왜놈들이 유격대는 다 없어졌다고 떠드는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못된놈들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였던가.

그런데 그 원쑤놈들이 지금도 필네의 앞길을 겹겹이 막고있었다. 길로 갔으면 진작 대홍단벌에 나갔을것이다. 그러나 대홍단벌로 나가는 길은 모조리 놈들에 의해 막혀있었다. 그래서 숲속으로 들어선 길인데 대중없이 자꾸만 숲속으로 들어가다가 문득 앞이 틔여 바라보니 두지바위와 유곡쪽으로 길이 갈라지는 세가닥 길이 앞에 가로놓여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낯익은 자위대놈들이 어디서 끌어왔는지 숱한 조선사람들을 잡아놓고있었다.

필네는 흠칫하여 다시 숲속깊이로 달려들어갔다. 어쩐지 총소리가 뜸해지는것이 유격대가 인차 어딘가로 가버릴것만 같은 조바심이 가슴을 휘저어놓았다. 왜놈들이 물밀듯이 쓸어들던 생각도 났다. 허지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축지법을 쓰시는데 무슨 일이 있을라구…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은 불안과 초조감때문에 한시도 진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숲속을 어떻게 빠졌는지 진펄이 나졌다. 처음은 무작정 곧추 나가다가 보니 어느새 발등까지 빠지는게 심상치를 않았다. 하는수없이 옆으로 돌아 민틋한 등성이를 기여올랐다. 등성이우에 겨우 고개를 내밀게 되였을 때 바로 앞에서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세히 보니 길손도 있고 가까운 처서판과 동네에서 왜놈들의 눈을 피해 놈들이 녹아나는 꼴을 보려고 몰려온 사람들도 있는듯 하였다.

필네는 좀 마음이 진정되여 우선 형편을 알아보자고 그 사람들틈에 가섰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마장도 안되는 등성이아래에다 왜놈들이 부상자들을 날라다놓고 치료를 한답시고 볶아치고있기때문에 더는 앞으로 나갈수 없었다.

길은 사방으로 다 막혀있었다. 마침 왜놈의 군대와 경찰이 떼를 지어 파도처럼 대홍단벌로 밀려나갔다가 증산기슭에 가서 거대한 주먹에 내질린듯 산산쪼각이 나서

구겨박히고 흩어져 달아나는 판이였다. 사람들은 너무나 신이 나서 연신 가슴을 들먹거리며 팔다리를 들썩거리고있었다.

왜놈들이 멀지 않은곳에 있었기때문에 크게 소리는 치지 못하면서도 수군수군 주고받는 감탄의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아니 저놈들이 뒤로 돌아가자고 저러는것 아니야.》

《뒤로 돌아가긴 어느 뒤로 돌아간단말이요. 장군님께서 그걸 그냥 두시겠소. 또 아까처럼 거꾸로 뒤통수를 활 문질러버리실텐데 그 알지도 못하면서 지레짐작을 하지 말란말이요.》

웬 체소한 농민의 말에 거쿨지게 생긴 길손이 이렇게 열을 올리며 핀잔을 주었다.

《아니 이 손님은 뭘 어쨌다고 아까부터 자꾸 구박이요. 왜놈들이 원체 악착한놈들이니까 하는 소린데…》

《쉿, 조용들 하시오. 공연히 제편끼리 그러는구만. 왜놈들의 눈에 띄였다간 또 탄알받이로 끌려간단말이요.》

큰 나들이에 온듯이 두루마기까지 떨쳐입고나선 웬 로인이 길다란 담배대를 저으며 두사람을 말렸다.

필네는 어디로 뚫고나갈 길이 없을가 해서 다시 사위를 살펴보았다. 등성이아래편은 맨 왜놈들의 송장천지였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부상병들도 수없이 많았다. 그러고도 대홍단벌에서는 한패씩 달려나간 《토벌대》무리들이 한참을 못 가서 탕쳐놓은 물고기대가리모양이 되여 또 새로운 송장을 질질 끌고 몰려나오군 하였다. 왜놈들이 그렇게 무수히 쓰러지고 죽어너부러지는것을 보니 귀청이 멍멍하도록 자지러지는

총소리뒤에 가면 유격대를 만날수 있을것 같았다. 필네는 한편으로 너무나 속이 시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을 동동 구르고싶은 안타까움속에서 싸움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저쪽 길가에서 왜놈들의 악착한 손길에 내몰리여 탄알받이로 된 마을사람들을 보게 되였다.

유격대는 어떻게 되였는가? 조선사람들을 방패막이로 삼았기때문에 유격대가 총을 못쏜다는것을 알았을 때 갑자기 텅 비여버린 대홍단버덩과 증산기슭 그리고 그쪽으로 밀물처럼 쓸어들어가는 왜놈들을 보는것이 끔찍하였다. 저도 모르게 살이 떨려났다. 과연 유격대는 어디에 갔으며 어떻게 되였을가.

왜놈들은 연방 총질을 해대며 증산기슭의 새초밭속으로 희뜩희뜩하다가 사라졌다. 그러자 더 좀 높은 기슭의 숲속에서 다른 대렬이 쏜살같이 왜놈들의 뒤로 달려나와 삥 둘러싸버렸다.

《아니, 저게 유격대가 아닌가?》

두루마기를 입은 할아버지가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필네의 손을 더듬어잡으며 말했다. 필네는 로인의 손을 꼭 잡아드렸을뿐 가슴이 활랑거려 아무런 말도 못했다.

지내 거리가 멀어 똑똑치는 않으나 륙감적으로 유격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잠시 즘즛했던 총소리가 다시금 벼락치듯 하였다. 삽시에 총소리는 또다시 하늘땅에 꽉 들어찼다. 탄알이 멀지 않은 새초밭을 쓸어눕혔다.

《모두 엎드리시오. 상하겠소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사람들은 저마다 질겁해서 나무등걸뒤며 새초밭둔덕에 머리를 감추고 엎드렸다. 필네만이 몸을 감출 생각을 잊어버리고 싸움판을 바라보았다.

웨침소리, 아우성소리가 숲을 뒤흔들었다. 총소리는 그냥 자지러지는데 아득히 먼곳에서 나팔소리가 울리여왔다. 왜놈들은 그 산기슭에서 아예 요정이 나는것 같았다.

필네는 달려가고싶었다. 죽더라도 달려가서 유격대를 보고싶었다. 그는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증산기슭을 향하여 내달렸다. 뒤에서 아까 말을 걸던 할아버지와 웬 아낙네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전혀 가려들을수 없었다.

좀 두드럭한 언덕우에 올라섰을 때 필네의 눈앞에는 엄청난 장관이 벌어지고있었다. 방금전 그리도 기승을 부리며 온갖 떨거지들을 다 긁어모아 달려가던 놈들이 사방에서 죄여드는 유격대에 의해 칼탕질을 당하듯 얻어맞고있었다.

필네의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슴새여나왔다. 그는 유격대를 보았다. 비록 한사람한사람의 형상을 가려낼수 없었으나 총창을 번쩍거리며 왜놈들을 찔러눕히는 무수한 유격대원들의 용맹한 모습을 보았다. 한순간에 평생소원이 다 풀린듯 하였다. 유격대는 살아있으며 원쑤들을 저렇게 가슴시원하도록 잡아족치고있다.

그러나 그 격전장으로 누구를 찾으러 갈 형편이 못된다는것은 첫눈에도 환히 알려졌다. 여전히 총소리가 벼락치듯 하는데 칼이 번쩍거리고 날창이 불꽃을 튕긴다. 원쑤들의 팔다리가 떨어져나가고 피와 살이 터져 새초밭이 벌겋게 물들고있다.

어떻게 저 싸움판뒤로 돌아갈수는 없을가?

그러는데 싸움판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왜놈들의 패잔병무리들이 피투성이가 되여 걸레쪽같은 부상병들과 시체들을 질질 끌고 앞길을 막아섰다.

필네는 눈을 딱 감고 이를 악물었다. 유격대를 만날 길이 막혔으나 이제는 서럽지도, 외롭지도 않았다.

(나는 기어이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올거야. 나는 꼭 오빠와 만나게 될거야.)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이며 동네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26

무연한 새초등판에 5월의 훈풍이 설레인다. 이따금 행군길옆에 몇그루씩 나타나군하는 버드나무며 사시나무잎사귀들이 정오의 해빛을 받아 번쩍거리며 살랑거리며 이기고 돌아오는 혁명군을 손벽쳐 맞아주는것만 같다.

하늘은 높이 개였다. 산등은 방금 말라 지은 연두색 나들이옷을 산뜻이 갈아입고 이 뜻깊은 날 뜻깊은 사변에 참가하기 위하여 나선듯 그리도 아름답고 청신해보였다. 아직 총소리의 메아리가 하늘땅에 차넘쳐있다.

그러나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력사적인 승리가 조국청사에 수놓아진 이날 5월 23일 한낮의 이 나라 산천은 그리도 다채롭고 령롱하였다.

처음 전투를 시작할 때 북쪽에 바라보이던 증산이 지금은 동쪽에 놓여있다. 한창 격전을 치를 때는 느낄 사이도 없었지만 무리로 쓸어든 적들을 그때마다 사등뼈가 부러지게 요정내고 승리의 개가도 드높이 철수하는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정황이 급변할 때마다 변화무쌍한 전술로 부대를 령활하게 이동우회시키신 사령관동지의 명령에 따라 진지를 자주 옮긴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철수대렬은 지금 보초대가 나와있던 까치봉기슭을 끼고돌자 증산을 바른편으로 바라보며 삼수평방향으로 나가고있는것이였다. 새벽부터 벌어졌던 전투를

일단 결속짓고 철수를 시작한것은 11시가 넘어서였는데 창평방향과 대홍단쪽에서는 총소리가 그냥 자지러지게 울려온다. 창평방향의 총소리는 전초대가 나가있고 8련대가 또 그쪽방향으로 먼저 나갔으니 별로 이상할것도 없었지만 전투가 끝난 대홍단에서 웬 총소린가싶어 마을사람들은 좀 불안한 눈길로 뒤를 돌아보군 하였다.

아직 밑둥이 트지도 않은 사시나무 한그루를 정답게 바라보다가 그옆에 한무데기 피여있는 진달래를 발견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리로 달려가 한참 어루만지다가 차마 꺾지는 못하고 그냥 대렬로 돌아오시였다. 로획물자를 지고 따라나선 인민들이 200명가량이나 되여 지금 독립대대의 일부와 사령부직속구분대성원들로 이루어진 이 대렬은 군복보다 사복이 더 많아 희뜩희뜩해보였다.

총소리에 불안한 눈길을 짓고있던 한 아주머니가 머리에 인 천퉁구리를 추스르며 미소를 지었다.

《에그, 꽃이 고바서 저러쟁이요. 우리두 처녀때는 저랬건만…》

《꽃이 고와서만 그러겠소.》

만호가 생각깊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나라를 찾자고 만주벌판에서 갖은 고생을 하다가 온분들이니 아무것이나 무심히 보이지 않을거외다.》

《실루 아주바이 말을 듣고보이 그렇겠당이. 에그, 저 나이에 저렇게 애바른 심정을 가지고 그 고생을 어찌 겪겠슴등.》

아낙네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김정숙동지의 발깃하게 상기된 얼굴을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이때 뒤쪽에서 또 총소리가 자지러졌다. 아까보다 훨씬 맹렬한 사격소리였다. 일행의 걸음걸이는 주춤거렸다.

《일없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뒤뚝거리는 아낙네의 임을 부축하며 말씀하시였다.

《저건말이예요. 우리 **김일성**장군님께서 왜놈들끼리 싸움을 붙여놓으신거랍니다. 저쪽 철길을 타고오던 놈들과 이쪽에서 달려온 놈들이 서로 이마받이를 하느라고 저렇게 야단들이예요. 조금도 걱정을 말아요.》

김정숙동지의 소박하고 다정한 목소리는 비록 높지는 않았지만 대렬 앞뒤에 선 사람들의 귀에 차분히 안겨들었다.

《옳소다. 내 아까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는것을 들었소다.》

등뒤에서 누군가가 한손을 쳐들고 웨치다싶이 높은 소리로 말했다. 정섭이였다. 리호철의 권총손잡이에 깨웠다는 뒤통수에는 아직 호떡같은 혹이 불거져올랐는데 그끝에 뻗두룩하게 총이 센 머리카락이 일어선것이 장난군같은 인상을 주었다.

리성림이가 대홍단벌에서 철수할 때 윤원구네 일행과 같이 가던 청년임을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었더니 한참 눈을 더부럭거리다가 야, 이 형님도 혁명군이구나 하고 펄쩍 뛰며 좋아하였다.

그는 아직도 부위가 내리지 않아서 좀 비뚤사한 입사이로 허연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희떱게 말을 이었다.

《이제 유격대누님의 말을 듣고보니 문세가 환하우다. 장군님께서는 아직 싸움이 한창일 때 벌써 저놈들을 저희들끼리 맞붙여놓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소다. 그걸 내 이 귀로 똑똑히 들었단말이우다. 그런데 참… 그걸 깜빡 까먹고 이제 유격대누님이 말해주기까지는 나도 저게 무슨 총소릴가, 저게 혹시 우리를 쫓아오는 소리가 아닐가 하고 은근히 켕겨서 조마조마했댔소다.》

정섭이의 말이 어찌나 소박하고 솔직하든지 모두 껄껄 웃었다.

김정숙동지께서도 일행을 따라 웃으시였다. 그리고는 웃음이 가라앉자 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난 정숙이예요. 모두 정숙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동무가 말한것처럼 이건 모두 우리 장군님께서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작정하신 일이기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래도 좀 걸음을 다그치자요. 이런 번번한 등판은 빨리 걸어야 해요.》

김정숙동지의 말씀은 살틀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다. 그이께서는 일행중 그 누구보다도 많은 짐을 졌지만 마치 바람에 실려가는것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앞장서나가시였다.

《산에서 단련된 몸이 과연 다르긴 다르네.》

진중한 성미인 만호도 감탄해서 정섭이에게 속삭였다.

백양나무가 듬성듬성 서있고 묵은 떡잎이 검불처럼 바람에 날려다니는 연록색의 새초등판은 거지반 끝이 났다.

왼편으로 우묵하게 꺼져들어간 골바닥에 이깔나무숲이 나타나고 그너머로 《갑무경비도로》한끝이 바라보였다. 지금 형편같아서는 역시 그 대도로를 가로지르는것이 문제일것 같았다.

성림이가 좌우의 지형을 바라보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섰는데 김정숙동지께서 긴장된 낯빛으로 다가오시였다.

《봤어요?》

《뭘말입니까?》

성림은 떨떨해서 되물었다.

《저쪽 반대쪽 둔덕밑을 보세요. 먼지가 일어나는것이 보이지요?》

《어느것말입니까? 아 저것말입니까? 보입니다. 아니 저게 적이 아닙니까?》

성림은 놀라서 눈을 흡떴다.

《그래요. 소리치지 말아요. 인민들이 알면 놀랄수 있어요. 아마 저아래 있는 달구지길이 그리로 통한것 같아요. 그러니 저놈들은 10분안으로 여기에 나타날거예요. 사령부는 앞에 나가있고 7련대는 삼수평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 힘으로 인민들을 구해야겠어요.》

《알겠습니다. 결사적으로 싸우겠습니다.》

성림은 아무것도 모르고 흥성거리며 걸어가는 동네사람들을 돌아보며 비장한 심정으로 말하였다.

《지금은 결사적으로 싸우고 안싸우는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사령관동지를 따라나선 인민들인데 한사람이라도 상해서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앞뒤에 널려있는 유격대원들을 눈으로 헤여보시였다. 열한명이였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내가 우리 동무들을 데리고 저쪽 버드나무밑으로 가겠어요.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적들에게 발견될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림동무네는 절대로 불질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대신 인민들을 데리고 이쪽 낮은 골바닥으로 해서 재빨리 숲속으로 가세요. 인민들이 완전히 은폐한 다음쯤 하면 적들이 이 근방에 나타날거예요. 그때는 적들을 마주 끼워놓고 치자요.》

《좋습니다. 그러나 저쪽으로 가는것은 내가,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건 안될 말이예요. 그러자면 또 딴동무와 의논해야 하지 않아요. 시간이 급해요. 어서 가세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말씀을 마치자 바람처럼 소리없이 달리시였다. 어느새 세명의 녀대원과 두명의 남대원이 그이의 뒤를 따라 500m남짓 떨어져있는 둔덕을 향해 달려갔다. 세그루의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껑충하니 서서 우듬지만 설레이고있었다.

《아니 저 체네혁명군네들이 어디메로 가오다?》

천퉁구리를 인 아낙네가 눈이 둥그래서 물었다.

《여러분, 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림시 피해야겠습니다.》

성림의 말이 떨어지자 행군대렬은 주춤거리면서 웅성웅성하였다.

《그래서 저 숲속으로 몸을 빨리 피해야겠습니다.》

《앙이, 저 군대는 저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가두 일없겠슴둥?》

천퉁구리 인 아낙네가 먼저 말을 받았다. 뒤를 이어 웅성거림이 더 크게 번져갔다.

《우리가 여기 서있으면 안됩니다. 저놈들이 둔덕에 올라서기만 하면 드러납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숲속으로 들어갑시다.》

《빨리 혁명군의 뒤를 따라갑시다.》

만호가 이렇게 말하며 앞장에 섰다. 성림은 강정섭이에게 앞서라고 눈짓을 하였다. 처음에는 주저주저하며 재빠르지 못하던 그 움직임도 저쪽 버드나무 선 둔덕을 물어뜯는 적의 앙칼진 총소리가 터져오르자 절로 활기가 생겼다.

숲의 초입은 불과 200m 남짓하였다. 성림은 손짓을 하며 인민들을 숲속으로 이끌어들이면서도 눈만은 김정숙동지께서 달려가시는 둔덕쪽에서 떼지 못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미 적에게 발견되였지만 몸을 굽히지도 않고 달리신다. 군모밑으로 머리카락이 날린다.

동네사람들은 안전한 숲속에 들어가 유격대원들이 시키는대로 지형지물에 의지하여 엎드리자 비로소 사태의 엄중성을 알아차렸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기본대렬이 앞뒤로 늘어서서 철수하는 그 틈사이로 적의 무력이 불쑥 나타났는데 그것이 우연히 십여명의 유격대원밖에는 무장성원이라고 없는 이로획물자 운반대렬과 맞다들린것이다. 필경 적들은 어느 산속에서 헤매다가 창평방향에서 울려오는 총소리를 듣고 허둥지둥 달려가는놈들일것이다. 보매 한개 소대가량 되는 경찰무력이였다.

일부러 자기를 로출시키며 달려가시는 김정숙동지와 그 일행을 보자 그놈들은 어지간히 당황했던 모양으로 덮어놓고 총질을 하며 달려들었다.

어느새 김정숙동지일행은 버드나무뒤로 사라지더니 나무밑둥에 의지하여 불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앙이 저 체네군대가…》

말이 많은 아낙네가 총소리에 움츠렸던 고개를 들더니 놀라서 부르짖었다.

김정숙동지의 총구에서 날아나는 총알에 달려오던 적들이 연신 나가번져지는것이 헨둥하게 알린다.

《그렇게 얌전하더이 워쩐거 우리 동네 포수아바이보다 불질을 더 잘하우야.》

김정숙동지의 사격솜씨에 놀란것은 그 아낙네뿐이 아니였다.

어느새 겁을 잊어버리고 숨어 엎드렸던 사람들이 나무밑에서 고개들을 길게 뽑으며 연신 혀들을 내둘렀다.

《저것 보우다. 또 한놈 넘어졌소다. 혼자서 벌써 여섯놈이나 제꼈소다.》

성림은 인민들을 한사람한사람 찾아다니며 나무뒤에 은폐하도록 당부한 다음 이미 봐둔 숲기슭의 사격좌지로 나가며 말하였다.

《김정숙동무는 원래 명사수입니다. 아까 자위대 장교놈을 단번에 쏘아눕힌것도 김정숙동뭅니다.》

성림의 목소리는 자랑스럽게 울리였다.

동네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김정숙동지에 대해 더 좀 말을 듣고싶어하였으나 이미 그럴 겨를이 없었다.

이제는 적들이 이쪽 진지의 사격권내에 거의 들어서고있었다.

이쪽에서 마주 불질을 해주어야 저쪽 동무들에게 쏠리는 부담을 덜어줄수 있는것이다.

성림은 인민들을 다 은폐시킨 지금 두려울것이 없었다. 침착하게 풀밭에 총을 올려놓고 편안히 엎드리니 둔덕에 대고 사격을 퍼붓는 적의 등이 정면으로 돌아선다. 한 순명 잘되였다.

지휘관이라고 짐작되는놈이 맨 뒤에 무릎을 꿇고앉아서 부하들에게 권총을 휘두르며 연신 나가라고 다몰아치는것을 보면 분명 겁에 질린 놈들이였다.

성림은 자신이 있었다.

《동무들, 인민을 지키기 위해 잘 싸웁시다.》

나란히 엎드린 동무들에게 조용히 말한 그는 지그시 방아쇠를 당겼다. 련달아 사격소리가 터져올랐다. 마지막 사격의 메아리가 멎기 전에 성림은 벌써 장탄을 하고 두번째 방아쇠를 당겼다.

《뒤에도 유격대다!》

그중 가까이 있는놈들가운데서 이런 악다구니소리가 나더니 다음순간 히유-히유-하고 총알이 날아와서 풀밭을 파헤치고 나무아지를 잘라눕히기도 하였다.

성림의 가슴은 여전히 평온하였다.

그는 대홍단에서 쓰고남은 탄알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적을 한놈한놈 골라서 겨누었다. 오늘은 아무래도 탄알을 정량보다 많이 쓸것 같다. 그러나 지금은 어쩔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바로 지척에서 흙먼지가 풀썩하더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성림은 눈을 꼭 감고 머리를 천천히 흔들며 먼지를 털었다.

(눈에 먼지가 들어갔다가는 야단이다. 《고난의 행군》때 엄광호란놈의 과격한 언사와 위협공갈에 넘어가 혁명동지들을 배반한것은 바로 내 사상에 먼지가 끼고 눈이 청맹과니가 되였기때문이였다.

그러나 이제는 나도 눈을 떴다.

이제 다시는 이 눈을 어지럽히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혁명에서 내가 서야 할 위치,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다해야 할 의무, 의리… 이런것을 다 하기 전에는 죽을수 없다.)

성림은 다시 총의 기관부에 덮씌워진 흙먼지를 차근차근 훔쳐낸 다음 그에 소모한 시간의 벌충이라도 댈듯이 맹렬한 속도로 사격을 들이댔다.

유격대의 한중간에 끼여들어 어쩔바를 모르던 적들도 마침내 자리들을 잡고 불질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유격대가 량쪽으로 갈라져서 불을 퍼붓는데다 량쪽 다 든든히 은폐해있기때문에 얼마나한 력량인지 알수가 없으니 결정적인 공세로 나오지는 못하고 그러는 사이 한놈두놈 나가넘어졌다.

그런차에 별안간 대도로쪽으로부터 귀청을 잡아째는것 같은 기관총의 일제사격소리가 울리여왔다.

기관총의 탄막은 적들이 엎드린 새초등판을 휩쓸어버렸다.

사령관동지께서 행군도중에 울려오는 총소리를 들으시고 세명의 기관총수를 보내주신것이였다.

미구에 적들은 수십개의 주검을 내던진채 삼수평방향으로 꽁무니를 빼고말았다.

×

두만강가에서 짐을 지고온 일부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모두 강건너까지 가겠다고 하였지만 그럴 형편이 못되였다. 아낙네들도 있었고 어떻게 운반대렬에 끼여들었는지 나이 많은 로인들도 있었다.

8련대는 아직 창평쪽에서 싸움을 하고있었고 7련대 역시 하삼수평방향으로 진출했기때문에 경위중대와 독립대대만 이 지점에서 사령부를 보위하면서 강을 건느게 되였다.

성림은 돌아가는 마을사람들을 배웅해주느라고 맨마감에야 강기슭에 나섰다.

멀어져가는 동네사람일행을 향하여 손을 흔들던 그는 문득 채양버들에 가리워 잘 보이지 않는 둔덕밑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굳어져 서버렸다.

한 녀대원이 땅을 그러안고 엎드려있었다. 검은 흑토가 가까스로 애풀에 가리워질가말가한 맨땅에 두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땅을 모두 한가슴에 그러안을듯 두팔을 벌리고 풀밭을 어루더듬고있었다.

볼을 이쪽저쪽 번갈아가며 그 땅에 대고 얼굴을 비빈다. 마침내 어깨가 물결치기 시작하였다.

얼굴이 이쪽으로 돌아설 때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해빛에 번쩍하였다. 누가 볼가봐 후미진 곳에 홀로 숨어서 사랑하는 조국땅과 리별을 나누는 녀전사의 모습을 볼

때 성림은 숨을 쉬기도 가쁠만큼 숭엄한것을 느꼈다. 녀전사의 한손에 쥐여진 진달래꽃포기만이 웃고있었다.

성림은 김정숙동지의 모습에서 가슴을 뜨겁게 지지는 강력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그자신이 이미 알고있는 말들을 다 그러모아도 그것을 표현할수 없을것처럼 생각되였다.

그러한 말을 배우리라, 혁명의 진정한 리념을 배우리라는 웅심깊은 생각이 온몸을 후덥게 덥혀주었다.

제 2 편

1

녀대원들의 배낭우에서 진달래가 피여났다. 조국의 진달래였다. 새벽부터 한낮가까이까지 가렬한 전투가 있었고 철수전투 또한 어렵게 진행되였었다. 창평과 하삼수평쪽에서 힘겨운 전투를 치른 부대들은 사령관동지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다음에야 돌아왔었다.

그런 힘겨운 싸움속에서 언제 꽃가지를 꺾어올 생각이 났는지 알수 없다. 어제 큰골에서 군정간부회의를 하는 동안 천막들에 꽂아놓았을 때는 가까스로 망울이 벌어지려 하더니 행군길우에서 연분홍빛 꽃잎이 벌써 여러잎째 피여났다.

강을 건늘 때 그처럼 조국의 향기를 풍겨주던 꽃이였다.

적탄이 비발치던 싸움판에서도 조국을 잊지 못해 떠나는 걸음을 멈추고 꽃을 꺾는 마음이 사령관동지께서는 측은하게 생각되시였다.

장산령릉선은 험하다. 행군대오는 비죽비죽한 바위너설을 골라짚으며 산줄기의 등을 타고나간다. 숲은 울창하지만 대규모적인 조국진군작전의 뒤끝이라 어디서 적정이 있을지 예견하기 어려운 길이였다.

강을 건너온지 이틀째 아무런 정황이 없다. 대홍단벌싸움과 철수작전때 적들이 두만강 두 기슭에서 발악하던것을 생각하면 이처럼 조용한 숲속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되였다.

24일에 큰골에서 진행된 주력부대의 군정간부회의에서는 무산지구작전의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였으며 이해 여름에 진행할 조선인민혁명군의 조직정치활동방침이 제시되였다.

우리 혁명의 가지가지 추억이 얽혀있고 인민들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는 백두산 동북부일대에서 적들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눌러놓고 혁명조직들을 복구확대하며 인민들에 대한 정치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 이것이 바로 회의에서 결정된 기본내용이다.

조직의 통보와 출판물자료에 의하면 적들은 이해에 《일적섬멸주의》요, 《진드기전법》이요 하면서 벌써부터 만만치 않게 나오고있으며 1939년도 《치안숙정》계획의 주요골자의 하나로서 《특별귀순공작》을 강화하여 혁명군대렬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고 갖은 흉모를 꾸미고있다는것이다. 전에없이 밀정망을 늘여놓고 호구조사와 지문제도를 강화하면서 검색, 검문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는 형편에서 정치공작원이나 정치공작조의 활동도 부대의 군사적엄호를 받으면서 유리한 지점에 림시활동거점을 정하고 진행하는것이 기본형태로 되지 않을수 없을것이였다.

회의에서는 이 모든것들이 구체적으로 타산되였고 세밀히 계획되였다.

그런데 그놈들이 백두산줄기를 가로질러오는것이 이렇게도 힘이 드는가? 혼마의 주력부대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련합토벌사령부》에 배속된 수많은 지방무력들은 다 어찌되였는가?

(일제놈들에게 무슨 일인가 생긴것이 분명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국내에 들어가시자마자 받으신 이러한 느낌을 이제는 어느 정도 확정할수 있다고 생각하시였다.

그러고보면 일제가 또다시 쏘련에 대한 침공을 개시했다는것이 무근거한 말이라고만 봐서는 안된다.

김준삼의 말과 같이 그것은 얼핏 들으면 물론 황당무계한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청봉에서 느끼신 생각이나 지금 두만강대안에 넘어오셔서 받으신 인상을 종합해놓고보면 일제가 쏘련에 대한 침공을 다시 감행해나섰다고 보는 편이 훨씬 론리적이라고 생각하시였다. 왜놈들이 제놈들의 궁한 처지를 감추기 위하여 보도관제를

심하게 하니 일부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한것 같지만 그런 잔꾀로써 진실을 가리울수는 없을것이다.

일제가 쏘련과 전쟁을 벌렸다는 말은 장경수가 혜산련락소에서 얻어듣고온 소문이였다.

그는 금숙이, 재영이들과 함께 풍산까지 나가 파괴된 지하조직성원과 련계를 맺고 돌아오는 길에 태혁의 누이동생을 찾겠다고 고진동까지 나갔으나 다 파먹은 폐갱자리만 몇군데 돌아보고 빈손으로 돌아왔었다. 광산이 망하는바람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버렸다는것이였다. 두루 수소문한 결과 이태전까지만 해도 그런 처녀가 어느 밥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있었다는 어설픈 말이나마 얻어듣고온것이 그런중에도 사령관동지께는 반가운 소식이였다.

《어쨌든 실머리는 찾은것이 아니요.》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시무룩해있는 장경수의 어깨를 치시며 금숙이를 위로하시였다. 금숙이는 사령관동지의 이번 과업가운데 자기에 대한 어버이사랑이 깊이 스며있다는것을 알기때문에 감격하여 오히려 밝은 얼굴을 하고있었다.

《첫술에 배부르겠소. 그만해도 큰 성과라고 봐야지. 이제 두고두고 찾아봅시다.》

풍산을 다녀온 일행과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이 났었다. 때마침 회의가 막 끝난 뒤끝이라 장경수가 혜산련락소에서 듣고왔다는 그 소문－일제가 쏘련과 대판싸움을 벌려서 지금 많은 군대가 홍안령쪽으로도 가고 몽고쪽으로도 가고 장고봉쪽으로도 밀려가고있다는 소문때문에 지휘관들속에서는 또다시 론의가 분분해졌다.

《왜놈들이 이제는 더 급해맞게 생겼군.》

소박한 동무들은 이러루하게 말했다.

《모를 소린데…》

고개를 기웃하는 동무들도 많았다. 그중에는 다시 조국으로 쳐나가야 한다는 조급한 동무들도 없지 않았다.

《황당무계한 소립니다.》

하고 김준삼이 말도 안된다는듯이 중얼거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의 말을 유심히 들으시였다. 사실 그로 말하면 내내 지방조직과 반일부대공작에 단독으로 나가있었기때문에 자체로 정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왔고 리론수준도 있는 편이였다.

《황당무계하다니? 련락소 동무들이 그런다고 하지 않소?》

강철룡이 모처럼 재미있는 판에 재를 치는것이 못마땅하다는듯 따지고들었다.

《그런 소문이 돈다고 하는것이지 누가 보고와서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소.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드니 왜놈들이 그렇게나 돼서 칵 망했으면 좋겠다는 소릴게요.》

김준삼은 여전히 문제로도 삼지 않았다.

《그럼 준삼동무 생각에는 그런 일이 도저히 있을수 없다는 소리겠소?》

사령관동지께서도 그의 견해가 흥미있게 생각되시여 웃음을 띠우시고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준삼은 벌떡 일어나더니 거침없이 대답하였다. 틀린 소리든 바른 소리든 자기의 생각을 감출줄 모르는 김준삼이라 대답은 언제나 시원하고 명쾌하였다.

《동무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다른 지휘관들을 둘러보시였다.

김준삼은 제강이나 내려읽듯이 대답하였다.

《제가 그지간에 신문을 빠짐없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럼 신문에 무엇이 났더라면 믿을번했습니까?》

《물론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큰 사건이 신문에 전혀 반영 안될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란… 저는 간단히 힘내기라고 봅니다. 일제는 지금 중국과의 전쟁에서 장기전의 진창에 빠져 숨을 헐떡거리고있습니다. 그 진창에서 다리를 뽑아보겠다고 화평교섭을 벌렸고 어떤놈은 무조건 철퇴하자고까지 들고나오는 판인데 그런놈들이 무슨 힘이 남아돌아가서 쏘련과 또 새 전쟁을 벌리겠습니까.》

여기까지 단숨에 말한 김준삼은 시무룩이 웃으며 덧붙였다.

《사실 그렇게만 됐다면 이제 누가 말한것처럼 우리는 그놈들의 뒤통수를 간단히 후려갈기기만 해도 꺼꾸러뜨릴수 있을것입니다.》

준삼의 말은 얼핏 들으면 그럴듯 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덧붙인 말은 그냥 스쳐넘길수 없는 말이였다.

준삼이가 앉은 다음에도 여러 사람이 자기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체로 김준삼이가 말한 선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때 말씀하시였다.

《이 문제를 속단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모두 신중히 연구하고 확실한 자료들을 수집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여하에 따라서 우리 혁명이 어떻게 될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거듭 강조된바와 같이 국제정세의 변화가 우리 혁명에 영향은 주겠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믿고 싸워야 할것은 우리 인민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조국에 진출해서 우리 인민의 혁명성이 대단히 높다는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힘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하는데 우리 혁명의 승패가 달려있는것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갑자기 긴장된 동무들의 표정을 살펴보시며 말씀을 덧붙이시였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가 우리 혁명에 주는 영향도 큰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것만큼 정세의 변화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그에 알맞게 우리 혁명의 전략전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준삼동무의 말과 같이 오늘날 일제가 쏘련에 대한 침공을 감행한다는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마디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속단해버릴 문제도 아닙니다. 본시 일본제국주의라는것이 광포하고 그만큼 론리도 궤도도 없이 내닫는 놈들이기때문에 리치만을 따지고있을수는 없습니다. 남의 나라에 대한 침략이 제국주의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것이라면 쏘련에 대한 침략을 무엇때문에 못하겠습니까. 실례로 일제는 작년에 벌써 장고봉사건을 도발한바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일제군벌두목놈이 지난해말에 다시 <정면전선>을 또 하나 펴야 한다고 떠들어대서 말썽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것은 이 문제가 결코 황당무계한 일로만 볼것이 못될뿐아니라 충분히 있을수도 있다는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여하에 따라서 우리 혁명이 어떻게 될것처럼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혁명의 승패는 우리 인민의 힘에 달려있습니다.》

그때부터 김준삼이는 심각해졌다. 조국진군작전의 거대한 승리에 다소 들뜬 기분으로 가볍게 제 생각을 드러냈던 다른 지휘관들도 새삼스럽게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은듯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사령관동지자신께서도 줄곧 그 생각이시였다. 그러나 그이께서 생각하시는것은 만몽국경선에서 벌어졌다는 사태의 진상자체가 아니였다. 그 진상은 왜놈들이 아무리 감추려 하여도 미구에 해명되고말것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하는것이다. 일부 동무들가운데는 아직도 남의 불에 게잡자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럴수록 태동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하여 조선혁명의 핵심력량인 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우리 혁명의 원리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런 기초우에서 광범한 인민들을 조직결속해야 한다는 확신이 그이의 걸음걸이에 더한층 무게를 보태주는듯 하였다.

발자국소리에 돌아보시니 조진범이가 난처한 표정을 하고 따라온다.

《웬일입니까?》

《사령관동지, 별난 청년이 대렬뒤를 자꾸 따라옵니다.》

《별난 청년이 따라오다니? 그렇다면 왜 후위에서 그냥 두었소?》

사령관동지께서는 뜻밖의 말에 놀라시였다. 유격대의 행군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였다.

《알만한 동무가 돼서…》

조진범은 자기가 말을 잘못한것 같아 어물거린다.

《그것은 무슨 말이요?》

《신사동에서 짐을 지고 왔던 동뭅니다. 대홍단에서 전투할 때도 우리를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입대를 시켜달라고 그냥 따라옵니다. 왜놈들한테 얻어맞아서 눈등이 부어오르고 다리도 절뚝거리는게 좀 별났습니다.》

《군수관동무.》

사령관동지께서는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몸에 상처를 입은것이 무엇때문에 별나단말이요? 아마 동무가 말하고싶은것은 딴데 있겠지.》

그러시면서 사령관동지께서는 타이르시듯 말씀을 이으시였다.

《강건너까지 짐을 지고온 동무들은 대체로 목재판로동자들이고 다 좋은 동무들이였소. 모두 입대시켜달라고 열렬히 희망했지만 우리는 국내혁명력량을 강화해야겠기에 모두 설복해서 돌려보냈소. 그 만호동무 형제나 봉식동무같은 좋은 동무들도 다 돌려보내지 않았소? 그런데 왜 그 동무는 돌려보내지 않았소?》

《그 동무도 다 돌려보냈댔습니다.》

조진범은 난처한 빛을 짓고 변명하였다.

《처음에 좀 떼질을 쓰다가 혁명을 하는데는 반드시 총을 잡아야만 하는것이 아니라고 타일렀더니 그럼 알겠수다 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아침나절부터 후위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쫓아도 그냥 따라옵니다.》

《그 동무가 따라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말도 안합니다. 누가 말을 붙이자고 기다리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행군을 시작하면 슬금슬금 나타납니다. 후위에서 련대장동무가 야단치지 전 정말 곤난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진범의 엄살을 보시니 어처구니가 없어 그만 웃음을 터뜨릴번하시였다.

그저께 장산령집결장소를 떠나면서 강건너까지 물건을 지고 따라온 인민들을 돌려보내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웬 청년이 따라온다는것이다.

《그 사람이 이 숲속에서 이틀이나 우리 뒤를 밟았단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뭘 먹고 따라옵니까?》

《뭐 먹기는 어렵지 않을것입니다. 집에 가라고 도중식량이랑 주어보냈으니까 그걸 먹고있을것입니다.》

《허허허, 집에 가라고 준 식량을 먹으면서 따라온단말입니까?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웬일인지 유쾌한 심정이 되시여 밝은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글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저로서는…》

조진범은 딱한 표정을 짓고 사령관동지의 안색을 살피며 말끝을 흐리였다.

이때 대렬 앞쪽이 술렁거리였다.

아침에 휘풍동방향으로 내보낸 정찰조가 돌아온 모양이였다.

《저 사령관동지.》

김일성동지께서 앞쪽에 시선을 돌리시는 눈치를 채자 조진범은 안타깝게 불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못들으신척하시고 걸음을 다우치시였다.

예견하신대로 강철룡과 장경수, 박인섭이가 돌아왔다. 강철룡은 사령관동지께로 곧장 달려오고 장경수와 인섭이는 오백룡에게 손짓, 몸짓을 섞어가며 무슨 말인가 섬기고있다. 그들의 어깨에는 보지 못하던 장총이 한자루씩 메워져있었다.

《사령관동지, 정찰조는 명령을 수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강철룡은 변장을 한채 거수경례를 하고 격식대로 보고를 하였다.

《그래 어떻습니까? 동네가 있습니까?》

《예, 동네가 있습니다.》

하고 강철룡은 옆차기에서 목책을 꺼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전에없이 서두는 그를 제지하신 다음 오백룡을 향해 부대를 휴식시키고 지휘관들을 부르라고 이르시였다. 그리고 조진범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시였다.

《휴식시키면 그 동무도 쉬게 될테니 조동무도 가보시오. 가서 잘 타일러 돌려보내도록 하시오.》

조진범은 힘있게 경례를 붙이고 돌아섰다. 어딘가 석연치 않은듯 한 빛이 도는것을 눈치채시였으나 이번에도 그이께서는 못보신척하시였다.

오중흡이 맨먼저 달려오고 이어 8련대장과 박덕산, 준삼이도 달려왔다.

《강철룡동무가 동네들의 형편을 정찰해왔습니다. 들어봅시다. 그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강철룡은 한 30리 된다고 하고 장경수는 20리 남짓하다고 하여 두사람의 견해가 대립되였다.

《동무는 어떻습니까?》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웃으시며 인섭의 의견을 물으시였다.

인섭은 아예 자기는 나설 차비를 안하고있었기때문에 처음에는 좀 당황한 표정을 지었으나 인차 정색하고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소대장동무는 한 30리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20리쯤밖에 걷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저으기 흥미를 느끼시고 진지하게 물으시였다.

《그건 저 소대장동무의 성미가 그렇기때문에…》하고 인섭은 철룡의 눈치를 흘끔 살피고나서 뒤를 이었다.

《소대장동무는 골짜기마다 샅샅이 훑고 갈림길만 나지면 몇마장씩 혼자 들어갔다가 되나오군 합니다. 그사이 저희들은 옴짝하지 말라고 해서 편안히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뭐 여기는 소대장동무네 고장이라고 해서 어찌나 주인행세를 하는지 우리는 그저 따라갔다가 왔습니다.》

하고 장경수도 한마디 보탰다.

《허허허, 소대장동무가 제고장 재세를 좀 한것이 사실인 모양이군. 그런즉 하는수 없습니다. 소대장동무가 다 보고를 하도록 하시오. 그래 동네형편이 어떻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상 덜퉁한듯 하면서도 승벽이 있고 의리가 두터운 강철룡의 소박한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시였다.

《이 동무들이 공연한 소리를 합니다. 제가 뭐 제고장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 모퉁이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느모로 보나 제 책임이지요. 그래 두루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랬을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더니 그 말이 꼭 맞았습니다. 제가 혁명하러 나서기 전에 이 모퉁이에도 사냥을 더러 나왔댔는데 알아볼만 한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 본부라는데로 나가는 큰 신작로같은게 가로세로 건너가고 옥돌골어방에는 여라문채 되나마나한 동네가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 10리쯤 북쪽에 백여호 잘되는 새 동네가 또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휘풍동에는 보위단이 있고 그 남쪽에 장강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도 경찰이 있습니다. 휘풍동으로 들어가자면 장강동에 있는 놈들까지 다 쳐버려야 할것 같습니다.》

강철룡의 보고는 지도에 기재되지 않은 새 동네가 나타났다는것을 제외하고보면 대체로 다 예견한것들을 확인한외에 별다른것이 없었다.

그런데 보고의 마감무렵에 가서 강철룡은 뜻밖의 소리를 하였다.

《회양동에 경찰이 있다길래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네놈이 있는데 분서 뒤마당에 아편이랑 심어놓고 대낮부터 밀주를 퍼마시고있는놈들입니다. 그래 찾아들어가서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이다 하고 말했지요.》

《대낮에말입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우쳐 물으시였다.

《어찌 외진곳인지 대낮이나 한밤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 반항을 하지 않았소?》

《반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놈이 총을 뽑아드는척 하길래 쏘아죽였더니 그 틈에 다른 세놈은 모두 꽁무니를 빼고말았습니다. 따라가서 쏘아죽이자고 보니까 어찌나 혼이 났는지 총이랑 옷이랑 다 벗어팽개치고 내뛰는 꼴이 두어두면 우리 유격대를 괜찮게 선전해줄것 같아서 내버려두었습니다.》

강철룡은 비로소 어깨에 멨던 장총을 내려놓았다. 장경수와 박인섭이도 잔디판우에 소리 안나도록 총을 나란히 놓았다.

긴장됐던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보고를 하는 세사람의 얼굴은 긴장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이 사실을 어떻게 보시겠는지 몰라서 조마조마해하는 눈치들이였다. 처음 리수를 댈 때부터 조금 버성기게 느껴지던 감정의 파문이 사실은 이 사건에 바탕을 두고있었던것이다. 경찰을 잡아서 적의 동태를 똑똑히 알아내야 하지 않겠는가고 처음 말을 낸것은 장경수였다고 한다. 그런데 강철룡이 그 말을 받아서 그게 좋을뿐만아니라 여기에 사령부를 모시기 위해서는 아예 그놈들을 까눕혀야 한다고 우기고나섰다. 사령부를 모실 자리에 미리 불질을 하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박인섭이가 미타한 소리를 했고 장경수도 나중에는 박인섭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강철룡은 작든크든 적들을 두고야 어떻게 사령부를 모실수 있겠느냐고 더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실

네놈쯤 되는 적들을 쳐눕히자면 세사람씩 갈 필요도 없는것인데 만일을 위하여 한껏 조심을 두느라고 셋이 한꺼번에 달려들었다는것이다.

《중대장동무도 떠날 때 저보고 몇번이나 강조했지만 사실 적들이 무슨 꿍꿍이수를 꾸밀지 모른단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경찰같은것을 그냥 둘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넋이 빠져서 내빼는 놈들이야 구태여 총질을 해서 소란을 피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강철룡은 다시 지휘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지자 공연히 오백룡이까지 끌어들이며 미리 누울 자리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동무, 남을 거들지 말고 어서 보고나 마저 드리시오.》

덕산이가 무겁게 말하자 강철룡은 흠칫하더니 말을 이었다.

《그놈들이 혼이 나서 내뺐으니 제힘으로 돌아올것 같지는 못합니다만 아무래도 그놈들이 어디 가서 보고를 할것 같고… 간후에 알아보니 그놈들가운데 한놈은 어디 출장을 가고 없었다는것입니다. 그 분서라는것이 아마 대마록구에 본부를 둔 경찰서의 분서같습니다.》

강철룡은 회양동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어놓은데다 세놈을 산채로 놓아준것때문에 저으기 걱정이 되는 모양 연방 다른 지휘관들의 눈치를 살폈다.

《일없습니다. 그놈들이 아마 무산지구에서 울린 총소리를 듣고 겁이 나서 벌벌 떨고있었을것입니다. 그러다가 조선인민혁명군이다 하니까 들고뛰였을것입니다. 소대장동무의 말대로 이제 도망친 놈들이 어디 가서 보고를 한다 해도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해 굉장하게 떠들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나쁠것이 없습니다.

장차 우리는 한개 동네가 아니라 이 백두산동북부일대를 모두 그렇게 만들어서 적들이 도처에서 벌벌 떨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네형편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큰골회의 방침을 관철하자면 그까짓 한두놈의 적들때문에 몸을 사릴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강철룡은 사령관동지께서 자기들의 행동을 지지해주시자 대번에 기가 올라서 사위를 휘둘러보더니 마을형편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였다.

《마을사람들은 모두 어찌나 기가 죽었는지… 그놈들 댓놈이 자그만 동네에 틀고앉아 왕노릇을 했답니다. 그런데다 유통사네 보위단이 마구 뜯어가고 또 사람까지 마구 패고친다지 않습니까. 이 일판 땅은 몽땅 유통사네 땅인데다 유통사네 조카가 또 현경찰국장이랍니다. 그러다나니 경찰분서라는것이 꼭 유통사네 출장소같이 돼있답니다.》

《화룡땅에서는 간데족족 유통사이야기로군. 강동무도 유통사의 땅을 부쳤다고 했지?》

사령관동지께서는 무엇인가 석연치 않는것을 느끼시며 물으시였다.

《예, 그렇습니다. 화룡일판의 땅을 절반가까이나 차지하고있으니까 누구나 그놈에게 명줄이 매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전에 내가 유격대를 조직하려고 돈화에서 이쪽으로 나오니까 그때도 유통사 보위단문제가 시끄럽게 제기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10년가까이나 흘러갔는데 아직 그놈이 사람들의 운명을 모두 제 손아귀에 걷어넣고 쥐락펴락하는 모양이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시 길림에서 먼저 이 지구로 파견되여나왔던 최서범이 조직을 확대할 생각보다는 유통사를 처단해야 한다, 유통사 보위단을 까눕혀야 한다고 열을 올리던 생각이 떠오르시였다.

조선혁명군성원들과 공청의 핵심들을 동만 각지에 파견하시고 몸소 오가자의 농민들속에 들어가시여 대중을 혁명화하는 본보기를 창조하신 그이께서는 커다란 포부를 안으시고 돈화를 거쳐 간도땅에 나오시였다. 돈화에는 벌써 적지 않은 청년들이 공청파견원 주위에 모여있었다. 그들을 핵심으로 하여 유격전쟁을 벌릴 웅대한 구상을 품고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화룡땅에서 최서범의 외곬으로 뚫린 과격한 주장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몇밤을 밝히셨는지 모른다. 그후 화룡유격대는 건전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최서범이도 성장하여 오늘은 1방면군의 중요한 부대를 책임지고 떠나갔다.

그런데 최서범이가 학생복을 입고 그처럼 처단해버리겠다고 벼르던 유통사는 근 10년이 돼오는 오늘도 여전히 화룡땅에서 활개를 치고있을뿐아니라 그때보다 세력도 지반도 더 커져서 왕거미처럼 화룡땅을 그 수많은 다리로 움켜잡고있는것이다. 예감에 앞으로 유격대가 백두산동북부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벌리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 유통사문제를 처리해야 할것 같았다.

《경찰이 우리 부대가 온것을 알고있었습니까?》

한참이나 지난 다음 사령관동지께서는 일상적인 어조로 물으시였다.

《내뛴놈들말입니까? 아마 그런 소문을 얻어듣고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내버려두시오. 우리는 어차피 이 여름에 유격투쟁을 본격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그놈들이 내뺐으니 어디 가서 고해바칠것입니다. 유격대의 대부대가 백두산동북부에 나타났다는것은 적들에게도 충격을 주겠지만 인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국에 나가서도 느껴지는것이 많았지만 인민들은 원쑤들에게 짓눌려 힘겹게 살아갑니다. 시련을 이겨내자면 뻗치고설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념을 주기 위해 우리 혁명은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민도 내버려두면 혁명할 생각을 못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기서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러나 인차 그 생각을 털어버린듯 고개를 번쩍 드시고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럼 강동무는 돌아가보시오. 사령부는 경위중대, 8련대, 독립대대와 함께 이제 바로 그 휘풍동, 회양동 일대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판을 벌리고 군중정치사업을 들이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7련대는 올기강 서쪽에서 동경평, 상대동, 원풍동 같은 집단부락들의 적을 제압하고 사령부로 와야겠습니다.》

강철룡과 장경수, 박인섭은 벌떡 일어났다. 경례를 붙이고 돌아서려던 강철룡은 잠시 쭈밋거리더니 괴춤을 들추어 차곡차곡 접힌 신문 석장과 편지 한통을 꺼내놓았다.

《이거 우리가 막 분서에 쳐들어갔을 때 배달부가 가져오는걸 받아왔습니다.》

강철룡이네가 떠나간 다음 사령관동지께서는 천천히 나무밑을 거니시였다. 박덕산은 고개를 숙이고 나무막대기로 무엇인가 땅바닥에 글을 새기고 오백룡은 탄알을 꺼내여 하나하나 닦고있다. 김준삼은 주린 사람이 음식상을 마주한듯 방금 강철룡이가 꺼내놓고간 신문을 성급하게 들여다본다.

오중흡이만이 무엇이 마음에 걸리는지 자기 련대가 있는 후위쪽을 가끔 돌아보며 사령관동지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숲속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내리누르는듯 축축히 젖어보이는 하늘이 무겁게 드리워있었다. 바람 한점 없었다.

별안간 생각에 잠긴 조용한 분위기를 깨뜨리며 상철이의 목소리가 울리여왔다.

《안돼요. 사령관동지께서 회의를 하시는중이라지 않아요.》

그다음 나이 지숙한 목소리가 무어라고 웅얼거리고 이어 또 상철이가 야무지게 잘라말했다.

《지금은 안돼요. 아까 사령관동지 만나뵙고 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안돼요. 더구나 사민까지 데리고와서…》

지휘관들의 눈길은 자연히 그리로 쏠리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 나무밑을 오락가락 거니시던 사령관동지께서도 그리로 눈길을 보내시였다.

《조진범동무가 아닙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하고 오중흡이 일어나면서 말씀드리였다.

《여간 질긴 동무가 아닙니다. 그만큼 말했는데 그냥 따라오는 모양입니다.》

《누구말입니까? 신사동에서 왔다는 동무말입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아까부터 그러리라 짐작하시였던 일이지만 큰 호기심을 가지고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좋은 동무이고 각오도 높은 동무같습니다.》

오중흡은 말은 당장 가서 쫓아보낼듯이 하면서도 은근히 그 청년을 두둔하면서 말씀드리였다.

《련대장동무가 만나봤습니까?》

《예, 아까 조진범동무가 자꾸 조르길래… 자기는 할 말 다했는데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 만나보니 어떻습니까? 왜 꼭 유격대에 들겠다는것입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웬일인지 그 청년의 대답에 왼심이 쓰이시는것을 느끼시며 오중흡의 고정한 모습을 지켜보시였다.

《뭐 긴 말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사령관동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자기 사정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내가 사정을 다 안단말이요? 그건 누구요?》

《우리 련대동무들은 신개척에 나갔기때문에 보지 못한것 같은데 아마 전날 사령관동지께서 몹시 걱정하시던 그 로인의 손자같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우리 할아버지를 부축하시고 우리 집까지 오셨댔다고 기세를 올립니다.》

《그럼 강로인의 손자로구만. 칼을 맞고 돌아왔다더니 용히 살아나서… 또 여기까지 따라왔구만, 만나봅시다. 내가 그 로인의 부탁을 저버릴수야 없지 않소. 그 로인이 그때

손자를 부탁한다고 거듭 말하더니 바로 이것이였소. 만나봅시다. 원쑤들과 용감하게 싸운 청년인데 만나봐야지.》

사령관동지의 말씀이 떨어지자 지휘관들은 모두 제일인듯 기뻐하였다. 오중흡이가 전에없이 덤비며 뛰여갔다.

잠시후 그는 정섭이를 데리고 다시 나타나서 보고를 드리였다. 그뒤로 조진범이며 전령병들도 따라와서 호기심어린 눈으로 더벅머리총각을 지켜본다.

정섭이는 어리둥절해서 장군님의 웃음띠우신 얼굴을 바라보더니 멀찍이서부터 두손을 읍하고 머리를 깊숙이 숙이였다.

《장군님,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제 신사동 사는 벌목부입니다.》

어찌나 긴장되였던지 말이라는것이 모두 토막토막 끊기여서 몇번이나 숨을 갈아쉰 다음에야 가까스로 이렇게 말했다.

그가 머리를 깊이 숙이는 바람에 정수리에 부풀어난 상처와 그 밑에 장닭볏같은 머리카락이 유난히 뻗두룩하게 두드러져보였다.

정섭이의 소박한 말투며 어쩔줄 몰라하는 거동이며 외양이 모두 우습강스러웠지만 순진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서둘러 다가가시여 정섭이의 두손을 잡아쥐시였다.

《동무가 강로인의 손자로구만, 잘 왔소. 내가 무척 보고싶더니 이런 동무였구만. 동무들, 이 손을 보시오.》

하고 장군님께서는 수집어서 어쩔줄 몰라하는 정섭이의 손을 지휘관들에게 쳐들어보이시며 말씀하시였다.

《어릴 때부터 어찌나 도끼질을 했던지 마치 쇠돌같소. 이런 손을 가지고도 그놈들에게 그렇게 매를 맞아야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그래 이게 그놈들에게 얻어맞은 자리요?》

사령관동지께서는 깊숙이 떨구고있는 정섭이의 뻗두룩한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장군님!》

정섭이는 그만에야 그 커다란 덩치를 그대로 장군님의 가슴에 쓰러뜨리며 안기였다.

《그놈들이 얼마나 때리는지… 저만 아닙니다.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막 때립니다. 우리 산판사람들은… 다…》

정섭이는 아버지에게 억울한 사연을 일러바치는 아이들처럼 끅끅 목메이며 분하고 억울하던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래 다 알아, 그만두라구. 혁명군이 되겠다는 대장부가 이렇게 쉽게 울어서야 되나…》

사령관동지께서도 눈시울을 슴뻑이시면서 정섭이의 떡판같은 등을 어루만지시였다.

×

김준삼은 아까부터 홀로 한옆에 떨어져앉아 신문에 정신이 팔려있었다. 신문사흘치를 통채로 삼킬듯이 들여다보는데 그의 눈길은 마치 신문지장우에서 경주라도 하듯 급하게 내달렸다. 주먹만큼씩한 꼬직활자들사이를 장애물건너뛰듯하던 김준삼의

시선은 마침내 한곳에 가서 못박혀버렸다. 그는 누가 떠밀치기라도 하듯 신문지장우에 가슴을 바싹 들이붙이고 그리 길지도 않는 기사를 숨가쁘게 훑어나갔다.

《야, 참 귀신이 곡할 일이군.》

그는 무릎을 철썩 치며 감탄의 소리를 질렀다.

원래 그의 목소리는 굵은 편이라 혼자 탄복해서 하는 소리가 사령관동지께까지 들리였다.

김준삼이가 신문에 열중해있는 사이 강정섭이를 부르시여 이미 적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신 그이께서는 나무밑에 홀로 떨어져앉아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있는 김준삼을 돌아보시였다.

《준삼동무는 거기서 뭘합니까? 또 국제정세를 연구합니까?》

《사령관동지, 여기 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예언하신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김준삼은 신문장을 짚어보이면서 그이께로 달려오려다가 더벅머리청년을 보고 눈이 둥그래졌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시원시원하고 날파람이 있으며 그런가 하면 탐구심이 있고 무슨 일이나 열중하기 잘하는 그를 사랑하시였으나 재간이 있는 사람이 탈선하기도 잘하는만큼 짐짓 엄하게 대하시였다.

《국제정세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인사야 차려야지. 준삼동무는 강정섭동무와 구면이 아니요?》

《아니 저 동무가… 구면입니다. 우리 대렬을 이틀씩이나 따라온다는 동무가 바로 동무였구만, 참 반갑소.》

떨떨해진것은 강정섭이였다. 어디서 본듯 하기는 한데 도무지 짚이지 않는다. 하기는 이 며칠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한두번 봐서는 누가 누군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날 모르겠소?》

김준삼이 달려가 그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그 갑무경비도로에서 같이 강제부역을 한 생각 안나오?》

그제야 정섭이 펄쩍 뛰였다.

《알겠수다. 야 그땐 우리같은 인분가 했더니… 그럼 그때 변복을 하고 나왔댔소다? 야, 그런걸 몰라보고…》

두사람이 손을 마주잡고 흔드는것을 보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그렇다니까. 남들이 이야기할 때는 국제정세다 해서 귀도 기울이지 않더니 이번에는 남들이 말할 짬도 안주거던. 허허허.》

사령관동지의 웃음의 말씀을 듣고 준삼은 더수기를 긁적거리며 말씀드리였다.

《참 신통한 기사가 났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말씀드리랍니까?》

《이따가 봅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강정섭이를 돌아보시였다.

《그래 정섭동무가 입대하면 할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섭이는 자기의 입대문제가 이제는 거의 결정되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는지 씩 웃으며 스스럼없이 말씀드리였다.

《뭐 어떻게든 살아갈것입니다. 제가 산판에 남아있으면 그놈들이 잡아갈것이 뻔한데 있어서는 뭘하겠습니까?》

《그건 그렇소. 하지만 아무래도 집일이 걱정은 걱정이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잠시 무엇을 생각하시다가 눈으로 그 누군가를 찾으시였다. 그러나 이어 단념하신듯 오중흡과 박덕산을 향해 말씀하시였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쪽방향으로 사람을 보내서 정섭동무네 집 형편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정섭동무는 집에 돌아갈래야 돌아갈 형편이 못되였으니 본인의 희망대로 입대시키도록 합시다. 련대장동무.》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오중흡을 부르시였다.

《아무래도 저 동무의 입대문제에 대해 련대장동무가 제일 왼심을 쓰는것 같은데 강정섭동무를 7련대에 받도록 하시오.》

《알았습니다.》

오중흡은 자세를 바로잡고 힘있게 대답하였다.

2

출발준비구령이 떨어지자 숲속은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휴식하는동안 나무껍질을 벗기고 구호를 쓰던 동무들은 먹을 건사하느라고 분주히 돌아가고 지휘관들은 대원들의 행장을 검열하느라고 정렬한 대오의 앞뒤를 오고갔다.

대렬은 그쯘하였다. 유표한것은 아직 바지저고리차림인 강정섭이 한사람뿐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신문을 정지성에게 넘겨주시며 일어서시였다.

《준삼동무의 말대로 사건의 규모는 상당히 큰것이 사실입니다. 하이라르부근의 대초원지대에서 국경충돌이 벌어졌다면 간단히 끝나기 어렵습니다.》

신문을 넘겨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대기하고있는 강봉수와 전령병들을 돌아보시고나서 다시 김준삼에게 말씀하시였다.

《그럼 우리도 출발합시다. 그래 준삼동무도 이제는 이것이 틀림없는 전쟁도발이라는것을 믿습니까?》

국경쪽 적을 경계하느라고 여태 후위에 섰던 7련대가 이번에는 올기강서쪽의 적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먼저 출발하였다. 사령부를 모신 대렬도 이미 행군을 시작하였다. 후위에 서게 된 8련대만 아직 저쪽 휴식장소에서 차례를 기다리고있을뿐 경위중대도 독립대대도 다 출발하였다.

정지성은 신문을 받아들고 한쪽면을 펼쳐보면서 사령부의 뒤를 따랐다. 쏘련과 일본사이에 전쟁이 터졌다는 말을 장경수가 돌린 다음부터 누구나 그 문제에 흥미를 가지고있던차에 마침 그것이 신문에 났다니 그로서도 궁금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사령관동지의 어조에서는 평소와 별다른 변화를 느낄수가 없었다.

김준삼은 사령관동지의 말씀이 딱히 질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던지 잠시 망설이다가 때가 썩 지난 다음에야 대답을 올리였다.

《이제 와서 보면 모든것이 사령관동지께서 말씀하신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놈들의 보도만 보아도 국경에서 수백명단위의 부대가 하루에도 몇차례씩 드나들고 기계화부대와 기병부대가 충돌하고 게다가 쏘련비행기가 7대나 떨어졌다고 주어치니 그 규모가 벌써 단순한 사건의 범위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하기는 벌써 3년째 해오는 중일전쟁도 사변이라고 하는 놈들이니까 그건 충분히 그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놈들이 중국과의 전쟁도 힘겨워하고있는 처지에 쏘련과는 무엇때문에 해보자고 들었는가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심중하신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만일에 적들이 쏘련과의 본격전쟁을 결심했다면 일제가 더욱 광란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쏘련으로서도 매우 큰 시련이라고 봐야 할것입니다. 유럽에서 독일제국주의가 쏘련에 대한 침략기도를 로골적으로 보이고있고 영국, 미국 같은 자본주의렬강들이 히틀러를 음으로 양으로 뒤받침해주고있는 때에 배후로부터 일제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것은 어쨌든 큰 타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김일성동지의 안색은 전에없이 엄숙하시였다.

준삼은 그것이 몹시 뜻밖이였던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여 말씀드리였다.

《사령관동지, 그러나 일제가 중국과 쏘련을 상대로 전쟁을 벌렸다면 아무래도 저놈들에게 승산이 없는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어차피 망하고만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돌이킬수 없는 운명일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리 헐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것입니다. 왜놈들이 전쟁을 시작했다면 그놈들로서도 일정하게 믿는 구석이 있을것입니다.》

《사령관동지, 그래도 우리 혁명에는 아주 유리한 정세가 아닙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이윽히 준삼의 얼굴을 바라보시였다.

《유리한 정세라… 놈들의 뒤통수를 간단히 후려갈겨서 혁명을 끝내보자는것입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날 제가 경솔하게 말해서 사령관동지께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만 일제가 어려운 형편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많은 일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옳소, 많은 일을 할수 있소. 뿐만아니라 많은 일을 할것을 요구하고있소.》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웅심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많은 일을 한다는것은 유리한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그 무엇을 가져다주기를 바란다는것이 아니라 더 많은 피와 땀을 흘리며 투쟁을 강화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준삼동무, 전날도 말했지만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한시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 뼈저린 교훈이 없는가? 먼 옛날은 그만두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제정세만 바라보고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라고 권고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열하원정>로선도 만들어냈고 그런 사람들이 그 로선때문에 참담한 손실을 빚어내기도 하였습니다.》

사령관동지의 말씀은 차츰 열을 띠여가는대신 어쩐지 혼자말씀을 하시는것처럼 조용히 가라앉았다.

준삼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그이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더 많이 해야 하겠는가?》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어수선하게 뒤엉킨 문제의 초점을 곧바로 겨냥하듯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시였다.

《지금 우리가 진출하는 지대에서 적이 움직이는것을 보면 저놈들이 복잡한 정세에 파묻혀 어지간히 급해한다는것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춘기공세를 시작할 때 놈들이 <련합토벌사령부>를 새로 조직하고 그 우두머리를 갈아치웠다고 하더니 이놈들이 이해 여름에 무슨 꿍꿍이를 하겠는가 하는것이 대체로 짐작됩니다. 저놈들도 이제 우리와 근 10년이나 싸움을 해봤으니 여름에는 더구나 승산이 없다는것을 잘 알것입니다. 그런데 싸움판은 사방에 크게 벌려놓았지… 그러니까 저놈들이 이 여름에 최소한도의 무력으로 좁은 지역에 우리를 봉쇄하고 제발 가만 있어주기를 바랄것입니다. 천만에!》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일제가 침략전쟁을 더욱더 확대하고있는 이때 움츠러들것이 아니라 반대로 꼬리대가리를 돌아보지 못하게 사면팔방에서 들고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을 벌려나갈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름에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업입니다. 그래야 우리 혁명도 크게 전진시킬수 있고 세계혁명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이제 두고보시오. 우리가 무산지구를 들이치고 그달음으로 두만강줄기를 휩쓸어나가기때문에 저 압록강 여울목에 목을 늘이고있던놈들이 지금쯤 백두산줄기를

타고넘느라고 땀깨나 흘릴것입니다. 이미 코는 꿰여놓았습니다. 더 큰놈을 끌어다 더 큼직하게 쳐야 합니다. 그러면 또 더 큰놈을 끌어올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여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나서 오백룡을 돌아보시였다.

오백룡은 사령관동지의 눈길을 느끼자 인차 달려왔다.

《조직과장동무도 좀 오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두사람이 다가오는것을 기다리시며 걸음발을 늦추시였다.

김준삼은 자기 대오로 돌아갈양으로 보고를 드리자고 하는데 그이께서는 다시 말씀을 하시였다.

《정세가 유리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인민들을 튼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대로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야겠습니다. 우리는 광범한 대중을 조직함으로써만 우리 혁명의 승리를 거둘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움직일수 없는 철칙입니다. 조직과장동무.》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미 수첩을 꺼내들고 그이의 말씀을 기다리는 조직과장의 재기넘치는 얼굴을 돌아보시였다.

《우리가 이 백두산동북부에서 떠난지는 퍽 오래되는데 우리 부대에 이 지방의 연고자들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지는 못합니다.》

조직과장은 기다리고있었다는듯이 그 자리에서 수첩을 번지기 시작하였다.

《누가 있습니까?》

《사령부 기관총소대장동무는 1927년부터 가막골에서 농사를 지었고 유격대 창건초기에는 어랑촌근거지에 있었습니다.》

《그건 나도 압니다. 그다음?》

《지금 곰의골밀영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정치지도원 리학렬동무와 재봉대 최옥금동무입니다. 옥금동무는 본인은 연길에 있었지만 동생이 대립자에서 학교에 다녔고 지금은 그의 5촌큰아버지가 현성부근 어느 농촌에서 살고있다고 합니다.》

《기억이 납니다. 무슨 목산지 장론지 한다는 큰아버지 아닙니까. 옥금동무가 그 큰아버지때문에 <민생단>에 몰린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금동무는 그 큰아버지를 원쑤처럼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료해해보지 못했습니다.》

회양동까지 30리길을 쳐도 저물기 전에 능히 가댈수 있을것이기때문에 사령관동지께서는 일부러 행군속도를 조절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직과장의 보고에 기초하시여 화룡지구의 연고자들을 하나하나 만나보시고 긴 담화들을 해나가시였다.

3

회양동마을은 생겨나자마자 고삭아버린 동네였다. 경찰분서가 있고 다섯놈이나 되는 경찰이 상주해있었다니 꽤 규모있는 동네같았는데 정작 눈앞에 나타난 마을은 다 실그러져가는 침침하고 습하고 질척질척한 산촌이였다.

언제 올렸는지 썩고 휘여서 처져내린 동기와짬에 능쟁이가 무덕무덕 자라나고 구새통굴뚝은 삐딱히 기울어졌는데 좁다란 골목길은 진흙으로 이겨져서 허리까지 치는 길가의 묵은 잡초에 황토진흙이 게발려있었다. 아래배가 훌쭉하고 갈비뼈가 알른알른한 개가 마치 승냥이처럼 꺼칠하고 성긴 털을 일으켜세우고 어슬렁어슬렁 걸어나왔다.

장마가 시작되는 모양 궂은비가 이 무방비상태에 있는 동네를 사정없이 두들겨팼다. 귀틀막은 함빡 젖고 골목과 안마당까지 괴였던 비물은 거품을 물고 소용돌뿐 좀체로 찔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우장도 없이 쟁기를 메고 묵묵히 비속을 걸어갔다. 비를 피하기 위하여 서둘지도 않았고 비가 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집도 산천도 인간자체도 황폐화돼버린듯 한 동네였다.

옥돌골은 여기서 10리가량 남쪽에 붙어있고 휘풍동은 동쪽으로 20리가량 더 나가있는데 모두 회양동에 속해있었다. 본시 사람이 먼저 거접하기 시작한것은 옥돌골이였다. 최근에 와서 이주민들과 도망군들이 일제관헌의 눈으로부터 더 좀 멀리 피해가기 위해 울짱을 박고 거적을 치기 시작한것이 회양동개척의 실머리로 되였다. 그러나 동네가 형성되자마자 왜놈들은 여기에 사방 50리를 통제할 경찰을 덜컥 들여앉혔다고 한다.

그런데다 최근에는 부락마다 보위단이 들어앉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강철룡이네가 가지고온 정찰자료에 근거하여 미리 박덕산의 지휘하에 한개 중대의 력량을 보내시여 휘풍동남쪽 장강동과 그 주변부락들의 적무력들을 휩쓸어버리게 하신 다음 휘풍동계선으로 진출하시였다.

회양동뒤산에 오니 날이 어슬어슬 저물어왔다.

해가 기울면서 퍼붓기 시작한 비는 저물어도 멎을줄 몰랐다. 유격대는 마을을 내려다보는 산기슭에 자리를 잡고 야영준비를 하였다. 동네가 100여호나 된다지만 가난에 쪼들릴대로 쪼들린 동네인데다 달팽이처럼 옹송그리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감정이 우중충한 비속에 너무나 뚜렷이 느껴졌다.

경찰분서가 습격을 당한 사실을 두고 그들은 은근한 불안속에 닥쳐올 불행을 기다리고있는듯 하였다.

비는 멎기는커녕 차츰 굵어지더니 마침내 장대비로 변하였다. 몇몇 동네사람들이 쟁기를 메고 함뿍 젖어서 산기슭을 내려가다가 나무밑에 서있는 유격대를 띄여봤으나 일부러 못본척하고 곧장 마을로 들어갔다.

굴뚝들에서는 연기도 피여오르지 않고 밤이 깃들어도 불빛 하나 새여나오지 않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굵은 이깔나무가지를 치고 대강 걸쳐놓은 천막밑에서 밤을 지새우시였다. 잔뜩 물기를 머금은 산은 퍼붓는 비를 그대로 골짜기를 향해 내쏟았다. 깔고앉은 진대통을 반나마 삼키며 비물이 도랑을 지어 흘러내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마을로 내려가자는 지휘관들의 청을 엄하게 막으시였다.

《이 비속에 대부대가 내려간다면 마을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크지도 않는 동네에 폐를 많이 끼치게 될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밤 고생을 좀 하더라도 비가 들고 날이 밝은 다음에 동네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야 서로 더 반갑게 만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퍼붓는 비속에 옹송그리고있는 동네를 내려다보시였다. 동네는 보이지 않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직과장을 비롯하여 화룡지방의 연고자들과 담화를 계속하시였다. 밤이 깊어지자 수첩을 펼치시고 이해 여름에 벌려나가실 전반적인 정치군사활동에 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한편 당면한 주민지구에서의 정치공작과 조직을 꾸리기 위한 활동계획을 면밀히 세워나가시였다.

개울물소리가 높아지자 사령관동지께서는 동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혹시 물이 넘어나서 가뜩이나 실그러져가는 마을을 넘어뜨릴지 십상 모를 일이였다.

한밤중에 박인섭이와 최병규가 한조가 되여 동네를 순찰하였다.

《이게 반동놈의 동네가 아닌가요?》

최병규는 본시 과묵한 사람이나 어찌다 말을 하면 통 자기 속을 감출줄 몰랐다.

인섭은 진저리를 치고나서 얼굴을 타고내리는 비물을 뻑 훑어내리며 완전히 물참봉이 된 동무를 힐끔 돌아보았다.

동네복판을 지나 행길을 꿰고나가는 개울은 넘어나서 정갱이까지 물이 찼다. 그러나 이미 젖을대로 젖어서 걷어올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들은 평지를 걷듯 그 물속을 첨벙첨벙 걸어들어갔다.

《장군님께서 이 비를 그냥 맞으시게 하다니… 허지만 어떻게 하겠소. 장군님의 명령인데…》

인섭은 비속에 타오르는 산기슭의 어슴푸레한 우등불빛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고는 내키지 않는 어조로 병규의 말에 대답하였다.

《별로 반동같지는 않던데 모르겠소. 워낙 까막눈들이 돼서 그런지…》

아무리 젖은 몸이지만 노박이로 비를 맞는다는것은 기분좋은 일이 못된다. 그래도 그들은 신수가 괜찮은 편이였다. 앞서 순찰을 돈 사람들은 대줄기같은 비속을 돌아다녀야 했던것이다.

《이게 그 분서라는데요.》

인섭은 산턱에 치우친 동네 한끝에 이르자 비소리를 요란하게 내는 양철지붕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양철지붕이라는것도 격전속의 총소리처럼 유난히 따갑게 두들겨대는 비줄기소리를 통해서 그렇다고 느껴질뿐 보기에는 그저 컴컴한 집 한채가 댕그렇게 서있었다.

《오늘낮에 얻어맞았으니 아직 소식을 모르고있는것 같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벌써 들어와서 뒤거두매라도 하겠는데…》

인섭의 말에 최병규는 고개만 끄덕거렸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인섭은 또 비물을 푸-푸 내불며 숨가쁜 사람처럼 힘들게 말을 이었다.

《오늘 경찰이 녹아났으니 동네사람들이 놀라서 더 조심을 하는 모양이요.》

인섭은 그렇게 말하며 텅 빈 분서건물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들어갔다.

문을 활짝 열어젖힌대로 두어서 비물이 현관앞에 가득 괴였다. 안에 달린 또하나의 유리문을 열어제끼자 오히려 바깥보다 더 찬 랭기가 씽하고 불어나왔다.

《가기요. 기분 나쁘오.》

최병규는 뒤에서 고개를 기웃해보더니 억눌린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에 아직 뭐가 있을가봐 그러오? 걱정마오. 꽁지가 빳빳해서 내뛰였으니까. 처음에는 안나오겠다고 버드럭거리더니 바깥에 끌려나오자마자 발바닥이 날 살려라 하고 내뛰는데 참 볼만 하더군. 한놈이 좀 어물거리다가 소대장동무의 총을 맞았지. 그런놈들을 어디 경주하는데 내보내면 문제없이 일등을 할거요.》

인섭은 이렇게 말하며 병규쪽을 돌아보았으나 병규는 들은척도 안했다.

얼마후 그들은 분서자리에서 나와 반대편 동구쪽으로 걸음을 다우쳤다.

비발이 가늘어지면서 바람이 일었다. 나무밑을 지나면 나무가지들이 비발보다 더 굵은 물방울을 뿌려던졌다.

《여보시오.》

맨 마감집 추녀밑에서 나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두사람은 우뚝 멎어서며 총을 내댔다. 절컥하는 소리에 놀란듯 《아이쿠.》하는 소리가 어둠속에서 울려나왔다.

《누구요?》

병규가 야무지게 호령하였다.

《저… 저 갑성이 애비우다. 골막집…》

우들우들 떨리는 소리가 두서없이 중얼거린다.

마을사람들이라는것을 확인한 두사람은 총을 내리우고 다가갔다.

추녀밑에는 두사람이 있었다. 방금 갑성이 아버지라고 한 중년사나이는 키는 작으나 다부지게 생겼고 또 한사람은 느낌이 젊은 사람같은데 키가 크다는것밖에 인상을 가려낼수 없었다.

《저, 웬 사람들인가 해서 나왔어요. 혹시 낮에 그 일때문에 오지 않았는지 해서…》

《낮에 그 일이라니 경찰놈들 녹아난것말이우다?》

인섭이가 나서며 묻자 나이 든쪽이 젊은 사람을 돌아보며 당황하여 고개를 끄떡거렸다.

《예, 예, 그거말입니다. 그 일때문에 오셨다면…》

《뭐 별로 그 일때문에 온것은 아니우다. 그건 우리가 해치웠수다.》

인섭은 어쩐지 그들의 말이 무엇인가 떠보는듯 한것이 기분이 언짢았으나 참고 시원스럽게 말해주었다.

《예?》

중년사나이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것 보라요.》

하더니 이번에는 뒤전에 서있는 젊은이가 나섰다.

《그러면 저 혁명군이 아니우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이요.》

《그래요?》

두사람은 한꺼번에 웨치다싶이 받아외우더니 그다음에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잠시 침만 삼켰다.

《아이구, 그런것을 가지고…》

중년사나이는 잠시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사람 성만이, 어서 가서 알리게. 온 동네가 지금 숨을 못쉬고있수다. 우리는 영낙없이 왜놈 <토벌대>든지 유통사보위단에서 쳐나오리라 생각했지오다.》

성만이라는 청년은 비속을 껑충껑충 뛰여갔다. 몇집 건너 있는 귀틀집문이 벌컥 열리더니 불빛이 환히 새여나왔다. 불을 저렇게 켜놓고 문에다 포장을 치고있었던 모양이다.

《지금 동네사람들이 저렇게 한구들 모여서 저녁때부터 공론들이지요. 혁명군은 경찰놈들을 치고갔으니 다시 올리 없고 이건 틀림없는 <토벌대>라고 내우기는데 나도 처음에는 그 말이 그럼직합디다. 그럴바에는 누구나 이판에 나서지 않는게 좋다, 왜놈이든 유통사보위단이든 분풀이를 하자고 들겠는데 애매한 두꺼비 떡돌에 치인다고 누가 무슨 봉변을 겪을지 아느냐, 이래가지구는 한구들 모여서 공론들만 했지오다. 그런데 암만 봐야 <토벌대>같질 않더란말이우다. 벌써 사람이란 이… 느낌이라는것이 있지요.》

갑성이 아버지의 말은 어딘가 제 자랑 비슷한데로 기울어졌지만 이런 깊은 산속에서 비상한 사건을 겪은 동네사람들의 뒤숭숭했을 마음들이 환히 느껴졌다.

한방 모여있던 동네사람들이 문을 차고 달려나왔다.

나이든 한 로인이 비속에 머리를 숙이고 갈린 소리로 중얼거렸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셨다는데 나가 마중하지는 못할망정 이 비속에 한지에 모시게 하였으니 이런 죄가 어데 있겠습니까. 동네에 사람이 수백이나 되지만 모두 눈이 멀었지요.》

동네사람들은 인섭이네를 앞질러 유격대의 우등불을 향해 달려올라갔다.

차츰 가늘어지던 비발은 어느새 멎고 서쪽으로 줄달음치는 비안개의 뒤로 아직도 흐릿하게 젖은 달빛이 엉성하던 산촌의 풍경도 사람들의 마음도 밝게 비쳐주었다.

유격대는 인민들의 간청을 물리칠길이 없어 동네로 내려갔다. 그러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널직한 마당들을 골라 몇군데 우등불을 크게 피우고 인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새웠다.

동네사람들은 저마끔 사령관동지를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고 번갈아 간청을 드렸으나 그이께서는 그들을 우등불두리에 불러앉히시고 살아가는 형편이야기를 나누어보자고 따뜻이 말씀을 건네실뿐 자신께서 인민들의 집에 드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청을 못드리게 막으시였다.

하는수없이 동네에서 도회청같이 쓰던 빈집을 부랴부랴 손질을 하고 물걸레질을 해서 사령부를 그 집에다 모시기로 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날밤 각 부대들이 숙영지별로 헤여져간 다음에 다시 지휘관들과 정치일군들을 부르시여 긴급한 회의를 여시였다. 여기에 정지성, 장경수, 류진옥, 박인섭이 같은 일반대원들도 불리여왔다.

때가 때인것만큼 회의참가자들은 무슨 문제가 제기되려나 해서 누구나 긴장되였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예상과는 달리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올해 여름에 급속히 변화발전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우리 혁명을 한계단 더 높이 끌어올리자면 유격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광범한 인민들을 혁명의 편에 묶어세우기 위한 군중정치공작을 그 어느때보다도 활발히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혁명투쟁에서 지하공작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지하공작원이 지켜야 할 일반적원칙 그리고 그동안 조선혁명이 축적한 우수한 경험들과 방법상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시한번 긴장되였다.

그이의 말씀은 수첩에 기록해두신것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하시는 체계정연하고 풍부한 자료들로 안받침된것으로서 방금 동네로 내려오기 직전까지 준비해오신 말씀이였다. 참가자들만 보아도 지휘관들과 정치일군을 내놓고보면 이래저래 지하공작경험을 일정하게는 가지고있는 사람들이였다.

지금 동네에서는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이 엇섞여 우등불을 둘러싸고 최근에 진행된 춘기반타격전의 이야기를 나누며 와－와－ 끓어번지는데 사령관동지께서는 벌써 수많은 지하공작원들을 떠나보내실 준비를 하시는것이였다.

회의참가자들은 그이의 말씀을 한마디 빠칠세라 꼬박꼬박 적어나갔다.

그들은 과업만 주시면 이밤으로라도 당장 떠나갈 마음의 준비들을 갖추었다. 그러나 말씀을 끝마치신 그이께서는 군중정치사업과 지하공작문제는 흔히 사령부에서 진행하는 학습의 하나이라는듯이 실제적인 과업은 내놓지 않으시고 앞으로 이 회양동일대에서 모든 동무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장한 기세를 보여줄뿐아니라 인민들을 교양하고 그들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모임을 끝내시였다.

4

유격대가 내려와서 며칠 되지 않았는데 동네의 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비에 패운 길을 닦고 무성한 풀을 깎았으며 도랑을 깊숙이 쳤다. 마당들도 반반히 닦고 깨끗이 쓸었다. 샘물을 치는데는 유격대에서도 한다하는 장정들이 달라붙어서 큰 역사를 벌렸다. 몇해 묵여둔 샘이였다. 조선과는 강 하나 사이에 두었는데 이고장 물은 아무데나 황토물밖에 나오지 않았다. 오직 큰 황철나무가 늘어선 산비탈에 있는 깊이가 열길 잘되는 이 샘만이 사시절 맑은 물이 층층 괴였다. 동네에서는 허드레물은 아무데나 우물을 파고 길어썼지만 먹는 물은 동네 한끝에서도 이 샘물을 길어갔다. 아무리 장마가 져도 흐리지 않으며 아무리 가물어도 줄지 않는다는 샘이라 동네에서는 보배처럼 귀중히 여기고 해마다 가을이면 제를 올리고 우물을 가셔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마적에 와서는 시절이 어수선하니 그 누구도 돌보지를 않았고 그런 말을 내는 사람도 없었다.

처음 우물을 손질하러 나선것은 작식대의 녀대원들이였다.

녀자들이 우물을 손질하러 나섰다는 말을 듣자 강철룡은 성이 나서 대원들을 흘겨보았다. 그중에 재간있다는 축들은 다 동네로 흩어져가고 인섭이가 어느 홀로 사는 할머니네 집 지붕을 손질해주겠다고 잡은것을 얻으러 왔다가 강철룡의 눈에 띄였다.

《저 동무는 과부로친네는 돌볼줄 알면서도 녀대원들이 우물치자는 소리는 듣고도 못들은척하는군. 참 한심하다구야.》

강철룡은 모두 알아들으란듯이 일부러 큰소리로 중얼거리며 성난 걸음으로 걸어갔다.

장경수와 병규는 서로 눈길을 마주쳐다본 다음 씩 웃으며 천천히 뒤를 따랐다.

난처하게 된것은 박인섭이였다. 과부로친네 집은 이미 지붕우에 올라가보고 썩은 동기와장들을 벗겨버렸으니 그냥 내버려둘수도 없고 샘은 또 녀자들이 열길 넘는다는것을 치도록 내버려둘수도 없었다.

그래 어정쩡해서 빌려든 도끼와 망치를 주무르며 망설이는데 마침 새로 입대한 강정섭이 비자루를 들고 골목을 지나갔다.

7련대는 올기강서쪽 동경평과 상대동 그리고 대동곡과 원풍동 등 집단부락의 적들을 휩쓸어버린 다음 어제 사령부에 돌아왔다. 련대와 함께 겨우 어제야 동네에 나타난 강정섭이는 어느새 아이들과 친했는지 그뒤로 조무래기들이 오롱조롱 달렸다.

《동무.》

인섭은 점잖게 불렀다.

정섭이는 무심히 돌아보다가 인섭의 시쁘둥한 얼굴을 보자 반가와서 달려왔다.

《편안하우다?》

《편안하우다?》

인섭은 앵무새처럼 신통히 같은 목소리로 받아외우고나서 지청구를 대였다.

《유격대의 인사가 그게 뭐요?》

《저 유격대에서는 그렇게 인사하면 안되오다?》

《안될것도 없지만 잘한것도 못되지. 그런데 동무는 아직 군복을 못입었소?》

《글쎄 이거 어떻거면 좋소다? 총도 없지, 그러니까 마을사람들이 날 자꾸 이상하게 본단말이우다. 아까 이 동네 청년 한사람은 날 구석쪽으로 끌고가더니 무슨 죄를 지었는가고 묻지 않겠소다. 아이들까지 총을 왜 못탔는가고 자꾸 묻는데…》

정섭이는 그래도 유격대에서 구면이라고 할만한 사람은 인섭이밖에 없으니 자기의 속을 의논조로 터놓으며 저만치 떨어져서 지켜보는 아이들쪽을 돌아보았다.

인섭은 공연히 말을 걸었다가 오히려 난감하게 되였다. 그는 잠시 궁리하다가 불쑥 물었다.

《그래 동무는 지금 어디 가는길이요?》

《뭐 어디 갈데라고 있소다? 길을 쓸라고 해서 쓰는데 우리 중대뿐아니라 다른 중대에서도 그런 과업을 받고 나온 동무들이 많아서 도무지 골목 하나를 쓸어놓으니 더는 손댈데가 없지 않겠수다. 그래 어디 쓸데가 좀 없겠는가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지오다.》

《마침 잘됐소. 동무, 산판에 있었으니 무슨 재간 좀 있겠지?》

《무슨 재간말이우다?》

《아무 재간이든 있으면 되오. 자 날 따라오오. 동무가 군복을 빨리 타입자면 재봉대에 잘 보여야 한단말이요. 그런데 지금 재봉대녀자들이 샘을 치러 나섰다오. 동무가 가서 한몫 해보오.》

정섭이는 떨떨해서 인섭의 뒤를 따라갔다.

그러나 인섭의 계교는 공연한것이였다.

샘에는 벌써 유격대원들이 새까맣게 모여들었다. 100여호쯤 되는 동네를 닥달하는데 모든 대원들이 달라붙고보니 일거리가 떨어져서 어슬렁거리고다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였다. 그들이 샘을 친다는 소문을 듣고 몽땅 달라붙었다. 녀대원들은 말만 냈지 실상 어디에 가 붙어설 자리도 없었다.

인섭이가 정섭이를 데리고 와보니 판이 이 모양이라 웃동을 벗어붙이고 우물속에 한절반 들어가서 병규가 퍼올리는 물초롱을 들어내고있는 소대장을 보고도 빼꾹소리 한마디 못하게 됐다.

인섭이가 입맛을 다시며 정섭이를 돌아보니 그보다 더 순직한 정섭이는 자기가 인섭의 수에 걸렸다는것도 모르고 심중한 낯빛이다.

《이거 샘이 하나밖에 없다는데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소?》

《웃설미랑 해씌우고 좋자면 딸따리를 매달아서 드레박이 하나는 올라오고 하나는 내려가고 이렇게 말이우다.》

하고 정섭이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시늉을 해보이며 말을 이었다.

《이 동네도 퍽 궁한 동네우다. 우리 할아버지가 봤으면 야단치겠수다.》

《그거 내 생각과 비슷하오. 이거 그런데 야단났군.》

《뭐말이우다?》

《동무 혼자서야 해내겠소?》

《아니 우리가 그걸 한단말이우다?》

《좋으면 해야지.》

《허지만 이건… 그럼 우리 부대가 여기 오래 있게 되우다?》

정섭이는 눈이 둥그래서 물었다.

《허 참, 이 동무가 한심하군. 유격대가 그렇게 한동네에서 오래 있는 법은 없단말이요. 허지만 우리가 없어도 인민들이 살것 아니요. 유격대는 인민의

군대란말이요. 그렇기때문에 인민이 사는 동네는 모두 우리 동네나 같단말이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동네 하나가 아니라 온 조선을 이렇게 닥달해야 한단말이요. 사령관동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소. 우리가 이 여름에 할 군중정치사업의 본보기를 여기서 만들어야 한다고말이요.》

《그래요?》

정섭이는 놀랐지만 듣고보니 신이 나는지 입귀가 벌쭉해졌다. 그는 샘을 가늠해보면서 말하였다.

《그럼 뭘 해씌워볼가요?》

《함직해?》

《그까짓 손만 붙이면 잠간이지요.》

《그래? 그럼…》

인섭은 부쩍 구미가 동해서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결단성있게 돌아섰다.

《내 잠간 다녀올테니 동무는 먼저 차비새를 하라구. 내 잡은거랑 좀 구해올테니…》

인섭은 골목에 나서서 두리번거리다가 김태규를 만났다. 그는 최근에 제발되여 8련대의 소대장으로 갔지만 기관총소대에는 본가집처럼 드나들어서 말을 붙이기가 좋았다.

인섭이가 과부로친네 지붕이야기를 꺼내자 태규는 인차 걸려들었다. 별로 이렇다할 재간이 없어서 비자루패 몇사람을 데리고 골목을 오락가락하던 그는 대뜸 자기네 대원들을 부르며 성급하게 물었다.

《어디요, 그 집이? 내 당장 고쳐놓지 않으리.》

이렇게 해서 과부로친네 지붕을 김태규에게 떼넘기는데 성공한 인섭은 그길로 골막집 갑성이네 집을 찾아갔다.

《아니 유격대동무, 이거 너무 이러지 마시우. 목수도구야 산골에 살다보니 있을건 있수다만 집주인들이 멀쩡히 앉아있어가지고 모처럼 오신 귀한 손님들에게 이런 걱정까지 시켜서야 우리가 미안해서 살겠나요.》

씨붙임이 늦었다고 농쟁기들을 벼리고있던 갑성이 아버지 리춘서는 오히려 인섭의 소매를 잡아끌며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였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건 **김일성**장군님의 분부십니다. 동네사람들이 살림에 쪼들려서 집을 돌아볼 형편이 못된것 같은데 도와주어야 하겠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뭐 어렵게 생각할건 없수다. 톱, 자귀, 도끼 이런것만 있으면 되겠는데요.》

《원 참, 이런 고마울데가…》

리춘서는 얼떨떨해서 미처 말도 여미지 못하고 인섭이 덤비는데 따라 연장을 이것저것 찾아주었다.

샘터로 오니 우물바닥을 가셔내는 패들은 벌써 물을 절반나마 퍼놓고 한대 피우는 참이였다.

인섭이와 정섭이는 우물과는 좀 떨어져서 으슥한 느릅나무밑에 일자리를 잡았다. 남대원들은 샘을 치는데 열중해있었고 녀대원들은 그들의 뒤시중을 드느라고 구석지에 들어가앉은 그들에 대해 별로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정섭이때문에 기웃기웃하는 아이들은 인섭이가 일부러 무서운 얼굴을 하고 쫓아버렸다.

두사람은 우선 참나무로 딸따리를 만들었다. 대장간이 있으면 쇠로 만드는쪽이 든든하겠지만 대장간도 없거니와 정섭이는 참나무로 만드는쪽이 오히려 든든하고 쓰기에 편하기도 하다고 우기였다. 인섭이도 나무를 다루는데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사람이라 둘이 의견이 잘 맞지 않았다. 그래 한참 싱갱이를 하다가 시끄러워서 아예 인섭이는 대목으로 지붕을 씌우고 정섭이는 소목으로 딸따리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산에 올라가서 적당한 지붕감과 도리며 들보감 몇대를 찍어다가 다듬어놓은 인섭이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널판지를 구해들였다. 그러는 사이 정섭은 느릅나무그늘에 앉아 도끼와 자귀로 뚝딱거리더니 어느새 달구지바퀴의 살통같이 생긴것을 깎아내였다. 거기에 홈을 파고 홈에다 바줄을 감아서 천장에 매달자는것이다.

5

기왕에 회양동의 구장소임을 맡아보았다는 동네의 좌상 리경서로인이 현임 구장인 서한복 그리고 동네에서 처음으로 유격대를 맞이한 갑성이 아버지 리춘서가 함께 사령관동지를 찾아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유격대가 휘풍동계선에 들어서는 길로 휘풍동, 회양동, 옥돌골 등 유격대가 든 동네 인민들의 집집을 찾아다니시며 살림살이형편을 료해하시였고 특히 로인들은 빠짐없이 먼저 찾으시여 인사도 하시였다. 더구나 사령부작식대가 회양동

갑성이네 집에 자리잡고있어서 리춘서나 춘서의 륙촌벌 된다는 리경서로인과는 아침저녁으로 만나게 되시였다.

어제 사령관동지께서는 종일 바쁘게 보내시였다. 조국광복회명의로 된 호소문을 내려보내기 위하여 그 초고를 시작하셨는데 그지간에 국내에서와 이곳 회양동에 와서 느끼신것이 많고 또 복잡하게 얽혀돌아가는 국제정세를 생각하시니 자연 간단하게 쓰시려던 글이 무게를 더하게 되고 내용이 커졌다.

그럭저럭 밤늦도록 책상앞에 앉아계시다나니 하루동안 동네에 나가보지 못하시였는데 그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마을의 대표라고 볼수 있는 사람들 셋이 함께 나타난것이 심상찮게 생각되시였다.

《어서 오십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갠 자리가 펴지지 않은 두루마기를 떨쳐입고 장죽을 한손에 쥔 경서로인을 두손 잡아 맞아들이시며 정중하게 말씀하시였다. 서한복과 리춘서 역시 단벌 출입복이 분명한, 빨아서 다린 바지저고리에 조끼를 입고 고매끼를 맸다. 이 회양동에서 이런 차림을 하고 나선다는것은 1년에 한두번씩 소임들이 현성에 가거나 할 때 일이고 려염집에서는 설이나 추석, 단오에도 보기 드문 일이였다.

원래 그들에게 무슨 나들이옷같은것이 따로 없기도 하였지만 유난히 나들이옷을 갈아입고 나설만 한 일이 생기지부터 않았다. 세간살이를 몽땅 떨어 이고지고해서 이 인적없는 골짜기를 찾아와 제힘으로 움막을 치고 귀틀을 짜고 부시로 불을 붙여 화전을 일구어 뚜져먹는 사이 자연히 동네가 생기고 그것이 커지자 소임도 내고 모임도 가지고 하게 된것이니 그들에게 따로 찾아가 보호를 청하거나 진정을 해볼 관가가 있을수

없는것이였다. 장을 보자면 현성으로 가기보다는 강을 건너 무산장을 보거나 본부라고 불리우는 대마록구로 가는것이 훨씬 가깝고 또 생활적으로 관계가 깊었다.

관가나 경찰따위들은 이쪽에서 누가 청해온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동네가 생긴 썩 후에 나타나서 제멋대로 무슨 향 무슨 동 하고 매겨놓았지만 그것을 누가 머리속에 새겨두지도 않았다. 새겨두어봐야 어디다 기별을 보낼데도 없고 어디서 소식이 날아올데도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과 동떨어진 궁벽한 산촌이였다.

그래도 이 골안에 동네가 생기기 시작한것은 근 30년의 세월을 헤아린다고 한다. 그지간에 가장 큰 사변이라고 일러온것은 옥돌골 신풍헌의 집에서 암소가 한배에 새끼 세마리를 낳은것과 역시 옥돌골에서 대처로 돈벌이를 갔다가 3년동안이나 소식이 없었던 손영백이 번쩍번쩍하는 개화경을 끼고 나타난것이였다. 손영백이 비록 돈은 못벌어왔지만 가지고온 소식은 희한한것이 많았다. 그때는 아직 10여호에 불과했던 회양동이며 휘풍동 사람들까지 옥돌골에 모여들어 그 개화경을 끼여봤으며 손영백이 가지고 온 희한한 대처소식들을 들었다. 항일유격대에 대한 이야기도 그때 비로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려졌다. 그렇던 동네에 그야말로 전설처럼 전해지던 유격대가 아무 선통도 없이 번개처럼 나타나서 경찰을 쳐없앴을뿐아니라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온것이였다.

《장군님, 인사를 드릴 면목이 없습니다. 동네에 인간이 있어가지고 모처럼 찾아오신 유격대에게 중한 국사를 뒤로 미루고 동네청결을 시키게 하였으니 도리가 안됐습니다.》

리경서로인이 자리를 잡고 앉듯마듯 다시 허리를 일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또 그 말씀을 하십니까? 간밤에 다 하시고 뭘 또 그러십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대원들이 부랴부랴 무어낸 등받이도 없는 긴 걸상에 송구하게 앉아있는 세사람을 웃음어린 눈길로 번갈아 바라보며 말씀하시였다.

《아니올시다. 이런 죄가 어찌 한두번 사과했다고 덜리겠습니까. 제가 간밤에도 동네것들을 모아놓고 말마디나 좋이 했습니다만 본시 이고장사람들이 본바가 없고 사람구실을 못합지요. 잔뜩 게을러빠져서 집안 하나 거둘줄 모르고 조그마한 동네 하나를 버젓하게 꾸려나가지 못합니다. 그저 짬만 있으면 모여서 입담이나 부리고 나중에는 투전을 벌립니다. 이러구야 어떻게 동네꼴이 바로 서겠습니까. 이것이 다 동네에서 나살이나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구실을 못하기때문이지요. 장군님께서 이번에 말씀은 따로 하신것이 없지만 저희들은 크게 꾸중을 들은것으로 생각하고 저마다 페부에 새기고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조선사람들을 위해서 총잡고 싸움에 나섰는데 인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각오를 한 사람들이 인민들의 살림을 좀 거들어준것이 그리 대단할게 있겠습니까? 그러시지 말고 무슨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로인이 너무 죄송해서 몸둘바를 몰라하는것이 오히려 보기 거북하시여 일부러 그들의 용건을 물으시였다.

《드릴 말씀이 별로 달리 있어서 그러는것이 아니라…》

서한복이 경서로인쪽을 힐끔 돌아보며 좀 격식바른 어조로 말을 떼였다. 춘서가 옆구리를 가볍게 건드렸다. 어서 말을 하라는것인지 아니면 그만두라는것인지 서한복이는 짐작이 안가서 이번에는 춘서의 눈치를 힐끔힐끔 살핀다.

《어려워말고 어서 말씀들 하십시오. 그러지 않아 우리가 동네어른들을 찾아뵙고 의논할 일도 있었는데 마침 잘 되였습니다. 어서 말씀을 하십시오.》

《이사람, 어서 말씀드리게. 장군님께서 들으시겠다는데 말씀을 드려야지.》

경서로인은 점잖게 뒤로 몸을 젖히며 서한복을 내세웠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참 담배들이나 피우시지요. 우리가 담배를 안피우다나니 권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랑 갑성이 아버지랑 담배를 피우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동네인민들이 내다놓은 향로 비슷하게 생긴 놋재털이를 밀어놓으시며 걸상을 그들앞으로 끌어당겨 바싹 다가앉으시였다.

《저 말씀드리자는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해마다 이맘때면 산당제를 올리고 하루 푹 쉬는 풍습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비가 오고 두루… 동네사람들이 사실 일년내내 일을 해봐야 고작해서 감자 몇섬 캐가지고 농마를 몇말 내고…》

《허 이사람, 답답도 하군.》

서한복이 두서없이 이 소리, 저 소리 늘어놓자 경서로인이 답답했던지 담배를 쟁이던 장죽을 걸상우에 놓고 두루마기자락을 다시 갈라헤치며 정색해서 말했다.

《장군님, 동네소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 한마디 변변히 못하니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옛날부터 군사는 군사의 직분이 있고 백성은 백성의 직분이 있는 법인데 우리 백성이 제할바 직분을 지키지 못하고보니 유격대가 동네 골목을 쓸고

우물을 가시고 과부집 지붕을 고치고 나중에는 물을 긷고 장작까지 패게 되였습니다. 내 늘 말하지만 사람이라는것이 굶어죽어도 경우를 잃지 말아야 하는것인데…》

리경서로인은 서한복에게 핀잔을 주고 가로맡아나섰지만 그 역시 입을 벌리자마자 이 소리, 저 소리 섬겨대는것이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자는것인지 대중할수가 없었다.

《형님, 그 무슨 말씀을 아까부터 자꾸 곱씹으며 그러우다. 답답해서 어디 듣겠수다?》

갑성이 아버지가 듣다 못해 쐐기를 치며 나섰다.

《허허허, 생각나는대로 말씀하시게 두십시오.》

사령관동지께서 너그럽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였으나 리경서로인은 동생의 말 한마디에 쭝해서 그만 입을 다물고 성이라도 난듯이 어험어험 마른기침을 깆으며 저쪽으로 외면하였다.

《갑성이 아버지는 공연히 그러십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긴데 무슨 말이면 일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는 갑성이 아버지가 이야기해보십시오.》

《아니 저야 뭘… 저 이사람아, 자네 말씀드리게. 자네가 구장이 아닌가. 어서 말씀드리라구.》

춘서는 방금까지 남이 말하는것을 안타깝게 듣고있다가 정작 저더러 말하라니까 당황해서 꽁무니를 사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세사람을 번갈아보시다가 아무래도 선뜻 번지기 거북한 말이 있는 모양이라고 짐작하시였다. 그러지 않아도 인민들속에서 여러가지 군중공작을 벌릴

생각을 해오시던 그이께서는 우선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눙쳐주어 그들을 통해 동네사람들의 의향을 알아보려고 애쓰시였다.

《그럼 이야기는 천천히 듣기로 하고 날씨가 따뜻한데 바깥으로 나가볼가요.》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그러자 세사람은 더 당황한 표정을 짓고 서로 눈치들을 살폈다. 갑성이 아버지 리춘서가 혀를 한번 갈기더니 일어섰다.

《가며 이야기를 해봅시다. 실은 우리도 어제 일이 좀 바빠서 동네를 보지 못했습니다. 같이 한번 돌아봅시다.》

사령관동지께서 군모를 벗겨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자 리경서로인과 서한복은 비로소 송구해하던 표정이 가셔졌다.

《그럼 한번 돌아보셔야지요. 동네가 참으로 달라졌소다.》

서한복이 제자랑이나 하듯이 이번에는 먼저 사령관동지께 출입문을 열어드리며 우선우선해 말하였다.

《달라지나마나 이게 회양동마을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다 듭니다. 어제는 우물에 웃설미를 해씌우고 쌍드레박을 달았더니 오늘 아침에 나와보니까 어느새 또 샘틀을 만들어놓았는데 좌우간 일을 해도 번개치듯 한단말입니다. 여기서도 무슨 축지법같은것을 쓰시는지 원.》

리경서로인의 말에 사령관동지께서도 내심 놀라시였다. 실은 어제 우물 웃설미를 해단것때문에 사령부에서도 말이 오고갔었다. 한것은 사령관동지께서 일을 마치고 바깥에 나서실 때쯤해서는 동네사람들이 모두 우물에 모여 끓을 때였다. 골목을 쓸고

도랑을 치고 풀을 깎고 지붕을 고치고 한것도 집집에서 침이 마르게 떠들었지만 특히 우물은 동네사람들, 그중에도 아낙네들의 인기를 집중시켰다. 그래서 유격대를 만나기만 하면 혀를 차며 인사를 하였다. 남정네들은 아낙네들의 말밥에 올라 마주서서도 욕을 먹고 지나는 말속에서도 욕을 먹었지만 모두 하루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더니 유격대가 와서 정말 하루사이에 이렇게 변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사령관동지께서도 아침에 지휘관들에게 일러두신 일이기는 하지만 결과가 잘된데 대해 만족하게 생각하시였다. 그래서 특히 인민들속에서 사업을 잘한 구분대와 개별적인 전사들을 평가하시였다. 그런데 우물을 손질한것은 누가 했는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것이였다.

나중에 지휘관들사이에서 또 론의가 분분해졌다.

결국 의심은 경위중대에서 받게 되여 박덕산이도 오중흡이도, 김준삼이도, 나중에는 강철룡이까지 중대장이 어떻게 하면 자기 대원들이 한 일도 그렇게 모를수 있느냐고 씨까슬렀다.

입이 무거운 오백룡이 슬그머니 약이 올랐던지 흥 하고 코방귀를 불며 말하였다.

《거 련대장동무도 너무 그러지 마오다. 내 우리 집 갑성이한테 듣자니까 7련대 바지저고리가 산에서 나무를 베내리는것을 봤다우다.》

《아니 우리 련대 바지저고리가 누구요?》

고정한 오중흡은 인차 정색하여 이렇게 물었다.

《뭐 바지저고리가 그렇게 많소다? 신사동에서 온 신입대원말이우다.》

《그 강정섭동무말이요?》

《강정섭인지 뭔지 난 이름은 아직 모르는데 그 동무가 여간 흉물이 아니란말이우다. 입대하겠다고 이틀씩이나 따라오는것만 보시우다.》

오중흡은 더는 응대를 하지 않고 입을 다물어버렸었다.

그런데 밤사이 또 우물틀이 생겼다니 놀라운 일이 아닌가.

사령관동지께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걸음을 다우치시였다.

《뭐 우물틀이라고 해도 흔히 촌구석에 있는 그런따위가 아니지요. 귀틀을 어쩌면 그렇게 틈새기 하나 내지 않고 무었는지 우리 동네에 책상이랑 꽤 짠다는 령감이 있는데 맨발벗고도 못따라갈 솜씨란말이우다.》

갑성이 아버지는 사령관동지옆에서 연신 손짓을 해가며 감탄을 하였다.

느릅나무가 주런이 늘어선 골목굽이를 돌자 새로 널장으로 해씌운 우물의 지붕이 드러났다.

그밑에서는 지금 동네의 남녀로소와 유격대원들이 엇섞여 끓고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 리경서로인일행과 함께 다가가시니 유격대원들도 동네사람들도 모두 주춤해서 인사를 드리였다.

얼핏 보매도 우물우에 새로 해세운 틀은 과연 놀라운 물건이였다. 서까래감보다 좀 굵은 이깔나무들로 네귀를 엇물려 짰는데 널로 짠것보다 훨씬 든든해보일뿐아니라 보기도 훨씬 얼싸하였다. 재간은 재간이다. 저런것을 어떻게 밤사이 아무도 몰래 해씌울수 있는가.

적의 삼엄한 경계망속에서 포대밑으로 통로를 파서 폭약을 쟁여 포대를 날려보낸 동무도 있고 지하에서 하루밤에 수백장의 삐라를 내다붙인 동무들도 있지만 이것 역시 나무 다루는 일에 있어서나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데 있어서 남다른 재간이 없이는 될수 없는 일이였다.

《그래 누가 이런것을 만들었는지 아직 모릅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뒤따라선 오백룡과 강봉수쪽을 돌아보며 물으시였다.

《아직 똑똑히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기관총소대의 박인섭동무와 7련대의 신입대원 강정섭동무같습니다.》

오백룡이 한걸음 나서며 보고를 드리였다.

《강정섭이라니 저 동무말이요? 아니 저 동무가 어느새 군복을 타입었습니까? 어제밤에 중대장동무가 바지저고리라고 하더니…》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쪽 느릅나무밑에 엉거주춤 서있는 강정섭이를 가리키시였다. 웬일인지 강정섭이는 무슨 죄나 지은듯 고개를 푹 떨구고있고 그앞에는 소대장 신길남이 어마어마한 표정으로 서있다.

《어제 제가 바지저고리라고 말했다 해서 련대장동무가 정말 성이 난것 같습니다. 사령부에서 돌아가는 길로 지휘관들의 배낭을 들추어 헌옷을 자기가 입고 제가 입던 새옷을 벗어서 저렇게 입혔습니다. 재봉대에서 래일이면 되겠는데 그런다고 펄쩍 뛰는것을 련대장동무가 고집을 써서 기어이 입히고야말았습니다. 제가 그저 롱삼아 한마디 한것인데 공연히 기세를 올리면서 그럽니다.》

오백룡은 좀 어색해하는 목소리로 말씀드리였다.

《허허허.》

사령관동지께서는 유쾌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면서 리경서로인을 향하여 말씀하시였다.

《이 우물때문에 우리 혁명군에도 일이 재미있게 번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딴데로 가봅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경서로인네 일행과 함께 다시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고 리경서로인이 종종걸음으로 사령관동지곁에 따라서며 말씀드렸다.

《사람이란 별로 한 일이 없어가지고도 제 잘난체하기가 쉬운 법인데 이런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옹졸하기만 하겠습니까.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길수 없이 크고 훌륭한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이 고르롭지 못해서 사람들의 좋은 품성이 인정을 받지 못할뿐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마침 도랑창에 건네여놓은 외나무다리를 건느시다가 로인이 실수할가봐 그의 손목을 잡아주시였다.

《장군님.》

리경서로인은 사령관동지의 손에 매여달리다싶이하여 외나무다리를 건느자 그 손을 놓을 대신 한손을 마저 그우에 포개여쥐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씀드리였다.

《동네에서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공론들을 했습니다.》

《공론이라니요?》

《우리가 여태까지 사람구실을 못하고 살았다구요. 그리고 어떻게 이 고마운 유격대와 그냥이야 헤여지겠느냐구요.》

《그것은 우리들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까부터 로인들이 하기 힘들어하던 말을 이제사 꺼내려는 모양이라고 짐작하시며 부드럽게 뒤를 받쳐주시였다.

《그래 공론들이 모두 장군님을 모시고 하루 좀 놀았으면들 합니다.》

《무슨 놀이를 하자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명절놀이를 하자는것입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이 궁벽한 산골에 오신 날이 명절이지 별로 명절이 따로 있겠습니까? 실은 유격대가 우리 마을에 들어서던 날인즉은 음력 4월초 8일날이였습니다. 우리 고장에서는 해마다 이맘때에 산놀이를 하군 했습니다. 올해에는 철이 늦은데다 이른 장마가 지고 그런가위에 경찰을 들이치고 유격대가 들어서는바람에 미처 그런 궁리도 못했습니다. 간밤에 공론이 두루두루해서 이 봄에는 장군님을 모시고 축수를 드리는 놀이를 해보자고 한결같이 들고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에서는 이것저것 음식도 좀 마련하고 차비들을 하는데 장군님께서 하정을 굽어살펴주십시오.》

《농사일이 너무 밀리지 않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을사람들의 뜨거운 성의가 가슴에 마쳐오는것을 느끼시였으나 한편으로 동네형편을 생각할 때 딱한것을 느끼며 이렇게 물으시였다.

《늦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요즘은 해마다 늦어지군 합니다.》

서한복이 경서로인의 반대쪽에서 말씀드리였다. 긴장된 그들의 표정을 읽으시자 **김일성**동지께서는 더욱 딱한것을 느끼시였다.

《농량도 제일 군색할 때가 아닙니까?》

《장군님.》

하고 경서로인은 잠시 묵묵히 입을 다물고 걷더니 무거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우리 고장 살림을 두고 말한다면 언제 산놀이를 벌릴 경황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모두 궁한 팔자를 타고났다고 한탄들을 합니다. 허지만 우리 고장사람들이 산놀이를 하자는것은 무슨 귀신이나 하늘을 괴자는것은 아니올시다. 그저 기나긴 겨울을 눈속에 파묻혀살다가 봄이 오니 겨우내 파먹고 얼마 남지도 않은 낟알들을 털어내여 술을 빚고 떡을 쳐서는 산천에 대고 빌어보는것입니다.》

로인의 말은 진정을 하는것 같기도 하고 사과를 하는것 같기도 하였다. 어쩐지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잃은 인민들의 의지할데 없는 마음들이 사령관동지의 가슴을 붙잡고 흐느끼며 하소하는것 같기도 하였다.

《짐작이 갑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푹 가라앉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돈있는놈들이야 제 부귀영화를 뽐내고 흔전만전 놀기 위해 산놀이도 하고 들놀이도 하겠지만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야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즐거운 마음으로 놀아보겠습니까. 겨우내 쌓인 근심걱정을 털어버리고 좀 거뿐한 마음으로 새해농사를 시작해보자는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심정입지요.》

리경서로인이 이렇게 말하자 춘서와 서한복이도 같이 고개를 끄덕거리였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 젊은 축들이 말하기를 유격대에서는 부처나 귀신을 믿는것은 모두 미신이라고 반대를 하는데 그런 말 냈다가 혼난다고들 해서 또 한참 물론이 분분했습니다. 이제 장군님께서 우리 어리석은 백성들의 하정을 이처럼 밝게 헤아려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들이 말하기 힘들어하던 까닭을 비로소 짐작하시였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이나 귀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인민들이 날을 받아서 노는것이야 무엇때문에 반대하겠습니까. 일년내내 힘겹게 일을 하다가 그런 날에라도 한번 시름을 잊고 쉬셔야지요.》

사령관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세사람의 얼굴은 활짝 밝아져서 《그렇습니다. 장군님.》하고 입을 모아 말씀드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을 향해 돌아서시여 의논을 하듯 말씀하시였다.

《우리 이렇게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 유격대에서 이번에 전투를 크게 이겼고 또 이고장 여러분들과 만나서 여러가지 뜻깊은 일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계기로 우리 조선사람들의 기세를 떨치기 위하여 여러가지 계획들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그 한고리로서 우리 유격대와 동네사람들이 합쳐서 래일쯤 운동회를 한번 가지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동네사람들은 농사를 시작해야 하고 우리는 싸움을 또 하러 나가야겠는데 한번 힘을 떨쳐보고 기세를 돋구는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운동회를 하면 서로 합심해서 단결하는 힘도 생기고 즐겁게 놀게도 될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운동회라니 저 대처학교같은데서 하는것말입니까?》

리경서로인은 짓물려들어가는 눈귀를 깝작거리며 얼굴을 쳐들였다. 더부룩한 염소수염이 봄바람에 가볍게 날린다.

《형님도 참.》

하고 춘서가 안타깝다는듯이 가로맡아나섰다.

《그 씨름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패가 엇바꾸어 달리는것도 있구요.》

《맞았습니다. 뽈도 찰수 있습니다. 우리 부대에 축구뽈도 있습니다. 옥돌골로 나가다가 보니 저 둔덕아래 넓다란 버덩이 있던데 운동장으로 쓰기가 아주 좋을것 같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벌써 밝아지는 마음을 느끼며 말씀하시였다.

《옳습니다. 그게 바로 단오때 씨름터우다. 그앞에 있는 느릅나무에다 그네를 매지요. 참 좋소다. 형님, 장군님말씀대로 합시다. 이사람, 자네 생각은 어떤가?》

갑성이 아버지 춘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바람에 서한복은 좀 떨떨해졌는지 경서로인의 눈치를 살피며 어물어물 말했다.

《저 그렇게 되면 그 음식들은 어떻게 하겠는지요?》

《아따 이사람, 걱정도 팔잘세. 음식이야 씨름판에 내다놓고 먹으면 더 좋지 뭘 그러나?》

춘서가 또다시 앞질러 가로맡아나섰다.

《이 사람은 씨름이다 하면 오금을 못쓰는군. 씨름을 하면 임자가 장원을 할것 같은가. 유격대와 같이 한다는데… 장군님, 이 사람이 우리 회양동의 씨름군이지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게 퍽 좋을듯 합니다. 동네사람들에게 장군님의 말씀을 전하면 모두 좋아들할것입니다.》

서한복이 침착하게 말하였다. 경서로인도 이제는 말귀가 틔였는지 고개를 끄덕거렸다.

《생각해보니 맹탕 술이나 퍼먹는것보다 그것이 얼마나 뜻이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헌데 정작 운동회를 하자면 무슨 마련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구장 이사람, 래일까지 그 차비가 될듯 한가?》

경서로인은 서한복을 돌아보며 마을의 어른답게 위엄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올시다. 그 운동장도 닦고 또 장군님 모시자면 차일도 치고 해야 할텐데… 지금 동네에서는 온통 음식차비에 정신이 팔려있어서…》

서한복이 어정쩡하게 중얼거리는것을 바라보시던 사령관동지께서는 소리내여 껄껄 웃으시였다.

《운동회준비를 어렵게 생각하실것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래일 그저 몽땅 동네사람들이 떨어나서면 됩니다. 옥돌골이나 휘풍동에도 우리가 련락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리고개가 멀지 않았는데 무슨 음식차비를 하겠습니까. 낟알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무슨 술이나 떡 같은것은 일체 못하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모처럼 한번 놀아보자는 여러분의 심정이 리해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살아갈 생각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햇곡식이 날 때도 멀었는데 낟알을 마구 없애서야

되겠습니까. 래일 놀음은 걱정할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두 맡겨두십시오. 그러면 무슨 음식같은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놀수 있습니다.》

김일성동지의 말씀에 세사람은 어리둥절했다.

갑성이 아버지가 잠시 주저하다가 마음을 다진듯 사령관동지의 곁으로 다가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써 그의 마음속을 읽어보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힘을 합쳐 일제를 반대하는 싸움을 더잘 벌릴수 있도록 기세를 떨치기 위하여 하루를 즐겁게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귀한 낟알을 꼭 없애야 맛이겠습니까?》

춘서는 어떻게 하나 **김일성**장군님과 유격대를 위하고싶어하는 동네사람들의 성의를 받아달라고 다시한번 간청할 기회만 엿보고있다가 사령관동지의 이러한 질문을 받고 좀 당황해졌다. 아무리 마음은 간절하나 동네사람들의 어려운 살림을 걱정하시는 장군님의 심려가 너무 고마와 더는 다른 말씀을 드릴수가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춘서의 허둥거리는 대답을 들으시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며 말씀하시였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저 꼭 동네어른들에게 대접해야 할것이 있으면 간단히 점심이나 나눌수 있게 준비하는것은 별일 없을것입니다. 그밖에는 각자가 자기 집에서 점심을 먹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회는 유격대에서 조직하는데 따라 움직이도록 합시다. 내 우리 동무들에게 그렇게 이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할아버지생각은?》

사령관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겨 묵묵히 따라오는 리경서로인을 돌아보시였다.

《예, 좋습니다. 이처럼 밝으신 처사에 몽매한 늙은이들이 달리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 세사람을 앞세우시고 걸음을 늦추시여 따라오는 강봉수에게 필요한 지시를 주시였다.

얼마후 사령부에서는 오백룡과 조진범이 중심이 되여 각 련대들에서 올라온 대표들과 함께 래일 운동회를 가지기 위한 조직사업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운동장을 닦는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우선 운영문제를 짜기 전에 7련대와 8련대에서 마을앞버덩에 운동장을 꾸리러 내려갔다.

사령관동지께서 리경서로인일행과 함께 동네를 한바퀴 도시면서 몇집 들리여 이야기를 나누시고 동구밖으로 나오시니 어느새 삽, 괭이따위 쟁기를 멘 유격대원들이 마을앞버덩에 하얗게 덮여 벌써부터 승벽이 나서 운동장을 닦고있었다.

《과연 축지법을 쓰는 군대가 다르기는 다르군.》

리경서로인은 감탄한 나머지 입밖에 소리내여 중얼거렸다.

6

경기종목을 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밤새 론의가 있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락착을 보았다. 처음에는 달리기, 줄당기기, 사격, 무기분해결합, 씨름 등 온갖 종목들이 다

예견되였으나 마을사람들을 참가시켜야 한다는 사령관동지의 말씀에 비추어 실제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합당한것이 별로 많지 못했다. 결국 마을청년들을 참가시켜 축구시합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론의가 그것으로 끝난것은 아니였다. 축구시합을 하는데는 조를 갈라야 하겠는데 휘풍동, 회양동, 옥돌골 세 동네 청년들로써 따로 한조를 내고 7, 8련대에서 각각 한조, 경위중대와 독립대대를 합쳐 한조 이렇게 네조로 하자는데 합의를 보기까지 두시간 가까운 론쟁을 해야 하였다.

운동회가 있으니 준비를 하라는 통지가 있은 다음부터 부대들에서는 밤을 새워가며 선수선발 등 준비로 끓어번지는데 이것이 시간따라 변하기때문에 동네마다 밤새도록 와- 와- 끓었다. 휘풍동쪽에서는 옥돌골로, 옥돌골에서는 회양동쪽으로 한밤중에 서로 정찰을 띄워보냈다.

아침식사가 끝날무렵에는 벌써 경기장에 선수들이 모여들어 뽈을 차기 시작하였다.

군수관 조진범은 제 배낭속에 간수해두었던 뽈을 밤사이 바람을 불어넣어 빵빵하게 해놓고도 새벽같이 김태규가 달려들어 뽈을 내라고 하니 벌써 누가 가져갔다고 잘 내놓지 않았다. 그도 말은 사령부 군수관이라고 하지만 은근히 경위중대편이라 기왕이면 경위중대에 조금이라도 뽈을 더 채우고싶어서 그러는것이였다.

《군수관동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렇게 사를 보기요?》

김태규는 울컥해서 대들었다.

《사를 보다니, 내가 사를 본게 뭐 있다고 그래? 이 동무가 별스럽게 말하는군. 그렇게 승벽을 내면 8련대가 우승을 할것 같아서 그래? 아무래도 경위중대를 못당해요.》

조진범은 능글능글 웃으며 약을 올렸다.

《내가 뭐 8련대가 돼서 그러는줄 아시오? 난 마을청년들의 지도원이란말이요.》

《동무가? 그건 언제 그렇게 됐나?》

《언제 그렇게 되긴? 어제부터 그렇게 됐지요.》

《글쎄 누가 동무에게 그런 분공을 주었나말이야?》

《자, 이렇게 답답하다구야, 그거야 우리가 마을에 들어설 때부터 다 그렇게 작정된 일 아니요.》

《흠, 모를 일이군그래. 동무가 마을청년들 팀을 지도하는가?》

《그렇지요,》

《허－ 그거 안됐는데… 사령관동지께서 마을사람들을 생각하시는것을 보면 한꼴쯤은 내야 하겠는데 동무가 지도해가지구야 어디 되겠나…》

조진범은 정말 불안한 표정이 되여 고개를 기웃거렸다.

《이거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러시오? 내가 본시 경위중대 축구선수였다는것을 모르오? 경위중대에서 떠나면 축구기술도 없어지는줄 아시오？》

《내 전에 장백 있을 때 동무 뽈차는것을 다 봤기에 하는 소리야. 그건 그렇다치고 동무가 진짜 마을청년들 팀 지도원인가?》

《자, 이 아바이가 끈끈도 하다. 내가 옥돌골청년들과의 공작을 맡은것을 모르시오?》

《음, 그런 소리는 들은것 같다. 그러니 동무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책임을 지게 됐구만. 사령관동지께서 이번에 운동회를 조직하신것도 실은 마을사람들의 사기를

고무하고 유격대와 인민들사이의 련계를 강화해서 우리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자고 하시는건데 그러고보면 동무가 진짜 마을청년들을 잘 지도해서 이기도록 해야 할거란말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소. 그 뽈 누가 가져갔소? 좀 찾아주시오.》

김태규는 조진범의 말귀가 좀 열리는 눈치를 채고 바싹 달라붙었다. 그러나 조진범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능청스럽게 말하였다.

《이미 가져간 뽈을 누가 내놓겠대나.》

《대체 누가 가져갔소? 그 뽈이 지금 어디 있소?》

《가만, 그럴것 없이 나한테 예비가 하나 또 있으니 그거라도 가져가게.》

《예비? 그럼 뽈이 두개란말이요?》

《두개든 세개든 그런것은 동무들이 알것 없네.》

그러면서 조진범은 주인집 실경우의 함지박속에서 빵빵 불어난 뽈을 꺼내여 김태규의 가슴에 안겨주었다.

김태규는 미심쩍은 눈길로 조진범의 능글능글한 얼굴을 뜯어보다가 뽈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아니 이거야 그전부터 차던 그 뽈 아니요?》

《글쎄 그런건 동무들이 알것 없대두. 자, 그런데 운동장차비는 다 됐나…》

조진범은 자꾸 이야기를 하다나면 제 속심이 드러날것 같아 슬쩍 피하여 동구밖으로 어슬렁어술렁 앞질러 걸어갔다.

《헤, 능청스러운 아바이로군.》

김태규는 혼자 중얼거리고나서 운동장과는 딴 방향으로 해서 마을청년들을 대기시켜놓은 언덕너머로 달려올라갔다.

그는 달리면서도 복잡한 궁리를 하였다. 아무리 생각해야 승산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아직 뽈을 차보지는 않았지만 세 동네 청년들을 모아놓고 축구를 해봤다는 사람들을 다 뽑아내니 겨우 세사람밖에 안되였다. 거기에 축구라는 말이라도 들어본 사람을 합치니 일곱명, 김태규자신이 마을청년들속에 섞이여 찬다 해도 여덟명밖에 안된다. 그런데 축구를 해봤다는 세사람이라는것도 대단히 껄끔하였다. 그 세사람가운데 그중 아는체하며 나서는것이 손영백인데 이 사람은 기왕에 도회지바람을 쐬고와서 그런지 아무것이나 모른다는게 없었다. 그래도 세 동네에서 시국물정에 그중 밝고 또 이런 산골에서 홀몸으로 돈벌이를 떠날 담보를 가진 사람이라 무슨 일을 해도 제낄손은 있었다. 더구나 사령부 조직과장이 직접 내려와서 자주 그를 만나는것을 보면 속이 단단한 사람같았다.

짐작같아서는 자기가 마을청년들속에서 공개된 활동을 한다면 조직과장은 비밀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를 하는것 같았다. 이래저래 김태규가 동네에서 공작하는데 그중 의거하는 대상이 그 손영백이였다.

모록한 소나무숲속에 아늑한 공지가 있었다. 새 잔디가 아직도 노르끼레한 색을 띠고있는 한 무덤가에 스무나문명나마 되는 마을청년들이 모여 와짝 떠들어대고있다. 씨름을 안고있는것이다.

《동무들, 씨름은 중지요. 축구뿐이요. 자, 좀 련습합시다.》

김태규는 언덕을 올라오는 참 뽈을 내질렀다. 마음먹고 내찼는데 생각한것처럼 시원하게 잘 나가지 않았다.

《아니 씨름은 왜 그만둔대요?》

심판을 보는지 훈수를 하는지 가운데 들어 그중 목청을 돋구고있던 성만이가 허리를 펴고 돌아서며 물었다. 뽈은 공중을 날아서 그의 발앞에 와 떨어졌다. 발끝을 안쪽으로 눕히며 잡는다는것이 헛발질을 해서 공은 다시 공중으로 튀여올랐다. 손영백이가 재차 내려오는 뽈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그것은 그래도 제법 텅 소리를 내며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다.

《씨름이나 달리기는 해봐야 개인경기기때문에 볼맛이 없고 결과가 뻔드름하다는거요. 그리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 축구에서 기어코 이겨야겠는데… 정말 영백동무는 좀 해봤구만. 그럼 동무들은 모여서 좀 차보오. 우리는 여기서 전술을 좀 짭시다.》

태규가 말할 사이도 없이 청년들은 와- 하며 뽈을 쫓아갔다.

누구의것인지 뽈과 함께 짚신짝이 하늘높이 날아올랐다. 와- 하고 웃음통이 터졌다.

《자, 이거 신이 또 문제다…》

성만이와 영백이앞에 종이장을 꺼내놓고 주머니에서 연필을 더듬어찾던 김태규는 뽈보다 더 높이 날아오른 짚신을 보고 생각에 잠겼다.

《가만, 내 다시 좀 내려갔다올테니 동무들끼리 초벌 짜보오. 그런데 신발문수를 다아는 재간이 있나. 좌우간…》

그는 속으로 선수로 꼽고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신발문수를 가늠해보았다.

신은 다 한심하지만 고무신은 끈으로 동여맬셈치고 그나마 없는것이 다섯동무였다. 그런데 옥돌골의 손영백이는 신이 없을뿐아니라 발이 어찌나 큰지 짐작에 전부대를 들추어도 맞는 신을 찾아낼것 같지 않았다.

김태규가 고개를 기웃거리며 언덕을 내려가는데 저앞에서 장경수가 씩씩거리며 달려올라온다.

김태규는 뽈을 가지러온다는것을 눈치채고 얼른 되돌아달렸다. 그러나 어느새 그를 띄여본 장경수가 소리쳤다.

《소대장동무, 소대장동무-》

태규는 하는수없이 멎어섰다. 그러면서 뽈차는 청년들을 향하여 연방 눈짓을 하였으나 무슨 영문인지 알아차리지 못한 한 친구가 보라는듯이 한번 냅다질러서 뽈은 바로 김태규의 앞으로 날아왔다. 결이 난김에 한번 맞받아찾더니 맞은편에 있는 소나무를 공중날아넘어 골짜기아래로 굴러갔다.

《야-》

환성이 터져올랐다.

《여보 소대장동무, 뽈을 가지고 달아나면 경기는 어떻게 하라는거요?》

얼마전까지만 해도 같은 소대에서 너나들이로 지내던 장경수는 마주서자마자 볼부은 소리를 하였다.

《달아나긴 누가 달아나, 련습을 하는거지.》

《련습을 하는데 이렇게 숨어서 하면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거요?》

《숨어서 하지 않으면 동무들 보는데서 하란말이요? 전술이 다 드러나게…》

《전술? 하하하.》

장경수는 어이가 없어서 한바탕 웃었다.

《내려가기요. 운동장에서 모두 기다리오.》

《여보, 유격대야 뭐라오. 기왕 뽈차던 사람도 많은데… 이건 생짜란말이요. 내 좀 련습시켜가지고 내려가겠소.》

《련습은 무슨 련습, 한 반시간 련습해서 무엇이 좀 나아질것 같소. 그러지 말고 이제 대전을 어떻게 하겠는지 모르겠는데 가령 마을사람들하고 7련대하고 붙는다 하면말이요, 8련대에서 새로 입대한 동무들을 몇사람 꿔온단말이요. 그다음에는 또 딴데서 좀 꾸고…》

《그것도 그럼직한데…》

김태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그럴수 없소. 그게 마을청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것 같지 않소. 다른 수는 없을가?》

《그거 뭐 복잡하게 그럴게 있소. 정정당당하게 내놓고 하면 될것 아니요. 선수가 모자라서 좀 보충했수다 하고말이요. 그러면 그 누구도 말 못할게란말이요. 좌우간 뽈을 가지고 모두 갑시다. 운동장에 나가서 같이 련습해보기오.》

김태규는 하는수없이 청년들을 데리고 장경수를 따라갔다.

그러나 운동장에 나가보니 그의 걱정은 전혀 필요없는것으로 되였다.

마지막으로 경기일정을 보신 사령관동지께서 마을청년들을 따로 한조로 내온것은 그만두는게 좋겠다고 말씀하신것이였다. 조그마한 동네에서 축구팀을 하나 만들어서 유격대와 시합을 시킨다는것은 아무래도 대상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마을사람들의 기만꺾게 될테니 차라리 지금 유격대의 주둔지별로 마을청년들을 유격대 각 팀에 몇사람씩 의무적으로 섞어넣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한창 선수명단을 조절하느라고 야단들이였다. 한팀에 마을사람들을 세사람씩 꼭꼭 참가시키기로 되였는데 그 마을사람들을 몽땅 김태규가 데리고 가버린데다 료해가 없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것이다.

김태규가 나타나니 각 부대의 주장들이 저마다 잡아끌었다.

이야기를 듣고난 태규는 마음이 놓이는 대신 어쩐지 좀 허전해졌다. 시합을 한대야 질것은 뻔했지만 그만둔다 하니까 오히려 경기란 해봐야 아는건데 잘하면 이길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경기가 시작되였다. 출전팀은 셋이였다. 7, 8련대가 각각 한팀씩이고 경위중대와 독립대대를 합쳐서 또 한팀을 만들었다.

첫경기는 경위중대와 8련대 사이에 벌어졌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경기장 한쪽옆에 따로 마련한 자리에 동네로인들과 함께 앉으시였다. 처음 경기장을 닦을 때부터 그런 타산을 했기때문에 그네를 매군 하던 느릅나무그늘이 바로 사령관동지께서 앉으신 자리에 드리우게끔 하였다.

동네에는 아낙네, 처녀들은 물론 남정들도 축구라는 말을 못들어본 사람이 태반이라 희한한 구경거리가 났다고 모두 명절차림들을 하고 떨쳐나섰다.

사령관동지께서 그렇게 말리셨는데도 옥돌골이나 휘풍동에서는 지짐을 부치고 떡을 쳐서 꾸려온 사람도 있고 까마귀병에 술을 담아가지고 온 중년들도 적지 않았다. 돌아다니며 봐야 많지도 못한 산재부락들인데 몽땅 떨쳐나서고보니 경기장둘레에 사람담벽이 이루어졌다. 거기에 크고작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사타구니사이로 쏙쏙 빠져나오며 부산스레 돌아쳤다.

《이 금안으로 들어서면 안됩니다. 앞사람들은 모두 앉으시오. 그러면 널직이 서서 얼마든지 볼수 있는데 왜 이렇게들 미시오. 자— 조금씩 물러섭시다. 야— 이 좁쌀친구들, 어디 가서 한자리에 앉아라!》

경기장의 질서유지를 책임진 강봉수가 돌아가며 소리쳤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가 와서 소리를 칠 때는 좀 물러서는척 하다가 어느새 조금씩조금씩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여 강봉수가 두번, 세번 그어놓은 금을 침범하군 하였다.

《아, 자꾸 나가지 말라구 하쟁이요. 에그 극성도스럽다.》

한 아주머니는 누가 밀지도 않는데 몸을 뒤흔들며 슬쩍 앞으로 한발자국 내밀었다.

《그 아주머니 꽤 보채는군.》

옆에 서있던 장정이 어이없다는듯 중얼거리다가 저도 따라나섰다.

《자, 이거 또 나갈내기야. 그럼 나도 나가야지.》

그옆에 서있던 청년은 몰래 한걸음씩 나서는것이 무슨 재미있는 놀음이라도 되는듯이 휘휘 눈치를 살피다가 히쭉 웃으며 냉큼 나서서 시치미를 뻑 따고섰다.

강봉수는 저쪽구석까지 사람들을 밀고나갔다가 뒤를 돌아보고 기가 막혀서 허허 웃었다.

웃동을 벗어붙이고 경기장 한복판에 나가서있던 7련대의 신길남이 아무래도 더는 시간을 끌수 없다고 보아 호각을 획- 불었다. 그는 첫경기의 심판이였다. 호각을 목에 걸고 손에는 회중시계를 들었다. 사령관동지의것이였다.

《경위중대, 8련대 나오시오.》

그러자 경위중대와 독립대대의 혼성팀쪽에서 먼저 줄을 지어선 선수대렬이 달려나왔다. 앞에는 주장인 장경수가 서고 뒤로 단단히 신들메들을 해신은 유격대원들이 따라섰는데 마감 세사람은 바지를 입은 마을청년들이였다.

《아니 저게 김준삼동무가 아닙니까?》

사령관동지께서 박덕산을 향해 물으시였다.

아까부터 경위중대선수대렬을 유심히 살피고있던 박덕산은 입을 꾹 다물고있다가 범상한 어조로 말씀드리였다.

《그런것 같습니다.》

《허허허, 그러니 8련대가 어렵게 됐습니다. 간도에서 소문이 난 동문데 견디겠습니까?》

《그렇다고 준삼동무 혼자서 다할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허허허, 어쨌든 8련대로서는 첫경기부터 재미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째 8련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박덕산의 안색이 심각하게 변하는것을 흥미있게 살펴보시였다.

8련대쪽에서는 지금 웃동을 벗어붙인 선수들이 한절반은 얽혀돌아가며 웅성거리는데 아직 무엇인가 차비가 안된 모양이다. 거기서도 중대장, 소대장들이 어서 나가라거니 말라거니 하며 떠들어댄다.

박덕산이 못보는척하면서도 연신 그쪽으로 눈길을 보내고있는데 김태규가 신한컬레를 들고 달려 지나갔다.

《태규동무, 어떻게 된거요?》

덕산은 침착하게 물었다.

《정위동지, 한동무 신이 없어서 그럽니다.》

《신이 없다니, 누가 없소?》

《손영백이라고 동네청년인데 발이 어찌나 큰지 우리 부대에는 맞는 신이 없습니다. 이거면 맞겠는지…》

하며 김태규가 쳐드는것을 보니 거지반 판이 다 난 로동화이다.

《일들을 참 떨떨하게 하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런데 그 신이야 뭐 큰게 있소. 그걸 나주고 이 신을 신겨보오.》

덕산은 사령관동지쪽을 몰래 돌아보며 슬쩍 제신을 벗어서 내밀었다. 늘 신이 맞지 않아서 고생하는 그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덕산이가 시치미를 뻑 따고 점잖게 앉아있지만 신을 서슴없이 벗고나서는것을 보면 그 역시 승벽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속으로 웃으시였다.

경기장에서는 신길남이 연신 호각을 불어댄다.

드디여 경기는 시작되였다.

《아니 어째 뽈을 발로만 찬다오? 손으로 훌 걷어넣으면 좋쟁이오?》

성만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들어가서 뽈을 차는바람에 부쩍 기가 돋아서 지켜보는데 어찌다 문전에서 뽈을 잡은 성만이가 헛다리질을 하는바람에 긴장됐던 장내에 와- 웃음통이 터져오르자 알수 없다는듯이 중얼거렸다.

《손으로 집어넣으면 좋겠지만 어디 손에 집어들 사이나 있슴둥. 번개같이 달려드는데 손으로 잡자다가 밟히겠소다. 저거 보지, 저 아주바이는 껑충 뛰면서 손으로 잡쟁이오.》

이런 상수네 아주머니 말에 옆에 있던 늙수그레한 남정이 알은체하며 설명을 하였다.

《손으로 뿌려서야 저렇게 큰 공을 얼마나 멀리 뿌려내겠소. 발로 드립다 차야 멀리 가지.》

《모를 소리다. 그래도 저 문대에 넣어야 이긴다는데 발루다 어떻게 맞혀내겠슴둥.》

구경군들이 이처럼 떠들어대는 가운데 경기는 점점 열을 띠여갔다. 지난 겨울 눈속에서 경위중대끼리 하던 시합과는 달리 이것은 본격적으로 문을 세우고 경기장규격도 제대로 잡고 하는 정식경기라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또 선수들이 지난 겨울의 행군기간에 치여난 몸이 채 추서지 못하여 한동안 뽈이 향방없이 오락가락하였다. 중학교시절에 벌써 축구선수로 소문이 난 김준삼이조차도 이따금 헛다리질을 하였고 마음먹고 내지른 뽈이 풀밭을 몇바퀴 디굴디굴 구르다가 채 문대까지 가기도 전에 멎어버리기도 하였다.

그대신 선수들은 서로 무던히 몰려서 비비댔다.

그래도 찬찬히 보면 역시 뽈차는 솜씨가 뛰여나는 선수들이 눈에 띄였다. 경위중대, 독립대대혼성팀에서는 역시 김준삼이, 장경수, 거기에 나이 어린 김재영이가 날쌔게 돌아치며 많은 활동을 하였고 방어로선 리성림이가 이따금 차례지는 뽈을 처리하는데 아주 책임적으로 정확하게 하였다.

8련대에서는 김태규가 역시 그중 낫고 동네청년들속에서는 방금 박덕산의 신을 얻어신고 들어간 손영백이가 괜찮게 뽈을 찼다.

《저 사람이 3년만에 개화경을 끼고 나타났다는 동무입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나란히 앉은 리경서로인에게 물으시였다.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원체 깼습지요. 그러다나니 좀 싱거울사한데도 있지만 아무일에나 빠지지를 않습니다.》

《아직 개화경을 끼고다닙니까?》

《웬걸요. 그걸 구경하겠다고 세 동네에서 근 한해를 두고 그 집으로 몰려다니더니 그 집 아이녀석이 아주 박산을 내고말았답니다. 다섯살난놈이 어른들 몰래 그걸 끼고나갔던 모양입니다. 헌데 개가 놀라서 접어드는바람에 혼이 나서 내빼다가 넘어졌다나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래도 개가 그냥 짖어대니 그것을 벗어서 활 집어던졌다는군요.》

《허허허, 아까운걸 그랬습니다.》

《동네에서 모두 분해하였지요. 그래도 그 사람은 대범해서 껄껄 웃으며 아낙이 쨍쨍하는걸 오히려 눌러놓았답니다. 지금도 아마 그 개화경다리는 그 집 어디에 있을것입니다.》

그러는사이 경기는 아슬아슬한 고비에 이르렀다. 오백룡이 저도 모르는사이 엉덩이를 들썩들썩한다. 처음부터 선수들이 그쯘하게 째인 경위중대쪽에서 훨씬 우세하여 뽈은 그냥 8련대문전에서 오락가락하는데 웬일인지 꼴을 내지 못하였다. 그것도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8련대는 열한명의 선수들이 몽땅 자기문전에 모여들어 방어를 하는데 거기에 또 경위중대쪽에서는 방어수 한사람만 남겨놓고 다 꼴을 내겠다고 공격에 달라붙었다. 그러다나니 온통 다리투성이라 뽈이 다리에 걸려 어디로 뚫고나갈 짬이 없었다.

이러루한 경기에서는 승부가 반드시 실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외의 결과를 빚어내는 일이 드물지 않다. 그러기때문에 축구의 물계나 아는 오백룡은 자기네 문전을 다 비워놓고 억지로 꼴을 내보겠다고 덤벼치는 경위중대 선수들이 미타하게 생각되여 연신 불안한 눈길을 굴렸다. 그러나 그 역시 먼저 한꼴을 내버리면 마음을 놓을것 같아 괜히 뽈을 끌고 이리저리 몰다가 빼앗기군 하는 김준삼이가 안타깝게 생각되였다.

《혼자 몰지 말고 련락하라구, 련락!》

그는 마침내 소리를 쳤다.

리경서로인이 담배대에 부시깃을 갖다대다가 놀라 흠칫하고 고개를 드는바람에 이번에는 깃에 불이 번져 아따따 하고 손을 털었다.

《허허허.》

사령관동지께서 웃으시자 오백룡은 얼굴이 벌개졌다.

《중대장동무가 몸이 달아서 저럽니다. 이제 저 뽈이 저 기둥을 해세운 문대안에 들어가야 이기는것인데 그것이 잘 안돼서 그럽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영문을 몰라 두리번거리는 로인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시였다.

《예, 알겠습니다. 거 과연 잘들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올리뛰고 내리뛰고 해서야 숨이 차서 어디 견디겠습니까? 과연 수고들을 합니다.》

로인은 왕청같은 소리를 심중하게 하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오백룡이 몸이 달아하는것을 힐끔힐끔 곁눈질해보며 태연한척 앉아있는 박덕산이는 실상 자기도 모르는사이 제 다리를 움찔움찔하였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한참 돌아치다가 신들메가 풀려진 김태규가 경기장 한가운데 혼자 퍼더앉아서 신을 고쳐신고있는데 8련대문전에서 갈팡질팡하던 뽈이 마침내 김준삼의 다리에 정통으로 걸렸다. 좋은 기회를 얻은 준삼은 마침 문대에서 거리도 좋고 각도도 좋아서 반대쪽 구석을 겨누어 힘껏 내질렀다. 그러나 지나치게 좋은 기회는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것이 아니다. 뽈은 정확하게 엉거주춤해있는 문지기의 눈앞을 총알같이 스치며 반대쪽구석으로 쌩하니 날아갔다. 소문난 공격수가 마음먹고 지른 뽈이라 세고 날랜 뽈이였다. 그런데 그 뽈이 문대에 가 정통으로 들어맞고 튀여나와버렸다. 튀여나와도 문앞 어디쯤에 떨어졌다면 그앞에 여러명 우글거리던 경위중대공격수들이 가볍게 발만 갖다대도 문대안으로 굴러들어가겠는데 일이 안될 때라 맞을 때 어찌나 세게 맞았던지 새벽에 구뎅이를 파고 묻어넣은 이깔나무기둥이 삐딱이 기울어졌다. 그리고도 뽈은 날아올 때와 같은 속도로 경기장복판까지 튀여나가서 신들메를 조이고있던 김태규앞으로 굴러갔다. 마침 일어서려던 김태규는 이게 웬 떡이냐 해서 뽈을 잡는참 앞을 바라보았다. 경위중대문전까지는 광활한 땅에 사람그림자 하나 없었다. 반대편 기슭에 방어수

한사람이 서있다가 달려오지만 아득한 거리였다. 그는 주저없이 뽈을 내찼다. 몰 필요도 없고 재간을 부릴 필요도 없다. 문전가까이까지 내찬 뽈을 죽으라고 따라가서 잡으니 경위중대 문지기 강철룡이가 눈이 커다래서 자리를 못잡고 갈팡질팡하며 소리친다.

《빨리 들어오라, 빨리! 김태규! 너 어디 두고보자!》

마지막 말은 누가 못듣게 그러나 위협조를 섞어 내뱉었다.

그러나 심판도 못 따라올 먼거리라 별수없이 그 뽈을 강철룡이 혼자서 겪게 되였다.

《저리로 쏴라! 친선경기야! 친선! 없다, 없어!》

숨을 헐떡거리며 성난 상사말처럼 짓쳐들어오는 김태규의 땀이 번들거리는 얼굴을 겁에 질려 바라보며 강철룡은 재차 소리쳤다.

구경군들이 와- 들고일어났다. 오백룡이도, 박덕산이도 나중에는 사령관동지께서도 일어나시였다.

그러자 리경서로인까지 이게 모두 일어나는 판인가보다 해서 주섬주섬 담배쌈지랑 부시돌을 그러쥐며 덩달아 일어나서 중얼거렸다.

《거 참 잘하는군.》

강철룡이가 아무리 위협을 했지만 안될 때라 김태규의 귀에는 그 소리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심지어 량편의 응원소리와 구경군들의 떠나갈듯 한 환호성조차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기회다 하는 생각뿐이다. 침착해서, 침착해서…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지만 따라잡자면 아직 멀었다. 내찼다가는 빗나갈수 있다. 강철룡소대장을 슬쩍 골려서… 옳지, 네가 이쪽으로 쏠리는구나…

김태규는 뽈을 발끝에 달고 한걸음한걸음 밀고들어갔다. 그런데 경기에 익숙하지 못한 강철룡은 뽈만 보며 뒤걸음치다나니 그물도 없는 문대뒤로 빠져나갔다는것도 모르고 그냥 뒤걸음질이다.

《야! 차라!》

마침내 역증을 폭발시킨 강철룡이가 이렇게 소리쳤을 때는 꼴은 이미 나버린 뒤였다.

신길남이 호각을 획 불며 뽈을 주어다 중앙선에 갖다놓았다.

《한심하군… 앞으로 나가 덮칠게지.》

오백룡은 분한 나머지 주저앉을 대신 벌떡 일어났다.

《그래도 강철룡동무가 침착하구만. 그런판에 한꼴만 먹는다는것이 쉽지 않지.》

박덕산이 천천히 앉으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8련대선수들이 김태규를 목말을 태워가지고 와– 환성을 지르며 달려오고 8련대 응원석에서는 너들너들 춤을 추며 돌아갔다. 잠시후에는 어디서 얻어왔는지 양푼 두드리는 소리, 꽹과리소리까지 들려왔다.

경기장둘레는 점점 열기를 띠여갔다. 사람들의 얼굴도 데쳐놓은것처럼 벌겋게 달아올랐다.

오백룡이 혼자 기분이 나빠서 사령관동지 몰래 자리를 빠져나가더니 강철룡이가 얼이 나간것처럼 멍청하니 서있는 문대뒤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그러나 경기는 또 아까처럼 8련대문전에서 벌어지고있었기때문에 경위중대문쪽에는 아무도 주의를 돌리지 않는다.

《이리 나오라구.》

오백룡은 강철룡의 옆구리를 잡아당겼다.

《중대장동무요? 참 기가 막혀서… 방어수라는게 다 제 뿔뿔이로 돌아치니 어디 해먹겠소.》

《나오라니까.》

오백룡은 덮어놓고 또 소매를 잡아끌었다.

《아니 왜 그러오다?》

《왜 그러고 뭐고 동무는 틀렸어. 나가라구.》

이러고있는데 8련대쪽에서 뿔을 몰고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심판이 문전에 문지기가 둘이 있는것을 보고 눈이 둥그래서 손을 내흔들었다. 급해맞은 오백룡은 강철룡을 강제로 내보내고 제가 문가운데 뻗치고섰다.

다행히 뿔은 정지성이가 중간에서 잘라내여 멀리 내차버려서 위기는 가셨지만 강철룡은 밀려나가지고도 치근치근 달라붙었다.

《꼴을 먹은게 나혼자 책임이란말요?》

《그건 이따 두고보기요. 도대체 동무는 선수자격이 없소. 장경수가 동무를 소대장이라고 해서 내세운 모양인데 동무를 세우느니 차라리 빈 문으로 둬두는게 좋겠소.》

오백룡은 이러면서 옷동을 벗어붙였다. 그리고는 앞을 살피는데 또다시 뿔이 넘어올 기미가 보이자 정지성이가 앞질러 달려들어왔다. 아까 불의의 반공격에 싱겁게 한알을 먹고난 다음부터 경위중대의 방어수들도 경각성이 높아졌다. 오백룡이 들어가서 큰일을 칠것처럼 서둘렀지만 결국 전반전은 1대 0으로 8련대가 앞선 가운데 끝이 났다.

그런데 후반전이 시작되여 문을 바꾸는바람에 사령관동지 계시는데서 멀리 떨어져있던 8련대 꼴문이 바로 눈앞이 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경위중대 문지기가 바뀌인것을 아무도 모르고있었는네 후반전이 시작되고보니 문지기는 전반전대로 강철룡이가 다시 들어서고 그대신 어수룩한 최병규가 밀려났다.

박덕산은 자기네 문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오백룡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까부터 오백룡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은 했으나 무슨 일때문에 나갔겠거니 해서 별로 주의해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경기장에 들어가서 날뛰는것을 보니 도무지 피가 끓어 참을수가 없다.

그는 사령관동지의 눈치를 살폈다. 사령관동지께서도 오백룡을 처음으로 발견하시였다.

《아니 오백룡동무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방금까지 여기 앉아있었던것 같은데…》

《경위중대장어른이 아까부터 나가서 뽈을 찼지오다.》

하고 리경서로인이 대답을 올렸다.

《내 저기 저 기둥 있는데서 한사람 밀어내고 들어가는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높은 간부가 돼서 발질을 잘합니다.》

《허허허, 저 경위중대장동무가 본시 축구선수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흡족하시여 축구에 대해 전혀 아는것이 없는 로인에게 그때마다 친절하게 설명하시였다.

《전년에 우리 동네에도 제기를 잘 차는 사람이 있었지요. 김치경이라고 후창사람인데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를 만나서 정신을 잃고 벼랑으로

굴러떨어졌답니다. 그게 어혈이 져서 1년만에 종내 죽었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한몫 할걸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 잘하고 춤 잘 추고…》

이러는데 경기장의 정세는 또다시 긴장되였다. 오백룡이가 뽈을 몰고 마구 내달리는데 어찌나 무섭게 내뛰는지 감히 누가 접어들 엄두를 못낸다.

《중대장동무, 이리로! 이리로!》

김준삼이 한걸음 앞질러 빈구석으로 달리면서 소리친다. 8련대문전에는 아슬아슬한 위기가 조성되였다.

오백룡은 김준삼의 말은 들은체도 않고 곧장 문앞으로 달려가더니 상대방 방어수들이 와- 몰려들자 뽈을 슬쩍 김준삼에게 넘겨주었다.

준삼은 안타까와 발을 구르던 참에 뽈이 넘어오니 엉겁결에 냅다질렀는데 워낙 소문난 솜씨라 거칠것 없이 꼴문을 째고 날아갔다.

《와-》

하늘이 무너질것 같은 함성이 터져올랐다.

박덕산이 벌떡 일어났다. 자기도 모르는사이 웃동을 벗어붙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어느새 숨을 씩씩거리는 박덕산의 거동을 눈여겨보시다가 리경서로인의 두루막자락을 슬쩍 잡아끄시며 덕산을 보라고 눈짓하시였다.

덕산은 그것도 모르고 발을 내려다보니 신이 없다. 아까 신을 바꾸어주고 어방없이 작은것을 뒤축을 꺾어신고있었는데 잠시 내려다보다가 두짝 다 훌 벗어팽개쳤다. 그리고는 곧장 경기장으로 달려나갔다.

심판이 뽈을 중앙선에 갖다놓고 다시 호각을 불려다가 한손을 쳐들고 달려들어오는 덕산을 보자 놀라서 나가라고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그러나 덕산은 경기장안에 들어가서 두리번거리다가 그중 약해보이는 대원 한사람을 밀어내고 제가 그자리에 섰다.

덕산이가 경기에 참가하게 되자 장내는 더욱 끓어번졌다.

오백룡이도 뽈을 괜찮게 찼지만 덕산은 몸집이 커서 그가 한번 뽈을 잡기만 하면 범접하기 힘들고 또 빨랐다. 그런데다 잔뜩 열이 올라서 눈을 희번덕거리며 돌아가는바람에 기가 약한 사람들은 감히 맞서지를 못하였다.

《하하하.》

사령관동지께서는 통쾌하게 웃으시였다.

얼마나 천진란만한 사람들인가. 조국을 광복하고 인민을 구원하겠다고 싸움에 떨쳐나서 10년세월 숲속에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다 겪었지만 가장 뜨거운 인간미를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는 전사들을 보시니 왜 그런지 가슴 한구석이 징하니 젖어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으시였다. 저렇게 어질고 곧은 사람들이 무엇때문에 짓밟혀야 하는가. 저런 인간들을 용납하지 않는 계급사회를 어찌 참다운 인간들의 사회라고 하겠는가.

오백룡이와 박덕산이 들어가서 맹활동을 했지만 별로 큰 역할은 못했다. 그대신 선수들뿐아니라 응원군들의 가슴에까지 불을 달아놓았다.

후반전에 들어가서 박덕산이와 오백룡에게 관심이 쏠려가는 사이 경위중대의 중간방어수들인 정지성이와 리성림이가 서로 련락을 잘해서 한쪽 귀퉁이로

몰고들어가다가 정지성이가 넘겨준 뽈을 성림이가 머리받이로 우습게 한알을 넣어버렸다.

결국 경기는 2대 1로 경위중대편에서 이겼다.

후끈 달아난것은 박덕산이였다. 그는 다음경기는 아예 자기가 처음부터 나갈 차비로 휴식시간에 선수들을 몽땅 불러앉혀놓고 전술을 짰다.

다음경기는 7련대와 경위중대였다. 방금 경기를 한끝에 계속해서 경기를 하게 되는것때문에 서로 안하겠다고 뻗대다가 제비를 뽑아서 대전하는 차례가 정해진것이라 경위중대는 딱 싫은것을 억지로 들어갔다. 그런데 역시 그것이 불리해서 그런지 어쨌든 경위중대는 별로 맥을 못쓰고 두꼴이나 먹었다. 공격은 김준삼이가 거의 독판치다싶이했지만 매번 빗나가기만 하였다. 만일 정지성이와 리성림이가 둘이 발을 맞추어 방어를 잘하지 않았다면 두꼴을 더 먹었을는지 모른다.

《리성림동무가 기왕에 못해본 체육이 없다더니 확실히 뽈을 잘 찹니다. 훈련만 제대로 했다면 거의 전문선수만큼 찰것 같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마구 차대는 엉터리선수들가운데서 별로 날뛰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요진통에 자리를 잡고있다가 매번 깨끗하게 뽈을 차고 정황을 능숙하게 처리하군 하는 성림을 유심히 살피시며 말씀하시였다,

《본시 재간이 있는 동무입니다.》

사령부 조직과장이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렇습니다. 저 동무에게 기회를 주면 경위중대가 두꼴씩 먹고 저희들은 한꼴도 못내서 저렇게 초조해 돌아가지 않겠는데 김준삼동무가 오랜 선수라니 모두 김준삼동무에게만 뽈을 들이민단말입니다.》

《그래도 리성림동무와 정지성동무가 방어를 잘하니 7련대의 저 불같은 공격을 그만큼이라도 막아내는것 같습니다. 리성림이하고 정지성이 발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집단경기에서는 집단주의정신이 있어야 하는건데 저 지휘관들을 보시오. 모두 독판치기거던. 뭐 여기서는 인민적작풍이란 꼬물만큼도 없군. 허허허.》

사령관동지께서는 경기다 하면 체면불구하고 기가 돋아서 펄펄 뛰는 지휘관들을 사랑스럽게 살펴보시였다. 그것이 얼마나 인민적인가. 높은 사람이라고 틀이나 차리고있는 인간들이라면 전사들이 결코 그들을 친형처럼 따르지도 않을것이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고 나서지도 않을것이다.

마감경기는 차례에 의해서 7련대와 8련대사이에 벌어졌다. 이번에는 아까 경위중대가 겪은 고충을 7련대가 겪게 되였다 .이번 경기의 심판은 정지성이였다. 그가 속으로 타산해보니 여기서 7련대가 이기면 결국 7련대가 우승을 하고 경위중대는 2등밖에 못한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비기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 정지성은 중간휴식시간을 각박하게 지켜 20분이 되기 전에 제먼저 경기장에 나가 선수들을 나오라고 소리쳤다. 이번에는 8련대가 먼저 나가섰다. 방금 경위중대와의 만만치 않은 경기를 치르고 난 7련대에서는 아직도 가쁜숨이 가라앉지 않은 때라 좀체로 일어날 차비가 아니였다.

경기가 시작된 때로부터 내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던 오중흡이 이때에야 얼굴을 내밀었다.

《아니 이거 심판이 공정해야 될것 아니요. 아까는 30분이나 쉬는 시간을 주었는데 왜 이번에는 소변볼 짬도 안주면서 이렇게 볶아치오?》

《련대장동지, 경기와 경기사이의 휴식시간은 20분으로 미리 정해져있습니다. 어서 내보내십시오. 그러지 않다간 규률점수를 깎겠습니다.》

《뭐 규률점수? 그런것도 있소? 여보 정동무, 그런데 선수들이 숨을 좀 돌려야지 방금 뛰고난 동무들을 그자리에서 불러낸단말이요.》

《그야 마찬가지지요. 아까 우리는 안그랬나요?》

《그런데 아까는 이렇게 짧지 않았단말이요.》

《아 시계를 보면서 하는건데 틀림이 있겠습니까.》

정지성은 시계를 흔들어보이며 말했다. 그는 무척 엄격하게 하는척했지만 사실은 오중흡의 수에 넘어가고있었다.

오중흡은 시간이 됐다는것을 자신의 시계를 가지고도 알고있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선수들에게 여유를 주기 위하여 일부러 심판에게 시비를 걸어 시간을 끌고있는것이였다.

그는 오백룡이나 박덕산이처럼 경기장으로 웃동을 벗어붙이고 뛰여들지는 않았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경기에 열을 내며 돌아갔다. 지휘관자리로 마련해준 곳에 얼굴도 내밀지 않고 처음부터 련대에 가서 선수들을 데리고 전술을 함께 짰으며 나가라,

들어가라 하고 소리를 치고 선수들을 불러서 누구누구를 봉쇄하라고 속삭이기도 하였던것이다.

이처럼 오중흡이 수를 써가며 시간을 끌었지만 한경기분의 시간을 푹 쉰데다 한번 실패한데서 교훈을 찾고 든든히 짜고나온 8련대를 당할수는 없었다. 전반전은 7련대편이 공격을 더 많이 해서 우세해보이는듯 하더니 후반전에 들어가자 눈에 알리게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어쩐지 앞선 경기의 피로뿐만아니라 고난에 찬 지난 겨울의 흔적까지 드러나는듯 하였다. 숨이 차서 달리지를 못하고 뽈을 잡아도 픽픽 쓰러지군 하였다. 그래도 꼴을 먹지는 않던것이 경기마감시간을 10분쯤 남겨놓고 박덕산이가 뽈을 잡더니 《나가자!》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8련대의 선수들이 문지기 하나를 내놓고 몽땅 떨어나서 공격에로 나왔다. 그것이 박덕산이가 근 두시간동안 토론하고 궁리하고 론쟁을 한끝에 짜낸 전술이였다. 뽈을 차는것이 아니라 열명의 선수들이 몽땅 달라붙어 억지로 구겨박다싶이 한꼴을 내버렸다. 그러자 시간이였다.

이때 경기장 바깥에서도 하나의 사건이 생겼다. 8련대선수들이 7련대문전으로 짓쳐들어가자 구경군들도 덩달아 와- 소리를 치며 한쪽으로 쏠렸는데 그 사품에 내뛰던 리춘서의 아들 갑성이가 넘어져서 마침 경기장을 만들 때 찍어낸 나무그루터기에 이마가 째졌다.

꼴을 낸 8련대응원석에서 또다시 양푼을 두드리며 춤을 추고 련대정위까지 목말을 태우겠다고 떠들썩 돌아갈 때 상수의 아들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기네 대장격인 정섭이를 찾아왔다.

《아저씨, 큰일났어요. 갑성이 죽어가요.》

정섭이는 자기 련대가 꼴을 먹었기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마음에도 없는 박수를 치고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섰다.

《왜 그러니? 어디 아파?》

《피가 막 나요. 빨리 가자요.》

상수의 아들은 정섭이의 팔을 끌고 냅다달렸다.

아닌게아니라 갑성이는 손바닥을 이마에 갖다대고 울고있는데 어른들한테 욕을 먹을가봐 소리도 크게 못치고 쿨쩍거리기만 한다.

《어찌다가 이렇게 됐니?》

정섭이는 피가 질펀한 아이의 손바닥을 잡아제끼며 다급히 물었다.

《나무뿌리에 찔렸어요. 달려가는데 저 휘풍동령감이 밀쳤어요.》

상수의 아들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령감을 눈을 흘겨 돌아보며 고해바쳤다.

《휘풍동령감이 뭐냐? 할아버지보고…》

정섭이는 이렇게 말하며 사위를 두리번거렸다. 상처는 그리 대단치 않았지만 피를 멈추어야 하겠는데 당장 가진것이 없다. 버릇처럼 주머니와 옷섶을 뒤적거리던 그는 불에 덴것처럼 흠칫했다. 손에 말큰한 촉감이 느껴진다. 명주수건이다. 순간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필네의 얼굴이 커다랗게 확대되여 떠올랐다. 그것을 꺼내자니 어쩐지 가슴이 허전하였지만 어쩌는수 없는 일이였다. 유격대는 인민을 위한 군대가 아닌가.

정섭이는 대홍단전투때 본대로 제 탄띠에서 많지도 않은 탄알 한알을 꺼내여 화약을 상처에 바르고 아직 한번도 써본적 없는 새하얀 명주수건을 동여맸다.

이날은 여러가지로 뜻깊은 날이였다.

저녁은 동네에서도 유격대에서도 푸짐하게 차렸다.

밤에 대규모적인 오락회가 벌어졌다. 그리고 바로 이날밤에 회양동에 조국광복회조직이 무어졌다.

사령부 조직과장의 지도밑에 리춘서를 책임자로 선거한 첫 회의에서는 수일후 마을청년들을 다 망라한 반일청년회를 내올데 대한 분공이 손영백에게 주어졌다.

7

새로 《련합토벌사령부》자리에 올라앉은 혼마중장은 일체 신비주의를 싫어하였다. 입밖에 내여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자신은 《야마도다마시이》라는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매우 드물게 하는 연설에서는 그 역시 《야마도다마시이》가 일본제국의 정신적공간임을 력설하지 않을수 없었고 바로 그때문에 그의 성격은 침울해졌다. 그는 안팎이 다른 자기의 말이 그 누구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만일 그런 쓸데없는 미사려구를 희롱하는데 정력을 소모하지 않고 지휘관들이 지휘를 능숙하게 하며 병사들이 자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힘껏 싸우게 한다면 **김일성**유격대문제는 진작 해결되였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온 나라를 기울여 들이대는 《야마도다마시이》에 대한 선전이 오늘날 일본의 이른바 국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고 무모한 불장난을 합리화하고있으며 사람들을 미치게 하여 아무런 개인적리익도, 국가적리익도 없는 광란적소동에로 내몰고있다는것도 그는 알고있다.

엄청난 돈과 시간과 정력을 바쳐 수행하고있는 이 우민화정책에 의하여 국민들의 눈, 입, 귀가 틀어막혔을뿐아니라 소위 정책작성자들의 머리까지도 돌아버렸다. 그리하여 어느덧 그자들은 실지로 《야마도다마시이》라는것이 있고 그것을 내휘두르면 일본제국이 《세계최강》으로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어떤놈은 미국의 돈과 석유와 파철로 전쟁을 하면서도 그 미국과 전쟁을 해보려고 날뛴다. 그런가 하면 남들이 《잠자는 사자》라고 업수이보니 저도 그럴것만 같아서뿔리 중국에 접어들었다가 광막한 대륙의 진펄과 숲과 초원에 빠져 어쩔수없이 장기전에 끌려들고말았다.

고양이새끼가 소대가리를 맞다든 격이 된 일본군대가 다시 쏘련과 전쟁을 해보겠다고 노몽한으로 쳐들어간것은 《야마도다마시이》를 리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풀수 없는 수수께끼일것이다. 파쑈열에 들뜨고보니 사물이 모두 꺼꾸로 서보이는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파쑈열에 머리가 다소라도 돌지 않는다면 이 몸부림치는 광란의 세기를 어떻게 살아갈것인가.

그러나 혼마는 결코 자기를 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쳐돌아가는 나라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적도 없고 그 광란에 몸바칠 생각도 없었다. 그가 보건대 일본이 중국대륙을 경영한다든가 쏘련이나 미국과 본격적인 전쟁을 하겠다는것은 일본을 위해서 전혀 필요치도 않고 될성부른 구석도 전혀 없는 정신착란자의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은 문제가 다르다. 만일 중앙에 틀고앉은 중신, 정객들과 특히는 군부의 이다가끼, 도죠 하는것들이 현실을

똑바로 볼 눈을 가졌다면 노몽한에 군대를 들이밀것이 아니라 **김일성**유격대의 소멸에 온 국력을 기울였을것이다.

하시모도가 목이 잘리여간 다음 그자리에 들어앉은 이와구니가 자기 어깨에 중장견장을 달아주고 데라시마 대신 《련합토벌사령관》으로 임명하였을 때 혼마는 눈앞이 아찔하였었다. 사실 이다가끼도 그렇고 도죠도 그렇고 일본이 펼치고있는 수많은 전선가운데 가장 곤난한 전선이 이 전선이라는것을 모르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이 문제는 일본의 군사, 정치적통제가 이미 확립된 지대의 문제라 이것을 거족적인 국책으로 내세우기 어렵게 되여있는것이다. 그들은 만주나 조선을 다 먹어치웠다는것으로 하여 오늘의 지위와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제 다시금 막대한 군대와 돈을 내여 그것을 재차 《평정》하겠다면 아무리 어리석은 천황도, 중신도 고개를 기웃거릴것이다. 그러니 겉으로 일을 크게 벌리지 않는척하면서도 실속있는 대책을 취하자고 그들딴에는 골을 쓰고있는것이다.

혼마는 자기를 과대평가하지도 않았지만 과소평가하지도 않았다. 이와구니가 자기를 **김일성**유격대와의 전선에 배치한것은 역시 이와구니의 눈이 밝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며 바로 그때문에 자기는 개고생끝에 죽게 되리라는것을 예감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히 그를 비관에 빠뜨리지는 않았다. 그는 데라시마처럼 우둔하게 덤비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사업을 그 어떤 특무들의 롱락물로 만들수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혼마는 관동군수뇌부가 요구하는 방침에 따라 《일적섬멸주의》를 요점으로 하는 치표계획과 특수선무공작사업을 골자로 하는《토벌》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와구니를

찾아갔다. 전임 부참모장 하시모도에 비해볼 때 이와구니는 훨씬 신축성이 있는 인간이였다. 그는 정규전을 들이대겠다는 자기의 방침에 대해 그런것은 《토벌사령관》 자신이 전적으로 마음대로 하되 다만 한가지 래년봄까지 만주대륙과 조선에 공산주의자들과 그 군대만 없어지면 그만이라는것이였다. 결국 과정은 자유로 내버려두되 오는 봄에 가서 책임만 묻겠다는것이였다.

그는 이 엄청난 주문을 내놓으면서 이 여름에 제국은 **김일성**유격대와의 전선외에 중국과의 전선도 있고 그우에 만몽국경선에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펼친만큼 각 전선에서의 작전을 동시에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여름에는 4만～5만정도의 병력으로써 **김일성**유격대를 될수록 좁은 지역안에 봉쇄해서 《일적섬멸주의》를 강하게 내밀며 여기에 특수선무공작을 잘 배합해서 적어도 가을까지는 최종《토벌》을 끝내는 방침을 취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의견은 시마끼소좌를 비롯한 유력한 **김일성**유격대 전문가들도 찬성하고 또 우에다사령관과 참모장도 지지한다는것을 은근히 암시하였다.

그러면서도 그 방침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혼마는 그것이 오히려 쓰거웠다. 우로는 사령관으로부터 아래는 특수선무공작반장까지 찬성한다면 그만이지 그걸 반대할 인간이 관동군안에 어떻게 있을수 있단말인가.

이와구니 역시 자기라는 인간을 리해하고있다. 내맡기면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힘껏 일한다는것을 내다보고있는것이다. 혼마는 쓰거운 웃음을 짓고 그날부터 줄곧 잠을 줄였으며 일체 주색을 금해버렸다. 륙도구의 사령부로 옮겨앉은 다음은 집에도 들리지

않았으며 신경에 볼일이 있어 가는 경우에도 려관집 드나들듯 잠시 집에 들려 눈을 붙이는 정도에 머물고 가족들과 별로 상종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이 국내로 쳐들어간것을 보고 랑패감을 느꼈으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점도 없지 않았다. 이제 유격대가 조선에 건너갔으니 그렇다면 유격대《소멸》에 대한 과업을 직접 수행해야 할 사람은 조선주둔군사령관 나까무라대장이 아닌가. 그러나 또 유격대가 압록강을 다시 건너올수 있으니 그때는 이쪽에서 자루같은 포위진을 만들어놓고있다가 훌 걷어넣으면 될판이다. 그래서 혼마는 자기 관하에 배속된 부대들을 6도구로부터 24도구에 이르는 압록강기슭에 밀집대형을 지어 늘여세웠다. 그런데 웬걸 유격대는 나까무라대장의 뺨을 본때있게 후려갈겨놓고 두만강쪽으로 훌쩍 날아가버렸다.

혼마는 처음 한동안은 기가 찼다. 그러나 역시 대상이 **김일성**장군의 유격대라는것을 생각할 때 자기가 너무나 단꿈을 꾸고있었다는것을 깨닫고 쓰거운 웃음을 지었다. 이와구니 역시 그렇게 쉽사리 《토벌》성과가 이루어지리라고는 당초부터 기대하지 않았노라고 대범하게 나왔다.

이와구니의 의견에 따라 부랴부랴 두만강쪽으로 부대를 이동시켜 좁은 지역에다 유격대를 봉쇄하여 《소멸》할 계획을 세우고 부대들을 하나하나 배치하였으며 그 주둔구역들에 손수 나가보고 엄정한 질서를 세워나갔다. 지방무력까지 합치면 4만정도 —이와구니는 더는 증강을 바라지 말라고 잘라말했지만 단지 유격대를 좁은 지역에 봉쇄해놓고 치는것이라면 증강을 더 청할것도 없을것 같았다.

그는 지도를 들여다보자마자 두만강기슭으로부터 올라오던 도로가 안도, 돈화와 화룡으로 갈라져나간 증봉산일대를 그러한 구상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지점으로 짚었다. 확대경으로 거듭 뜯어보고 훑어볼수록 올기강기슭 백일평이야말로 이해여름의 《토벌》 성과를 든든히 밑받침하는 거점이라는 판단이 굳어졌다. 두만강 류역치고 제일 높은 고지인 증봉산을 타고앉아 화룡, 안도, 돈화 세현을 련결하는 도로를 차단해버린다면 마치 유격대를 자루안에 걷어넣고 그 자루목을 틀어쥐는것이나 같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한 혼마는 부랴부랴 봉천2려단의 주력을 올기강기슭 백일평에 배치하고 도로를 봉쇄할 축성물공사를 다그쳐댔다.

자기의 기도가 현지에서 어떻게 실현돼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오늘 화룡에 들려보니 그럭저럭 일은 괜찮게 돼가는듯 한데 관례에 따라 지방관리들과 유지들이 그를 주연에 초대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초대에 응했으며 짧지 않은 시간을 바쳐 속들여다뵈는 연설을 참을성있게 들었다. 모두 달라붙어 그에게 술을 먹이자고 들었다. 그러나 그는 받는 잔마다 주런이 제앞에 벌려놓았을뿐 입에 대지를 않았다.

흥성거리던 술자리는 밤이 깊어갈수록 취기가 가시여졌다. 자정이 되여 헤여질 때 길림1려단장과 봉천2려단장 그리고 현경찰국장이 쑤군거리는 소리를 엿들으니 그것들이 어지간히 정신이 든 모양이였다.

《이거 처음부터 말째게 구는데…》

봉천2려단장 장조의 말이였다.

《그래보라지, 제가 목을 잘 친다면 이쪽은 내빼는 재주가 있으니까.》

현경찰국장 유경문의 대꾸이다.

길림1려단장은 코를 흥흥 내불더니 노래가락조로 웅얼거렸다.

《아사라, 너무 그러지를 말라구 해. 혼마도 한달전까지는 다 같은 소장이였어. 내 술에 독을 친줄 아느냐, 개자식!》

혼마는 소변을 보면서 혼자 쓴웃음을 짓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네놈들이 정신을 안차릴수야 없지.》

단지 께름한것은 한자리에 앉아 자기 흉내라도 내는것처럼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랭랭히 도사리고있던 시마끼소좌의 표정이였다.

혼마는 그자의 매부리코와 이따금 송곳끝처럼 찌르고드는 그 올빼미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데라시마가 모리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가 하는것을 대충 들어서 알고있었던만큼 이와구니에게 자기의 방침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련합토벌사령부》가 시마끼소좌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시마끼소좌를 《토벌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자기를 그 휘하의 한개 부대장으로 임명하는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와구니는 껄껄 웃으며 시마끼는 아직 소좌로서 축척이 큰 지도는 볼줄 모르기때문에 사령관직을 감당할것 같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였다.

그 시마끼가 자기 먼저 여기에 나와 틀고앉았다. 알고보니 특수선무공작반에서 쓰는 지도는 자기네 사령부에서 흔히 쓰는 축척보다 더 큰 50만분의 1지도였다. 그가 자기보다 더 넓은 전선에 걸쳐 적을 대하고있다는것을 생각하니 불쾌하였다.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튼 어디서나 맞서고싶지 않고 만나고싶지 않은 사나이였다.

숙소는 유경문의 집에 정하겠다고 하는것을 꾸짖고 려관에 자리를 잡았다. 유경문의 애비가 화룡굴지의 대지주이고 금천동에 만주중공업산하의 광산과 맞먹는 광맥을 독차지하고있는 대부호이며 만주국 실권자들가운데는 그의 옛동료가 많아서 다루기 만만찮은 인물이라는것을 혼마도 들어서 알고있었다. 그러기에 혼마는 더구나 그 집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하루밤의 안락한 생활과 향락을 위하여 체모를 잃고싶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래일중으로 안도방향을 돌아 새로 사령부를 옮긴 길림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작정이였다.

김일성유격대가 두만강을 건너 화룡땅을 휩쓸고있으리라는것은 모든 징후로 보아 명백하였다. 그렇다고 전임자들처림 서뿔리 접어들지는 않을것이다. 지방무력으로 어디까지나 방비를 강화하면서 이 여름에 최후소탕전을 위한 전투준비의 만전에 력량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밀림에 잎이 지면 사면팔방에서 포위를 좁혀들여야 한다. 유격대가 가는곳 도처에 《토벌대》가 있고 경찰이 있고 보위단이 있게 하여 단 한사람의 유격대라도 맞다들리면 물고늘어져서 한걸음한걸음 죄여든다면 제 어디로 갈텐가. 아무리 이 대륙이 넓다한들 한두개 현을 철통같이 포위하여 죄여든다면 제국이 그처럼 안타까이 바라는 그 결과를 얻어내고야말것이다.

지금 화룡에는 기왕 있는 한개대대의 수비대와 경찰무력, 보위단외에 길림과 봉천에서 2개려단의 위만군, 한개 대대의 독립수비대를 증강하였으며 특별히 **김일성**유격대의 《토벌》에 쓰기 위하여 경험있는 포수들로 조직한 《신선대》를

연길지방에서 끌어다놓았다. 이쯤한 무력을 여기에 집결해놓았으니 올기강기슭을 자루목처림 막아버리기만 하면 필요할 때 능히 포위망을 형성할수 있을것이다.

덤빌 필요는 없다. **김일성**유격대를 없애는 일은 제국이 힘겹게 뻗치고있는 가장 중요한 전선의 승리적결속을 의미하는것이다. 따라서 이 일을 신중하게 대하지 않고 공을 탐내여 덤비던 모든 인간들이 참패를 당한것은 응당한 일이다.

나는 결코 영웅도 위인도 아니니… 분수있게 놀아야지. 내가 개인의 힘으로 **김일성**장군과 대결한다는것은 망상이다… 그러니… 시마끼라는 놈은 확실히 기분나쁜 놈이다. 그놈은 무엇때문에 술도 안먹고…

혼마는 기껏 화려하게 꾸리노라고 했지만 어딘가 촌티가 구석구석 내배이는 지방려관의 자기 침실에서 이 궁리 저 궁리 하다가 혼곤히 잠에 취해들어갔다. 그러다가 멍멍 하고 개짖는 소리에 번쩍 눈을 떴다. 경비원들이 데리고있는 군견들이 짖는 소리였다.

이어 복도의 널마루를 쿵쿵 울리며 다급히 다가오는 소리가 났다. 부관의 걸음걸이였다.

무슨 일이 생겼다는것을 깨달은 혼마는 어둠에서 군복을 찾아입은 다음 불을 켰다.

부관은 잠잔 흔적이라고 없는 혼마를 보자 송구한듯이 보고하였다.

《각하, 현경찰국장이 급히 만나뵈올것을 청합니다. **김일성**유격대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답니다.》

《들어오라고 해라.》

혼마는 조용히 말하였다.

《시마끼소좌가 함께 왔는데요.》

《그도 들어오라고 해라. 그리고 저 군견수들을 다 돌려보내라. 산속도 아닌데 필요없다.》

《알았습니다.》

부관이 물러간 사이 혼마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고 어쩐지 탁하게 느껴지는 방안의 공기를 갈았다.

바깥에서는 구질구질 비가 내리고있었다.

8

이보다 앞서 유경문은 무엇인가 못 먹을것을 먹고난 뒤처럼 메슥메슥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갔었다.

마차가 집앞에 이르자 어느새 늙은 드난군이 달려나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이지도 않는 어둠속에 허리를 깊숙이 숙이고있다.

마차는 울창한 정원수들사이를 지나 몸채의 현관앞에 이르렀다.

《아니, 아저씨, 이제사 오세요? 아까부터 전화가 자꾸 오는데.》

응접실에서 처제 수련이가 읽던 책을 손에 든채 달려나오며 말하였다.

《전화가 어데서 와?》

유경문은 모자를 한손에 벗어들고 열려져있는 응접실쪽으로 들어가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뒤늦게 달려나온 안해의 몸종이 모자를 받아들고 먼저 자기 침실로 갔다. 그제야 안해가 기웃이 고개를 내민다. 어찌면 한피줄을 타고난 자매간이 이처럼 다른가. 수련이에 비해 안해 채련이는 단지 나이를 좀더 먹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옹근 한세대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

안해도 본시는 미인소리 듣던 녀자였다. 장인인 리경하가 비록 삼촌과 오랜 학교 동창이요, 당대에 이름이 알려진 학자이기는 하지만 채련이당자가 박색이였다면 안해로 맞아들일 생각을 절대로 안했을것이다.

그 당시로 말하면 아버지는 말할것 없고 삼촌도 아직 그렇게 큰 돈을 모으기 전이였기때문에 그 압력이 그리 대단할것도 없었다. 그런데 봉산동 처가에 가서 선을 보니 그때의 채련이는 지금의 수련이보다 오히려 이목구비가 더 훤하고 몸매도 고왔다. 그렇던 녀자가 아버지의 사서삼경과 시집의 으리으리한 재부며 권세에 눌리여 어느새 퇴락해버린 옛집처럼 허울만 남았다. 게다가 자주 앓는다. 이번에도 산후가 좋지 않아 구석진 안방에 종일 혼자 드러누워 외로움에 쿨쩍쿨쩍 울기까지 하였다. 때마침 목단강에서 교원질을 하는 수련이도 몸이 좋지 않다고 봉산동집에 와있었다. 안해는 동생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청하였다. 자기 역시 안해의 궁상을 보는것이 싫어서 둘이 함께 있게 하였더니 처음 한동안은 자매간이 다 좋아하였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그들의 관계도 노상 좋은것만 같지 않았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수련이는 청렴한 학자 리경하의 막낭딸로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순진하고 쾌활한 처녀였다. 그러던게 도회지에 나가 학교물을 먹고나더니 신사조에 물이 들어 만나면 의례 까다로운 질문을 들이대여 사람을 골리려들었다.

《아저씨는 경찰국장인데 왜 부국장한테 그렇게 꼼짝을 못해요? 그 사람이 일본사람이 돼서 그렇다면 왜 선선히 자리를 내주고 나오지 못해요? 그쯤한 월급이 없어서 못 살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비틀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면바로 아픈데를 사정없이 찌르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왜 경찰을 백정이라고 하는지 이제는 알았어요. 오늘 장거리에서 아저씨네 부하가 웬 농사군을 피투성이 되도록 마구 때려서 질질 끌고가는데 끔찍하더군요. 아저씨도 그런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마주서있기도 무서워져요.》

그때마다 주먹으로 볼따귀를 쥐여박아주고싶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책상을 두들기며 속빈 호령질로 겨우 눌러놓지만 수련이는 눈이 깔끔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림으로써 더 도전적으로 나오군 하였다.

자기에게 그쯤 나오는 계집애가 어수룩한 제 언니를 가만둘리 없었다. 한번은 안방으로 건너가는데 열어젖힌 문사이로 성이 난 안해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성이 난 안해의 목소리를 듣는다는것은 상상도 못해본 일이라 경문은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그래 그이나 나나 다 속된 생활에 물이 젖었다. 그렇다고 네가 그렇게까지 말할수야 있니.》

《왜 말 못해요. 언니는 이 번쩍거리는 비단옷속에서 시들어가고있어요. 남편이 사람들을 못살게 굴어서 벌어들인 부귀영화라는것을 언니가 정말 모른단말이예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시집에 얽매인 몸이다. 네가 나를 언니로 생각하거든 그이나 우리 시집에 대해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말을 다시 입에 올렸다간 나는… 나는…》

《나를 동생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거죠. 아유- 케케묵은 봉건! 이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하는 부르죠아생활이 그렇게 좋아요. 여기에 무슨 사람다운것, 참다운것이 있어요. 허위와 위선, 음모와 패덕만 가득찬 이런 집에서 편안히 살이 찐다면 나도 언니를 언니라고 부르고싶지 않아요. 그런데 언니는 왜 이렇게 몸이 축가요? 살을 깎으면서까지 이 집에 얽매여있는것이 부덕인줄 아세요?》

《닥치지 못하겠니, 너 정 그런 소리 하겠거든 당장 봉산동으로 가거라.》

채련이는 뜻밖이리만큼 날카로운 소리로 부르짖더니 다음순간 쿨쩍쿨쩍 울기 시작하였다.

그날 유경문은 속이 부걱부걱 괴였으나 그런판에 얼굴을 내밀수도 없어서 발소리를 죽이고 돌아왔다.

수련이가 한 수작들을 생각하면 못된 물이 들어도 이만저만 든것이 아니다. 그런우에 무슨 까닭인지 자기와 집안을 옹호하여나선 안해도 너그럽게 대해지지 않았다. 안해의 태도에는 어딘가 강도의 소굴에 끌려온 녀자가 자기 운명에 순종하려는듯 한 체념이 풍기였다.

수련이는 굴레벗은 망아지같아서 제멋대로 내닫지만 자기 손아귀에 고삐를 단단히 틀어쥐고있는 안해라는 물건짝은 봉건륜리로 잘 개여놓은 떡반죽같아서 미처 주물러볼사이도 없이 손자리가 푹푹 나는게 갈수록 더 밉상이다.

만일 삼촌이 리경하, 리경하 하고 장인을 무슨 신선대하듯 하지 않는다면 두 자매를 한꺼번에 후려쳐서 내쫓았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삼촌에게 알려져서 노염을 산다면 주통사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은 자기옆을 곁눈질도 안하고 스쳐지나가버릴것이기때문에 매번 참는것인데 참자니 속이 편안치 않았다…

유경문이 연회장에서부터 자꾸 치받치는 트림을 삭이느라고 벼룩씹는 개모양으로 입을 씰룩거리며 응접실에 들어서자 안해가 근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또 취하셨군요.》

유경문은 안해를 대할 때마다 느끼군 하는 그 거미줄에 사로잡힌듯 한 초조하고 안타까운 생각을 억지로 털어버리듯 와락와락 걸어가서 누가 틀어놓은 전축의 스위치를 껐다.

《취했으면 좋겠소. 한번만이라도 실컷 취해봤으면 좋겠단말이요. 그래 어느놈이 전화를 걸어왔더냐?》

그는 이렇게 뇌까리며 가까이 있는 안락의자에 몸을 내던지다싶이 털썩 주저앉아서 장갑을 신경질적으로 벗어 접객탁자우에 내던졌다.

《아이 대단한 기센데요. 부국장한테서 왔어요.》

수련이가 팔짱을 꼭 끼고서서 차겁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자식은 무엇때문에 이 밤중에 찾는단말이냐? 하루종일 싫증이 나도록 상판을 맞대고있었는데.》

《무슨 중대사건이 생겼대요. 들어오시는 길로 곧 전화를 걸어달래요.》

《뭐 중대사건?》

유경문은 무의미하게 되묻고나서 손에 잡히는대로 탁자우에서 담배 한대를 집어 붙여물었다.

《얘야, 그 이야기는 두었다 래일아침에 말씀드릴걸 그랬다. 이렇게 늦어들어오셨는데 오죽 고단하시겠니.》

안해가 그래도 현숙한 티를 낸다고 제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수련이는 제 언니를 힐끔 돌아보더니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런 때 경찰의 제복을 입고 어떻게 편안하기를 바라겠어요? 아저씨, 도대체 현경찰국에서는 얼마만 한 사건이면 중대사건이라고 하나요?》

유경문은 야유조가 로골적으로 풍기는 수련의 말에 속이 울컥해서 겨우 타들어가기 시작한 담배를 깨끗하게 가셔낸 수정재털이에 마구 비벼끄고 전화에 손을 뻗쳤다. 교환이 부국장을 찾는 동안 그는 수련이를 똑바로 보며 엄숙하게 한마디 했다.

《경찰의 사업은 교양있는 처녀가 간참할 일이 못된다. 넌 그런데 흥미를 느끼기보다 하루빨리 몸을 추세워서 학교에 돌아갈 궁리를 해라.》

《그러지 않아도 난 며칠후에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이 집의 환경은 나같은 가난뱅이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는데 수화기에 부국장이 나타났다.

《인차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의 말은 첫마디부터 긴장되여있었다.

《무슨 일이요?》

《관내에 **김일성**공산군의 대부대가 나타났습니다.》

《뭐 **김일성**공산군? 어디에?》

유경문은 옆에 수련이가 눈이 초롱초롱해 듣고있다는것도 잊어버리고 다우쳐물었다.

《내가 연회장에서 돌아오니 대마록구경찰수비대장이 회양동 순경 한사람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이 하도 중대해서…》

《그래 어떻게 됐다는거요?》

유경문은 이렇게 말하면서 비로소 곁에 수련이가 있다는것을 상기하고 눈총을 쏘아서 저리 가라고 했다. 안해는 일본말을 모르니 셈에 칠것도 없지만 가뜩이나 수상한 책을 일쑤 잘 들여다보군하는 인테리처녀가 전화내용을 다 들으면 무슨 말썽을 일으킬지 모른다.

그러나 수련이는 못본척하고 저쪽구석의 장의자에 가앉아서 책을 펼쳐들었다.

《휘풍동일대에 **김일성**장군자신이 대부대를 이끌고 나타나서 주변일대의 경찰, 보위단을 몽땅 소멸하였으며 회양동에서도 분서원 한명을 사살하고 그곳 분서를 점거했답니다.》

《아직도 거기 있다는거요?》

《어제 뒤산에서 보고왔는데 낮동안 축구경기를 하고있더랍니다.》

《뭐 축구경기를 해? 당신 술에 취한게 아니요?》

유경문은 눈이 커다래져서 부르짖었다.

《취하다니요? 축구경기를 해도 이만저만하게 한것이 아닙니다. 세 동네가 떨어나서 종일 끓어번졌답니다.》

유경문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등줄기로 서늘한것이 흘러내린다. 자기가 벌써 식은땀을 흘린다는것을 깨달은 유경문은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래 보고했소?》

《아직, 국장님이 빨리 나와서 이 문제를 직접 처결해야 할것 같습니다.》

《알았소.》

유경문은 맥없이 전화를 놓으며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다. 무엇인가 절벽같은것이 앞을 탁 막아서는것 같았다.

그가 장갑을 더듬어쥐고 멍한 표정으로 일어나자 수련이도 신중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어떻게 됐단거예요? **김일성**유격대가 나타났대요?》

한대 얻어맞은것처럼 뗑해서 잠시 어찌할바를 모르고 서있던 유경문은 벌컥 화를 냈다.

《너는 왜 남의 전화를 엿듣고 야단이냐? 너 여기서 들은 전화내용을 조금이라도 비쳤다가는 혼날줄 알아라…》

《아이 무섭게 구네, **김일성**공산군이 나타났다는것이 뭐 새삼스러워서 그래요. 감추고있으면 딴 사람들은 영 모를줄 아는가봐.》

유경문은 다시 호령 한마디를 하려다가 자기 언변으로써는 도저히 수련이를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깨닫고 몸종에게 소리쳤다.

《모자! 그리고 말을 끌어내라고 일러라!》

유경문은 그길로 말을 집어타고 경찰국으로 달렸다.

그사이 비가 내려 땅은 질척질척하였다. 소리없이 내리는 비가 말갈기에 맺히여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얼굴에 비말을 뿌렸다.

경찰국에는 수비대장도 와있고 공작반장 시마끼소좌도 나와있었다.

이미 잠들었을 혼마에게 알릴것인가 말것인가 하는것을 가지고 여러 시간 공론하였다. 부국장 구리다니는 지금 보고하나 래일아침에 하나 마찬가진데 좋지도 못한 내용을 이 밤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시마끼는 내내 침묵을 지키고있다가 《그래도 해야 하오.》하고 한마디로 잘라맸다.

《그럼 누가 가겠소?》

유경문의 말이였다.

《그야 국장님이 가야지요.》

부국장은 확정적으로 말했다. 유경문은 속이 뜨끔하였으나 못간다고 할 형편도 못되여 사마끼의 눈치만 살폈다.

시마끼는 잠시 생각에 잠겨있었다. 사실 그들은 마치 자정이 넘은 밤중에 이 보고를 가지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것이 큰 문제인것처럼 신중하게 토의하고있었지만 실상은 그것이 극히 하찮은 문제라는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대마록구 수비대장의 말이나 회양동분서원의 말을 들어보면 현 관내에 조성된 사태는 보고하느냐 마느냐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것이였다. 유격대의 대부대가 그것도 **김일성**장군의 친솔밑에 관내에 출현하여 현내 경찰분서를 들이쳐서 세개 동네를 점거하고 앉았는데 가만히 있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대부대를 향하여 서뿔리 무력을 내보낼수도 없었다.

《갑시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오.》

시마끼가 음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면서 먼저 일어서니 유경문은 하는수없이 뒤따라 일어났다.

혼마중장은 침착하게 앉아서 보고를 받았다.

《시마끼군, 군은 이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나?》

유경문의 자기변명이 절반나마 섞인 지루한 보고를 참을성있게 다 듣고난 혼마는 가느다란 물부리에 권연 한대를 끼워물고 시마끼를 건너다보았다.

《우려할만 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각하.》

시마끼는 혼마의 속심을 알길 없어 일부러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술자리에 앉아 그렇게 좋아하는 술 한잔 입에 안대는 독종이니 서뿔리 입방아를 찧었다가 어느 코에 걸릴지 십상 모를 일이다.

《우려할만 한 일이지. 그들이 축구뽈로 우리 면상을 후려갈겼다고 볼수 있네. 그래 적세가 어느정도 되는지 그런것은 좀 아는게 없는가?》

혼마는 그러루한 대답을 예기나 하고있었던듯이 선선하게 받으며 다시 물었다.

《예, 대충 짐작은 하고있습니다만 짐작은 어디까지나 짐작이니 거기에 기초해서 전투계획을 세운다는것이 어떨가 생각됩니다.》

시마끼는 극도로 조심을 두어 될수만 있으면 자기 속을 한끝이라도 엿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물론 하나하나 세여보는것보다 못한것만은 사실이지. 그러나 짐작도 하지 못하는 우리 수비대나 경찰의 보고를 가지고는 도대체 아무런 전투도 진행할수가 없단말이야. 그래 적세가 얼마나 되나?》

《무산지구에 진출했을 때 대체로 600명정도의 력량으로 추산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무산지구로 나간것이 그들의 전부는 아니기때문에 그지간에 나머지 력량이 지금쯤 한곳에 집결되지 않았는가 짐작됩니다.》

《600명이라…》

혼마는 심중한 어조로 받아외웠다.

《600명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철통같은 국경경비를 종횡무진으로 무찌르고 조선에 대한 근 30년에 걸치는 제국의 통치에 그처럼 심대한 타격을 주었단말인가?》

《그렇습니다. **김일성**유격대문제가 오늘 제국의 운명자체를 위협하게 되는 근거도 거기에 있습니다. 군대의 수자가 문제인것이 아니라 모든 조선인들의 가슴속에 **김일성**장군이 살아있기때문에 어디서 **김일성**유격대가 나타났다는 소문만 돌아도 온 조선이 웅성웅성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작금년에 **김일성**장군의 유격대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강한 선전보도전을 들이대여 상당한 효과를 보았던것인데 이번 무산지구에서의 사건으로 하여 그 보복이 배가되여 제국의 면상을 후려쳤습니다.》

《흠-》

혼마는 신음소리처럼 혼자 웅얼거리다가 결단성있게 고개를 들었다.

《시마끼군, 그럴수록 우리가 이번 여름에 수행하기로 결심한 방침이 옳게 섰다는 확신을 나는 가지게 되네. 즉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화룡현경안에서 봉쇄해야 하네. 그러자면 서뿔리 군대를 움직이기보다는 우선 이 본부의 경찰토벌대를 그리로 급파하고 뒤로 현경찰력량을 증강해주는것이 좋을듯 한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실례입니다만 각하.》

하고 시마끼는 혼마의 결심이 그럴듯 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속마음을 가리우기 위하여 일부러 당돌한투로 말하였다.

《각하께서 념두에 두시는것이 유격대를 소멸하는 작전인지 아니면 시간의 여유를 얻기 위한 전술인지 본관에게는 그것이 똑똑치 않아서 어떻다고 확정적인 대답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일세. 내가 의견을 묻고싶은것이 바로 그 점일세. 시마끼군은 이 방면의 전문가가 아닌가?》

시마끼는 속으로 이놈이 아무래도 일을 칠놈이라고 혀를 빼물었다. 그는 잘못하다가는 덫에 걸린다는것을 생각하면서 확정적으로 말했다.

《그거야 당초에 명백한 문제가 아니던가요. 거듭 말하지만 제국이 **김일성**유격대때문에 받고있는 위협은 한두명의 경찰의 손실에 있는것이 아니라 실로 제국에 곁을 주지 않는 수천만민중의 민심에 있습니다. 그런것만큼 성전의 조속한 완수를 위해서나 륭성번영하는 제국의 튼튼한 지반을 위해서나 백관이 **김일성**유격대의 소멸을 위해 힘과 지혜를 아끼지 말아야 할줄 압니다.》

《과시 명철한 의견이네. 내 생각과 꼭같군. 나는 내 결심에 대해 군의 지지를 받는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네.》

그것은 곧 담화가 끝났다는 신호인 동시에 이제는 돌아가라는 지시이기도 하였다.

시마끼는 어쩐지 혼마에게 손바닥으로 면상을 올리씻기운듯 한 불쾌한 기분을 안고 려관을 나섰다.

시마끼가 사라지자 혼마는 뒤따라나가려는 유경문을 불러세웠다. 그리고 부관을 시켜 장조부대의 지도관을 불러오게 하였다.

《반편같은놈!》

엉거주춤해서 다다미우에 거북하게 다시 꿇어앉으려는 유경문의 면상을 송곳처럼 쏘아보며 혼마는 소리쳤다.

내내 기분나쁠만큼 조용조용히 말하는 혼마에 버릇된 유경문은 갑자기 터져오른 벼락에 흠칫 놀라서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어째서 그런 일을 시마끼에게 먼저 보고하는가! 너희들은 련합토벌사령부의 직접관할하에 들어왔다는것을 아직 모르는가?》

《예, 그것은 알고있습니다. 헌데 이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저도 썩 후에야 알았기때문에…제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미 그들은 알고있었습니다. 저는 연회장에서 곧장 집으로 갔기때문에…》

유경문은 뜻밖의 추궁에 몸둘바를 몰라 허둥거렸다.

혼마는 유경문이 애매하다는것을 진작 느끼고있으면서도 상욕을 마구 퍼부었다. 그의 욕설은 장조부대의 지도관이 들어와서야 겨우 그쳤다.

《일후에 다시 이와 같은 근무태만이 있었다가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이러한 말을 듣고서야 유경문은 손수건을 꺼내여 벌겋게 달아오른 목덜미의 진땀을 훔쳤다.

혼마는 마치 연극배우처럼 인차 낯빛을 조용히 가다듬고 녀자용같이 무늬를 돋친 가느다란 물부리에 권연을 끼워문 다음 전혀 딴 사람같이 부드럽고 침착한 어조로 말하였다.

《나는 이 사태에 림하야 아직 사령부적인 전투는 벌리고싶지 않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압록강쪽의 부대를 다 옮겨오자면 아직 시간이 걸린다. 그런만큼 너희들이 각기 자기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정황으로써 처리하기 바란다. 현경찰은 우선 가까운 지역의 경찰무력을 총동원하여 현지로 급히 출동시키라. 그래서 적세의 대소여하를 물론하고 과감한 돌격으로써 이를 소멸하라. 그리고 2려단에서는 백일평일대에 견고한 방어진을 구축하고 적의 출현에 대비하라. 적들은 틀림없이 휘풍동－옥돌골지경에서 북상을 기도할것이다. 이에 대처하여 올기강류역에서 그들을 대기하고있다가 안도, 돈화지경에로의 진출을 막아야 한다. 문제의 요점은 적들에게 한시도 여유를 주지 않고 보이는족족 소멸하는것이다. ＜일적섬멸주의＞를 명심하라. 알겠느냐?》

유경문도 2려단의 지도관도 혼마의 꿍꿍이를 전혀 리해할수 없었으나 힘있게 알았노라고 대답했다.

혼마도 그들이 전혀 리해한것이 없다는것을 넘겨짚고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는것이였다.

9

사령관동지께서는 국내로 들어가는 공작원들을 배웅하시려 몸소 옥돌골 뒤산까지 나오시였다. 거기서는 두만강의 흐름이 발아래 내려다보였다.

《지성동무, 한두놈의 적을 치는것보다 한두사람의 동지라도 굳건히 조직에 결속하는것이 우리 혁명에 더 절실한 문제라는것을 잊지 마시오. 풍산지구의 조직은 이미 장경수동무가 전번에 련계를 취해놓고 왔으니 흩어진 사람들을 어느 정도 찾아냈을것입니다. 그러니 동무들은 발을 붙이는 즉시로 풍산지구의 조직을 꾸린 다음 허천강발전소 건설공사장에 힘을 넣으시오. 전번에 장경수동무가 알아본데 의하면 허천강발전소 공사가 끝나는 즉시로 서두수로 그 공사판로동자들을 옮길 모양인데 미리 그속에다 조직성원들을 박아넣어야 합니다. 무산지구는 따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에서 서두수지구에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리는 기초는 아무래도 동무들이 닦아야 할것 같습니다. 자리를 잡거든 무기를 어디 깊숙이 파묻고 착실히 살림을 차리도록 하는것이 좋겠소.》

그러시면서 치마저고리에 머리를 쪽진 새각시차림으로 재봉대의 동무들속에 섞여있는 진옥이를 돌아보시였다. 금숙이도 채옥이도 번갈아 진옥의 손을 잡고 놓기를 아수해한다.

《명심하겠습니다. 그쪽에 가서 줄만 닿으면 장동무는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장동무를 보내는 문제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동무가 발을 든든히 붙이는것이 하나의 작전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만 결코 못한 일이 아닙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장동무가 거기 떨어져도 일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지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씀드렸다. 자기에게 김흥배라는 괜찮은 재산토대를 가진 중산계층인물의 호적등본을 비롯한 신원확인문건과 적지 않은 사업비까지 마련해주시고도 모자라는것만 같으시여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사업조건을 갖추어주려고 애쓰시는 그이의 자애로운 마음이 다시금 눈굽을 뜨겁게 해주는것이였다.

이제 마음에 걸리는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사령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부지런한 농사군이 묵묵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듯 국내인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스며들어 혁명의 씨앗을 줄기차게 뿌려나가면 되는것이다.

얼마전 혜산을 거쳐 풍산에 다녀온 장경수를 통하여 국내의 중요련락소인 흥아목재상에 앉아있는것이 다름아닌 아버지라는것을 비로소 알았다. 장경수도 놀랐다고 한다. 유성촌이나 백바위골 무남이에서 아버지를 만나볼 기회가 없었던 장경수라 공작상 제기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려 할 때 명주바지저고리를 점잖게 차려입고 앉아있던 목재상의 주인로인이 내가 바로 정지성이 애비요 하면서 자기와 진옥의 소식을 물었다니 놀랄만도 한 일이다.

백바위골 《토벌》때 가까스로 몸을 피해 13도구로 옮겨앉았다던 아버지가 어느새 강을 건너가 큼직한 기업을 차려놓고 그렇게 틀고앉아있을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사령부에서 보내준 자금으로 흥아목재상은 어지간한 관청은 다 끼고앉아 장사판을 크게

벌리고있으며 혜산일판에서는 이미 이름이 뜨르르하다는것이다. 노몽한사건에 대한 소식도 거기서 나온것이였다.

장경수는 홍아목재상의 연줄을 통하여 전투가 지나간 무산지구의 소식도 알아왔는데 적들은 그후 류석진로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민들을 잡아다가 족쳤으나 모두 유격대에서 시킨대로 강제에 못 이겨 짐을 지고 갔다든가 총알을 피해서 산으로 올랐다든가 하는 식으로 내뻗치니 며칠을 닥달하다가 별수없이 내놓았다고 한다. 무산지구에 올린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의 불길은 지금 무산지구뿐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가슴속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 무섭게 타번지고있다고 한다. 앙양된 인민들의 혁명기세를 조직화하기 위하여 홍아목재상은 사령부에서 직접 내보내는 공작원의 지시에 따라 겉으로 장사에 흥성거리는척하면서 실상은 선전물을 찍어내고 사처에 널려있는 조직들과 련계를 짓고 하느라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다는것이다.

이 한가지 사실만 보아도 이 여름에 사령관동지께서 구상하시는 지하정치활동의 규모를 엿볼수 있었다.

그저께 통신원이 곰의골밀영으로 떠나갔다. 중대정치지도원을 하던 리학렬에게 사령관동지의 비밀지시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리학렬은 38년 봄에 부상당하여 후방밀영에서 치료를 받고있었는데 이제는 어지간히 몸이 추섰기때문에 이번 국내진공에 따라나서겠다고 간청하는것을 사령관동지께서 일부러 떨구어두신 경험 많은 지하공작원이였다.

정지성은 내용을 잘 몰랐지만 그는 회양동 리춘서의 처가고장인 연사사람으로서 변학철이라는 이름으로 옥돌골에 들어가 야학선생노릇을 하게 되여있었다.

이어 풍산지구에 새로운 공작조를 정지성과 류진옥으로 무어주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 몸소 지하공작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을 때 그들 두사람이 참가하게 된 까닭이 이제야 밝혀졌다.

이제 장경수는 그들이 풍산지구에 발을 붙이도록 도와준 다음 다시 혜산으로 가서 홍아목재상을 통하여 혜산, 무산 일대의 조직들에 보내는 사령부의 지시를 전달하게 되여있었다. 그중에는 장경수자신도 전혀 짐작할수 없는 중요지시가 있었으니 그것은 홍아목재상이 장차 옥돌골공작조를 통하여 사령부와 련계를 짓게 된다는 내용이였다.

옥돌골공작조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까지는 사령관동지 한분밖에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였다.

골짜기 아래쪽에서 돌 굴리는 소리가 나더니 장경수가 나타났다.

《배를 하나 얻어놓았습니다. 강건너에 사는 낚시군령감을 만났습니다.》

《그럼 곧 떠나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녀대원들쪽을 돌아보며 말씀하시였다.

진옥이는 다시 그이앞에 와서 말도 못하고 울먹해서 고개를 숙이고 섰다.

《장동무편에 할아버지와 부모님들께 따뜻한 편지를 써보내도록 하시오.》

《알았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부디 몸조심…》

《내 걱정은 마시오. 진옥동무가 고생을 많이 해오다가 이제 좋은 철이 닥쳐왔는데 부대를 떠나있게 되여 안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혁명의 요구가 더 많은 선전원과 조직자를 인민들속으로 부르고있습니다.》

《사령관동지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진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확고한 결의가 느껴지게 또박또박 말했다.

거기서부터 장경수가 배를 얻어놓았다는 강기슭까지는 10여리가 된다지만 더 배웅을 나갈수는 없었다. 개간된 자드락밭들과 화전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어서 농민들이 드나든다는것이였다.

리별할 때가 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장경수를 따로 부르신 다음 편지 한통을 내주며 말씀하시였다.

《이 편지를 연사읍에 가서 부치도록 하시오. 꼭 연사우편국의 도장이 찍혀져야 합니다.》

편지의 겉봉에는 바로 회양동 리춘서의 이름이 씌여있고 보내는 사람은 변학철이였다.

장경수가 편지를 든든히 건사하는것을 보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잔디판우에 지도를 펼쳐놓으시였다.

《여기가 어딘지 알겠습니까?》

장경수는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곳을 기웃해서 바라보다가 지도를 바로보기 위해 그이의 뒤로 돌아가려 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지도를 돌려놓으시며 자신께서 장경수쪽으로 돌아앉으시였다.

《재작년에 안도쪽으로 련락을 갈 때 이 부근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술기막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전날 홍범도독립군이 왜놈들과 대판싸움을 했다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쯤 앉아있습니다.》

《이것이 청산립니까?》

장경수는 지도기슭에 한쪽무릎을 꿇고앉으며 잔디색과 같이 새파란 지도속의 대밀림지대를 더듬었다.

《그렇습니다. 이 퍼런 줄기가 올기강입니다. 이 강줄기를 똑똑히 기억하시오. 이 산이 증봉산인데 이 어방에서는 제일 높은 산입니다. 이 강가에서 높은 나무우에 올라가면 1 000m가 넘는 산이니 보일것입니다. 그 산 어방으로 이 길이 통하고 또 안도와 화룡을 련결하는 달구지길이 가로질러갔습니다. 어느쪽으로 오든지 이 강이 두가닥으로 갈라지는 곳 바른쪽기슭에서 사령부통신원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는 날자는 매달 음력 보름날 낮 12시부터 1시사이, 석달동안 기다리겠습니다. 그후에는 오지 마시오. 그리고 자체로 부대를 찾도록 하시오. 신호는 종전대로 하면 됩니다. 아는 동무를 보내겠습니다.》

《그럼 가을까지는 이 어방에 계시게 됩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장경수가 될수록 오래 눈에 익히도록 올기강이 어린 나무가지처럼 두가닥으로 갈라진 곳을 짚고계시였다.

장경수는 부질없는 질문을 하였지만 사령관동지께서 회양동인민들속에서 벌써 이해 여름에 진행할 군사정치활동의 거창한 륜곽이 그려졌으며 그 첫출발로써 자기들이 국내로 떠나게 된다는것을 깨달았다.

《저 이번 여름에 전투를 크게 하게 되면말입니다.》

장경수는 또 응석기어린 목소리로 추근추근 말하였다.

《제 기관총을 좀 바꾸어주십시오. 지난 겨울에 7련대에 갔다가 고장이 나기 시작하더니 자꾸 말썽을 부립니다.》

《그것은 걱정 안해도 일없습니다. 장동무가 갔다와도 전투에 참가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전투는 장동무가 돌아온 다음에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놈들이 다 모여들자면 시간이 걸릴테니까. 진옥동무를 잘 도와주시오.》

《알겠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

장경수는 자기가 추측한것을 확인하자 마음을 놓고 물러섰다.

국내로 들어가는 공작원일행은 커다란 로송나무아래에서 사령관동지께 마지막인사를 올리고 떠나갔다.

그들의 모습은 소나무사이로 몇번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더니 밋밋하게 휘여넘어간 산기슭에서 손들을 한번 흔들고는 릉선 저쪽으로 아주 사라져버렸다.

산아래 머지 않은 곳으로 험한 골짜기사이를 빠져나온 두만강의 줄기가 버드나무 늘어선 남쪽기슭을 끼고 급히 흘러가고있었다. 한시도 진정할줄 모르는 그 물결이 해빛을 받아 번쩍거리는것을 바라보느라니 어딘가 늦가을같은 정서가 느껴졌다.

《금숙동무네 고향도 여기서 강을 건느면 멀지 않습니다.》

하염없이 물굽이를 바라보는 녀대원들을 돌아보시며 사령관동지께서 말씀하시였다.

무엇인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금숙이는 눈을 슴뻑거리며 사령관동지께서 가리키시는 산발너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습니까? 저도 혹시 저 산너머에 우리 고향이 있지 않을가 하고 방금 생각했는데…》

《아이, 언니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고 채옥이가 눈이 둥그래서 사령관동지와 금숙이를 번갈아보았다.

《이제 방금 나도 저 산을 넘으면 우리 고향이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정말 사령관동지, 저의 고향은 어느쪽에 있습니까?》

《허허허, 채옥동무의 고향은 허천이지? 그럼, 허천도 저 산을 넘어야지, 좀 남쪽으로… 그러고보면 저 산을 넘어 고향으로 갈 사람이 여기도 많군, 상철이도 저기로 가야지.》

《단천도 저쪽입니까?》

상철이가 눈을 반짝거리며 사령관동지를 쳐다보았다.

《그래 단천도 저쪽이요. 저 산줄기가 단천까지 뻗어나갔소. 재영이는 좀 바른쪽으로 치우쳐서 나가면 곧 백암이요.》

재영이는 사령관동지께서 가리키시는쪽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없이 외면하였다. 그는 백암이 고향이라는 말만 들었지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상철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잠시후 재영이는 어른처럼 석쉼하게 쉰 목소리로 물었다.

《머지않아 우리 부대가 다시 저 강을 넘어가게 됩니까?》

《그렇소.》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재영이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이제 우리가 이해 여름에 정치군사활동을 잘해서 다시 조국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왜놈들을 우리 땅에서 한놈도 남기지 않고 내몰아야 하오.》

솨-하고 수림을 울리며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두만강물결이 설레이는것이 먼눈에도 환히 알렸다. 유격대원들은 저 강을 넘어갈 그날의 감격, 그리운 고향땅에 손잡고 돌아갈 그날을 그리듯 말없이 설레이는 물결을 바라보았다.

국내로 들어가는 세사람은 시야에서 사라진지 오래 되였으나 모두들 그들이 지금쯤 넘어가고있을 아득한 남쪽산발을 그냥 바라보았다.

돌아오면서도 어느 산기슭에 그들이 서서 손저어 부를것만 같아 돌아보고 다시 돌아보군 하였다.

마을에 돌아오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급히 지휘관들을 부르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이의 안색은 부드러우시였다. 그러나 지휘관들이 다 모이자 온화하던 얼굴에서 웃음기는 사라지고 엄한 기상이 어리였다. 오랜 지휘관들은 인차 전투가 있으리라는것을 짐작하고 저도 모르게 권총갑들을 매만지였다.

《행군준비들은 다 되여있습니까?》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차례로 지휘관들의 얼굴을 돌아보시였다. 언제나 행군할수 있고 싸울수 있게 준비되여있을것을 요구하는 유격대의 생활인데다 경찰을 쳐없앤 주민지대에 들어와있기때문에 어느 부대나 곧 움직일수 있게 태세를 갖추고있었다.

《저 사령관동지께서 급히 떠나신다면 인민들이 섭섭해할것입니다.》

군수관 조진범이 좀 아수해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다른 지휘관들의 표정을 살펴보시다가 강철룡을 향해 물으시였다.

《강철룡동무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동무들이 여기 분서를 칠 때 어디 가고 없었다는놈이 어떻게 됐을것 같습니까?》

강철룡은 인차 그이의 말씀의 뜻을 새기지 못하여 일어선채로 눈만 꺼벅꺼벅하였다.

《앉으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한손을 쳐들어 강철룡을 앉히신 다음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선 날자를 계산해보면 래일쯤 놈들의 <토벌대>가 나타날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미리 떠나서 그놈들이 공격태세를 갖추기 전에 소멸해버려야 하겠습니다.》

이어 **김일성**동지께서는 부대들의 행군준비상태를 확인하신 다음 주민들과의 사업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주의를 주시였다.

그로부터 한시간이 못 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7련대를 선두로 길을 떠났다.

한낮경부터 날이 흐리기 시작하였다. 동네사람들은 너무 뜻밖의 일이라 벙벙해서 돌아가다가 선두대렬이 이미 산굽이를 돌아섰을 때야 리경서로인이며 동네소임 서한복이 사령관동지를 찾아왔다. 그들은 동네사람들의 간절한 심정을 헤아리시여 다문 하루밤이라도 리별의 정을 풀수 있게 말미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진정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리경서로인의 손을 잡으시고 정어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아버님, 우리는 아주 가는것이 아닙니다. 이제 머지않아 다시 만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래일쯤 되면 왜놈들이 또다시 대대적으로 녹아났다는 소문을 듣게 될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섭섭하다고 좀체로 떨어지려 하지 않는 마을사람들을 거듭 타이르시여 겨우 뒤산기슭에서 떼놓으시였다. 그리고 갑성이 아버지를 따로 만나시여 이제 부대가 떠나간 다음 동네가 잠잠해질 때를 타서 연사에 있는 처조카가 온다는 소문을 내놓으라고 당부하시였다.

10

산 하나를 넘자 대밀림이 시작되였다. 백두산에 뿌리를 박고 동서로 길게 내뻗은 큰 산줄기에 잇달린 산들은 오를수록 산세가 웅장하고 험해졌다. 게다가 키가 20m씩 되는 아름드리 이깔나무의 바다가 끝간데없이 펼쳐져있었다.

밀림속으로 얼마 들어가지 않아서 날이 어둡기 시작하였다.

하늘은 흐리고 밀림은 깊어서 묵은 잡초덤불속에 가까스로 드러나던 희미한 오솔길은 인차 어둠속에 묻혀버렸다.

어느 산등에서 숙영지를 잡았을 때 지휘관들이 사방을 둘러보니 그것이 그 아근에서는 그중 높은 봉우리라는것을 알수 있었다. 어찌다 성긴 나무 정수리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거렸는데 그것은 숙영지와 거의 수평으로 바라보였다. 머리우에서는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대원들은 지쳐서 인차 잠들어버렸다. 급히 동네를 떠나기는 했지만 깊은 숲속에 들고보니 적정이 당장 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우등불가에서 잠들지 못하시는 사령관동지의 근엄한 안색을 읽은 오중흡은 아무래도 이 자욱하게 흐린 숨가쁜 밤이 무사하게 끝나지 않을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는 한 우등불가에서 중대장 박태진과 함께 근 1시간이나 말없이 앉아있었다. 그자신이 말수더구가 적은 사람인데다 박태진이 역시 말이 없는 사람이였다. 몸매가 담찬 대신 키가 작고 눈이 반짝거리는 이 청년은 무슨 일에나 몸가짐이 무겁고 침착하였다. 실수는 없었지만 아무 일을 맡겨도 너무 재는것이 많은 그를 데리고 급한 정황에 부닥치게 되면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중대장동무, 잠이 오지 않으면 나하고 같이 바람이나 쏘이지 않겠소?》

오중흡은 일어서며 태진을 넌지시 바라보았다.

《그러지요. 그럼 누굴 데리고가는것이 어떨가요?》

《그래, 하지만 아직 안자는 동무들이 있소?》

《신길남동무네를 대기시켜놓았습니다.》

오중흡은 이윽히 태진을 바라보았다. 그런것을 지시한적은 없었다. 그러나 생소한 산중에서 더구나 사령관동지께서 적정이 있을수 있다고 말씀하신 뒤끝이라 대원들을 다 재우고도 그중 끌끌한 소대만은 재우지 않고있는 그가 새삼스럽게 미더웠다. 그러나 오중흡은 자기 심중을 일체 내색하지 않고 앞서 걸음을 옮겨놓았다.

그가 100m도 못 갔을 때 박태진이 소리없이 따라왔다. 뒤돌아보니 신길남이를 비롯한 10여명의 대원들이 뒤따르고있다.

아까 별빛이 보이던 등성이에 나섰으나 그 별빛은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보면 두껍게 흐려있던 중천의 구름이 어느새 하늘전체를 삼켜버린듯 하다. 캄캄해서 뭐가 뭔지 가려볼수 없었다. 다만 숨가쁘도록 내리누르는 흐린 공기만이 력력히 느껴진다.

산등성이를 타고 한참 올라가니 숲은 더욱 빽빽해졌다. 숙영지가 그리 멀지도 않겠는데 방향도 가려볼수 없을만큼 깡그리 어둠속에 파묻혀버렸다. 음향도 별빛도 모든것이 녹아없어졌다.

한 대원이 무엇에 걸리여 나가넘어졌다. 넘어져서는 어디에 또 걸렸는지 인차 일어나지도 못하고 비칠거린다. 맨뒤에 따라오던 오중흡이 그를 부축해주며 낮게 속삭였다.

《조심하오. 저쪽은 비탈이요.》

《묵은 칡넝쿨이 마구 엉켰소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할게지.》

그는 보이지도 않는 무릎의 흙을 털며 앞사람들이 듣도록 일부러 크게 중얼거렸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강정섭이다. 정섭이를 특별히 입대시키신 사령관동지의 뜻을 받들자면 처음부터 신을 단단히 신겨 그를 어엿한 유격대원으로 길러내야 할것이다.

오중흡은 정섭이의 소매를 잡아채며 엄하게 속삭였다.

《조용히!》

《왜 그럽니까? 적정이 있습니까?》

정섭이는 놀라서 목소리를 죽이고 물었다.

《그 누구요? 떠드는게?》

저만치 앞서가던 박태진이 어둠속에 걸음을 멈추고 엄하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요. 어서 나가오.》

오중흡이 쭈밋거리는 정섭이의 앞을 막아서며 이렇게 말하자 박태진은 마음이 놓이는지 다시 발걸음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멀어져갔다.

정섭이는 뗑해서 련대장을 힐끔 돌아보며 마른침을 삼켰다. 순찰을 나간다고 해서 따라서기는 하였지만 이 어두운 밤 철문속에 든것 같은 밀림에서 그처럼 목소리를 죽이면서까지 조심을 해야 할 대상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그였다. 차라리 어둠과 숲이 무시무시하게 느껴진 그는 이럴 때 좀 여럿이 떠들썩하게 걸었으면 을씨년스런 생각이 덜할텐데 하는 생각까지 해보았었다.

《오늘밤 적정이 있을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

오중흡이 그의 귀전에 대고 속삭였다.

《들었습니다. 마을에서부터…》

정섭이는 무엇인가 풀리지 않는것을 느끼며 그런 기분을 타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건 누구의 말씀이요?》

《제 듣기엔 사령관동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것 같던데요.》

《그렇다면 적이 이 어방에 있는거요.》

오중흡의 말은 겨우 알아들을만큼 낮았으나 쇠뭉치같이 묵중하게 울리였다.

《이 숲에 말입니까?》

정섭이 놀라서 새삼스럽게 사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앞에서 《쉿》 하는 목소리가 전류처럼 흘러왔다.

정섭이는 그자리에 굳어지고 오중흡은 소리없이 잡초덤불사이를 빠져 앞으로 갔다.

《무엇이 있소?》

《모르겠습니다. 잘못 봤는지…》

신길남이와 나란히 무릎을 꿇고앉은 박태진이 자신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못 보다니? 동무가 잘못 본단말이요?》

오중흡은 그럴수 없다는듯이 어둠속을 쏘아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산의 밋밋한 륜곽이 가까스로 느껴질뿐 실지 육안에 걸리는것은 없었다. 산의 륜곽이 느껴지는것을 보면 무던히 높은데 올라온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지 습기찬 바람이 나무잎들을 흔들며 지나간다.

《보오!》

오중흡이 태진의 무릎을 흔들었다.

막막하도록 넓게 펼쳐진 어둠의 바다 한가운데 빨간 점이 피여올랐다. 바늘구멍만 한 그 점은 광막한 공간에 떠오른 오직 하나의 점으로서는 너무나 작았지만 유일하다는 그때문인지 선명하였다.

태진이 조금이라도 거리를 가까이 해보려고 몸을 앞으로 구부리며 목을 뽑았지만 그때 벌써 그 점은 사라지고 없었다.

《반디불 아닙니까?》

신길남이 옆으로 다가오며 속삭였다.

《이게 어느때게 반디불이란말이요? 보오, 또 나타났소.》

오중흡은 무엇인가 짚이는것이 있는지 이제는 별로 긴장도 느껴지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담배불이요.》

《예?》

《냄새가 나오. 한 5리 되는것 같소 》

5리라는 말에 대원들은 설마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마다 떡심이 풀리여 련대장곁으로 다가왔다.

《중대장동무가 몇동무 데리고 가보시오. 틀림없이 놈들의 숙영지 같소. 얼마나 되는지, 어디서 오는놈들인지, 뭘 가지고있는지 알수 있는껏 알아오시오. 난 사령부에 돌아가야겠소.》

1시간 지나서 습격전투가 진행되였다.

대마록구방향과 현성쪽에서 몰려온 경찰《토벌대》들의 혼성부대는 래일새벽에 옥돌골, 휘풍동 일대를 포위하여 유격대를 《일망타진》하려다가 불의습격을 당하여 숱한 주검을 질질 끌고 뿔뿔이 흩어져버렸다.

격전이 끝난 새벽녘부터 드디여 비가 쏟아졌다. 동은 트려다가 말고 어둠은 자욱한 비안개뒤에 숨어 물러가지 않았다.

오중흡이가 7련대의 일부 력량으로 적을 달고 곧장 북상하였다.

기본대렬은 은밀히 동북방향으로 구붓하게 선회하였다. 7련대의 나머지성원들은 곽성규중대장의 지휘하에 사령부대렬과 함께 행군하였다. 신대원 강정섭이도 여기에 끼여있었다.

11

얼마를 갔는지 도무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비는 그냥 쏟아진다.

《이런, 제기-》

강정섭이는 너무 비가 퍼붓는바람에 잠시 눈을 감고 걷다가 아름드리나무에 부딪쳐서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졌다. 벌써 몇번이나 넘어졌는지 모른다.

처음에 련대장이 련대의 기본력량을 데리고 떠나가버렸을 때 어쩐지 자기는 축에서 빠진듯 하여 섭섭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던게 행군을 시작하여 반나절쯤 지나자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없어지고 그저 쉬고싶은 생각뿐이였다.

비발이 눈코를 뜰수 없게 들이치는데 너무 숨이 가빠 입을 벌리면 입안으로 비물이 마구 쓸어들어왔다.

격검채로 얻어맞은 어깨, 허리, 구두발에 채인 정쟁이, 칼에 찔린 넙적다리며 어깨-온갖 상처가 다 쑤시고 결린다. 머리가 훗훗하는게 열도 나는것 같다. 첫째 숨이 가빠서 못견디겠다.

(내가 이럴수가 있는가?)

너무 가쁘다나니 이런 생각도 떠올랐다. 처서판에서는 힘꼴이나 쓴다는 축이였고 산이나 숲에 들어서는 자기도 막힐데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못견디겠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한줄로 늘어서서 말없이 걷는데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는 몰라도

자기처럼 나무에 부딪치거나 넘어져 뒹구는 사람은 없었다. 대오에서 떨어졌다가 헤덤비며 달려가는 사람도 없고 힘들다고 두덜거리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 이 대오에서 제일 병신같은게 강정섭이 자기다. 기분이 나쁘지만 사실이 그런것을 어떻게 하는가. 한참을 더 가니 기분나쁜것도 다 없어지고 나는 신대원이니까 그럴수밖에 없지 않느냐, 좌우간 좀 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휴식명령은 아무리 기다려도 내리지 않는다.

다시 산 하나를 넘어서자 이깔나무숲은 성기여지고 봇나무와 쇠스래가 듬성듬성 들어찬 혼성림이 나타났다. 얼마후에는 드문드문 공지도 보이였다. 이어 모래와 돌자갈이 깔린 골짜기다. 가운데로 탕수가 흘러간다.

틀림없이 여기서 휴식하겠지 하고 사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어둠을 째는 번개처럼 《행군속도를 높일것!》 하는 구령이 들려왔다.

주춤거리던 대렬은 또다시 숨가쁘게 내달렸다.

골짜기를 건너가서 다시 앞을 막아선 산 하나를 넘어서서야 비가 억지로 멎었다. 멎어가지고도 시원히 개일 생각은 않고 이슬비를 날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정섭이는 입안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더러운놈의 하늘!》

다시 골짜기를 건느고 산 하나를 또 넘어서서야 비로소 휴식이 선포되였다.

마른나무를 찾는다는것은 행군보다 결코 헐하지 않은 일이였다. 그러나 구대원들은 진창을 밟고다니면서도 어디서 쏘시개감을 구해와서는 곧 우등불을 피워올렸다.

정섭이는 우등불곁에서 한심하게 해여지고 부풀어난 발바닥을 들여다보며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다. 물집이 잡힌데다 물속을 차며 걷다나니 발바닥의 굳은살이라는것이 온통 불어나서 제갈래로 밀리고 헤쳐져 새빨간 생살이 석류속처럼 입을 벌리고있다.

다시 행군을 시작하면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저러나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것이 우등불의 화기가 따갑도록 바투 다가앉아도 턱이 덜덜 떨리고 이가 절로 맞쪼인다.

기가 막혀 고개를 들어보니 우등불에서 피여오르는 연기와 젖은 옷가지들이 마르는 김이 한데 어울려 골짜기에는 푸른 안개가 자욱히 서리였다.

열걸음도 못되는곳에 작식대의 우등불이 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주런이 내건 소랭이안을 주걱으로 저으며 연신 재채기를 하는 철구아주머니를 불안스럽게 곁눈질해보신다.

《담요를 쓰고 불곁에 좀 눕지요.》

이런 따뜻한 목소리가 울리여온다. 그러니 저 아주머니도 나처럼 행군에 녹초가 된 모양인가.

별안간 급한 발자국소리가 울려왔다.

모두 놀라서 돌아본다. 방금 지나온 큰 산마루에서 총소리가 터져올랐다.

행군명령이 떨어졌다.

이런 일에 익숙한 유격대원들은 어느새 행장을 갖추고 늘어섰다. 벌써 선두대오는 골짜기를 건너 저쪽에 길게 뻗어나간 산턱으로 붙었다. 그 산너머에는 비구름에 가리워 형국을 가려볼수 없는 산그림자가 첩첩히 이어져있었다.

정섭이가 가까스로 발싸개를 다시하고 일어서니 구수한 강냉이냄새가 창자를 우벼내는듯 하다. 오늘 종일을 굶었다. 다 익어가는 저 강냉이를 어떻게 하는가?

그가 허리를 구부리고 신들메를 하는 사이 작식대에서도 바삐 돌아갔다.

《이 일을 어찌오?》

철구아주머니가 벌렁벌렁 끓는 밥가마를 내려다보며 한심한듯이 중얼거렸다.

《배낭을 얼른 꾸려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불타는 우등불을 이리저리 헤쳐놓으며 말씀하시였다.

채옥이와 금숙이가 달려왔다. 재봉기를 뜯어 진 금숙이는 제 배낭우에 맹물이 끓던 소랭이 몇개를 포개서 덧짐쳐얹었다.

《철구아주머니, 먼저 떠나세요. 채옥동무, 철구아주머니를 좀…》

빨갛게 익은 얼굴에서 줄줄이 흘러내리는 땀을 소매로 씻으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채옥이를 미덥게 돌아보시였다.

채옥은 잠시 냉과리가 진 연기를 피워올리는 우등불을 기가 찬듯이 내려다보더니 《알겠어요.》하고 짧게 대답했다.

《녀성동무들이 더 고생이구나.》

정섭이는 서글픈 어조로 중얼거리고 길을 떠났다. 배고픔도 고달픔도 참을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그놈들한테 매를 맞은때문인가? 신대원이 돼서 그런가?

다시 행군을 하자니 반지빠른 휴식이 오히려 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것 같았다.

엎친데덮친다고 또 비가 쏟아졌다.

풀밭도 다 안고넘어가도록 탕수가 쏟아져내리는 물매 급한 산을 톺아올랐다.

모두 물참봉이 된데다가 진탕을 뒤집어썼다.

정섭이는 앞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깐힘을 썼다. 창대같이 쏟아지는 비속에 길도 없는데를 한줄로 늘어서서 톺아오르기때문에 대렬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영낙없이 외토리가 되고만다. 나무밑에 누가 쓰러져서 신음소리를 낸다 해도 알아볼 사람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정섭이는 대렬에서 떨어질가봐 겁이 나서 걸음을 다우친다는것이 아래도리가 휘청거리는바람에 엉덩방아를 찧고 미끄러졌다. 겨우 일어나서 푸-푸- 비물을 불며 앞을 내다보면 삼대같이 들어찬 이깔나무숲속을 비줄기가 채찍처럼 마구 두들겨대는데 한줄로 늘어선 행군대렬이 아득히 멀어져뵈여서 다시는 따라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는 유격대생활이 이렇게 시작될줄은 상상도 못해보았다. 산속에서 살며 싸우려니 고생을 하리라는것은 짐작했지만 설마하니 비때문에 이렇게 못견딜 지경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야, 급하구나-)

이런 소리가 종시 입밖으로 새여나오려 하였다.

이때 저만치 떨어진 곳을 두사람이 지나간다.

《넨장, 지난 겨울에는 눈도 퍼붓더니 이제는 또 비로군. 어디 실컷 퍼부어봐라. 아무렴 눈속에서 견디였는데 비를 못견딜가…》

박인섭의 목소리다.

《비도 급해요.》

최병규가 기관총을 추스르며 대답한다.

이제는 후위로구나. 저런 유명한 기관총수들도 급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어느 정도 위안도 되였다. 그러나저러나 저 사람들까지 지나가버리면 뒤에는 적들이 있을뿐이다.

(에- 일어나야지, 내가 주저앉아버리면 나를 특별히 입대시켜주신 장군님께서 얼마나 섭섭해하실것인가.)

정섭이는 총대를 지팽이삼아 짚고 가까스로 일어났다. 그리나 얼마를 못가서 아까 그 가파로운 굽인돌이에서 다시 미끄러졌다. 그는 진창속에 머리를 구겨박은채 역증을 터뜨렸다.

《에잇, 차라리 놈들이 오면 쏘아제끼고말겠다!》

그러고는 마침 옆에 서있는 이깔나무밑둥에 등을 대고 퍼더앉아 고개를 푹 떨구고 눈을 감았다.

《개같은놈들, 오기만 해봐라. 내가 여기서 후위노릇을 할테니…》

다시 중얼거렸으나 말끝은 잘 맺혀지지 않았다.

가슴이 허전하고 쓸쓸한 생각이 들었다.

혁명을 하겠다고 따라나선 내가 이런 무인지경에 홀로 앉아 죽기를 기다리다니… 그래도 손가락 하나 움직여지지 않았다.

《어디 다쳤어요?》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왔다. 정섭이는 꿈속에서처럼 그 소리를 들으면서 별안간 울고싶은 생각이 났다.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도 그리웠다.

《못걷겠어요?》

정섭이가 대답을 안하니 부드러운 손길이 한쪽팔을 부축한다.

꿈속에서 듣는 소리가 아니였다. 정섭이는 고개를 돌렸다.

김정숙동지시였다. 커다란 배낭에 배낭만한 자루를 덧짐쳐얹고 그우에 소랭이를 세개나 포개서 지셨다. 거기서 문문 김이 피여오른다. 그러다나니 어깨에 걸치신 짧은 기병총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가로 서있었다. 빽빽한 나무사이를 지날 때면 총신때문에 고생하실것이다.

《웬일입니까?》

정섭이는 놀라서 되물었다.

《식사준비하던거 거두고 오느라고 늦었어요, 시장하지요? 시장해서 앉아있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정섭이의 멍든 자리가 푸릿푸릿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살틀한 어조로 물으시였다.

《아니요. 배고프지는 않아요. 넘어져서… 넘어진김에 쉬여간다지 않아요.》

정섭이는 어쩐지 김정숙동지의 맑은 눈동자앞에 방금전의 자기 마음속이 비치일가봐 겁이 났다.

《그래 좀 쉬였어요?》

《예－》

정섭이는 투정을 하듯 억지로 대답하였다.

《그럼 얼른 일어나세요. 방금 출발했는데 벌써 쉬면 되겠어요. 사령관동지께서 인차 따라오시게 됐어요.》

《예?》

정섭이는 후닥닥 일어났다.

《사령관동지께서 뒤에 계십니까?》

《모두 힘들어하기때문에 사령관동지께서 몸소 후위부대를 거느리시고 오시지 않아요.》

정섭이는 입술을 앙다물었다. 겨우 더께가 앉았던 입술이 터져서 피가 배여나왔다. 그는 말없이 걸음을 옮겨놓았다.

아까 미끄러졌던 굽인돌이에 이르자 김정숙동지께서 먼저 올라가서 손을 뻗치시였다. 그러나 정섭이는 그 손을 차마 잡을수가 없었다. 아까 작식대 우등불에서 본 어수선한 정경이 떠올랐다.

지금 지고계시는 짐만 해도 여느 대원들의 곱이나 된다. 그런데 이 비속에 김은 왜 저렇게 피여오를가? 정섭이는 이런 생각을 하며 김정숙동지의 손은 못본것처럼 하고 그중 가파로운 모퉁이를 성큼 올라섰다.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올라서는건데…하고 생각하는 순간 아래도리가 비칠하였다. 한쪽 무릎을 꿇으며 다시 미끄러져내리려 할 때 김정숙동지의 두손이 뻗어왔다. 가까스로 몸을 가누고 일어서자 커다란 배낭과 자루가 얼굴을 스쳐지났다.

후끈하는 더위가 온몸을 덮치였다.

《아니?》

새삼스럽게 배낭을 바라보니 배낭에서도 자루에서도 세찬 김이 피여오른다.

(강냉이로구나. 삶던 강냉이로구나…)

정섭이는 언덕마루에 멍하니 서버렸다. 벌렁벌렁 끓던 소랭이가 떠오른다. 황황불타던 우등불이 눈을 지지였다. 출발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등불을 헤치며 냉과리를 여기저기 쥐여뿌리며 덤벼치던 녀대원들의 모습이 얼른얼른 눈앞을 스치였다.

(녀대원들이 고생을 좀 더하는것쯤으로 생각했지, 반편같이 …)

그 벌렁벌렁 끓던 소랭이를 그대로 쏟아넣어가지고 오신것이다. 저 배낭에서 줄줄이 흘러내리는 물은 비물이 아니라 끓는 물이다.

《이제는 내리막길이 돼서 숨은 덜 가쁘겠지만 더 잘 미끄러져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걸음을 옮겨놓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밝게 웃고계시는 그이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정섭이는 진심으로 사과하고싶은 생각이 치밀어올랐다.

《그 자루는 저한테 주십시오.》

《예?》

김정숙동지께서는 놀란듯 되묻더니 말씀하시였다.

《정섭동무, 고마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안해도 일없어요. 어서 가자요. 이번에 휴식하게 되면 꼭 식사를 보장하겠어요. 강냉이가 이제는 거지반 흐물흐물해졌어요. 구수한 냄새가 나지요?》

정섭이는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하면서도 그렇듯 소박하게 말씀하시는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인품을 온몸으로 느끼며 **김일성**장군님의 전사가 되기 위하여서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의 깊이와 높이 그리고 힘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것을 어렴풋이 깨달은듯 하였다.

×

행군대오에서는 새벽에 7련대장이 적을 달고갔는데 무슨 적이 또 뒤에 달렸는가 해서 모두 웅성웅성하였다. 그러던것이 김준삼이가 포로 한놈을 잡아와서 그 의문이 풀리였다.

그놈을 통하여 지금 뒤따르고있는 적이 백일평일대에 새로 나타난 봉천려단의 한개 대대이며 얼마전 압록강쪽에서 백두산줄기를 타고 넘어오는 강행군바람에 대원들의 사기는 다 죽은데다 이번에 또 《토벌》에 내몰리여 장마비속에서 개고생을 하는 과정에 극도로 지쳐빠졌는데 왜놈지도관놈이 하도 무섭게 굴어서 억지로 따라온다는것 등을 알아내였다. 포로는 본시 봉산동의 소작농으로서 강제에 못이겨 군대복무를 하고있는 어수룩한 사나이였다. 그에게 침략군대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왜놈들의 개노릇을 하지 말라는것을 타일러서 돌려보냈다. 밥을 먹이고 로자까지 후히 주었더니 어지러운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자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김일성**장군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고있었는데 이제 다시 장군님의 뜻을 어기겠는가고 거듭 맹세를 다지며 돌아갔다.

12

유격대가 떠난지 열흘가까이 지난 어느날 회양동에는 언제부터 온다고 소문이 돌던 리춘서의 처조카벌 되는 사람이 연사에서 건너와서 동네사람이 모두 갑성이네 집에 모여들었다. 변학철이라는 그 사람은 아직 서른전 젊은인데 고생깨나 한 모양으로 벌써부터 귀밑머리에 흰것이 섞였고 말투도 무게가 느껴졌다. 어딘지 바위같이 드놀지 않는 인상을 주는 사람이였다. 그는 먼길을 온 사람같지 않게 동네를 돌아보더니 언젠가 사령관동지께서 드셨던 집을 손질하여 학교로 쓸 공론을 벌리였다. 처음에는 며칠 푹 쉬라고 권하던 동네사람들도 나그네가 그처럼 적극적으로 나서는바람에 끌려들어 이번에는 우리도 유격대들이 마을을 닥달하던 본때대로 학교를 한번 꾸려보자고 모두 발벗고나섰다.

이날 한낮경에 자욱히 비안개가 몰려오는 회양동고개길우에 새로운 길손들이 또 나타났다. 그것은 윤원구네 일행이였다.

그들이 국경 삼장다리에서 농사동까지 되끌려간 그때로부터 근 보름동안에 겪은 일들은 지금 돌이켜봐도 너무 기구하고 공교로울뿐아니라 난생처음 겪는 벅찬것이기도 해서 꿈같은 생각만 들었다.

대홍단전투가 있던 안날 리호철이가 농사동에 건너왔기에 윤원구네는 당장 도강증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해약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겠다고 들이댔다. 리호철이도 급해나서 주재소며 경찰서에 드나들더니 겨우 도강증문제가 풀리게 됐다 했을 때 국경은 다시 절벽으로 막혀버렸다. 유격대한테 죽도록 얻어맞은놈들이 국경경비를 턱없이 강화한데다 신사동일판에 있던 인민들에게 밸풀이삼아 갖은 행패를 들이댔던것이다.

윤원구네는 유격대의 짐을 지고 간 강정섭이와 관련된 사람들이라 해서 다시 취조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 장대선아바이는 푸념삼아 이거야 종로에서 매맞고 한강에서 눈흘기는 격이 아니냐고 요시다에게 한마디 했다가 정갱이가 터지도록 얻어맞았다.

그럭저럭 로자만 불어먹으면서 한주일이나 단련을 겪고나서야 어제 가까스로 삼장다리를 건너서게 된것이였다.

이제는 누구나 목적을 잃어버린 공연한 길을 고생스럽게 가고있다는 생각을 품게 되였다. 이 세상 한끝까지 다 간다 해도 나라가 없이는 살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말은 옳은 말이였다. 그것은 무포강제부역장에서 만났던 그 날파람있게 생긴 청년이 한 말이였다. 그 청년은 그때 이제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으로 쳐나오실거라는 예언도 하더니 그것 역시 맞아떨어졌다. 남사갱의 야학선생 리성림이도 그러루한 말을 했다. 그리고보면 그들도 다름아닌 유격대가 아니였을가 하는 추측이 갔다.

《참, 우리라는게 한심한 인생들이지. 그 야학선생이 남사갱에 있을 때부터 사회운동자라고들 하지 않았나. 그런 사람이 숲속에 도끼를 척 메고 나타났을 때부터 옳지, 이 사람이 유격대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야 제곬으로 뚫린 궁냥이겠지. 아 이건 **김일성**장군님께서 쳐나오신다, 이제 두고 보아라, 보천보를 들이칠 때보다 더한 불벼락이 왜놈들한테 떨어질게다 하고 송곳으로 귀구멍을 뚜지듯 해도 눈치를 못챘으니 이런 미련한 인생들이 잘살아보겠다는것부터가 잘못이라니까.》

장대선아바이는 요시다의 격검채에 얻어맞아서 무릎이 깨여진 한쪽다리를 절뚝거리며 누구에게 시비를 걸듯 말하였다.

《나는 그래도 이상한 생각이 조금은 들었소다. 자꾸 물어대는게 경찰서가 어데어데 있는가, 군대가 어데로 가던가, 목재판에 왜놈들이 얼마나 있던가… 이런것들만 물으니까 암만해도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던데요뭐.》

춘길이가 대선아바이의 한팔을 부축하며 말했다.

《여느 사람들과 달랐지. 그래서 다르다는것을 알았는데 춘길이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말이야? 다르다는것을 나도 느꼈지. 허지만 느껴서는 뭘해. 말로 해야지. 그건 다 소용없는 소리고 나는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장군님의 령을 듣고 기찰을 나왔던거라고 보네. 저 포태산으로부터 로은산까지 유격대가 쫙 덮였댔다고 하지 않던가. 그러니 우리가 그때 길우에서 만난 사람들가운데도 유격대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른단말이야. 그래도 우리들가운데 무엇을 비슷하게 생각한 사람은 춘길이 자네가 아니라 필네란말이야. 자네는 총소리를 듣고도 나와 마찬가지로 뱅해서 눈만 더부럭거리지 않았나. 그런데 필네는 유격대라는 말을 진호 애비가 꺼내자마자 30리길을 달려가서 왜놈들이 녹아나는 구경을 다하고 왔거던. 자네는 큰소리칠게 없어.》

《그러게 내가 어쨌다오다? 나는 본시 비슷하게 느껴가지고도 똑똑한 생각을 하자면 한참이나 걸려요. 아바이도 알지 않소다. 저 팔모갱 두더지굴에서 후산질할 때 락반에 뒤골을 얻어맞은 다음부터는 무스게 잘못됐는지 골이 뗑해졌단말이우다.》

《그래그래. 임자나 나나 노상 골이 뗑해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언제나 요모양 요꼴이 아닌가. 여북하면 무산땅에 유격대가 차넘치고 맹과니까지도 왜놈들

녹아나는걸 다 봤다고 소리치는데 우리는 눈앞을 지나가는 유격대와도 똑똑한 말 한마디 못해봤으니 이거야 원통해서 살수가 있나말일세.》

《이제는 그만하오다. 그러노라면 또 유격대를 만나게 되겠지오다.》

필네는 그들의 이야기를 한귀로 들으며 딴생각에 잠겨 걸었다. 그날 자기가 신사동으로, 대홍단으로 그렇게도 허위단심 달려갔던 까닭을 그들은 아직 모른다.

그렇기때문에 유격대를 눈앞에 보고도 놓쳐버린 필네의 그 원통한 심정을 알지도 못하고 좋은 구경을 했다고 부러워만 한다. 하기는 며칠씩 무산땅에 붙들려 고생을 하면서도 눈앞을 지난간 유격대를 못봤으니 그들의 분해하는 심정이 리해는 된다. 그러나 자기가 두주먹을 부르쥐고 달려갔던 30리길을 혼자 터벌터벌 되돌아오던 그 밤길같이 막막하겠는가.

필네는 지금 엷은 웃음을 입가에 짓고 다시금 희망에 넘쳐 걸어간다. 그날 대홍단에서 돌아오다가 신사동 정섭이네 집에 들려 날이 저물도록 할아버지와 어머니한테서 장군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힘이 절로 솟구쳤다.

필네는 그날 들은 이야기들의 토막토막을 엮어 머리속에 장군님의 모습을 그리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옛말에 나오는 장수와 같이 으리으리한 갑옷과 투구를 두르고 긴 칼을 차고 수염을 기른 그런분이 아니시였다. 여느 유격대와 다름없는 차림을 하고계실뿐아니라 나이도 젊으시다고 한다. 그런우에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따뜻이 품어주시는 고마운분이시였다.

아, 단 한번만이라도 장군님을 뵈올수만 있다면… 이런 열망에 가슴이 죄여들수록 필네는 그날밤 총소리를 듣자마자 그것을 유격대의 총소리로 알아채고 달려가지 못한 자신이 안타까왔다.

(정말 나도 골이 뗑해서 그러는 모양이지.)

이런 생각을 하자 안타까운중에도 우스웠다.

고개마루쪽에서 또 비가 퍼붓겠다고 안해에게 걸음을 재촉하는 윤원구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김인수는 맨뒤에 따로 떨어져서 절뚝거리며 따라온다.

한참 옥신각신하던 대선아바이와 춘길이는 다시 의좋게 껄껄 웃으며 고개를 넘어서더니 얼마 안가서 춘길이가 소리쳤다.

《동네요. 동네에 다 왔소. 비가 오겠는데 어서 걸읍시다.》

아닌게아니라 비방울이 후둑거리기 시작하였다.

일행은 반달음을 놓았으나 종시 비를 들쓰고야 동네에 들어설수 있었다.

산비탈을 내려서서 동구초입에 있는 초가집 추녀밑에 무작정 들어서는데 마침 젊은이 한사람이 물탕을 튕기며 달려오더니 길손들을 보고 알은체를 하였다.

《오늘은 회양동에 손님이 많다. 어디서 오시는분들이요?》

젊은이는 비에 젖은 머리칼을 손바닥으로 탁탁 털더니 말하였다.

《무산에서 오는데 금천동으로 가는길이외다. 주인이신가요?》

윤원구가 나서며 점잖게 말했다.

《예, 마음놓고 방으로들 들어갑시다. 장마가 이렇게 일찌기 드는 법이라고 어디 있습니까. 이제 곧 우리 집 어머니도 옵니다. 어서 들어갑시다.》

집주인이 싹싹하게 굴어서 일행은 퍽 마음이 놓이였다.

주인집 젊은이는 제먼저 구들로 올라가서 길손들을 청해들여다 놓고는 허름한 반닫이밑에서 헌 잡지 한권을 뽑아들고 말하였다.

《제 집처럼 마음 푹 놓고 앉아들있소다. 이제 어머니가 올거우다.》

그리고는 잡지를 옷섶안에 건사하더니 비속을 내달려갔다. 그는 성만이였다.

주인 없는 빈방에서 일행이 송구한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미구에 도롱이를 쓴 체소한 할머니가 들어왔다.

《에그, 이 장마에 길들을 떠나서 고생을 어찌 겪겠슴?》

할머니는 아들에게서 이미 손님들이 들었다는 말을 들었는지 도롱이를 털어서 기둥에 걸며 혀를 찼다.

친절한 모자간이였다. 아이들이 비를 맞아서 춥겠다고 걱정하더니 곧 부엌에 내려가 수수짚 한단을 지폈다. 그 불을 화로에 담아들고와서는 또 진철이를 안고 둥게질을 하였다.

할머니를 통하여 지금 동네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그 사람은 이 동네 골막집주인의 처조카벌 되는 사람으로서 마을청년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 온 야학선생이라는것까지 알았다.

얼마후에는 그보다 더 놀라운 소식도 알게 되였다. 손님들이 무산땅에서 겪은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는 펄쩍 뛰더니 얼마전에 바로 이 고장에도 **김일성**장군님께서 유격대를 이끄시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쉬쉬하면서도 끝없이 벌려놓았다.

비는 언제 들지 앞을 내다볼수 없었다. 좀 수다스럽지만 친절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을 쪼이고있으려니 비가 밤이 들도록 왔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유격대원들이 며칠사이에 우물을 비롯하여 마을을 몰라보게 닥달해놓던 일, 늦어진 씨붙임을 도와주던 일, 유격대와 동네사람이 한데 어울려놀던 축구시합이야기 그리고 불시에 유격대가 떠나가고 **김일성**장군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날밤으로 북쪽산속에서 요란한 총질소리가 나더니 다음날 저물녘에 숱한 경찰놈들의 송장이 실려가더라는 이야기, 그 며칠후 다시 분서자리에 경관 다섯놈이 오기는 하였으나 이제는 전처럼 행패를 못하고 슬슬 돌아다니며 동네사람들의 눈치만 살핀다는 이야기–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비는 날이 저물어도 그치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윤원구일행은 려장을 풀고 묵을 차비를 하였다.

이튿날아침에 일행이 길을 떠나기앞서 필네가 대선아바이의 상처를 헤쳐놓고 삼장에서 산 빨간약과 고약을 바른 다음 다시 처매고있는데 골막집 갑성이와 상수네 아들이 막대기를 들고 기웃이 들여다보았다. 갑성이의 이마에는 아직도 명주수건이 감겨져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본바탕을 가려보기 어려울만큼 어지러워졌다.

필네는 처음에 어쩐지 마음이 끌리는 이 동네에 대한 고마운 생각과 리별의 허전한 생각이 들어 그 애한테 말을 붙였다.

《얘,넌 이마를 어쩌다가 상했니? 이리 오너라, 좀 보자.》

《싫어요.》

갑성이는 꽁무니를 사렸다.

《참, 너도 이 아지미한테 약 발라달래라. 아프지 않아.》

춘길이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자 상수의 아들이 갑성이의 등을 떠밀었다.

《정말 아프지 않나요?》

갑성이는 여전히 꽁무니를 사리며 좀 겁먹은 소리로 물었다.

《이자식은 겁쟁이예요. 어제밤에 저희 집에 온 손님이 고쳐주겠다는것도 겁이 나서 내뺐어요.》

저희 집에 온 손님이라는것은 아마 새로 야학을 차리기 위해 왔다는 그 사람일것이다. 그러니 굳이 서툰 솜씨로 건드리지 않아도 될듯 하여 다시 돌아보지 않았더니 제동무의 겁쟁이라는 말에 승벽이 돋친 갑성이가 바지춤을 추켜올리며 앞으로 나섰다.

《내가 뭐 겁이 나서 그런줄 알아. 씨, 얼마든지 풀어봐도 겁나지 않아.》

필네는 웃으며 한껏 조심해서 동여멘 수건을 풀었다. 피가 말라붙은데는 미리 빨간약을 좀 발라서 추겨가지고 뗐더니 감쪽같이 떨어졌다. 나무그루턱에 째졌다는 상처는 깨끗이 아물어가는데 딱지가 떨어지는바람에 한쪽구석이 다시 터져 피가 배여나왔다. 필네는 대선아바이의 상처를 치료하는데 쓰던 약솜으로 피를 닦아내고 빨간약을 바른 다음 조갑지에 담긴 고약을 좀 떼붙였다. 본시 감겨있던 수건은 너무 어지러워서 한옆으로 밀어놓고 빨아놓았던 아바이의 붕대 한끝으로 단단히 동여맸다.

처치가 끝나자 갑성이는 야- 하고 상수네 아들을 따라 골목으로 내달아갔다.

《얘, 이것을 가지고가거라.》

필네는 풀어놓은채로 버려두고 간 명주수건을 뭉그려들고 불렀으나 아이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짐을 꾸리며 어지러워진 자리를 거두다가 다시 그 명주수건에 눈길이 갔다.

《아니?》

분명 낯이 익다. 꺼멓게 피가 말라붙고 어지러워지고 구겨졌으나 진솔로 끊어낸 감인데다가 제손으로 슬가리를 마무리고 접어서 감친 자리가 뚜렷하다. 게다가 한끝에 지전 5원을 꽁꽁 싸서 매였던 매듭자리까지 그대로 나있지 않는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필네는 정신나간것처럼 수건을 뭉그려들고 동구밖으로 달려나갔다.

동네 한끝에 있는 우물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났다. 동네꼴에 비해볼 때 우물은 너무나 번듯 하였다. 유격대가 손질해주었다는 그 우물이 분명하였다.

아이들은 우물틀에 배를 붙이고서서 저마다 딸따리를 당겨보겠다고 승벽이였다. 그중에서도 이마를 처맨 갑성이가 제일 극성스러웠다. 딸따리줄을 잡아당겨서 나무드레박의 물을 동무들의 발밑에 좌르르 끼얹고는 다른 아이가 미처 손쓸새없이 또 줄을 잡아당기는 그 애를 겨우 한쪽구석으로 끝고갔다.

《얘, 이 수건 어디서 났니?》

《몰라요, 난 몰라요.》

필네의 표정이 하도 심각하니 갑성이는 겁이 났는지 비실비실 내뺄 궁리만 한다.

《얘, 정말,바른대로 대다구. 이 수건 가지고있던 사람을 찾자고 그런다.》

필네가 무릎을 꺾고앉아 갑성이의 얼굴을 이윽히 들여다보니 아이는 친절한 처녀의 너무나 간절한 눈길에 감동되였는지 비로소 입을 벌렸다.

《유격대가 처매주었어요.》

《유격대가?》

필네는 놀라서 받아외웠다. 이 수건이 이떻게 유격대손에 들어갔는가?

《그 유격대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이 우물틀이랑 딸따리랑 만든 아저씨예요. 처음에는 바지저고리를 입고있었어요. 그러다가 군대옷을 입었는데 우리 대장질을 했어요.》

필네는 슬그머니 손을 놓았다. 더 묻지 않아도 강정섭이다. 어디 가나 아이들과 섭쓸려다니는 그가 아니고 누가 아이들의 대장질을 하겠는가. 산판에 있을 때부터 나무 다루는 솜씨가 목수 찜쪄먹겠다고 하던 정섭이다. 게다가 바지저고리를 입고있다가 군복을 입었다는것을 보면 그가 유격대의 짐을 지고 두만강을 넘어섰다더니 이 마을에 와서 유격대에 든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였다.

갑성이는 어느새 또 제동무들쪽으로 달아나려 한다.

필네는 멍하니 서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 말했다.

《얘, 이 수건 나 주지 않을래?》

《가지라요. 얼마든지…》

갑성이는 그까짓 다 어지러워진 수건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듯이 한마디 내뱉고는 힝하니 달아났다.

필네는 수건을 꼭 뭉그려 줌안에 움켜쥐고 하염없이 북쪽하늘을 바라보았다.

장군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가? 유격대만 찾으면 장군님도 뵈옵고 오빠도 만나보고 그리고 이제는 유격대가 된것이 분명한 정섭이도 그속에서 만날수 있으련만…

그리움은 가슴을 우벼냈다.

어느새 동구길에 나선 일행이 찾는 목소리가 들린다.

필네는 눈물이 그렁해서 우물로 다가갔다. 말못하는 우물에 피가 통하는듯 정이 끌리였다.

아이들은 여전히 승벽을 내여 딸따리줄을 제가 차지하겠다고 덤빈다.

필네는 미끈하게 무어올린 귀틀벽 한옆에 붙어서서 싱싱한 송진내가 풍기는 기둥을 쓸었다. 귀틀도 기둥도 딸따리바퀴도 대충 도끼나 자귀로 아지를 치고 두드러진데만 껍질을 벗겨서 매끈한 맛은 없었지만 군데군데 하얀 이깔나무의 속결이 드러나서 연신 튕겨오르는 물방울에 번들거리는것이 어디라없이 곧고 결바르고 싱싱한 정섭이의 모습을 련상시켰다.

그가 장군님 품에 안기여 그이의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때 필네는 어느덧 자기도 그 품에 함께 안겨있는듯 한 느낌이 들었다. 그럴수록 그리움은 숨가쁘도록 가슴을 죄였다. 이제 장군님의 품은 꿈속에서나 그리던 막연한 세계가 아니였다.

불시에 자기 생활과 바투 접근된, 안타까이 소리쳐부르면 인차 대답이라도 해주실듯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는 품이였다.

《얘, 나 그 물 좀 주겠니?》

필네는 흥분에 입안이 바싹 말라들어 쉬여버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갑성이는 막 동무의 몸에 멋이 있게 끼얹어주려던 물통을 엉거주춤 쳐들고 필네의 눈물이 가랑가랑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필네는 입귀를 씰룩거리며 간신히 웃어보이고 물통굽에 깊숙이 고개를 수그렸다.

삼복에도 얼음같다는 물맛이 찡하니 가슴에 스며들었다.

13

유경문은 불과 며칠동안의 추격전에서 몸살을 만나 현성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태평촌 큰집에서 쓰러져버렸다. **김일성**장군의 유격대가 무섭다는 말만 들었지 실지 제몸으로는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였다. 이번만 해도 그것이 실지 제몸으로 **김일성**유격대를 겪었다고 봐야 하겠는지 어떤지 똑똑치 않았다.

시마끼란놈이 뒤에서 음흉수를 꾸미고 혼마가 또 음으로 양으로 자기를 못미더워하는 눈치를 챈 유경문은 괜히 결기가 치받쳐 《경찰토벌대》를 따라나섰던것이다. 말이 경찰국장이지 총 한방 쏘아본적 없는 그가 《토벌대》를 지휘할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현경찰국장이 직접 《토벌》에 나섰다는 그럴듯 한 너울을 씌워주었다. 그러나 그 너울도 첫날뿐이고 우선 숲속에서 구질거리는 비때문에 화려한 껍데기는 싹 벗어지고말았다. 회양동 못미쳐서 야숙을 하다가 재밤중에 유격대의 습격을 만난 때로부터 연 사흘동안 사슬에 묶이운 개처럼 유격대를 따라다닐내기 죽을 고생을 하였다. 유격대는 그렇게 끌고다니다가 어느 숲속에서 개배때기를 걷어차듯이 기관총 일제사격을 한번 되게 퍼부어놓고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다시는 찾을길이 없었다.

유경문은 어떻게 하라느냐는 《토벌대장》의 질문에 대해 끙끙 앓음소리로 대답하고 그길로 태평촌으로 마차에 실려왔다.

집이라기보다 성이라고 해야 할 이 엄청나게 크고 요란한 집대문앞에서 동생 주경무가 집안의 노복, 사병들 수십명을 거느리고 마차를 맞이하였다.

얼핏 고개를 돌려보니 동생은 시세에 따라 협화복을 입고 모자까지 쓰고 나왔는데 조금만 도수가 오르면 종들을 호령하여 대렬경례라도 시킬것만 같았다. 전보다 달라진것은 한집안 우글거리던 보위단이 푹 줄어들고 총마저 빼앗겨서 다른 노복들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점이였다. 그래도 보위단장 유청백이만은 커다란 목갑권총을 차고 눈알을 불량스럽게 굴리고있다.

유경문은 8촌인지 9촌인지 된다고 해서 집안일에 헌신적으로 나서는 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기는 몇촌이라고 헬수 없을만큼 먼 친척들도 그렇고 지어는 타고장, 타성 사람들도 유통사의 일이라면 누구든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삼촌 유상춘이 자식이 없어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누구의 손에 넘어갈지 모르는판이라 어떻게 알랑거려서 그중 몇잎이라도 뜯어내보자는 꿍꿍이들이다.

이제는 아저씨도 환갑이 넘었으니 단념하고말았지만 자식을 보겠다고 숙모를 여덟씩이나 얻어들이고 간곳마다 기생첩을 만들며 야단칠 때는 아닌게아니라 형세가 어디로 기울어질지 모를 형편이였다. 지어 어떤 계집은 왕청같은 군서방의 씨를 받아가지고 유상춘의 피줄이라고 내바치는년까지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경무가 그런것을 이악스럽게 밝히는데다 아저씨 역시 바람이 나기는 해도 그따위 롱간에 넘어갈 어수룩한 위인은 아니였다. 그럭저럭 이제는 로인자신도 이 태평촌 본댁에 눌러앉아 바깥출입을 삼가게 되고 세상공론도 유통사－유상춘의 재산은 큰조카, 작은조카에게 각각 반분되리라는데로 고착되였다.

한때 륙국통사라는 별명까지 들으며 동양3국을 안다니는데 없이 돌아치던 유상춘도 나이들고 어수선하던 시국 또한 《만주국》 창건과 함께 그럭저럭 대세가 정해지자 더는

통사로서 돌아칠 여지가 없게 되였다. 그는 《만주국》이라는것이 생겨나자 진작 제집에 물러나 틀고앉았다. 처음 한동안은 광산이요, 정미요, 잡화요 해서 여러 기업에 손수 손을 뻗치기도 하였다. 통사시절에 이미 닦아놓은 경제적지반도 있고 안면도 넓어서 9.18사변전후의 혼란된 시국에 편승한 그는 수많은 리권을 손에 걷어넣었다. 돈은 곽지로 긁어들이는것처럼 그의 손아귀로 쓸어들었다. 나라가 망했는데 집안이 번창한다는것이 꺼림직했던 그는 호협한 지사들을 륭숭하게 대하는 한편 토담을 높이 쌓고 100여명의 가병을 길렀다. 이 보위단은 화룡일판에서는 그중 잘 조직된 무력이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무기들이 그런 길로 해서 유격대로 넘어간다는 군부와 치안당국의 판단에 의하여 총을 다 바치게 되고 수자도 푹 줄어든데다 경찰의 지휘하에 들어가게 되여 유통사의 서슬은 저으기 꺾이였다.

그는 보신에도 치부에도 일체 무관심해져서 책과 화초를 벗삼아 여생을 보내고있었다.

드넓은 후원에 크게 역사를 벌려 련당을 파고 그 기슭에 전각 한채를 지어서는 스스로 자기 호를 따서 벽파당이라는 현판을 써붙였다. 그리고는 3년째 벽파당에서 나오지 않았다.

경문이 련당가까이 가니 열어젖힌 별당의 한 창문가에서 거문고소리가 울리여나왔다.

요즘 유상춘의 사랑을 받는 나어린 몸종이 타는것이였다.

경문이 마루우에 올라서자 인기척에 놀란듯 거문고소리는 문득 끊어지고 방금까지 침상에 걸터앉아있던 로인이 뒤로 드러누웠다. 다 보기 싫다는 소리다.

《숙부님, 그지간 기체 편안하십니까?》

경문이 침상앞에 가 넙적 꿇어앉으며 절을 하자 상춘은 놀란듯이 상반신을 일으켰다.

《음, 너 경문이가 웬일이냐?》

뻔히 알고있으면서 물으니 경문이는 또 뻔히 아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수 없었다.

《제 이번에 저 두만강기슭쪽으로 공산유격대를 토벌하러 갔댔습니다.》

《공산유격대를?》

상춘은 금시초문이라는듯이 눈을 흡뜨더니 야릇한 어조로 물었다.

《내 전년에 듣기는 공산유격대가 다 없어졌다고 하더니 이제 또 토벌을 하러 다닌다니 웬일이냐?》

경문은 속으로 괘씸한 생각이 들었으나 역시 정중하게 대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때는 다 없어졌지만 또 새로 생겼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니 한번 가라앉았던 불도 다시 번지군합니다.》

상춘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득 생각이 난듯이 목청을 가다듬고 말하였다.

《객사에 버들가지는 해마다 푸르른데 님은 한번 가고 돌아올줄 모르더라는 옛시가 있느니라, 봉산동에는 가봤느냐?》

《언제 그럴 사이가 있습니까. 이담에 짬봐서 가보도록 하지요.》

《하곡선생을 만나거든 한번 놀러 나오시래라. 내가 요즘 희귀한 호로병 하나를 얻었는데 하곡선생의 감정을 좀 받아봐야겠다.》

봉산동이란 경문의 처가고장이요 하곡선생이란 바로 그의 장인인 리경하의 호였다.

《가게 되면 그렇게 전하지요.》

경문은 뜨직하게 대답하고 이어 그 누구에게도 흥미없는 이야기를 한 10분 지껄이다가 벽파당에서 물러났다.

《얘 춘매야, 그 창문 열어제껴라. 누가 왔다가거든 곧 창문을 열어젖히라고 하지 않더냐.》

뒤에서 삼촌의 역증어린 목소리가 울리여왔다.

경문은 뒤덜미가 벌개졌다. 아무리 삼촌이지만 사람을 너무 업신여긴다. 자기는 하늘에라도 올라가있는듯이 세상 모든 일을 속된것으로 치부하려드는 그가 오히려 가소롭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감정을 숨길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처럼 철없이 놀아나는 로인을 탓하다가 노염을 사면 이 엄청난 재부를 다 잃어버릴수도 있는것이다.

경문은 자기 방에 돌아와서 다시 자리를 하고 드러누웠다. 실지 견딜수 없을만큼 사지가 지끈지끈 쏘고 골이 웅웅 우는것이 앉아있기가 바빴다.

동생 경무는 현성으로 의사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현경찰국장이 《토벌》에 나갔다가 촉한을 만났다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였다. 문병 오는 사람이 그치지 않았다.

경문은 사람을 봐가며 중환자흉내를 곧잘 내였다. 그러면서도 매일아침 벽파당에 문안인사 드리러 가는것은 잊지 않았다.

어느날 아침 경문이가 벽파당에 갔다가 심심한김에 후원기슭을 거닌다는것이 어느새 중문가까이까지 나갔다. 그 바깥은 보위단실이였다. 거기서 사람의 비명소리가 울리여왔다. 사람의 비명소리는 경문에게 가장 귀에 익은 소리였지만 이 안온한 토담울타리안에서 들어본지는 퍽 오래 되였다.

그는 무슨 금지된 구경이라도 보러 가는 소년처럼 발소리를 죽여가며 중문을 빠져나왔다.

《그래 네놈이 직접 **김일성**장군을 보았단말이냐?》

찢어지는듯 한 보위단장 유청백이의 목소리가 비명소리를 압도하였다.

경문은 놀라서 주춤 멎어섰다.

김일성장군을 보다니 대체 무슨 소린가? 그는 잠시 문밖에서 엿듣다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안타까와 문을 밀치고 방안에 들어섰다.

컴컴한 구석쪽에 책상을 놓고 앉아있던 유청백이가 사납게 눈을 희번덕거리며 치떠보다가 경문을 알아보고 벌떡 일어났다.

《형님이 어떻게 이런델 다 나오십니까?》

《집안에서 웬 소란을 피우며 야단이냐?》

경문은 점잖게 한마디 하고 방안을 살펴보았다. 가병들을 다스리던 이 보위단실은 아무런 장식도 빛갈도 없는 휑뎅그렁한 토방바닥인데 한쪽구석에 길다랗게 침상을 매여놓았고 반대편 한가운데에 유청백이가 늘 틀고앉아 호령질을 하군하는 투박한 책상이 하나 놓여있었다. 같은 솜씨로 만든 나무걸상 하나가 책상앞에 놓여있고 똑같이 생긴 긴 걸상 하나를 책상옆으로 비껴놓았다.

그 긴 걸상아래 맨 토방우에 웃동을 벗기운 한 사나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등때기에는 벌써 시뻘겋게 구렝이가 감겼다. 유청백이 손에 쥐고있는 말채찍으로 어지간히 조겼다는것이 한눈에 알렸다.

《이건 뭐냐?》

경문은 마치 물건을 가리키듯이 발끝으로 웃동 벗은 사나이를 가리키며 재차 물었다.

《탈주병입니다. 봉산동놈인데 장조네 려단에 복무하던놈이라는군요. 이번에 유격대토벌에 갔다가 내빼왔답니다.》

《유격대토벌? 그자들이 언제 토벌을 나갔단말인가?》

경문은 아직 봉천부대가 《토벌》에 나섰다는것은 모르고있었기때문에 떨떨해서 물었다.

《형님은 아직 모르는군요. 1대대가 몽땅 떨어나서 대마록구근방까지 나갔댔다는데요.》

《사실인가?》

경문은 혼마에게 속았다는것을 깨닫고 탈주병에게 소리쳤다.

탈주병은 잔뜩 겁먹은 눈으로 경문을 처다보더니 우들우들 떨며 말했다.

《사실입니다.》

《언제?》

《이젠 열흘나마 됐습지요.》

《열흘?》

그러고보면 자기네와 거의 같은 시기에 떠난것이다. 혼마란놈은 자기에게는 아무런 귀띔도 안해주고 따로 봉천부대를 내보냈다. 혼마의 립장에서 보면 그럴만한 근거도 있고 권한도 있겠지만 경찰이라는것이 결국 그의 단순한 리용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생각하니 밸이 꼴렸다. 그 역증을 30남짓돼보이는 불쌍한 탈주병에게 퍼부었다.

황진국이라는 그 탈주병은 이미 유청백에게 다 고해바친 이야기를 매 조목마다 매와 발길질을 당해가며 새로 공손하게 아뢰였다.

《몇대대야?》

하고 유경문은 갈비뼈가 앙상한 탈주병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예, 1대대올시다.》

《대대장이 누구야?》

하고 이번에는 면상을 쥐여박았다.

진국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코를 들이마시며 잠시 떨떨해있었다.

《왜 대답이 없어?》

경문은 정갱이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두번째타격을 받고야 진국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서둘러 대답했다.

《류종구올시다. 류소좌올시다.》

《그래 왜 탈주했다구?》

유경문은 군사지휘능력에 있어서는 거의 까막눈이나 다름없었지만 역시 경찰우두머리라 사람 치는데는 묘득이 있었고 또한 깊이 감추어둔 속심을 뽑아내는 요령도 대체로는 알고있었다.

보통 환경과 신변에 대한 극히 초보적인 자료를 묻는데 매우 혹독하게 굴던 그는 상대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습관적으로 초조해지는 눈치를 채자 슬쩍 기본문제를 끄집어내였다.

《저 사실 저는 탈주한것이 아닙니다. 그저…》

《뭐야?》

경문은 자기의 타산이 빗나간것을 보고 꿱 소리쳤다.

《그놈이 여간 질기지 않습니다.》

옆에서 청백이가 끼여들며 소리쳤다.

《임마, 탈주라는게 별겐줄 아느냐. 부대에 돌아가지 않으면 탈주병이지.》

경문은 청백이가 곁들어나서는것이 맞갖지 않았으나 억지로 참고 단순한 화풀이에 지나지 않는 심문에 어지간히 열중해버렸다. 제일 관심을 끄는것은 유격대의 실태였다. 진국은 유격대를 으리으리하고 요란하게 묘사한다. 부대의 규모며 장비, 보급상태 등 무엇이나 구체성은 하나도 없고 그저 굉장하더라, 무시무시하더라는것인데 그것이 경문이뿐아니라 청백이까지도 이 심문을 어느쪽으로 물고가야 할지 방향을 떨떨하게 만들었다. **김일성**유격대를 굉장한것으로 확인하는것이 사실에 가깝고 또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것으로 보는것이 유리하겠는지 한순간 갈피를 잡을수 없게 되였다.

이때문에 생겨난 사색의 공간을 그들은 매질로써 메꾸었다. 만일 이때 대문으로 승용마차가 들어서고 이어 경무가 의사를 데리고 나타나지 않았던들 황진국은 무슨 대답을 해도 속을 편안하게 해줄수 없는 심문때문에 적어도 반죽음은 당했을것이다.

《아니 편찮은 몸으로 왜 이런데 나와있습니까. 어서 가십시다. 의사가 왔습니다.》

경무는 흥분하여 시뻘겋게 피가 번진 형의 얼굴을 근심스럽게 바라보며 소매를 잡고 끌었다. 그러면서 청백이더러 지청구를 댔다.

《아니 자네는 눈치도 없이 이런 일에까지 형님께 근심을 끼쳐서야 되겠나.》

《일이 잘 안됐어요. 허지만 더러운 자식! 너 이담에 죽을줄 알아라. 형님, 어서 들어가보시지요. 뒤일은 내 료량해서 잘 처리할터이니…》

《아니다.》

경문은 동생에게 잡힌 소매를 뿌리치며 어마어마하게 말했다.

《이놈은 매우 중대한 국사범이다. 현경찰국에서 취급하도록 해야겠다.》

이러고있을 때 수련이가 날씬한 여름옷차림으로 나타났다.

《아이 여기들 모여서 뭘 해요?》

하고 그는 어수선한 방안을 두리번거리더니 경문을 보자 놀란듯이 다가왔다.

《아저씨는 어쩌면… 난 아저씨가 그렇게 용감하게 밀림으로 들어가기까지 할줄은 정말 몰랐어요. 부상은 어디에 당했어요?》

경문은 얼굴을 찌프렸다. 수련이가 또 자기를 놀려주려 일부러 여기까지 묻어왔구나 하고 생각하니 그 뽀얀 볼따귀를 구렝이가 감기도록 갈겨주고싶었다.

《부상은 무슨 부상, 그런데 넌 아직 학교에 안돌아갈 작정이냐?》

경문은 년장자답게 엄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배워줄게 뭐 있어요, 의사선생이 한 1년 쉬여야 한대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길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웬 사람이예요?》

수련은 경문이 어른티를 차리는것이 우습다는듯이 도톰한 아래입술을 비쭉 내밀며 실쭉해서 한마디 대답하고는 땅바닥에 꿇어앉은 사나이를 호기심에 차서 바라보았다. 전신에 멍들고 터진 자리가 널려있는 그 사나이는 고개를 푹 떨구고앉아 어깨를 우들우들 떨고있었다.

《아니 이게 황서방 아니예요?》

수련은 빡빡 깎은 머리 정수리에서 돈잎같은 상처를 보자 한동네에 사는 농사군임을 인차 알아보고 놀라서 부르짖었다.

《아가씨.》

사나이는 가까스로 고개를 들고 가련한 목소리로 낮게 불렀다. 면목이 없다는듯 송구해서 바라보는 황진국의 커다란 눈구석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괴여있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잡혀왔어요?》

수련은 황진국의 어지럽고 끔찍한 몸을 서슴없이 어루만지며 다급하게 물었다.

《아가씨, 죄를 지었어요. 유격대＜토벌＞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보위단장나으리한테 예순대나마 맞고 국장나으리한테 마흔대남짓하게 맞았어요.》

《그럼 백대도 나마 맞았게요?》

수련은 놀란듯이 부르짖으며 유청백이를 돌아보았다.

《얘 수련아.》

경문은 엄하게 불렀다.

《너 안으로 냉큼 들어가라. 그놈은 중대한 범인이다. 함부로 말을 걸어서는 안된다.》

《아니 공산군에게 포로가 됐다가 왔다는데 불쌍한 사람이 아니예요. 그런걸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해요?》

《철없는 소리 작작하고 썩 들어가지 못해!》

경문은 깨진 종이 빗맞은것처럼 어칠한 소리를 질렀다.

수련은 얼굴이 해쓱하게 질려서 세사람앞을 씽하고 지나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다.

《저런 계집애가…》

경문은 뒤쫓아가 한마디 하려다가 가까스로 참고 입맛을 쩝 다셨다.

《형님, 갑시다. 이놈은 청백이에게 맡겨두지요. 이런 소소한 일에까지 관심할 필요가 있나요. 불편하신 몸을 가지고…》

경무가 싹싹하게 말하며 등을 떠밀어서 경문은 마지못해 안채로 돌아왔다.

나살이나 건사한 의사는 그의 피둥피둥한 몸을 세심히 진찰하고나서 피해망상증의 징후가 있고 심장이 비대해졌으며 가벼운 감기기운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의사가 왔다간 다음부터 유경문은 별안간 심장이 아프다고 소리치기 시작하였다. 온 집안이 유경문의 침대곁에 모여 걱정들을 하였으며 다시 의사를 부르러 보내야겠다고들 말하였다.

그날새벽에 황진국은 세치나 되는 통널문에 주먹같은 자물쇠를 해단 문을 어떻게 빠져나가서 감쪽같이 탈출해버렸다.

이튿날 수련이는 봉산동 자기 집으로 간다고 으리으리한 유통사네 대문을 나섰다.

14

비는 그냥 구질거리고 적은 꼬리를 물고 놓지 않는다. 어제 김정숙동지께서는 가마속에 넣었던 쌀을 여섯번이나 도로 꺼내여 이고 달리시다가 마감에는 벌렁벌렁 끓는 가마를 그채로 머리에 이고 뛰지 않으면 안되시였다. 대원들은 그렇게 해서 익혀온 낟알을 넘기자니 뜨거운 감동이 치밀어 목젖이 잘 열리지를 않았다.

그처럼 낟알을 아꼈지만 계속되는 행군과 전투속에서 식량사정은 또 긴장되였다. 적들을 따돌리고 다시는 따라서지 못하게 결정적인 대책을 취해야만 하였다.

철구아주머니는 마침내 고열을 내며 드러누워 앓았다. 헛소리를 치는가 하면 이따금 의식을 잃군 하는 그를 이제는 부축해서도 걸을수 없어 들것에 눕혀 네사람이 메고갔다.

7련대가 돌아온 다음 행군방향을 서북방향으로 잡은지 사흘째 되는 날 조선인민혁명군은 엄청나게 큰 이깔나무숲속에 들어섰다.

하루종일 걸었지만 숲속에는 공지 하나 나지지 않고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거목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졌다. 해빛이 스며들지 못하여 바닥에는 풀도 자라지 못하고 해묵은 락엽만 무릎이 빠지도록 깔려있었다. 그런 락엽층을 뚫고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리라고는 상상도 할수 없었다. 날이 흐리고 비가 구질거리니 무장한 큰 대오가 가는데도 어쩐지 무시무시한 생각이 엄습해왔다. 그래서 그런지 적들도 함부로 달려들 생각을 못하고 먼발치에서 졸졸 따라오기만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기관총수들이 메고가는 철구아주머니의 들것채를 잡고 따라 걸으시며 몇번이고 말씀을 하시려다가 까실까실 튼 입술사이로 새여나오는 가냘픈 신음소리를 들으시고는 다음 기회로 미루군 하시였다.

철구아주머니는 정 고통이 심하면 담요밑에 얼굴을 파묻고 신음소리를 참으려 하는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를 맞쪼는 소리가 새여나와서 들것을 들고가는 대원들의 얼굴에도 비지땀이 내솟게 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차피 철구아주머니는 대오에서 떨어지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깨달으시였다. 첫째 이런 행군에 견디지 못하는것이 철구아주머니자신이였다.

두시간 가까이나 계속된 강행군끝에 겨우 휴식이 선포되였다.

모두 숨을 헐썩거리면서도 몸을 놀리고있을 때는 그래도 나은 편이였다. 일단 휴식이다 하고 펄썩 주저앉고보니 그 누구도 다시 일어날 생각을 못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들것에 누운채 눈을 지그시 감고있는 철구아주머니의 검푸르게 질린 얼굴을 근심에 잠겨 바라보시였다. 사정없이 흔들거리는 들것우에서 고열에 시달리는 그가 다시 견디여주기를 바란다는것은 가망없는 일이였다. 그렇다고 이 무인지경 원시림속에 그를 어떻게 떨구어둔단말인가.

재영이가 달려왔다. 사령관동지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들은 김정숙동지께서는 웬일인지 가슴이 두근거리시였다. 까닭없이 진작 이러한 부르심을 기다리고있었던것 같은 생각이 드시였다.

《어디로 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사령부가 있는 경위중대방향과는 반대쪽으로 방향을 잡는 재영이를 의아스럽게 바라보며 물으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저쪽에 계세요.》

《그쪽에 무슨 일이 있어요?》

《사령관동지께서 초막을 짓고계십니다.》

《초막?》

김정숙동지께서는 더는 묻지 않으시였다.

며칠째 계속되는 행군과정에 한번도 눈에 뜨이지 않던 공지가 나졌다.

도끼소리가 울리여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웃통을 벗어붙이시고 나무가지들을 자르고 계시였다. 공지한가운데 세가닥으로 기둥을 세우고 꼭대기를 칡넝쿨로 동인 초막의 형틀이 이미 세워져있다.

《사령관동지, 명령대로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올린 김정숙동지께서는 이어 그이의 손에 쥐여진 도끼로 손을 뻗치며 말씀하시였다.

《제가 하겠습니다.》

《일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꽤 견딜것 같습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땀이 내배이신 그이의 얼굴을 송구한 심정으로 바라보시였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에게 시키시지 않고 손수 이런 일까지 하십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리시였다.

《경위중대동무들이 다 지었습니다. 그 동무들이 지금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정숙동무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철구아주머니는 아무래도 행군에 견딜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걱정하다가 왔습니다.》

《이제 부대는 더 급하게 행군해야 합니다. 저놈들을 강기슭 못미처서 떼버려야 합니다. 그래놓고 아군이 유리한 지점에서 저놈들을 다시 끌어내다가 호되게 족치자는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힘겨운 행군을 해야겠는데 철구아주머니의 몸으로 그 행군을 견딜것 같지 못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잘라놓은 나무가지들을 가름대에 대고 두간두간 붙들어매여나가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강봉수와 재영이는 옆구리에서 잘 벼린 총창을 뽑아내여 잎이 무성한 가지들을 적당히 다듬어가지고 한아름씩 안아날랐다. 저쪽에서 텅텅 하고 나무찍는 소리가 나는것으로 보아 경위중대의 누군가가 거기서 가지를 치고있는 모양이다.

초막이라고 하지만 풀이 귀하니 나무가지로 웃설미를 대자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여기다 철구아주머니를 당분간 떨구어두고 병치료를 시켜야겠습니다. 정숙동무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잘 도와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때 몸이라도 성해야겠는데 사령관동지께 이런 걱정까지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사람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모진 시련속에서는 앓는것이 그리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철구아주머니는 젊지 않은 몸입니다.》

육체적부담을 두고 말한다면 누가 사령관동지만큼 힘든 사람이 있을것인가. 그런데도 사령관동지께서는 잠시의 휴식시간마저 다 바치시여 혁명의 운명전반에 대해 걱정하실뿐아니라 지어 이런 초막을 짓는 일에까지 몸소 손을 붙이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바로 그런것을 말씀드리고싶으시였다. 그러나 웬 까닭인지 말씀이 나가지 않으시였다. 철구아주머니를 정작 떨군다면 그가 고열을 앓는 몸으로 이 숲속에서 어떻게 견딜것인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때문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불안스럽게 사령관동지를 지켜보시였다.

《사실 유격대의 길을 어떻게 지금부터 다 내다볼수 있겠습니까. 나는 며칠후이면 당장 돌아오고싶지만 싸움을 치르면서 나가야 하니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여기다 몸이 추설 때까지 남겨두는것이 철구아주머니를 위해서도 좋을것 같습니다. 외진곳이니 적들에게 발견될 걱정도 없습니다. 좀 외롭겠지만 어찌겠습니까, 넉넉히 잡고 한달쯤 참아야 할것 같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하늘을 쳐다보시였다. 구름속에서나마 해가 기울어진것이 알리였다. 을씨년스런 구름장들이 형체도 없이 몰키여 남쪽으로 성급하게 흘러간다.

《그런데 철구아주머니에게 여러 동무를 떨구어둘수는 없습니다. 지금 부대의 형편을 봐도 큰 전투를 예견해야겠으니 누가 한사람이 남아서 철구아주머니를 돌봐야 할것 같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사령관동지의 설명을 듣지 않고도 지금형편에서 한사람의 환자를 간호할 사람을 따로 떼낸다는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쉽게 리해하실수 있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철구아주머니의 일이 그처럼

걱정스러우셨던것이다. 누가 함께 붙어있어서 간호를 해준다면 힘겨운 행군길에 들것에 누워 마구 흔들리는데 비길수가 없을것이다.

《정말 누가 남을수만 있다면 철구아주머니에게는 훨씬 좋을것 같습니다. 암만 봐야 열병같은데 그런 몸으로는 행군을 겪어낼것 같지 않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비로소 자신을 가지고 말씀드리시였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철구아주머니의 심정을 생각해볼 때 이 일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철구아주머니는 본시 외로운 사람입니다. 일가도 친척도 없습니다. 있다면 혁명전우가 있을뿐입니다. 그는 혁명의 품을 정든 제집처럼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 동무가 인적없는 숲속에 홀로 떨어졌을 때 무슨 생각인들 안하겠습니까. 좋자면 몇사람 같이 있게 해서 그 동무가 외로와하지 않고 신심을 가지도록 해주어야겠는데 그럴수가 없습니다. 그대신 한사람이 남아도 아주 가까운 동무를 떨구어야겠습니다. 정숙동무 생각에는 누가 적당할것 같습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간절한 눈길로 말씀없이 그이를 지켜보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정숙동지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시려는듯 초막을 꾸리시는데 열중해계시였다.

가름대를 얼추 다 매놓으시자 한걸음 물러서시여 모양을 살펴보시는가 하면 이곳저곳 흔들어도 보시고 밀어보시기도 하시였다.

아무래도 든든하지 못하다고 보신곳은 칡넝쿨토막을 찾아내시여 덧얽어매시고 다시 흔들어보시였다.

초막은 한두사람이 거처하기에는 넉넉하리만큼 크고 넓었다.

재영이가 섬겨드리는 나무가지들을 단으로 묶으시여 두툼하게 엮어나가시는 그이의 얼굴에는 차츰 피곤의 빛이 감출수 없이 드러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더는 보고만 있을수 없어 그이의 일손을 도와드리시였다. 강봉수와 재영이가 날라온 나무가지들을 어찌나 두텁게 깔아나가시는지 어방없이 모자랐다. 재영이는 도끼질소리가 나는쪽을 향하여 《소대장동무, 아직 모자라요. 자꾸 찍으라요.》하고 소리쳤다. 그쪽에 아마 강철룡이 있는 모양이다.

김정숙동지께서도 손에 잡히는 가지들을 자르기도 하고 재영이가 쳐낸것을 나르기도 하시였다.

다시 나무단들을 가름대에 대고 엮기 시작했을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이께 칡넝쿨이랑 나무가지들을 엮어서 섬겨드리며 조용히 말씀드리시였다.

《제가 남는다면 사령부의 식사는 어떻게 보장하겠는지 걱정됩니다.》

《정숙동무, 남아주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손을 멈추시고 시름이 놓이시는듯 밝은 음성으로 되물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드릴 대답이 없으시였다. 그저 눈길을 떨구고 나무단만 섬겨드리시였다.

《이미 짐작했겠지만 이런 일을 누구에게나 맡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정숙동무를 생각했습니다. 철구아주머니도 정숙동무가 옆에 있으면 마음을 놓을것 같습니다. 나 역시 정숙동무가 남아있으면 마음이 놓이겠습니다. 중태에 빠진 전우를 이런데 떨구어두고 가자니 내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정숙동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수고를 해주시오. 한달이내에 꼭 찾아오겠습니다.》

《사령관동지.》

김정숙동지께서는 괴롭게 울려나오는 그이의 말씀을 듣자 자기가 너무나 그이의 깊으신 뜻을 받들지 못했다는 송구한 생각이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리시였다.

《제가 남겠습니다. 사령관동지의 말씀대로 철구아주머니의 몸을 꼭 추세우겠습니다. 이제는 사령부로 돌아가주십시오. 제가 모든 차비를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마음이 놓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이미 다 된 초막을 다시 이리저리 살펴보시고 손질을 하시면서 우등불자리를 잡으시고 락엽을 손수 안아다 바닥에 깔고 그우에 귀한 새초를 멀리까지 가서 베여오시였다.

초막차비가 얼추 됐을 때 그이께서는 재영이를 휴식장소로 보내시여 조진범과 오백룡이를 불러오도록 하시였다.

두사람이 이 초막에서 날수 있도록 식량을 비롯한 차비를 갖추어주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

15

조선인민혁명군은 대원시림을 뚫고 단숨에 1 000여리를 북상하였다. 처음 한동안 죽을 기를 쓰며 따라오던 적들은 유격대의 행군속도가 갈수록 높아지자 마침내 떨어지고말았다.

그것은 휘풍동에서 서북방향으로 약 200리남짓 상거한 함지박같이 생긴 골짜기였다. 휘풍동지경에서 떠나 하루면 가댈 길을 실로 천리가까운 로정을 톱아 빙글빙글 돌아온셈이였다.

유격대를 놓치고 숲속에서 갈팡질팡하던 적들은 주변을 정찰한 결과 그것이 다름아닌 저희네 부대의 주둔지어방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놈들은 어쩔수 없이 바로 코앞에 있는 자기네 부대로 돌아가버렸다.

《참 기가 막히단말야. 그놈들의 마음속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시니 그놈들이 혼이 나지 않고 어찌겠나.》

허줄한 토스레차림을 한 인섭이가 감탄해서 중얼거렸다.

《저놈들이 설마 우리 장군님께서 제놈들을 돌려보내려고 여기까지 끌고오신줄은 꿈에도 모르겠지요?》

최병규는 원래가 수집은 성미라 자기 마음속의 격정을 조심스럽게 터놓았다.

《동무들, 조심하오. 저기 다리목에 기관총을 걸어놓지 않았소?》

정찰조를 책임진 김태규가 강기슭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인섭의 옆구리를 건드렸다.

그들은 지금 올기강기슭에 매복해있었다.

《이제 다리를 건너온 세놈이 어디론가 없어지지 않았소. 그런데 저 무덤같은것 우에서 무엇이 번쩍했소. 철갑모가 틀림없소. 저게 뭘가?》

김태규는 계속 강가를 이쪽저쪽 감시하면서 중얼거렸다.

올기강기슭을 따라 3등도로가 남북으로 뻗어나갔다. 그 길을 따라가면 한가닥은 화룡으로 통하고 증봉산을 넘으면 안도에 이른다고 한다. 강건너 백일평쪽에서

건너오는 나무다리 량쪽에 적들이 경비초소를 세웠는데 류동보초가 다리를 오락가락하기때문에 건너편쪽에 있는 그 수상한 축성물의 정체를 이쪽 산등성이에서는 알아낼길이 없었다.

놈들은 최근 강기슭에 새로 병영을 짓느라고 매일 한개 중대정도의 작업인원이 저 다리목에서 돌아친다는 농민들의 말이였다.

《암만해도 내려가보는것이 낫지 않겠는가?》

인섭은 눈덕을 비비며 쏘아보다가 아무래도 똑똑치 않으니 짜증비슷하게 말했다.

《내려가다니? 잡혀서 소동을 피우자구… 무슨 궁리가 있소?》

《궁리야 무슨 궁리가 있겠소. 어떻게 업어넘겨야지.》

《흥, 태평이군. 우리 정찰에 근거하여 사령관동지께서 작전을 세우신단말요.》

《그러니 똑똑히 해야 할것 아니우다?》

《하긴 그것도 그래. 그럼 나하고 같이 가볼가?》

《싫수다. 소대장동무야 왜놈장교흉내나 냈지 농사군흉내는 틀렸어요. 갈바에는 최동무하고 가는게 낫겠소다.》

《제가 무슨 책임자같군. 그럴것 없이 저놈들 한놈 잡아오는게 어떻겠소? 동무도 뭐 변장이 신통한것은 못돼. 그러니까 저 아래쪽여울로 강을 건너가서 매복해있다가 한놈 업어오는것이 두루 편할것 같구만.》

《그럼 그렇게 합시다. 내가 가서 업어올가요?》

《그것도 좋지만 동무는 또 누구하고 같이 가자고 하겠으니 차라리 여기서 엄호나 하오. 내 제꺽 갔다오겠소.》

《흥, 소대장동무가 가고싶다면 곱게 그렇게 말할것이지… 내가 언제 누구를 데리고가겠다고 하기나 한것처럼… 그럼 제꺽 갔다오시우다. 에- 따분한 정찰도 있군. 병규동무, 우리는 여기서 담배나 한대 피우장이.》

태규는 든든해보이는 이를 허옇게 드러내고 웃으며 인섭의 등을 툭 한번 치고는 새초밭으로 사라졌다.

《날래기는 날래단말이야. 오늘 어떤놈이 저 손에 걸리겠는지 명금이 밭은놈이지.》

《다리목으로 가자고 우기는건데 그랬소다. 이건 심심해서 견디겠소다.》

《하는수없지. 》

인섭은 얌전하면서도 은근히 고집이 있는 병규를 곯려주듯 저 혼자 씩 웃고는 벌렁 풀밭에 드러누웠다.

하늘에서도 오래간만에 구름속을 헤치고 나온 초여름의 해빛이 신선한 빛을 뿌리고있었다.

이때 다른 한조의 정찰조인 김준삼이네 소조는 아침나절에 현성안을 한바퀴 돈 다음 부대로 돌아오는 길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지난 장마행군때 봉천려단 1대대의 포로 황진국을 통하여 장조부대의 주력이 올기강기슭에 주둔하였을뿐아니라 안도, 돈화, 화룡을 련결하는 도로분기점에다 축성물공사를 벌려놓았다는것을 아시고는 적의 기도를 인차 간파하시였다.

올기강기슭의 적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머지않아 놈들이 이 여름에 유격대를 화룡현경안의 좁은 지역에다 봉쇄해넣으려고 하는 중요거점이 마련될것이였다. 따라서

이것을 사전에 짓부셔버려야만 놈들의 사기를 꺾어놓고 인민들에게 힘을 줄것이다. 아울러 적들로 하여금 광활한 전선에 병력을 널어놓지 않을수 없게 할것이며 결국은 더 많은 무력을 두만강기슭으로 끌어오게 할것이다. 그때에는 놈들을 한꺼번에 큼직하게 타격하고 단숨에 몸을 날려 광활한 전선으로 날아갈수 있을것이였다.

그리하여 사령관동지께서는 올기강기슭에서의 적의 군사적기도를 똑똑히 확인할뿐아니라 그것을 놈들의 전반적인 동태와 결부하여 파악할 목적으로 넓은 지역에 정찰조를 파견하셨던것이다.

김준삼이네 소조는 그중 멀리 파견된 정찰조였다. 그래서 기간도 넉넉히 정해주시였다. 그러나 워낙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대원시림을 꿰질러 100여리반경을 즈루밟아야 하니 길을 다우치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은 현성을 빠져나오자 갈 때와는 달리 곧장 큰길을 따라 남쪽으로 걸었다. 현성에서 얻은 수확은 특별한것이 없었다. 주변농촌에서 장보러 온것처럼 가장한 그들은 가게방 이외의 곳은 출입하기도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거리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는사이 적지 않은 인간들을 접촉할수 있었고 두루두루 얻어들은 말도 적지 않았다.

화룡거리에서 특징적인것은 수많은 군대와 경찰무력이 밀려들어있다는것이였다. 본시 있던 독립수비대외에 현성에 새로 증강된 부대는 길림 1려단이라고 했다. 2려단은 흔적도 없었다. 그놈들이 올기강기슭에 도사리고있다는것이 어느모로 보나 사실인듯 하다.

《이놈들이 이제는 압록강쪽의 무력을 얼추 끌어다놓은것 같소. 그런데 2려단만은 보이지 않으니 올기강에 그놈들이 있다는것이 틀림없을것 같소.》

김준삼은 이미 숲 저쪽으로 멀어져가는 현성쪽을 돌아보며 혼자말처럼 말했다.

《<신선대>라는것은 뭡니까?》

내내 남만쪽에서 싸우다가 지난 가을 남패자에서 7련대에 편입된 최동무가 물었다.

《그런게 있소.》

하고 김준삼은 무겁게 말했다.

《말하자면 왜놈들이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멸>하겠다고 특별히 조직한 부대지. 순전히 포수들로만 조직된 제일 악질적인 부대요. 그놈들도 유격대식으로 한다는거지. 산에 익숙한 포수들에게 훈련을 주어서 산으로 내몬단말이요. 그 대장이라는놈이 전에는 리도선이라고 천하 못된놈이였는데 재작년 여름에 4사동무들에게 맞아죽었지. 지금은 어떤놈이 하는지 모르겠소.》

《리도선의 형이란놈이 한답니다. 리도일이라고…》

리성림이 수굿하고 앞장서 걷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건 동무가 어떻게 아오?》

김준삼은 미덥지 못하다는듯이 잠시 성림의 뒤모습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내가 무산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동생의 원쑤를 갚겠다고 자진해나섰답니다. 연길, 화룡일판에서는 소문이 났댔습니다. 땅뙈기나 가지고있던놈이 호의호식 다 집어던지고 총을 메고 나섰으니 독한 마음을 먹었을것입니다. 어찌나 악질로 구는지 <신선대>다 하면 울던 아이들도 입을 다문다고 합니다.》

《흥, 그렇다면 이번에 그놈을 또 잡아치워야겠군.》

얼마 안가서 길가에 큰 동네가 나타났다.

《저것이 유통사가 산다는 태평촌이우다.》

정찰경험이 많은데다가 이 지대를 잘 안다고 해서 성림이와 함께 안내격으로 따라온 박용태가 걸음을 멈추고 말하였다.

그들은 이 어방에서 다시 숲속으로 들어갈 작정을 하고있었다. 태평촌근방은 유통사보위단이 돌아치기때문에 현성보다 더 위험하다는것이였다.

길가에 숨어서 한동안 동네를 살펴본 다음 숲속 오솔길로 길을 잡았다.

하늘을 볼수 없는 밀림속이라 얼마나 왔는지 대중할수 없었지만 해가늠을 해보면 그럭저럭 30리는 실히 왔을 때였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솔길은 다시 큰길로 이어졌다. 큰길이 다시 나지는바람에 일행은 긴장되였으나 살펴봐야 동네도 인가도 보이지 않고 한적한 3등도로가 뻗어있을뿐이라 마음놓고 큰길로 나섰다.

그런데 불과 한참을 못가서 뒤에서 워낭소리가 따라왔다.

일행은 길가 나무그늘에 숨었다. 마차를 살펴보니 한쪽은 황부루, 한쪽은 새까만 가라말이 끄는 쌍두마찬데 재빛포장을 씌운 고급승용마차이다.

《괜찮은데요. 》

박용태가 준삼이에게 속삭였다.

《이 어방에서 저런 마차를 타고다니는 사람은 현성의 큰 관리나 유통사밖에 없습니다. 잡아올가요? 뭘 알아낼수 있을것입니다.》

준삼은 주위를 살펴보았다. 주변에는 총소리를 울려봐야 당장 달려올 적이 있어보이지 않고 뒤는 길가에서부터 곧장 밀림이였다. 다른 정찰조들이 여러곳으로 떠나기는 했지만 자기네가 현성에 들어가서 알아낸 자료는 충분한것이 못되였다. 그가 보기에도 마차의 주인을 잡아족치면 무엇인가 게워놓을것 같았다.

《마차는 여기다 세워두고 최동무가 타고있소. 누가 물으면 주인이 소변보러 간것처럼 하오. 다짜고짜 저 큰나무아래까지 끌고오시오. 부르죠아란 아예 첫참에 혼을 내주어야 길이 잘 드오.》

준삼은 이렇게 말하고 제먼저 숲속으로 들어갔다.

마차는 삽시에 매복지점에 들이닥쳤다. 박용태가 그리 덤비지도 않고 길복판에 나서서 말고삐에 손을 뻗쳤다.

《이게 어떤놈이야! 저리 썩 비켜서지 못해!》

말이 대가리를 휘저으며 멎어서는바람에 마부령감이 허리를 일으키고 채찍으로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령감님, 좀 쉬여가시지요. 와－와－》

박용태가 능숙하게 말고삐를 잡고 말대가리를 다둑거리며 씩 웃으니 마부는 눈이 퀭해져서 새삼스럽게 사위를 휘둘러보았다. 권총을 뽑아들고 마차 량옆에 붙어서서 다짜고짜 문짝을 열어제끼는 두 젊은이를 보자 어지간히 건장해보이는 마부도 두 무릎을 사시나무떨듯 하였다.

그러나 더 놀란것은 마차문을 열어젖힌 유격대원들이였다. 시누런 견장을 단 경찰이나 군대 아니면 배뚱뚱이 토호같은것을 머리속에 그리고있던 그들은 우선 뜻밖에

풍겨오는 향수냄새에 코살을 찌프렸다. 이어 호피탄자우에 동그마니 앉아있는 해반주그레한 얼굴과 산뜻한 여름옷차림을 한 녀인의 모습에 눈이 화등잔같이 되였다.

《뭐야? 어서 끌어내시오.》

아직 영문을 모르는 박용태가 말고삐를 잡은채 소리쳤다.

《끌어낼것 있어요? 내가 나가지요.》

누가 대답하기 전에 이런 목소리와 함께 날씬한 처녀가 발디디개에 한발만 걸치고 길우에 성큼 내려섰을 때 박용태도 깜짝 놀랐다.

세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이런것도 과연 끌고갈만 한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것을 말없는 가운데 의논하는것이였다.

《당신들은 뭐예요?》

처녀는 눈섭 하나 까딱 않고 세사람을 번갈아보며 물었다.

이미 첫참에 혼을 내줄 기회를 놓쳐버린 세사람은 저으기 난감해져서 대체 어디서 이런 괴이한 물건이 나졌을가 하고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하여간 끌고갑시다.》

성림이 이렇게 말하며 숲속으로 턱질을 하였다.

《우리가 무엇인가는 이제 곧 알게 될거요. 어서 걸으시오.》

《말투를 보니 강도는 아닌것 같군요. 당신들은 대체 이게 누구네 마찬지 알기나 하고 이런 행동을 해요?》

《덕분에 그게나 좀 압시다. 이게 누구네 마차요?》

박용태가 비로소 정신을 수습하고 앞으로 나섰다.

《현경찰국장 유경문씨의 마차쯤 알아두고 이런 길목을 지키는게 좋겠는데요.》

수련이는 새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재빨리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자기딴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했던 그 말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뭐 현경찰국장? 그렇다면 바로 맞다들었군. 역시 내 눈이 틀림없단말이요.》

박용태가 이렇게 말하며 다짜고짜 수련이를 숲속으로 떠밀었다.

《이건 뭐예요?》

수련이는 비로소 파랗게 질리며 소리쳤다.

《마차주인이 아닌것이 유감이다. 어서 걷기나 해.》

수련이는 유경문을 끌어댄 자기의 옅은 꾀를 혀를 깨물고 후회하며 무시무시한 숲속으로 걸어갔다. 답답한 생활, 끝없는 탐욕과 간계, 음모가 인간의 모든 정신령역을 침식해버린 무시무시한 사회, 그런가 하면 온갖 비렬하고 속된것이 우글거리는 따분하고 너절한 분위기에 극도의 혐오감을 가지고 무엇인가 머리가 핑 돌만큼 자극적인 그 어떤 사건을 기다리며 살아온 수련이였다.

한밤중에 가병들을 꾀여내여 술을 먹이고 황진국을 빼내준것도 어릴 때부터 한동네에서 귀여워해주던 농민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무엇인가 그 토담속의 인간들을 놀라게 해주고 그들이 당황해서 돌아가는것을 보고싶은 얄궂은 심리가 더 많이 작용하고있었던것이다. 건강때문에 벌써 1년째 학교에 나가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은 한마디도 할수 없는 교원생활이 벌써 싫증난지 오랬다. 지금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주되는 원인은 건강에 있는것이 아니라 어용교과서의 랑송자노릇을 더는 하고싶지

않은 권태감에 있었다. 그렇다고 그 역겨운 생활, 역겨운 인간들과 대담하게 인연을 끊어버리고 나설 용기는 부족하였다.

언니를 비단옷가지속에서 시들어간다고 못살게 욕하고 마침내는 울려주기도 했지만 그자신 자기의 출로를 찾지 못했다. 어디에 가면 참된 생활이 있고 참다운 인간들을 만날수 있을가? 무엇인가 비상한 사건이 기다려졌다. 허구한 낮과 밤을 독서속에 보낸 수련이가 꿈꾸지 않은 생활이 어디 있으랴. 그는 공상속에서 이딸리아강도들의 환상적인 소굴에도 가보고 보헤미야의 산중에도 가봤으며 지어 화성의 정복자들속에도 끼여보았다.

그렇게 기다리던 비상한 사건이 마침내 눈앞에 벌어졌다. 그러나 우중충한 밀림속으로 한걸음한걸음 발길을 옮겨놓을 때 수련이의 마음은 랑만적인 꿈에만 잠겨있을수 없었다. 그는 아래다리가 후들거렸으며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눈앞이 캄캄하고 겁이 앞섰다. 그는 끔찍이도 깊이 들어가는것만 같아 절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마부는 수굿하고 뒤따라오는데 그는 이미 모든것을 단념해버린듯 철색얼굴을 무표정하게 쳐들고있었다. 그뒤로 따라오는 청년이 무의식중에 권총을 옆차기에 건사하려다가 도로 꺼냈다. 부드러운 그 얼굴빛으로 보아 어쩐지 그에게 사정하면 동정을 받을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한가닥 희망이 떠올랐다.

수련이는 주춤거리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직 멀었는가요?》

성림은 이윽히 그 녀자를 바라볼뿐 말없이 걸으라고 권총으로 앞을 가리켰다.

수련이는 다시 절망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앞을 바라보았다. 불과 여라문걸음 앞에 웬 사나이가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있었다. 진대통우에 조용히 걸터앉은 그 사람은 어찌나 태연하던지 자기앞으로 사람들이 다가오는것을 전혀 못보는것 같이 생각되였다.

《마차는 유경문의것이라는데 속에는 이런 부르죠아처녀가 앉아있습니다.》

박용태의 랑패한듯 한 말을 듣고서야 김준삼은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곧바로 수련이를 쏘아보았다. 허줄한 농군차림을 했지만 그쯘한 체격과 높은 이마, 날카로운 눈뿌리 어디에나 지성이 내풍기고있었다.

수련이는 무서운중에도 어딘가 낯익어보이는듯 한 어렴풋한 인상을 받았다.

《유경문이와 어떻게 되오?》

날카로운 눈빛에 비해서는 뜻밖이리만큼 부드럽고 또 세련된 말씨였다.

수련이는 상대가 무지막지한 폭한들이 아니라는것을 눈치채고 차츰 가슴이 진정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형부예요 》

《형부라는것은?》

준삼이 역시 속으로 난감한것을 느끼며 시들하게 물었다. 악질이면 악질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사람이고 어느편이든 계선이 명확해야 무엇인가 일할 거리가 있겠는데 유경문의 처제라는것은 전혀 달갑지 않은 존재였다.

《저의 언니가 그 집에 시집을 가서…》

《그것은 알만하오. 그런데 동무가… 말하자면 당신이 왜 그 집 마차를 타고다니는가말요?》

《전 언니한테 병 간호하러 갔댔습니다. 언니의 병이 나아서 집에 돌아가자니까 그 사람들이 마차를 내주었습니다.》

수련이는 여기서 자기가 약간 거짓말을 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았지만 상대방이 유경문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눈치챈 그때부터 저도모르게 자기가 유경문이와 그다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것을 은연중 말투에 풍기려고 애쓰게 되였다. 그것이 마음 한구석에 꺼림직하였지만 한편에서는 자기가 유경문이나 그 일가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집이 어디요?》

《봉산동입니다. 저는 목단강에서 교원질을 하고있는데 요즘 건강이 좋지 못해서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교원? 흥미있군, 그럼 당신도 알만 하겠는데… 가만 저 사람은 마차분가?》

《그렇습니다.》

하고 박용태가 대답하였다.

《그럼 용태동무는 저 사람을 데리고가서 뭘 좀 알아보오. 마차에는 최동무가 있지?》

《그렇습니다.》

《됐소. 그래 당신도 불편한대로 여기 좀 앉소. 무서워할것은 없소. 좀 놀란것 같은데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해 들은 말이 있소?》

수련이는 앉을념을 못하고 서있다가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바람에 안도의 숨이 새여나갔다.

《들었어요. 들어도 아주 많이 들었어요. **김일성**장군님께서 신출귀몰한 전법으로 왜놈군대와 경찰을 무자비하게 족치신다는 소문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우리 형부가 경찰을 끌고 유격대를 치러 간다고 나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몸살에 걸려서 돌아왔는걸요. 그럼 당신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인가요?》

수련이는 흥분하여 재빨리 말을 섬기고나서 두사람을 번갈아보았다. 역시 처음부터 어딘가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예감이 맞았다고 생각하니 머리속에서 흔적없이 사라졌던 랑만적인 꿈이 되살아났다.

김준삼은 그 녀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앉으시오. 허허허, 유경문이가 몸살에 걸렸단말이지. 그자가 <토벌>에 나온줄 알았더면 진작 잡아치울걸 유감스럽게 됐군. 그래 지금 그자가 어디에 있소? 당신네 형부라고 하는 그 유경문이말이요.》

수련이는 묻는대로 짤막짤막하게 대답을 하면서 계속 커다란 호기심을 가지고 두사람을 관찰하였다. 자기를 데리고오던 청년은 심문에 그닥 흥미가 없는지 가끔 이쪽을 볼뿐 생각에 잠겨있다. 우중충한 토호의 토담속 비단이부자리와 기름진 음식때문에 해이되고 타락한 저속한 인간들을 멀미나도록 보아온 수련에게는 신록이 무성하여가는 숲과 같이 청신한 정신과 약동하는 젊음과 발랄한 지성을 느끼게 하는 근육이 발달한 몸매며 솔직하고 간명한 말투며 허식을 모르는 몸가짐에 다감한 마음이 끌리였다. 게다가 그가운데 한사람은 볼수록 낯이 익었다.

이야기가 끝나갈무렵 수련이는 마침내 묻고야말았다.

《저도 사실 이 현실이 견딜수 없이 역겨워요. 그런데 실례지만 혹시 당신은 연길이나 룡정같은데 계신적이 없으신가요?》

《그건 왜 묻소?》

김준삼은 초면의 인테리처녀에게서 적의 동태, 특히 길림1려단과 봉천2려단의 움직임에 대해 캐여묻다가 불쑥 뜻밖의 질문을 받고 떨떨해졌다

《어쩐지 낯이 익어서요.》

《가만, 당신은 목단강에서 교원질을 한다고 했지? 그럼 학교를 목단강에서 다녔소?》

《아니요. 학교는 연길에서 다녔어요. 그때 동무들가운데는 조선학생도 많았어요.》

《그렇다면 어디선가 만났을수도 있지. 간도땅치고 내가 못다녀 본데라고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아가씨가 그때 나를 어디선가 만났다 해도 그걸 여태 기억하고있다는것은 잘 믿어지지 않는군요.》

준삼이는 잘라서 말하고 다시 마라초를 말기 시작하였다.

수련이는 일부러 푸접없이 굴려고 하는듯 한 그의 거동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확신에 차서 말했다.

《당신은 나를 조심하시는군요. 그건 아마 당신들의 립장에서 볼 때 응당한것이겠지요. 그러나 나는 벌써 당신을 어디서 봤는지 알아냈어요. 당신은 룡정에서 중학교를 다녔지요? 학교의 축구선수였지요? 당신은 그때 벌써 유명한

학생이였어요. 나도 한때 당신이 번개처럼 뽈을 몰고갈 때 열광적으로 박수를 친적이 있어요. 당신은 유도선수라고도 하더군요.》

《허, 이것은 지나친 영광을 베풀지 않는가요? 아가씨, 그런 부르죠아 처세술을 쓰기에는 아가씨도 너무 나이가 어린것 같고 또 대상도 적당한것 같지 않소. 내가 당신하고 특별히 구면이 아니라 해서 당신을 필요이상 엄격하게 다루지는 않을테니 아가씨의 형부같은 인간들의 흉내는 내지 마시오.》

김준삼은 속으로 좀 당황한것이 사실이나 아무래도 파악이 없는 녀자앞에서 자기 정체를 밝힐 필요도 없고 또 그것때문에 특별히 놀랄것도 없다고 생각되여 적당히 구슬려 넘기였다.

《너무 성내지 마세요. 나는 이런 숲속에서 당신을 만났다는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테니까요.》

《나를 만났다는것을 감출 필요는 없소. 뭐 나를 언청이로 본것도 아니고 녀학생때부터 박수를 쳐주었다니 잘못하면 아가씨네 집에서 무슨 오해라도 할가봐 걱정이 갈뿐이요.》

《어마나…》

수련이는 얼굴에 홍조를 띠우고 가볍게 부르짖었다.

사건의 시작은 어마어마하였으나 종말은 싱거웠다.

마부와 함께 다시 그 따분한 생활과 련결된 한적한 촌길에 단 둘이 남았을 때 수련이는 방금 자기네가 겪은 일이 꿈같이만 생각되였다.

《참, 이런 무서운 세상에 의로운분들도 있군요 》

수련이 이상으로 놀랐으나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마차의 자기 자리에 도로 앉게 된 마부는 멍하니 숲속을 바라보는 수련에게 중얼거렸다.

《아무 일도 없었던것처럼 말하세요.》

수련이는 비상한 그 무엇으로 충만되여있으면서도 조용히 설레이는 숲을 깊은 생각에 잠겨 바라보다가 마차에 올라탔다. 자기 일생에 단 한번밖에 차례지지 못한 뜻있는 생활에로의 비약의 기회가 허무하게 지나가버린것만 같은 아수한 생각이 가슴을 애틋하게 만들어주었다.

16

김준삼이네 정찰조가 화룡거리를 돌아다닐 그 무렵에 윤원구네 일행은 화룡에 도착하여 리호철이의 사무실 겸해 쓰는 장거리의 대서방 웃간에 려장을 풀었다.

하칠소토장을 떠나 20일이나 걸린 긴 로정이였다. 부지런히 걸었다면 넉넉잡고 1주일이면 대일 길을 왜놈경찰의 단련을 받고 아이가 앓고 마감에는 로자까지 떨어져서 동냥을 해가며, 품을 팔며 걷다나니 그렇게 엄청난 시간이 걸려버렸다.

리호철이는 거지꼴이 되여 도착한 그들을 당장 잡아먹을듯이 쏘아보다가 《팔자가 늘어졌군.》하고 이죽거리며 선자리에서 금천동으로 떠나라고 호령하였다.

춘길이의 눈이 번쩍거렸다. 뭉툭한 코와 큼직한 입, 코끼리눈같이 작게 반짝거리는 눈은 한없이 어질고 착한 그의 성미를 그대로 드러내고있었지만 이때만은 그 새초잎으로 째놓은것 같은 눈에서 류황같은 분노의 빛이 타올랐다.

《나는 못가겠소.》

이렇게 단마디로 잘라버린 그는 제 행장을 중국식 구들의 맨 구석에 쾅 메치고 비스듬히 드러누워버렸다. 일행중 그래도 걸을만 한 힘을 여태 가지고있는것은 그 한사람뿐이였지만 다른 일행들이 다리를 뻗어보지도 못하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될가봐 제먼저 밸을 내대고 드러누운것이였다.

《아니, 이 사람이, 자네 언제부터 그렇게 밸이 사나와졌나?》

리호철은 너무 어이가 없어 중얼거렸다.

《언제부터랄게 있소. 우리는 금천동으로 오다가 망했수다. 넨장, 기왕 망한판에 하루 쉬고 가겠다는데 왜 땍땍거리우?》

전같으면 윤원구나 장대선이가 나서서 말렸겠지만 그들도 이제는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려서 묵묵히 구들바닥에 보짐들을 내던지고 느릿느릿 걸터앉았다.

필네만이 보짐을 꼭 끼고 두꺼운 덧문 널장에 기대서서 음침한 거리를 바라보고있었다.

겉은 시꺼멓게 칠하고 안은 주토색, 혹은 진록색칠을 한 덧문들에 빨간 립춘방같은것이 얼룩덜룩 붙어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큰 종이수술을 매달기도 하고 새빨갛게 튀여놓은 통돼지가 가로누워 있기도 한 음식점이며 황아전이며 피물전 같은것들이 무시무시하게 생각되였다.

이제 다시는 정다운 사람들의 살뜰한 말을 들어볼것 같지도 않았고 두만강너머 두고온 그 포근한 산천을 밟아볼것 같지도 않았다.

황토먼지속에 떠도는 기름내, 파내, 한마디도 가려들을수 없는 떠들썩한 소음들이 빈속을 우벼내고 눈물집을 아프게 헤집기도 하였다.

그러나 필네는 입술을 앙다물고 지친 다리를 뻗디디고 서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무러면 사람을 잡아먹을가, 이제 오빠만 만나면 같이 조선 가서 살면 되지.)

사나운 눈매로 일행을 쏘아보던 리호철이가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별안간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모두 지친 모양이군. 나도 기다리기에 지쳐서 짜증이 좀 났던건데 량해들하오. 그럼 좀 쉬다가 떠나도록 하지. 낮에 우리 외삼촌이 물품구입때문에 달구지를 가지고 올지 모르겠는데 그때 함께 가는것도 좋고…》

앞으로 실속있게 부려먹기 위하여 베푸는 선심이라는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들은체도 않고 고개를 떨구었다.

리호철은 당꼬바지주머니에 두손을 지르고 회중시계사슬을 번쩍거리며 나가다가 필네를 가로떠보더니 역시 싹싹하게 한마디 했다.

《필네도 들어가 좀 누우라구. 이제 20리만 더 가면 제집이 있단말이야. 뜨뜻한 아래목과 구수한 이밥이 기다린단말야.》

어쩐지 참고있던 설음이 왈칵 쏟아지려 하였다.

제집-그따위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집이 그리워서 온 길도 아니고 뜨뜻한 아래목과 구수한 이밥이 그리워서 허위단심 그 먼길을 톺아온것은 더구나 아니다. 사람이 행색을 초라하게 하고 다니니 별것한테 다 수모를 받는것만 같아 새삼스럽게 자기 신세가 가긍하게 생각되였다.

호철이가 속들여다뵈는 느긋한 수작을 몇마디 더하고 사라진 다음에도 필네는 하염없이 떠들썩한 거리를 바라보며 서있었다.

갖가지 누데기를 온몸에 걸치고 너풀거리며 다니는 헌옷장사, 아가위를 꿴 짚뭉치막대기를 둘러멘 족두리모자,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게 구워내는 강낭지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희한한 광경들이 얼마든지 있었으나 필네는 서먹한 눈으로 까닭없이 웨치고 떠드는듯 한 그 사람들을 바라볼뿐이였다.

이때 그 소요속에서 불쑥 낯익은 얼굴이 떠올랐다.

김인수였다. 그는 장거리를 두릿두릿 살피며 붐비는 사람들사이를 빠져나오더니 강낭지짐장사앞에 무릎을 꺾고앉았다. 양복깃을 기세좋게 잡아헤치며 지짐장사가 종이에 두툼하게 싸주는 지짐을 받아서 무릎우에 척 놓았다.

어디서 돈이 났을가?

필네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일행이 먼길에 지치고 로자마저 떨어졌을 때 한목을 막아나선것이 김인수였다. 그는 동네에 들리면 큰 대문을 골라서 찾아갔다. 평생을 문명이나 예술의 도움 없이도 아무런 불편없이 살아온 시골부자들에게 김인수의 바이올린은 돼지목에 걸린 진주목걸이 같은것이였지만 어쨌든 그는 그 괴이한 나무통으로 기름때묻은 돈주머니에서 푼전을 털어냈고 허청간이든 행랑방이든 잠자리를 마련하였다.

김인수에게 신세를 적잖게 진 일행은 화룡거리에 들어서자 같이 금천동까지 가자고 끌었으나 그는 지금 당장 리호철이를 만나고싶지 않다고 하면서 후날 금천동에 찾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딴길로 갈라져갔던것이다.

김인수는 지짐장사와 롱지거리까지 몇마디 나누고나더니 성큼 일어나서 곧장 이리로 다가왔다. 지짐꾸레미를 옆에 끼고 활기에 차서 걸어오는 그를 보니 필네는 몇해만에 다시 만나는듯 반가왔으나 맥이 빠져서 그냥 한자리에 서있었다.

일행을 기쁘게 해줄양으로 성급히 문안에 발을 들여놓던 김인수는 필네를 띄여보고 지짐꾸레미를 쳐들었다.

《보라구, 돈이 생겼어, 역시 큰거리가 다르단말야. 어서 들어오라구. 모두 잠들지 않았나?》

필네는 수선스럽게 말하는 그를 미소를 띠고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러자 웬일인지 김인수는 정색하고 문밖으로 되나왔다.

《참, 필네, 내 그러지 않아도 조용히 할 말이 있는데…》

필네는 인수의 구겨진 옷가지와 헐어빠진 깽깽이통과 누렇게 뜬 얼굴을 바라보며 다음말을 기다렸다.

《난 일자리를 하나 얻었어. 저 장거리에서 점심값을 벌자고 판을 벌렸더니 마침 그앞이 보천당약방이라는 신약도매상이야. 바이올린소리를 듣고 그 집 주인이 나와서 기웃거리더니 나더러 저네 약방 외교원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묻더군. 바이올린을 켜며 약광고를 하라는거지. 뭐 까다롭게 생각할것 있나, 덮어놓고 선금을 얼마간 받아가지고 오는길이야. 헌데 필네생각이 나더라니 다시 말을 붙여보았지. 그게 딱 맞아떨어졌어. 마침 식모를 구하던 참이라는군. 어때?》

그러면서 김인수는 광산이 여기서도 산속깊이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아예 빠져나올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필네는 아닌게아니라 귀가 솔깃해졌다. 힘들고 구석진것은 다음문제고 오는길에 보아야 갈수록 산천이 낯설어지는데 이보다 더 깊은곳에 들어가서 오빠의 소식을 듣는다는것은 거의 가망없는 일같이 생각되였다. 그럴바에는 사람의 래왕이라도 많은 이런 곳에 있는편이 낫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허지만 나같은것을 그 집에서 받자고 할가요?》

《받지 않구. 그 집 주인도 보아하니 사람은 깬 사람이더군. 필네의 사정이야기도 하고 또 필네 일솜씨를 보면야…》

필네는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다. 미처 작정을 하기도 전부터 벌써 일행과 떨어지는것이 신의없는 일같이 생각되여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저 금천동까지 가보고 다시 나오면 안될가요?》

필네는 좀 겁먹은 눈으로 김인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건 무엇때문에… 그러다가 리호철의 올가미에 걸리자구… 떨어지자면 지금 떨어져야 한다니까. 내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알리기 전에 필네한테 먼저 말하는것이 아닌가. 인정이 그렇지 못해서 같은 자리에서 말을 꺼내면 필네가 남보기 위해서도 마음을 진정하기 어려울거란말이야.》

그것은 김인수의 말이 그럴듯 하였다. 그러나 쉬 마음이 다잡히지는 않았다.

《그럼 좀 생각해보라구. 저 사람들이 시장하겠는데 이걸로 요기나 좀 시키고… 필네도 들어오라구.》

이러며 돌아서던 김인수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금 일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해.》

김인수는 장한듯이 이렇게 말하며 뜻밖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는 장거리에서 김준삼이와 리성림을 보았다는것이였다.

《그 경관놈이 이시가와구미든 호리모도구미든 제마음대로 붙여준다고 땅땅 큰소리를 치더니 웬걸 화룡거리를 헤매고있는것을 보면 다 틀린 모양이거던.》

필네는 긴장되였다. 인차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혹시 그들이 유격대인지 모른다고 수군거리던 생각도 선히 되살아났으나 짐짓 다잡고 물었다.

《누굴 그래요.》

《참 답답하군. 진호네랑 장대선아바이랑 한 광산에 있었다던 사람 생각 안나? 그 사람들이 유격대라고 대선아바이랑 춘길이랑 우기다가 말다툼까지 하지 않았나.》

《그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필네는 성급하게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 성문쪽으로 가더군.》

《왜 말을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약방주인하고 한참 계약조건을 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바깥을 지나가더군. 뿌리치고 나갈 짬도 없었지만 만나서는 또 뭘 하겠나. 만나야 답답한 소리밖에 할게 있나.》

《그 사람들이 혹시 정말…》

필네는 무중 튀여나오려는 다음말을 가까스로 누르고 다그쳐물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 갔어요?》

《이제는 퍼그나 갔을거야. 내가 주인하고 한시간나마 이야기를 한데다 장거리를 또 한참 돌아다녔으니…》

필네는 방금까지 김인수에게 품고있던 친근한 생각이 싹 얼어들고 정이 뚝 떨어졌다.

그는 공연한짓인줄 뻔히 알면서도 그 청년들이 사라져갔다는 성문쪽으로 종종걸음을 쳤다.

김인수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거듭 불렀으나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 세상은 끝없이 넓은것 같으면서도 알고보면 이렇게 좁기도 하다. 그 사람들이 정말 유격대원이라면… 유격대원일수도 있지 않는가. 아니, 유격대이기가 쉽다. 그렇다면 그들은 장군님따라 무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나온것이 아닐가. 만약 그렇다면 유격대가 이 어방에도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

사람들의 짬을 누비며 달리다싶이 걸어가는 필네의 머리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번갈아 떠올랐다가 사라지군하였다.

성문을 빠져나와 한참을 걸어가니 행인들은 다 없어지고 막막한 벌판이 끝없이 가로누워있었다. 역시 세상은 끝간데 없이, 손 붙일데 없이 넓고 푸접없어보였다.

엊그제 강건너에서 만났던 사람을 천리밖에서 다시 만나기도 하는데 우리 오누이는 왜 이렇게도 만나기 어려울가 이런 생각을 하니 불시에 눈앞이 보얗게 흐려들었다.

혹시 그들을 잡고 물어보았다면 실머리가 잡힐수도 있지 않았는가, 그러자 맥락없이 정섭이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그럴수록 안타까운 마음 한구석에 김인수에 대한 원망이 자리잡았다.

무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생길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인사말 한마디 건네는데 돈이 드는가, 금이 드는가, 실없이 사람의 슬픈 마음을 건드리는 슬픈 노래나 잘 부르면 뭘 하는가.

필네는 약방의 식모자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정든 일행과 떨어지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아수한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 청년들이 사라져갔을 남쪽길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17

허리까지 치는 새초가 강기슭에 한벌 깔렸다. 드문드문 들어선 백양나무가 이 평화로운 달밤의 파수병인양 껑충하니 서서 주절주절 흐르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는듯 하다.

밤의 정적에 공명되여 물소리는 마치 지척에서 울리는듯하지만 실상은 새초밭의 폭이 100여m나 되고 그앞에 또 꽤 넓은 습지가 이어져있었다. 귀로 듣는 소리는 그처럼 가깝게 느껴지지만 눈으로 보는데는 반대로 달빛에 부스러지는 물결이 아득히 멀리 느껴졌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어제 정찰조들의 보고를 다 들으신 다음 백일평의 장조부대주력을 짓부실 전투를 당장 진행할 결심을 하시였다. 김준삼정찰조가 수련이를 통해 알아낸 1려단과 2려단의 움직임은 사령관동지께서 예상하신대로 적들이 올기강기슭에다 든든한 《토벌》, 봉쇄를 위한 거점을 꾸리고있다는것을 확증해주었다.

전투를 빨리 진행할수록 좋다고 결론하신 사령관동지께서는 김태규가 데리고온 백일평농민과 함께 몸소 이 강기슭까지 나오시여 지형을 살펴보시였다. 어제 김태규는 적을 생포해오겠다고 장담하고 강을 건너가 놈들이 지나다니는 소로가에 매복했으나 종시 한놈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적병영으로 바싹 접근하려고 하는데 마침 백일평의 한 농민을 만나 그를 데리고왔던것이다. 다행히 그 농민은 마초며 나무들을 싣고 병영에 자주 드나든 사람이였다. 그 사람을 통해 백일평의 지형과 적의 동태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사령관동지의 결심에 의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은 새벽 2시에 비상소집을 일으켜 올기강기슭으로 진출하였다.

대원들의 사기는 높았다. 전투목적도 뚜렷하였다. 백일평은 안도, 돈화 그리고 화룡현성으로 통하는 도로를 끼고 이 일대에서 제일 높은 증봉산기슭에 자리잡고있어서 적들이 이 지대를 요새화하면 유격대가 두만강기슭의 좁다란 지역에 봉쇄될수 있다.

따라서 화룡, 안도일대의 광활한 지역에서 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유격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올기강기슭에 새 병영을 짓고 큰 무력을 상주시켜 도로분기점과 제일 높은 산을 제놈들의 완전한 군사적통제하에 넣으려는 적의 기도를 사전에 분쇄하여야 한다는 사령관동지의 구상은 전군에 침투되여있었다.

더구나 전투를 앞두고 알아본데 의하면 최근에 갑자기 증강된 봉천려단때문에 백일평농민들이 겪는 고통이 말이 아니였다. 그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한번은 진행하지 않으면 안될 전투였다. 그렇기때문에 지휘관들이나 전사들이 여태까지

구질거리는 장마비속을 검질기게 따라다니던놈들을 되게 족침으로써 두만강기슭 광활한 땅에 유격대의 자유천지를 만들겠다고 벼르고있었다.

날이 밝자면 아직 2시간나마 있어야 할것이다. 초여름 농사철이라 일찍부터 들에 사람들이 나타날수 있기때문에 그전에 매복지점을 차지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비상소집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이미 매복지점을 차지한 이상에는 전부대가 뜬눈으로 밝힐 필요는 없었다. 그러기때문에 적들이 나타날 통로 맨 남쪽에 김준삼의 매복조만 경계를 서게 하고 새초밭 초입의 7련대나 중앙의 경위중대, 다리목에 바싹 붙어선 8련대에서는 모두 잠을 자게 하였다. 지난 겨울이래 간고한 로정을 헤쳐오느라고 지휘관들이나 전사들이나 모두 몸이 축간데다 최근 장마속의 행군으로 해서 상한 동무들이 많았다. 철구아주머니처럼 아예 몸져눕지는 않았지만 어느 얼굴을 보아도 광대뼈가 솟고 눈확이 꺼져들어갔으며 짬만 있으면 조는 동무들이 많다. 게다가 지난밤에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20리길을 단숨에 달려왔기때문에 닥쳐올 전투를 위해서도 몸을 쉬여야 하였다.

사격진지를 만든 다음 전사들은 새초들을 쓸어눕혀서 폭신한 잠자리를 만들었다. 500～600m나 길게 늘어선 매복진에서는 이어 고르롭게 코고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6월달의 싱그러운 밤바람, 주절거리는 물소리, 얼룩진 구름짬으로 내비치는 은은한 달빛 그리고 전신에 갈마드는 피로가 걷잡을수 없이 깊은 잠속으로 끌고들어갔다. 도투발이라는 보리쌀만큼씩한 모기가 사정없이 독침을 들이박아 처음 한동안 손등이며

목덜미를 두들기군하던 동무들도 나중에는 모기를 친다는것이 마치 그 누구를 부르는듯 나른한 손짓을 몇번 하더니 곧 그것마저 잊어버리고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사령부성원들도 모두 잠재우신 다음 재영이 한사람만 데리시고 매복진을 돌아보시였다. 8련대가 차지한 끝머리부터 경위중대를 거쳐 7련대까지 천천히 걸어나오시며 기신없이 곯아떨어진 대원들을 보시니 측은한 생각이 가슴에 차오르시였다. 만일 지난 보름가까운동안 내처 장마비속을 적을 달고 달리지만 않았어도 대원들을 푹 쉬우고 그지간에 많은 일을 할수도 있었을것이다. 오늘 김준삼이네가 현성까지 들어가서 알아본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쏘련과 일제 사이에 군사적충돌이 크게 벌어진것은 확실하고 그에 따라 적들의 행동성격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어떻든 여기 모여든놈들을 철저히 제압해야 다른놈들을 끌고올것이다.

사령관동지께서 경계진지에 오시니 준삼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어떻습니까? 아직 정황이 없소?》

《아무런 정황도 없습니다. 지금쯤 모두 단잠이 들었을것입니다. 오늘은 날이 흐려서 놈들이 온다 해도 여느날보다는 좀 늦어질것 같습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미리 유인조를 준비하시오. 어쨌든 지도관이라는놈이 새 병실 짓는것때문에 그렇게 볶아친다니 틀림없이 오기는 올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내 시간이 늦어지면 유인조를 보내겠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용히 준삼을 돌아보시였다. 달빛아래 떠오르는 그 얼굴에는 큰 전투를 앞둔 흥분과 함께 피로가 력력히 어리여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대원들이 피로했고 또 적이 정말 나타나겠는가 하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진지에서는 절대로 졸아서는 안됩니다. 전부대가 동무들을 믿고 잠자고있는데 동무들까지 졸아버리면 야단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준삼이네 경계진지는 더할나위없이 잘 꾸려졌다. 적들이 지나갈 도로가 20m가량 앞에 놓였는데 그 길은 나무 한그루 가린데 없이 넓은 시야속에 다 드러나있었다. 밝아서 적들이 나타난다면 이쪽에서는 2 000m거리에서부터 똑똑히 감시할수 있었다. 그러나 매복진지는 새초밭속에 다시 구뎅이들을 파고 그우에 새초로 위장을 철저히 했기때문에 바로 2m앞에 적이 나타나도 발견하기 어렵게 되여있었다.

《잘 꾸렸습니다. 이제 동무들이 각성만 높이고있으면 오늘 전투의 승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쁨에 넘치신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사실 과장없이 말해서 진지는 잘 꾸려졌고 또 이런 부문에서 준삼은 빈틈이 없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얼마간 마음속이 가벼워지시여 사령부로 돌아오시였다.

《재영이.》

생각에 잠겨 걸으시던 그이께서는 문득 뒤따라오는 전령병을 부르시였다. 사사로운 이름으로 부르실 때는 항용 그이께서 심중깊이 품고계시던 말씀을 하신다는것을 잘 아는 재영은 걸음을 다그쳐 바싹 그이곁에 붙어섰다.

《힘들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나어린 전령병의 어깨우에 한손을 올려놓으시고 부드럽게 물으시였다.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다? 그래도 며칠만 쉬였으면 훨씬 견디기 헐하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며칠 쉬는 사이에 적들은 진지를 튼튼히 꾸려놓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애를 먹어야 이 두만강기슭을 우리 세상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힘이 들지만 오늘밤에 꼭 전투를 하자는것이지.》

이렇게 받아외우시는 **김일성**동지의 마음속은 평온하지 못하시였다. 달빛아래서도 재영의 두볼은 까칠해보였으며 마른 버짐이 잔뜩 피여난것이 알렸다. 한창 자랄 나이라 잘먹고 편안히 지내도 버짐이 필수 있겠지만 성장에 가장 좋은 조건을 지어주지 못한 어버이심정은 그때마다 저리고 무거우시였다. 세상풍파에 부대낄대로 부대낀 완강한 장정들도 견디기 힘들어한다. 항차 열일곱살 소년에게 이 여름날의 풍만한 자연을 그대로 즐기고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

이슬이 소리없이 내리여 새초줄기가 번쩍거렸다. 그이의 군복어깨는 가랑비라도 맞은듯 축축해졌다. 어쩐지 온몸이 으시시해나는것 같은 느낌이 드시였다. 밤은 그냥 깊어만 가는듯 만물이 숨소리를 죽여버렸다. 그속에서 오직 물소리만 주절거리고 이슬에 젖어 껍진껍진하게 느껴지는 어둠은 그야말로 무슨 장막이라도 늘인듯 두텁게 느껴졌다.

사령부자리에 돌아오신 그이께서는 잠든 대원들을 한바퀴 돌아보신 다음 재영이를 자라고 이르시고 자신께서도 잠시 눈을 붙이실 작정으로 군복단추를 끄르시였다.

여름밤이지만 강기슭이라 랭기가 엄습해왔다. 버드나무등걸에 몸을 기대신 그이께서는 지그시 눈을 감으시였다.

모두 추워서 새초더미에 머리를 파묻고 잔뜩 옹송그리고들 잔다. 이슬에 젖어가지고도 코를 골며 한잠들이 들었다. 노루가죽들을 깔기는 했지만 하늘을 가리울 방도는 없다. 우등불을 못피우니 어쩔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모처럼 잠잘 시간을 얻은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누가 들어가도 모르게 잠에 취해버렸다. 닥쳐올 전투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도 안한다.

과연 그 전투가 얼마나 간고한것이며 얼마나 가슴아픈 희생을 강요하였던가. 그래도 유격대원들은 전투에서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두려워하는것은 무의미한 죽음이다.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인가. 그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생각할 때 그런 인간들이 이 독한 밤이슬을 노박 맞고있다는것이 참을수 없이 안타까우시였다.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잠꼬대소리도 간간 울린다. 소스라쳐 소리를 치는 동무들도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온몸이 잦아드는듯 졸음이 무겁게 실리는것을 느끼셨지만 꿈속에서도 괴로와하는 대원들을 느끼시자 어쩔수 없는 충동에 다시 몸을 일으키시였다.

어느새 재영이도 잠들었다. 상철이도, 강봉수도, 오백룡이도 모두 잠들었다. 기관총소대에서는 금시 하늘이 무너지는듯한 코소리가 울리여나왔다. 모두 건장한 대원들이라 기관총진지를 든든히 꾸려놓고 새초를 푼푼히 베여 잠자리도 푹신하게 마련했는데 코소리 또한 요란하였다. 네활개를 쭉 뻗고 꿈에 무엇을 먹는지 입을

우물거리며 태평스럽게 잠들어있는 그들을 보시니 한결 마음속이 밝아지시였다. 그러나 어떤 대원들은 너무 피로해서 그런지 대수 풀을 베여깔고 잔뜩 꼬부리고 누웠는데 이슬에 맞은 얼굴이 달빛에 번들거렸다. 이렇게 밤을 자고나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

모든 대원들에게 풀이나마 푹신히 덮어주고싶으시였다. 그러나 지금은 마른풀도 귀한 철이다. 하는수없이 몇장 안되는 사령부의 모포를 전령병들을 위해 한장만 남겨놓고 다 거두시여 그중 약해보이는 대원들에게 덮어주시였다.

7련대매복진지에 오시니 역시 옹송그리며 이슬을 맞고있는 대원들이 한둘이 아니였다.

그중에도 나이 어린 영남이가 오중흡의 품에 안기여 쌔근쌔근 잠자고있는것을 보시니 명치끝이 새삼스럽게 아릿해나시였다. 오중흡이도 잠자는 모상이 말이 아니였다. 하기는 이 대오에서 오중흡이만큼 분주히 뛰는 사람이 없다. 단순한 행군량으로 말해도 여느 대원의 곱은 될것이다. 그래도 평소에는 힘들어하는 기색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는데 잠들어버린 지금에는 그 과중한 정신적, 육체적 부하의 흔적을 감추어내지 못하였다. 숨소리가 다급하게 높아졌다가는 별안간 뚝 멎어서 보는 사람의 가슴을 섬찍하게 만들기도 하고 목에 무엇이 걸렸는지 한참 갈린 소리를 내기도 한다. 반쯤 열린 입에서는 숨이 아니라 그대로 힘이 빠져나가는듯 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무의식중에 사위를 둘러보시였다. 련대장에게 담요가 없을수 없는데 누구를 덮어주었는지 자신은 이슬아래 온몸을 드러내고있다. 무엇을 덮어주고싶으셨지만 방금 8련대의 한 대원이 끙끙 앓음소리를 치는것을 보시고 마지막 담요를 덮어주셨기때문에 그이자신께서는 이제 아무것도 가지신것이 없으시였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정신과 자질을 타고난 대원들에게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안겨주고싶으신 그이의 심정에는 밤이슬을 가리울 한장의 담요가 없어서 골고루 덮어주지 못하시는것이 가슴아프시였다.

그러나 이들이 오늘 수행하자는 전투는 얼마나 중요한 전투인가? 위기에 처한 조국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적의 10만대군을 물리치며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 조선인민혁명군이 이 두만강류역에서 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광범한 혁명군중을 묶어세워 또다시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를 뿌리고 살을 저미며 헤쳐온 그 간고한 투쟁로정에서 뚜렷한 결절점으로, 리정표로 될 그런 전투이다. 이해에 조선혁명이 이룩하고저 하는 총적인 과업을 놓고볼 때 무산지구전투가 위대한 서곡이였다면 오늘 진행될 전투는 적아간의 력량관계를 이 과업수행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킬 력사적인 전환점으로 될것이다.

이런 위업의 높이에서 볼 때 우리 전사들의 모습은 너무나 소박하였다.

《누구요?》

저만치 떨어진 곳에서 누가 소리쳤다.

《쉿!》

사령관동지께서는 놀라시여 우선 말소리를 못내게 막으신 다음 그리로 다가가시였다.

《누구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퍽 낮았지만 더 깊은 의문이 어린 물음이였다.

《나요. 그런데 왜 자지 않습니까?》

《아, 사령관동지.》

그이의 모습과 목소리를 제깍 알아본 대원은 허둥지둥 일어서려 하였다. 7련대의 신대원 강정섭이였다.

《앉으시오. 앉으시오. 다른 동무들이 깨겠소. 그래 왜 여태 자지 않소?》

사령관동지께서는 정섭이곁에 나란히 앉으시며 미끈하게 자란 청년의 몸매를 대견하게 바라보시였다.

《왜 그런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놈들에게 제발로 찾아가서 죽을번한 생각을 하면…》

정섭이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였다. 누구나 첫 전투를 앞두고 겪게 되는 과민한 상태에 있다는것을 알아보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정섭이의 어깨를 쓰다듬어주시며 말씀하시였다.

《그게 얼마나 기막힌 일이요. 가만있자니 할아버지가 고생하시겠고 그러니 동무는 하는수없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놈들한테 찾아가서 죽여달라고 청한셈이 되였소. 이것이 다 조직적투쟁을 하지 못하면 누구나 겪게 되는 비극이라는것을 알아야 하오. 우리가 만일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벌리지 않았다면 조선사람은 모두가 이런 운명에 빠지게 될것이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고 정섭이는 더수기를 긁적거리다가 숨김없이 자기 심중을 말씀드리였다.

《지난 장마행군때까지도 그렇게 깊은 생각을 못하고있었습니다. 오랜 대원들은 다 단련이 돼서 잘 견디고 나는 단련이 못돼서 힘이 들다고 생각하면서 좀… 저,

주저앉을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투쟁을 하는것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보다 더 좋은…》

정섭이는 어떻게 자기 마음속을 표현했으면 좋겠는지 몰라서 더듬거렸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고 말씀하시였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나라와 인민을 위해 싸우는것이 제일 사람답고 떳떳하고 행복한 일이지. 그래서 우리모두가 견디여나가는거요.》

《그렇습니다. 바로 저도… 이제는 저도 그런것을 어렴풋이 알것 같습니다. 그렇게 각오가 선 동무들은 저보다 힘이 약한 동무들도 훨씬 더 잘 견딥니다.》

《좋은것을 깨달았소. 아주 중요한 문제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싸우면 이번 전투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소.》

《그런데…》

정섭이는 또다시 뒤더수기를 긁적거리며 말끝을 여미지 못한다.

《왜 자신이 없소?》

사령관동지께서는 웬일인지 정섭이의 일에 왼심이 쓰이는것을 느끼시며 심중하게 물으시였다.

《암만해도 총이 제대로 나가겠는지 걱정입니다.》

《그래 잠을 못자는구만. 어디 총을 봅시다.》

정섭이는 그러안고있던 총을 그이께 내드리였다.

《좋은 총이구만, 신식총이요. 사격련습은 해봤습니까?》

《조준련습은 회양동에서부터 했습니다. 실탄사격은 몇번 못해봤습니다. 련대장동지가 저에게 탄알 한쌈을 주면서 쏘아보라고 해서 다섯발 쏘아봤습니다. 그런데 잘 맞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맞지 않을가봐 겁납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어린애처럼 순진하게 제속을 다 터놓는 청년에게 정이 가시였다.

《그래? 그럼 나도 잠이 오지 않는데 한번 련습을 해볼가?》

풀밭에 드러누워 이리저리 몸을 궁싯거리면서 전투정황을 끝없이 머리속에 그리고있던 정섭이는 시원하게 련습이라도 해보는것이 좋을것 같기는 하였으나 사령관동지앞에서 련습하다가 더 망신을 할것 같아 은근히 겁도 났다. 그래 쭈밋거리는데 사령관동지께서 먼저 백양나무아래 사격좌지로 걸어가시였다.

《이게 동무의 좌지로군, 조용히 소리 안나게 움직이시오. 사격좌지를 잘 잡았습니다.》

《련대장동지가 잡아준것입니다.》

《그래, 유격대원들은 아무데서나 이렇게 적을 감시하고 묘준하기에 편리하면서 자신은 은폐하기 좋은 사격좌지를 재빨리 차지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엎드려 한번 사격자세를 취해 보시오.》

정섭이는 머밋머밋하다가 백양나무그루옆에 총을 내대고 엎드렸다.

《그렇게 어물거리다가는 적탄에 얻어맞겠소. 다시!》

잠든 동무들을 깨우지 않으시려고 한껏 낮추신 음성이시였으나 등줄기로 불줄기가 흐르는것 같은 기상이 어린 그이의 구령이였다.

정섭이는 감전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렸다.

《다시!》

어지간히 잘하느라고 했던 정섭이는 다소 뜻밖이여서 인차 동작을 취하지 못했다. 그렇기때문에 또다시 그이께서는 《다시!》 하고 엄한 구령을 떨구시였다.

정섭이는 이제는 이 생각 저 생각 좇을 겨를이 없었다. 거퍼 서너번 일어났다 엎드렸다 하고나니 흐리멍텅하던 잠기운은 씻은듯이 달아났다. 으시시하던 어깨도 어느새 후끈해지면서 숨이 절로 가빠올랐다.

《다시!》

또다시 사령관동지의 구령이 울리였다.

정섭이는 온몸을 내던지다싶이 백양나무아래 쭉 뻗으며 재빨리 총구를 내댔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가지 결함이 있소.》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정섭이곁에 한쪽무릎을 꿇어앉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정섭동무는 지금 사격자세를 잘 취해보겠다는 생각뿐이지 적을 잡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덮어놓고 엎드리기는 했지만 그 방향이 적을 묘준하기는 적당치 못한것 같습니다. 동무는 적이 어디쯤 왔을 때 쏠 생각이요?》

정섭이는 예상 못했던 질문이라 잠시 떨떨해있었으나 적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리라는것은 무수히 머리속에 그려본것이기때문에 생각한대로 대답하였다.

《저 길이 구붓하게 휘여돌아간곳에 나타나면 쏘겠습니다. 좀 멀기는 하지만 잘 겨누면 맞힐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엇비듬히 자세를 취하군하는 모양이군.》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웃으시며 정섭이의 어깨를 바른편으로 바싹 돌려놓으시였다.

《자, 이렇게 자세를 잡고 저 강가에 불뚝 솟아난 바위같은것을 보시오. 그옆으로 조그마한 나무가 한그루 서있지? 지금은 어두워서 똑똑지 않지만 저게 아마 봇나무던것 같소. 동무는 저 바위와 봇나무 어간에 들어선 적을 쏘아잡아야 할것 같소.》

《그렇게 가깝습니까?》

정섭이는 놀라서 큰소리로 물었다.

《쉿, 목소리가 너무 높소. 그렇기때문에 이런 매복전투에서는 은폐지를 잘 잡아야 하는거요. 적들을 바싹 접근시켰다가 사격구령이 떨어지면 삽시간에 적을 다 쏘아잡아야 하오. 정섭동무는 적이 저 길이 구부러진데까지 오면 쏘겠다는 생각이지만 이제 날이 새면 그보다 훨씬 먼데서부터 적을 감시할수 있을거요. 그러나 사격구령은 없을거요. 선두대렬이 동무의 앞을 지나가도 망탕 쏘아서는 안되오. 맨 앞장에 선놈들이 동무네 련대를 다 지나쳐서 저 8련대 매복진앞에 이르렀을 때에야 전부대가 한꺼번에 불질을 하게 될거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알만하오?》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적을 많이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았소.》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엎드린채 올려다보는 정섭이의 고개를 앞으로 돌려놓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적들이 우리 매복진에 몽땅 기여든 다음에 아래우 자루목을 기관총으로 든든히 틀어막고 전부대가 한꺼번에 불을 퍼부어야 하오. 이런 매복전은 5분, 혹은 10분동안에 놈들을 전멸시키는 우리 혁명군의 가장 힘있는 전법이요. 그래서 왜놈들은 유격대의 매복을 그처럼 겁내는거요. 우리가 오늘밤에 이렇게 매복전을 준비하고있는것도 여기

올기강기슭의 적을 단숨에 무찔러버리기 위해서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매 전사들이 다 잘 싸워야 하오. 그러니 련습을 잘해봅시다. 자, 묘준을 해보시오. 약통실에 탄알이 없소? 다시 확인해보시오. 없다면 좋소. 그럼 해봅시다. 선두대렬이 이미 동무네 앞을 지나갔소. 작업하러 오는놈들이니까 그렇게 긴장된 대렬은 아닐것이요. 한 400~500명쯤 된다고 생각합시다. 끝머리가 이제는 저 구부러진 길목을 지나 우리 매복진지앞으로 다가오고있습니다. 이때 동무는 사격구령을 기다리면서 대상을 골라잡아야 합니다. 자, 저 바위옆에 칼찬 지휘관놈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 어깨를 썩 낮추고… 사격구령이 내렸소. 쏘앗!》

김일성동지께서는 쳐드신 한팔을 내리그으시였다.

정섭이의 총에서 격침 떨어지는 소리가 딸칵하였다.

《안됐소. 탄알은 공중으로 날아났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 그렇게 갑자기 당기면 묘준이 다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총탁판을 바싹 어깨에 끌어붙이고 힘껏 받쳐쥐여야지 허술하게 쥐고있으면 반동력때문에 총구가 훌 쳐들리게 되오.》

한시간가까이나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고나니 정섭이의 사격자세에도 틀이 잡혀갔다.

이제는 잠시나마 눈을 붙이게 해야 할것이였다.

《어떻소? 이제는 좀 자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없는데 어서 한번 쏘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정섭이는 이마전에 맺힌 가는 땀발을 군복소매로 훔치며 씩하고 웃었다.

하얗게 드러나는 굵직굵직한 이가 으스러져가는 달빛을 받아 인상적으로 빛을 뿌렸다. 어딘가 한태혁을 련상시키는 구석이 있었다. 찬찬히 봐야 모상도 다르고 성격도

판다른데 무엇이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것인지 알수 없었지만 그런것을 느끼시는 순간 **김일성**동지의 가슴은 저릿해나시였다. 이제는 철도 바뀌니 허비는것 같은 그런 아픔은 사라졌으나 무시로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서는 더께앉은 상처가 저려나듯이 쓰린것이 가슴을 훑어내리는것이였다.

《동무는 틀림없이 명사수가 될수 있소. 이제 정작 전투에 진입했을 때 덤비지 않도록 하시오. 그리고 내가 틀림없이 저놈을 명중시킬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쏘아야 하오. 전에 우리 부대에 한태혁이라는 명사수가 있었소.》

《저도 여러번 한태혁동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m거리에서 솔방울을 쏘아떨군다던데요.》

《그렇소.》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태혁동무는 날아가는 오리떼를 기관총련발사격으로 여섯놈이나 쏘아떨군 명사수였소.》

그이께서는 말씀끝에 자신도 모르시게 외면하시였다. 명사수요하고 말할 대신 명사수였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는것이 새삼스럽게 분하시였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한태혁동지는 눈을 감고도 척척 목표물을 맞혔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허허허, 그건 누가 그런 소리를 했소?》

사령관동지께서는 희생된 전우를 잊지 못하여 그런 말까지 꾸며냈을 전사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보시며 허구프게 웃으시였다.

《기관총소대의 박인섭동무가 그랬습니다.》

《박인섭동무가? 하기는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내가 아는것은 그 동무가 눈을 감고도 기관총의 분해결합을 누구보다도 재빨리 해제끼던것이요. 그만큼 자기 무기에 정통해있었소. 한태혁동무는 여느 사람은 잘 모르지만 무서운 노력가였소. 한태혁동무가 총을 하도 잘 쏘니까 그 동무가 무슨 타고난 재간이 있는것처럼 생각들하는데 그와는 정반대요. 그 동무도 첫 전투때는 강동무이상으로 덤비면서 총알을 공중으로 날려보내군했소.》

《그렇습니까?》

정섭이는 저으기 놀란 표정으로 그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도강부근의 갈대 설렁거리던 옛싸움터를 머리속에 그려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그 동무도 처음에는 7련대 4중대에 있었지. 그 동무가 첫 전투에 참가한것도 이도강부근의 이런 강기슭이였소. 그 언덕에는 새초가 아니라 이렇게 좋아진 갈대가 자욱히 깔려있었소. 참 신통하오.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한밤중에 매복진을 차지하고 적을 기다렸댔소. 그런데 전투가 시작되자 한태혁동무는 덤비기 시작했소. 탄알을 마구 쏘아대는데 쏘는대로 공중으로 날아갔단말이요. 허허허, 그렇던 동무가 1년이 채 못되여 유격대에서도 소문난 명사수로 되였소.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겠는가? 그는 놀기 좋아하는 익살군이였지만 사실은 무서운 노력가였소. 한번은 식량이 떨어져서 이틀인가 굶으며 수백리를 행군했는데 15분동안의 휴식이 선포되였소. 내가 련대장동무를 만날 일이 있어서 그 동무들의 휴식장소로 가니 다른 동무들은 모두 그

짧은 토막시간에 벌써 잠이 들었는데 태혁동무는 총신우에 작은 돌멩이를 올려놓고 방아쇠를 당기는 련습을 하고있었소. 방아쇠를 당길 때 그 돌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훈련하는것이요. 그런데 그때 이미 그는 명사수로 소문이 났을 때였소. 그러면서도 그는 시간을 아껴가며 묘준련습을 하여 사격술을 완성시켜나갔단말이요.》

정섭이의 표정은 차츰 심각해졌다.

달빛은 으스러져가고 동쪽하늘 한끝이 희붐해졌다. 새벽빛이 돌면서 그쪽 산발우에 두터운 구름층이 깔려있다는것이 알려졌다. 그래서 그런지 달빛이 지새자 사위는 불시에 어두워졌다.

《이제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잠시라도 눈을 붙이시오. 전투전에 한숨 푹 자는것이 좋소.》

사령관동지께서는 무릎에 묻은 흙을 터시며 일어서시였다.

《알았습니다.》

하고 정섭이는 따라일어서며 잠시 머밋거리다가 고개를 수굿한채 말씀드렸다.

《사령관동지, 저도 노력해서 명사수가 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내가 한태혁동무를 잃고 지금도 가슴이 아픈데 정섭동무가 그런 명사수가 되여준다면 내 마음이 한결 가볍겠소.》

사령관동지께서는 정섭이의 어깨를 따뜻이 쓸어보신 다음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사령부로 돌아오신 그이께서는 이제는 자신께서도 잠시 눈을 붙여야겠다고 생각하시였다. 그러나 좀체로 잠들수 없으시였다.

다시금 싸움속에 흘러간 세월과 헤쳐오신 수만굽이 산하가 떠오르시였다. 으스러져가는 그믐달을 바라보시니 이제는 가고 없는 얼굴들이 살아있는듯 연줄연줄 하늘가에 떠올랐다. 정섭이같이 그렇게 소박하고 순진한 그들이 그렇게 혁명의 길에 나서서 남과 같이 오래오래 살지는 못했어도 바로 그때문에 영원히 청춘으로만 남아있을 강력하고 생신하고 애틋한 정을 산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놓았다.

어쩐지 날은 더 어두워지는것 같았다. 그래서 동쪽하늘을 바라보시니 아까부터 깔려있던 구름장들이 점점 넓게 번져간다. 달은 서쪽 산마루우에 걸려서 그나마 반쯤 구름속에 숨은것이 마치 베여던진 무우쪽같이 어설프게 보였다.

저만치서 무엇이 절컥거리는 소리가 났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소리나는쪽을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무척 조심한다는것이 알려지지만 어쨌든 무기를 다루는 소리가 틀림없었다.

누가 일어났는가?

자세히 살펴보시니 기관총소대 진지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일어난다.

그 형상이 뚜렷한것으로 보아 날이 다 밝은것이다. 날씨가 흐려서 그렇지 사실은 벌써 이른아침이였다.

그런데 코고는 소리가 들릴뿐 사위는 여전히 괴괴한 정적에 묻혀있다.

적들은 웬일인가? 이제는 기동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아무리 군기가 문란하다고 해도 어쨌든 정규군행새를 하는것들이 날이 좀 흐렸다고 일을 중단할수는 없겠는데 이상한 일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어쩐지 심상치 않은것이 느껴지시여 멀리 까뭇하게 바라보이는 백일평 웃마을쪽을 살펴보시였다.

무엇인가 움직이는듯하다. 눈정기를 모으시고 다시 찬찬히 바라보시였으나 무엇이 움직인다는 느낌이 있을뿐 형상은 뚜렷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틀림없이 적이 온다는것을 간파하시였다. 경계진지쪽에서는 그 형상이 더 좀 뚜렷하게 보일것이다.

이때 경계초소에서 김준삼이 보낸 전령병이 언제 왔는지 풀밭에 납작 엎드려 소리없이 기여왔다.

아니나다를가 적정에 대한 보고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김준삼의 전령병을 돌려보내신 다음 강봉수를 조용히 흔들어깨우시였다.

《봉수동무, 재영동무와 상철동무를 깨우시오. 곧 각 련대지휘관들에게로 보내야겠소. 적정이요.》

누구보다도먼저 오백룡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뚜릿뚜릿 사위를 살피였다. 재영이와 상철이 그리고 강봉수가 한꺼번에 어깨를 낮추고 새초밭속을 다람쥐처럼 날쌔게 달려나갔다.

어느새 사격좌지들을 차지한 전사들이 절컥절컥하며 탄알을 재우는 소리가 났다.

사령관동지께서도 권총을 뽑아서 안전장치를 푸시였다.

정적은 삽시에 흩날려버렸다. 아직 아무런 음향도, 크게 눈에 뜨이는 움직임도 없었으나근 1 000m에 걸쳐 길다랗게 펼쳐진 새초밭매복진에는 삼엄한 분위기가 떠돌았다.

불시에 사위가 환해졌다. 두터운 구름장속에서 해가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그러고보니 해는 벌써 동쪽 산마루우에 높이 솟아있었다. 아침도 퍽 늦은 아침이였다.

새초잎에 맺힌 이슬이 반짝거린다. 바람이 새초밭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이슬은 금구슬처럼 해빛을 반사하더니 수집은듯 쭈르르 미끄러져내려 어디론가 숨어버리군한다.

어느새 군화소리가 저벅저벅하는것이 느껴졌다. 말발굽소리도 울린다. 선두대렬에 말을 탄 적지휘관놈이 거들거들하다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였다. 그놈도 간밤에 잠을 설친 모양이다. 선두대렬은 경위중대앞을 지나 거의 8련대 매복구역어구에까지 들어섰다. 후위는 벌써 경계진지앞을 지나치려 하고있었다. 그끝에 또 한놈 말탄놈이 나타났다. 누르스름한 군복빛으로 보아 그놈이 왜놈지도관인 모양이다.

300명 남짓한 대렬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권총을 쳐드시였다. 아래우 매복진을 둘러보시니 어디가 매복장소인지 사령관동지께서도 인차 가려보실수 없을만큼 정적에 묻혀있다. 완전히 전투준비상태에 들어갔다는것을 말해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정적에 묻힌 산천이 쩌렁 울리게 권총을 발사하시였다.

다음순간 엄청난 불비가 찢어지는듯한 우뢰소리를 지르며 새초밭으로부터 엇비듬히 길우로 쏟아졌다. 사령관동지의 사격구령과 함께 모든 총구에서 한꺼번에 불을 뿜었다. 한적하게 누워있던 도로우에는 삽시에 수많은 송장이 나딩굴고 설맞은 부상병들이 아우성치며 벌벌 기여다녔다. 단번에 두세발의 탄알을 받고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채 누덕누덕 헤쳐진 시체도 있었다. 한 목표를 여러 사람이 겨냥한것이다.

말은 두필 다 길길이 뛰여오르더니 뒤의놈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앞놈은 주인을 어디다 내동댕이쳐버렸는지 빈몸으로 다리목을 향하여 미친듯이 내달렸다.

어찌나 맹렬한 사격이였던지 적들은 미처 약통실에 탄알을 재울 사이도 없었다.

5분후 사령관동지께서 몸을 높이 일으키시며 돌격명령을 내리시였다.

《만세－》

유격대원들은 막혔던 동이 터진듯이 아우성치며 달려나가 적을 덮쳤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한손에 권총을 쳐드시고 성큼성큼 새초밭을 헤쳐나가시였다.

7련대 돌격서렬의 맨 앞장에서 키가 꺽두룩한 대원이 총창을 휘두르며 달려가는것이 보였다. 강정섭이였다.

적들은 모두 길우에 꿇어앉았다. 앉지 못한놈은 죽어넘어진것들뿐이였다.

정섭이는 길우에 뛰여오르더니 손을 드는 적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웬 시체를 이리저리 살피고있다. 제가 쏜 탄알이 제대로 맞았는가 확인하는 모양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유격대의 많은 명사수들이 저렇게 자라났다.

5분간의 수색전투가 진행되였다. 팔자수염을 기른 왜놈지도관놈이 말옆에 쓰러져있었다.

《저놈 뛴다!》

누군가가 웨쳐서 총과 탄약을 거두던 동무들이 고개를 들어 보니 한놈이 모자도 총도 다 집어던지고 강건너로 껑충껑충 뛰여간다. 몇동무가 꿇어사격자세로 몇방씩 갈겼으나 너무 거리가 멀어서 맞히지 못하였다. 그놈은 한절반 정신이 나갔는지 옆에서 총소리가 자지러져도 곁눈 한번 팔지 않고 그냥 내달리기만 하였다.

다시 5분후 유격대원들은 50여명의 포로와 수많은 무기 탄약을 걷어모아가지고 숲속으로 철수하였다.

화력습격에 5분, 돌격과 수색에 5분, 철수에 5분, 면밀하게 조직된 올기강전투는 실한오리 흐트러지지 않고 사령관동지의 의도대로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장조부대의 사등뼈를 단매에 짓조겨버린 이 엄청난 전투가 시작되여 불과 15분후에는 길우에 200여개의 송장이 나딩굴어있을뿐 올기강기슭은 다시 괴괴한 정적속에 묻혀버렸다.

해빛만이 하늘에 얼룩진 구름장들을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물들이면서 어수선한 빛을 내뿌렸다.

18

살아서 천대받던 사병들은 죽어서도 역시 차별대우를 받았다. 왜놈지도관의 시체는 그길로 현성으로 실려갔고 거기서 모모한 유지인사들의 참석하에 단독장례를 올렸지만 이백셋이나 되는 나머지 시체들은 거름더미처럼 달구지에 실려서 백일평병영으로 실려왔다. 그가운데는 멀지 않은곳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언제 기별을 띄우고 어쩌고 할 겨를이 없었다. 6월의 폭양이 사정없이 내리쬐여 하루가 지나니 벌써 크지 않은 동네에 시취가 푹 배였다.

이백셋이나 되는 송장우에 또 두사람의 송장이 보태여졌다. 올기강기슭의 죽음의 싸움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2대대장과 그의 안해가 총살당하였다.

공산군에게 포로되였다가 놓여난 쉰두명의 하졸들가운데 제발로 병영을 찾아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공산군에게 자진해서 총을 바치고 관대한 취급을 받았으며 다시는 침략군대에 복무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다진 다음 각자 려비까지 타가지고 뿔뿔이 흩어졌다. 그중 10여명이 헌병과 경찰에 붙들리여 부랴부랴 달려온 시마끼소좌에게 압송되여왔다.

시마끼는 심문과정에 그들이 공산군으로부터 어떤 선전을 들었으며 누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것을 알게 되였다.

2대대장이 밤중에 몰래 백리평으로 스며들어온것은 자못 뜻밖이였다. 자료에 의하여 그는 평소에 벌써 염전사상이 농후하고 불평불만을 감추고 다닌다는 인간인데 같이 포로되였던 하졸들은 그가 공산군에 그대로 남아있는것으로 알고있었다.

그런 그가 한밤중에 마을로 기여든것은 자신이 대대장이기때문에 설마 병졸들이 자기를 다치랴 하는 타산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하나 안해를 빼가지고 가서 앞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려는 생각에서였다.

시마끼는 하루종일 붙잡아온 포로들을 심문하고 려단장 장조의 무능을 꾸짖고 신경에 올려보낼 보고서를 검토하느라고 시달리다가 2대대장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자 당장 잡아오라고 소리쳤다.

2대대장은 순순히 오라를 지려 하지 않았다. 잡으러간 헌병들과의 사이에 불질이 오고갔는데 그틈에 끼여든 그의 안해가 탄알을 맞고 쓰러졌다. 안해가 쓰러지자 그는 반항을 중지하였으며 묶이여올 때 거듭 안해의 시체를 어루만졌다.

이튿날 200여개의 송장들을 석유를 뿌려서 한꺼번에 화장을 하고 2대대장은 총살당하였다. 그들 부부의 시체는 누가 치웠는지 또 따로 처치되였다.

그럭저럭 송장들은 다 없어졌으나 동네에는 그후 보름가까이나 시취가 떠돌았다.

유격대는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사흘후 올기강에서의 참패상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기 위하여 먼길을 달려온 혼마중장은 길림으로 돌아가는길에 백일평에 들리여 현지를 돌아보았다.

《내 생각에는…》

하고 혼마는 말하였다.

《유격대가 결코 멀리 갔다고 볼수가 없단말이야. 소좌, 그런데 당신들은 무슨 그런 방면의 수단과 방법이 있을듯한데 그런것이 전혀 없는가?》

《유감스럽게도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각하께서 꼭 유격대의 소재지가 알고싶다면 그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마끼는 어딘가 수도승비슷하게 생긴 혼마의 버쩍 마른 얼굴을 모멸에 차서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게 소좌.》

하고 혼마는 정색해서 불렀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있는 실정은 자네도 잘 아는터가 아닌가. 우리는 지금 사방에 널어놓은 전선들때문에 고충을 겪고있네. 만일 이곳 전선까지 확대된다면 큰 문제일세. 그런데 적이 이만저만한가. 사병들이 사기를 잃고 대대장까지 공산군에 설복되여

도망치려는판에 자네가 관동군 수뇌부의 한 성원으로서 더 좀 실질적인 방조를 주어야 옳지 않을가?》

《본관으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에게는 전날 휘풍동일대에 유격대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가지고 각하를 찾아갔을 때 각하께서 타산하신것이 바로 오늘의 이와 같은 사태가 아니였던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그때 각하의 타산에 의한다면 이것은 결코 예상외의 사태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김일성**유격대와 대결하는데 그 정도의 노력으로써 이보다 나은 결과가 있을것을 기대한다는것은 실례입니다만 평소의 명석하신 각하의 판단력에 비추어볼 때 리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허허허…》

혼마는 별안간 어울리지도 않는 호걸웃음을 터뜨렸다.

《너무 문제를 요란하게 세우지 말라구. 10분간의 전투에서 한개 대대의 손실을 입었다는것은 물론 간단치 않은 일인것만은 사실이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또한 귀중한것이네. **김일성**유격대가 얼마나 만만찮은 상대인가 하는것을 깨우치는 점에서는 이백세개의 시체나 52명의 포로가 그리 많은것도 아니네.》

《각하.》

하고 시마끼는 타협조로 불렀다.

《나는 각하의 방침이나 견해에 대해 별반 딴 의견이 없습니다. 요컨대 이번 타격에서 얻은 교훈을 충분히 살려서 앞으로의 작전에서 만전을 기할수만 있다면 희생이 적지 않은 대신 거기서 우리가 얻는것도 적지 않을것만 사실입니다. 다만 우려되는것은

본관의 경험에 의하면 **김일성**유격대의 이번 행동성격으로 보아 우리가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숲속에 가만히 박혀있지 않을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건 그래, 그건 그렇단말이야, 그들을 여기서 놓치면 더욱 걷잡기 어렵게 되네. 문제는 여기 안도, 화룡 지구에서 결판을 내야 하네. 그러나 소좌, 자네가 보기에도 우리의 태세는 확고한것이 못되지 않는가. 이제 백일평이 이 지경이 되고보니 **김일성**유격대를 자루같은데 걷어넣는다는것은 지나친 환상이라는것이 명백해졌네. 나는 고집쟁이는 아니야, 역시 일정한 병력이 있어야 올기강에서 꿰진 구멍을 틀어막을것 같네. 나에게는 이제 두어개사단만이라도 더 보강해준다면 무엇을 해볼것 같은데 어떤가. 지금 형편에서 그것이 가능할것 같은가?》

혼마도 어느 정도 누그러들어서 시마끼에게 의논을 걸었다.

《글쎄올시다. 각하의 성과이자 곧 우리 공작반의 성과나 다름없으니 나도 그 점에 대해 여러가지로 생각해보았습니다만 현재 이 좁은 현경안에 무려 4만여명의 병력이 집결되여있습니다. 병력문제를 가지고 수뇌부를 설복하기는 난관이 있을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다니까. 유격대를 좁은 지역에 봉쇄하는데는 이만한 병력이면 넉넉하고도 남지. 허나 우리가 당초에 타산했던것처럼 락엽이 질 때까지 그들이 가만있어주어야말이지. 가만있기는커녕 우리가 매복하자는곳에 먼저 매복하고있다가 들고치니 견딜수가 있나.》

《두고봐야 알겠지만 유격대가 계속 이와 같이 공세를 취한다면 당초의 계획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가요?》

시마끼는 그 당초의 계획을 세우는데 자기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것만큼 될수록 자극을 안주려고 부드럽게 떠보았다.

《글쎄 실정을 반영하고 이와구니소장과 새 방침을 세워야 할것 같네. 여하튼 시마끼군, 앞으로 피차 련계를 강화하면서 이 문제에서만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자구. 그런데 그 장조라는자는 처먹기는 잘하는데 군사는 판무식한놈이더군.》

《그러기에 지도관을 똑똑한것을 박아야 합니다. 려단장자리를 실력으로 차지한것이 아니니까 그를 나무랄것도 없지요.》

이렇게 두사람사이에 다소 헝클어졌던 감정이 순하게 풀리여 담배들을 한대씩 구수하게 피워물고 장조에 대한 뒤소리를 하고있는데 장조 당자가 뚱뚱한 몸을 흔들며 달려들어오더니 손수건으로 이마전을 훔치며 말했다.

《본부 수비대에서 전화가 왔는데 석인구경찰서가 **김일성**유격대의 습격을 받았답니다.》

《뭐 석인구가?》

혼마는 아직 석인구에 대해서는 아는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받아외우며 시마끼를 돌아보았다.

《그걸 본부에서는 어떻게 알았다는거요?》

시마끼는 혼마의 눈길을 못본체하고 이렇게 물었다.

《거기서 원군을 보내달라고 전화를 걸어온 모양이요.》

《본부경찰에서는 아무 련락도 없소?》

《경찰쪽에서는 원체 이런 일에…》

《그래 출동했다는가?》

《그런것 같긴 한데…》

시마끼가 따지고드니 장조는 땀을 훔치던 손수건을 기계적으로 이마와 목덜미로 옮겨가며 꾹꾹 누를뿐 대답을 못했다.

《바보같은자식들, 가봅시다.》

《어떻게 된 일인가?》

시마끼가 나가려 하자 혼마는 영문을 알수 없어 엄하게 물었다.

《암만해도 공산군의 수에 또 걸려든것 같습니다. 전화를 걸어봐야 알겠지만 석인구경찰에서 직접 본부의 수비대에 전화를 걸수는 없습니다. 본부에 같은 경찰이 있는데 무엇때문에 수비대에 전화를 직접 걸겠습니까? 출동했다면 필시 또 매복에 걸렸을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공산유격대와의 전투에서는 군사일면만 가지고 싸우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주장이란말입니다.》

시마끼는 어쩐지 번마다 자기를 누르려는듯한 혼마에게 은근히 한대 안겨준 다음 전화가 걸려왔다는 장조의 방으로 서둘러 걸어갔다.

그의 추측은 틀림이 없었다. 현경찰에도, 린접한 대마록구본부의 경찰대에도 아무런 련락이 없다는것이였다. 어수룩한 본부 수비대는 한개중대의 인원만 병영에 남겨두고 총출동했는데 석인구를 불의에 포위하기 위하여 일부러 길을 버리고 산속으로 행군해갔다는것이였다.

《사람을 웃기는군.》

하고 시마끼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혼마에게 정중하게 자기가 예측하는바를 설명하였다.

《공산군이 석인구경찰을 습격한것은 사실일것입니다. 그러나 전화를 건것은 경찰이 아니라 유격대라고 짐작됩니다. 전화 걸어놓고 기다리는 유격대를 포위하겠다고 산길로 찾아갔다는 본부수비대의 운명은 묻지 않아도 명백한것입니다.》

《흠.》

혼마는 입을 꾹 다물고 시마끼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만만찮은데…이 사실까지 겹치고보니 올기강에서의 유격대의 진출은 우연적인 전투가 아니라 **김일성**장군의 전반적인 구상과 련결된 전투라고 봐야 할것 같네. 우리는 암만해도 아까 말한대로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고 노몽한전선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대병력을 증강하도록 해야겠네. 만일 이와구니소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중앙에 보고하기라도 해야 할것 같네.》

《병력의 보충만으로는 부족할것입니다. **김일성**장군이 이 여름에 새로 진출한 백두산 동북부에서 무엇을 하자는것인지 그 구상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정연한 정보체계와 통신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그럴듯한 말이야.》

혼마는 팔장을 끼고 연신 턱을 끄떡거리며 방안을 오락가락 거닐었다.

제 3 편

1

진흙과 황토먼지와 굴곡없이 밋밋하게 뻗어간 등성이들로 이루어진 대지의 한끝에 불쑥 주먹을 내밀듯이 세개의 바위산이 불거져올랐다.

광막한 초원과 밀림에 익숙된 사람들에게는 알쭌한 바위로만 이루어진 그 산모습부터 신기하게 보였던지 이름도 삼선봉이라 지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금 삼선봉일판에서 벌어지고있는 죽음의 고역과 생지옥같은 생활상, 한알갱이의 금붙이때문에 입에 거품을 부걱거리며 물고뜯는가 하면 채찍을 휘두르고 칼부림을 하고 수많은 로동자들의 등껍질을 벗겨내는 로동판의 정경은 어느모로 보나 삼선봉이 아니라 삼마봉이라 해야 옳을것 같았다.

리성림은 컴컴한 굴속에서 밀차를 밀고나오며 짝패인 중년의 광부에게 말을 걸었다.

《형님은 만주광업에 온지가 오래 되였소?》

《오 오래 되였지요. 개발할 때부터니까… 그때는…》

버럭산쪽으로 물매가 높아져서 그는 말을 못하고 앙상한 가슴을 들먹거리며 끙끙 힘을 썼다.

성림이도 적당치 못한 때 말을 꺼냈다는것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굴속이 희미해지는것을 보면 곧 난장이다. 그는 돌가루때문에 페가 다 못쓰게 된것이 분명한 짝패의 쿨럭거리는 모습이 애처로와 밀차 중간으로 어깨를 옮겨대며 힘을 썼다.

난장에 나오니 눈부신 해빛이 쏟아졌다. 가스내가 떠돌던 굴속과는 달라서 생신한 바람도 불어온다. 그대신 불시에 더워지기도 했다,

두사람은 밀차끝에 달아놓은 간데라불을 낮추었다.

갱구앞에 쪽걸상을 놓고 앉아있던 광산순사가 딱따구리지팽이로 밀차판을 쿡쿡 지르며 소리쳤다.

《여, 김용필이, 버럭더미에 가서 함께 묻혀버리는게 어때? 굼벵이처럼 버럭 한차 실어내는데 그렇게나 꾸물대서 밥벌이나 하겠는가? 노다지는 언제 캐겠는가?》

《나는 죽어도 버럭더미에 깔려죽지는 않겠소. 좋은 땅이 많은데 죽어서라도 푹신한데 좀 누워야지요.》

김용필이라는 짝패는 쿨럭쿨럭하면서도 순사를 보고 이그러진 대답을 하였다. 그래도 속이 풀리지 않는지 열걸음도 못가서 가래침을 탁 내뱉으며 중얼거렸다.

《개같은놈, 버럭은 저절로 굴러나오는줄 아나… 어이구, 식솔만 없다면…》

식솔만 없다면 개같은놈들과 해볼대로 해보고 결판을 내겠다는것이다.

성림은 묵묵히 힘을 썼다. 황금에 눈이 어두워 망탕 버럭을 내버리다나니 버럭산은 갈수록 물매가 급해진다. 금천동광산도 일제의 만주중공업회사 산하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광산꼴이 잡혔지 얼마전까지만 해도 오소리굴들만 뻥뻥 뚫려있던 곳이라 끼니를 든든히 에우지 못한 운반공들이 갑자기 난장에 나와서 어지럼증에 비칠거리다가 밀차에

깔려나가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고 한다. 겨우 버럭산끝에 와서 밀차를 뒤집어엎고나니 성림이도 이마에 식은땀이 발발 내솟았다.

김용필은 아예 도끼날같이 비죽비죽한 버럭더미우에 퍼더버리고앉았다. 그리고는 한참이나 가슴을 오르내리며 숨을 톺더니 찐득찐득한 땀을 주먹끝으로 쓱쓱 문대고 아까 동강난 말을 이었다.

《그때는 이런 밀차길도 없고 선광장같은것도 없었지요. 지금 한창 개미역사하듯하는 개인광주들의 굴이나 같았소. 수굴로 다 뚫어냈지요. 아마 우리 형제의 손으로 끌어낸 돌덩이가 이 버럭더미 하나는 잘될거요. 그러다가 허파에 돌가루가 차니 사람을 이렇게 괄세한단말이요. 광산에서는 이 밀차공이 초입이자 막다른 골목이지요. 나는 막다른 골목에 왔고 젊은이는 초입에 들어서서 이렇게 만난 셈이웨다. 허- 기가 막히게 만났지요. 그래 벌어먹을데가 정 없습데까? 하필이면 이런 사지판을 찾아오게…》

《나도 조선서부터 이런 두더지노릇을 좀 했댔지요. 소문에 금천동경기가 좋다길래 찾아왔더니 밀차공노릇을 좀 시켜보고 합격을 해야 정식채용을 해서 막장에 넣어주겠답디다.》

《하기는 여기서 지금 만주광업의 밥탁에 얻어걸리기가 쉽지를 않소. 그렇게 힘들게 굴속에 들어가서 한 삼년 돌가루를 마시고나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다가 종당에는 쫓겨나고… 엑 -더러운놈의 세상!》

《더러운놈의 세상을 그냥 두고 가래침이나 뱉고있겠습니까? 이 밀차 뒤집듯 뒤집어버려야지요.》

《아, 아니 젊은이, 이제 그 무슨 소리요?》

용필은 눈이 둥그래서 물었다.

《형님.》

하고 성림은 용필의 쇠갈구리같은 손등을 쓸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한뉘 이렇게 살다가 말겠소? 이게 다 누구때문이요?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긴때문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슴에 돌가루가 가득차도록 일을 해도 먹고 살길이 없는 이놈의 세상을 뒤집어엎고 나라를 찾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무맥하게 밀차길로 들어가서 밀차길로 되밀려나와 죽고말겠소?》

《젊은이는 무슨 사람이요?》

용필은 긴장된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왜 보면 모르겠소? 내가 형님같은 굴쟁이가 아닐것 같소?》

용필은 한참 성림의 아래우를 훑어보더니 후- 하고 한숨을 내쉬며 새삼스럽게 옆채기를 뒤져서 담배 한대를 붙여물고 성림이에게도 권하였다. 팥알같이 낮아진 간데라불에 담배를 갖다대는 용필의 손은 후들후들 떨리였다. 그는 짐짓 마음속에 번져가는 그 어떤 파문을 감추려고 애쓰며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보아하니 젊은이도 우리네와 같은 광부는 광분데 머리속에 먹물이나 좀 들어갔군. 허지만 그런 말 아예 다시는 입밖에 내지를 마오. 여기 감독, 순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오? 까딱하다가는 찍소리도 한마디 못지르고 죽는판이요. 저 옛날 화약고자리에 무시무시한 비밀감방을 차려놓았다는것을 알기나 하오? 거기에 끌려들어가기만 하면 하루가 못되여 거적때기에 싸가지고 내다버린다오. 젊은이도 여기서 일하겠거든 우선 이런 물계부터 먼저 아는게 좋아.》

성림이는 빙그레 웃었다.

이미 윤원구에게서 들은 소리다. 그러나 그는 모른체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앞으로 많이 보살펴주시우. 조선서 건너온지가 얼마 안되다나니 서툰게 많습니다.》

《헌데 임자 기어코 우리 성필이네 막장에서 일할 차빈가?》

용필이는 잠시 입을 다물고 담배를 뻑뻑 빨더니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똑바로 성림이를 건너다보며 물었다. 그러면서도 말투가 변하는것을 보면 벌써 마음속으로는 곁을 주는것이 분명하였다.

《예, 그럴 생각인데요. 저 리호철이네 광굴에서 일하는 윤원구한테 들으니 그래도 여기서 밥탁을 붙이고 함께 일해볼만한 막장은 형님네 두 형제가 뚫어냈다는 그 막장이 그중 괜찮다던데요?》

《윤원구 그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군.》

하고 용필이는 입맛을 쩝 다시더니 잠시후 시름없는 어조로 말했다.

《우리 성필이가 금광물계야 환하지. 게다가 거기에 끌끌한 패들만 모여있어서 광산에서도 괄세를 못한다네. 그놈들이 나를 함부로 몰아내지 못하는것도 다 그때문이야. 한데 그녀석도 일쑤 자네같은 소리를 잘하니 자네가 이제 그 사람과 맞붙어 돌아가면 무슨 화단을 불러올지 모르겠기에 하는 소리야. 이사람아, 내게 달린 식솔이 자그만치 일곱인데다 내 동생놈의 자식이 아홉이라네. 그런데 제수가 또 해산하게 됐네. 이 사정을 좀 봐주게. 자네 말이야 다 옳지. 나라고 그런 생각이 없는줄 아나. 허지만

이제 우리 성필이한테 무슨 일이 난다 하는 날이면 우리 집 근 20명 식솔이 몽땅 죽는판일세.》

《허허허, 왜 죽을 걱정부터 합니까? 살길을 열자고 싸우자는것인데…》

《아닐세, 암만 봐야 임자가 말하는게 심상치를 않아. 그러니 일찌감치 일자리를 옮기지 않겠나? 내 뭣하면 화룡광업에 말을 붙여줄테니…》

두사람이 돌가루를 날리며 버럭산 꼭대기를 스쳐가는 바람에 땀난 몸을 식히고있는데 저쪽에서 꿱하는 소리가 울려왔다. 십장 한놈이 돌밭을 차굴리며 다가온다.

《갑시다.》

하고 성림이가 능숙하게 밀차를 철길우에 올려놓고 슬슬 내밀며 말을 이었다.

《형님, 너무 부들부들 떨지 마시우. 광산내기같지도 않수다. 그래 세상에 힘이 있는게 왜놈들뿐인줄 아시오?》

《그럼 왜놈들보다 더 센 힘은 또 어데 있나?》

《굴속에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내밀겠소.》

리성림은 때마침 다가온 십장놈에게 휙- 바람을 끼얹어주며 밀차를 다부지게 내밀었다. 물매가 진데라 빈 밀차는 덜커덩덜커덩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쏜살같이 내달렸다. 성림이는 용필이를 거들어서 밀차에 올려태우고 저는 침목우를 껑충껑충 내달렸다.

컴컴한 굴속에 들어오자 석수가 쏟아져서 다시 땀난 얼굴이며 목덜미를 식혀주었다.

어느 편도앞에 이르러 밀차를 철길에서 굴려내버린 두사람은 편도로 한참 들어가다가 으슥한곳에 쭈그리고앉았다. 간데라불을 꺼버리니 곧 먹장같은 어둠이 들어찼다.

《그래, 내가 광산내기같지가 않다구? 에끼 이사람, 내가 이제는 가슴까지 이 모양 됐지만 그렇다고 록록하게 제 목숨이나 부지하자고 더럽게 사는 인간은 아니야.》

김용필은 어둠속에서 숨을 씩씩거리며 말했다.

《형님.》

하고 성림은 용필의 손을 더듬어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도 형님에 대해 잘 알고있습니다. 광산에서 조선사람의 도리를 제일 중하게 생각하는것이 형님네 형제들이고 나라를 빼앗긴것때문에 그중 가슴을 치는것도 형님네들이라는것을 알고있습니다.》

《그건 누가 그러던가? 윤원구한테서 들었나?》

《그 형님한테서 들었지요. 그밖에도 이 광산에 내 친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흠— 알만하이.》

김용필은 잠시 생각에 잠긴듯하더니 성림이쪽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귀속말로 물었다.

《그래 대관절 임자는 무슨 사람인가? 아까 왜놈들보다 더 센 힘이 있다고 했지? 그건 무슨 소린가?》

성림은 용필의 손을 더 굳게 움켜잡으며 저력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놈들보다 훨씬 센 힘은 형님과 같이 왜놈들을 미워하는 로동자, 농민들이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싸우는데 있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인민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형님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까?》

《드 듣지 않구, **김일성**장군님께서 거느리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다면… 젊은이는…》

용필은 너무나 놀라서 말을 더듬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입니다. 앞으로 같이 손잡고 일해봅시다.》

《고 고맙소. 그러지 않아 윤원구랑 우리 성필이가 언젠가는 장군님께서 우리들한테도 오실거라고 외우길래 꿈같은 소리로만 생각했더니 정말로 왔소그려. 장군님께서 우리한테도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셨소그려, 어디 좀 봅시다.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혁명군을 다시한번 봅시다.》

용필은 떨리는 손으로 성냥을 켜대여 간데라에 불을 달았다.

그는 성림의 손을 쓸어보고 만져보고 하며 지금 장군님께서는 어디에 계신가고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형님은 무산에서 왜놈들을 얼마나 크게 족쳤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 그야 듣지 않구. 왜놈들의 신문에도 났다던데… 게다가 그 윤원구네가 그때 그 싸움판에 있었다질 않소. 그래서 그 소문이 짜하게 돌아갔지요. 그뿐인줄 아시오. 그다음 얼마전에는 저 백일평에서 또 왜놈들이 대판 녹아났다더구만. 그런데 또 희한한 소문이 돌아간단말이요. 우리 혁명군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며 왜놈들을 무수히 쳐눕힐뿐아니라 저 옥돌골이라는데서는 세 동네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서 굉장한 운동회를 했다질 않소. 자, 이게 또 무슨 소린가 해서 처음에는 모두 떨떨했더랬는데 윤원구네가 와서 하는 말이 바로 그 운동회를 했다는데를 봤다는게란말이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데 또 있겠소. 그게 모두 사실이겠지?》

김용필은 성림의 무릎을 흔들며 간절히 물었다.

《모두 사실입니다.》

하고 리성림은 열을 올려 그후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이 진행한 전투들과 눈부신 활동들에 대해 긍지높이 이야기하였다.

사실 그 뜻깊은 로정들에서 자신의 뚜렷한 정신적성장을 의식하는 성림은 그 나날들을 돌아볼 때마다 눈물겨운 감동을 느끼는것이였다.

사령관동지의 웅대한 전략적구상과 신출귀몰한 전법은 그의 정신사상생활에 활기를 주고 자부심을 주고 약동하는 힘을 주었다. 그는 신심에 넘쳤고 온갖 번거로운 정신적구속에서 벗어져나왔다. 자기 넋의 자유를 느낄 때 그는 죽음도 두렵지 않았으며 그렇게 되자 오히려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처럼 시공간적으로 자유로와진 눈으로 부대가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헤쳐온 로정을 돌아볼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참된 력사의 흐름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그 하나하나의 로정들이 마치 그리운 고향집과 같은 선명한 화폭이 되여 떠오르는것이였다.

백일평 올기강기슭에서 코를 꿰여 끌려나온 적들을 대대적으로 섬멸해버린 조선인민혁명군은 다시 두만강줄기로 내려가 이번에는 옥돌골일대의 인민들과 함께 축구시합이랑 씨름이랑 하면서 단오를 쇠였다. 그런 다음 검질기게 뒤를 따르는 적을 달고 북상하다가 7련대는 청산리어방에서, 8련대는 증봉산목재판에서 한꺼번에 놈들을 들이쳤다. 장군님의 령을 받들고 지금 녕안현이며 안도북쪽, 연길일대에서도 조선인민혁명군 산하부대들이 수많은 전투들을 진행하여 왜놈들을 크게 무찌르고있다.

지금 화룡일경과 두만강기슭에서 적들은 벌벌 떨고있다. 여기서 왜놈들이 공연히 죄없는 로동자들을 가지고 들볶는것도 실은 그렇게 벌벌 떠는 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리성림은 상대가 알아들을만큼 최근에 진행한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금천동언저리에도 장군님께서 보내신 부대가 여기저기서 활동하고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두만강기슭과 화룡, 안도 일대에서 적의 큰 움직임을 군사적으로 눌러놓으신 다음 수많은 정치공작조와 정치공작원을 인민들속으로 들여보내시였다.

화룡현성, 적의 우두머리들에 대한 정찰을 겸하여 금천동, 청지동 지구에 강력한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리기 위한 과업을 맡고 김준삼을 책임자로 하는 공작조가 이리로 파견되여왔다. 이 시기 적의 행동성격으로 보아 사령관동지께서는 큰골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대로 매 정치공작조의 활동을 뒤에서 군사적으로 안받침하는 무장부대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성림의 뒤에는 조장 김준삼과 박인섭, 최병규 등 공작조성원들이 련락소에서 대기하고있으며 그뒤에는 7련대의 한개 중대가 농촌으로 류동하면서 공작조의 련락만 있으면 적을 쳐눕히겠다고 기다리고있었다.

조장 김준삼은 지금 류랑가수 김인수를 통하여 적들의 한복판으로 침투해들어갈 공작을 하고있다.

성림이네가 윤원구와 쉽게 련계를 짓게 된것도 류랑가수 김인수를 만났기때문이였다.

처음 조장 김준삼이와 함께 금천동으로 들어올 때 화룡장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켜며 조고약을 파는 김인수를 만났었다.

다 쉬여빠진 목소리로 《타향살이》 한절을 불러넘긴 그는 제 슬픔에 취하여 고개를 푹 떨구고 서있더니 별안간 둘러선 구경군들을 향하여 울부짖기 시작하였다.

《에- 만병통치 조고약이요, 헌데, 다친데, 곪은데, 종처, 상처 온갖 부스럼을 다스리는데 특효가 있는 조고약, 시집가는 새각시 등창도 하루밤 붙이면 감쪽같이 낫고 60늙은이 항종도 한장이면 씻은듯이 아무는 조고약, 식칼에 벤 자리, 도끼날에 찍힌 자리, 갈라지고 터진데는 척척 들어붙는 조고약, 배앓이, 가슴앓이, 천식, 백일해, 편두통, 산후탈, 갈라지고 터진데면 내외싸움도 고친다는 만병통치 조고약, 신체허약, 팔자타령을 하지 말고 만병통치 조고약을 시험해보시오-》

《여보, 조고약이 팔자는 못고치오?》

지게를 눕혀놓고 비스듬히 기대여 하품이 나오도록 늘어지게 구경하던 한 사나이가 싱거운 소리로 물었다.

《팔자도 병이라면 고치겠지만 그것은 하늘의 조화라 저 길건너 화주역쟁이가 전문가요. 팔자를 고칠 사람은 화주역쟁이를 찾아가고 병을 고칠 사람은 조고약을 사가시오-》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그러나 조고약을 사는 사람은 없었다.

화룡거리를 한바퀴 돈 다음 으슬으슬한 저물녘에 다시 장거리에 가보니 장군들은 거지반 흩어졌는데 김인수는 조무래기들에게 둘러싸여 여전히 구슬픈 곡조를 켜고있었다.

그를 데리고가서 장국밥 한그릇을 사먹이고 그지간의 이야기를 들었다. 윤원구네는 처음 작정대로 금천동에 가고 자기는 화룡거리에 떨어졌는데 지금은 조고약을 팔다못해 밤이면 유흥가에 찾아가서 또 주정뱅이들앞에서 류행가를 판다는것이였다.

자기들도 살길을 찾아 다시 두만강을 넘어 금천동으로 찾아가는길이라고 하니 김인수는 또 신세타령을 한참 늘어놓더니 고약 판 짜드락돈을 한줌 집어내여 술을 한상 사겠다고 하였다. 보매 그는 어지러운 세상때가 진하게 배여 생에 대한 의욕도 세상물정에 대한 판단력도 다 무디여진듯하였다. 그러나 사람만은 좋았다. 그에게 딴 말은 할수 없었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가자고 타이르기도 하였다. 김인수는 무포에서 헤여진후 윤원구네 일행과 나눈 이야기도 있는것만큼 성림이네를 순수한 뜨내기로 보는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런 일에 대해 깊이 파고들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일체 세상일에 무관심하였고 자기의 모든 감정을 《타향살이》의 구슬픈 노래로써 표현하였다.

그를 통하여 윤원구와 그처럼 쉽게 련계를 지을수 있었던것이다.

김용필은 성림의 이야기를 듣고나더니 돌가루가 게발린 로동복의 소매로 눈물을 뻑 훔쳤다.

《고맙소. 우리 조선사람들이 등가죽을 벗기면서 마소보다 못한 이 노릇을 참는것이 무엇때문인지 아시오? 그저 우리 **김일성**장군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주실 날이 있다는것만 믿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렇게 장군님께서 우리 불쌍한 굴쟁이들에게까지 사람을 보내주셨으니 이제는 내 가슴에 돌가루가 다 들어차서 숨이 막혀 죽는대도 여한이 없겠소. 참 내가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군. 죽기는 왜 죽겠소. 장군님께서

이렇게 군사를 보내주신 이때에 한번 본때있게 싸워야지. 가만있자, 이 자리에 꼼짝 말고 좀 기다리시오. 여기가 7편도 이삼륙 따라지구간이라는데요. 내 동생을 보내겠소. 나는 암만해도 물정에 어둡거니와 이런 일을 하자면 내 동생과 손을 잡아야 합네다. 그 사람이 말은 바른대로 이 금천동광산에서야 열손가락안에 꼽히는 선산이지요.》

용필은 방금까지 기침을 쿨럭거리던 사람답지 않게 힘이 뻗쳐서 제 혼자 밀차를 철길우에 올려놓더니 씽－하니 바람을 일구며 막장으로 밀고들어갔다.

얼마후 김용필이가 정말 동생 성필이를 데리고 나타나더니 저는 막장으로 돌아가버렸다.

리성림은 여기서 김성필이와 련계를 맺고 만주광업산하의 관영광산에 첫 조직을 내오기 위한 공작을 진행하였다. 그들 형제가 그중 혁명적인 기분을 가지고있고 영향력도 가장 크다는것을 미리 윤원구한테서 료해하고왔기때문에 이야기는 첫마디부터 깊은데로 들어갔다.

2

음침한 현성거리에 금광브로카들이 드나들면서 각종 새 업자들이 성안의 헌집들을 사가지고 제나름으로 개축을 하기 시작하더니 《행화촌》이요 《제일옥》이요 하는 내주점, 선술집, 려인숙, 목노집들이 주런이 추녀를 늘여세우게 되였다. 그중에서도 봄과 함께 제일 호경기를 만난것이 카페 《락천》이였다. 초저녁부터 번쩍거리기 시작하는 《락천》의 네온은 다 샐녘이 되여야 꺼졌다.

어디서 새 금맥이 터졌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하고 누구네 광굴이 망했다고도 하였다. 그런 소문이 나돌 때마다 《락천》에는 그러루한 거간군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였다. 거간군들뿐아니라 《토벌대》의 장교들, 《신선대》의 포수들, 금점판의 덕대들, 지방토호들, 관리들 별의별것들이 다 쓸어들었다.

헐어빠진 전축이 쉭쉭거리며 눅거리 류행가들을 밤새도록 불러댔다. 이제는 하도 돌려서 레코드판에 홈이 패일 지경이 됐을 때 어디서 뜨내기패와 함께 흘러든 방랑가수가 나타났다. 그는 낮이면 화룡장거리에서 조고약을 팔고 저녁때면 유흥가에 나타나서 바이올린을 켜며 노래를 팔았다.

무더운 여름밤이였다. 먼 지평선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연분홍빛 창보를 들치고 주토빛으로 취한 볼들을 어루만졌지만 익숙지 못한 양주에 화끈 달아오른 얼굴에는 여전히 개기름과 땀얼룩이 범벅이 되여 번들거렸다.

타향살이 몇해런가
손꼽아 세여보니

방랑가수의 노래는 언제나 성취할길 없는 꿈을 호소하는 절망적인 비애를 담고있었다. 그래서 황금에 눈이 어두워 미친듯이 돌아치던 인간들도 흐리멍텅한 취기속에서 무엇인가 자기의 슬픔과 불행을 련상하고 제나름의 비애에 잠겨보는것이였다. 방금 몇푼의 구전을 위하여 돼지도 낯을 붉힐 뻔뻔스런 거짓말을

늘어놓던 화상들이 별안간에 술얼룩이 진 상우에 머리를 깊이 수그리고 침통한 표정으로 머리카락을 쥐여뜯었다.

《아, 고향.》

무엇에 얻어맞았는지 코마루가 넙적하게 주저앉아버린 덕대같이 생긴 사나이가 신음소리처럼 울부짖었다.

《이년아, 왜 달아나? 나는 사람같아뵈질 않아서 그래?》

협화복단추를 다 끌러놓은 중년의 사나이가 술쟁반을 들고나오는 녀급에게 시비를 걸었다.

고향 떠난 십여년에
청춘만 늙어

바이올린의 반주가 최저음선상에서 목메여 흐느끼자 술보다도 독한 비애가 찌르르하고 명치끝을 훑어내렸다.

《잘한다, 하나 더 부르게.》

유청백은 천근같이 무겁게 드리웠던 고개를 가까스로 쳐들며 개개 풀린 눈으로 가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술잔을 매만지며 마주앉은 경무에게 시비조로 말을 이었다.

《형님, 어떠시오? 흥, 수련이의 노래보다는 월등하지요? 넨장, 산따루찌야- 산따루찌야- 그게 다 뭐야. 이사람, 깽깽이를 하나 더 타게, 돈은 낸단말야. 내 돈을 혼자 다 내지 않으리.》

《좋아, 좋아.》

청백이가 돈을 꺼낸답시고 주머니에 손을 몇번이나 헛지르는것을 바라보며 경무는 비웃듯이 웨쳤다.

또다시 약간 쉰듯한 드레몰로가 울려나왔다.

가수는 활을 창처럼 허공에 뽑아들고 명상에 잠긴듯한 표정으로 또다시 구슬픈 노래를 뽑아넘겼다.

《어이, 풍각쟁이, 이리 좀 오라구.》

담배연기와 술냄새만 탁하게 떠도는 가운데 높이 떨리던 노래는 뚝 끊어지고 제식구령같은 소리가 사람들의 머리를 번쩍 쳐들게 했다.

《뭐야, 응? 뭐냐말이야?》

청백이가 게슴츠레한 눈을 지릅뜨자 견장도 없는 군복을 걸친 안경쟁이가 마주 쏘아보았다. 그러면서 가수의 팔죽지를 저쪽으로 끌었다.

《어떤놈이야?》

청백은 벌떡 일어나며 다짜고짜 소리쳤다.

《뭐 어떤놈? 이자식이 매라는것은 말만 들었지 맞아는 못보았군. 너 죽어보겠니?》

군복을 입은 사나이가 류행가수를 밀쳐던지고 팔소매를 걷어붙이며 다가왔다.

《어랍쇼,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놈이야?》

청백이도 비틀거리며 걸상을 밀치고나섰다.

호철은 얼굴이 해쓱하게 질리면서 중간에 나섰다.

《이거 왜들 이러시우. 재미없단말이요, 참으시오. 모두 점잖은 사람들이 체면없이 이러면 되겠소.》

《이건 또 어떤 자식이야?》

군복쟁이는 매끈하게 차려입은 호철을 보고 대뜸 욕설을 퍼부었다. 그래도 호철은 낮추 붙어 두사람사이를 뜯어말리느라고 손짓으로 연신 앉으라는 시늉을 하면서 청백의 귀전에 대고 속삭였다.

《<신선대>요, <신선대>.》

《뭐 <신선대>? <신선대>면 어쨌단말이야.》

유청백은 호기를 뽐내면서 웨쳤지만 벌써 적잖게 기가 꺾인 소리였다.

《이자식아, <신선대>가 뭔지 모르겠니? 너같은 자식을 혼내주는게 <신선대>다.》

군복쟁이 《신선대》의 망나니는 호철을 끌어다 밀치고 청백의 어깨죽지를 틀어잡았다. 이러한 때 《락천》 문앞에 유경문의 마차가 들이닿았다.

경문이가 정복차림으로 카페에 들어서자 그래도 현경찰국장이 나왔다고 어지간한 축들은 가볍게 허리를 일으켜 경의를 표했고 수비대의 장교들은 못본체 외면이라도 하였다. 그러나 《신선대》의 주정뱅이는 현경찰국장이 왔다는것을 알자 일부러 더 갈개기 시작하였다.

주정뱅이가 유청백이를 잡아끌고 통로로 나서자 청백이는 손을 탁 뿌리쳤다.

《이자식, 이리 나와!》

군복쟁이는 바싹 청백이에게 다가붙으며 소리쳤다.

《너 이자식, 유경문의 동생이라지? 현경찰국장이 네 형이라고 카페에 와서 깽깽이까지 독차지할셈이야?》

《어, 이게 무슨 소란들인가?》

유경문은 틀스럽게 한마디 호령을 하였다.

《옳지, 호랑이 제소리하면 온다더니 바로 경찰국장나으리로군. 어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볼가요. 나요, 내가 소란을 피웠소. 어쩔테야!》

주정뱅이는 옆의 술상에서 잡히는대로 술병모가지를 틀어쥐고 당상 들이칠것처럼 유경문이앞으로 다가갔다.

《저 저런 고약한…》

유경문은 마주오는 주정뱅이를 어떻게 잡도리할수가 없으니 하는수없이 말을 더듬으며 뒤로 쫓기였다.

온 카페안이 수라장이 되였다. 사복입은 사람들은 겁에 질려있고 수비대장교들은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히야히야 하며 원숭이소리를 질러댔다.

유경문이가 봉변을 당해서보다 술자리를 소란하게 만드는 이 개고기를 잡아꺾고싶은 사람들은 상대가 《신선대》라는바람에 감히 아무도 손을 못대였다.

《여보시오, 선생.》

통로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한손을 뻗쳐 옆을 지나가는 주정뱅이의 술병 쥔 팔목을 틀어쥐였다.

《이거 어디 소란해서 견디겠소. 술동무가 없으면 나하고 술이나 마십시다그려.》

보매 신사복을 차려입은 그 손님은 후리후리한 몸매에 별로 힘도 쓸것 같아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했는지 주정뱅이가 비틀하더니 바로 그 손님의 맞은편자리에 구겨박히다싶이 털썩 주저앉았다.

《여름밤이란 길지도 않은데 이렇게 헛되이 보내겠소? 자, 술이나 한잔 드오.》

《너, 너, 이자식 무슨 새끼야?》

주정뱅이는 불시에 눈알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벌떡 일어나며 벼락같이 소리쳤다.

《말버릇이 나쁘군, 술을 권하는데 고작 인사가 그게야.》

젊은 손님은 길게 가로찢어진 서늘한 눈으로 조용히 올려다보더니 목을 움켜쥐러 오는 상대의 손을 슬그머니 틀어잡았다. 그리고는 앉은채 담배를 두어모금 빨더니

《정신을 못차리는데 바람이나 좀 쏘이는게 어떤가?》 하고 주정뱅이를 끌고 슬슬 바깥으로 걸어나갔다.

《아, 아, 아…》

팔목을 어떻게 비틀어잡았는지 주정뱅이는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며 끄는대로 바깥으로 끌려나갔다.

《시원한 바람을 쏘이면서 깽깽이소리나 실컷 듣게.》

청년은 문전 멀리까지 주정뱅이를 끌고가서 으름장을 두어마디 놓고는 두손을 탁탁 털며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주정뱅이는 얼이 빠진것처럼 어둠속에 멍청하니 서있더니 손목을 어루만지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것은 실로 눈깜빡할 사이의 일이였다. 그 한순간에 자리마다 가득가득 들어앉았던 술군들과 주인, 녀급들 모두가 눈이 둥그래졌다. 오직 태연한것은 아까 붙인 담배를 뻐끔뻐끔 빨고있는 그 청년 한사람뿐이였다.

《어- 용감한 청년이로군. 어디서 온 사람인가?》

유경문이가 하마트면 개망신을 당할번한 자기 체면을 보호해준 호협한 청년에게 인사삼아 말을 건넸다.

《뭘요. 난 금천동에 볼일이 있어 온 사람입니다.》

청년은 스스럼없이 가볍게 허리를 일으키며 말했다. 그제야 보니 육중하지는 못해도 미끈하게 잘 발달한 몸매에다 훤칠한 이마며 길게 가로찢어진 눈이 인상적인 호남아였다. 외형뿐아니라 말투며 행동거지가 모두 세련되여있었다.

《금천동이라면 금광관계로 왔는가? 난 바로 경찰국장일세. 알고지내자구.》

유경문은 동생들이 내놓은 자리에 갈 생각을 잠시 잊고 청년의 맞은편에 앉았다.

《알고있습니다. 선성은 들은지 오래인데 곧 떠날것 같아 찾아뵈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실은 금광일때문에 오기는 했지만 그저 가친의 심부름으로 경기나 봐두자고 온길이기때문에 요로의 점잖은분들과 교제를 할 마련도 없습니다. 량해를 하십시오.》

하고 혜산에 있는 홍아목재상주인이 바로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였다.

《음- 아버님의 심부름으로 금광경기를 보러 왔다면 장차 그 부면으로 기업을 벌릴 생각이 있는게로군. 군이 그럴 생각만 있다면 내가 이것저것 협조를 해줄수도 있지. 참,

이리 오게. 내 동생이 마침 금광일을 보고있고 또 저 리호철이라는 사람도 금광을 경영하고있으니 말벗이 될걸세.》

홍아목재상의 아들이라는 그 청년은 길게 찢어진 특징있는 눈을 쪼프리고 웃으며 별로 사양하지도 않고 유경문이네 술자리로 옮겨앉았다. 또다시 바이올린소리가 흐느끼며 떨리며 울리여나왔다.

이구석 저구석에서 화룡거리에 새로 나타난 부자집아들을 두고 수군거리던 소리도 차츰 자기들끼리의 속삭임과 쑥덕거림과 웨침으로 변하였다. 녀급은 굽높은 구두를 데깍거리며 분주히 통로로 오가는가 하면 손님들곁에 붙어앉아 술잔을 홀깍거리며 이 손님 저 손님에게 추파를 보내였다. 그중에도 유경문의 술자리에 오래 붙어앉아서 홍아목재상의 아들이라는 청년의 얼굴에 뜻있는 웃음을 던지군하였다.

3

《고향은 북청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서울에 있는것 같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말을 잘하지 않기때문에 구체적인것은 알아내기가 간단치 않습니다. 인차 눈치를 챌것 같고 해서…》

호철은 말끝을 얼버무렸다. 시마끼는 여전히 말 한마디 없이 종이장에 무엇을 쓰고있다. 호철의 말을 적고있는지 아니면 호철이에게 말을 시켜놓고 저는 딴생각을 하고있는지 짐작할수가 없다.

《돈을 물쓰듯하는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꼭 금광을 해볼 결심이 있는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노름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방탕한 부자집 자식입니다.》

호철은 시마끼가 듣든말든 이야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시마끼는 무엇인가 가득 적어넣은 종이를 들여다보며 몇개의 선을 그었다. 그리고는 다시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다. 《동아물산출장소》의 간판이 붙어있는 이 음침한 집가운데서도 뒤울안에 면한 이 방은 채광이 좋지 못해서 낮에도 불을 켜야 하였다. 창문에 바투 다가붙은 재빛 토피담장은 감옥의 담장처럼 높아서 아무리 내다보아야 보이는것이 없었지만 시마끼는 하루의 태반의 시간을 그 창문을 바라보는데 바쳤다.

《내가 금광일의 어려운 점을 두루 이야기했더니 이런 때 돈벌이를 하겠다는것은 청년의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륙에서 뭘 좀 해볼만한것이 없겠는가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호철은 이제는 말할 건덕지도 떨어져서 별수없이 입을 다물었다.

시마끼는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고있다. 재빛담벽에서 가물가물 아지랑이가 피여오른다.

바깥쪽에는 무던히 해빛이 내리쬐는 모양이다.

《공산당줄은 쥐였는가?》

시마끼는 돌아선채로 밑도끝도없이 물었다.

《네?》

호철은 엉겁결에 되물었다. 그러나 시마끼는 다시는 입을 벌리려 하지 않았다. 여태까지 한 말은 하나도 값에 쳐주지 않는다는것이다.

호철은 눈앞이 아뜩하였다. 실은 자기 수족과 같은 끄나불을 금광이며 사금판이며 처서판에 내돌리다못해 외삼촌마저 덕대노릇은 변변히 못해도 좋으니 공산당줄을 잡아쥐여보라고 하였으나 그것이 밥먹듯 쉽게 될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연히 날아든 흥아목재상아들을 리용해보자고 며칠 품을 들여 그에 대한 료해자료를 만들어가지고왔는데 이제 묵은 빚을 채근하듯 불시에 이런 질문을 하니 사람이 환장을 할것 같았다.

《그의 애비는 서울에 있지 않고 지금은 혜산에 있다.》 하고 시마끼는 문득 실무적인 어조로 종이장을 들여다보며 말하였다.

《정귀하가 금광을 하겠다고 아들을 이곳에 보냈다는것은 거짓말이다. 그는 소화4년경까지 북청 남대천가에 논밭 합쳐서 5,200평에 현금, 채권 등 동산이 3,000원정도의 소지주였으나 그후 가산이 령락하여 다 팔아먹고 고향을 떠났으며 지금은 혜산에서 목재상을 하고있으나 그 규모는 그리 대단한것이 못된다. 어느모로 보나 금광을 경영할만한 실력이 있을것 같지 않다. 그 아들은 일본대학에 가서 류학중 사상운동에 참가한적이 있으며 현재는 행방을 알길이 없고 그의 사위는 총독부 경무국의 비밀정보원으로 일하다가 희생되였다고 한다. 이것이 혜산에서 보내온 조회자료이다. 이곳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가 유도 3단이라는것도 확실치 않다고 한다. 강도관기준으로 엄격히 치면 초단을 좀 벗어질가말가하는 정도라고 한다. 어쨌든 더 똑똑히 규명해야 한다. 정체가 분명해지기전에는 쓸수 없다.》

시마끼는 그 종이장을 책상우에 훌 집어던지더니 입을 꾹 다물어버렸다.

호철은 내심 입을 짝 벌렸다. 불과 1주일사이에 이런 조회자료를 만들어낸것이 놀라왔다.

《저 유경문은 그를 상당히 신임하는것 같은 눈치던데요…》

《유경문은 별문제이다. 현경찰이 그를 밀정으로 쓰든말든 우리는 관계할 필요가 없다. 그자가 무엇때문에 감옥을 살았는가 하는것을 본인자신에게 알아보라. 그러나 우리가 무슨 자료를 쥐고있다는 눈치를 채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신선대>에서 그자를 노리고있다. 가능하면 현성에 자주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겠다. 그리고 카페에 자주 나타나는 가수에 대해 캐여보라. 그런자들이 현성주변에 얼씬거리는것이 심상치 않다. 그 가수라는놈은 너희네 밥집에도 자주 드나든다는데 알고있는가? 너의 말을 통해서는 분명치 않은 점이 많다. 그런자들가운데 공산당스파이가 있을수 있다.》

호철은 《동아물산》의 정문밖에 나서서야 땀을 훔쳤다. 시마끼앞에 가면 언제나 체중이 줄어드는듯한 느낌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네거리에 나서자 잠시 망설였다. 김인수가 의심스럽다는 시마끼의 말을 생각하면 당장 그놈을 잡아족치고싶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공산당-지하공작원이라면 그렇게 할수도 없었다. 다섯자남짓한 인간에게 대체 무슨 비밀이 그리도 많은지 모르겠다. 하여간 지금은 홍아목재상의 아들문제를 밝히는것이 급선무였다.

호철은 어디로 가면 그를 만날수 있을가 하고 궁리하였다. 유경문이네 집이 아니면 요즘 주경무가 새로 상점을 벌리기 위하여 드나드는 청지동에 가있기가 쉽다. 요즘 해란강의 상류에 사금광이 터져서 금광브로카들이 청지동으로 쓸어들고있다. 호철이도

달포전까지 청지동에 사흘돌이로 드나들었고 흥아목재상의 아들을 사귄후에는 그와 함께 땅임자들을 만나보기도 하였다.

우선 가까운 유경문의 집부터 찾아보리라 마음먹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누가 어깨를 툭 친다.

《호철형 아니요? 왜 뙤약빛아래 멍청히 서있소?》

놀라서 돌아보니 바로 찾는 그 사람이다.

《이거 반갑군. 그러지 않아 만나자던 참인데…》

《나를? 왜, 대낮부터 술생각이 나서?》

그는 눈살을 찡긋하고 밝게 웃으며 돌아보았다. 밤빛 홈스판 골프바지에 같은 감으로 된 캡을 쓰고 등산용지팽이를 짚었는데 양복깃우에 제쳐놓은 새하얀 속샤쯔의 깃이 더욱 신선한 느낌을 자아낸다.

《좋은 밭이 나졌소. 시세보다 평당 1할은 떨어질것 같단말이요.》

《평당 1할? 땅값이 문제가 아니라 전망이 문제지요. 까짓 금만 나온다면 땅값이야 곱을 줘도 아까울것 없단말이요.》

그는 어딘지 미타해하는 표정으로 호철의 눈을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호철은 다짜고짜 그의 손목을 잡고 끌었다.

《가봅시다. 바로 그옆이 신가네 금점이라말이요. 실오리같은 지경너머에서는 금이 나오는데 거기라고 안나오겠소. 게다가 바로 옆에 강이 흐른단말이요. 청지동치고는 상지상으로 치는데요. 지금 숱한 업자들이 모여들어 야단이요.》

《그런데 왜 락찰이 되지 못했소?》

《허 끈끈도 하다. 그 땅임자가 유통사네 채권에 눌리워 하는수 없이 땅을 내놓았지요. 그러니 주경무가 거기 나가서 롱간을 부리구 있단말이요. 게다가 지금 당장 현금을 내놓으라는 판이니 누가 그런 실력이 있소. 가부간 빨리 가봅시다.》

그러나 그렇게 시원시원한 사람이 일단 돈거래에 들어서자 역시 홍아목재상의 아들답게 몸을 사린다.

그는 의심쩍은 표정으로 호철을 뜯어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조인식군한테서는 그런 말 못들었는데…》

《그 뭐 아버지의 서사라는 그 청년말이요? 그런 사람이 이런 내막이야 어떻게 알겠소. 다 당국의 실권자들을 끼고있으니 알게 되는것이지. 교제비를 달래 쓰는줄 아시오, 그래서 쓰는것이지.》

《모를 소리다. 우리 조인식군이 금광물계는 환한 사람이오. 그러나 호철형의 말이니 속는셈치고 한번 가보기는 합시다. 그런데 걸어서야 가겠소, 경찰국에 들리여 마차 좀 빌려타고 갑시다.》

유경문은 선선히 마차를 빌려주었다.

두사람은 호피탄자우에 나란히 앉아 청지동길을 떠났다.

《참, 사람의 운명이란 알수 없군. 종시 내가 금광업자가 되고말 모양이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소. 허허허.》

홍아목재상의 아들은 말없이 길가의 풍경을 바라보고있다가 느닷없이 웃었다.

《왜 금광업자가 해볼만한 일이 못된단말이요?》

《흥, 저것 보시오.》

하고 그는 마차가 피워올리는 황토먼지를 뒤집어쓰고 걷는 수비대의 행군대렬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지금 야심있는 청년들은 모두 저렇게 총을 메고 공을 세워보겠다고 비지땀을 흘리고있는데 돈벌이라니 어디 될말이요. 실은 나도 학생시절에는 큰 학자가 돼보겠다고 생각한적도 있었다오.》

《참 학교는 왜 그만두었소?》

호철은 기회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슬쩍 물었다.

《왜 그만두었는가말이요?》

그는 힐끔 돌아보았다. 호철은 어쩐지 목멀미가 서늘한것을 느꼈다. 그러나 목재상의 아들은 인차 외면하더니 시들한 어조로 말하였다.

《학교라고 어디 다니겠습디까? 우리 아버지가 구두쇠지요. 게다가 그때는 좀 바람이 났댔단말이요.》

《술이야 누가 안마시겠소. 헌데 아버지가 장성한 아들에게 그만한 돈도 못댈 형편이던가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지금만한 실력도 없었지요. 그런데다 내가 바람이 난것이 술난봉이 난것이 아니라 사상난봉이 났단말이요.》

《저런, 그럼 무슨 독서회같은데도 관계해봤겠구만.》

《관계해보지 않구, 그때는 철이 없으니 맑스주의가 참 그럴듯하게 생각됩디다. 그래 한바탕 떠들어봤더니 제꺽 잡혔지요. 두어달 매를 맞았는데 다행히 우리 매부가 그러한 부면에 실력이 있어서 역은 지지 않았지요. 내가 겨우 바람이 자서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미두에 손을 뻗쳐서 아주 망했더란말이요.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우리 집에서는 나때문에 모두 망했다고 원망이 대단했지요.》

호철은 웃으며 듣고있었으나 속으로는 긴장되였다. 어떻게 하면 눈치 안채이고 속을 뽑아볼것인가 하고 궁리하던것이 뜻밖에도 제먼저 슬슬 게워놓는바람에 앉은상을 받은셈이 되였다.

그러나 시치미를 뻑 따고앉아서 재미도 없다는듯이 졸음기어린 목소리로 한마디 툭 던졌다.

《그렇게 한번 패가를 했다가 다시 추선다는것이 헐한 일이 아니지요. 그래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왜 그러시오? 내가 땅값을 물지 못할가봐 걱정이 돼서 그러시오?》

《원 천만에, 만일 안할 말로 형에게 실력이 좀 부쳐서 나한테 융자를 해달라고 청해온다면 나는 그것이 더없이 고맙겠단말이요. 전날 유경문씨도 나더러 그런 말을 비칩디다. 우리 피차 평생의 지기로 사귀였으니 집안을 알고 지내자는것이지요.》

호철은 좀 당황하여 황급히 말하였다.

좁다랗고 창백한 그의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굵은 목소리가 어쩐지 속궁근 느낌을 주었으나 상대는 그의 말에 쉽게 감동되였다.

《호철형이 그렇게 말하니 내가 옹졸한 인간이라는것이 스스로 느껴지는군요. 호철형네 고향과는 그리 멀지도 않으니 이다음에 고향 가거든 한번 우리 집에도 들리시오. 혜산 괘궁정앞에 가서 홍아목재상을 찾으면 다 알지요.》

길우에 행인은 별로 없고 현성을 벗어나서 인차 시작된 수비대의 행군대렬이 그냥 잇달려있었다.

《저건 어디로 저렇게 가는가요? 혹 청지동이나 금천동에 수비대를 늘구는가요?》

목재상의 아들은 먼지를 뒤집어쓰고 욕설을 퍼붓는 땀투성이 화상들을 차겁게 내려다보며 넌지시 물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늘구기야 뭘 늘구겠소. 어디 군대가 있소?》

《하기는 금천동이나 청지동에서 기업을 벌리자면 저쯤한 군대가 있어주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뭐 교제비를 따지면 유격대를 꺾는것이나 비슷이 맞먹을거요.》

《그래도 유격대야 목숨이 위태롭지 않소. 기업주들은 영낙없이 잡아간다더군.》

《정형답지도 않은 소리…잡아가라고 가만있겠소.》

호철은 코웃음을 탁 치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귀전에 대고 수근거렸다.

《저게 다 관동군의 모모한 사람들의 꾀란말이요. 이번에 련합토벌사령관으로 새로 나온 혼마라는자가 여간내기가 아니랍디다. 저렇게 빙글빙글 위험지구를 돌아다니며 며칠씩 묵이지요. 그러면 공산당 지하공작원들이 그걸 보고 여기는 대부대가 있다고 보고할거란말이요. 알겠소?》

호철은 한턱 쓴다는식으로 눈을 끔쩍해보이고나서 이것은 극비에 속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갑자기 입을 꾹 다물고 눈까지 감아버렸다.

마차길옆에 줄곧 잇달려오던 수비대행군대렬의 선두는 청지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마루에서 휴식으로 들어갔다. 금천동갈림길을 지나자 한옆으로는 해란강상류의

누런 물이 잡초와 수수가 절반가량 엇섞인 넓은 초원의 변두리를 누비며 흘러가고 맞은편 밋밋한 구릉쪽으로는 잡관목림이 한참 뻗어가다가 별안간 시꺼멓게 보이는 원시림에 이어져있었다. 숨가쁘고 적막하고 붙임성없는 자연이였다. 페허를 걸어가듯 괴나리보짐을 멘 뜨내기들이 청지동쪽으로 느릿느릿 걸어가고있었다. 그들 역시 청지동의 금광경기를 바라고 찾아가는것이다.

《정형.》

한참 조는듯이 눈을 감고있던 호철이가 정색하고 불렀다. 상대는 말없이 돌아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정형을 그렇게 보지 않소.》

《그건 무슨 말이요?》

《아니 그저 그렇단말이요. 그런데 내 한가지 조용히 물어볼 말이 있소. 좀 기탄없이 말하자면 정형의 결심을 말해주오. 정형의 매부가 그런 부면에서 일하고있었다지요?》

《그런 부면이라니 무슨 부면말이요?》

《알면서 뭘 그러오? 경찰계통말이요.》

《아, 그 말이로군. 난 똑똑히는 모르지요. 매부라는 사람이 간단치 않은 사람이였소. 절대 공무에 대해서는 입밖에 내지를 않았소. 그러나 이래저래 추측해보면 괜찮은 자리에 있었던것 같소. 나도 한때 정탐에 대해 흥미가 있어서 두루 알아보았는데 나같은것은 상대도 안하더군.》

《그래 그 매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말이요?》

《어떻게 생각하다니? 국사를 위해 전력하다가 순직한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고말고 할게 있소? 하지만 역시 유격대에 잡혀죽었다니 허무한 생각이 들지요.》

《허무한 생각뿐이요? 원쑤갚을 생각은 없소? 나도 우리 형이 유격대에 잡혀죽었으니 말이지만 그래 정형의 생각이 고작 돈이나 벌자는 생각밖에 없는가말이요?》

호철이가 흥분해서 웨쳐대는바람에 상대는 뗑 해서 바라보더니 한숨을 후- 내쉬였다.

《나를 건드리지 마오. 내가 지금 돈벌이 이상의것을 생각하게 됐소. 나는 장난삼아 해본것이지만 어쨌든 전과자나 다름없는 인간이 아니요.》

《전과자나 다름없다? 허허허, 경찰에 들어가서 두어달 매맞은걸 가지고 뭘 그러오. 그런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오.》

《말마시오. 누가 그걸 좋아하겠소. 그런 객적은 소리 다 그만둡시다.》

목재상의 아들은 성이라도 난듯이 입을 다물어버렸다. 호철이로서도 그가 이 대화에서 넘을수 있는 계선은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하였다.

그다음 10리가까운 길을 두사람은 내리퍼붓는 한낮의 폭양을 이마우에 받으며 말없이 마차에 흔들리였다.

청지동에 닿아서 중개업자네 사무실에 들리니 흥아목재상의 서사로서 그 집 아들을 따라온 조인식이라는 청년이 마침 거기에 와있었다. 새하얀 와이샤쯔에 수수한 양복바지지만 깨꿋이 손질해입은 그 청년은 어딘가 슬픔을 머금은듯하고 그런가하면 항상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듯도 한 책상물림같은 청년이였다.

그는 두사람에게 골고루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니 주인아들이 신가네 땅에 대해 묻자 호철이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또박또박 잘라서 대답했다. 조인식이가 그 땅의 내막에 대해서 잘 모르리라는 호철의 추측은 얼토당토 않는것이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새로

내놓았다는 땅은 소문뿐이지 지금 한창 캐내고있는 사금판과는 거리가 근 5마장이나 벌어져있는데다 땅값이 시세보다 1할이 낮기는커녕 평당 단가로 쳐도 정작 금맥이 나진 땅과 어상반할정도였다. 게다가 땅임자인 과부가 어떤 측량쟁이의 꼬임에 넘어가서 제절로 금점을 차려보겠다고 사처에 줄을 놓아 물주를 구하는판인데 그따위 채마전에도 쓰지 못할 땅에 누가 돈을 들이밀겠는가고 하였다.

조인식의 말은 군소리 한마디없이 자료적으로 섬겨지는것이여서 호철은 한마디 반박도 할수 없었다. 좀 싱겁게 된 그는 매번 소문이 이렇게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혀를 차면서 그 누군가를 욕하더니 주경무에게 들려 놀다가 저녁이나 먹자고 끌었다.

목재상의 아들은 모처럼 기대를 걸고 온 땅이 그 모양이니 맥이 빠진다고 하면서 쉬 아버지에게 다녀와야겠으니 그지간에 밀린 일을 처리해야겠다고 거절하였다.

호철은 제 광굴이 있는 금천동으로 마차를 타고가버렸다. 그가 사라지자 목재상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그 청년은 퉤-하고 침을 내뱉었다.

《우리도 가기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앞서 걸었다. 거리쪽이 아니라 촌으로 나가는 길이였다.

《아직 해가 많이 남아있는데 아지트로 가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조인식이 뒤따라오며 속삭였다.

《아지트로 갈 필요는 없소. 좀 걸으며 이야기합시다.》

그들은 산보객처럼 거리유축으로 빠져나와서 한산한 들길로 접어들었다.

《성림동무, 사령부의 새로운 지시요.》하고 목재상의 아들은 마음속의 흥분을 억지로 누르며 지나는 사람이 보면 마치 한담이나 나누듯이 말하였다. 그는 다름아닌 김준삼이였다.

《누가 왔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건강하십니까?》

성림은 방금까지 무겁게 옮겨놓던 걸음을 다그치며 준삼의 표정을 살폈다.

《장경수가 왔다갔소. 행상리발쟁이가 자꾸 머리를 깎으라고 조르길래 시끄러워 내쫓았더니, 참 기가 막혀서…그게 장경수였소. 사령관동지께서는 건강하실뿐아니라 요즘 새로운 로작의 집필을 시작하셔서 거의 밤마다 새우신다오. 그러시면서 한쪽으로는 커다란 작전을 준비하시는것 같다고 하오. 어떻게 하면 사령관동지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는지…전투나 행군때는 언제나 앞장에 서시지 다른 대원들이 휴식을 할 때조차 늘 그렇게 잠드시지 못하시니…이렇게 나와있는 우리라도 일을 잘해서 근심걱정을 끼쳐드리지 말아야겠는데 우리라는게 수준이 어리니 매번 그이의 기대대로는 안된단말이요.》

준삼은 안타까운 어조로 이렇게 말하더니 입을 다물어버렸다.

성림이도 무엇인가 말할듯말할듯하다가 묵묵히 걸었다. 심려를 끼쳐드린것으로 말하면 자기만큼 심려를 끼쳐드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지난날은 말할것도 없고 이번 화룡현성부근에 강력한 공작조를 편성하여 내보내실 때도 그 누구보다 심려를 끼쳐드린것이 성림이자신이였다.

이제 먼 적후에서 사령관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니 그때 흘리지 못한 눈물이 여직껏 남아있었던듯 삽시에 눈굽이 젖어들었다.

《사령관동지의 수에 걸려든 적들이 대부대를 움직이기 시작한 모양이요. 고동하일대와 길회선, 빈돈선 철도연선은 지금 몹시 소란한것 같소. 사령관동지께서는 고동하쪽에 나가있는 소부대에 들려 새로운 지시를 전달하고 사령부에 오라고 말씀하시였소.》

잠시후 김준삼은 심호흡을 두어번 하고 기분을 돌리더니 좀 실무적인 어조로 말하였다.

《나는 어차피 저놈들속에 계속 붙박혀있을수 없는 형편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금광경기를 보러왔다고 했으나까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형세가 아무데건 금광을 하나 사들여야 할판이 아니요. 게다가 또 저놈들이 나를 어떻게 보았는지 저희네 밀정으로 써먹을 생각이 있는것 같소. 이것도 사령관동지께 보고를 드리고 결론을 받아야겠소. 그래서 내가 최병규동무를 데리고 고동하쪽을 에돌아서 사령부를 다녀오겠소.》

《다녀오시는것은 좋은데 만일 적들이 조장동무를 리용하자는 생각이 있으면 뒤를 심하게 캐겠는데요.》

성림은 좀 미타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게야 일이 있소. 사령관동지께서 정해주신 신분이니까 뒤는 든든할거요. 내가 정지성이노릇을 본인만큼은 몰라도 저놈들 업어넘길만큼은 할수 있소. 그러니 동무는 마음놓고 흥아목재상의 대리인으로 여기 남아서 그놈들과 계속 금광흥정을 하면서 직접 주경무를 통해 현경찰국장과 접촉하시오.》

《알겠습니다.》

성림은 짤막하게 대답하고 다음말을 기다렸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공작조는 박인섭동무가 지휘하게 되오. 장경수동무가 어랑촌모퉁이까지 갔다가 돌아갈 때 다시 들릴거요. 그때 그지간에 변화된 정찰자료를 보내시오. 그동안…사령관동지께서 금천동광산지구에 윤원구를 책임자로 하는 광복회조직을 내오고 그것을 친목계형식으로 위장하여 합법화할데 대하여 비준해주시였소. 장대선아바이는 아무래도 광산에서 일하지 못할바에는 박인섭동무의 의견대로 농촌에 침투시키는게 좋을것 같소. 그 아바이를 잘 설복하시오. 사령관동지께서는 목재판과 사금판은 아직 공작을 더 계속해서 든든한 핵심이 생긴 다음에 조직을 내오도록 하고 그동안 로동자들속에서 꾸준히 선전교양사업을 하라고 하시였소. 그러니 최병규가 없는 사이 인섭동무는 목재판일과 함께 사금판로동자들과도 접촉해야 할것 같소.》

《그럼 윤원구네는…》

《그렇소. 성림동무가 맨처음과 같이 금천동조직을 꾸리는 사업을 보면서 적정정찰사업도 맡아해야 하오. 어떻소, 해낼것 같소?》

《뭘말입니까?》

성림은 의아쩍은 표정으로 준삼을 돌아보았다.

《두가지 공작을 한꺼번에 해낼것 같은가말이요?》

《해내고말고가 있습니까. 해야지요.》

《고맙소.》

김준삼은 비로소 숨을 테우며 측은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어려울게요. 저놈들속에 얼마동안 돌아다녀보니 사사건건이 구역질이 나고 밸이 뒤틀리는데 그속에서 진종일 긴장해서 연극을 놀아야 하니 아닌게아니라 총을 내대고 전투를 하는것과는 판 다르오. 나도 지방공작은 남만큼 해봤지만 이렇게 적의 한복판에서 부자집자식으로 놀아보기는 처음이요. 그런데다 동무는 또 로동자들의 조직을 직접 꾸려주어야 하니 우선 시간만 해도 조절해내기가 헐치 않을게요.》

《조장동지가 인차 돌아오겠는데 며칠이나 가겠다구요. 저 조장동지.》

사금판의 정경이 저만치 바라보이자 리성림은 초조감을 느끼는듯 앞뒤를 돌아보며 조급하게 불렀다.

《뭐요?》

《저 사령관동지를 만나뵙거든말입니다.》

《…》

김준삼은 말없이 뒤를 기다렸다.

성림은 별안간 수집어하며 잠시 더듬더니 가까스로 입을 벌렸다.

《제가 이제는 자신을 가지고 일한다고 그렇게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사령관동지께서 저에 대해 제일 걱정하시는것이 그 점입니다. 저는 사실… 적후에 들어오니 신심이 굳어집니다.》

《알만하오. 사실이 그런걸 그렇다고 말씀드려야지. 자 인젠 돌아갑시다. 사금판의 사람들이 띄여보면 또 어디에 금맥이 터졌다 하고 소문을 낼수 있소. 내 박인섭동무는 만나서 다 이야기했소.》

《그럼 이길로 곧장 떠나게 됩니까?》

《어디 그럴수가 있소. 저녁에 아지트에 가거든 최병규동무를 삼선봉 그 폐갱앞에 와서 기다리라고 하오. 새벽 5시부터 30분간… 나는 이제 현성에 들어가서 그놈들과 인사를 나누고 헤여져야지. 개같은 자식들, 면상에 가래침이라도 뱉어주었으면 좋으련만…》

두사람은 다시 청지동거리를 향해 걸어갔다. 따갑게 내리쬐던 폭양이 훨씬 누그러졌다. 그러나 바람 한점없이 무시무시할만큼 가라앉은 정적이 몸부림을 치고싶도록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부대의 동무들이 그립습니다.》

《아닌게아니다 더러운놈들속에 있으니 더 그립소.》

김준삼은 깁부채를 꺼내여 제법 신사답게 훨훨 부치며 맞장구를 쳤다.

두사람은 무표정하게 뻗어있는 황토길을 천천히 걸으며 그리운 사령부의 정경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4

금천동에서 청지동까지 길로 가자면 20리가 실하였다. 그러나 삼선봉마루에서 실개천을 따라 숲속으로 질러가면 인차 해란강상류의 물줄기와 맞다들게 되고 그 강기슭의 진흙바닥을 5리남짓 고생스레 올라가면 요즘 사금판으로 흥성거리는 청지동이였다.

전날에는 누가 주인인지 알길 없던 강기슭의 진펄과 모래불과 갈대밭이 요즘에는 평당 몇백원대로 팔려나가게 되였다. 소문에는 어떤 채마장사가 함지로 밤알만 한 노다지를 얻어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돼지몰이가 돼지물을 먹이다가 개바닥에서 유난히 반짝거리는 모래 한줌을 얻어 알아봤더니 그게 모두 금이더라는 말도 돌아갔다. 소문은 소문을 낳고 그것이 또 새끼를 쳐서 채마장사가 얻은 노다지는 마침내 게사니알만 한 크기로 자라났으며 돼지몰이아이는 굉장한 부자가 되였다고 하였다.

입에 풀칠할길이 없어 떠돌아다니던 뜨내기들이 회오리치는 금광경기에 휘말리여 청지동으로, 청지동으로 모여들었다. 밀림을 스쳐흐르는 해란강의 여윈 상류, 곱슬버들 몇그루가 초원에 쓸쓸하게 서있던 청지동은 별안간 툭 터지게 넘쳐나서 전날은 거리에서 뚝 떨어져있던 서낭당앞까지 갈노전으로 대충 바람막이를 한 집아닌 집들이 뻗어나갔다. 모여드는것은 금을 캐보겠다는 사람만이 아니였다. 밥장사, 술장사, 떡장사, 황아장사, 엿장사, 물장사 별의별 장사군에 원숭이를 끼고다니는 교예사, 1분간에 사진을 깨워내는 속성사진사, 요술쟁이, 뚜쟁이, 대서방, 복덕방 등 비루먹은 나귀 등에 묻어다니는 갈파리같은 무리들이 금 한알갱이를 얻기 위하여 산더미같은 흙을 퍼담아 일어대는 앙상한 사나이들을 묻어다녔다. 아득한 해란강상류의 여윈 흐름은 금천동광산에서 흘러내리는 시약들때문에 흐려져서 량기슭의 흑토바닥이 파랗게 얼룩이 진데다가 이렇게 수많은 인총들이 달라붙어 함지로 일고 동을 막아 일고 하는바람에 서낭당가까이 와서는 바닥을 들여다볼수 없게 걸쭉해졌다. 그 진흙탕속에서 황금을 얻어보겠다고 발버둥치는것이 아무리 가소롭다 하더라도 어쨌든 청지동거리는

번창해져서 밤이면 큰 도시처럼 요란한 등불의 바다가 펼쳐지고 웃음소리, 빨딱거리는 지페소리가 사람들의 얼혼을 빼앗아갔다.

필네는 삼선봉 비탈에 서서 멍하니 청지동쪽을 바라보았다. 필네가 그 청등, 홍등의 바다를 무시로 바라보는것은 누구처럼 하루아침에 게사니알만한 노다지를 캘 꿈을 가졌기때문이 아니였다. 노다지로 말하면 금천동에서도 얼마든지 나온다는것이요 또 청등, 홍등에 갖가지 갈파리무리들은 금천동에도 넘치도록 많았다. 윤원구는 요즘 밤마다 숲속으로 간다. 한밤중이 넘어서야 남몰래 밥집으로 돌아오군하는 그 걸음을 윤원구의 안해도 잘 모른다. 다른 사람과 달리 일가식솔을 다 끌고온 그가 어떤 사람들처럼 술난봉이 나거나 투전에 미쳤을수는 없다. 워낙 윤원구의 무거운 사람됨됨이가 그런 길에 발을 들여놓을 사람이 아니다. 꼭두새벽에 간데라를 번쩍거리며 밥집을 떠날 때부터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들이였다. 밤새 끙끙 앓음소리를 치던 그들이 풀기 하나 없는 수수밥을 시래기장물에 버무려먹고 양치질도 변변히 하지 못한채 바깥에 나서면 미처 사라지지 않는 졸음이 발목에 휘감겨 비틀거린다. 관방이라고 하는 삼선봉밑의 갱구는 그래도 밀차가 드나드는만큼 초입부터 기게 되지는 않지만 황금에 눈이 어두워진 개인업자들의 광구는 어느것이나 오소리굴이다. 이마를 맞좋으려드는 굴아가리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씩 하고 들어가면 열걸음도 못가서 동발은 끊어지고 석수가 뚝뚝 돋는 암반이 등을 내리누른다. 하는수없이 지하수가 발등을 넘는 굴바닥에 꿇어엎디여 네발걸음을 하다가 그나마 10m도 못가서는 다시 배허벅을 깔고 벌레처럼 긴다. 막장이라고 하는 김치독만한 바위짬에 이르면 이번에는 등을 바닥에 대고 드러누워야 한다. 간데라를 남포구멍이나 돌짬에 걸고

가대기자루에서 닳아 몽드라진 곡괭이와 정을 꺼내여 천장을 들이쫏는다. 그것은 마치 저주로운 운명을 내려보낸 하늘에 대고 밸풀이를 하는것과 같다. 캄캄한 굴속에서는 물기를 받아 무슨 돌이나 번쩍거린다. 그것이 주린 눈에는 모두가 금맥같이만 보여 어깨죽지가 늘어지도록 괭이질을 하지만 야속한 바위는 황금을 머금었을수록 굳다. 가대기자루에 찰만큼 돌덩이가 떨어지는 사이면 면상이고 가슴팍이고 상처투성이가 된다. 그렇게 자루가 차면 자루끝을 입으로 물고 다시 들어왔던 그 길을 벌레처럼 기고 네발걸음을 하고 그다음은 기진한 등에 돌자루를 올려놓고 새우처럼 까부라져서 굴을 빠져나온다.

《이게 뭐야? 어디서 이따위 막돌만 주어왔어?》

광구앞의 사무실에 뻗치고앉은 덕대놈이 딱따구리마치로 자루를 잡아헤치고 이따위 소리를 할 때면 금시에 나른했던 주먹에 삼선봉을 통채로 두드려마슬것만 같은 힘이 뻗친다. 그러나 그런 분노는 현실이라는 차거운 바람을 맞아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는 빌붙는다.

《주사나으리, 왜 이러시우? 요즘 우리 남갱에서 노다지만 캐냈다는것을 잊었소?》

화약이 모자라 남포 한방 못터치고 순전히 수굴로 넘어가면서 굴쟁이들의 신역은 말이 아니였다. 화약은 전쟁판이 커지면서 차츰 통제가 심해져 관방에서 훔쳐내기도 어렵게 되였다. 많은 개인업자들가운데 그래도 리호철이가 이따금 몇상자씩 얻어올뿐 다른 굴에서는 아예 쳐다볼 엄두를 못낸다. 호철이네 굴에서도 남포 한방을 튀우자면 관방의 순사들에게 코아래진상을 하는 일로부터 남포구멍을 뚫는 일에 이르기까지 백가지 천가지가 강마른 굴쟁이들의 밸을 훑어내리는 일뿐이다.

그렇게 해서 긁어낸 돌무지를 상자에 채워서 관방선광장으로 보내면 그다음은 또 어딘지 모르는 먼곳으로 실려가서 새눈만한 금덩어리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름도 모르는 어떤놈이 홀딱 삼켜버리고 이 밥집의 식솔들은 구경도 한적이 없다.

밤이 들면 좁은 통간 귀틀막에 새끼줄을 건너띄우고 엇갈아 다리를 걸친채 잠든다. 잠이 들면 고향 가는 꿈을 꾸는지 아니면 락반에 깔려죽은 친구들을 만나보는지 히죽히죽 웃다가 갑자기 숨넘어가는 소리를 질러대군한다.

하도 정상이 가긍해서 이따금 빨래가지를 걷어가지고 강가에 나가보면 돌가루로 버무려지고 바위너슬에 찢기운 그 적삼들은 또한 선지피로 얼룩져있었다.

필네는 가끔 그 적삼들을 빨면서 울어버리기도 하였다.

윤원구는 요즘 사흘이 멀다하게 청지동으로 드나든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밤을 패다싶이하고 굴일을 어떻게 하랴 하는것이 은근한 근심이였다.

대선아바이는 매맞아 상한 다리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입갱하였건만 종시 난장으로 밀려나고말았다. 동발도 별로 들이지 않고 해먹는 광굴이라 난장에서 밥벌이를 해먹을만한 일거리를 맞다들기는 헐치 않았다.

윤원구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청지동에 농막살이할데가 있는데 그리로 가보지 않겠는가고 권하기 시작하였다.

장대선아바이 대신에 벌써 새 동발공이 들어와서 윤원구와 한교대에 끼였다.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부모도 모른다는 불쌍한 고아였다. 고아라고 하지만 나이는 벌써 서른이 넘어보이는 로총각이였다. 그는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말이라는것을 통 모르고 그저 그림자처럼 윤원구만 따라다녔다.

어딘가 처지가 저와 비슷하기때문에 필네는 그 상기라는 사람을 몹시 동정하였다. 가만 봐야 객지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것이 되는대로 살아서 그런지 제몸 하나 건사할줄을 몰랐다. 그래서 이따금 옷가지를 빨아주면 이 다음에 꼭 신세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필네는 그 누가 신세를 갚아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바라는것은 오직 자기에게 어디로 찾아가면 유격대를 만날수 있는가 하는것을 대주는것이였다. 그러나 암만 주위를 둘러봐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뿐이지 번한 말을 해줄 사람은 하나도 있어보이지 않았다. 있다면 윤원구가 있을뿐인데 그는 웬일인지 요즘은 더욱 곁을 주지 않는다.

오늘은 윤원구의 안해가 혼자 저녁을 짓겠다고 하기에 저물녘에 삼선봉기슭으로 고사리를 꺾으러 나왔다가 후미진 오솔길에서 만주광업의 김성필이와 함께 올라오는 윤원구를 또 띄여보았다.

《넨장, 조심은 무슨 조심, 그러다가는 용마루 내려앉을가봐 잠도 못들겠네. 걱정 말라구. 내 그 자식을 제껴버리겠네.》

김성필이의 말이다. 소문에 두 쌍둥이의 아버지로서 세상에 무던하고 놀기 잘하는 사람이라더니 말부터 시원시원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에 비하면 윤원구의 말은 어디까지나 의젓하고 어른스러웠다.

《무슨 놀음인가 생각하면 못쓰네. 작고 큰일 가리지 않고 꼭 꼭 토론을 해야 돼.》

어느새 두사람은 산비탈에 올라섰다.

윤원구는 필네를 보더니 고개를 끄떡거리며 알은체를 하였다.

김성필이도 호감이 가는 사람좋은 웃음을 입가에 띠우고 청지동쪽으로 먼저 넘어갔다.

《필네가 웬일인가?》

윤원구는 반색을 지으면서 물었다.

《아저씬 또 어디로 가요? 벌써 저녁 잡수셨어요?》

필네는 전부터 품고있던 생각이 있었기때문에 핀잔비슷하게 물었다. 윤원구는 주변에 딴사람이 없다는것을 확인하고나서 부드럽게 말했다.

《먹지 않구. 해가 길어서 그렇지 지금이 몇시게 그래? 고사리를 꺾나?》

《햇고사리 좀 무쳐볼가 해서요.》

《좋지, 수고하누만. 그럼 어서 가보라구.》

《아저씨는 어디를 그렇게 밤마다 다녀요?》

필네는 궁금증을 풀어볼양으로 다시한번 변죽을 울려봤지만 윤원구는 수염이 꺼칠한 볼편에 어설픈 웃음을 지을뿐 어서 가라고 손을 흔들었다.

《진호에미보고도 날 만났다는 말 하지 말어.》

자기 안해한테도 말하지 말라니 아무 하고도 말하지 말라는 소리다. 그 웃음이 수상하였다.

그래서 그가 사라진 삼선봉너머를 이윽토록 바라보았지만 아직 여물지 못한 작은 별이 하늘가에 가물거릴뿐 색다른것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는 설핏하니 땅거미가 져서 고사리를 꺾을수도 없었다. 필네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고 바구니에 삐여져나온 나물을 간종그렸다.

그런데 가쁜 숨소리가 밥집이 있는 비탈쪽에서 울려왔다. 길로 사람이 다니는것은 별일도 아니기때문에 필네는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틀림없이 이쪽이지?》

누가 묻는 소리에 대답은 없고 가쁘게 쉬는 숨소리만 들려온다.

《그럼 넌 밥집에 돌아가라.》

두사람이 바로 대여섯걸음앞까지 와서 헤여진다.

무심히 쳐다보니 숨을 헐떡거리며 돌아서는것은 상기였다. 누구와 같이 이런데 왔던것일가 해서 저쪽 청지동쪽으로 내려가는 사람을 바라보던 필네는 그만 소스라쳐 바구니를 떨구고 두손을 얼굴로 가져갔다.

구붓한 산길을 급히 돌아가는 그 옆모습은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꿈에조차 몇번씩 본적 있는 그 신사동의 하늘소였다.

지금은 스키모대신 여기 굴쟁이들이 흔히 그러듯 수건으로 질끈 머리를 동이고 만주광업의 허줄한 작업복을 걸치고있었지만 하늘소귀같이 생긴 벌쭉한 귀는 감출래야 감출길이 없었다.

필네는 배암이 몸에 감긴듯 진저리를 치면서도 사태를 짐작하였다. 저놈은 만주광업의 로동자들속에 밀정으로 들어가있다. 그리고 상기란놈은 겉은 어수룩한척하지만 그놈과 같은 밀정이다.

상기란놈은 윤원구의 뒤를 밟고있다. 오늘도 윤원구가 어디로 가니 그것을 저 하늘소에게 알려준것이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판에 끼여들었는가 하는것을 깨달을수록 필네는 아래다리가 떨려났다.

《아니 필네 아니야?》

인기척에 어지간히 놀란듯 도마뱀처럼 몸을 나무뒤에 감추었던 상기가 허리를 일으키며 다가왔다.

《아저씨는 웬일이예요?》

필네는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쏟아진 햇고사리를 주어담으며 물었다.

《나? 난 바람쏘이러 나왔지. 이런데 나물 하러 왔댔나?》

상기는 의심쩍은 눈길로 하늘소가 사라진쪽을 돌아보기도 하고 필네의 얼굴을 뜯어보기도 하면서 무엇인가 냄새를 맡으려 하였다. 그것이 환한 대낮이였다면 필네는 틀림없이 수상한 눈치를 채이고말았을것이다.

다행히 날이 어두워와서 섬세한 표정은 다 가리워지고 필네의 흔연한척하는 거동만 눈에 띄였다. 그래도 상기는 마음이 놓이지 않는듯 끈덕지게 캐여물었다.

《이제 여기 누가 넘어갔지?》

《발자국소리가 났어요.》

전혀 모른다고 하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것 같아 범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되물었다.

《왜 그래요? 아는 사람이예요?》

《아, 아니… 이제는 내려가자구.》

필네는 앞서고 상기는 뒤에 서서 산을 내렸다. 필네는 자주 돌부리에 걸채여서 비칠거렸다. 원래 돌이 많은곳이였다. 그러나 전에없이 자주 돌을 걷어차는것은 주의가 뒤따라오는 상기한테만 쏠리기때문이였다. 상기도 자주 비칠거렸다. 그도 마음속이 어수선할것이였다.

그날부터 상기는 한시도 필네에게서 감시의 눈초리를 떼지 않았다.

이 일을 한시빨리 윤원구에게 알려주어야겠는데 그럴 기회가 생기지 않았다. 상기는 윤원구와 같이 입갱했다가는 윤원구와 함께 나왔다. 자기도 같이 잔다. 윤원구가 뒤간에 가면 그는 문턱에 나와있다.

가끔 필네가 진호 어머니와 함께 거처하는 부엌간으로 윤원구가 건너올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장지 하나로 가리워진 김장로네 방에 최주사가 거처하기때문에 무슨 말을 할수 없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윤원구가 과연 청지동쪽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저런 독사같은것들이 뒤를 밝고다닐 때는 투전이나 하러 다니는것은 아닐것이다.

처음에 그 하늘소와 맞다들리던 날은 한잠 못자고 밤을 밝혔다. 삼장다리에서처럼 또 잡혀간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서 진호 어머니를 측은한 눈매로 돌아보니 아낙네는 태평스럽게 코를 골며 자고있었다.

윤원구에게 위험을 알려줄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다. 진호 어머니에게 대주는것이다. 그러나 산을 넘어가며 자기를 만났다는것을 진호 에미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던 그의 말이 생각났다. 삼장에서 일을 겪었을 때 울고불고하며 경황없이 돌아치던 아낙네의 모습도 떠올랐다. 이 순박한 아낙네에게는 남편이 하늘과 같은것이다. 만일

남편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것 같다고 하면 당장에라도 소동을 일구자고 들것이다.

필네는 단념하고 돌아누웠다.

윤원구는 뜻밖에도 밤이 그리 깊지 않아서 돌아왔다. 그러나 필네는 종시 잠들지 못했다.

만일에 상기와 그 하늘소같은놈이 경찰이나 군대의 끄나불이라면 그놈들이 그렇게 주목하는 윤원구는 어떤 사람일것인가? 그가 밤마다 하는 일이 무슨 일일것인가?

어느새 날이 밝았는지 김장로가 가래를 톺아올리며 땅땅 재털이를 두들겨댄다. 어설픈 장지짬으로 담배연기가 꾸역꾸역 스며나온다. 일어나라는것이다.

필네는 밤새도록 뒤번졌지만 아무런 매듭도 짓지 못한 생각을 좁고 답답하고 외로운 가슴속에 다시 가려놓고 일어나서 머리를 쓰다듬어넘겼다.

5

금천동지구의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오는 모임은 삼선봉기슭에 있는 폐갱속에서 진행되였다. 그 옛날 만주광업회사가 초창기에 캐먹은 굴로서 우불구불한 300m 운반갱을 중심으로 편도가 개미굴처럼 뚫려있고 편도마다 물이 그득그득 괴여서 설사 적들이 눈치를 채고 접어든다 해도 사방으로 뚫린 통기갱으로 얼마든지 피할수 있는 곳이였다.

오늘은 금천동지구를 다 포괄하는 조국광복회지부조직을 내오는 모임이기때문에 각 광구에서 대표자를 두세명씩 뽑아서 회의를 단출하게 진행하였다.

성림은 박인섭이와 함께 춘길이가 망을 보는 갱구로 들어갔다.

초입에서 윤원구가 간데라를 들고 기다리고있었다. 악수를 나눈 성림은 대뜸 물었다.

《그 상기란놈은 어떻게 했습니까?》

《몇사람이 달라붙어 그놈을 데리고 대포집에 갔지요. 아주 곯아떨어졌을거우다.》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남아있습니까?》

《술독을 지고가라면 못가도 먹고는 간다는 패들이 남아있지요.》

《어쨌든 경각성을 바싹 높여야겠소. 그 식모처녀가 아니더면 실수할번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옆에 기여든 밀정은 모르고 뒤따르는 당나귀만 살폈으니…》

《그러게말이오다. 그 처녀가 아주 똑똑하지요. 앞으로 부녀조직도 그 동무를 중심으로 조직했으면 했는데 그 상기란놈이 어찌나 감시를 하는지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 동무 이름이 뭐라고 했던가요?》

두사람은 간데라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물탕을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섭이는 처음 들어가는 갱도라 바닥이 조심스러워 한걸음 뒤떨어졌다.

《한필네라고 우리와 벌써 이태째 같이 있는데 믿을만 한 동무지요.》

《뭐 한필네?》

성림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인섭동무, 그 한태혁동무 누이동생 이름이 뭐라고 했던가?》

《태혁이 누이?》

인섭이도 우뚝 섰다.

《아니 이자 그 처녀 이름이 뭐라고?》

《필네라니까요?》

윤원구는 영문을 몰라 두사람을 번갈아보았다.

《한필네란말이요?》

인섭이는 덤비며 윤원구의 손을 움켜잡았다. 윤원구는 눈을 꺼벅꺼벅하며 고개를 끄떡거렸다.

《이거 참 별일은 별일이다.》

인섭은 기가 막힌듯이 혼자 중얼거리더니 다시 덤비며 물었다.

《가만 윤동무네가 저 신양광산에 있었다고 했지?》

《그렇소.》

《그 처녀도 거기에 있었고?》

《그렇지요. 우리랑 같이 처서판으로 넘어갔댔소.》

《틀림없소.》

인섭은 무릎을 철썩 내리치며 단정적으로 말하고나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다그쳐물었다.

《그 동무에게 오빠가 있지?》

《오빠요? 오빠는 모르겠는데 녀자형제들은 꽤 많은것 같습디다.

부모들이 너무 딸이 많아서 자기를 남의 집에 주어버리고 어딘가로 가버렸다니까요.》

《뭐 어딘가로 가버려? 모를 일이다.》

인섭이는 고개를 비틀었다.

세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하였다.

《누가 필네를 아는 사람이 있는가요?》

윤원구는 암만해도 모르겠다는듯 물었다.

잠시 대답없이 걷던 성림이가 조용히 입을 벌렸다.

《그 처녀가 한 말은 다 꾸며낸 말일수 있소. 험한 세상을 혼자 살아가자니 자기 집 래력을 드러내놓고 살수야 없지 않소.》

《옳소 바로 그게요.》

잠시 시리죽은 얼굴을 하고 걷던 인섭이도 활기가 되살아나서 부르짖었다.

《그 동무에게 기회를 타서 조용히 오빠가 없는가? 아니 터놓고 유격대에 나간 오빠가 없는가 물어보시오. 조심해서…》

성림이가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세사람은 더는 말을 하지 않고 첨벙첨벙하는 물소리의 메아리가 점점 커지는 굴속으로 깊이 들어갔다.

당장 달려가서 사실을 알아보고싶은 생각이 감질나게 치밀었으나 억지로 참고들 있는것이였다.

한참 올리굴을 가다가 인차 편도로 들어섰다. 널찍널찍 들였던 동발마저 다 뽑아내버린 폐갱은 천반이 당장 무너질것처럼 낮추 드리워있는데 발을 옮겨놓을 때마다 물탕이 튕기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궁근 메아리를 일으켰다. 밀차길을 놓았던 자리가 돼서 바닥도 고르롭지 않았다. 갱도가 낯설은 인섭이는 걸음마다 비칠거렸다.

《조심하시우.》

윤원구가 될수록 그앞에 불을 비쳐주었지만 물이 벌창을 했기때문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 밀차길이 끝나자 인차 내리굴이였다.

회의장소가 있다는 통기갱으로 통한 편도에 들어서니 허리를 일으키면 천반에 머리가 부딪치고 허리를 굽히자니 발밑이 위태로왔다. 그중 좋기는 네발로 기였으면 좋겠으나 통기갱 역시 한참동안은 물이 차서 그럴수도 없었다. 윤원구는 불을 들고 제집 아래목 가듯 슬슬 앞서 걸어가고 성림이도 별로 힘들이지 않고 따라간다. 인섭이가 비칠거리면 손을 뻗쳐주면서 《이건 그래도 괜찮은편이요. 저 윤원구동무네가 일하는 굴은 더 형편이 없소》라든가 《광산이라는데가 이렇소. 게다가 언제 붕락이 올지 모른단말이요.》하고 설명해주었다.

통기갱을 얼추 다 톺아오르니 거기에는 물이 없었다.

《인섭동무.》

비교적 편편한데를 걷게 됐을 때 성림이 은근한 목소리로 불렀다.

《왜 그러오? 난 숨이 가빠죽겠소. 이거 나같은것은 광산쟁이는 못해먹겠구만.》

인섭은 아닌게아니라 물에 잠긴 운반갱에서 진작 진을 다 빼버린듯 이마의 땀을 훔쳤다.

《한달이면 곧 익숙해지오. 한 300m되는 수직갱을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릴 때면 눈앞이 아찔해질 때가 많소. 그런데 인섭동무.》

《왜 그러오?》

《우리 남패자에서 처음 만나던 생각이 나오?》

《남패자에서?》

인섭은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는듯이 앞서간 윤원구의 간데라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성림의 얼굴을 말똥말똥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쨌단말이요?》

인섭은 어쩐지 성림의 말투가 이상한것을 느끼며 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그때 좀 건방지게 굴었지?》

《뭘말이요? 여보 성림동무,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뭘 그런 시시한 소리를 다 하오. 난 건방진지 어떤지 그따위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같은 신대원이라는데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밖에 한것이 없소.》

인섭은 뒤를 듣고싶지도 않다는듯이 걸음을 다그쳐서 앞섰다.

《그게 바로 건방진 수작이지. 이제 한태혁동무 말이 나오니 그때 생각이 나는구만. 내 꼭 고치겠소.》

《그만두라는데… 동무야 이미 많이 고치지 않았소.》

통기갱마감에 금천동광산지구의 핵심들이 모여앉아 담배들을 피우고있다가 세사람을 맞이하였다. 머리가 천장에 닿는 좁은 갱도에 간데라를 여기저기 걸어놓아서 어둡지는 않았으나 음영이 짙어서 사람들 인상이 똑똑치 않았다.

인섭이는 갱도에 들어오는데는 서툴었지만 사람들속에 들어오자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난듯이 자유롭게 돌아갔다.

성림은 그런 인섭이를 부러움에 차서 바라보면서 자기가 사업해온 핵심들을 한사람 한사람 소개하였다.

《만주광업에서 온 동무요. 3대광부의 아들이요.》

《오 김성필동무구만. 내 다 들었소. 그런데 또 생남을 했다지요?》

인섭은 텁석부리광부의 손을 덥석 움켜잡고 흔들며 구면친구에게 말하듯 허물없이 굴었다.

《그렇소다. 이 김성필이 세상에 태여나서 해놓은것은 없지만 아이새끼만은 한구들 낳아놓았지요.》

김성필은 면구한듯이 한쪽손으로 목덜미를 쓸면서도 인섭이를 제사람으로 치부하고 속을 터놓았다.

《그래도 그게 괜찮은게요. 혁명이 어디 한두해에 되겠소. 그것들이 이제 자라나서 뒤를 이어야지. 그런데 대선아바이도 참가했소?》

하고 인섭이는 한쪽구석에 쭈그리고앉아 곰방대를 빨고있는 장대선을 알아보고 성림을 돌아보았다.

《오늘까지는 기어이 여기에 참가시켜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소. 오늘저녁 모임이 끝나면 조직의 결정대로 옮아갈거요.》

인섭은 태반의 사람들이 생소하였으나 인차 친해져서 한참동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가 곧 회의로 넘어갔다.

회의안건은 조직을 내오고 지도기관을 구성하는것이기때문에 오래 걸릴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 의의로 보면 태고연한 삼선봉에 남포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이래 이 일대 인민들의 생활에서 그 어떤 남포도 미치지 못할 거창한 우뢰와 같은 사변이였다.

먼저 박인섭이 나서서 금천동지구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올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말씀을 전달하였다. 비밀통신형식으로 전해진 사령관동지의 말씀 역시 간명하게 요약된것이였으나 그 짧은 한마디 한마디 말씀속에 억압받고 천대받는 로동계급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뜨겁게 굽이치고있었기때문에 가슴벅찬 감격을 불러일으켰다.

그칠새없이 뚤렁뚤렁 떨어지는 석수소리를 제압하며 오래동안 계속된 박수소리가 가라앉고도 한참이나 지나서야 성림이 입을 벌리였다.

그는 여태까지 금천동지구의 조직핵심들이 광부들속에서 사업해온 경위를 간단히 보고하고나서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국광복회의 조직을 내오는 거대한 의의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가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의 진출에 발맞추어 모든 광부들과 인민들을 **김일성**장군님 두리에 묶어세우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원호사업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을 타도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자고 호소하자 희의참가자들은 다시 열렬한 박수로써 호응하였다. 굴속의 박수소리는 우렁찬 메아리를 일으켰다.

여기 모인 핵심들이 흩어져가서 각기 자기 광굴과 광산, 주택지구와 밥집에서 한사람이 열사람을, 열사람이 백사람을, 백사람이 천사람을 쟁취하는 방법으로 온 나라 인민들을 다 조국광복회 주위에 묶어세우자고 열렬히 결의들을 다졌다.

김장로밥집을 비롯하여 이미 많은 영향을 준 로동자들을 곧 조직에 결속하여 친목계형식으로 합법화하며 곧 부녀들의 조직을 내오기 위하여 미리 준비를 갖추어나갈데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공이 주어졌다.

회의가 끝나고 난장에 나와보니 짧은 여름밤도 어느새 퍽 깊었다.

인섭이와 성림이는 청지동농촌으로 침투되여들어가는 장대선아바이와 함께 밤길을 돌아갔다. 대선아바이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말없이 농촌으로 가기는 하지만 자기의 청춘을 다 갉아먹고 뜯어먹고 탕쳐먹은 그 광산에 그래도 미련이 있어서 자꾸만 삼선봉쪽을 돌아보았다. 삼선봉에 정들일사이도 없었건만 그래도 장대선이가 자유롭게 서서 활개짓을 할수 있는데는 광산 굴속이였다. 그 굴속에서 청춘과 힘을 깡그리 빨리우고 다리까지 절게 되여 난장으로 밀려나오니 마치 뭍에 오른 물고기와 같이 마음을 의지할데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또 농촌으로 가게 되니 그의 마음이 무심할수 없었다.

《농사야 나도 지어봤지요. 관서면 향교리에서 우리 어머니가 머슴을 살았습네다. 하지만 그게 어느 옛날 이야기외까? 내가 농사군행세를 온전히 해야 농민들이 내 말을 믿어주겠는데…》

《아바이는 아무데 가나 일을 잘할수 있습니다. 아무러면 금을 캐내던 사람이 낟알을 못가꾸겠소. 일없어요. 방을 빌려주겠다는 그 로친이 무던하니 걱정 마시오. 사실 말이 농사이지 아바이는 보통씨를 묻으러 가는것이 아니라 혁명의 씨앗을 묻으러 간단말입니다.》

인섭은 그를 한편으로 달래며 한편으로 자각을 높여주느라고 애를 썼다.

성림은 부지런히 걸었다. 그는 이 길로 청지동에 가서 유경무와 리호철을 만나 함께 화룡시내로 들어가게 되여있었다.

회의장소로 가면서 사람을 보내여 알아보니 유경무와 리호철은 화룡광업의 사무실에서 수작질을 하다가 저녁을 먹는답시고 술집에 들어갔다는것이였다. 술자리에 앉으면 밤이 새는줄 모르는놈들이니 아직 시간여유가 있기는 할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은 틀림없이 든든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제꺽 비밀련락소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큰 목재상의 대리인답게 중개업자네 집에 나타나자면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따라 가슴속이 초조하였다. 그래서 그의 걸음걸이는 두사람을 자꾸만 앞섰다.

《마차에서 말을 떼놓은것을 못봤소. 덤빌 필요 없당이…》

인섭이 어쩐지 덤비는듯한 성림이가 미타하여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역시 걸음을 다그쳤다.

그들의 불안은 근거 없는것이 아니였다.

밋밋한 언덕을 넘어 갈아번진 강낭밭속으로 난 외통길을 가는데 불시에 말발굽소리가 울리여왔다.

《아차!》

성림은 뒤를 돌아보았다. 분명 유경무의 마차였다. 방금 씨를 묻은 강낭밭은 길다랗게 째놓은 밭고랑이 달빛아래 훤하게 드러나있어서 갑자기 어디에 몸을 숨길데도 없었다. 언덕에 가리워 들리지 않던 마차소리가 내리막길에 들어서자 자갈을 튕겨내는 소리를 지르며 덮칠듯이 따라온다.

《재간이 없소. 대선아바이의 보퉁이를 메고 맨가에 서오.》

인섭이도 급해나서 될수록 성림이가 가리워지게 붙어서며 수군거렸다.

삽시에 마차는 그들을 지나쳤다.

저만치 마차가 사라지자 성림은 보퉁이를 대선아바이에게 넘겨주며 말없이 그의 손을 틀어잡았다.

《어찌자는거요?》

인섭이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뛰겠소.》

《뛰다니? 마차가 벌써 갔는데…》

《지름길이 있소.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지 않으면 저놈들이 나를 의심할거요. 나를 의심하는것은 일없지만 결국은 조장동무가 의심받게 되고 공작조전반이 의심받게 되오. 지나칠 때 그놈들이 나를 유심히 보았소.》

인섭이가 말릴 사이도 없었다.

성림이는 강낭밭을 곧장 가로질러 내달렸다. 달리면서 그는 타산하였다.

(청지동 중개업자네 사무실까지 마차길로 6km쯤 될것이다. 내가 지름길로 아지트까지 가는데 3km 아니면 3. 5km, 아지트에서 엄가네 사무실까지 2km… 그런데 그 1km사이는 대체 달릴수 없다. 그 거리는 적어도 절반은 유유히 걸어야 할것이다. 여기서 달린 가쁜 숨을 태우면서… 그러자면 내가 이 울퉁불퉁한 길을 말보다 훨씬 빨리 달려야 한다. 나는 본시 장거리선수는 아니였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때 쓰러졌지.

그러나 혁명을 하는데는 장거리를 달려야 한다. 장거리를 견디면서도 매 구간을 단거리선수처럼…)

어느덧 성림의 생각은 가빠오르는 숨때문에 중단되였다. 강낭밭이 끝나자 진펄이 나타났다. 발목이 푹푹 빠졌다. 여기서는 그 어떤 달리기도 할수 없었다. 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행이였다. 빨리 가겠다고 허우적일수록 숨은 더 가빴다. 사금판으로 흘러가는 개울이 나타났다. 넙적다리까지 빠지는 물을 주저없이 건넜다. 그 다음은 모래판이였다. 젖은 바지가랭이가 철떡거린다. 벗어던지고싶었지만 그럴 시간도 없거니와 아무리 인적 드문 곳이라 해도 혹시 사람의 눈에 띄우면 재미없다. 번번한 달구지길이 나졌다. 다섯마장 착실히 되는 그 길만 극복하면 비밀련락소인 서낭당이다. 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구간은 여기밖에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 요긴한 대목에서 성림은 자기의 페활량이 더는 필요한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되였다는것을 깨달았다. 다리는 저도모르게 허우적거린다. 그것은 거의 보통걸음걸이나 같은 속도였다. 문득 마차소리가 가슴을 쳤다. 원쑤들은 달리는 쌍두마차에 채찍질을 가하며 중개업자네 집으로 달려들고있을것이다.

《사령관동지!》

성림은 고개를 쳐들고 아득한 하늘을 향하여 소리내여 부르짖었다.

《제가 다시 여기서 주저앉는다면…》

그의 눈에는 막막한것이 어리였다.

이때 사령관동지의 준절하면서도 인자하신 목소리가 울리여왔다.

《성림동무. 힘을 내시오. 우리는 동무를 믿습니다. 동무가 우리 혁명에 대한 신심을 확고히 가지기만 하면 동무는 과오를 능히 씻을뿐아니라 큰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공작에 내보내주시면서 들려주신 그이의 말씀이였다.

성림의 가슴은 진정되기 시작하였다. 나에게는 사령관동지의 믿음과 사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가라앉았다. 초조감이 사라지자 한결 숨쉬기가 편해지고 자신심이 생겼다. 그는 아까 본 마차의 속도와 자기가 달려온 속도를 가늠해보고 거리를 서로 대비하여보았다. 자신이 있다. 덤빌 필요가 없다.

성림은 호흡을 조절하며 다시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서낭당 비밀련락소에서 말끔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그는 다시 시내까지 얼마동안 달리다가 그다음 담배를 꺼내 붙여물고 숨을 태우며 청지동거리로 들어섰다. 그가 중개업자와 만나 유경무씨가 안왔더냐고 심드렁한 어조로 묻고나서 한쪽구석에 놓인 장의자에 걸터앉아 매우 졸린듯이 스르르 눈을 감으며 《협잡군들같으니…》하고 중얼거릴 때 유경무의 마차가 사무실앞에 들이닿았다. 리성림 즉 홍아목재상의 대리인인 서사 조인식은 방금 그를 두고 《협잡군》이라고 욕한 사람답지 않게 정중히 유경무를 맞이하였고 얼마후에는 그 마차를 함께 타고 화룡시내로 들어갔다. 유경무가 자기 광산의 주권을 얼마간 홍아목재상에게 양보하며 동시에 홍아목재상을 통하여 동발목을 구입할데 대한 흥정을 형 유경문이 있는 자리에서 벌리자는것이였다. 이것은 홍아목재상으로서는 대단히 유리한 거래인만큼 대리인으로서 열성을 보이지 않을수 없었다.

6

서낭당주변은 멀지 않은 곳까지 갈노전집들이 뻗어왔지만 아직도 후미진곳이였다. 길잃은 나그네들이 겨울을 나느라고 사당안에 불을 지펴서 천반이고 벽이고 까맣게 연기로 그슬렸다. 눈이 깊은 때는 제단까지 허물어 땠는지 지금은 온통 실그러지고 고삭았는데 바깥에 서있는 해묵은 곱슬버들밑둥에서부터 구렝이가 기여나와 제단밑으로 거처를 옮겼다. 최근에는 바로 그 구렝이가 서낭님이라는 말도 돌아갔다. 어느 길손이 허기를 못참아서 돌같이 굳어진 제떡 한개를 집어먹고 서낭님의 노염을 사서 급살을 당했다고도 하였다. 어느해인가는 곱슬버들가지에 웬 처녀가 목을 매여죽었는데 그것은 서낭님이 제 마누라로 데려간것이라고들 하였다.

해만 떨어지면 서낭당언저리는 사람그림자 하나 얼씬 안했다.

그럴수록 음기가 짙어져서 최근에는 대낮에도 사람들이 범접하기 좋아하지 않았다.

초저녁부터 청지동과 금천동 일판의 핵심들과 만나서 선전자료들을 나누어주고 앞으로 조직을 넓혀나갈데 대한 과업도 준 박인섭은 윤원구가 삼선봉쪽으로 넘어가자 담배 한대를 붙여물고 공작조성원들을 기다렸다. 밤에 장경수가 오기로 하였다. 어랑촌부근에서 활동하는 한 소부대까지 갔다온 그는 이밤으로 공작조의 보고를 종합해가지고 사령부로 돌아가게 되여있었다.

국내로 들어갔던 장경수는 부대가 석인구전투를 치른 얼마후에 돌아왔었다.

정지성은 김홍배라는 이름으로 풍산에 깊숙이 박혔으며 주변에 흩어져있던 혁명가들을 묶어나가고있다. 허천강발전소공사장에도 이미 조직을 박기 시작하였다.

한편 무산지구전투에 대한 소식은 광범히 퍼져서 일제의 탄압아래 숨죽이고있던 인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특히 직접 **김일성**장군님을 자기 고장에 모신 무산지구와 그 대안인민들의 혁명적기세는 하늘을 찌를듯하였다. 때마침 사령관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올기강전투를 비롯한 큰 전투들과 수많은 집단부락습격전투들을 통하여 두만강기슭의 적들이 완전히 군사적으로 제압된 유리한 조건에서 인민들의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조직화하는 사업이 중요한 임무로 제기되였다. 무산지구에서 이 사업을 직접 담당수행한것은 옥돌골공작조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옥돌골을 떠나시면서 멀리 앞을 내다보시고 곰의골밀영에서 소환하여 침투시킨 리학렬은 옥돌골일대에서 활동하는 한편 상대동의 한 농막을 거점으로 하여 강건너 삼장면에서 대동구일대로 넘어오는 농민들을 혁명화하였다. 대동구에는 이미 사령관동지의 지도에 의하여 반일회가 조직되였으며 무산 삼장면에는 상사소, 하사소, 하륙소, 농사동일대에 조직이 꾸려지고있다. 무산지구전투당시 신사동에서 사령관동지를 모신 봉식이며 만호, 태호형제를 비롯한 많은 로동자, 농민들이 옥돌골공작조의 지도하에 처서판과 농민들속에서 조직을 꾸리는 앞장에 서있다. 옥암동구장 리덕선이는 무산지구전투의 불길에 너무 덴겁을 해서 이제는 문전출입을 삼가하게 되고 어찌다 아들 호철이가 들리면 너도 제 형꼴이 되지 않겠거든 너무 날뛰지 말라고 오히려 당부한다는것이다.

이러한 소식들은 공작조 성원들의 가슴을 흥분으로 뒤설레이게 하였다.

지금 공작조의 사업보고를 종합하고있는 박인섭의 생각에는 어쩐지 사령관동지께 기쁨을 드릴만 한 내용이 부족한것만 같아 속이 안달아났다. 만일 광산 밥집의 식모처녀가 한태혁의 누이동생이라는것만이라도 확증되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윤원구는 그 상기라는놈때문에 필네에게 접근하기가 어려워 그런 심중한 이야기를 꺼낼만 한 기회를 아직 못타고있다는것이였다. 하기는 그 말이 난것이 엊그제이고 또 이야기내용이 내용인것만큼 안타깝다고 서뿔리 다그칠수도 없는 문제였다. 낮에 장경수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도 감질이 나서 빨리 알아보고 그 즉시로 사령부에 알리라고 하였다.

공작조의 사업상보고내용은 그만하면 괜찮다고 볼수도 있었다.

금천동조직은 벌써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여 어제밤에는 성벽에 큼직한 삐라가 50여매나 나붙었다. 시꺼먼 벽돌담장에 광부들의 투박한 손으로 어찌나 풀을 흠뻑 먹여붙였는지 광산 순사들과 경찰이 총동원되여 하루종일 떼도 아직 흔적이 남아있다. 지금 금천동은 헌병이 드나들고 《신선대》가 드나들고 경찰우두머리들이 드나들고 굉장히 소란스럽다.

그런데 그틈에 청지동 농촌에서는 장대선아바이가 세사람의 농민을 교양하여 네사람이서 사인계를 무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백인계로까지 발전시킬 차비이다.

청지동 사금판과 목재판의 형편도 그만하면 괜찮다.

적정에 대한 자료는 이미 김준삼이가 장경수에게 전했고 추가적인것은 리성림이가 가져올것이다. 적의 동태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적들이 부대를 허위적으로 이리저리 끌고다닌다는 자료가 사실인가 하는것을 확인하는것이였다.

이윽고 장경수가 행상리발쟁이모양을 하고 나타났다. 사처로 돌아다녀야 하는 그의 임무로 볼 때 그럴듯한 변장이였다. 성림이만은 밤이 퍽 깊어가는데 웬일인지 나타나지 않는다. 적의 우두머리들과 본격적인 기업흥정을 벌린 성림에게 이런저런 사정이 많이 생길수는 있겠지만 역시 걱정스럽지 않을수 없었다.

《이 동무가 어디 술자리에 가 너무 재미를 보는게 아니야.》

인섭이는 잡초에 묻힌 행길쪽으로 고개를 돌리여 중얼거렸다.

《이제 오겠지. 아무러문 성림동무가 술때문에 시간을 잊어먹겠소.》

하고 장경수는 늘어진 대답을 하며 곰방대를 꺼냈다.

《흥, 알지도 못하면서… 부르죠아들과 교제하는게 어떤겐지 알기나 하오. 내 전날 금천동조직을 내오는 날 성림동무와 함께 갔다가 학질 뗐소. 유경무라는놈은 같이 술을 먹겠다고 당장 마차를 타고 달려드는데 이 동무는 작업복을 입고 우리같은 뜨내기와 함께 걷고있지 않았겠소. 야- 참 솔직히 말해서 간이 콩알만해졌더랬소. 그런데 이 동무가 냅다 달린다는데 리성림이가 빠르기는 빠르더군. 15리를 마차와 경주를 해서 앞질러가서는 신사복을 척 갈아입고 그놈들을 만나서 술자리를 찾아갔다는거요. 아슬아슬하지 않겠는가 좀 보오. 금광 사주고 동발 사겠다고 자꾸 술 퍼먹이면 먹었지 별수 있소?》

박인섭은 장경수앞에 늘 한수 접히고 드는것 같아 괜히 기세를 올리며 떠들었다.

《참 고난의 행군이 대학맞잡이란 말들을 하더니 비슷한 소리 같군.》

장경수는 멜대에 달고다니는 리발걸상에 다리를 꼬고앉아 곰방대를 뻐금뻐금 빨며 실눈을 해가지고 중얼거렸다.

《그건 무슨 소리요?》

인섭이가 어정쩡해서 물었다.

《인섭동무를 보니 내가 동무들 데리러 20도구골안으로 찾아가던 일이 생각나서 그래. 그게 언제던가? 작년 이맘때지?》

《쳇 듣고싶지도 않소. 그 뭐 시험이다 뭐다 하고 시시펑덩한 허튼소리만 해서 사람을 놀래우더니… 또 그런 소리를 하고싶어서 그러는 모양이군.》

인섭이는 좋다는것이 눈을 흘기며 두덜거렸다.

《시험이야 이제 뭐 또 칠게 있어야지. 지하공작을 척척 해내지, 연설도 곧잘 하지, 이게 얼마나 장한가. 내가 박인섭이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우리 사령관동지께서 사람을 잘 보실뿐아니라 세상에 쓸모없는것 같은 인간들도 다 훌륭히 키워내신다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든단말이야. 명공의 손에 잡히면 내버린 나무토막도 칼집이 된다거던.》

롱담같이 인섭이를 올리추면서 성림이를 푹 믿어야 한다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것이였다. 인섭이도 인차 그 눈치를 챘지만 어쩐지 속이 근질근질하여 가만있게 되지를 않았다.

《그럼 내가 내버린 나무토막이란말이요?》

인섭이는 색을 머금고 접어들었다.

《뭐 나무토막까지는 몰라도 내가 처음 박인섭이를 볼 때 인류발달사도 모르는게 꽤 똑똑한 유격대원이 되겠는가 은근히 걱정스럽더군. 그렇던게 1년남짓한 사이에 이렇게 훌륭한 적후공작원이 됐으니 기뻐서 하는 말이지.》

장경수는 조금도 난처해하는 빛 없이 주근주근 말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나같은것을 어엿한 유격대원으로 길러주신것은 사실이지. 그러나 장경수는 아무래도 사상이 틀려먹었어.》

《넨장, 그렇게 섭섭하다면 취소다.》

하며 장경수는 곰방대를 탁탁 털었다. 그러다가 얼른 담배재에 남은 불을 발로 비비고 또 무엇인가 말하려는 인섭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귀를 기울이니 먼데서 풀대 꺾어지는 소리가 난다.

오랜 지하공작원인 장경수의 귀는 우스개소리를 주고받는 사이에도 날카롭게 곤두서있었던것이다.

두사람은 저마다 옆구리로 손을 가져가며 어깨를 낮추고 숨소리를 죽였다. 이윽고 발자국소리가 저벅저벅하더니 서낭당 널장문을 돌로 때리는 소리가 났다. 그래도 기척을 내지 않으니 다시 딱딱 소리를 낸다. 틀림없이 정해진 신호였다.

《성림동무.》

박인섭이가 반가와서 달려갔다. 장경수도 벌떡 허리를 일으켰다.

《사람두, 아주 애를 말리는군.》

인섭은 반가운 나머지 눈을 슴벅거리며 성림의 두어깨를 짚고 흔들어댔다.

《웬일이요?》

장경수만이 성림이가 들어온 행길쪽을 살피며 엄격하게 물었다.

《왜놈수비대가 청지동에 들어왔소. 마침 유경문이가 뒤따라왔길래 그놈을 통해서 대대장이라는놈을 만났지요.》

성림은 동지들속에 돌아온것이 너무나 좋아서 대답을 하면서도 싱글싱글하며 인섭이의 갈라터진 손바닥도 쓸어보고 장경수의 소매를 어루만지기도 하였다. 그는 한손에 보자기로 싼 무슨 함같은것을 끼고있었다.

장경수는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지 성림이를 와락 옆에 끼더니 그대로 곱슬버들밑으로 끌고갔다.

《어때, 힘들지?》

장경수는 그를 리발걸상우에 앉히고 맏형처럼 은근히 물었다.

《힘들것은 없는데 그놈들 어떻게나 눈을 밝히는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수 없고 긴장때문에 잠들수가 없소.》

시무룩이 웃으며 이렇게 말하던 성림은 장경수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곰방대를 꺼내자 허둥지둥 옆구리를 더듬었다.

《참, 이거 부르죠아들 담배 한대씩 피워보오.》

하고 성림은 《대생산》 한갑을 꺼냈다.

《허허허, 성림동무가 대단하군.》

장경수는 스스럼없이 금지를 테고 권연 한대를 뽑아물며 웃었다. 인섭이도 담배를 붙여물며 완전히 부르죠아행세를 하고 다니는 성림이를 무슨 구경거리처럼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래 수비대놈들이 청지동에 얼마나 주둔할 모양이요?》 잠시후 장경수는 실무적으로 물었다.

《조장동무가 전날 탐지한게 확실하오. 미타한 지역을 골라 위력시위를 목적으로 내돌린다는것을 직접 대대장놈이 말했소. 놈들은 지금 유격대가 현성과 중요산업지구라든가 철도연선으로 진출할가봐 겁이 나는 모양이요. 그래서 그 대대를 여기서 한 1주일동안 주둔시켜 훈련이요 뭐요 하다가 그다음 금천동으로 옮아간다는것이요. 청산리, 석인구 방향으로도 그런 부대들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요컨대 우리 혁명군에 대한 위력시위지요. 이렇게 유격대를 일정한 지역에 봉쇄해놓고 그사이 대무력을 집결하여 포위를 형성할 모양이요. 그러니 그놈들이 다녀간 직후에 진공전투를 벌리면 효과가 더 클것 같소. 이런것을 사령관동지께 자세히 보고드려주시오.》

이곳 청지동과 금천동 일대의 인민들이 유격대의 진공을 안타깝게 기다리고있는데 대한 자료들은 이미 수많이 수집되여있었다. 유격대를 찾아떠나겠다는 청년들도 많았다. 그러기때문에 성림이의 마지막 말은 이미 김준삼이가 반영한 공작조의 의견을 보충하는것이였다.

장경수는 성림의 말을 그대로 머리속에 새기기 위하여 눈도 깜박거리지 않고 앉아있었다.

성림은 마감에 좀 거북한듯이 외면하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놈들이 암만해도 조장동무의 뒤를 계속 캐는 모양같소. 그래서 더구나 빠져나오기가 힘들었소.》

《그건 전날 중대장동무한테서도 들었는데 그뒤 무슨 새로운 일이 있었소?》

《내 특별히 새로운것은 없는데 홍아목재상의 자본이 실지 얼마나 되는가 하고 넌지시 떠보기도 하고 그 집 아들이 일본 가서 사상운동을 했다는 말이 돌아가는데 주인이 요즘은 아들을 믿고 돈을 내맡기는가 하는것을 묻기도 하고 만주에서 돈을 벌었다는게 사실인가 하고 캐기도 한단말이요.》

성림은 그지간에 호철이에게서 들은 소리, 제가 느낀바를 차근차근 말하였다.

《동무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지 않소?》

《나야 뭐 의심할만한게 있소. 하기는 전날 금천동앞에서 꼭 나같이 생긴 로동자를 만났다고 신통해하더군.》

《누가말이요?》

장경수는 긴장해서 물었다. 방금 인섭에게서 들은 그 사건을 념두에 두고있다고 생각할 때 간단한 문제같지 않았다.

《유경무지 누구겠소. 그건 그자가 나를 믿는다는 소리지. 문제는 한마차에 앉아있던 호철이란놈이 아무 수작도 안하는게요. 그 자식이 드나드는 집이 암만해도 수상하거던.》

《조심하오. 조장동무도 호철이라는놈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내 사령관동지께 보고를 올리겠소. 정 말째게 굴면 제껴버려야지.》

《아니 장동무.》

성림은 놀라서 장경수의 소매를 잡았다.

《사령관동지께 그런것을 다 보고드릴 필요야 있소? 그러지 않아도 걱정하실텐데 우리가 경각성있게 잘해나가면 될것 아니요. 처단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 할테니 그이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해주오.》

《알겠소. 하지만 그건 동무가 걱정할 필요가 없소. 좌우간 좀 토론은 해보기오. 그래 그 호철이란놈이 드나드는 집이 <동아물산>이라고 했지? 어제 나도 그앞을 지나가봤소. 겉보기는 별게 없는데 좀 수상한것만은 사실이요. 드나드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가끔 나타나는것을 보면 장사군차림을 했지만 걸음걸이가 어딘지 모르게 군인같거던.》

《틀림없이 특무기관일거요. 언젠가… 그게 한 사나흘 된것 같은데… 유경무는 묘한 말을…》

성림은 무슨 말인가 중얼중얼하는것 같더니 나중에는 입만 우물거리고 말은 새여나오지 않았다.

이상해서 바라보니 걸상우에 앉은채 건들건들 졸고있었다.

《자, 이 동무가 정말 밤을 꼴딱꼴딱 밝히는 모양이군.》

인섭이가 쓰러지면 붙잡을듯이 허공에 두팔을 내대고 울먹해서 중얼거렸다.

《어떻게 잠들수 있겠소. 적도 보통 적이 아니라 바로 특무, 경찰놈들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잠을 자내오? 동무들속에 돌아오니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요. 잠시 가만히 둬두기요. 샐 때가 다 됐는데 그사이라도 눈을 좀 붙이게…》

장경수가 이렇게 말하며 자기 행상멜대에서 해여진 우산을 빼내여 조심히 펼쳐들었다.

소리없이 밤이슬이 내렸다.

7

장경수는 행상리발쟁이차림을 한채로 숲속에 나타났다. 사령부는 그가 떠날 때 위치에서 얼마 멀지 않은 북쪽에 있었다. 해빛 한점 새여들지 않는 숲속으로 북상행군을 계속하면서 부대는 그지간의 전투로정에 쌓이고 덧쌓인 피로를 풀며 학습도 하고 밤마다 오락회도 하였다.

숲이 하도 깊어서 적정도 없거니와 석인구전투에서 해결한 식량도 적지 않아서 부대는 서둘지 않고 각지로 내보낸 공작조들과 소부대들의 보고를 기다렸다.

그러는 과정에도 **김일성**동지께서는 쉼없이 일을 제껴나가시였다. 모든 대오가 쉬거나 잠드는 때에도 그이께서만은 쉬실수 없었으니 경위중대장이나 측근에서 아무리 그이께 휴식을 보장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일거리를 다 막아버려도 그이의 머리속에 끝없이 샘솟고 소용도는 혁명의 열정과 사상의 분출은 그이자신께서도 막으실길이 없으시였다.

《…

회억하자. 30년동안의 조국의 설음은 어떠하였던가.》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백지우에 활달한 필체로 써나가시였다.《놈들의 강도정치는 2천만의 조선민족으로 하여금 반일의 정치무대에로 이끌어들이였다.

…3.1운동은 내외의 모든 결함과 불리로 인하여 놈들에게 그만 엄중한 탄압을 당하였다. 순국전사의 붉은 피는 가두와 향촌을 물들였다.

사랑하는 조선동포들!》

김일성동지께서는 서둘러 종이장을 번지시며 민족해방투쟁의 추이와 그 피맺힌 교훈을 절절한 말로 개괄하시고나서 응당 한마음한뜻으로 단결되여야 할 민족해방력량이 각당 각파로 4분5렬된 비통한 지난날의 력사를 예리하게 발가놓으시였다. 이어 목전 국제정치정세를 개괄하신 그이께서는 광범한 반일통일전선과 반일공동행동의 절박한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 위대한 투쟁의 승리의 필연성을 론증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의 운명은 시일을 다툰다. 제아무리 강대한 적이라도 단합된 인민의 힘을 꺾을자는 이 세상에 없다.》

여기까지 쓰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고개를 드시였다.

숲속은 한없이 조용하다. 어찌나 숲이 깊은지 날아다니는 벌도 나비도 보이지 않는다. 어디선가 구새통을 두드리는 딱따구리소리가 이 끝모를 정적을 강조해줄뿐이다.

《그렇지. 이 세상에 인민의 힘보다 더 큰 힘은 있을수 없지.》

김일성동지께서는 숲이 온통 정적에 휩싸여버린것이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으시여 방금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던것을 소리내여 외우시였다.

지금 그이께서 쓰고계시는것은 조국광복회조직을 통하여 내려보내실 호소문이였다.

만민이 제국주의의 본질과 그 취약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싸움에 일어선다면 어찌 감히 히틀러나 무쏘리니따위 인간쓰레기들이 력사를 롱락할수 있을것인가. 비록

일본제국주의가 어마어마해보인다 하더라도 인민의 힘앞에서는 물먹은 담벽과 같은것이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원쑤들의 이런저런 허장성세에 뒤흔들리는가. 그이께서는 문득 한옆에 차곡차곡 가려놓으신 다른 원고뭉테기를 집어드시였다. 수일전에 끝내신 《지하공작상식》에 대한 원고였다.

급변하는 정세의 요구를 반영하여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지하공작을 대대적으로 벌리실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그이께서는 회양동에서 지하공작원들에게 주신 강의내용을 골자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지하공작에서 나서는 기본원칙과 오랜 경험에서 검증된 전술, 나아가서는 세밀한 기술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포괄된 그야말로 지하공작에 대한 옥편과도 같은 저작을 완성하셨으나 제목은 소박하게 《지하공작상식》이라고 붙이시였다. 추고도 여러번 하시였다. 하지만 이것이 적용되는것이 적후이라는 점을 고려하시여 신중성을 기하시느라고 여적 등사에 넘기는것을 미루어오셨던것이다. 이제 인민의 힘을 묶어세울 필요성을 절박하게 통감하시고보니 《지하공작상식》에 그러한 사상이 응당한 비중을 가지고 강조되여있는지 어떤지 다시 확인해보고싶으시였다.

원고를 한장한장 번져나가시던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도 모르시는사이 일어서시였다. 어느덧 그이의 눈앞에는 우수한 지하공작원들의 정열적이면서도 완강하고 지혜로운 활동에 의하여 온 거리와 마을이 혁명화되여 항일혁명투쟁에 앞을 다투어 떨쳐일어나는 모습이 선히 떠오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용한 숲이 답답하시였다.

사위를 둘러보시니 저만치 떨어진곳에 웬 사람이 얼씬거리다가 사령관동지의 눈길에 뜨일가봐 나무그루뒤로 황급히 몸을 숨긴다.

《누구요?》

그이께서는 뚜벅뚜벅 그리로 다가가시여 부르시였다. 무엇인가 글을 쓰시게 되면 매번 이렇게 사위가 절간처럼 조용해지군하는데 그것은 오백룡이나 강봉수, 혹은 깜찍한 전령병들이 그이의 주변을 마치 울타리처럼 막고있기때문이였다.

무엇때문에 그들은 조용한것만이 글을 쓰는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그이께서 아무리 설복하셔도 돌려세우실수 없는 경위대원들의 고집이였다.

《저… 접니다.》

허줄한 밀짚모자에 나들나들한 헌 적삼소매를 걷어올리고 목에 수건을 질끈 동인 행상군이 너무 당황하여 금시 게걸음을 칠듯 한옆으로 비스듬히 서서 굽석 절을 하였다.

《장경수동무 아니요? 그런데 왜 거기 섰소?》

《예, 방금 도착했는데 좀 이따가 다시 오려고…》

장경수는 저쯤에 모른척하고 서있는 오백룡을 힐끔힐끔 돌아보며 송구해서 말끝을 여미지 못한다.

《왜 이따가 온단말입니까. 내가 궁금하게 기다리는데… 그런데 동무의 그 행장은 뭐요?》

《이거말입니까?》

장경수는 아름드리나무뒤에서 행상도구를 비죽이 드러내보이며 시무룩이 웃었다.

《리발쟁이로 변장했댔습니다. 막머리는 5전, 하이칼라는 10전씩 받는데 손님이 너무 끓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허허허.》

사령관동지께서는 허리에 두손을 짚으시고 통쾌하게 웃으시였다.

쓰거운 표정으로 옆에 서있던 오백룡이도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던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였다.

장경수는 행상도구꾸레미속에서 보자기 하나를 들고 사령관동지 앞으로 왔다.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리성림동무가 보내는건데 작식대동무들에게 갖다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두시오. 그 동무들도 곧 돌아오겠으니 그때 줍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보자기를 받아드시여 무게를 가늠해보신 다음 한옆에 놓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장경수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시였다.

장경수는 허줄한 밀짚모자의 땀받치개를 잡아제끼고 그속에서 담배말지만한 미농지 두장을 꺼내드린 다음 말하였다.

《사람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러나 일거리를 잡은 사람은 적고 많은 사람들이 밥탁에 얻어걸리지 못해 울분에 휩싸여있습니다. 저도 강낭지짐을 사먹다가 전라도에서 왔다는 청년들 둘을 만났는데 대뜸 나더러 세상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유격대를 만나보지 못했는가고 물었습니다. 거기서는 유격대이야기를 하는것을 대낮에도 꺼리지 않습니다. 모두 악이 날데로 나서 잡아갈테면 잡아가라는 배짱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경수의 보고가운데서 중요한것들은 간단간단히 수첩에 옮겨적으시면서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적의 군사적동태에 대한 자료도 가끔 수첩에 옮겨적으시였다.

놈들이 부대를 위력시위삼아 여기저기로 끌고다닌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하도 어이가 없으신지 쓴웃음을 지으시기도 하시였다.

적들이 김준삼이와 리성림의 뒤를 캐고있고 그 신원에 대해 조회하고있다는 말을 들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긴장되시였다.

《이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입니다.》

하고 그이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말씀하시였다.

《내보기에 그 동무들의 경력이나 증명서들은 다 미끈합니다. 수많은 실업자들과 브로카들이 휩쓸어든가운데 유독 준삼동무를 그놈들이 주목하였다는것은 흥미가 있습니다. 그 동무들의 추측대로 저놈들이 지금 우리 대오내에 줄을 뻗쳐보자고 애를 쓰는 모양같습니다. 어쨌든 그놈들이 지나치게 신경을 세워 파고들면 재미는 없습니다.》

장경수는 제가 호철이란놈을 처단해버리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려다가 그이의 안색이 어쩐지 흐리시는것 같아 입을 다물어버렸다.

《성림동무가.》

이윽고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준삼동무의 뒤를 받쳐주느라고 여러가지로 힘이 들겠습니다. 사실 김준삼동무가 그 자리에 붙박여있을 형편이 못되여 겸사겸사 련락을 보내기는 했지만 부담이

성림동무에게 많이 돌아가게 되였습니다. 그 동무가 힘들어하는 눈치는 보지 못했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 심려가 어리신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자 장경수는 문득 동무들속에 돌아오자마자 행상리발의 걸상우에서 잠들어버리던 리성림의 생각과 자기때문에 그이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원하다싶이 당부하던 그의 절절한 목소리가 생각났다.

그래서 그 이야기대신 성림이가 유경무와 리호철의 의심을 풀기 위하여 마차와 경주를 해서 이긴 사실을 신이 나서 말씀드리였다.

《거기 길이 그렇게 험합니까?》

사령관동께서는 기뻐하시기보다 여전히 측은해하시는 어조로 물으시였다.

《큰길은 미끈한데 지름길이 돼서 좀 험한것 같습니다.》

《광산 뒤길이라는것이 순탄할수야 없지. 길만 좋다면 그 동무는 원래 잘 달리니까 그렇게 애를 먹지는 않았겠는데…》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으시였다.

장경수는 어쩐지 가슴이 무둑해지는것을 느끼며 그이의 뒤를 따랐다.

사실 이때 **김일성**동지의 심중은 여러가지로 복잡하시였다.

국내로 진공할 때부터 성림을 단련시켜야겠다고 생각해오신 그이께서는 《갑무경비도로》정찰과 화룡현성지구정찰을 통하여 계통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검열을 해오셨지만 정작 금천동공작조에 그를 망라시키는 문제에 들어서는 이모저모로 생각하게 되시였다. 너무나 이르지 않는가.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되지는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없지 않으시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인차 그 생각을 부정하시였다. 사상이 한번 움직이면 어제날의 평범한 로동자, 농민이 영웅이 되고 능숙한 조직원이 되고 죽음도 웃으며 맞이하는 억센 혁명가로 된다는것은 항일무장투쟁의 력사가 잘 말해주고있다. 인간을 믿고 시작한 우리 혁명이 이제 단 한사람의 례외라도 만들어낸다는것은 우리의 신념자체의 후퇴를 말하는것이 아닌가.

김일성동지의 결심을 다시는 움직일수 없는것으로 되게 한것은 그때 마침 옥돌골공작조에서 리학렬이 올려보낸 보고가운데 윤원구일행이 회양동을 거쳐 금천동광산으로 갔다는 사실이 반영된때문이 아니라 조직과장이 제기한 금천동공작조의 복안가운데서 일단 씌여졌던 리성림의 이름이 지워져있었기때문이였다.

사령관동지의 질문에 대하여 조직과장은 말하였다.

《처음에 옥돌골공작조의 보고를 참작하여 리성림동무를 금천동에 보내는것이 좋다고 봤기때문에 안을 잡았댔습니다. 윤원구동무와 그 일행은 사령부에서도 파악이 있고 믿을만 한 사람들인데 그들과 손잡고 일하는데는 리성림동무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자는것입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하고 조직과장은 잠시 주저하더니 또박또박 말하였다.

《이것은 적후공작입니다. 그 동무가 그사이 적지 않게 개진은 가져왔다지만 불과 몇달전에 대내에서도 동요를 했던 동무인데 적들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믿을만한 담보가 없습니다.》

《담보라…》

사령관동지자신께서도 이것이라고 내드실 담보는 없으시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조직과장동무는 어떤 담보가 요구됩니까? 그때 후방밀영에서는 어쨌든 렴정호가 혁명가의 탈을 쓰고있었으니 준비가 부족한 동무가 속아넘어갈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개준의 길을 열어준 이상 우리는 우리자신의 결정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직과장동무가 요구하는 그런 담보는 다른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유독 리성림동무에게만 그러한 담보를 요구합니까? 그것은 그 동무가 한번 과오를 범했기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은 아무도 그러한 담보를 못가지고 태여났는데 동무는 그것을 요구하니 한번 과오를 범한 사람은 다시는 혁명하기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개준의 길을 열어준다는 우리의 결정은 사실상 내용이 없는것이 아닙니까?》

조직과장은 다른 의견을 말하려고 하였다. 반드시 그런 환경에 보내지 않아도 그에게 과오를 시정할 길이 있다는것을 말하려는듯하였으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에없이 그의 말을 막아버리시였다.

《그 어떤 검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믿지 못할 구석이 남아있게 될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선다면 우리 혁명은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우리 혁명을 오직 사람을 믿고 시작했기때문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사람들은 여태까지 이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담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담보를 주자는것입니다. 그것은 신임입니다. 리성림동무에게는 든든한 담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리성림동무에 대한 우리 혁명의 신임입니다.》

그날 **김일성**동지께서는 몹시 흥분하시여 많은 말씀을 하시였고 조직과장도 마감에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였다고 솔직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일을 실무적으로 처리하시자니 걸리는 문제가 이모저모로 제기되였다. 우선 공작조를 책임진 김준삼의 의향을 무시할수는 없기때문에 사전에 토의해보셨더니 그는 전에 《갑무경비도로》정찰때 성림을 데려가기 꺼려하다가 사령관동지의 말씀도 들은적이 있는데다 현성부근정찰때 같이 다닌 경험도 있기때문에 오히려 좋아하였다.

《아주 적임자입니다. 일본말도 잘하고 어느 계층과도 마음대로 섭쓸릴수 있고 거기에 또 용감하고 날래기까지 하니까 한몫 단단히 할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간부들의 협의에 붙여놓으니 모두 덤덤해있는것이다. 마땅찮아하는 표정들이였다. 그들은 한사람같이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느자는 성미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간부들을 설복하시기 위해 또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시였다.

그렇게 해서 떠나보내신 리성림이가 지금 적의 한복판에 홀로 들어가서 적들 가운데서도 그중 교활하고 음흉한 놈들의 의심을 받고있다.

위태로운것은 리성림이 한사람이 아니다. 김준삼이와 공작조 전체가 위험앞에 놓여있는셈이다.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 그를 소환할수도 있을것이다. 지하공작의 기술적인 타산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안전할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것이다. 그에게 더욱 깊이 적들속으로 파고들도록 믿음을 주고 지지를 보낼것이다.

(힘들터이지. 그러나 견디고 이겨야 한다. 그래야 강철같은 조선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될수 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뚝 걸음을 멈추시였다. 장경수도 따라 일어섰다.

그이께서는 얼핏 듣기에 퍽 조용하고 일상적인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준삼동무가 돌아오면 곧 자기 공작조로 다시 내보내야 하겠습니다. 두사람이 함께 있으면 서로 엄호도 하고 위장도 되고 공작조와 련계도 취하기 좋고 또 답답할 때 의논도 할수 있습니다. 김준삼동무라면 별문제지만 지금은 경험도 적은 성림동무가 혼자 있자니 힘에 겨울수 있소. 금천동공작조를 잘 도와주어야겠소. 그러자면 장동무.》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슨 결단을 내리신듯 장경수를 부르시였다.

《김준삼동무가 돌아가기전에 그 동무들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어야겠습니다. 장동무가 다시한번 국내로 들어갔다와야겠소.》

《알겠습니다.》

《흥아목재상이 최근에 또다시 큼직한 돈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소문을 놓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한쪽에서는 목재장사판을 크게 벌리고 다른편에서는 여기저기 땅을 사들이는 놀음을 벌려야 합니다. 새로 금점판을 벌린다는 소문도 놓아야 하겠소. 그래서 이쪽

특무기관에 그 소문이 쉽게 들어가도록만 해주면 그놈들은 더는 의심을 품지 않을것 같습니다.》

《정말 멋이 있습니다.》

장경수는 사령관동지의 말씀에 신이 나서 저도모르게 벌쭉벌쭉 웃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잠시 생각하신후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지금 정귀하로인에게는 그리 큰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있는 자금을 좀 보내주어야겠습니다. 이번 석인구전투때 적잖은 물건과 현금을 로획하였으니 조진범동무에게서 좀 타가도록 하시오. 앞으로 우리가 금천동, 청지동으로 진공하게 되면 금점판이니 금도 손에 넣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니 자금걱정은 말고 판을 크게 벌려 소문을 들썩하게 놓으라고 하시오. 그리고 교제비도 좀 쓰라고 하시오.》

《알았습니다.》

장경수는 벌써 오금이 들썩거려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씀드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런 일이라면 아이들처럼 좋아하는 장경수를 찬찬히 바라보시다가 심중한 안색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이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장경수동무가 국내로 들어가서 할일이 그뿐이 아닙니다. 옥돌골공작조를 통하여 정지성동무가 보고를 보내여왔습니다. 풍산지구의 조국광복회조직은 기본적으로 복구되였을뿐아니라 나날이 확대되여갑니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비롯해서 더 많은 교양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허천강발전소공사가 끝나서 서두수발전소공사장으로 그곳 로동자들을 옮기는 기회에 많은 조직핵심을 박아넣었다고 합니다. 서두수지구로 넘어온 우리 사람들이 조직을

꾸리게끔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지성동무도 류진옥동무도 그 지대에는 아는 얼굴이 많기때문에 접근하는것이 불리하고 옥돌골공작조도 깊이 묻어두어야 하기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업을 장경수동무가 수행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풍산에 가서 정지성동무를 만나보시오. 그리고 흥아목재상의 지반을 꾸리는 사업은 주로 류진옥동무가 나서서 하는것이 적당하고 자연스러울수 있습니다. 진옥동무가 가게 되면 정귀하로인도 좋아할것이고 그를 통해 진옥동무가 집형편도 알게 될것입니다.》

장경수는 대답대신 고개를 푹 숙이였다. 자기는 이 일을 모두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신나는 걸음을 하게 되였다고 좋아만 했는데 사령관동지께서 생각하시는것은 사업의 측면만이 아니였다.

조용한 숲속에 계시면서도 온 나라 강토의 움직임을 한손에 걷어쥐시고 혁명의 앞길을 설계하실뿐아니라 한사람한사람의 전사의 마음까지 일일이 헤아려보시는 그이의 심려의 깊이를 생각할 때 천하 셈평좋은 장경수의 가슴도 젖어들었다.

《지금 삼장면지방에서 제일 말째게 구는놈이 리호철이라고 합니다. 그놈이 금천동과 삼장면으로 오르내리면서 여러가지 못된 짓을 하는 모양인데 경각성을 높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오.》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강정섭이네 집 형편을 알아보고 도와주도록 하라는것과 갈 때 정섭이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가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한동안 말씀을 끊으시고 미진한 문제가 없는가 생각해보신 다음 옆에 가려두신 원고더미에서 《지하공작상식》을 집어드시였다.

《그럼 이 문제는 그만하고 이 원고를 비서처에 넘기여 곧 찍도록 하시오. 우선 몇책만이라도 먼저 찍어서 장동무가 국내동무들에게 가져다주시오. 지하공작을 처음 해보는 동무들에게 참고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원고를 넘겨주시자 고개를 번쩍 드시였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저 공작조에서 올리는 의견인데 될수록 청지동방향으로 빨리 진공해주셨으면 합니다. 인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있습니다.》

《이미 우리도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가 그리로 공작조를 보낼 때는 그런 타산이 있었던것입니다.》

《적들이 지금 청지동에 1개 대대가량 더 들어왔지만 인제 말씀드린것처럼 1주일정도 있다가 금천동으로 옮기고 또 얼마 있다가는 딴곳으로 옮긴다니 그때쯤 내치면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적어도 보름후에 청지동으로 진공해야 한다는 의견입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근엄하신 어조로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작조의 의견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동무들이 잘못생각한것입니다. 적들이 우리를 협소한 지역에 봉쇄해넣자는 조건에서 텅 빈 지방에 진공해서는 큰 의의가 없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어떤 지방으로 진공한다는것은 바로 그곳에 적이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적들이 다른곳을

돌아볼 경황이 없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력을 끌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적이 잔꾀를 피우지 못하도록 나타나는 놈들을 그때마다 없애치워야 합니다. 물론 력량을 타산해야 하겠지만 적이 청지동에 진주했다는것이야말로 조선인민혁명군이 청지동으로 진공하게 되는 가장 큰 리유입니다. 우리는 보름후가 아니라 당장 적어도 적들이 청지동에서 떠나기전에 비상한 속도로 진공해야 합니다.》

장경수는 **김일성**동지의 근엄하신 기상과 눈부신 안광에 저도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마치 한여름의 태양을 맞바라보았을 때처럼 눈이 부시여 고개를 숙이였다.

8

중일전쟁발발 2주년에 즈음하여 조선주둔군사령관 나까무라대장은 기자단과 만나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

유럽대전은 무력전과 경제전이 중요한것이였고 사상전은 오늘날처럼 별로 대단치 않았다. 그래도 그 전쟁은 5개년이나 되는 긴 세월이 걸렸다. 오늘의 《지나사변》은 무력과 경제전 이외에 여러가지 착잡한것이 많은데 더우기 곤난한것이 공산주의사상이… 각처에 퍼져있고 또한 구미 각국… 이 간섭을 하고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전이다.…

국민은 사변기념일을 당할 때마다 의기를 다시 새롭게 하여 여태까지의 곤난은 차츰 정상화시켜서 국민전체가 한걸음 더 약진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까무라는 그 누군가의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시켰다.

《남자는 한번 싸우다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두번 싸우다 주저앉아서도 안된다.

세번 싸우다 주저앉아서도 안된다.

칼이 부러지고 화살이 진하여도 주저앉아서는 안된다.

뼈가 부서지고 살이 가루되거든 그만둘지어다.》

이 피비린내 풍기는 음산한 말을 통해서도 느낄수 있는바와 같이 일제는 사처에서 몰리여 허덕이면서도 악을 쓰고있었다.

나까무라는 중일전쟁발발기념일이라 해서 저들의 고충을 중일전쟁과만 관련시켰지만 실상 일제는 사면팔방으로 얻어맞고있는 셈이였다.

쥐새끼가 정 급해나면 고양이에게도 접어든다고 한다.

일제의 발광상은 거리에, 마을에, 사람들의 얼굴우에, 도처에 반영되여있다.

정거장마다 출정군인들을 환송하는 눈물젖은 군가소리가 울리였으며 7월 7일 당일날은 인민들을 모조리 《신사참배》에 내몰았다. 낮에는 기발행진, 밤에는 초롱행진으로 거리마다 들썩 끓었다. 무슨 큰 승리나 한듯이 떠들어대면서도 그들의 말마디들은 걸핏하면 배를 가른다느니 죽어서 벚꽃으로 피여난다느니 《정국신사》의 귀신이 된다느니 하는 넉두리로 변했다.

자동차는 휘발유로부터 아세틸렌으로, 다시 목탄으로 개조되고 학생들의 교복은 검정색으로부터 보위색으로 변하였다. 《황국신민의 서사》를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통행까지 금지시켰다. 통제품의 종류는 점점 늘어나서 허리 굽은 늙은이조차 많지 못한 여생에 《게다》를 끌고다니게 되였다.

거리에서는 일체 화려한 색조가 축출되였다. 남자들은 모두《국민복》으로, 녀자들은《몸뻬》로 갈아입었다.

7월 7일 전후해서는 국경경비가 더욱 삼엄해졌다. 얼마전 총독부 경무국장이란자가 조선인민혁명군이 백일행군을 해간 갑무경비도로를 시찰하고 일후에 다시 또 제국의 체면을 짓밟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단의 대책을 세우느라고 돌아친 결과 지금 한여름의 뙤약볕아래 숨죽이고 누운 그 길우에는 사람은커녕 개새끼 한마리 얼씬 안했다.

그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현지의 군대와 경찰당국에서는 수많은 경비인원들과 순찰조들을 도로연선에 내보냈다.

이 무시무시한 국경경비를 돌파하기 위하여 장경수와 류진옥은 그럴듯한 변장을 하고나섰다. 류진옥은 새하얀 모시치마저고리에 양산을 쓴 세도가집 새색시차림을 하고 장경수는 그 하인행세를 하였다. 도중에 순경을 몇놈 만났으나 그들의 거동이 하도 자연스러워서 어떤놈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하삼수평어방에 와서야 큰길에서 벗어나 숲속으로 깊숙이 들어섰다. 그제야 장경수는 트렁크를 풀밭에 내려놓더니 배를 그러안고 웃었다.

《갑자기 웬일이예요?》

진옥은 깔끔해서 물었다.

《아이구 배야.》

장경수는 꺼이꺼이 갑자르며 말을 더듬었다.

《그자식들 눈을 부릅뜨고도 청맹과니노릇을 하던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웃겠소. 야, 참 진옥동무가 그렇게 연극을 잘 놀줄은 몰랐는데… 하하하.》

《그만두세요. 나는 다시는 이런 행색하지 않겠어요.》

진옥은 눈에 눈물이 그렁해서 자기의 화려한 옷가지들을 피뜩 굽어보고 진저리치듯 외면하였다.

장경수는 눈이 퀭해졌다.

《이거 또 우스운 소리 하는구만. 그건 또 어떻게 하는 소리요?》

《아침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공작이지만 하필 이런 변장을 할 필요가 어데 있어요?》

진옥은 애원하듯이 장경수를 올려다보았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하고 장경수는 딱 잘라 말했다.

《이게 뭐 장난인줄 아오? 다 어마어마한 국경경비를 빠져나가는 전술이란말이요. <지하공작상식>에서 보지도 못했소. 특별히 적의 경비가 심한곳에서는 될수록 적의 조사대상밖의 신분으로 가장하는것이 좋다고 되여있단말이요. 사령관동지께서 할빈에 가셨을 때 하루 15전어치씩 강낭지짐을 잡수시면서도 백계로인들의 고급호텔에 드셨다는 이야기도 못들었소?》

《왜 그 이야기만 해요? 사령관동지께서 푸르허근방에 계실 때 머슴살이하신 이야기는 왜 안해요?》

진옥은 이렇게 맞섰으나 이미 내우길 힘은 다 빠져서 장경수의 성난듯한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다 알면서 고집이거던. 참 녀성들이란…》

장경수는 일부러 못마땅한듯이 벌떡 일어나서 저쪽으로 걸어간다.

진옥은 호- 하고 한숨을 내쉬였다.

장경수는 사령부를 떠나와서 그지간에 수많은 일을 제꼈다. 풍산에 가니 정지성은 어느 산골 간이학교선생노릇을 하면서 사처의 혁명조직에서 운영하는 야학들을 지도하고있었다. 그는 진옥이와 함께 자체로도 훌륭한 교양자료들을 만들어 간이학교의 등사기로 밀어내고있었다. 그가운데서도 특히 인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것은 **김일성**동지의 혁명적가정과 투쟁경력을 소개한 혁명활동략력소책자였다.

장경수도 그것을 보고 기가 막히다고 감탄하였다. 그래서 세 사람이서 그 소책자를 넉넉하게 찍어 풍산지구뿐아니라 국내의 광범한 조직에 배포하기로 하고 진옥이와 함께 풍산을 떠날 때 아예 트렁크에 가득 넣어가지고 나섰던것이다. 진옥이에게 임무를 주어 혜산으로 보낸 장경수는 곧장 정지성이 대준 줄을 타고 서두수발전소공사장에 갔다. 거기에는 종시 신사동 처서판에서 쫓겨난 만호네 형제가 있었다. 그들 역시 정지성이네 공작조가 침투시킨 핵심이였다. 그들을 통하여 이미 장악된 조직핵심들과 사업도 벌리면서 새로 많은 로동자들을 조직에 흡수하였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벌써 원봉,

소도, 서안 등에 조국광복회조직을 꾸렸다. 앞으로 사령관동지의 결론을 받아 이 세개 조직들을 하나로 묶은 조국광복회서두수지회를 내오게 될것이였다.

한편 진옥은 그지간에 주로 혜산에서 공작하였다.

그는 홍아목재상주인이 정귀하로인이라는것을 알고있었다. 논밭전지를 사들이는 그 집 며느리역할을 하러 간다는것이 중요한 공작상임무이기는 하지만 그때문에 그 그리운 로인들앞에 나서기가 얼마나 거북했는지 모른다.

사실 세월이 험악하지 않아서 진옥이 그가 그처럼 민감한 가슴에 총을 품고 싸움길에 나서지만 않았다면 아마 착실한 며느리가 됐을수도 있는 그 집 문전에서 정귀하로인 역시 진옥이를 놀라서 맞이하였지만 그들은 지금은 며느리도 시부모도 아닌 혁명동지간이였다.

그리하여 사령관동지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과업만 충실히 집행하리라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정귀하로인은 진옥이가 자기앞에 며느리명색으로 나타난 그 좋은 기회를 그냥 스쳐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날 뜻밖에도 옥암동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꺼번에 나타났을 때 진옥이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무산지구를 다녀가신 뒤에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온 집안이 다 무고하다는 소식은 그를 더없이 기쁘게 했지만 부모들이 혜산장을 보러왔다고 하면서 사흘씩이나 돌아갈 생각을 안하고있는데는 여간 거북하지 않았다. 공작상일로 바깥에 나가있을 때는 모르지만 집에 들어가면 정귀하로인량주는 말할것 없고 지성의 누이까지 《아가, 아가》하며 안방구석에 모셔놓고 그냥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형편인데 거기에 부모들까지 나타나서 서로 《

사돈, 사돈》하고 부산을 피우며 돌아가는바람에 진옥은 부끄러워 숨도 못쉬고 얼굴도 들수 없었다. 그러나 그 사흘동안은 얼마나 행복한 나날이였던가.

장경수와 진옥은 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해주신 방향에 따라 조직핵심들과 면밀히 짜고 흥아목재상이 돈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소문이 퍼지게 땅사들이는 거래를 트기도 하고 산판흥정도 벌렸으며 한편에서는 경찰, 관청의 우두머리들에게 줄을 놓아 정귀하로인과 그 일가의 래력을 더욱 그럴듯하고 든든하게 만드는 일련의 공작을 진행하였다.

그런 과정에 뚱딴지같은 군청 호적계에 있는 허줄한 서기나부랭이로부터 정귀하로인의 뒤를 캐기 위하여 리호철이가 화룡에서 건너왔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경찰계통에 연줄을 놓아 다시 확인해보니 모두 사실이였다. 그놈이 새로 알아낸 흥아목재상의 자료를 이미 그 어디에 보고했다면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볼수도 있지만 만일 정귀하로인의 생활경로를 계속 더듬어올라간다면 어차피 재미없는 일이였다. 그럴 가능성은 많았다. 그래서 옥돌골공작조에 련락을 띄우고 13도구의 류창표와 백바위골의 곽병철이에게도 그놈을 경계할데 대한 통보를 보냈다.

그럭저럭하는 사이 장경수도 서두수지구에서 공작을 끝마치고 혜산에 와서 함께 사령부에 가지고 갈 물자들과 출판물, 보고자료들을 준비하였다. 장경수는 혜산에서의 공작정형을 료해하고 아주 멋이 있게 됐다고 하면서 함께 떠나자고 하였다. 그것이 마침 7월 7일께였다.

특별경비중인 국경은 빈몸으로도 돌파할 길이 없었다. 진옥이는 특히 하삼수평일대의 조직들을 돌아보고 그길로 마천령산줄기를 타고 넘어가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조직들에 **김일성**장군님의 혁명활동략력소책자를 비롯한 교양자료를 전하여야 하였다. 그래서 장경수가 궁리해낸것이 그 행장이였던것이다.

하삼수평에서 강건너 세진평방향으로 더 좀 올라가면 츠렁바위가 강심으로 내뻗친 가운데 채양버들이 무성한 후미진 강굽이가 있었다. 하삼수평의 조직에서 매생이를 거기에 대기시켜놓기로 되여있었다.

이 일대는 장경수에게나 진옥이에게나 낯익은 통로였다. 위험물자나 비밀문건을 가지고는 다리도 건늘수 없고 나루배도 탈수 없었다. 장경수는 최근에 내내 하삼수평의 조직의 방조하에 날이 어두워서 그 매생이를 타고 세진평쪽으로 건너가는 경로를 택하군 하였다. 세진평에는 기왕부터 그와 련계를 가지고있는 낚시군 령감이 있어서 아무때나 매생이를 건사했다가 때를 봐서 다시 하삼수평으로 건네다주군 하였다.

그들은 강가의 채양버들숲에 들어서자 긴장했던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지간에 미처 아퀴짓지 못한 공작상 이야기랑 나누며 한 트렁크속에 꾸려넣었던 짐을 갈라놓기 시작하였다.

매생이는 아무래도 날이 완전히 저물어야 띄울수 있을것이고 진옥이도 이제는 밤이 깊어야 움직일수 있었다.

《이건 재봉침바늘이예요. 따로 잘 건사해요. 여느 바늘하구 섞지 말구. 그리구 이건 군수관동지한테 주지 말고 정숙동무나 옥금동무에게 바로 전해줘요.》

진옥은 트렁크를 헤쳐놓고 올망졸망한 꾸레미들을 책보우에 갈라놓으며 말하였다.

《내 다 알만하오. 그거 뭐 조진범동무한테 안갔다고 소문이 안날것 같아서 그러오.》

《말만 내보세요. 내 어떻게 하든지 련락을 해서 장경수동무를 고립시켜놓을테니.》

진옥은 깔끔하게 돌아보며 이렇게 위협하였다.

《히야, 녀대원들한테서 고립되면 야단은 야단이지. 내 비밀을 지킬테니 걱정마오. 자, 그건 이리 주오. 중요한것은 이거란말요.》

장경수는 등사원지꾸레미를 따로 뭉그려 가슴속에 깊숙이 찔러넣으며 말하였다.

짐가운데 태반은 인쇄물이였다. 신문과 잡지들은 사령부로 가는것이였고 등사물들은 태반이 진옥이가 가지고 가야 할 선전물, 교양자료들이였다.

짐을 갈라싸는 일은 인차 끝났다.

장경수는 갈밭에 숨겨놓았던 매생이를 밀어내여 기슭에 띄우고 자기 짐을 옮겨놓았다. 이제 어둠이 설핏하게 깔려들면 노를 배길판이다.

《이제는 가보는게 어떻소?》

장경수는 할일이 없어져서 새삼스럽게 진옥을 바라보니 아무래도 그 녀인의 행장이 이 거칠은 강기슭풍경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것을 느끼고 좀 불안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직 밝은데 어디를 가겠어요.》

진옥은 이렇게 말하면서 불안스럽게 뒤를 돌아보았다. 무엇인가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표정이였다.

《하긴 아직 좀 이를것 같기도 하구만. 그래도 그렇게 척 차리고나서면 감히 어떤놈이 시비를 걸겠소. 그건 그런데.》

장경수는 진옥올 안심시키려 하였으나 까닭없이 말끝을 얼버무렸다. 그 역시 무엇때문인지 가슴속이 편안치 못하였다. 적후든 밀림속이든 아무데나 제집 안마당

거닐듯하던 그로서는 이런 일이 거의 있어본적이 없었던것이다. 그것이 진옥이에게도 인차 감촉되였다.

까닭없이 마음속이 초조하고 불안할 때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더라는것은 오랜 지하공작원들이 자주 하는 말이였다. 그게 다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무장 못됐기때문에 그런것이라고 그때는 웃어주었지만 정작 자기가 겪고보니 간단치를 않다. 이런데서 무슨 사고라도 나는 날이면 앞뒤로 련계된 중대한 고리가 다 튀여난다.

셈평좋은 장경수도 안절부절못하여 허리를 일으켰다.

그것은 까닭없는 일이 아니였다.

발자국소리가 울려온다. 잡초속에 묻힌 오솔길로 풀대를 밟아헤치며 오는 그 발걸음은 몹시 급하였다.

두사람은 얼른 사위를 더듬어보았다. 더듬어보나마나 이제는 어디에 몸을 숨길만한 장소도 시간도 없을만큼 벌써 발자국소리는 지척에 다가왔다.

그 어떤 위험이 닥쳐왔다는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차라리 두사람은 태연해졌다.

장경수는 진옥에게 눈을 끔쩍하였다.

진옥이도 방금전의 흔들리던 마음을 딴 사람처럼 눌러버리고 그러한 외양에 어울리게 고개를 끄덕거려보인 다음 그 화려한 양산을 펼쳐서 얼굴을 가리웠다.

이윽고 당꼬바지를 입고 《국민모》를 쓴 사나이가 양복저고리를 어깨에 걸치고 땀을 훔치며 나무그늘속에 나타났다.

양산기슭으로 얼핏 눈길을 돌려본 진옥은 흠칫하더니 얼굴이 핼쑥하게 질리였다.

그는 허둥거리며 손가방을 열었다.

《웬일이요?》

장경수가 낮으나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리호철이예요. 저놈을 내 손으로 처단해버리겠어요.》

《정신있소?》

장경수는 다가오는 사나이쪽으로 몸을 돌려대며 수군수군 속삭였다.

《절대로 덤벼서는 안되오. 트렁크속에 있는 장군님의 략력을 생각하오. 여기서 총소리만 울렸다가는 모든 공작은 다 파탄이요.》

진옥은 손가방고리에 갖다댄 손을 가늘게 떨며 입술을 감쳐 물었다.

《연극을 계속해야 하오. 양산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마님행세를 하오. 저놈은 내가 처리하겠소.》

이러는 사이 리호철이도 강가에 서있는 두사람을 띄여보고 우뚝 멎어섰다.

호철이가 바로 이 시각에 여기에 나타나게 된것으로 말하면 그로서는 아무리 그럴듯한 리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딘지 모르게 숙명적인것을 느끼게 하는 점이 없지 않다.

호철이는 시마끼로부터 당장 홍아목재상의 아들이라는 사나이의 신원을 확인할 과업을 받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는것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남대천가의 고향에 그의 누이라는 녀자가 나타나서 땅을 사들이고있다는 통보가 왔다는것이였다. 시마끼의 어조로 미루어보면 **김일성**유격대의 동태와 기도를 알아내기 위하여 공산당내부에 줄을 뻗칠데 대한 추궁을 심하게 받는듯하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실을 확인한 기초우에서 홍아목재상의 아들을 본격적으로 써먹을 생각인 모양이였다.

하기는 호철이자신도 말하였지만 그 경력가운데서 좌익독서회에 가담했다는것은 이러한 사업에서는 대단히 주목되는 점이였다.

자칫하면 독서회시절의 동무가운데서 유격대에 가있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는것이다.

때마침 호철이에게는 자기 집에도 들려갈 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강을 건너왔던것인데 혜산에서의 일은 별로 품을 들이지 않고도 시마끼가 대단히 흡족해할 보고자료를 손쉽게 걷어쥘수 있었다. 아버지는 땅을 사들일뿐아니라 목재도매상을 더 크게 벌려서 차츰 군용달에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했는데 그 기업이 장차 얼마나 뻗어나갈지 모르겠다는 소문이였고 직접 그와 거래하고있는 거간군들을 만나보아도 대단한 실력이라고들 하였다.

이제 강을 건너가서 흥아목재상이 한꺼번에 목돈을 걷어쥐였다는 자료만 확인하면 될판이다. 혜산에서 걷어쥔 자료를 청료리점의 끄나불을 통하여 시마끼에게 보낸 그는 그길로 대마록구로 서둘러 떠났다. 흥아목재상이 크게 목돈을 번것은 대마록구였다. 평소에 호철이는 삼장다리로 강을 건느군하였다. 오늘도 그럴 작정으로 떠난길인데 큰길을 가자니 볕이 따가와 길도 지를겸 그늘이 짙은 이 오솔길을 택하였던것이다.

강가에 서있는 두사람을 보자 호철은 턱을 끄떡거렸다. 그는 대뜸 그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자는 밀수군이라고 짐작하였다. 저 사치한 트렁크속에는 틀림없이 귀금속이나 아편덩어리가 들어있을것이다.

(흥, 행장은 괜찮게 차렸는데… 하기는 모르지. 요즘은 큰 관리나 부자들치고 밀수를 안하는자가 없으니 혹시 만만찮은 인물일수도 있지. 그러나 어딜…)

호철은 속으로 코방귀를 뀌며 뚜벅뚜벅 강가로 다가갔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달고칠것인가 어쩔것인가 하고 속궁리를 하였다.

(아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여기서 잡아족쳐봐야 경찰에 넘겨주고 나는 빈손 털고 나앉아야 할판인데 무슨 재미가 있는가. 모처럼 배도 있으니 얼려서 같이 타고가는것이 좋다. 강만 건너놓으면 그때는 별문제지. 저 양산속에 가리운 미인이 어느놈의 첩인지 그때 까밝혀도 늦지는 않을것이다.)

《강을 건너가실 손님인가요? 좀 이르지 않을가요?》

호철은 매우 싹싹한 말투로 마치 가까운 친지에게 의논을 걸듯 말을 붙이였다.

녀인은 양산으로 얼굴을 더 좀 깊이 가리우는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하인같은 사나이가 난처한듯이 우물거리더니 떠듬떠듬 말을 받았다.

《주인나으리께서 저 강건너에서 아씨를 찾으시기때문에 갑자기 떠난 길이 돼서… 증명서를 해가지고 떠나자면 시간이 퍽 걸려야 한다던데요. 저 짐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져가는것은 별로 없는뎁쇼.》

이건 완전히 무슨 세관이나 경찰 앞에 가서 하는 말투다.

《허허허, 걱정 마시오.》

호철은 하인쪽은 돌아보지도 않고 양산 저쪽에 숨어있는 녀인을 향하여 말하였다.

《나도 별로 버젓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 좀 가져갈것이 있어서 이리로 왔는데 정 곤난하지 않으면 나도 배신세를 좀 지게 해주십시오. 삯전은 후히 치르겠습니다.》

《그럼… 저…》

여전히 양산은 아무런 동정도 없고 하인같은 사나이가 말을 받았다.

《그래, 나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호철은 하인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그제야 하인도 마음이 놓이는지 얼굴의 주름살을 펴며 어줍게 웃었다.

《그런걸 난 또…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아씨, 마음을 푹 놓으십시오. 이 선생께서도 몰래 물을 건너가는 손님같사와요.》

양산이 가볍게 쳐들린다. 호철은 저도모르게 허리를 낮추었으나 종시 턱밖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동그스름하고 흰 그 턱을 통해서만도 그 녀자의 비상히 아름다운 얼굴의 전모를 어느정도 머리속에 그려볼수 있었다. 그럴수록 청초한 모시치마저고리를 몹시도 강조해주는 그 얼룩덜룩 화려한 양산을 와락 잡아헤치고 미인의 생동한 얼굴을 빨리 보고싶어 안달이 났다.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배우에 올라앉은 다음에야 가능할것 같다.

그럭저럭 흥정은 쉽게 락착된 셈이라 호철은 날이 완전히 어두울 때까지 기다린다는것이 참을수 없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는 담배 한대를 붙여물고 하인에게도 한대를 내밀었다.

《어때, 이제는 배를 띄울 때가 되지 않았나?》

《글쎄요. 저쪽은 별일 없겠지만 이쪽은 좀 이를것 같은데요.》

《일이 없어. 호랑이 날고기 먹는줄 누가 모르나. 내가 이 근방 경찰과는 안면이 통하니 떠나보자구.》

《글쎄요.》

하인은 황송한듯이 담배가치를 두손으로 가리워들고 아씨의 눈치를 살핀다. 철저한 주종관계다. 그러고보면 그들의 말과 같이 대안에 그 녀자의 남편이 와있고 그것이 대단한 세도가나 명문가의 주인일수도 있을것 같았다.

양산이 약간 제껴지면서 녀자는 고개를 돌린채 하늘을 올려다본다. 큼직하게 쪽진 머리가 여름날의 잔광을 받아 빛을 뿌린다. 산밑과 숲속은 이미 어두워졌고 강우에도 설핏하게 안개같은 어둠이 깔려들어 강심은 부잇해보였지만 하늘가에는 아직 노을이 타고있었다.

《좋도록 하여라.》

녀인은 다시 양산으로 얼굴을 가리우며 짤막하게 말했다.

그것은 놀랄만큼 낮고 짧았지만 대단히 아름답고 위엄에 찬 목소리였다.

호철은 틀림없는 세도가집의 그것도 첩따위가 아니라 바로 본댁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떠나보겠사와요.》

하인은 이렇게 말하며 채양버들에 매인 바줄을 풀었다.

호철은 얼핏 그 말이 좀 이상하게 생각되였다. 어쩐지 저혼자 떠나는 인사같이 들렸기때문이다. 그래서 녀인쪽을 돌아보았으나 그 녀자는 등을 반쯤 저쪽으로 돌려대고있었다.

가는것이 녀자가 아니라 하인만이라면 이처럼 맹랑한 일이 어데 있는가. 그러나 따져물을수도 없는 일이고 또 설마 그러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여 하인이 권하는대로 배전에 한발을 올려놓았다.

그런데 하인은 녀인도 트렁크도 돌아보지 않고 벌써 배를 밀어내는것이였다.

어디에 자리를 잡을것인가 잠시 망설이며 서있던 호철은 불시에 배가 밀려나는바람에 기우뚱거리며 이물에 아무렇게나 펼썩 주저앉았다.

《아니, 어쩌자는건가?》

호철은 저도 뜻을 잘 모를 이런 질문을 던지며 기슭을 바라보았다. 녀인은 그대로 강가에 서있다.

하인이 대답대신 마지막으로 배를 힘껏 강심으로 밀어내면서 성큼 배우에 올라타더니 《그럼 다녀오겠사와요.》하고 인사를 하였다.

그제야 녀인은 이쪽으로 돌아서서 양산을 제꼈다.

《아!》

호철은 허리를 불쑥 솟구쳤다.

《손님, 가만히 계십시오. 배 번져지겠습니다.》

하인같은 사나이는 어느새 맹렬한 기세로 노를 배기면서 주의를 주었다.

《배를 돌려라! 어서 배를 돌려!》

호철은 배전을 두드리며 옆구리를 더듬었다.

진옥은 이미 침착성을 회복하고 선녀같은 모습으로 강가에 서서 미소를 짓고있었다.

《리호철씨, 참 오래간만이군요.》

《류진옥이, 네가 여기에 나타났구나. 이자식아 배를 냉큼 돌리지 못해.》

호철은 권총을 꺼내들며 악을 썼다.

진옥은 여전히 웃음지은채 악어가죽손가방을 열었다. 그 녀자의 손끝에 호신용권총이 묻어나왔다.

《아차차, 배 번져진다. 손님, 좀 얌전히 못 앉아있겠소.》

장경수는 노젓던 손을 멈추고 호철의 목을 뒤로 그러안았다.

《그놈은 혜염을 잘 쳐요.》

하고 진옥은 다시 손가방을 열고 권총을 건사하면서 침착하게 말했다.

《알겠소. 조심해 가시오.》

장경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려보였다. 그리고는 권총을 천천히 제 옆차기에 건사하면서 말하였다.

《네놈이 리호철이라니 참 반갑다. 뭐 뛸 궁리는 하지 말어. 나도 강가에서 자라서 혜염깨나 칠줄 아니까.》

《아이구…》

호철은 마지막 노을빛을 받으며 강가에 그린듯이 서있는 진옥을 바라보다가 이를 부드득 갈며 주먹으로 배전을 탕 내리쳤다. 이어 그의 머리는 갑자기 부러진것처럼 탁 숙어졌다.

9

방금까지 칭얼거리며 어머니의 젖을 파던 진철이도 잠들고 방안은 괴괴해졌다. 진호는 네활개를 활짝 내뻗치고 쌕쌕 코를 골고있으며 진철이는 어머니젖가슴에 코를 박은채 이따금 작은 입을 오물거린다. 꿈에서도 어머니의 젖을 빠는 모양이다.

해종일 두 아이를 거느리고 부엌일에 시달리던 녀인은 아예 젖가슴을 아이에게 내맡긴채 자리에 눕자마자 김빠진 숨소리를 내며 깊이 잠들어버렸다.

필네도 참을수 없이 피로가 엄습해왔다. 오늘은 수수가 떨어져서 하는수 없이 로동자들이 이밥 먹게 됐다고 좋아했더니 웬걸 김장로는 기어코 현성에까지 나가서 수수쌀을 구해온 다음에야 점심을 짓게 했다. 그러느라고 점심이 늦어져서 볶아치는바람에 이일저일 다 밀려나서 저녁설것이는 밤이 깊어서야 하게 되였다.

김장로는 금천동에 와서 돈을 좀 모으기 시작하더니 점점 돈맛을 들여서 푼전을 두고 아득바득하였다. 그는 한때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으로서 체통도 큼직하고 말이나 행동거지도 제법 점잖게 하였지만 갈수록 구린속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밥장사만 하는것이 아니라 광산물계에 어두운 최주사를 끼고다니며 덕대노릇까지 겸해하였다. 쉰명남짓한 로동자치고 그에게 빚 안진 사람이 없으며 또 간죠날마다 그에게 전표값 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로동자들이 다 잠든 깊은 밤까지도 김장로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혼자 장부책이며 전표쪽지들을 주런이 펼쳐놓고 떼각떼각 수판알을 튀기는 소리가 방금까지 들려왔었다. 저도 남과 같이 부자가 돼보겠다는 검질긴 욕심때문에 살이 내릴 지경으로 무섭게 이악을 떠는 그마저 잠들어버리니 길다란 밥집은 코고는 소리, 가위눌린 소리, 잠꼬대소리가 울릴뿐 괴괴해갔다. 잠을 자면서도 편안한 휴식 대신 지옥의 꿈이라도 꾸는모양 고통에 이지러진 그 숨가쁜 소리를 들을 때 필네는 자고싶은 생각이 싹 없어졌다. 저 역시 저렇게 이를 갈고 잠꼬대를 하며 뒤치락거릴것인가. 진호 어머니는

자기더러 잠자는 모양이 더 곱다고 말하군 하였지만 나라고 왜 꿈속에서 악을 쓰며 고통을 겪지 않을것인가.

머지 않아 나귀울음소리가 어둠에 잠긴 광야에 처량하게 울려퍼질것이다. 그때면 일어나서 새벽조반을 지어야 한다. 낮대거리가 미처 잠깨지 못한 얼굴로 간데라가 서로 바뀌였다고 옥신각신하며 나간 다음 인차 밤대거리가 돌아온다. 그러면 또 그들의 밥을 챙겨야 하고 이어 설겆이할 사이도 없이 최주사와 김장로의 늦은 조반시중을 들어야 한다. 지금 눈을 좀 붙이지 못하면 그 다음은 다시 캄캄한 밤이 올 때까지 자리에 앉아볼 사이도 없다. 어서 잠들어야 한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필네는 무서웠다. 사방에서 자기를 덮치려고 다가드는 악귀같은 형상들이 컴컴한 구석에서 솟아올랐다가 눈을 부릅뜨면 사라지군하였다.

이러한 밤이 시작된것은 상기란놈이 밀정이라는것을 알게 된 그날저녁부터였다.

그 이튿날 필네는 겁이 났지만 그놈이 방에서 어물거리는 짬에 마침 우물가에 세수하러 나온 윤원구에게 짧게 귀띔했었다.

《상기를 조심해요. 그놈이 신개척에 있던 하늘소와 한패예요. 하늘소도 여기 와있어요.》

미처 그 말이 끝나기도전에 밥집문전에서 상기란놈이 선하품을 하며 나타났었다. 윤원구도 제꺽 눈치를 알아채고 무슨 밥투정 비슷한 소리를 한마디 하면서 사라졌다. 그날부터는 상기의 눈초리가 더욱 검질기게 파고드는듯하였다.

그런데 오늘아침에 윤원구는 밤대거리에서 나오듯말듯 자기를 우물터로 불렀다. 필네가 조심스러워 사위를 두리번거리니 상기는 굴속에서 연장망태를

잃어버렸기때문에 그것을 찾느라면 한참 있어야 나올것이라고 하였다. 그놈 몰래 자기와 무슨 이야기를 하자고 일부러 그런 수를 꾸민것 같았다.

《필네.》

하고 윤원구는 잠시 눈치를 살피더니 신중한 어조로 물었다.

《나한테 뭐 감추는것 없어? 집안이랑 부모형제들에 대해서말야?》

필네는 가슴이 덜컥하였다. 여태 아무한테서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적이 없었다. 자기가 부모들을 하직하게 된 래력은 오빠가 유격대로 떠나면서 정해준것이고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되는 오누이만 아는 약속이였다. 만일 그 약속을 어기고 친한 사이라고 해서 사실을 터놓기 시작하면 어느새 말이 새여나가서 큰일날뿐아니라 오누이가 다시 만나지도 못한다는것이였다.

《그건 왜 갑자기 물어요?》

필네는 상대가 속을 터놓고사는 사이인데다 요즘 그의 거동에서 느껴지는것이 있었기때문에 긴장되는 한편 뒤흔들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눌러잡고 되물었다.

《필네 나를 믿고 말하라구. 필네를 찾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나를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필네는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하였다.

《그건 캐여묻지 말고… 한마디만 대답하라구. 오빠가 있지?》

필네는 흠칫해서 고개를 들었다. 윤원구는 이윽히 자기 눈을 들여다보았다. 필네는 허둥지둥 눈길을 떨구었다. 그런데 윤원구는 검질기게 다그쳐물었다.

《유격대에 갔지?》

그때 시원히 그렇다고 대답했어야 되지 않았을가?

필네는 몸을 뒤져누우며 호-하고 한숨을 내쉬였다.

그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질문이였다.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라 허둥거리는데 윤원구는 그냥 자기를 지켜보았다. 그때 마침 상기란놈이 연장망태를 둘러메고 달려들더니 《춘길이 이새끼 나오라! 너 무슨 심보로 남의 연장을 감추었어!》 하고 소리쳤다. 네활개를 뻗고 잠자던 춘길이가 부시시 일어나자 곧 주먹다짐이 벌어졌다. 윤원구는 하는수 없이 싸움을 말리러 가면서 잘 생각해보고 그러면 그렇다고 귀띔해달라고 말하였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해야 옳은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윤원구가 좋은 사람인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무엇때문에 그런것을 물을것인가, 또 어디서 그런것을 알아냈을가? 가뜩이나 상기며 최주사며 김장로며 거기에 가끔 리호철이도 나타나고 그 하늘소같이 생긴놈까지 기여든판에 남의 집안에서 유격대에 간 사람이 있다는것을 알아내서는 어찌자는것일가? 자기가 혹 그런 눈치를 어디서 챘다면 감싸주어야 할것이 아닌가…

이 답답한 심정을 누구에게 탁 터놓고 의논이라도 하고싶었다.

필네는 또다시 호하고 한숨을 내쉬며 모로 돌아누웠다. 열어놓은 바라지를 통하여 푸릿하게 채색된 달빛이 방안을 들이비친다. 아마 지금쯤 보름가까운 달이 삼선봉꼭대기에 걸려있을것이다.

오빠는 지금 어디 있을가? 오빠도 **김일성**장군님을 따라 무산땅에 진출하여 내가 임을 이고다니던 그 산판들을 밟았을것인가? 참을수 없이 오빠가 그립고 보고싶었다.

외로움이 탄력에 넘치는 몸을 좀먹고있다. 때로는 까닭없이 울고싶어져서 외롭게 나무그늘에 앉아있으면 밥집의 식솔들은 남의 속도 모르고 실없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처녀가 시집갈 때쯤 되면 공연히 우습기도 하고 까닭없이 눈물이 나기도 한다는것이다.

정섭의 할아버지가 자기를 보내면서 타관만리에 홀로 가서 외로와 어찌 살겠는가 걱정을 하더니 그때는 미처 깨치지 못한 그 말뜻이 이제야 알려진다. 정말 홑이불을 입에 물고 흐느끼고싶도록 외롭다. 동기가 그립고 마음 터놓을수 있는 친지가 그립다.

필네는 살그머니 허리를 일으켜 머리맡에 있는 자그마한 제 보짐속에 손을 들이밀었다. 어둠속이지만 얼마 더듬지 않아도 곧 보드라운 촉감을 가려냈다. 소리 안나게 명주수건을 뽑아낸 필네는 그것을 품안에 꼭 그러쥐고 다시 눈을 감았다. 싱글싱글 웃는 정섭이의 얼굴이 떠오른다. 헤여질 때 로자돈을 쥐여주며 성난듯이 어마어마하게 찌프리던 얼굴도 그려졌다. 할아버지에게 드리고 온 이 수건이 이렇게 자기한테로 되돌아올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정섭이가 손질했다는 그 우물의 물맛을 다시한번 맛보고싶었다. 그런 물을 한사발 마시기만 하면 답답하고 외로운 가슴이 시원히 열릴것도 같았다.

아- 유격대, 유격대… 유격대만 만나면 오빠도 찾고 정섭이도 볼수 있으련만…

구르릉- 별안간 먼데서 천둥소리같은것이 울리면서 구들이 흔들흔들하였다.

오늘밤은 남포도 유난스럽다고 무의식중에 생각하며 돌아누웠다. 그런데 잠시가 못지나 따따따 하고 자지러지는 금속성이 울려왔다. 그제야 아까 울린 소리가 남포소리와는 어딘가 다를뿐아니라 의례 울려야 할 삼선봉의 관방갱쪽과는 반대편인

청지동 어방에서 울려왔다는 생각이 났다. 관방에서 울리는 남포라면 줄남포가 터지는것이요, 또 대체로는 새벽에 터지지 이런 재밤중에 남포를 놓는 일은 드물다.

필네가 이상한 생각이 나서 귀를 기울이는데 한번 터져오른 그 금속성은 차츰 더 커지면서 넓은 범위로 번져갔다.

틀림없는 총소리였다. 필네는 총소리가 아닐가 하는 생각을 하고 베개우에서 머리를 절반쯤 들면서도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소린지 판단이 안가서 어둠속에 눈만 반짝거리고있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라오?》

김빠진듯한 숨소리가 뚝 멎더니 진호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앉으며 눈을 두릿두릿하였다.

필네는 대답을 않고 일어나앉아 한오리 흐트러지지 않은 머리를 쓰다듬어넘기며 총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가슴이 저도모르는사이 활랑거리기 시작한다. 저게 총소리가 아닌가. 무산땅에서 듣던것과 같은 그 총소리가 아닌가, 그렇다면 …

웃간에서 누가 문을 박차고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필네는 감전된듯이 명주수건을 구겨쥐고 신을 끌며 나섰다.

《아이구 아지미, 어딜 가자고 그러오?》

진호 어머니가 허둥지둥 문지방에 한팔을 내짚으며 말리려 하였으나 필네는 어느새 삼선봉마루를 향해 내달리고있었다.

산꼭대기에는 벌써 달리는 사람이 많았다. 바깥에 나서고보니 총소리는 더 뚜렷했으며 그것은 아무리 세상일에 어두운 사람에게도 청지동에서 그 무슨 전쟁이 붙었다는것을 느끼게 했다. 청지동에는 지금 왜놈의 군대가 꽉 들어찼다고들 한다. 그러니 전쟁을 한다면 그 왜놈의 군대가 하는것일것이다. 왜놈의 군대가 누구를 상대하여 총을 쏠것인가. 그것은 묻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청지동에 유격대가 온것이 틀림없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유격대를 만나고야말리라. 필네는 명주수건을 품에 건사한 다음 이를 악물고 달렸다.

삼선봉에 올라가니 밤이면 등불이 눈부시게 반짝거리던 청지동의 밤풍경은 간데없고 캄캄한 광야가 가로누워있는데 거리의 변두리쯤 되는곳에 불이 붙어 활활 타번지고있었다.

총소리는 그냥 자지러진다.

《유격대다!》

웬 사람이 머리에 동였던 수건을 활 풀어서 공중에 대고 한번 내리치더니 내뛴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섰다. 곡괭이를 둘러메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곡괭이를 나무뿌리에 대고 힘껏 내찍어던지고 맨손으로 달리기도 한다. 옜다 보아라 나는 간다는 태도다. 대개 굴속에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였다.

필네도 질세라 달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간다. 해란강상류의 물줄기와 맞다드는 진펄에 이르자 금천동의 사람들이 다 내려오는듯 사람들의 흐름이 사태처럼 쏟아졌다.

필네는 진펄에 발이 빠졌다. 진창이 발목을 꽉 물고 놓지 않는데 마음은 그냥 급하여 모지름을 썼더니 신 한짝이 빠져나갔다. 본시가 제발에는 큰 사내들 고무신이였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여벌이 없는 신이였다. 비로소 당황해난 필네는 한걸음 되돌아와서 진창속에 손을 박고 신을 더듬어찾았다.

《이게 누구요? 빨리 걷소.》

진펄인데다 좁은 오솔길이라 당장 사람들이 겹치고 늘어서니 추상같이 다그쳐댄다. 필네는 입을 꼭 다물고 신을 찾아냈다.

《아니, 그 무슨 처녀가 길에 나서서 그래, 어서 길내라구.》

《누군지 활 밀어넣어버려!》

자칫하면 주먹이라도 휘두를것만 같은 기세다. 필네는 깔끔한 눈으로 그 사람을 한번 쳐다본 다음 진흙묻은 신을 한손에 쥔채 내달렸다.

《이 처녀가 어디로 가느라고 이래?》

밀어넣으라고 하던 젊은이가 어느새 나란히 서며 혼자소리처럼 물었다.

《싱거운 소리 작작하고 제 갈길이나 가요.》

《야, 이것봐라. 꽤 맵짠데.》

그 청년이 얼떨해서 이렇게 중얼거리자 그뒤를 따라오던 중년사나이가 옆을 지나치면서 일부러 필네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알만하다는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오라, 김장로네 식모로군. 구정물 뒤집어쓰기전에 어서 뛰자구.》

필네는 촉망중에도 우스워 혼자 웃으며 숨이 가쁘도록 달렸다. 강을 건느면서 다시 신을 신었다. 물이 쿨쩍거리는 신은 큰길에 나서자 인차 황토먼지를 빨아들여 또다시 두툼한 진창이 신에도 발에도 매달렸지만 필네는 다시는 신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언제 어떻게 멎었는지 총소리는 가뭇없이 사라지고말았다. 그런데 달려가던 군중들이 뿔뿔이 강가의 곡식밭이며 풀밭으로 흩어져달아나며 《왜놈이다! 왜놈이다!》 하고 웅성거리였다.

필네도 하는수 없이 풀밭에 몸을 쪼그리고앉았다. 잘못하다가는 또 신사동에서처럼 그놈들에게 길이 막힐수 있다. 초조감에 가슴이 죄여서 금시 입술이 초들초들 말라든다.

길우에 총을 뽑아든 왜놈의 군대 십여명이 뒤걸음질쳐온다. 그러다가 어디선가 풀밭에 숨어있는 사람을 띄여봤는지 돌아서서 냅다뛰기 시작하였다. 그놈들이 내뛰자 저 웃쪽에서 또 대여섯놈이 주먹을 부르쥐고 달려온다.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이때 왜놈들이 달려가는 썩 뒤쪽에서 총소리가 터져올랐다. 악-하는 비명이 들리더니 방금 그쪽으로 뛰여갔던놈들이 허둥지둥 되돌아오다가 강물속으로 첨벙첨벙 뛰여들어갔다. 왜놈들은 아래쪽으로 내뛰다가 거기서 지키고있는 유격대한테 맞다들린게 틀림없었다.

그렇다. 그것은 틀림없는 유격대였다. 아득히 거리쪽에서 만세소리가 울려온다. 청지동에 불이 켜졌다. 유격대가 왜놈들을 다 소탕한것이 틀림없었다. 군중은 거리쪽으로, 거리쪽으로 줄달음을 쳐갔다.

《청지동에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셨다!》이러한 웨침이 전류와 같이 군중의 물결을 타고 전해져왔다.

서낭당언저리에서 그 소리를 얻어들은 필네는 치마자락을 걷어잡고 달렸다. 사람들이 밀린다. 낮에도 인적이 드물던 서낭당근방에 사람사태가 나서 먼지가 자욱하게 솟아올랐다. 필네는 또 신이 벗겨졌다.

이번에는 진창속도 아니기때문에 허리만 굽혀도 되고 제창 발끝으로 더듬어찾아도 될것이다. 그러나 그럴 여유가 없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셨다는데… 그까짓 사내고무신…》

필네는 남자들 틈을 비집고 쏜살처럼 달렸다.

거리는 집집이 불을 내걸어서 대낮처럼 환한데 전날 사람들을 환락의 세계에로 부르던 청등홍등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거리중심을 썩 지나서 보니 옛날 수백명 가병을 거느린 토호가 살았다는 큰집이 불타고있었다. 그 집에는 널직이 토담을 둘러치고 네귀에 포대가 있었는데 아마 처음에 천둥소리같이 울리던 소리가 그 포대를 폭파하는 소리였던지 그렇게 엄엄해보이던 루다락이 폴싹 무너져내려앉았다.

왜놈군대는 바로 그 집에 둥지를 틀고있었던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비비대고 밀치면서 손을 흔들기도 하고 무엇이라고 소리치기도 한다. 짐을 둘러멘 사람들이 대렬을 지어 숲쪽으로 빠져나간다.

필네는 이 사람 등을 밀치고 저 사람옆을 빠지고 하면서 가까스로 길복판까지 나왔으나 영문을 알수 없었다.

《유격대는 어디에 있어요?》

어떤 중년사나이가 열광적으로 손을 흔드는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

《에, 한 댓살만 젊었어도… 이 사람들, 우리 몫까지 해야 하네.》

그 사람은 왕청같은 소리를 했다. 아마 짐을 둘러메고 따라가는 사람가운데 아는 얼굴이 있는 모양이다.

《유격대는 다 갔나요?》

필네는 안타까와 재차 물었다.

《유격대? 아니 이게 김장로밥집의 식모처녀가 아니야?》

그제야 다시 돌아보니 아까 진펄에서 신때문에 꾸물거린다고 지청구를 대던 바로 그사람같다.

그는 필네의 발을 내려다보더니 씩 웃었다.

《또 신을 잃었군. 큰 처녀가…》

《유격대는 어디 있어요?》

《유격대는 벌써 왜놈들을 다 족치고 떠나가는길이라네. **김일성**장군님께서 연설하시는걸 못봤지? 나도 한걸음 늦어서 앞은 못 들었는데 참 시원하게 말씀도 잘하시더군.》

《장군님께서는 어디에 계세요?》

《아마 저 맨앞에 계시겠지. 참 생각했던것과는 달리 젊으시더군. 장군님께서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총잡고 싸움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청지동, 금천동의 청년들이 저렇게 너도나도 유격대에 참군하겠다고 따라나서지 않았나.》

이미 대렬은 지나가고 군중들이 와- 밀려간다. 필네는 그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였다. 깽깽이통을 둘러멘 김인수였다.

필네도 무작정 뒤를 따랐다. 거리를 벗어나자 군중들은 차츰 떨어지고 앞에는 그쯘하게 대렬을 지은 유격대에 참군하겠다고 따라나선 청년들 수십명이 걸어갈뿐이였다.

필네는 멀찍이 뒤를 따랐다. 이제는 한결 가슴이 진정된 대신 현실적인 걱정이 이것저것 살아났다. 차츰 대렬은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신 한짝을 잃었으니 어떻게 따라갈가 하는것이며 밥집에 수수쌀을 미리 담가놓지 못했는데 진호 어머니가 그런줄 알고 여느때보다 일찍 일어나주겠는지 하는따위들은 떠올랐다가도 인차 사라지군하는 잔걱정들이지만 암만 둘러봐야 유격대에 들겠다는 사람들가운데 녀자는 한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꽤 유격대에 받아주겠는가 하는것이 그중 큰 걱정이였다. 오빠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풀리겠지만 어디 가서 말을 붙여볼것인가.

유격대는 점점 깊은 숲속으로 빠져들어간다.

해살이 숲속에까지 퍼져들어올무렵 유격대는 행군을 멈추고 꽤 넓은 림간공지에서 휴식에 들어갔다.

필네는 어느 진대통옆에 홀로 앉아 두손바닥에 턱을 고이고 생각에 잠겼다. 발이 몹시 아프다. 신을 신고 따라온 청년들도 물집이 생겼다고 야단들을 하는데 맨발로 왔으니 아플수밖에 없다. 아픈것은 참으면 되겠지만 아까 얼핏 만져보니 발바닥이 헤여져서 피가 나오는 모양같다.

필네는 몹시 쓰리고 아팠으나 눈을 꼭 감고 어떻게 먼저 유격대에 말을 붙여볼것인가 하는 생각만 하였다.

《동무는 어떻게 왔어요?》

이런 녀자목소리에 필네는 눈을 뜨고 올려다보았다. 총을 어깨에 걸친 녀자군대다.

《아이.》

필네는 너무 반가와서 벌떡 일어났다.

《동무도 입대하러 왔어요?》

《난 유격대에 들러 왔어요. **김일성**장군님께서 왜놈들과 싸울 사람은 다 유격대로 오라고 연설하셨대요.》

녀자군대는 방그레 웃었다.

《그런데 왜 여기 혼자 앉았어요? 우리 있는데 가자요.》

녀자군대는 필네의 손을 잡아이끌었다.

《무슨 짐같은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다가 총소리를 듣고 그냥 뛰여왔는데… 금천동은 질러가도 십리가까이나 돼요.》

《그래요?》

녀자군대는 놀랍다는듯이 한걸음 비켜서서 필네를 새삼스럽게 뜯어보더니 새끼손가락을 까부려붙인 손을 들어 군모채양밑으로 흘러내린 굽슬굽슬한 머리를 조용히 모자속으로 쓸어넣었다.

《장하군요.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오빠가 있지만…》

《아니 그런데 다리는 왜 절어요? 저런, 신은 어떻게 했어요?》

《달려오다가 길에서 잃었어요.》

《찾아신고와야지, 애들같군요. 유격대에서는 무엇보다도 발건사를 잘해야 해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발이 유격대의 날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숙은 처음보는 그 억실억실하고 깔끔해보이는 처녀에게 무엇인가 친절을 베풀고싶은 생각이 나서 숙영지로 가다가 말고 제 배낭을 끌렀다. 그는 한쪽무릎을 꿇고 차곡차곡 속옷들이며 학습장들을 챙겨넣은 짬을 헤치며 아직도 선채로 있는 필네에게 말했다.

《녀자몸으로 산에서 살며 싸운다는것이 헐치 않아요. 유격대에 들 생각은 전부터 했어요?》

《전부터 유격대에 들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난 그저 철이 들면서 유격대를 뭐라고 할가… 꼭 우리 집같이 생각하고있었어요. 난 고아랍니다. 오빠 한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오빠가 유격대에 있어요.》

《그래요?》

금숙은 배낭 맨밑창에서 예비로 가지고 다니던 로동화 한컬레를 꺼내들고 배낭끈을 조이며 무심히 물었다.

《오빠가 누구예요?》

《한태혁이라고 하는데 벌써 입대한지 네해나…》

금숙은 벌떡 일어났다. 눈이 황황 불탔다.

《그럼 동무가, 동무가…》

금숙은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필네의 두손을 더듬었다. 로동화는 풀밭에 나떨어지고 금숙은 필네를 와락 그러안았다.

《동무가 필네지? 내가 얼마나 필네를 찾았는지 알기나 해…》

필네는 자기 볼에 줄줄이 떨어져내리는 그 녀대원의 눈물을 느끼면서 까닭도 모르고 마주 그러안았다.

두 처녀는 차겁게 가들어들었던 외로움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녹아내리는것을 느끼였다. 동시에 폭풍같은 격정의 뒤를 따라 마치 졸음기와 같이 나른하고 아늑하고 따뜻한 정이 가슴에서 가슴으로 흘러드는것을 느끼였다.

10

유격대를 따라나선 인민들은 쉰사람이 잘되였다. 그가운데는 로획물자를 지고온 중년축들도 있고 기어이 유격대에 입대하겠다는 청년들도 엇섞여있어서 어차피 일부 사람들은 돌려보내야 하였다. 입대를 청원하는 사람들도 덮어놓고 다 받을수는 없었다. 가정사정도 있을것이고 본인의 각오정도도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밀림속으로 깊이 들어가기전에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야 하겠기때문에 처음에 휴식하였던 자리에서 얼마 못가서 다시 대휴식에 들어갔다.

여기서 좀 늦었지만 아침밥들을 지어먹고 지휘관들이 인민들과 사업하는 사이 대원들은 오락회를 벌렸다.

청지동의 왜놈군대를 단숨에 들이쳐서 요정을 낸 큰 전과에다 로획품도 많고 거기에 또 끌끌한 청년들이 수십명이나 따라나섰기때문에 유격대원들은 신이 났다. 오락회는 여느때없이 흥성거리였다.

한다 하는 춤군, 명창들이 다 불리여나와서 유격대원들의 슬기를 시위하였다.

눈부신 해발이 숲속을 들이비쳐 밤사이 내린 이슬이 말라드는 푸릿한 안개가 나무가지사이를 감돌고 산들바람은 씁쓸한 풀향기와 송진내를 실어왔다.

우짖던 뭇새들도 숨을 죽이고 기세충천한 유격대전사들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김준삼공작조에서 올려보낸 정찰자료를 무릎우에 펴놓으시고 이제 유통사의 동네로 들여보낼 강철룡소대장에게 필요한 주의를 주시고계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번 청지동진공전투를 전후하여 공작조에서 보내온 보고나 지방인민들의 여론을 통하여 이 지방에서 유격투쟁과 정치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일제침략무력과 통치기구를 제압하는 동시에 유통사일가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것을 재삼 통감하게 되시였던것이다.

《지금 보위단은 이미 무장을 빼앗겨서 해체되나 다름없고 집안구조도 준삼동무가 다 알아냈으니 동무들은 주로 유통사의 형이 산다는 주부골과 사돈집이 있다는 봉산동 형편을 잘 정찰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평촌으로 접근하는 도로주변과 마을의 동태도 잘 알아내야겠소. 그 다음 우리가 다시 숲으로 들어오는 로정에 대해서도 미리 정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철룡은 전에없이 심중한 표정으로 준삼이가 그려보낸 략도를 구멍이 뚫어지도록 들여다보더니 문득 고개를 들었다.

《사령관동지, 별일 없으면 우리 정찰조가 일을 다 제껴버리면 어떻습니까?》

《회양동경찰을 해치우듯하겠단말입니까?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놈들 한두놈을 제끼자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인민들속에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보여주어서 인민들이 혁명에 신심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들에게 압력을 가하자는것입니다. 저놈들이 저희네 후방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것을 느끼고 벌벌 떨게 해야 한단말입니다. 이것이 이 여름에 우리가 해결하자는 전략적목표의 하나입니다. 그러자면 적정을 면밀하게 정찰한 기초우에서 전투를 빈틈없이 조직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전 그런 생각은 못하고…》

하고 강철룡은 게면쩍은듯 얼굴이 벌개지더니 인차 정색하여 말하였다.

《빈틈없이 정찰해오겠습니다. 태평촌은 제가 자주 다녀본 고장이기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강동무를 보내는것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무릎우의 략도를 착착 접으시여 강철룡에게 내미시였다.

숲속에서는 여전히 박수소리와 떠들썩한 말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더니 가뭇 조용해졌다. 그 누가 새로 불리여나오는 모양이다.

《우리가 철구동무네와 약속한 날자가 다가오는데 그전에 전투를 할수 있도록 부대로 돌아와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떠나면 늦어도 이틀이면 돌아올수 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 강철룡과의 이야기를 끝내시고 막 일어서시려 할 때였다.

오락회장소에서 새로운 노래소리가 울리여왔다.

이 강산 락화류수 흐르는 물에 …

김일성동지께서는 깜짝 놀라 소리나는쪽을 돌아보시였다.

《저게 무슨 소리요?》

강철룡도 놀란듯 눈만 끔쩍끔쩍하더니 고개를 기웃거리며 말하였다.

《무슨 락화류수라고 하는것 같은데… 그 깽깽이통을 메고온 사람같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처럼 놀랍게 돌아보시던 눈길에 미소를 담으시고 말씀하시였다.

《그런것 같습니다. 강철룡동무는 저런 류행가를 처음 듣습니까?》

《듣기는 더러 했습니다. 입대전에는 우리 마을에도 잘 부르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정찰을 나가서도 듣고 했습니다만 이건 유격대숙영지가 아닙니까.》

강철룡은 리해할수 없다는듯이 그이의 얼굴과 오락회장쪽을 번갈아보며 말하였다.

《그래서 나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민들과 함께 오락회를 벌렸으니 그럴수도 있지 않습니까? 류행가치고는 잘 부릅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몹시 놀라 어쩔바를 모르는 강철룡의 표정을 흥미있게 살펴보시였다.

《그렇지만 그 사람 정신이 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유격대에 와서 저따위 썩어빠진 노래를 부르다니… 제가 가서 걷어치우라고 말하겠습니다.》

《허허허, 그러면 됩니까? 손님이 모처럼 우리 유격대를 위해서 성의를 다하여 부르는것인데… 가만 들어보시오. 성의를 가지고 부른다는것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동무들이야 저런 노래쯤 몇마디 들었다고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좌우간 유격대생활에서는 들어보기 어려운 노래입니다.》

그러자 강철룡도 낯색이 좀 풀리면서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전에는 그렇게까지 생각못했는데 산속에서 들으니 참 별스럽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노래는 계속되였다.

노래가 끝나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풀밭에 빙 둘러앉은 유격대원들치고 저런 노래를 심상하게 들을 사람은 아마 없을것이다. 그러면서도 모처럼 부대를 찾아온 인민들이라 해서 너그럽게 대해주는 그들의 마음씨가 대견하게 생각되시였다.

웅성거리며 떠드는 소리가 나더니 류랑가수가 또다시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사랑에 우는 어떤 남양아가씨에 대한 노래였다. 가수는 아까보다 더 기분을 내여 구슬프게 목소리를 떨었다.

《막 우는것 같습니다.》

마침내 강철룡이 급해맞은 소리를 질렀다.

《허허허, 그렇게 울어서 사람들을 비감에 잠기게 하자는것이 저런 노래들의 목적입니다. 가수는 아마 그런것까지는 모르고 잘 불러보겠다고 애를 쓰는것 같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소박한 강철룡의 말이 어쩐지 유쾌하게 생각되시면서도 한편 노래부르는 가수를 생각하시니 가슴이 아프시였다.

이때 금숙이가 소리없이 다가왔다.

《사령관동지.》

하고 그가 보고를 드릴 때까지 인기척을 못 느끼였던 사령관동지께서는 눈물이 그렁해있는 처녀의 얼굴을 보시자 가슴이 덜컥하시였다. 언제나 금숙이만 보시면 그의 안색부터 살피게 되는 그이시였다.

그런데 금숙이가 왜 흥성거리는 오락회에서 빠져나왔을가? 처녀의 얼굴은 얼핏 보매도 무슨 일인가 생긴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벌써 그이의 가슴을 아프게 허비고드는것이였다.

《웬일입니까? 왜 오락회에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빨갛게 상기된 금숙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시며 긴장된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사령관동지, 그 동무의 누이동생이 왔습니다.》

금숙은 고개를 곧바로 쳐들고 뜻밖에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드리였다. 몹시 흥분은 되였으나 언짢은 일은 아닌듯하다. 그쯤만 해도 그이의 가슴은 어느정도 가라앉는듯하시였다.

《그 동무의 누이동생이라니 그건 누구입니까?》

《태혁동무말입니다. 태혁동무의 누이동생이 사령관동지를 찾아왔습니다.》

《뭐요?》

사령관동지께서는 너무나 큰 충격에 자신도 모르는사이 앞으로 한걸음 나서시였다.

《그럼 필네가 왔단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필네가 찾아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가봅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서두르시며 먼저 발걸음을 옮겨놓으시였다.

《재봉대에 있습니다. 지금 모두 필네를 둘러싸고 야단입니다.》

《그렇겠지. 그래서 녀동무들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았구만. 자, 홍동무도 빨리 걷소. 우리 재영이가 알았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아가겠는데…》

사령관동지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강철룡의 소매를 잡아 이끄시며 걸음을 다우치시였다.

총총히 막아서는 이깔나무가 성가시게 생각되시였다. 찬서리 얼어드는 숙영의 밤 잠못 드시는 그이의 가슴속에 파고들군하던 필네의 모습은 언제나 휘몰아치는 눈보라속에 무명수건 한끝으로 귀를 싸매고 해여진 짚세기를 얼어서 통통 부은 발끝으로 끌며 열두살 어린 오빠의 손에 매달려 종종걸음을 치는 불쌍한 모습이였다. 이제 장성하여 다 큰 처녀가 되였다지만 언제나 그이의 가슴속에는 여섯살짜리 필네가 터갈린 작은 손으로 구원을 부르는 모습으로만 살아있었다.

금숙이와 장경수, 재영이가 갑산땅까지 그를 찾아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겉으로 드러내시지는 않으셨지만 이제는 찾을 길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때문에 여러날을 잠못 이루신 그이시였다.

그 필네가 혁명의 품을 찾아온것이다. 급하신 그이의 마음에는 이날따라 숲속의 나무도 너무 배게 들어서서 발걸음에 자꾸 걸채이는것만 같으시였다.

마침내 툭 트인 공지가 나졌다. 듬성듬성 마가목과 쇠스래가 들어선 그 풀밭에 녀대원들이 휴식하고있었다.

마지막 외따로 선 이깔나무그루를 한팔로 휘감고 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필네가 알고왔습니까?》

그이의 물으심은 너무나 비약되여있었고 또 긴장되여있었다.

뒤따라오던 금숙은 고개를 푹 숙이였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려주었습니까?》

《아직… 그런데 찾습니다. 다행히 동무들이 자꾸 찾아와서 여태 피해왔습니다만 아까부터 두리번두리번 찾는것 같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나무그루를 놓으시였다.

《필네가 나더러 오빠를 내놓으라면 내가 무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이께서는 혼자말처럼 되뇌이시며 걸음발을 늦추시였다.

급히 따라가던 강철룡은 고개를 숙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걸음을 옮겨놓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어야 하겠습니다. 한태혁동무가 희생된것도 말해주고 그가 이룩한 공적도 다 말해주어야겠습니다. 제발로 유격대를 찾아온 처녀이고 또 한태혁동무의 누이동생이니 능히 슬픔을 박차고 일어날수 있을것입니다.》

사령관동지의 말씀은 두사람에게 의논을 거시는듯하였으나 강철룡도 금숙이도 아무런 말씀을 올릴수 없었다.

그렇게도 찾으려고 애쓰시던 필네를 정작 만나시게 된 이 기쁜 순간에 나어린 처녀앞에 오빠를 내세워주지 못하시여 가슴아파하시는 그이의 심중을 생각할 때 차마 머리도 들수 없었다.

《왜 그러고들 있습니까? 빨리 갑시다.》

사령관동지의 이런 말씀이 울리여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그들의 발걸음은 멎어서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근엄하신 가운데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해하시며 다시금 걸음을 다우치시였다.

두사람도 서둘러 그이의 뒤를 따랐다.

마가목이 듬성듬성한 그 공지에서는 떠들썩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저쪽 숙영지쪽에서는 남대원들이 우르르 달려온다.

《저 동무입니다.》

한 나무뒤에서 금숙은 그이께 필네를 가리켜드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성한 마가목가지너머로 새하얀 적삼에 까만 무명통치마를 입은 처녀를 바라보시였다.

녀대원들이 저마다 손등을 쓸어만지고 얼굴을 들여다보고 하는 가운데 처녀는 가슴우에 돌려놓은 굵직한 머리태를 매만지고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며 고개를 숙이는것을 보니 다 자란 처녀다. 그러다가 사람들로부터 외면하느라고 새하얀 이를 드러내고 웃으며 이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순간 그이께서는 가슴을 박 긁는듯 띠끔한것을 느끼시였다.

신통히도 태혁이를 닮은 눈이다. 수더분하면서도 완강한 성격이 그 억실억실한 눈길에 다 드러나있었다. 그러면서도 다시 뜯어보면 오빠와는 또 판판다른 외양을 하고있다. 어디에도 태혁이와 같은 거쿨지고 악마디진 구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홰친홰친한 느낌이 들만큼 섬세한 륜곽을 가지고있었다. 앉아있어서 키가 얼마나 되겠는지는 몰라도 쑥 빠진 목이며 둥근 어깨며 어디를 보아도 활짝 피여난 처녀였다.

어쩐지 **김일성**동지의 눈굽은 축축히 젖어드시였다.

《어떻습니까? 잘 생기지 않았습니까?》

강철룡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이의 어조에는 어딘가 제자식을 두고 남의 확인을 받고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리여있었다.

《훤합니다.》

강철룡은 눈을 슴뻑거리며 여느때없이 격렬한 어조로 말씀드리였다.

《오빠를 닮아서 어느모로 보나 빠진데가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자랑에 넘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다시 필네를 찬찬히 바라보시였다.

때마침 오락회장소에서도 와- 하고 사람들이 흩어져왔다. 어느새 필네가 왔다는 소문이 돈듯하다. 태혁이와 친하던 경위중대와 기관총소대의 전사들이 앞장서서 달려온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잠시 그들의 흥분된 얼굴들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시였다.

《아무래도 나는 좀 있다가 만나는것이 좋겠습니다. 저렇게 찾아오는 동무들이 많은데 내가 가면 저 동무들이 인사를 나눌틈도 없을것 같습니다. 이따가 좀 조용해지거든 금숙동무가 필네를 데리고 나한테로 오시오. 그리고 홍동무는 지금 가보는게 좋겠습니다. 가서 태혁이 이야기를 잘해주시오. 그가 다른 사람이 평생을 두고도 이룩하기 어려운 일들을 수많이 해놓은데 대해 다 말해주시오.》

그러시고는 뚜벅뚜벅 걸음을 옮겨놓으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 사령부자리에 돌아오시여 숲속에 가로누운 진대통에 홀로 앉으시니 갑자기 사위가 괴괴한 침묵속에 빠져든듯 하였다. 오락회는 중단되고 모두 필네 있는데로 달려가버린듯하다. 이제 머지 않아 필네가 나타날것이다.

그에게 무슨 말을 해줄것인가? 아직 나이 어린것이 인간생활에서 가장 고귀한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때문에 목숨보다도 자유와 해방을 더 귀중히 여긴다는것을 리해할것인가?

그이께서는 다시 일어서시여 숲속을 거니시였다.

얼마후 상철이가 돌아왔다. 그는 사령관동지의 생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잠자코 뒤만 따르더니 그 머루알같은 눈을 슴뻑거리며 말씀드리였다.

《저, 데려오랍니까?》

《지금 모두 모여들 있겠지?》

사령관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나어린 전령병의 심각해진 얼굴을 들여다보시였다.

《자꾸 모여드는데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게 얼마나 좋소? 혁명전우를 귀중히 여기기때문에 그러는것이 아니요? 모두 기뻐들하겠지?》

《기뻐합니다. 우는 동무들이 많습니다. 강철룡소대장동무는 어떻게 떠드는지 무슨 토론회나 하는것 같습니다.》

상철이는 거기서 벌어진 일들을 한참 이야기하더니 다시 《데려오랍니까?》 하고 물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나이 어린 상철이가 벌써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에 대해 그렇게도 왼심을 쓰는것이 기특하시여 그의 어깨를 다정히 쓸어주시였다.

《그래, 가보라구. 가서 동무들이 흩어져갔거든 금숙동무에게 가자고 말하라구. 그러나 서두르지는 말고…》

《알았습니다.》

상철이가 달려나가니 다시금 숲속은 괴괴한 침묵속에 빠져들었다. 벌레소리만 쉬쭉쉬쭉할뿐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다.

그러나 숲속은 결코 숨죽인 심연은 아니였다. 대지의 숨결인듯, 지심깊이에서 용솟음치는 그 무슨 열정의 태동인듯 와- 와- 울부짖으며 뒤설레이는 메아리가 울려오는듯하시였다.

그것은 사령관동지자신의 가슴속에 끓어번지는 한시도 가라앉을줄 모르는 열정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실뿐 숲속은 역시 정적에 묻혀있었다

그이께서는 생각에 잠기시였다.

사람이란 과연 무엇인가?

오래전에 우리곁을 떠나간 리광의 얼굴, 오중화의 얼굴 그리고 최성택이며 한태혁의 얼굴이 차츰 희미해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욱더 그 특징이 뚜렷이 살아나는것은 무슨 까닭인가. 사람에게는 육체보다 더 귀중하고 더 근본적이며 영원한 정신적생명, 정치적생명이 있다. 세상만물이 가지고있지 못하는 그러한 목숨을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있기때문에 바로 인간을 만물의 령장이라고 하는것이며 또한 그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우주의 주인으로 된것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그 영원한 생명을 불태울 때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필네를 안타까이 기다리시였다. 아무리 어린 처녀에게 주는 타격이 크다 하더라도 영원히 자기 오빠가 우리 혁명의 기억속에 살아있다는것을 알게 된다면 슬픔에 견디지 못할것도 없을것이였다.

그러시면서도 그 말을 어떻게 시작할것인가 하는데서는 난감한것을 느끼시였다. 뚜렷한 말마디들이 떠오르지 않으시였다. 대단히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실 때조차 이렇게 생각이 막히여 답답해본적은 없으시였다.

그러나 정작 금숙이가 필네를 데리고 소리없이 다가와서 보고를 올렸을 때 그리고 필네가 그이앞에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깊숙이 절하였을 때 그이의 가슴속에서는

이런저런 근심이 가신듯이 사라졌다. 필네가 공손히 인사말씀을 올리자 장군님께서는 반갑게 그의 두손을 잡고 흔드시였다.

《참, 용케 찾아왔어. 내가 찾느라고 했지만 종시 못찾았는데 필네가 제발로 찾아오니 이렇게 쉽게 만났구만.》

잠시후 진대통에 필네를 앉히신 장군님께서는 잔잔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전 여기 와서야…》

하고 필네는 금숙이쪽을 돌아보며 말씀드려도 일없겠는가 묻듯이 눈을 깜빡거리다가 말하였다.

《유격대가 저를 찾느라고 오빠이야기를 캐물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고있다가 갑자기 장군님을 뵈오니 더 기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인가. 장군님께서는 가슴속이 활짝 밝아지는것을 느끼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래, 나도 그렇소. 나도 오늘에야 우리 공작조동무들이 필네를 거의거의 다 찾아낼번하다가 그만 놓쳐버렸다는 보고를 받았소. 필네가 이제는 다 자랐는데 남의 신세를 지면서 나를 찾아오겠나. 제발로 찾아와야지. 그런데 오다가 신을 잃어버렸다면서?》

《덤비다가 그만… 언니는 괜히 그런 말씀까지 드리구…》

필네는 부끄러워 금숙이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금숙동무가 그런것이 아니라 우리 전령병동무한테 들었지.》

《저도 행군하면서 장군님을 뵈왔습니다.》

어찌다가 문득 이야기가 중단되였다. 한번 중단된 이야기를 다시 잇기란 여간 어렵지 않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지그시 죄여드는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시여 일어서시였다. 두그루 이깔나무 있는데까지 걸어가셨다가 되돌아오신 그이께서는 진대통우에 나란히 앉은 두 처녀앞에 서시였다.

《필네의 오빠가 참 대단한 유격대원이지.》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갑자기 어조를 높이시며 말씀하시였다.

《한번 전투에 왜놈들을 기관총으로 몇백명씩이나 잡은 때도 있소. 그게 어느때던가? 륙도구때였지? 계속해서 진행된 쌍산자전투때도 그랬고…》

사령관동지께서는 금숙이의 동의를 구해가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아마 기관총을 쏘는데는 이 세상에서 필네의 오빠를 당할 사람이 없을것이요. 기관총만 잘 쏘겠소. 바느질을 하라면 필네나 이 금숙동무보다도 더 낫지.》

두 처녀는 진대통우에 나란히 무릎을 마주대고앉아 한태혁이 자랑에 열중해계시는 사령관동지의 얼굴을 눈 한번 깜빡 않고 황홀해서 바라보고있었다.

잠시 말씀을 끊으신 그이께서는 저만치 걸어가시다가 멈추어서시였다.

《필네는 <세계혁명가>라는 노래를 들어봤소?》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노래가 있다고 아까 전령병동무가 말해주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자신께서 하시는 모든 이야기를 필네가 이미 다 들었으리라는것을 짐작하시고 저쪽으로 돌아서시였다.

《장군님!》

필네는 벌떡 일어나더니 달려왔다. 장군님께서는 긴장되시여 돌아서시였다. 필네는 무너지듯이 그이의 가슴에 안겨 쓰러졌다.

《저는 다 압니다. 이제는 그만두십시오. 저는 울지 않습니다.》

흐느끼며 웨치듯 말하는 필네의 물결치는 어깨를 두손으로 잡고 서신 그이께서는 일순 할말을 찾지 못하시였다.

《알다니?》

《저는 오빠가 전사했다는것을 다 압니다.》

《다 안다? 어떻게 알았소?》

사령관동지께서는 먼 허공을 바라보시며 석쉼하게 갈린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기관총소대장아저씨가 오빠가 쓰던 기관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 짐작했습니다.》

《그렇게 되였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조용히 혼자말씀처럼 외우시다가 기진할듯 흐느끼는 필네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도 힘들게 생각해오시던 말씀을 마침내 터쳐놓고야마시였다.

《그래, 필네의 오빠는 지난겨울 위험에 빠진 조선혁명을 구원하려고 힘겨운 행군을 해올 때 우리 혁명을 위하여 용감하게 전사하였소. 필네가 어린 몸으로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며 그리워하다가 죽을 고비를 무수히 넘기며 찾아왔는데 오빠는 없소. 그러나 필네도 보다싶이 오빠의 위훈도, 오빠의 노래도 우리 혁명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소.》

장군님의 목소리는 격정에 떨리였다.

《장군님.》

필네는 마침내 소리내여 울었다. 끅-끅- 숨이 막히도록 흐느끼며 몸부림쳐 운다. 진대통우에서는 금숙이가 소리없이 흐느끼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실로 백만대군을 겪기보다도 더 아름차신 정신적부담앞에서 지그시 눈을 감으시였다.

《실컷 울라구! 앞으로라도 울고싶을 때는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마음껏 울라구. 그러나 다른데 가서 울지는 마오. 죽을 때조차 웃으며 숨을 거둔 혁명가 한태혁의 누이동생은 사람들앞에서 눈물을 보여서는 안돼.》

얼마쯤 울음소리가 즘즛해졌을 때 장군님께서는 필네의 어깨를 쓸어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필네는 문득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짓물린 두눈이 빛을 뿌렸다.

《장군님, 정말 다시는 울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까 언니한테서 저를 찾으시려고 언니랑 여러 사람을 갑산에까지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런 걱정을 끼치지 않겠습니다.》

《금숙동무가 그 이야기까지 다 했구만.》

사령관동지께서는 금숙이쪽을 돌아보시였다. 금숙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슬퍼서 우는 울음이 아니였다. 지난날은 저렇게 마음놓고 울지도 못하던 금숙이였다. 그때 차라리 몸부림치며 시원히 울기라도 해주었다면 가슴이 덜 아팠을것이다. 그는 태혁이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조차 울지 않았다. 그렇게 가슴깊이 묻어두고 지내기에 그 슬픔은 좀처럼 사라지지도 않고 또 보는 사람의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해주기도 하였었다. 이제 금숙은 눈물을 이리저리 훔치며 마음놓고 운다. 그 눈물이 마지막으로 가슴깊이 박힌 슬픔의 얼음덩어리를 녹여내리고 태혁이 대신 필네와 손잡고 씩씩하게 혁명의 길을 걸어갈 그런 결의가 어린 눈물이라는것을 느끼실 때 사령관동지의 가슴도 젖어드시였다.

그이께서는 다시한번 필네의 어깨를 쓰다듬어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그래도 울고싶은 때가 가끔 있겠지. 그럴 때는 나를 찾아오든가 금숙동무를 찾아가라구. 그러나 제일 좋기는 슬픔을 디디고 일어서서 오빠처럼 씩씩하게 싸워나가는거요.》

《알았습니다. 저는…》

필네는 또다시 울먹울먹하다가 겨우 진정하고 잠시 숨을 톺은 다음 또박또박 말씀드렸다.

《저는 오빠대신에 장군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저는 울지 않습니다.》

《고맙소.》

필네는 쓰러지듯이 금숙이에게로 달려가더니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이나 운 다음에야 겨우 진정하였다.

눈물은 마치 진정제와 같이 처녀의 마음을 가라앉혀주었다.

얼마동안 기진할듯이 울고난 필네는 금숙이가 눈짓을 하자 퍽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장군님께 인사를 드린 다음 금숙이의 손목을 잡고 숲속길을 돌아갔다.

11

필네와 금숙이를 돌려보내시고 오락회장소에 오시니 김인수가 홀로 앉아서 바이올린을 통에 간수하고있었다.

먼발치서 바라보시니 아까 그가 부르던 노래생각이 나시였다. 비애에 젖어 떨리던 목소리며 안타까이 호소하던 눈물에 대한 사연들이 모두 거짓이며 하잘것 없는것임을 가수자신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것이 분명하다. 그래도 유격대원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때문인지 그의 행동거지에는 기쁨조차 어려있는것 같았다.

그이께서는 가수이면서도 자기가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조차 모르고 제나름으로 흥분되여있는듯한 그가 측은하게 생각되시여 천천히 가수에게로 다가가시였다.

김인수는 그이를 뵈옵자 바이올린통을 든채 벌떡 일어서더니 굳어졌다.

《노래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런 깊은 숲속까지 따라와서 수고를 해주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손을 잡아쥐시자 앙상한 가수의 손은 바르르 떨리였다. 그는 서둘러 바이올린통올 내려놓고 두손으로 그이의 손을 맞잡아쥐며 긴장해서 말씀드리였다.

《장군님, 황송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고생이 얼마나 막심하십니까? 저희들 불쌍한 백성들은 그저 장군님 한분만을 믿고사는데 이렇게 건강하신 장군님을 뵈오니 정말… 기쁩니다.》

김인수는 눈을 슴벅거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고맙습니다. 여기 좀 앉아서 이야기를 해볼가요?》

장군님께서는 먼저 풀밭에 앉으시여 옆자리를 가리키시였다. 그러나 김인수는 선채로 두손을 마주잡고 손바닥을 비비고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가 몹시 긴장되였다는것을 알아보시고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그의 집안형편에 대해 대충 알아보신 다음 소탈하신 어조로 물으시였다.

《그래 노래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학교에 다녔습니까?》

《아니올시다. 학교라고는 보통학교에 좀 다닌것뿐이고 노래는 그저 여기저기서 얻어들은것을 밑천으로 제멋대로 부르는것입니다. 음악이라는것이 본시 본격적으로 하자면 돈이 많이 듭니다. 제 노래라는것이야 흉내를 내는데 불과한것입니다.》

김인수는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리여 마주쥔 손을 풀고 손세까지 섞어가며 물으시는 말씀에 대답하였다.

《체계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혼자힘으로 그만큼 노래를 부른다면 대단한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인수가 내려놓은 바이올린통을 열고 활이며 줄을 매만져보시면서 말씀하시였다.

《그래 악기도 혼자힘으로 배웠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니 학교는 말할것 없고 어디 가서 개인교수를 좀 받자고 해도 어렵습니다.》

김인수는 장군님께서 자기 사정을 리해해주시고 더구나 자기 재능을 높이 쳐주시자 흥분하여 얼굴이 벌개지더니 말소리가 점점 더듬거려졌다.

《그럴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꼼짝 못하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감기기운이 좀 있는것 같은데 그런 목으로 계속 노래를 부르면 목을 아주 못쓰게 만들지 않습니까?》

김인수는 놀란듯 머리를 번쩍 쳐들었다가 이어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지난 봄에 걸린 감기가 통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못쓰게 된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류행가나 부르는데야 무슨 큰일이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아주 판이 나면 이걸로 대신 하면 될것입니다.》

바이올린통을 내려다보며 하는 김인수의 목소리는 서글프게 떨리였다.

《그래서야 됩니까? 왜 그냥 떠돌아다니며 류행가나 부르다 말겠습니까? 좋은 노래를 불러야지… 그러나저러나 감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땅의 날씨라는것이 낮에는 내리지지다가도 밤이면 선선해서 감기 걸리기가 좋습니다.》

김인수는 시험을 치는 아이처럼 다시 두손을 마주잡고 서서 그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였다.

조선사람으로서 세상에 이름높으신 **김일성**장군님을 찾아뵈옵고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표하려고 여기까지 따라오기는 하였으나 그이로부터 이처럼 따뜻한 말씀을 들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못했기때문에 그의 얼굴에는 감동과 경탄이 번갈아 비끼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들나들해진 와이샤쯔를 그래도 단정히 빨아입고 바지주름을 꼿꼿이 세운, 바로 그때문에 더 측은해보이는 이 가난한 방랑가수를 부드럽게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나가시였다.

《자기 재능을 그렇게 헐값으로 쳐서는 안됩니다. 그런것도 결국은 하나의 타락과 같은것입니다. 김인수동무 역시 자기가 부르는 이 류행가에 빠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놈의 세상 아무리 해도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더러운 세상인데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만두겠다는 사상이 싹튼것 같습니다.》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인수의 손을 따뜻이 잡아 가까이에 앉히시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예술이란 고상한것이고 노래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있습니다. 내보기에는 김인수동무에게는 좋은 재능이 있습니다. 나도 노래를 좋아합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김인수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며 껄껄 웃으시였다.

김인수는 놀란듯 사령관동지의 인자하신 얼굴을 우러러보았다. 한번 호령하시면 산천초목도 가로눕는다는 천하의 명장이시며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도 노래를 좋아하신다니 놀랍기만 하였다.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학교다닐 때 동무들가운데도 노래를 잘하고 이런 바이올린을 잘 켜는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그가운데 한사람은 김인수동무와는 달리 잘사는 집 아이였습니다만 우리와 친하게 되면서 차츰 혁명적인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짓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유격대에도 노래를 잘 짓는 동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격대에서 부르는 노래들이 모두 우리 동무들이 지은것들입니다.》

김인수의 눈은 점점 커졌다. 하기는 유격대의 노래를 어떤 전문작곡가가 지어주지 않았으리라는것은 짐작이 간다. 그러나 유격대자체에서 노래를 지어 부른다는 말씀을 듣고보니 어쩐지 자기가 단지 유격대를 잘 몰랐다는 생각만 드는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것 같은 송구한 생각까지 들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고개를 떨구는 그의 표정을 이윽히 바라보시다가 여전히 부드러우시면서도 심중하신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내가 이제 노래는 고상하고 힘이 있다고 말했지만 모든 노래가 다 그런것은 물론 아닙니다. 같은 노래라 해도 내용에 따라 저속하고 무기력한 노래도 있습니다. 김인수동무는 오늘 우리 동무들앞에서 성의껏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들은 사람들을 혁명에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눈물과 영탄을 강요하는 노래였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들이 나라와 민족이야 어떻게 되였든지 락화류수에 정신이 팔려 되는대로 살아간다든가 그 무슨 잃어버린 옛사랑이 그리워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든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가령 그런 일은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 유격대원들이 씩씩하고 혁명적인 노래가 아니라 락화류수라든가 사랑에 우는 남양아가씨에 대해 노래하며 눈물을 짓고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을 잡고 원쑤와 싸워 조국과 민족을 구원할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 노래의 나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대에는 한 처녀가 찾아왔습니다.》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방금 필네를 돌려보내신 마가목숲쪽을 얼핏 돌아보시고나서 말씀하시였다.

《그는 여섯살때 두 부모를 지주놈때문에 잃었습니다. 열두살에 난 그의 오빠가 어린 나이때부터 험한 로동을 해서 그를 벌어먹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빠는 유격대에 입대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다 전사하였습니다. 그 오빠는 제힘으로 <세계혁명가>라는 155절이나 되는 굉장한 노래를 지어 우리 동무들을 혁명에 불러일으키던 훌륭한 유격대원이였습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처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혁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서슴없이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의 누이동생도 그사이 자라서 오빠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빠가 없는 대신 오빠의 애인이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두 처녀는 이 깊은 숲속에서 만나 서로 그러안고 울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동무는 날마다 우는 어떤 남양아가씨에 대해 노래불렀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깊은 숲속에서 만나 눈물짓는 우리 두 처녀의 눈물에 비추어볼 때 동무가 애절하게 부르는 그 남양아가씨의 눈물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노래가 사람들을 참된 삶의 길로 이끄는것을 지향하는 예술이 아니라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안일부화의 길로, 탄식과 영탄의 길로 부르는 그런 노래이기때문입니다.》

김인수는 명색이 예술가라고 하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예술의 깊은 세계로 파고드시는 **김일성**동지의 영채로우신 안광을 황홀해서 바라보면서 차츰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그자신은 자기를 마음속으로부터 예술가라고 치부해본적은 없었으며 자기의 노래 역시 밥벌이수단으로 생각했을뿐 그 이상의것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나아가서 예술이라는것자체가 화장품처럼 눅은것 비싼것이 있을뿐이지 통털어 밥벌이수단이라는 의미에서는 같다고 생각하고있었다. 화려한 무대에서 노래부를수 없는 자기의 불우한 처지를 그렇게 위안해왔던것이다.

이제 **김일성**장군님께서 자기의 속된 노래를 꾸중하실 대신 예술자체를 고상한것으로 쳐주시고 예술가라는것을 값높이 일러주시니 그것만 해도 그로서는 고맙기가 그지없었다.

《장군님.》

하고 깊이 머리숙이고있던 김인수는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제가 부르는것이 무슨 예술이겠습니까. 저는 돈에 팔려다니는 노리개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장군님 말씀을 듣고보니 저는 저도모르는사이 왜놈들과 부자놈들이나 좋아할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것을 모르고 노래를 좋아하다나니 돌아가는 류행가를 아무 생각없이 흉내를 냈습니다. 이제 저같은것이 바로 살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머리를 길게 길러서 빗어붙인 방랑가수의 괴로와하는 모습을 측은하게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아까도 말했지만 노래가 다 나쁜것이 아닙니다. 노래는 그 내용에 따라 사람들을 슬프게도 만들고 기쁘게도 만들며 용감하게도 만들고 무기력하게도 만드는것입니다. 김인수동무는…》

하고 장군님께서는 동무라는 말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인민들을 나라를 찾기 위한 싸움에 불러일으키는 노래를 불러야 할것입니다. 그들이 슬픔에 눈물짓더라도 빼앗긴 나라를 도로 찾고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기 위한 싸움에 떨쳐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괴롭더라도 밝은 앞날이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나가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러자면 노래부르는 사람자신이 씩씩하게 혁명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상철동무, 그 노래집을 좀 봅시다.》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령병을 부르시여 그에게서 자그마한 수첩같은것을 받아쥐시였다.

《자,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유격대에서 부르는 노래집입니다. 물론 가수인 동무의 눈으로 보면 좀 단조로운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많은 조선의 아들딸들을 혁명에로 불러일으킨 훌륭한 노래들입니다. 이런 노래들을 우리 인민들에게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훌륭한 혁명의 무기로 될것입니다.》

김인수는 정중한 표정으로 장군님으로부터 노래집을 받아들었다. 유격대의 출판처에서 등사로 찍어낸 그 노래책은 이미 여러군데 종이를 덧대고 부치기도 한 오랜것이였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찾자고 밀림속에서 온갖 시련을 다 겪으며 싸워나가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노래책이라는것을 생각할 때 김인수는 그이의 말씀속에 깃들인 보다 깊은 뜻을 깨닫는듯하였다.

방금까지도 총잡고 둘러앉은 유격대원들앞에서 비애에 젖은 목소리로 《남양아가씨》를 불렀다고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자기라는 인간이 혐오스럽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장군님, 저도 이 노래를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그 노래들은 한구절만 해도 원쑤들에게 목숨을 빼앗길수 있습니다. 그만큼 왜놈들이 두려워하는 노래들입니다. 그러니 아무데서나 부를수는 물론 없습니다. 동무는 그 노래들을 장소나 대상을 잘 골라서 인민들의 가슴에 넣어주어야 할것입니다. 이런 혁명의 노래는 꼭 폭탄과 같습니다. 도화선에 심지만 달아놓으면 튀듯이 이 노래들은 어디 가서 한번씩만 불러도 인민들속에 커다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김인수는 손바닥안에 드는 자그마한 노래책을 번지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다.

《제가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왜놈에게 붙잡혀 죽는다 해도 원이 없겠습니다. 저는 사실 청지동에서 다른 청년들과 함께 여기까지 유격대의 짐을 메고 따라왔지만 각오가 똑똑한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래도 입대를 청원했지만 역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지휘관의 말이 왜놈들과 싸우는데는 반드시 총을 잡고 싸우는 길만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장군님 말씀까지 듣고 보니 그 지휘관의 말이 옳은것 같습니다. 장군님 말씀대로 저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대신 장군님께서 저에게 이런 노래를 어디 가서 부르라는것을 가르쳐주도록 아래사람들에게 지시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조선땅 어디에나 장군님의 령을 받드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압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의 지도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허허허, 좋습니다. 가보십시오. 내가 우리 동무들과 토론해보겠습니다.》

김인수와의 대화는 방금까지 필네때문에 그렇게도 아프게 죄여드시였던 그이의 가슴을 어느 정도 풀어드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인수틀 돌려보내신 다음 조직과장을 부르시여 그가 떠나가는 지방의 조직과 련계를 짓도록 조치를 취해주라고 이르시였다.

12

밀림 전체가 고열을 내며 몸살을 앓는것 같았다. 끝을 내다볼수 없는 대원시림, 해빛마저 비쳐들지 못하는 이 거목의 심연속에 외롭게 떨어진 가냘픈 한 녀인의 몸에서 이처럼 초막이 온통 땀에 절게 하는 열이 나리라고는 생각할수 없었다.

그것이 곧 철구아주머니의 생명의 연소이며 이 연소가 끝날 때 철구아주머니는 마치 다 탄 초불처럼 이 세상에서 스러지고말리라는것을 생각할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시도 가만 앉아계실수가 없었다.

찜질물은 몇참을 못가서 곧 미지근해졌다. 찬물을 하나가득 길어다놓을수 있는 큼직한 물드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가, 이 원시림속에 정신을 못차리는 열병환자를 끼고 홀로 남으신 김정숙동지께는 법랑소랭이 한개와 양은밥그릇 두개가 있을뿐이였다.

캄캄한 밤이였다. 흐리든 개이든 이 초막에는 달빛도 별빛도 비쳐들지 않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랭이를 안고 옹달샘으로 달리시였다. 마음이 급하여 물을 버릴 생각도 못하고 캄캄한 어둠을 맞받아 달리다가 나무뿌리에 걸채여 넘어져서야 소랭이의 물을 마저 쏟아버리고 어디선가 비치고있을 별빛을 찾아보시였다. 미지근한 소랭이의 물이 튀여서 한쪽어깨와 얼굴이 축축히 젖었다. 어쩐지 선뜩한 랭기가 느껴지면서 진저리가 쳐지셨다.

(이러다가 나까지 쓰러지면 어찌나?)

이런 생각이 머리속을 스치자 그이께서는 눈앞이 캄캄하시였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 일이였다. 밀림속에 열병환자를 데리고 단둘이 남았으니 밤낮으로 환자를 안아주고 쓸어주고 열을 낼 때는 안고 누워계셔야 했다. 그렇기때문에 처음 부대가 떠나갔을 때 반나절 품을 팔아서 빨래부터 하고 초막안을 언제나 깨끗하게 거두시였다. 그러나 병이 그런것을 아랑곳할것인가. 게다가 김정숙동지자신께서도 지나간 전투로정에 너무나 지친 몸이시였다. 그런 몸으로 줄곧 밤을 밝히며 중환자를 돌보시자니 얼핏 보기엔 두 환자중 누가 더 축갔는지 가려볼수 없게 되였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에게 힘은 얼마든지 있고 전우를 위한 정성이라면 얼마든지 바칠수 있을것 같으시였다. 몇달을 굶고 몇달을 밝힌대도 그것으로 철구아주머니의 생명을 지킬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견딜것 같으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 철구아주머니는 이제는 젊지 않은 몸인데 외로운 그가 의지할데란 우리 혁명의 품밖에 있는가, 전우들밖에 있는가 하시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 자신의 피곤이나 고통을 생각하실 겨를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도 쓰러질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섬찍하시였다.

이 밀림속에서 나마저 쓰러진다면 철구아주머니는, 가난과 봉건의 쇠사슬에 얽히여 시달리다 시달리다 혁명에 나서서 이제는 귀밑머리가 희여가는 저 외롭고 불쌍한 철구아주머니는 누가 돌봐줄것인가. 그래 철구아주머니를 위해서도 내가 앓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축축히 젖은 군복의 어깨와 소매를 꼭

쥐여짜고 얼굴의 물기를 땀과 함께 훔쳐내린 다음 머리를 매만져넘기며 심호흡을 두어번 하시였다. 그리고 옹달샘으로 침착하게 다가가시였다.

옹달샘에 앉아 고개를 드시니 초막에서 비쳐나오는 불빛이 얼른얼른하였다. 물기머금은 음산한 바람이 굶주린 맹수의 웅글은 울부짖음처럼 먼곳에서부터 메아리를 끌고 서서히 숲정수리로 다가왔다. 초막의 불빛은 벌써부터 그 어떤 공포를 예감하는듯 애처롭게 파르르 떨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치 숨이 간간해있는 철구아주머니자신을 보는듯 마음이 황황해지시였다.

서둘러 물을 가득 퍼담아들고 이번에는 한방울도 넘기지 않으리라고 조심을 하면서 어둠속을 종종걸음을 치셨다.

(침착하자. 나마저 쓰러지면 정말 철구아주머니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거듭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뇌이면서도 파득거리던 초막의 불빛이 우수수 숲을 울리는바람에 구불뜩하고 가로눕자 이 생각 저 생각 다 버리고 달리시였다.

그러다가 열걸음도 못가서 눈앞이 휘- 내돌리면서 땅바닥이 흔들흔들하는듯한 환각에 사로잡히여 그만 비칠비칠하다가 쓰러지셨다. 한소랭이 가득 담긴 물이 그채로 온몸을 덮씌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잠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설 엄두를 못내고 숨을 톺으시였다. 생각하면 벌써 근 열흘 가까이나 굶다싶이하시였다. 부대가 떠나면서 두사람분의 식량을 남겨두고 갔지만 간고한 싸움길로 떠나간 부대가 언제 돌아올지 기약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래서 환자에게만 죽을 쒀먹이고 자신께서는 거지반 굶으나 다름없이

보내시였다. 그렇게 축간 몸에 곡기조차 변변히 못하시고 거기에 하루종일 눈 한번 붙이지 못하시니 빈혈이 오고 어지럼증이 날것은 당연한 일이였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늘 자신이 덤비다가 그런거라고 생각하시였다.

한참이나 지나서야 가까스로 숨을 툐고 일어서신 그이께서는 함빡 물을 들쓴 웃가지들을 다시 쥐여짜면서 혼자 말씀하시였다.

《래일 도끼를 가지고 나무뿌리들을 싹 찍어버려야겠어.》

그 어방에는 나무뿌리라고 별로 없었다.

김정숙동지께서 가까스로 물 한소랭이를 길어가지고 초막안에 들어서시니 철구아주머니는 자리에서 굴러나 거의 초막밖으로 기여나오게 되였다.

《물, 물, 나 물－》

인기척을 느끼자 철구아주머니는 악을 쓰듯 부르짖으며 벌렁 몸을 뒤채였다. 살은 쭉 빠졌지만 체대가 큰 녀인이 산발을 한채 네활개를 쭉 뻗치고 버드럭거리니 가뜩이나 힘이 진한 김정숙동지께서는 다루기가 아름차시였다.

《철구아주머니, 자 나한테 안겨요. 자리에 가 눕자요. 그러면 내 물이랑 먹여줄테니… 자, 나한테 꼭 안겨요.》

《나 물, 정숙동무, 나 물 줘－ 물…》

철구아주머니는 애기처럼 그이의 가슴에 와락 매달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물을 졸랐다.

누렇게 뜬 얼굴에 흰 귀밑머리가 가로세로 헝클어지고 풀이 엉켜붙은듯 입술이 말라터지고 보풀이 인 병든 전우의 화끈 단 몸을 그러안으니 련민의 정에 걷잡을수없이 눈귀가 젖어드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까스로 철구아주머니를 자리에 옮겨다눕히고 땀에 착 달라붙은 머리칼을 하나하나 쓸어넘겨주며 숟가락으로 양은그릇에 끓여놓은 물을 떠넣어주시였다.

《물, 물, 물 달라구– 아이구, 가슴이야, 물.》

철구아주머니는 숟가락으로 떠넣어주는 물이 성차지 않다고 도리질을 하다못해 나중에는 발까지 굴렀다. 그러나 이제는 숟가락으로 떠넣어주는 물마저 지내 많아진듯하였다.

《철구아주머니.》

김정숙동지께서는 마침내 눈귀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씻을념도 않고 버드럭거리는 철구아주머니를 꼭 끼고 누우시였다. 이렇게 먹고싶어하는데, 철구아주머니를 위해서라면 물이 아니라 피라도 아깝지 않겠는데 철구아주머니자신을 위해서 그 간절한 청을 매정하게 잘라야 하는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우시였다.

《정숙이 부탁이야, 나 물 한모금만 달라구…》

김정숙동지께서는 정말 애기를 달래시듯 환자를 꼭 끼여안으시고 어깨를 다독거리시였다.

《철구아주머니, 이 밤이 새고 열만 내리면 그까짓 물이 뭐겠어요. 그러니 오늘 밤에 꼭 열을 떨구자요. 우리가 <고난의 행군> 을 해오던 생각을 해봐요. 그때에 비하면 목마른것쯤 참는게 그리 힘들것도 없지 않아요.》

그러나 무슨 말을 해도 환자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철구아주머니는 마침내 김정숙동지를 뿌리치고 우격으로 일어나려고 들었다.

《철구아주머니, 이러지 말아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내가 가지고있는것이란 물밖에 없는데 그렇게 자꾸 달라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네, 철구아주머니, 그래서 물을 마시면 우리는- 우리는 다시는 장군님을 못뵙게 돼요.》

김정숙동지께서는 환자의 몸을 힘껏 그러안고 화독처럼 달아오른 얼굴에 두볼을 비비며 말씀하시였다. 줄줄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철구아주머니의 가슴자락으로 흘러들었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돌아치던 철구아주머니는 갑자기 김빠진것처럼 엎어져서 흐느끼며 울었다.

이러한 밤이 그 몇번이나 흘렀던가. 김정숙동지께서는 날자를 셈하기 위하여 천막앞에다 서른개의 버섯을 꿰여매다시였다. 그 버섯이 절반이나 없어지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다.

여기에 날씨마저 심술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철구아주머니에 대한 련민과 동정때문에 병을 그르칠가봐 늘 마음을 다잡느라고 애를 쓰다보니 날씨걱정은 덜하시였다.

그러나 정작 대원시림에 사나운 폭풍이 들이닥치자 그 어마어마한 위협앞에 긴장되지 않을수 없으시였다.

낮부터 어수선한 비구름이 낮추 떠돌아다니더니 그것이 점점 두터워지면서 날도 저물기전에 숲속은 캄캄해졌다. 아무래도 큰비가 올것 같다고 생각한 김정숙동지께서는 미리 도끼로 나무가래를 만들어서 초막둘레에 도랑도 치고 칡넝쿨로 풀단들을 단단히 얽어놓기도 하시였다. 아니나다를가 날이 저물자 먼저 우뢰소리가 울려오더니 처음부터 억수비가 채찍처럼 후려갈기였다. 삽시에 숲은 통채로 물속에 잠긴것 같이 함빡 젖어버렸다. 공교롭게도 이 밤따라 철구아주머니의 신열은 여느날보다 더 높았다. 초막안은 비바람때문에 으시시해지는데 비와 함께 터져오른 폭풍을 맞받아 초막의 웃설미들이 떠들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담요와 옷가지들을 있는대로 다 씌워주어도 환자는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덜덜 떨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환자를 꼭 끼여안고 초불처럼 가냘프게 팔딱거리는 생명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것인가 하고 속을 바질바질 태우시였다.

초막으로 새는 비방울이 점점 굵어진다.

《철구아주머니, 기어이 이겨내야 해요. 조금만 참으면 인차 날이 들고 열도 내릴거예요. 내 잠간 나갔다 인차 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철구아주머니의 귀전에 대고 이처럼 다정히 속삭인 다음 바깥으로 달려나가시였다.

막막한 어둠이 꽉 들어찬 공간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비줄기와 폭풍이 제멋대로 휘둘러치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칡넝쿨을 찾아들고 초막을 이리저리 엇갈아 동여나가시였다. 초막꼭대기로 해서 몇바퀴 가로질러 동였으면 좋을듯하였으나 몇번 칡넝쿨을 던져봐야 폭풍때문에 마음대로 건네여놓을수가 없으시였다. 겨우 바람이 불어오는 북쪽으로 돌아가서 몇바퀴 건네여놓고 숨을 돌리는데 본격적인 시련은 이제부터라는듯이 번개가 번쩍하더니 꽈르릉하고 우뢰가 터졌다. 그뒤로 방금전까지 불던 바람과는 비교도 안될 어마어마한 폭풍이 터졌다. 숲은 그 첫타격에 벌써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였다. 하늘을 찌를듯이 아스라하게 솟아있던 아름드리 거목들이 마치 갈대처럼 휘유- 휘유- 아츠러운 소리를 지르며 남쪽으로 휘여졌다. 어디선가 와지끈하고 나무가지가 부러져나갔다. 바람에 질세라 비도 더욱 세차게 와- 와- 소리치며 퍼부어댄다. 바람은 비소리를 눌러보겠다고 더욱 사납게 울부짖었다. 이번에는 멀지 않은곳에서 우르르 하는 소리에 이어 골안을 짓뭉개는것 같은 소리가 울려왔다. 강대가 넘어진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섬찍한 생각이 드시였다. 초막뒤에도 강대 한그루가 서있었다. 북쪽으로 20m 남짓 떨어져있는 그 강대가 면바로 불어오는 폭풍을 맞고 넘어진다면 초막은 산산쪼각이 날것이다. 생나무가 저렇게 활등처럼 휘여지는판에 마른 강대가 저 폭풍속에서 견디여내기는 힘들것 같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아무래도 마음을 놓을수가 없어 그길로 문제의 강대가 서있는곳으로 가보시였다. 달려가면서 가늠해보시니 생각했던것보다 거리는 더

가까운것 같았지만 나무의 크기는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상아지가 넘어지는 힘으로 초막을 후려친다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일것이다.

폭풍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어둠속에 나무그루를 잡고 살펴보시니 마른나무가 돼서 휘여지는것은 오히려 생나무보다 덜한듯도 하였다.

어쩔것인가 하고 잠시 망설이시는데 발밑에서 뿌지직뿌지직 하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 찬찬히 살펴보시니 나무가 뿌리채 떠들리여 넘어질 차비를 하고있었다. 갑자기 불어난 탕수가 나무밑을 마구 들쑤셔서 벌써 끝이 잘리여진 굵은 뿌리들이 비죽이 땅우에 솟아있었다. 비는 갈수록 세차게 퍼붓고 폭풍은 머리 쳐든것은 모두 휩쓸어버리겠다는듯 사납게 울부짖었다. 강대나무의 상아지에서는 삭정이가 마구 꺾이여 휘뿌려지는데 밑뿌리가 그때마다 움씰움씰하며 기우뚱해졌다.

위험은 벌써 촉박하였다. 우선 철구아주머니를 안전한곳으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급히 초막으로 달려가시였다.

그러나 초막앞에 이르자 그이께서는 주춤 멎어서시였다. 숲도 바람도 비도 다 아우성치고 비명을 지른다. 그 야생적인 울부짖음속에서 너무나 가냘픈 철구아주머니의 씹어삼키는듯한 신음소리가 울리여왔다.

김정숙동지의 가슴은 징하니 젖어드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 그렇게도 심려하시던 철구아주머니, 녀자의 몸으로 혁명을 하겠다고 일찌기 투쟁의 길에 나서서 오늘까지 온갖 풍상고초를 달게 여기며 용감하게 싸워온 철구아주머니, 그 어떤 시련과 고통속에서도 전우들을 돌보고 그들을 어머니처럼 따뜻이 감싸주던 부드럽고 강인한

철구아주머니가 지금은 자기 몸 하나를 건사하지 못하여 저렇게 남몰래 신음소리를 지르는데 저런 환자를 이 폭풍우속에 어떻게 내다 눕힌단말인가.

입을 감쳐물고 잠시 생각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도끼를 찾아들고 강대그루가 있는곳으로 다시 달려가시였다. 캄캄한 어둠과 담벽같은 비줄기와 맹수처럼 울부짖는 폭풍이 그이의 가슴을 뒤로 떠밀쳤다.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검부레기처럼 날려갈것도 같았다. 촉기가 와서 팔다리에 힘도 잘 주어지지 않으시였다. 탕수는 발목을 휘감아치고 폭풍은 온몸을 허공으로 떠밀어올리자고 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도끼를 으스러지게 틀어쥐고 장군님께서 맡겨주신 혁명전우의 생명을 위하여 그이께서 손수 지어주신 초막을 폭풍의 피해로부터 기어이 지켜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지시였다.

(나무만 미리 찍어버리면 철구아주머니는 아무 일 없어. 래일에는 밝은 해가 솟아오르겠지.)

강대는 그사이에도 눈에 알리게 기울어져서 나무결이 뒤틀리는 소리가 났다. 서뿔리 도끼질을 하다가 그때문에 나무를 더 빨리 넘어뜨리게 되지는 않을가? 하는수 없다. 그때는 내 몸을 들이대자. 그러나 어쨌든 도끼질은 바람질방향을 피하여 한옆으로 해서 엇비듬히 나무를 넘겨뜨려야 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캄캄한 어둠속에서 나무꼭대기를 한번 쳐다보시고 도끼를 쳐드시였다. 두다리를 뻗디디고 량껏 두팔을 쳐드신 그이께서는 온몸의 힘을 다 모아 도끼를 휘둘러박으시였다. 꽝! 하고 도끼날이 깊숙이 먹어드는 순간 하늘에서 번쩍 번개가 쳤다. 뒤미처 꽈르릉 하고 우뢰가 운다.

《실컷 퍼부어봐라, 우리는 지지 않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리내여 웨치시며 도끼날을 꽉 물고 놓지 않는 나무그루에 어깨를 들이대고 비틀어뽑으시였다.

어느덧 비물과 함께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이께서는 그것을 훔칠념도 않고 그냥 도끼를 휘둘러대시였다.

꽝! 꽝! 꽝! 도끼질소리는 울부짖는 폭풍, 광란하는 폭우를 맞받아 점점 세차게 울려갔다.

얼마쯤 도끼질을 한 다음부터는 매번 나무를 살펴야 하고 다시 얼마쯤 가서는 도끼질을 하기전에 살피고 도끼질을 하고는 재빨리 몸을 초막쪽으로 돌려대고 떠미시였다.

만일 그것이 따뜻한 날 대낮에 하는 도끼질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것인가. 물기때문에 도끼날이 미끄러져 발등을 찍을 걱정도 없고 정확히 겨누기도 할것이며 가끔가끔 쉴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런 날 그런 때라면 벌써 여러끼를 굶다싶이한 몸으로 이처럼 결사적인 도끼질을 하지도 못할는지 모른다. 잠시 숨돌릴 짬도 없다. 캄캄한 어둠속이라 도끼밥을 큼직하게 떼내기 위해 겨누어볼수도 없다. 단지 사령관동지께서 아끼시는 혁명전우를 위험에서 건져내야겠다는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사나운 비바람을 맞받아 도끼를 휘둘러나가시는 김정숙동지의 온몸에서는 피가 끓고 살이 뛰였다.

쩡! 쩡! 쩡!

도끼밥이 사방으로 흘어지는것이 알린다. 폭풍은 발악적으로 기승을 부렸다. 비도 여전히 채찍처럼 숲속을 후려갈긴다.

마침내 강대가 옆으로 기울어지려는 기미를 느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재빨리 몸을 날려 초막쪽에 붙어서서 어깨를 들이대시였다.

생천 찢는 소리와 같은 아츠러운 소리를 지르며 강대가 넘어졌을 때 그이께서도 나무와 함께 쓰러지시였다. 그리고는 억수로 퍼붓는 비속에 그대로 기맥을 놓고 한식경이나 정신을 잃은것처럼 나무에 몸을 기대고 누워계시였다.

한참이나 지나서야 정신을 가다듬으신 그이께서는 극도로 지친 몸을 가까스로 일으켜세워 초막으로 다가가시였다.

초막은 캄캄하였다. 비바람에 고깔불이 꺼진것이다. 까닭없이 섬찍한 생각이 든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달음에 초막으로 뛰여들어가시였다. 철구아주머니는 아이들처럼 고개를 휘저으며 열에 떠서 헛소리를 치고있었다.

《철구아주머니, 정말 미안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서둘러 불을 살려놓은 다음 철구아주머니를 꼭 끼여안고 홧홧 달아오른 볼에 자신의 볼을 비비며 속삭이시였다.

다정한 김정숙동지의 속삭임소리를 듣자 철구아주머니는 화들화들 떨리는 손으로 그이의 얼굴을 어루더듬었다.

퀭하니 꺼져들어간 눈확에서 잔주름을 타고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울면 안돼요. 억세게 싸워이겨야 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열병환자를 꼭 끼여안고 다독거리며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시였다.

문명한 활무대에 나서 싸우자

그것은 둘이 함께 사령관동지를 모시고 곡절많은 혁명의 길을 울고웃으며 괴로울때나 줄거울 때나 자주 부르던 노래였다.

철구아주머니는 김정숙동지의 손을 꼭 틀어쥐고 가냘프게지만 미소를 지었다. 기어코 견디여내겠다는 굳은 결의가 어린 그런 미소였다.

이튿날아침 사나운 폭풍우는 악몽과도 같이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바깥에 나서보니 숲은 마치 방금 지나간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아름드리나무들이 여기저기 넘어져있고 어린 나무들은 뿌리채 뽑히여 대지의 상처같은 생땅이 드러난데도 있었다. 초막 언저리에는 떠내려갈만한것은 다 떠내려가버린대신 온갖 검부레기와 삭정이같은것들이 어수선하게 걸려있었다.

초막끝에 매달아놓은 버섯꿰미만이 아침해살을 받아 번쩍거리며 가볍게 날리고있었다.

격렬한 싸움과 같았던 그 폭풍우의 밤을 지나자 철구아주머니는 며칠 몸이 더치는것 같더니 이어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확실한 징조들이 나타났다.

며칠후부터는 초막에서 초간히 떨어진 실개울까지 소풍을 나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한번 덧난 입맛만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

하루는 철구아주머니가 죽사발을 들고 숟가락끝만 입술에 갖다대더니 참나물이야기를 비치였다.

죽사발이 비기를 안타깝게 지켜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말이 우선 반갑게 느껴지셨다.

약이랑 물이랑 머리맡에 챙겨두고 점심참까지 초막안에 들여다 놓으신 다음 참나물을 캐러 떠나시였다. 그러나 숲이 너무 깊고 장해서 잡초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짐승조차 발붙이지 못하는곳이였다. 어디서 푸성귀를 만난다는것이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단념하지 않고 그냥 숲속을 누벼다니시였다.

언젠가 장마비속을 행군할 때 어느 야산머리에서 우등불을 피우던 생각이 나시였다. 그 골짜기에서 풀밭을 본것만 같으시였다.

어쨌거나 그 방향으로 나가면 틀림없이 산나물을 만날수 있을것 같아 어방짐작으로 자꾸만 걸으시였다.

그날 김정숙동지께서는 수십리 숲속을 해종일 다니시다가 겨우 닥지싹과 참나물 몇잎을 뜯었지만 나물에 정신이 팔려 돌아가는사이 길을 잃으시고말았다. 키가 30m씩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깔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찬 숲속에서 길을 잃었으니 찾기가 여간 힘들것 같지 않으시였다. 무엇보다도 초막에 홀로 누워있을 철구아주머니가 지금쯤 시장기에 시달리고있을것을 생각하니 참을수 없이 초조해지시였다. 그래서 허둥지둥 달리셨지만 낯익은 나무도, 길도 나지지 않았다. 아침에 강냉죽 한공기를 마시고 떠나서 종일 숲속을 다니다보니 시장하고 피로하여 저도 모르는사이 다리가 접히군하시였다.

기진맥진한우에 차츰 밀려드는 어둠이 그이의 가슴에 검은 나래를 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느 나무그루에 등을 기대고 스르르 앉으시였다. 철구아주머니와

함께 헤쳐온 수만산하가 떠오르시였다. 싸움속도 아닌 이런 조용한 숲속에서 혁명동지를 잃을수는 없다고 생각하신 그이께서는 다시 입술을 앙다물고 일어서시였다. 말라터진 입술이 마치 헌데딱지가 앉은듯 버시럭거리면서 죄여드시였다. 그때 김정숙동지의 귀에 물소리가 들리여왔다. 낮에는 들리지 않던 물소리였다. 어둠이 나래를 펴고 별빛이 내려앉으면 가락맞춰 주절거리는 그 물소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너무나 기뻐 두손벽을 치셨다. 그이께서는 물소리를 찾아가시였다. 초막앞을 흐르는 그 시내가 분명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피곤도 시름도 다 잊으시고 그 물길을 따라 낯익은 초막가에 이르시였다.

철구아주머니는 초막밖 멀리까지 나와서 김정숙동지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앓는 자기만 못지 않게 수척해지고 입술에 물집이 잡히신 김정숙동지를 그러안으며 자기가 주책없는 말을 해서 이 고생을 시킨다고 눈물을 흘리였다.

그때로부터 철구아주머니의 병은 훨씬 차도가 있었다. 그는 다시는 산나물소리를 입에 올리지 않았고 아무데도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거의 하루건너끔씩 나물하러 떠나가시였다. 이제는 시내를 따라 한 20리 내려가면 쉽게 산나물이 있는 골짜기를 찾으실수 있었다.

오늘 두사람은 시내가에 앉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두다리를 물속에 잠근채 무릎우에 눕힌 철구아주머니의 머리를 빗겨주시였다. 철구아주머니는 그이의 가슴에 비스듬히 기대여누워 어린애처럼 공순하게 머리를 내맡기고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한오리한오리 머리칼을 세이듯 조심스레 빗질을 하시였다. 걸핏하면 머리카락이 한줌씩 빠져나왔다. 워낙 숱이 많지 못한 머린데 이렇게 빠지다가는 인차 머리밑이 드러날것만 같았다. 그래서 조심조심하면서도 흰머리가 나지면 몰래 슬쩍 뽑아서 비벼던지군하시였다.

《아이구 졸려.》

철구아주머니는 나무가지사이로 비껴들어오는 해빛이 부신듯 눈을 쪼프리며 중얼거렸다.

《졸리면 자지요. 푹 한숨 자고나면 몸에 퍽 좋을거예요.》

《그렇지만 자지는 않겠어.》

철구아주머니는 일부러 이마살을 찌프리며 말하였다.

《호호호, 정말 철구아주머니의 마음은 알수 없군요.》

철구아주머니는 그저 빙그레 웃었다.

《이젠 우리가 부대를 떠난지도 퍽 오래 됐지?》

한참 침묵이 흐른후 철구아주머니는 먼 하늘을 초점없이 바라보며 혼자소리처럼 말하였다.

《꼭 30일, 한달이 됐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갑자기 큰 충격을 받고 고개를 번쩍 들어 그날 사령관동지께서 멀어져가시던 숲사이를 바라보시였다.

《이제는 장마도 들었으니 좀 나을는지…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가…》

그리움에 축축히 젖어드는듯한 철구아주머니의 말소리를 들으며 김정숙동지께서는 눈을 슴뻑이시였다.

많지 못한 식량예비를 다 초막에 떨구어두고 퍼붓는 비속에 떠나간 대오였다. 풀 한대 자라지 못하고 짐승조차 발붙이지 못하는 이런 원시림속을 뚫고나간 부대가 어떻게 싸움의 길을 톺아나갔을것인가.

사령관동지께서는 한달후에 꼭 찾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생소한 이고장에서 어떤 정황에 부딪쳤을지 모르는 부대를 생각할 때 안전한 숲속에 있는 자기들이 부대를 기다린다는것이 어쩐지 송구스럽게 생각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도 철구아주머니도 자기들때문에 사령관동지께서 더 심려하시기를 바라지 않았으며 애써 그런데로 생각을 끌어가지 않으려고 화제를 돌리군하였다. 하지만 그리움은 어찌할수 없었다. 말은 비치지 않았지만 초막에 매달아놓은 서른개의 버섯이 거의 없어져가자 그들은 공연히 허둥거리면서 마치 당장 어디론가 떠나갈 사람들처럼 배낭속을 정리하고 옷매무시들을 살피군 하였다. 그러나 실지 철구아주머니의 병세는 고비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아직 먼길을 걸을 형편은 못되였다.

한참 그렇게 서둘러대다가 문득 현실로 돌아오면 서로 눈치를 살피며 게면쩍어하였다. 어려운 싸움속에 있을 부대를 생각할 때 사령관동지께서 그 누군가를 보내주시기를 은근히 기다리고있다는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였다.

《지금쯤 부대는 어디에 있을가?》

철구아주머니는 자기가 날자를 물은것은 다른 뜻이 없고 그저 부대일이 궁금해서 물어본데 지나지 않는다는듯이 슬쩍 이렇게 중얼거렸다.

《사령관동지께서 이해 여름은 두만강줄기에서 활동하실 방침을 제시하셨으니 그리 멀리는 가지 않았을거예요.》

《참, 난 정숙동무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

《아이, 철구아주머니, 무슨 그런 말을 다해요.》

느닷없는 철구아주머니의 말에 김정숙동지께서는 깜짝 놀라 눈을 흘기시였다. 새별같은 눈이 빛을 뿌리며 깜박거렸다.

철구아주머니는 핀잔을 받으면서도 멍하니 홍조가 피여오르는 축간 그이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나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심해, 부대도 못따라가고…》

《이제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요?》

철구아주머니의 말에 질색하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문득 초막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숨가쁘게 속삭이시였다.

《아니.》

황홀해서 그이를 바라보던 철구아주머니는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반쯤 들며 사위를 두리번거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대답에는 개의치 않고 철구아주머니의 몸을 일으켜 나무그루에 기대여앉힌 다음 서둘러 머리를 뭉그려주시였다. 그리고는 옆차기에서 권총을 뽑아들고 초막쪽으로 다가가시였다.

텅- 텅- 통나무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두 녀인의 가슴은 방망이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머리속에는 꼭같이 오늘이 바로 30일째 되는 날이라는 생각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재영이와 상철이를 거느리시고 초막밖에서 그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시였다. 그뒤에 기관총소대의 대원들이 주런이 서있다. 두 녀인이 허둥거리며 나무사이에 나타나자 사령관동지께서는 손에 들고계시던 나무토막을 땅바닥에 던지시였다. 손수 신호를 올리시였다고 생각하니 김정숙동지께서도 철구아주머니도 다시금 눈앞이 흐리였다. 그때문인지 성한 김정숙동지조차 락엽더미에 자꾸만 걸채여 비칠거리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웃으시며 두 꼬마의 등을 떠미시였다.

두 녀인이 전령병들의 부축을 받으며 다가왔을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먼저 철구아주머니의 손을 잡아흔드시였다.

《이제는 산보를 합니까? 병은 아주 일없습니까?》

마지막말씀은 김정숙동지에게 물으시는것이였다. 철구아주머니보다 더 많이 입에 물집이 엉켜붙은 김정숙동지의 쇠약해진 모습을 보시는 순간 그이의 안색에는 흐린 빛이 스치시였으나 인차 웃음으로 가리시고 기관총수들을 돌아보시며 우선우선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자 보시오, 우리는 전투에서 이겼을뿐아니라 병과의 싸움에서도 이겼소.》

그러자 강철룡을 비롯한 기관총소대원들이 우르르 두 녀인을 둘러싸고 반갑다고 떠들며 빙글빙글 돌아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강철룡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지금 부대는 유통사네 일가가 둥지를 튼 태평촌, 봉산동, 주부골을 한꺼번에 들이친 다음 적들을 더 넓은 지역에서 격파분쇄하며 대중정치사업을 한층 강화할 목적으로 세개방향에 갈라져나가 활동하고있다는것과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렇게 갈라져나간 부대들과 정치공작조들을 몸소 지도하시기에 몹시 분주한 나날을 보내신다는것, 지금도 어느 목재판에 나간 정치공작조의 활동을 지도하시며 아울러 그들을 군사적으로 뒤받침해주시기 위하여 친히 기관총소대를 이끄시고 바쁜 걸음을 떠나신 길이라는것을 아시게 되였다.

《그런데 저희들때문에 이렇게 몸소 오셨단말씀이예요? 모두 말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송구한 생각을 금할길 없어 강철룡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참 정숙동무도 답답하군. 일부러 가시자고 해도 못말리겠는데 적들을 치러 가시는길에 들리시는것을 어떻게 말린단말이요. 환자들에 대해 사령관동지께서 얼마나 심려하신다는것이야 정숙동무가 더 잘 알지 않소.》

김정숙동지께서는 더는 하실 말씀이 없었다.

기관총소대원들은 와- 숲으로 흩어져가서 나무를 베들인다, 장작을 팬다, 지고온 식량을 건사한다, 초막을 손질한다 하고 무슨 명절놀이나 온것처럼 떠들었다.

그지간에 사령관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와 철구아주머니에게 말씀을 하시였다.

《지금 부대의 동무들가운데는 아직 철구아주머니가 끙끙 앓고있을거라고 하는 동무들도 있고 정숙동무까지 열병이 옮아서 앓을지 모른다는 동무들도 있는데 나는 다

나았을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영동무와 상철동무도 나와 같은 주장이고…그런데 와보니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렇지요?》

김정숙동지께서도 철구아주머니도 아무 말씀을 못드리고 흐느끼기만 하였다.

《뭐 별일도 아닌데 왜들 울기만 합니까? 자, 이리들 와 앉으시오. 내가 우리 동무들 선물을 많이 가지고왔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두 녀인의 손을 끌어당기시여 초막앞에 앉히신 다음 자신께서도 락엽우에 허물없이 앉으시였다.

《가만, 동무들은 무엇을 좀 차비하지. 재영이는 기억하오? 초막뒤로 돌아가면 옹달샘이 있소.》

그러시면서 두 녀인을 향하여 즐겁게 웃으시였다.

《이번에 우리가 큰 전투를 련속적으로 치러서 후방물자를 많이 로획했습니다. 그래 병세는 어떻습니까? 열은 아주 떨어졌습니까?》

철구아주머니는 그냥 어깨를 들먹거리고있을뿐 말을 못하였다. 그래서 김정숙동지께서 그지간의 병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아직 완전히 추서지는 못했지만 병은 깨끗이 나았다고 보고드리시였다.

《그럼 됐습니다. 병만 나았다면 몸을 추세우는것은 그리 힘들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통졸임도 많이 생기고 밀가루, 사탕가루 같은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련유도 여러통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병에 대한 마지막 공세를 한번 들이대여봅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마치 큰 전투를 지휘하시듯 두팔을 쳐드시여 공세를 취하시는 시늉을 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활짝 열리여 미소를 지으시였다.

철구아주머니도 흐느끼던 고개를 들고 가볍게 웃었다. 그러나 그의 잔주름잡힌 눈귀에는 새로운 눈물줄기가 슴새여나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전에없이 목소리를 높이시여 통쾌한 이야기를 계속하시였다.

《여기서 우리가 떠날 때 굉장한 비가 퍼부었지요. 그래서 동무들은 아마 걱정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도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고생은커녕 우리를 따라오던놈들을 떼놓았다가 저 백일평이라는데서 그놈들을 매복하여 불과 10분만에 근 300명이나 소멸해버렸습니다. 이놈들이 바로 우리를 <토벌>한다고 압록강기슭에서 목을 지키고있던놈들인데 두만강쪽으로 훌쩍 건너뛰자 부랴부랴 옮겨온 봉천2려단놈들입니다. 이놈들을 옮겨앉자마자 사등뼈가 부서지게 쳐놓았더니 놈들의 <토벌>무력의 한 중심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두만강기슭에서 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는 중요한 열쇠를 쥐게 되였습니다. 이번에 현성부근을 한바퀴 휩쓸어버리고 돌아와서 보니 그놈들이 너무 혼이 나서 동네이름을 페문촌이라고 달았습니다. 겁이 나서 문을 닫아맨다는 소립니다. 그 다음 큰 전투가 이번에 우리가 치르고온 청지동진공전투입니다. 이번 전투의 성과에는 김준삼, 박인섭, 최병규 특히 리성림동무의 공로가 큽니다. 참, 리성림동무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압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치 론쟁이라도 하시듯 성림이가 로동복을 입고가다가 마차를 타고가는 공작대상인 자본가놈과 맞다들리여 그놈을 속여넘기기 위하여 마차와 경주를 하던 이야기를 구수하게 들려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이께서 성림에 대해 그렇게도 왼심을 쓰시며 말씀하시는 까닭을 너무나 잘 알고계시였다. 그래서 기쁘면서도 감동이 앞서 쉬 웃을수가 없으시였다.

철구아주머니는 어느새 흐느낌을 그치고 마치 옛말을 듣는 아이처럼 정열에 넘치시는 사령관동지의 얼굴을 황홀해서 바라본다.

《그 다음에 진행한 큰 전투가 유통사일가의 지반을 쓸어버리는 전투입니다. 유통사문제는 우리가 두만강기슭으로 진출하면서 곧 그 필요성을 느낀 문제인데 이번에 잘 풀렸습니다. 유통사의 보위단은 소멸되고 그 재산은 다 몰수해서 인민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유통사와 그 작은 조카는 생포해서 지금 우리 밀영에 끌어다놓았습니다. 유통사네 집안이 크기는 큽니다. 태평촌에는 본집이 있고 주부골에는 형네 집이 있는데 큰조카놈이 현경찰국장입니다. 그런 유통사네 지반이 하루밤에 허물어졌으니 놈들에게 타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내가 봉산동에 가서 군중정치사업을 하는 과정에 유통사의 사돈이라는 령감도 만나보았는데 그 령감은 학자로서 량심도 있고 아는것도 많아서 우리 동무들이 태평촌에서 돌아오는동안 력사이야기를 하면서 민족적량심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주었더니 그 령감도 유통사가 자기 사돈이기는 하지만 나라와 민족앞에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지간의 부대소식을 전하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참.》 하고 문득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내가 다 나은 철구아주머니를 만나서 너무 기쁜김에 큰 실수를 할번했습니다. 굉장한 소식이 있소. 굉장한 소식이말이요.》

전령병들은 그이의 말씀을 듣고 웃으며 눈을 깜빡거리고 두 녀인은 웬일인가 해서 갑자기 달라지신 장군님의 안색을 살폈다.

《철구동무, 이번 청지동전투때말입니다.》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무슨 옛이야기를 하시듯 허두를 길게 떼시였다.

《우리가 그놈들을 들이치고 숲속으로 철수하는데 인민들이 로획물자를 지고 따라서기도 하고 입대하겠다는 청년들도 오고 참 굉장했습니다.》

《류행가를 부르는 사람도 왔댔습니다.》

하고 옆에서 배낭을 끄르던 상철이가 사령관동지께 귀띔을 해드리였다.

《그래 참, 그런 사람도 왔댔지. 그사람이 우리앞에서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속에 웬 처녀가 말입니다. 맨발을 벗고 유격대가 되겠다고 따라왔단말입니다.》

《저런, 맨발로 어떻게…》

철구아주머니가 저도 모르게 놀란 소리를 하자 장군님께서는 바로 그것이라는듯이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신이 벗겨지는것도 모르고 달려왔다는것입니다. 곱살하게 생긴 처년데 속이 얼마나 여물었겠습니까. 그 처녀는 4년전에 오빠가 유격대로 떠나갔는데 그때부터 우리 유격대를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있었답니다. 자, 이 처녀가 누구겠는가, 알아맞춰보시오.》

《아니 그건…》

철구아주머니는 수수께끼라도 이런 막연한 수수께끼가 어디 있느냐는듯이 김정숙동지를 돌아보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가볍게 미소를 짓고 고개를 기웃하며 생각하다가 웃음섞인 소리로 말씀드리시였다.

《저, 성이나 이름만이라도 대주셔야지 그저 곱살한 처녀라고만 하시면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성이나 이름은 대줄수 없습니다. 그것을 대주면 다 대주는것이지. 자, 청지동전투때 왔다. 4년전에 오빠가 입대했다, 가만 그다음 또 한가지만은 대줄수 있소. 그 동무가 나타나자 전 부대가 그를 둘러싸고 야단법석을 하고 녀대원들가운데는 우는 동무들도 많았다. 자, 어떻소?》

《남대원들도 운 사람 많습니다.》

상철이가 또 참견하였다. 재영이가 옆에서 쿡 찔렀으나 상철이는 숙어들지 않고 중얼거렸다.

《나도 봤는데 뭘, 저도 울구선…》

《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김정숙동지께서는 벌떡 일어서시였다.

《누구요?》

《한태혁동무의 누이동생, 한필네— 한필네가 아닙니까?》

《맞았소. 필네가 왔단말이요.》

장군님께서는 통쾌하신듯 껄껄 웃으시였다.

《아니 어쩌문…》

철구아주머니는 입을 쩍 벌리고 다음말을 잇지 못하였다.

한식경이나 지나도록 필네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었다.

그런 다음에야 장군님께서는 상철이를 시켜 초막앞에 가려놓은 배낭속에서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게 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상철이가 꺼내드리는 물건을 하나하나 가리키시며 설명하시였다.

《자, 이게 모두 련유입니다. 이건 사탕이고 이건 뭐더라? 옳지, 이건 진옥동무가 국내에서 보내온 선물인데 꼭 녀대원들에게만 돌리라고 엄밀히 부탁한것입니다. 그런걸 금숙동무가 조진범동무 몰래 보냈습니다. 뭐 굉장한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령관동지께서 다른 물건을 가리키시자 상철이가 제깍 보꾸레미 하나를 내드렸다.

《이건 뭐요? 아니 이걸 여기까지 또 가져왔습니까? 환자들의 생활에 필요한것인지도 모르고… 좌우간 봅시다.》

장군님께서는 상철이가 호기심에 눈을 반짝거리며 내드리는 보꾸레미를 받아드시고 무게를 가늠해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성림동무가 보내온것이요. 통신원편에 보내온것을 받아두었는데 우리 꼬마들이 가져왔소. 한번 풀어보시오. 아마 틀림없이 훌륭한 선물일거요.》

《전투를 나가신다는데 그건 뭘 가져와요?》

하며 김정숙동지께서는 상철을 흘겨보시였다.

《풀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궁금한걸 어떻게 해요?》

상철이가 투정비슷하게 말하며 입을 내밀었다.

《허허허, 좌우간 풀어보시오.》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앞으로 보자기를 밀어보내시며 말씀하시였다.

《저 상철이 말대로 장경수동무가 가지고왔는데 장동무에게도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작식대동무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다는것입니다.》

《무엇일가요?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풀어보시오. 이제는 나도 궁금합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보자기를 푸시였다. 보자기는 쉽게 풀렸지만 속에는 마분지곽이 있고 그것을 헤치니 다시 정교하게 짠 나무함이 나졌다.

《아이, 뭘 이렇게…》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것을 느낀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렇게 혼자말을 하면서도 어쩐지 긴장되시였다. 철구아주머니는 벌써부터 입을 쩍 벌리고 《어쩌면…》하고 탄성을 올렸다.

뚜껑을 열자 눈부신 광채가 뻗쳐나왔다.

《야-》

두 전령병이 환성을 올렸다.

김정숙동지께서도 놀라시였다.

《아니 이게 주전자 아니요.》

철구아주머니의 놀란 목소리였다.

그것은 네귀에 각각 한개씩 네개의 잔을 받친 품위있게 세공한 양은주전자였다. 안팎이 다 은은한 유백색으로 빛나도록 빛갈도 품위있게 올렸다.

한동안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때마침 숲속을 누벼나온 해볕을 받아 주전자는 눈부시게 빛을 뿌렸다.

《정숙동무가…》

하고 한참이나 지난후 철구아주머니가 끌끌 혀를 차더니 중얼거리듯 말하였다.

《사령부의 주전자가 투박하다고 내내 말하더니 성림동무가 그 소리를 들은게로구만. 그 동무가 그렇게 속이 깊은줄은 몰랐구만.》

김정숙동지께서는 말없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끌리는 그 주전자를 함채 어루만지시였다. 물건이 좋은것도 좋은것이지만 한시도 마음놓고 눈붙일수 없다는 적들의 한복판에서 사령관동지를 위하여 이처럼 쓸모있는것을 마련해 보내준 혁명동지의 뜨거운 마음이 고마우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태까지 그렇게도 즐거워하시던 기색을 감추시고 천천히 일어나시였다.

전사들의 뜨거운 마음을 읽으실 때마다 언제나 그이의 가슴은 기쁨보다먼저 그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지 못하시는 안타까움을 느끼시는것이였다.

재영이와 상철이만이 저마다 잔 하나씩을 뽑아들고 이리 쓸고 저리 쓸고 하며 좋아서 어쩔줄 몰라하였다.

기관총수들이 그것을 띄여보고 와– 쓸어들었다.

점심은 기관총소대원들이 가지고 온것으로 자기들이 지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길래 하는수없이 국의 맛이나 봐주고 사령관동지의 식사만 손수 챙기시였다.

기관총수들은 점심식사가 끝난후 그 자리에서 한바탕 오락회까지 벌려놓더니 사령관동지께서 시계를 보시자 인차 정렬하였다.

적을 치러 나갈 시간이 된것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마감으로 다시한번 다심한 당부를 남기시고 끝끌한 기관총수들에 옹위되시여 총총히 떠나가시였다.

13

올기강줄기를 따라 자꾸 올라가면 기암괴석이 량기슭으로 차츰 다가붙다가 중봉산의 북쪽 10리 가까이 되는데 이르면 드디여 두기슭은 마주붙어버리고 바위짬에 뿌리박은 나무들이 서로 가지를 부딪치게 된다. 혹시 두만강에서부터 물줄기를 따라 이 골짜기를 참을성있게 따라오는 길손이 있다 하더라도 잡관목이 모록이 우거져 골짜기를 막아버린 이곳이 바로 올기강의 막바지라고 생각하고 발길을 돌릴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였다. 물이끼가 올라 미끈거리는 바위등에 조심스레 발끝을 붙이고 앞을 막아서는 나무가지를 헤쳐나가면 골짜기는 가까스로 길을 내는데 그 굽이를 따라가면 곬은 90도로 꺾어졌다가 별안간 시원한 전망을 틔워놓는다.

마치 올기강의 본줄기는 이제부터라는듯 단꺼번에 큰 소처럼 넓어진 강폭에 가득 고인 물이 어쩌면 속세로부터 엄격히 절연된 선경과 같은 인상을 자아낸다.

사령부의 장풍은 바로 그 물가 벼랑밑에 세워졌다.

우심산지구로 진출한 부대가 유통사네 일가의 통제하에 있는 태평촌, 봉산동, 주부골 등 동네를 하루밤에 동시에 습격하고 유통사의 재산을 몰수하여 인민들에게 분여한 다음 유통사－유상춘과 그의 작은 조카 유경무를 체포해가지고 다시 올기강줄기로 돌아선것은 청지동싸움에 이어 적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것이며 그들은 불가피하게 《토벌》에 나서지 않을수 없을것이였다. 이에 사령관동지께서는 재빨리 부대를 세개방향으로 분산시키시였다. 7련대는 청산리, 금천동 방향으로 곧장 북상해갔으며 8련대는 서북쪽 삼도구, 양초구 방향으로 대기동을 일으켰다. 전투부대들이 떠나간 다음 사령부는 경위중대와 재봉대만 데리고 올기강을 거슬러올라가다가 바로 이 선경에 마주친것이였다. 처음에는 모두 잡관목이 모록이 우거진데가 바로 올기강의 막다른 골목이라고들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위지형을 살펴보신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럴수 없습니다.》하고 말씀하시였다.

《지하수가 솟아날만한곳도 아닌데 별안간 강이 생길수는 없습니다. 더 올라가보시오.》

그리하여 손도끼로 우거진 나무가지들을 찍어던지며 전진한 결과 이 호수와 같은 넓은 물목에 이른것이였다.

사령부천막에서 댓마장 더 올라가면 새초가 우거진 야산이 나지는데 산은 높지도 않고 험하지도 않았지만 인적이 미치기 어렵고 또 양지바른데다 전망이 좋았다. 사령관동지의 지시에 따라 도착하는 날로 여기에 재봉대밀영을 지었다.

우심산에서 잡아온 유상춘네 숙질도 당분간 이 산기슭에 도리풍 하나를 치고 넣었다.

청지동과 우심산지구전투에서 로획해온 천은 량이 적지 않았다. 그 천을 가지고 재봉대는 벌써부터 전부대에 공급할 동복을 짓기 시작하였다.

한여름이라 하지만 심심산속인데다 구슬같이 맑은 물이 층층 고인 강기슭이라 언제 덥다는것을 느낄 사이도 없었다. 그렇지만 철은 속일수 없어서 올기강기슭에는 새노란 미나리아재비꽃이 만발하고 나무잎새들은 검게 보일만큼 진이 올라서 웬간한 산들바람에는 움직일 차비를 안했다. 만물이 결실의 때를 기다리고있는것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 정치공작조와 소부대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몸소 기관총소대를 거느리시고 철구아주머니가 있는 초막을 거쳐 두만강줄기의 여러곳을 돌아보시고 오신지도 퍽 여러날 되였다.

어느날 사령관동지께서는 재영이와 상철이를 거느리시고 재봉대밀영으로 넘어가시였다.

앞장서 걸어가는 재영이의 어깨는 떡판처럼 넓어지고 성큼성큼 내디디는 다리는 참나무처럼 완강해보인다. 목소리도 변하여 꿱꿱하는 왜가리청이 되였다. 몸이 자랐을뿐아니라 이제는 기관총사격에서도 어지간한 기관총소대 대원들보다 능숙한 편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진작부터 재영이를 전투부대에 내보내여 지휘관으로 길러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어쩐지 놓기가 아수하시여 차일피일 밀고계시는중이시였다.

경위중대의 보초병앞을 지나자 재영이는 왼쪽으로 꺾어졌다. 보초의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잠시 지체하시였던 그이께서는 앞서 가는 재영이를 멈추어세우시였다.

《이쪽으로 갑시다. 재봉대에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통사는 며칠동안 생각하도록 내버려두는것이 좋습니다.》

새초밭에 묻힌 오솔길을 바른쪽으로 툐아오르시며 사령관동지께서는 가볍게 웃으시였다. 유통사가 붙잡혀올 때 늙고 젊은 첩들이 한마당 쓸어나와 울고불고하더라는 리철범의 보고가 생각나시였던것이다.

재영이는 씩 웃더니 제비처럼 날랜 동작으로 새초밭을 가르며 곧장 앞으로 나갔다.

산정을 조금 벗어나서 봇나무 몇그루가 나란히 선곳에 지금 재봉대 귀틀집을 짓느라고 경위중대동무들이 역사를 벌리고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부대의 기동을 위하여 다른데는 풍을 치도록 하시였지만 재봉대만은 귀틀집을 지어주라고 하시였다. 그래서 지금 조진범이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나서서 잔소리를 하고있었다. 경위중대에는 도끼 한자루만 쥐여주면 하루에 집 한채씩을 문제없이 지어내치는 한다하는 목수들이 허다하다. 그들의 손에 의하여 저 남호두로부터 백두산줄기를 타고, 그 다음 서쪽으로 룡강산맥줄기를 따라 얼마나 많은 밀영들이 일어섰는지 모른다.

그런 소문난 대목들에게 군수관 조진범이가 잔소리를 해서 날이 설 까닭이 없다는것을 그자신도 잘 알고있었지만 재봉대밀영을 잘 지어서 이번 숙영기간에 동복을 다 보장해야 한다는 과업을 직접 사령관동지로부터 받았기때문에 몸이 달수밖에 없는것이다. 더구나 낮에는 그늘이 지고 아침나절에는 해빛이 잘 드는 건조한곳에 터를 잡으라는 매우 구체적인 지시도 받은 터여서 조진범은 그런 집터를 고르느라고 온종일 산판을 돌아다녔던것이다.

아닌게아니라 집터는 척 보기에도 봇나무숲을 등지고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잡은것이 그럴듯하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정 듣기 거북한 소리를 했던지 강철룡소대장에게 떠밀려서 뒤걸음질치는 조진범을 한참이나 재미있게 바라보시다가 림시 천막을 친곳으로 향하시였다.

천막앞에서는 지금 필네에게 새로 지은 군복을 입혀놓고 금숙이며 옥금이며 채옥이, 거기에 김정숙동지까지 올라와서 빙 둘러싸고 품을 눌러본다 기장을 맞춰본다 하며 야단법석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소부대들과 정치공작조사업을 다 돌아보시고 오시는 길에 철구아주머니네를 부대에 데리고 오시였다. 그사이 철구아주머니는 퍽 좋아져서 이제는 사령부의 작식대일도 거들게끔 되였지만 사령관동지께서는 김정숙동지더러 계속 그를 잘 돌봐줄데 대하여 간곡하게 당부하시였다. 그런데 이렇게 재봉대에 올라와서 일을 거드는것을 보면 이제는 철구아주머니가 정말 완전히 좋아진것이 틀림없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저마다 바늘실을 꿰여들고 필네 주위를 빙빙 돌아가는 녀대원들의 모양을 멀찍이에서 바라보시였다.

처녀는 그날 사령관동지의 품에서 기진할만큼 울고나더니 이튿날은 하루종일 허탈에 빠진듯이 멍하니 앉아있었다. 사람들은 아니아니한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제 오래비를 많이 닮았지만 어딘가 꽁하고 맺힌데가 있는 성미여서 어린 나이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것이였다. 그러나 밤이 되자 필네는 금숙의 곁에 제발로 찾아와서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잠들었으며 이튿날 옥금이네가 제 군복을

지어주겠다고 하자 아이들처럼 기뻐했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비꼬이지 않고 결바르게 자라난것이 더없이 대견하게 생각되신 사령관동지께서는 그에게 무기도 사령부에 있던 맵시있는 기병총을 주도록 하라고 이르시였다.

지금 필네는 그 알차게 성숙한 몸에 꼭 맞는 새 군복을 입고 모든 슬픔을 다 잊어버린듯 밝게 웃고있다.

그러다가 사령관동지께서 다가가시자 너무 놀라서 새빨간 얼굴을 두손으로 가리우고 금숙이 등뒤로 숨어버렸다.

《필네동무가 군복을 입으니 더 보기가 좋구만.》

사령관동지께서는 옥금이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이제 곧 명사수가 되겠답니다.》

하고 김정숙동지께서 말씀드리시였다.

《그렇지, 명사수가 돼야지. 필네동무, 사격을 이 정숙동무에게서 배우시오. 그래서…》

사령관동지께서는 오빠와 같이 이름난 명사수가 되야 한다고 말씀하시려다가 그만 말끝을 흐리고마시였다.

고개를 숙이고있던 필네는 그이께서 말씀을 맺지 못하시는 까닭을 짐작하였다. 그는 여태 그렇게도 수집어하던 처녀답지 않게 고개를 번쩍 들었다.

《사령관동지.》

하고 그는 또박또박 말하였다.

《저는 꼭 오빠와 같은 명사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혼자라도 고향에 찾아가 아버지, 어머니의 원쑤를 갚겠습니다.》

《그래, 아주 훌륭한 결심입니다. 필네동무는 반드시 훌륭한 유격대전사가 될수 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흥분하신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며 새삼스럽게 똑바로 마주보는 처녀를 찬찬히 바라보시였다. 살진 귀밥이 빨갛게 물들어있다. 태혁이같은 사나이에게 누이동생이 있었다면 응당 이처럼 잘 생기고 다기차고 그러면서도 구김살 없는 처녀가 있었을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시였다. 필네에게는 태혁이를 직접 련상시키는 점이 오히려 적었다. 그러나 어딘가 내적으로 련결된 공통성으로 하여 볼 때마다 살아있을 때는 미처 몰랐던 태혁이의 새로운 특징을 찾아내게 되군하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귀틀집이 될 때까지 림시로 차려놓은 작업장을 한바퀴 돌아보시고나서 옥금이에게 무엇인가 말씀할듯하시다가 산등에서 내려오시고말았다.

새초가 우거진 산허리에 와서야 그이께서는 상철이를 부르시였다.

《재봉대에 가서 바늘을 좀 얻어오시오. 그리고 솜도 한줌 얻어오고…》

상철이는 잠시 영문을 몰라 쭈밋거리며 그이를 바라보았으나 사령관동지께서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시고 새초밭속으로 걸어가시였다.

상철이는 하는수없이 재봉대로 달려갔다.

《여기서 잠시 기다립시다.》

유통사네가 있는 천막이 저쯤 바라보이는 갈림길에 이르시자 발아래 흘러가는 올기강물굽이를 바라보시며 걸음을 멈추시였다.

상철이는 한손에 길다랗게 실을 꿴 바늘을 쥐고 다른 한손에는 솜을 뭉그려쥐고 숨가쁘게 뒤따라왔다.

《사령관동지, 바늘을 가져왔습니다.》

《수고했소. 그런데 겨우 하나 가져왔소?》

《여러개 있어야 합니까?》

상철이는 놀란듯 눈이 동그래져서 물었다.

《그래도 몇개는 있어야지.》

이번에는 상철이뿐아니라 재영이도 영문을 몰라 고개를 기웃거렸다.

《하는수 없지. 그냥 갑시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바늘을 솜과 함께 뭉그려쥐시고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런데 뒤에서 또 콩콩 울리는 발자국소리가 따라왔다.

돌아보니 필네였다.

《저 사령관동지.》

필네는 숨을 가쁘게 쉬며 한참이나 얼굴이 빨개서 쭈밋거리더니 말씀드리였다.

《무엇을 꿰매실게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곱게 꿰맬수 있습니다.》

《하하— 이거 야단났군, 암만해도 비밀이 탄로날것 같은데…》

사령관동지께서는 난감하신듯 잠시 망설이시다가 웃음짓고 말씀하시였다.

《필네동무, 사실 지금은 아직 말하기 어려운데 나한테 바늘을 몇개 좀 달라구. 어디다 쓰겠는지는 묻지 말고… 좀 무딘것도 일없소. 갈아서 쓰면 되니까… 내가 이제 그럴듯한 일을 하나 시작해볼가 하는데 옥금동무나 조진범동무에게는 아무 눈치 못채게 해야 하오.》

필네는 점점 영문을 알수 없어 겨우 알릴듯말듯한 목소리로 곧 가져오겠으니 잠간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리고 되돌아 달려갔다.

그날 저녁 사령관동지께서는 전령병들에게 하는수없이 자신의 구상을 터놓으시였다. 철구아주머니는 아직 몸이 성치 않고 다른 동무들도 약해진 사람들이 많은데 가만 보니 올기강에 산천어가 욱실거린다. 그래서 낚시질을 하실 작정이라고 말씀하시자 두 전령병은 대뜸 손벽을 치다가 인차 시무룩해졌다.

《그런데 낚시가 어데 있습니까?》

재영이의 말에 상철이도 실망한듯이

《그물이나 있었으면 좋겠네.》

하고 심드렁해졌다.

《이제 우리끼리 낚시를 만들어보자구.》

《낚시를 만들수 있습니까?》

나어린 소년들은 인차 호기심에 눈을 반짝거리며 다가앉았다. 그날 사령관동지께서는 재봉대에서 가져온 바늘로 낚시를 만드시였다. 바늘에 솜을 감아서 등잔기름을 치고 불을 달아놓으니 빨갛게 달았던 바늘이 떡쇠가 돼버렸다. 거기에 손칼을 엇비듬히 대고 치면 민지가 일어선다.

《사실 낚시대만 좋으면 산천어는 세찬 고기기때문에 민지가 없이도 단번에 끌어올릴수 있소. 그러나 강폭이 넓고 기슭이 험한데다 대가 또 변변치 않기때문에 이렇게 민지를 날카롭게 세워야 마음을 놓을수 있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시면서 마치 그런 일을 아침저녁으로 해보신듯이 능숙하게 낚시를 만들어나가시였다. 민지가 일어서니 낚시모양을 만드는것은 간단하였다. 제일 문제가 물러진 쇠를 다시 강쇠로 달구는 일이였다. 여기서는 사령관동지께서도 신고를 하시였다. 단번에 달구어서 물에 담가내시니 여섯개중 겨우 한개가 굳어졌다. 다른것은 두번, 세번 하다가 안되여서 등잔기름에 담그니 비로소 강쇠로 변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긴장해서 들여다보던 두 소년은 이젠 됐다는 그이의 말씀을 듣자 호- 하고 한숨들을 내쉬며 갑자기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제가 이제 가서 낚시대를 꺾어오랍니까?》

《줄은 어떻게 합니까?》

《미끼도 있어야지요.》

《참 저한테 꿰미할 멋이 있는 줄이 있습니다.》

일한 자리를 거두시며 덤비는 전령병들을 돌아보시는 그이의 눈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어리시였다.

《그런것은 내가 다 준비해놓았소. 우리 래일아침에 아무도 모르게 일찌감치 강가로 나갑시다.》

《야-》

그들은 갑자기 어린애가 된듯 사령관동지의 겨드랑밑으로 파고들며 잠자리에 들어서도 무엇인가 그냥 소곤거렸다.

14

동쪽 숲정수리가 선명한 륜곽을 그리며 노을빛으로 채색되였다. 하늘이 훤해진것은 벌써 오래전 일이다. 숲우에 해가 솟아오를 모양이다. 미구에 증봉산의 우중충한 산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던 서쪽기슭도 어둠이 벗겨지면서 물안개가 궁실궁실 피여오른다.

부리 긴 물새 한마리가 수면을 스칠듯 안개속을 누벼나오더니 아름다운 몸매에 비해서는 놀랄만큼 갈린 소리로 끼르끼르하고 울면서 굽이를 꺾어 남쪽으로 내려갔다. 숲속에서도, 강기슭에서도 새들이 소란하게 우짖어댄다. 이제는 기상시간이 멀지 않았다.

그런데 고기는 한마리도 물리지 않는다.

《야— 참, 이제 꼭 잡혔다 했는데…》

옆에서 상철이가 무엇에 놀랐는지 젖먹은 힘까지 다 쓰며 낚시대를 잡아채더니 해빛에 반짝거리는 빈 낚시를 보자 실망해서 중얼거렸다.

《애, 이건 또 걸면서 이래.》

재영이가 성이 나서 자기 낚시대를 잡아채며 짜증을 낸다.

암만해도 이 꼬마들이 소란을 피워서 잘 안되는지 모르겠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낚시터로 갈 때는 동무해서 가고 낚시질을 할 때는 혼자 해야 한다고 하시던 아버님의 말씀을 상기하시였다. 한시간 가까이나 참을성있게 기다려도 고기맥이 없으니 꼬마들은 벌써 싫증이 나는지 더 떠들어댄다. 자리를 옮길수밖에 없다.

하기는 사령관동지께서도 이런 급류에서 산천어를 낚아보시기는 처음이시였다. 그런것만큼 품을 좀 들이더라도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가며 여러가지로 시험을 해볼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였다.

지금 앉으신 자리로 말하면 어느모로 보나 좋은 낚시터였다. 너럭바위가 물골을 따라 쑥 빠져나갔는데 그밑은 크지 않은 소를 이룬 물골이 엇비듬히 아래로 휘여져나갔다. 흐름을 타고 올라오던 산천어가 반드시 그 소를 건너서야만 웃쪽으로 뛰여오르게 되여있었다. 게다가 우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너럭바위끝에 부딪치여 흰 물갈기를 날리며 설레이기때문에 고기는 아무 미끼에나 홀릴것이였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물리지 않으니 하는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결단성있게 낚시대를 거두시고 일어서시였다. 그러자 전령병들이 의아쩍게 올려다본다. 낚시질을 하자면 인내성있게 앉아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니 어디로 가시는가 해서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못보신척하시고 풀밭을 걸어가시였다.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또 우르르 달려들어 제먼저 온 강판을 다 휘저어놓을테니 이런 성화가 있는가.

문득 그이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였다. 이슬에 축축히 젖은 풀밭에 파리보다 좀 클가말가한 풀메뚜기가 엉금엉금 긴다.

혹시 미끼에 무슨 롱간이 있는게 아닐가.

낚시에서 기본은 역시 미끼다. 철따라 좋은 미끼를 마련할줄 아는 낚시군만이 아무때나 손에 비늘을 묻힐수 있다는것은 낚시군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그러고보면 급류에 살면서 바위등을 날아넘는 산천어가 언제 지렁이를 먹고 자랐겠는가. 홀림낚시군들이 털낚시를 맬 때 사철 벌레의 색갈을 따라 털을 갈아대는것을 보면 역시 미끼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바위밑 락엽무지에서 캐낸 지렁이를 낚시에서 뽑아던지시고 풀메뚜기 댓마리를 잡아가지고 강가에 나서시였다.

물굽이는 도처에서 휘여돌아간다. 낚시대가 길지 못하기때문에 될수 있으면 바위같은것이 깊이 물속으로 파고든곳이 리상적이겠지만 지금은 우선 미끼를 시험해보시자는것이기때문에 별로 이렇다할 특징이 없는 풀밭에 서신채 낚시를 치시였다.

그러나 인차 후회가 되시였다. 설사 풀메뚜기가 좋은 미끼라하더라도 장소를 잘못 잡으면 안물릴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믿을만한 시험이 못되지 않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홀로 빙그레 웃으시였다. 낚시군은 언제나 이런 불안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그렇기때문에 차비를 철저히 하여 자신만만하게 앉아있어야 하는것이다.

물안개 피여오르는 강속에 낚시대를 드리우시니 그리운 추억들이 뭉게뭉게 피여오르시였다. 만경대 선창가에 아버님과 함께 앉아 저렇게 솟아오르는 아침해를 맞이하신적도 계시였다. 그때는 아버님께서 낚아올리시는 고기를 다래끼에 따넣는것이 큰 재미였지만 중강진에서는 벌써 자신께서도 낚시대를 들고 아버님을 따라가시였다. 아버님께서는 낚시질은 따로따로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도 정작 낚시터에 가보면 오히려

각처에서 따로따로 온 낚시군들이 한곳에 모여 낚시질을 하군 하시였다. 그것은 후에 보니 낚시질이 아니라 비밀회합이였다.

무엇인가 팔굽을 툭 치는듯한 충격이 온다.

이것은 붕어낚시가 아니라 바위를 뛰여넘고 폭포를 날아넘는 용맹스런 고기를 걸어내자는 참봉낚시다. 언제 찌가 깜박거리는것을 볼 사이도 없다. 팔굽에 느꼈던 충격은 어느새 어깨로 옮겨져서 낚시대가 마치 활등처럼 둥그렇게 휘여 후들거린다.

큰놈이 달렸다.

고기가 달렸다는것을 느끼시는 순간에야 시험이라고 해서 너무 자리를 소홀히 취급하셨다는 느낌이 다시금 드시였다. 손벽을 툭툭 치는 느낌이 벌써 보통 크기가 아닌데 그냥 채서 끌어올리기에는 기슭이 너무 높았다. 첫놈을 잘못 다루어 놓치기나 한다면 꼭 뒤가 재미없는 법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산천어가 풀메뚜기를 좋아한다는것을 확인하신 순간부터 긴장되시는 한편 일이 뜻대로 돼나간다는것을 느끼시고 훨씬 마음에 여유가 생기시였다.

낚시대는 그냥 요동을 친다. 아직 잘 마르지 않은 노가주나무 초리가 좀 미타하기는 하나 민지는 든든히 세웠으니 어지간해서 고기가 빠질 념려는 없었다.

물우에서 곤두박질치는 초리를 살펴보시며 천천히 낚시대를 세우시였다. 초리는 굽어지다못해 낚시모양으로 휘여진다. 암만해도 낚시대가 위태위태하다. 그 순간 바투 기슭으로 다가드는 낚시줄끝에서 뭉클하고 물결이 뒤번져졌다. 시꺼먼 등에 얼룩얼룩한 반점이 건너간놈이 꼬리로 수면을 후려치며 다시 물속으로 곤두박힌다.

《야-》

상철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잡았다.》

재영이는 제 낚시대는 아무렇게나 집어던지고 달려온다.

기슭이 소란하면 나오던놈이 갈갤수 있다. 저 꼬마들이 달려들기전에 끌어내야겠는데 고기란놈이 어찌나 용을 쓰는지 마음대로 다룰수가 없으시였다.

고기가 줄을 달라는대로 놓아준다면 그놈은 아예 방향을 돌려 꺾어가지고 냅다뛸것이다. 그렇다고 마구 채면 초리나 목줄이 위험하다.

사령관동지의 팔은 연신 후들후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발밑을 조심조심 살피시며 물가까이 바투 내려가시였다. 이제는 물높이가 꽤 끌어올림직하다.

다시한번 물우에 뭉클하고 이랑이 번져지면서 고기대가리가 솟구친다. 입을 쩍 벌리고 바람을 들이키는것을 보신 그이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저쪽으로 집어던지십시오.》

재영이가 당장 부둥켜안을것처럼 두팔을 벌리고 웨쳤다.

《야, 또 솟아오르네.》

두 전령병이 번갈아 떠들었지만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냥 낚시대를 물속에 드리우신채 침착하게 고기의 힘을 빼시였다.

지그시 대를 쳐드시니 고기가 또 한번 솟아서 바람을 키였다.

이번에는 인차 내뛸 궁리를 못한다. 벌써 어지간히 맥이 빠진것이다.

《야, 크다, 팔뚝만하다.》

상철이가 얼굴이 빨개서 웨쳤다.

아닌게아니라 산천어치고 꽤 큰놈이다. 이것이 큰강이라면 숭어와 혼돈할만 한 크기였다.

마침내 고기는 물우에 떴다. 바람을 몇번 켜더니 이제는 줄을 당기는대로 순하게 끌려온다. 낚시를 문 입을 쩍 벌린것을 보니 더는 갈갤 맥이 없는 모양이다. 아가리를 꽉 앙다물고 눈이 반들거리는놈을 억지로 끌어내면 반드시 한번은 요동을 치는법이고 그것이 허공에 달렸을 때 일어나면 고기는 영낙없이 놓친 고기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천천히 낚시대를 곧추 세우시고 원줄을 한손에 잡으시였다. 두어번 물속에서 얼리여 반동력을 얻으신 그이께서는 슬쩍 허리를 솟구치며 줄을 쳐드시였다.

고기는 허공에서 번쩍 하고 해빛을 반사하더니 어느새 기슭의 풀밭에 나둥그러져 푸들쩍거리였다.

재영이와 상철이가 다투어 고기를 따겠다고 덮치였다.

《가만, 좀 봅시다. 민지에 든든히 걸렸는지.》

《든든히 걸렸습니다.》

상철이는 사령관동지께서 보실 사이도 없이 고기를 따들고 《야—》 환성을 지르며 내달렸다.

《재영동무, 풀메뚜기를 잡으시오. 산천어라는 고기는 날아다니는 벌레들을 잡아먹는놈이기때문에 지렁이는 좋아 안하는 모양이요. 메뚜기를 꿰니까 인차 달렸소.》

《그렇습니까! 그럼 나도 메뚜기를 꿰야지.》

재영이는 선자리에서 풀밭을 두리번거리며 이쪽저쪽 마구 덮치였다.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아서 메뚜기는 발견만 하면 쉽게 잡을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흔하던것도 정작 잡자니 눈에 잘 뜨이지 않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재영이가 메뚜기를 잡도록 내버려두시고 맨 처음 낚시터로 돌아가시였다.

막상 고기가 잘 물린다 하더라도 한마리 끌어올리는데 그렇게 많은 품이 들어서는 몇마리 잡지 못할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처음 자리가 좋았다.

이번에는 편안히 자리잡고 앉으신 다음 이미 눈여겨두신 바위밑에 낚시를 던지시였다. 추가 너무 가벼워서 멀리 치기가 좀 말째지만 미끼의 성질을 고려하면 될수록 가벼운것이 좋을듯하시여 연을 좀 떼내시였더니 그때문인지 줄이 인차 헤워지지 않는다. 다시 쳐야겠다고 낚시대를 쳐드시려는 순간 어디서 무엇이 돌멩이라도 날아떨어지는것모양 바위밑이 출렁하더니 줄과 대가 일직선으로 내뻗는다. 어느새 고기가 달린것이다. 손끝에 와닿는 감각이 아까것보다는 좀 못하지만 꽤 묵직하다. 막 바위를 넘어뛰려던 놈이여서 기세도 좋다. 그러나 이미 첫놈을 다루시면서 손맥을 다 가늠해보신 뒤라 이번에는 대를 어지간히 세우시고 고기가 끌려오는 기미가 느껴지시자 그달음으로 기슭까지 올리채시였다.

메뚜기를 잡던 재영이가 달려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고기를 따시려다가 전령병이 달려오는것을 보시고 그냥 두시였다. 고기는 물속에서 다 쓰지 못한 용을 풀밭에 와서 쓰느라고 풀떡풀떡 올리뛴다.

《메뚜기 어쨌소?》

낚시를 한손에 잡으시고 손을 내미시는 그이를 보자 재영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허허허, 메뚜기를 내던지고왔소?》

하는수없이 아까 잡으셨던 메뚜기를 보시니 벌써 다 죽었다.

죽은놈이라도 꿸수밖에 없으시였다.

그것이 원인이 됐는지 이번에는 암만해도 소식이 없다. 다시 치시고 또 꺼내시여 다시 쳐보시였지만 여전히 아무런 기미도 없었다.

《여기 있습니다. 아직 달아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벌벌 기는것을 도로 잡아왔습니다.》

재영이가 한손에 푸들쩍거리는 고기를 움켜쥔채 메뚜기를 잡아왔다.

《그건 저 버들가지를 꺾어서 꿰시오. 어제 좋은 줄이 있다고 하더니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꿰겠습니다. 아, 상철이가 초롱을 가지고옵니다.》

아닌게아니라 천막쪽에서 커다란 물초롱을 든 상철이가 달려온다.

《허허허, 일이 크게 벌어졌군. 고기를 못잡으면 큰 망신하겠소. 자, 동무들도 자리를 잡고 부지런히 잡으시오. 저 초롱에 하나 잡자면 종일 잡아야 할것 같소.》

미끼를 갈아꿰고 얼마를 기다리시니 툭툭 맥이 왔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손끝에 오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시고 머리속에서 또 하나 다른 거창한 낚시질을 하고계시였다.

김준삼의 보고는 분명 큰고기가 놀아난다는것을 보여준다. 소부대들을 만나기 위하여 고동하줄기를 멀리 에돌아온 그는 화룡현경으로 몰려드는 적부대들을 수없이 띄여보았다는것이다. 이놈들 역시 별게 없다. 지렁이가 싫으면 메뚜기를 좋아하겠지… 제놈들이 아무리 가만 있고싶어도 사방에 전투의 불길이 타번지고 혁명조직이 태여나고 인민들의 반일기세가 앙양되는데야 가만 있을수가 있는가.

그러나 대체로 보면 큰고기일수록 나이를 먹어서 음흉하고 교활하다. 때로는 입질하는것이 송사리보다도 더 가냘프게 보일 때도 있다. 그런데 서툰 낚시군들은 흔히 잔고기라고만 생각하고 마음을 놓았다가 불시에 잡아채는바람에 허망하게 미끼만 떼우는것이다.

찌를 경각성있게 살펴야 한다. 그래서 김준삼을 돌아오는 즉시로 공작조에 다시 내보내시였다. 김준삼의 눈이라면 제아무리 음흉한 놈이라도 속여내지 못할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낚시며 초리며 줄이며 대며 이 모든것은 단단한가? 그 어떤 큰고기에도 견딜만한가?

주영찬의 편지는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노몽한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빈돈선에 왜놈들의 군수렬차가 들이밀리고있기에 몇차례 습격전투를 벌렸는데 최서범사단장과 김정철동무한테서 좌우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들뿐아닙니다. 이런 복잡한 국제정세의 움직임속에서 계속 유격투쟁의 불길을 높이는것이 옳겠는가 하는 론의도 있고 이런 기회에 대부대로 집결하여 다시한번 장춘으로 진공해야 한다는 론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적지 않은 부대들에서 올려보낸 다른 지휘관들이나 통신원들의 보고에도 반영되여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이곳에서 당장 풀어야 할 급한 문제들만 처리해놓으시고는 곧 부대들에 나가봐야겠다고 생각하시였다. 시기가 성숙되면 각 방면군부대들의 힘을 묶어 도처에서 한꺼번에 적들을 큼직하게 타격함으로써 놈들의 전략적기도를 결정적으로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다. 그 시기가 언제일것인가?

《아무리 좋은 미끼를 쳐서 큰고기를 불러와도 낚시군이 제 차비를 든든히 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입밖으로 내시여 혼자말씀을 하시는데 불시에 어깨가 툭하고 마칠만큼 세찬 충격이 왔다.

서둘러 잡아채시니 물속이 팥죽가마처럼 끓어올랐다.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그이께서 일어서시려 하는데 다시한번 어깨가 툭하더니 그리도 세차던 감각이 삽시에 없어지고 수면도 고요히 가라앉아버렸다.

낚시대를 쳐들어보시니 목줄이 끊어졌다.

《그렇다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예비낚시를 갈아매시고 다시 치시였다.

어느새 왔는지 멀지 않는곳에 두 전령병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상철이가 기를 쓰며 낚시대를 잡아챈다. 그에 따라 사령관동지의 낚시대도 휘친하였다.

(이번에야 어림없지.)

하고 긴장되시였던 사령관동지께서는 어이가 없으시여 껄껄 웃으시였다.

《야, 놓쳤네. 큰놈이였는데…》

사령관동지의 낚시와 엇갈려나온 빈 낚시를 풀며 상철이가 중얼거렸다.

《정말 물렸댔어?》

저쪽에서 재영이가 연신 엉뎅이를 들먹들먹하며 물었다.

《물리지 않구. 막 잡아끌었댔는데뭐. 야 참 분하네.》

《헹, 사령관동지 낚시하고 걸어놓구선 뭘 그래.》

《아니야, 그건 고기가 물고뛰다가 걸린거야. 낚시에 걸렸다가 떨어지는것이 헨둥하게 알리는데뭐.》

《거짓말 말어.》

《거짓말을 누가 해. 이제 보지, 진짜 잡아낼테니…》

세상에 태여나서 여태 고기라는것을 낚아본적이 없고 또 고기가 낚일 때의 감각이라는것을 모르는 두 전령병은 그 누구도 시비를 가릴수 없는 론쟁을 벌리면서 서로 승벽내기로 낚시줄을 올리치고 내리치고 하였지만 종시 한마리도 잡지 못해서 아까 상철의 낚시에 걸렸던것이 고기였던지 아니였던지 판단할수 없었다.

그대신 사령관동지의 낚시에는 이제는 성가실 정도로 고기가 달렸다.

그런데 그이의 머리속에서는 이 여름에 적의 대무력을 낚시에 걸어내실 구상이 떠나지 않으시여 언제 진짜 낚시시중을 드실 여유가 없으시였다.

그래서 잠시 낚시대를 드리우시고 후둑후둑하는대로 내버려두시면 옆에서 상철이든 재영이든 어느새 눈치를 채고 잔소리를 하였다.

《야 참, 또 걸렸는데 가만 계시네. 사령관동지, 고기 달렸습니다.》

《허허허, 고기가 달렸다고 그렇게 화닥닥 채는것이 아니요. 보시오. 이렇게 천천히 끌어올려도 되지 않소.》

《정말, 나 한마리라도 잡아봤으면…》

상철이는 승벽내기에도 지쳤는지 이렇게 한숨소리를 내였다,

조화는 조화였다. 똑같은 낚시대, 똑같은 낚시줄, 똑같은 낚시에 똑같은 미끼를 쓰고 나중에는 사령관동지의 낚시줄을 끌어낼만큼 똑같은 자리에 넣었는데도 고기는 매번 사령관동지의 낚시에만 걸리지 상철이나 재영이의 낚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미구에 숲속이 활짝 밝아오르고 기상구령이 울리였다. 경위중대동무들이 세수하러 나왔다가 저마다 눈을 비비며 달려왔다.

달려와서는 또 저마다 떠들어댄다. 아예 낚시문서를 모르는 사람은 고기가 걸렸다가도 저렇게 천천히 끌면 떨어지지 않는가고 걱정하였고 뭘 좀 안다는 동무들은 안타깝게 무릎을 쓸며 훈수를 한다.

때마침 날이 활짝 밝으면서 고기맥도 뜨음해졌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낚시대를 거둘 때가 되였다고 생각하시였다. 그래 마지막으로 줄을 고쳐 치시려고 낚시대를 쳐드시려는데 초리끝이 알릴듯말듯 바르르 떠는듯한 느낌이 드시였다. 무엇이 와서 입질하는것이나 아닌가, 잠시 숨을 죽이고 바라보셨으나 더는 아무 기척도 없었다. 그래도 초리가 물살때문에 그렇게 떨릴수는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드신 그이께서는 방금 초리가 떨리던 그 자리로 줄을 끄시는데 무슨 까닭인지 순하게 끌려오던 낚시가 무엇에 걸렸는지 떡 뻗치고 움쩍을 안했다. 몇번 흔들어보시니

바위같은 느낌은 아니고 섬거적이나 통나무를 끄는것처럼 지그시 끌리는게 조금만 더 힘을 쓰면 줄이 끊어져나갈것 같았다.

《이거 야단났군.》

사령관동지께서 이렇게 혼자말씀을 하시며 일어서시니 상철이가 깔깔 웃으며 《사령관동지의 낚시도 걸렸네. 제가 물속에 들어가겠습니다》하고 발딱 일어섰다.

그 순간 사령관동지의 팔이 후들후들 떨리시였다.

재영이가 물속에 들어가려는 상철이의 허리를 잡고 소리쳤다.

《야, 저게 뭐야? 고기, 고기, 고기다!》

낚시를 벗기려고 아래로 내려서시려던 사령관동지께서는 재빨리 대를 쳐드시며 강기슭으로 바투 다가서시였다.

《아니 그게 뭡니까? 고깁니까?》

강철룡이 눈을 더부럭거리며 물었으나 이미 그이께서는 대답하실 겨를도 없으시였다. 얼마나 큰놈인지 물속에서 한번 요동을 쳤을뿐 아예 떠오를 차비가 아니였다. 꽤 큰 메기나 뱀장어같은것들이 이렇게 미련을 부리는 법이지만 어쩐지 후들거리는 느낌이 비늘 없는 고기같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산천어는 아니다. 산천어라면 처음에 걸어내신것이 고작 큰놈이겠는데 이것은 그런 정도의 크기가 아닌것 같았다. 이러나저러나 고기가 물우에 떠오르든가 용을 쓴다든가 해야 롱간을 부릴수 있겠는데 이것은 딱 뻗치고 나올 차비를 안하니 마음대로 챌수도 없고 줄을 놓아줄수도 없고 야단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크고 미련한 놈이라도 어쨌든 낚시에 코가 꿰인 이상 제가 급하겠지 누가 급하겠는가, 어디 견디여보자. 이렇게 생각하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은근히 낚시대에 힘을 주시며 천천히 뒤로 물러서시였다. 줄이 헤우다못해 가는 물방울을 튕기며 바르르 떨린다.

《사령관동지, 초리 끊어집니다.》

뒤에서 누가 다급한 소리를 질렀다. 낚시대가 위험한것은 사실이지만 재간이 없다. 대도, 줄도, 낚시도 이런 큰 고기를 잡게 차비한것이 아니니 한껏 당기다가 끊어질 때는 끊어지더라도 여유가 있는껏 당겨볼판이다. 그대신 순간적인 충격이 가서 허무하게 부러져나가지 않도록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낚시군의 솜씨에 달린것이니 끝까지 신중성을 기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대체 어떤놈이기에 이처럼 움쩍을 안하는가.

풀밭까지 올라서신 사령관동지께서는 혹시 물속에 웅크린놈이 지금 막 마지막 숨을 톺고있는것이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였다. 어디 한번 건드려보자.

사령관동지께서는 까짓것 헤워진 낚시줄을 대끝으로 툭툭 투기시였다. 그 순간 바로 소용도는 소의 한가운데서 바위밑으로 물결이 커다랗게 뒤번져지더니 낚시대가 바람맞은것처럼 요동을 치며 공중높이 솟아올랐다. 여유가 생기는 순간 사령관동지께서 대를 완전히 세우신것이였다.

《야-》

강기슭에 주런이 늘어선 유격대원들의 입에서 일제히 환성이 터져올랐다. 얼핏 보매 군함같이 느껴지는 시꺼먼놈이 물우에 떠서 천천히 꼬리를 치는데 어찌다 몸을 뒤채면 시허연 배허벅이 번쩍하고 아침해살을 반사하였다. 벌떡벌떡 몸을 뒤채며 연신 바람을 켜는것이 맥이 이미 빠질대로 빠진 꼴이였다.

《굉장하구나-》

《저게 무슨 고기야?》

고기를 보자 구경군들은 큰일이 났다고 저마다 한마디씩 떠드는데 사령관동지께서는 점점 긴장되시였다. 우선 무슨 고긴지 알수가 없으니 그 성질을 가늠할수도 없거니와 도대체 큰 고등어를 두세놈 합쳐놓은것만 한 크긴데 그런놈을 뭍으로 끌어올린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였다.

아무리 살펴보셔야 무슨 고긴지 대중할수가 없으시였다. 이런 산골물에 저렇게 큰 고기가 있을수 있는가. 그러다가 문득 이 올기강이 두만강에 흘러들고 두만강은 동해로 흘러든다는 생각이 드시였다. 그렇다면 저것은 바다고기일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자 여태까지 이상하게 생각되셨던 모든 일이 다 쉽게 리해되시였다. 바다고기라면 강으로 알 쓸러 오르는 송어나 연어겠는데 검게 보일만큼 진한 남빛을 띤 등을 보면 송어이다. 알을 까기 위하여 바다에서 연연 천여리를 올라오는 과정에 지칠대로 지쳐서 저렇게 큰 고기가 낚시에 걸려가지고도 맥을 못쓰는것이다. 그러니 별로 갈갤것 같지는 않았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천천히 낚시대를 뒤로 제끼시면서 상철이를 부르시였다.

《상철동무, 바위옆에 내려가시오. 고기가 바위에 가붙거든 두손으로 아가미 있는데를 꽉 누르고 타고앉으시오.》

그러나 상철이가 미처 대답을 올릴 사이도 없이 강철룡이 첨벙하고 물속에 들어섰다.

《사령관동지, 이쪽으로 붙이십시오. 이쪽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고기란놈이 그 말을 들었는지 제먼저 강철룡이 부르는 그 바위등으로 슬그머니 헤여가더니 모로 희뜩 나번져졌다.

두손을 벌려 들고있던 강철룡이 아가미를 덮치였다. 그 순간을 기다리고있었던듯 고기는 마지막 용을 쓰면서 꼬리를 후리쳤다.

《아이쿠!》

타고누르려던 정갱이를 든든히 쌔리운 강철룡은 비틀하면서 물고기와 함께 물속에 주저앉았다. 다행히 두 엄지손가락이 아가미에 든든히 걸려있어서 고기는 강철룡의 손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한다하는 유격대원의 정갱이에서는 피가 배여나왔다. 지느러미에 바지가랭이가 칼로 벤것처럼 갈라지고 살가죽이 째졌다.

《야, 이놈 굉장하구나.》

강철룡은 두팔을 번쩍 쳐들어올리면서 기쁨에 넘쳐 부르짖었다.

《어서 집어던지라요. 내가 내려가는건데 자기가 내려가서는…》

상철이가 뿌루퉁해서 소리쳤다.

《흥, 내가 내려갔기에 정쟁이나 찢어지고말았지 상철이가 내려갔더라면 아예 허리가 끊어질번하지 않았나.》

강철룡은 장한듯이 피가 흐르는 정갱이를 쳐들어보이며 고기를 붙안은채 기슭으로 올라왔다.

기슭에 늘어섰던 대원들이 와— 하고 쓸어드는바람에 사령관동지께서는 고기구경도 변변히 할수 없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껄껄 웃으시며 아예 낚시대까지 강철룡에게 넘겨주시고 손을 씻으시였다.

15

투박한 통나무탁자에 비해서는 주전자도 차잔도 대단히 사치한것으로 생각되였다.

그러나 첫인상을 그렇게 받았을뿐 유상춘도 그의 조카 유경무도 그에 대해서는 인차 잊어버렸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장차 자기들의 운명을 어떻게 처분하실지 몰라 마음속이 한줌만큼 졸아들어서 다른 생각을 좇을 경황이 없었던것이다.

유상춘은 벌써 태평촌집에서 끌려나올 때부터 모든것을 단념하노라고 했다. 그러나 물홈골짜기에서 뒤따라온 경찰이 한바탕 총질을 해대자 은근히 가슴이 뛰였다. 그 총소리가 유격대의 과감한 반돌격에 의하여 순식간에 가라앉고말자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심한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물홈골짜기에서 이 올기강기슭까지 한절반은 질질 끌리다싶이해서 가까스로 왔던것이다.

그는 이틀동안을 거의 물만 마시고 살았다. 두고온 부귀영화가 떠오르는가 하면 그것을 위하여 평생을 두고 저지른 죄과가 떠오르기도 하였다. 경무가 무엇인가 귀에 대고 그냥 중얼거렸으나 한마디도 알아들을수 없었다. 어디를 빠져나간단말인가. 과연 유격대는 자기들을 철망속에 가두어둔것도 아니고 철통같이 파수를 세우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달아나라고 그렇게 허술히 취급하겠는가. 신출귀몰한것으로 소문높은 **김일성**장군의 손바닥안에 들었는데 발버둥치는것부터가 부질없는짓이다.

유상춘은 차라리 최후의 그 순간이 한시바삐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가만히 앉아 세끼 날라다주는 밥을 편안히 먹고있는데도 입안이 헤여지고 얼굴이 조막만큼 줄어들었다. 경무도 얼굴이 캄캄해졌다. 젊은놈이 앉아서 칼을 기다리자니 좀 급하겠는가.

사흘째 되는 날부터 좀 정신이 들기 시작하였다. 밥을 날라다주는 녀대원은 특별히 친절한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죽일놈취급을 하는것 같지도 않았다. 어제는 그렇게 가만 앉아만있어서야 먹은것이 내리겠는가, 바깥에 나와서 바람을 쏘이는것이 어떤가고 충고를 해주기도 하였다. 그래서 천막밖을 나와 산등에 나서보니 바깥세상은 그렇게도 밝고 시원하였다. 생에 대한 의욕이 무럭무럭 솟아올랐다. 그때부터 그들 숙질은 시간 맞추어 산보도 하고 지나는 유격대원들의 동태도 살폈다. 어떤 쾌활한 젊은이는 그들을 보고 롱담을 걸기도 하였다.

《아바이가 아무 나라 말이나 다 안다는게 사실이오다?》

상춘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떨떨해있는데 쟁기를 둘러멘 그 유격대원은 같이 가던 동무를 돌아보더니 눈을 끔쩍끔쩍하며 알수 없는 소리를 망탕 주어섬기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자리서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소리지만 동무를 가리켰다가 하늘을 가리켰다가 제가슴을 툭툭 쳤다가 하면서 류창하게 주어섬기는 모양이 제법 그럴듯하였다. 원래가 활달한 성미인 유상춘은 마음속이 밝아지는것을 느끼며 《알만하오. 그게 안남말이요.》하고 말하였다.

《안남말?》

그 말의 임자가 놀라서 되묻더니 인차 침착해서 끄떡끄떡하였다.

《그렇지, 알기는 아는군. 그래 이제 내가 뭐라고 했소?》

《이 사람이 딸기를 나혼자 먹었다고 원망하지만 청백한 내 마음은 하늘이 안다고 하였소. 딸기라는것은 아마 무슨 보물인지, 모르겠소.》

《히야- 륙국통사가 다르기는 다르다. 어때? 나도 안남말을 꽤 잘하지?》

그들이 지나가자 별안간 유상춘의 가슴은 허전했으나 어쩐지 유격대가 자기 조카들이 말하는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한시바삐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싶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소원이 이처럼 빨리 이룩되여 지금 그들은 바로 **김일성**장군님앞에 앉아있는것이였다.

《차를 드시오. 이것이 무슨 찬지 알만합니까?》

장군님께서는 먼저 김을 부시고 몇모금 맛보신 다음 차잔의 그 그림만 살펴보는 유상춘에게 말씀하시였다.

유상춘과 경무는 서둘러 차맛을 보았다. 그리고는 서로 눈길을 마주쳤다. 차라든가 기명에 대해서는 유상춘이 내노라고 하는 사람이다. 경무는 어서 말씀드리라고 눈빛으로 재촉하였다.

《아주 독특한 맛인데 이러한 차는…》

유상춘은 이렇다하게 떠오르는 명차의 이름이 없어서 다시 한모금 마셨으나 역시 잘 가늠이 가지 않았다.

《처음입니까?》

장군님께서는 딱한 표정으로 마주보는 상춘에게 웃음을 지어보이시며 물으시였다.

《전혀 처음입니다. 주로 남쪽에서 나는 차들이 이렇게 빛갈이 맑으면서도 향기가 높은데 저로서는 아직 맛본적이 없습니다.》

《허허허, 그렇습니까? 이것은 무송에 있는 어떤 인삼장사가 보내준것인데 말하기는 인삼무역때문에 저 남쪽나라들을 돌아다니다가 구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모를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바쁘다나니 관심을 별로 돌리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말하기는 괜찮은 물건인것 같습니다.》

《그렇겠습지요. **김일성**장군님께 올리는 물건을 아무것이나 골랐을수 없습니다. 그러고보면 장사하는 사람들가운데도 깬 사람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장사를 크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피물이며 인삼같은것을 가지고 여러 나라와 교역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의 큰 삼포가 무송에 있지요. 장사군이지만 시속에는 밝아서 유격대와 등을 져서는 장사를 못한다는것을 안것 같습니다. 허허허.》

장군님께서는 유쾌하신듯 웃으시였다.

《그렇지만은 않을것입니다. 우리같은 촌늙은이가 뒤고방에 박혀있다나니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어지간한 사람은 다 **김일성**장군님을 만고의 명장으로 흠모하고있습니다. 그 사람도 아마 장군님의 성덕을 흠모하여 향기높은 차를 보냈으리라고 믿습니다.》

《허허허, 과한 말씀입니다. 그래 차맛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훌륭합니다. 석계수 흐르는 유곡에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마시는 차맛이 각별합니다.》

유상춘은 마음속으로부터 장군님의 풍모에 경탄을 금치 못하여 세상이 **김일성**장군님을 두고 단지 신출귀몰한 장군이라고만 이르는것이 얼마나 일면적인가 하는것을 통감하였다.

차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무르익어갈무렵에 오백룡이가 무슨 문건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오백룡의 말을 들으시더니 문건만 받으시고 인차 돌려보내시였다.

그러시고는 아까와 똑같은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 동무들이 태평촌을 들이치던 날 나는 봉산동에 갔습니다. 거기서 마침 하곡선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들으니 두분이 다 오막살이에 태여나서 가난한 선비로 어지러운 세상에 나섰다고 하던데 령감님은 어떻게 되여 한대에 그처럼 많은 땅과 재부를 모을수 있었습니까?》

유상춘은 마침내 시작되였구나 하는것을 느끼며 기침을 톺았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직접 사돈령감을 만나보셨다니 내속이야 오죽 잘 아실가. 이렇게 생각하니 죽음은 이미 피할수 없는것으로 느껴졌다. 낯빛이 긴장되자 호화로운 생활에서 물러난 그의 육체는 더욱 초라하게 보이였다. 강렬한 해빛과 신선한 자연은 유상춘을 둘러싸고있던 으리으리한 후광을 싹 벗겨버렸다.

《모두 죄를 지어가며 긁어모은것입니다. 나라가 망함에 도적이 이르는곳마다 성하여 미처 밝히지를 못하는 형편이라 그 틈에 나도 도적질을 한셈입니다.》

《허허허, 그것이 일시 궁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면 당신의 여생을 위해서 좋을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그러되 당신들이 일본제국주의가 망한 다음에 어떻게 처신할것인가. 상춘씨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일제의 멸망은 그리 오랜 시일이 걸릴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조용한 환경속에서 그런 문제를 생각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허지만 우리들의 생각이 무슨 소용에 닿겠습니까. 다만 장군님의 처분을 기다릴뿐입니다.》

유상춘은 이때 차라리 거북하게 마주앉아있기보다 풀밭에 무릎을 꿇고 내려앉아 장군님의 소매를 잡고 빌고싶었다. 그러나 **김일성**장군님께서 손님처럼 대해주시니 그럴수도 없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 운명을 자기스스로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죄과를 뉘우치고 재생의 길을 걷고싶다면 길은 언제나 열려져있습니다. 오늘의 부귀영화가 아까와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는 길로 나가는자 역시 붙잡지 않습니다. 그런자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는것을 깨우쳐줄뿐입니다. 그만합시다. 우리는 당신들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태평촌일대의 당신의 재산은 몰수하여 인민들에게 나누어주었지만 당신의 목숨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당신의 큰 조카가 경찰국장이고 또 성안에 있는 중요한 상점들이 당신의것이기때문에 우리는 일시 당신과 함께 있는것이 필요해서 데리고왔을뿐입니다. 이제 며칠 안가서 그 필요성도 없어질듯합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다시 태평촌으로 돌아갈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다음 당신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당신들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 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듣자니 상춘씨는 서화를 좋아하는 모양인데 스스로 붓을 들기도 하시는지…》

《아니올시다. 한때 그림을 모으는데 재미를 붙여서 자연 그 부면의 사람들과 사권적은 있습니다만 나자신은 전혀 붓을 들지 않습니다.》

무슨 화제도 위축된 유상춘 숙질간의 마음을 풀어주지는 못했다.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보시고 너그럽게 웃으시며 앞으로는 소풍도 하고 이야기하러도 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돌려보내시였다.

자기들의 천막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은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았으며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았다.

천막안에 단둘이 들어가 앉았을 때에야 그들은 서로 마주보았다.

《아저씨, 잘하면 살길이 열릴것도 같지 않아요?》

유경무는 데쳐놓은 시래기처럼 휘주근해진 유상춘을 향하여 속삭였다. 천막안은 물론 주변일대에 인적이라고 없었지만 유경무는 극도로 조심을 하며 바싹 무릎을 끌고 나앉아서 주눅이 들어버린 아재비를 주의깊이 뜯어보았다.

《이럴 때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내보기에는 **김일성**장군이 대단히 관대한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 있어서는 안되지요. 우리도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유상춘은 조카의 교활하게 반짝거리는 눈을 바라보며 속으로 개탄하였다. 유가의 피줄이 이렇게도 악하였던가. 속담에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인정에 막힌다고 하는데 의리도 인정도 통하지 않는 이러한 인간들은 무엇으로 다스려야 한단말인가.

그러나 그 역시 하늘우에 사는 신선이 아니라 속세에 사는 인간이였다.

김일성장군님의 덕에 감격한 이상 그것을 물질적으로 표시하는것도 필요한것이고 또 장차 살아갈 길을 틔워보지 않을수도 없었다. 그는 듣기가 역겨운대로 조카가 섬기는 이런저런 타산들을 잠자코 듣고있었다.

16

사령관동지께서 유상춘이와 담화하실 때 오백룡이가 가지고온것은 금천동공작조에서 보내온 보고였다.

청지동과 태평촌전투를 계기로 화봉지구의 모든 조직들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광산이나 목재판은 말할것도 없고 장대선의 4인계는 어느새 50인계를 넘어서서 며칠전에 조국광복회조직을 내왔다.

일부 통제품을 제외하고는 원호물자도 많이 마련되였다. 적들의 동태가운데서 주목되는것은 《련합토벌사령관》이란자가 혁명군에 대한 결정적인 공격을 진행하기 위하여 다시 한개사단의 정규무력을 떼내려고 관동군사령부와 집요하게 교섭을 진행하고있다는것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계속 조직을 확대강화하면서 김준삼이와 리성림은 적의 동태를 예리하게 감시하라는 지시를 주시여 통신원을 돌려보내시였다.

그날저녁에 유상춘이 조카는 떼여두고 혼자 제발로 찾아왔다.

《어서 오시오.》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시여 걸상을 가리키시였다.

유상춘은 좀 쭈밋거리더니 앉았다.

장군님께서는 손수 고깔불에 주전자를 올려놓으시고 사위여가는 불길을 헤치시였다.

《실은 장군님께 긴히 여쭐 말씀이 있어서 바쁘실줄 알면서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놀러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편안히 앉으시오. 그래 요사이 건강은 나빠지지 않습니까. 유격대의 침식이라는것이 상춘씨같은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울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견디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그것은 혁명군의 생활이 간고해서보다 자기 죄과가 가슴을 치기때문일것입니다. 금침이불에 눕고 진수성찬을 끼마다 대한들 지금 이 마음 가지고는 편할수가 없습니다.》

《허허허, 좀 지나치게 생각하는것이 아닙니까?》

《아니올시다. 자기일신의 부귀영화만을 생각하던 인간이 나라를 위하여 이처럼 험지에 풍찬로숙하는 애국자들을 볼 때 그 잠자리가 편안할수 없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장군님, 내 종일 생각하던바를 말씀드리겠는데 바른 해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서슴없이 말씀하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어느새 김을 내뿜는 주전자를 조심스레 책상우에 옮겨놓으시고 전령병의 배낭에서 차잔 한개를 더 꺼내여 벌려놓으시며 소탈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유상춘은 고개를 숙이고있다가 기계적으로 차잔에 손을 뻗쳤다.

낯빛이 꺼멓게 질려있던 그는 한참이나 동안이 지나서야 무엇인가 크게 각오를 한 사람처럼 고개를 쳐들었다.

《장군님, 낮에 말씀하시기를 일본제국주의의 앞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 늙은것의 명보다 일제의 명이 더 짧다고 보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제가 망할 징조는 벌써 여러모로 나타나있습니다.》

유상춘은 예기하고있었던 답변이면서도 몹시 충격이 심한듯 흠칫하더니 고개를 떨구고 다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참을성있게 유상춘의 말을 기다리시였다.

일제의 명금이 짧은것이 자기자신의 명줄보다 더 큰 문제로 되는 인간들이 실제로 있다는것은 기이한 일이지만 어느 정도 이 끓어번지는 시대의 한가닥 탁류를 말해주는것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어디에 나의 재생의 길이 있습니까? 일제가 망한 다음에도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다면 내가 살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윽고 유상춘은 장군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말하였다. 그것은 애원이라기보다 절통한 울부짖음같았다. 그는 별안간 고개를 숙이고 이번에는 기가 탁 꺾인 목소리로 이었다.

《내가 더 살기를 바란다는것이 주제넘습니다. 나는 이미 살만큼 살았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자식도 없습니다. 조카들이 있지만 그 애들은 그 애들대로 제 갈길이 있을것입니다. 내가 원하는것은 오래 살고싶은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규탄을 받으며 살아남고싶지 않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윽히 그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상춘씨는 이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백지화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두고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때 속죄하는데는 결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것입니다.》

유상춘은 진실을 확인하듯 장군님의 근엄하신 얼굴을 바라보았다. 부드럽고 인자하시면서도 엄하게 빛을 뿌리시는 그이의 안광에 부딪치자 유상춘은 다시금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장군님, 나를 동정해주십시오. 나는 이미 늙었습니다. 나에게는 힘도 지혜도 총명도 없습니다. 나에게 있다는것은 약간의 재물이 있을뿐입니다. 내가 내놓을수 있는것은 그것뿐입니다. 그것을 내바치겠습니다. 후날 장군님께서 내가 장군님을 뵈온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것만이라도 보증해주실수 없겠습니까?》

《허허허, 대단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수많은 인민들의 눈이 있는데 내가 무슨 보증을 했다고 그것이 통하겠습니까. 또 내가 사실에 어긋나는 말을 인민들에게 할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올시다. 경위중대장어른의 말을 듣자니 장군님께서는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서 일본제국주의를 물리치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나도 있는껏 다 내놓겠습니다.》

《허허허,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상춘씨가 혁명을 위해 돈을 내놓겠다면 그쯤한 보증이야 못서겠습니까? 그러나 이 숲속에서 우리에게 절실한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도 나는 알아보았습니다. 말이 돈이지 그까짓 종이장이 무슨 소용에 있겠습니까. 나는 그 돈을 물건으로 바꾸어낼수 있습니다. 가령 신발이라든가, 천이라든가…》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냥 웃으시며 듣고계시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이 유상춘이라는 인간이 보통인간이 아니라는것을 느끼시였다. 유격대에 붙들려와가지고도 장사판을 벌리듯 흥정을 하려고 드니 그가 오막살이에서 강낭지짐을 먹고 자라난 사람으로서 자기 당대에 그처럼 큰 재물을 긁어모을수 있었던 비결의 한끝을 엿보는듯하시였다. 그는 죽는 시늉을 하고 다니면서도 지금 유격대에 무엇이 절실히 필요하며 어느 모퉁이로 뚫고들어가면 살길이 열린다는것을 면밀히 타산하였다.

어처구니없기도 하시였지만 군벌정권때부터 권세가 당당했던 토호가 그쯤 꺾어져나오는것도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의 한 반영이라고 생각하실 때 마음이 밝아지시였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물건들을 받고 증명서를 내주는것으로 됩니까?》

《그렇소이다. **김일성**장군님의 도장이 찍힌 증명서만 한통 해주신다면…》

《허허허, 그거야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것은 증명서를 받는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죄과를 뉘우치는것입니다.》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그럽게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주 토호로서의 유통사문제를 두고 기왕에도 생각하신적이 계시였으나 이처럼 구체적인 인간을 앞에 놓고 그 처리문제를 생각하게 되실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시였다.

잠시 생각하시는데 강봉수가 달려왔다.

그는 경례를 붙인 다음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를 드리였다.

《사령관동지, 옥돌골에서 청년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천천히 일어서시며 열어젖힌 천막 출입구쪽을 내다보시였다.

《세동무 다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무는 그때 축구시합할 때 8련대에 속해서 뽈을 차던 동무같습니다.》

《옳소, 손영백동무요. 어서 가봅시다. 봉수동무는 상춘씨를 천막까지 모셔다드리시오.》

하고 장군님께서는 유상춘에게 말씀하시였다.

《그 문제는 좀 토론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마음 푹 놓고가 쉬도록 하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멀리 떠들썩한 소리가 울려오는 경위중대 천막을 향하여 급하게 걸음을 옮겨놓으시였다.

옥돌골지방에 뿌린 혁명의 씨앗이 어느새 뿌리내리고 열매 맺어 자기의 첫 아들들을 혁명군에 보내여왔다.

며칠 비가 구질거리더니 마침 오늘은 말끔히 개였다. 선선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온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드는 공지에 장경수가 세 청년을 데리고 무엇인가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있다. 특징있는 그의 몸짓은 언제보나 활기에 차있었다.

강봉수의 뒤를 따라 묵묵히 생각에 잠겨 걷던 유상춘은 기쁨에 넘치시여 달빛속을 누벼나가시는 장군님의 뒤모습을 이윽히 바라보며 분명 유격대에 무슨 큰 경사가 났는 모양인데 아무쪼록 그것이 자기 운명에 좋은 영향을 미쳐주기를 달을 향해 빌었다.

17

시마끼는 김준삼이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들이자 유상춘의 집에 반드시 무슨 단서가 있을수 있으니 어떻게 하든지 태평촌으로 침투해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아직 그자에게 이렇다하게 얽매인것은 없으니 로골적으로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못하나 상당히 안이 달아난 꼴이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호철이가 행방불명이 된 직후에 태평촌일대에 대한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공이 있었다. 청지동에서 한개 대대의 손실을 본 사건의 뒤수습도 미처 못하였는데 련속적인 이 타격으로 하여 혼마는 신경으로부터 된 추궁을 받았고 그것은 배가되여 시마끼에 대한 폭발적인 분노로 터져나왔다. 호철의 사건으로 하여

어쩐지 이 모든 불쾌한 사건들이 마치 시마끼 한사람의 실책으로 빚어진듯한 인상을 조성시켰다.

그처럼 무표정하던 시마끼의 가면같은 얼굴에도 감출수 없이 초조감이 드러났다. 그는 《동아물산》의 구석방으로 준삼이를 불러들이였다. 그것이야말로 준삼이가 들어가보기 위하여 그처럼 애쓰던 복마전이였다. 시마끼는 단도직입적으로 조건을 내놓았다. 호철이가 운영하던 광굴이라도 좋고 아니면 국책회사인 만주광업의 주권이나 혹은 다른 어떤 리권이라도 알선해주겠으니 손잡고 일해보지 않겠는가 하는 제의에 대해 준삼이는 시마끼의 신분을 밝힐것을 검질기게 요구한 뒤끝에 특수선무공작반원이라는 진짜 절반 가짜 절반의 고백을 듣자 마치 감격한듯이 자기는 사실 평생 쓰고도 남을만큼 돈이 있는 조건에서 반드시 기업을 하고싶은것은 아니다, 사상범전과자라는것을 아는 조건에서도 자기를 믿어만 준다면 자기는 힘껏 노력해보겠다, 사실 자기는 이러루한 일에 어느 정도 취미도 있고 또 그옛날 《감옥동지》들도 적잖게 있는것만큼 그 줄을 타면 괜찮은 성적을 올릴수도 있을것이라고 장담해나섰다.

시마끼는 그 자리에서 호철이의 무능과 경박성, 치부욕을 욕질하면서 자기가 태평촌 유가네 집을 주목하는 원인을 말하였다. 그의 추리는 일견 그럴듯하였다. 그가 단정하는데 의하면 유격대는 태평촌지구를 치고 유상춘과 그 조카를 끌어갔는데 태평촌일대에서 유상춘의 재산을 몰수하여 분배하고 떠난것으로 보아 다시 태평촌지구에 진출하려고 그자들을 끌고간것은 아니다. 두가지 추측이 있을수 있는데 그 하나는 유경문이가 자기 아재비때문에 현경찰무력을 《토벌》에 함부로 내몰지

못하게 하자는것이요, 다른 하나는 유상춘으로 하여금 몸값을 든든히 물어내게 하자는것일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그리 중요치 않다. 관동군으로서 이 사태에 가장 큰 흥미를 느끼는것은 이상 사실로 미루어 **김일성**유격대가 반드시 멀지 않은 현 관내에 있으며 당분간 더 있을것이라는 그 점이다.

시마끼의 말을 듣고 준삼은 내심 놀랐다. 이놈이 올빼미눈을 해가지고 땅바닥만 내려다보는것 같지만 생각하는것은 제법이다.

《그럴듯한데요.》

하고 김준삼은 감탄한듯이 한마디 하였다.

《그러나 유격대가 현 관내에 있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통사네 집에 드나들 필요도 없지 않는가요? 청지동을 치고 일주일이 못가서 태평촌을 쳤는데 그것은 지도를 얼핏 스쳐보면 명백한것 아닙니까?》

시마끼는 무표정하게 준삼을 바라보더니 돌아섰다.

《우리의 추리나 판단은 신문에 발표하기 위해서 필요한것이 아니다. 실제적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것이다. 즉 나의 말은 당신이 이길로 태평촌 유가네 집에 들어가야겠다는것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보면 시마끼의 추리는 역시 그럴듯한것이였다.

그러나 준삼이로서는 태평촌에 쉬 들어갈 구실이 떠오르지 않았다. 태평촌전투를 준비하기 위하여 유경무를 내세워 같이 가본적은 있으나 그가 없어진 지금 자기가 그 집에 나타난다면 첫째 유경문이가 이상하게 생각할것이다.

준삼이로서는 시마끼의 과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태평촌 유가네 집의 동태를 살필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흔들흔들 현성거리로 돌아다니지만 실상은 다치면 터질듯이 긴장되여 유경문의 동태를 살피고있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유경문이가 태평촌으로 떠나갔다. 부하는 한놈도 안데리고 혼자 마차를 타고 떠난것을 보면 사사로운 걸음이 틀림없다.

준삼은 태평촌으로 그를 뒤쫓아갈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금천동 목재업자 소가를 불렀다. 금천동에 자기 광굴을 가지고있을뿐아니라 큰 채목공사를 벌려놓고있는 소가는 준삼이를 통해 청지동 일대의 목재채벌허가를 유가에게서 받아내자고 말을 걸어왔었다.

준삼은 그를 유경문이 외출하고 없는 현경찰국으로 데리고갔다. 유경문이 없다는 말을 듣자 소가는 락담해서 준삼이만 쳐다보았다. 여기서 준삼은 내친김에 태평촌에 가보겠으니 그리 알라고 하고 소가의 마차를 가지고 곧장 태평촌으로 달렸다.

성곽처럼 요란하게 큰 유상춘의 집은 예견했던대로 빈집처럼 어수선한 인상을 자아냈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여기에 유경문이가 와있을뿐아니라 사복차림의 시마끼가 먼저 와 앉아있는것이였다.

이놈이 자기더러 들어가라고 다몰아치더니 어느새 배암새끼처럼 먼저 기여든것을 보니 장차 시마끼라는 인간에 대해 더욱 경각성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컴컴한 낯빛으로 긴 안락의자에 나란히 앉아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몸종의 안내를 받으며 준삼이가 들어가니 두사람 다 마지못해 허리를 일으키며 하던 이야기를 마무리였다.

《국장나으리의 립장은 리해가 됩니다. 그러나 공사를 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마끼의 말이였다.

《나도 다 생각이 있소. 떠든다고 될 일은 아니니까… 정군이 어떻게?… 내 불행을 위로하러 왔소?》

유경문은 시마끼의 공박에서 놓여난것이 다행스러운듯 먼저 준삼에게 알은체를 하였다. 그는 시마끼의 정체는 알든 모르든 공식적으로는 《동아물산》의 출장소장이기때문에 태평촌을 습격한 공산유격대를 추격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론의할수는 없었다. 시마끼도 유경문이가 자기딴으로는 취할만큼 대책을 세우고있다는것을 알면서도 그를 독촉하는척하면서 딴 꿍꿍이를 하고있었기때문에 흔연히 화제를 바꾸어 준삼을 맞이하였다.

《정군이 여기까지 온것을 보니 이제는 무슨 유리한 계약이라도 성립된것이 아니요?》

《전혀.》

하고 준삼은 이마의 땀을 훔치며 못해먹겠다는 시늉을 해보이였다.

《사람의 욕심이란 렴치를 가리지 않는것입니다. 소정간씨가 국장각하와 안면을 익히자고 어찌 졸라대는지… 내가 국장각하의 불행을 로골적으로 이야기할수도 없고 해서 마지못해 말씀이라도 여쭈어보겠다고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실은 만나뵈온적도 오래되고 또 그사이라도 숙부님에게서 무슨 소식이 없었는가 해서 찾아왔습니다.》

《고맙소. 앉으시오. 나는 이미 상복을 입은것으로 생각하고있지요.》

유경문은 수난자처럼 처량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니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이어 응접실문이 소리없이 열리더니 사람그림자가 얼씬하였다. 세사람은 입을 다물었다.

차를 들고 들어오는 깨끗한 여름옷차림의 처녀를 보자 준삼은 흠칠하였다. 그와 동시에 처녀도 준삼을 보고 들어오던 걸음을 주춤하였다. 수련이였다. 그 녀자가 유경문의 처제라는것은 그때 산속에서 들은바 있다. 목단강 어디서 학교교원노릇을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단말인가. 물론 여기에 오지 못할 녀자는 아니다. 숲속에서 촉망중에 얼핏 만나본데 불과하지만 분명 자기를 알아본듯한 눈치를 챈 준삼은 이러한 정황을 예견하지 못한것을 혀를 깨물고 후회하였다.

그러나 몹시 충격을 준 이 상봉은 그들 두사람의 눈빛속에서만 격렬한 불꽃이 튀였을뿐 한순간에 지나갔고 따라서 다른 사람은 색다른 눈치를 챌 겨를이 없었다.

수련이는 침착하게 두잔의 차를 손님들앞에만 놓더니 자기 형부를 향하여 미소를 지어보였다.

《인차 가져와요.》

유경문은 덤덤히 앉아있었고 시마끼는 자기 차잔을 유경문이앞으로 절반쯤 밀어놓았다. 수련이는 가볍게 몸을 날려 문밖으로 사라졌다.

《어서 드시지요.》

준삼이도 자기앞에 놓인 차잔을 어중간하게 밀어놓으며 속으로 생각하였다. 저 녀자가 나가서 무슨짓을 할것인가. 혹시 시마끼의 컴컴한 올빼미눈에 이상한것이 뜨이지 않았을가. 유경무를 통하여 알아본바에 의하면 수련이는 그날 자기가 숲속에서 겪은 이야기를 집에 돌아와서 하면서도 유격대에 대해 나쁜 말을 한것은 없었다.

유경문이가 자기 삼촌 유통사와 동생이 끌려간데 대해 한가닥 희망을 품고있는것도 수련이에게서 들은 소리를 적지 않게 믿고있기때문이였다.

그렇지만 철없는 인테리처녀의 신의를 믿고 이 자리에 편안히 앉아있을수는 없지 않는가.

준삼은 이모저모로 불안하였지만 지금 당장은 오직 침착하게 앉아있다가 될수록 자리를 뜨고싶지 않아하는듯이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기회를 엿보는수밖에 없었다.

수련이는 인차 차 한잔을 더 가져왔다. 아무런 색다른 표정은 없었으며 시간을 따져보아 그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짬도 있은것 같지 않았다. 그 녀자는 집안이 어수선해서 사람의 마음에 곰팽이가 필 지경이라고 명랑한 어조로 말하면서 창문의 카텐을 젖혀놓았다. 유경문은 여느때와 같이 이마에 굵은 주름살을 새기며 웅얼거렸다.

《네 방으로 좀 나가있거라.》

《그러지 않아도 나가겠어요.》

《허허허, 국장나으리가 공연히 그러십니다. 우리 홍정에 수련씨와 같은 미인이 관계한다면 더욱 뜻있는것으로 될텐데요.》

시마끼는 그 주제에 인사를 차리느라고 격에 맞지도 않는 롱담을 하였지만 유경문의 낯빛은 여전히 흐린 날씨였다. 이때 이 방에 앉아있는 네사람가운데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있는 사람은 시마끼 한사람뿐인듯하였다. 보매 그는 자기의 오늘의 행차를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고있는것 같았다.

얼마후 그는 이 집의 벽파당과 후원이 뛰여난 건축미술로써 소문이 높은데 한번 보고싶다고 하면서 사건 당일날 유격대가 들어왔던 길과 마당과 후원, 벽파당을 비롯한 크고 넓은 집안의 구석구석을 쭉 돌아보았다. 벽파당에는 녀인들만이 주인 없는 랭방을 지키고 앉았는데 얼굴에 분칠을 한것은 춘매 한사람뿐이였다. 몸채도 샅샅이 다 뒤지였다. 중문으로 빠져나오다가 헛간곁에서 웬 젊은 녀인이 손님들을 보고 알은체를 하였다. 이 집에서 춘매와 함께 두번째로 화장을 한 녀자였다.

시마끼는 건물과 정원에 대해서는 대단히 흥미를 가진듯이 보였으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은체를 별로 하지 않았다.

별로 수확이 있어보이지도 않는 그 순찰 뒤끝에 시마끼는 인차 돌아가겠다고 허리를 일으켰다. 그러면서 준삼이더러 같이 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마차를 좀 얻어타겠는데 하였다.

준삼은 일부러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어보이면서도 시마끼를 걸어가라고 할수 없으니 자기도 이 기회에 작별하겠다고 일어서서 새삼스럽게 소정간의 산림채벌허가문제를 가지고 경찰국에 찾아 가겠는데 언제쯤 가면 적당하겠는가고 물었다.

《나는 오늘 여기서 묵겠소. 그러니 래일 오후나 돼야 국에서 손님을 만날수 있을것 같소. 래일쯤 느지막해서 오시오.》

수련이는 마차옆까지 나와 손님을 배웅하였다.

《자주 오십시오.》 하고 새하얀 이를 절반쯤 드러내보이며 웃을 때 준삼은 그 녀자가 틀림없이 자기를 알아보았을뿐아니라 그때 숲에서 말한대로 유격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떠났으며 그 인상을 지금도 그대로 간직하고있다는것을 느꼈다.

《중문곁에서 만난 녀자 기억이 나오?》

마차가 태평촌에서 십여리나 멀어졌을 때 시마끼는 마부에게 들리지 않을만큼 낮은 목소리로 웅얼거렸다.

《인상이 생생합니다. 누구입니까?》

《나도 처음 보는 녀자요. 그러나 나는 그게 유경무의 처라고 생각하오.》

《그건 무슨 근거로?》

《내 륙감이요. 유경무가 틀림없이 그집에 들어박혔소. 바로 그때문에 유경문이가 태평촌으로 갔고 그 녀자는 진한 화장을 한거요.》

《그럴듯한데요.》

《유경무가 유격대에 물자를 넘겨주려고 들어온것 같은데 멀리서 동태를 살펴봅시다. 유경문이가 그럴것을 예견하고 덫을 만들고있소. 많은 경찰토벌대를 안도방향과 대마록구방향도로연선으로 내보내여 매복시키고있소. 지금 떠들지 않는것이 좋소.》

《그러나 유경무가 온것이 사실이라면 차라리 그를 통해 구체적인 작전을 하는것이 좋지 않을가요?》

《유경문이가 들을것 같소? 그자가 엇먹기 시작하면 오히려 재미가 없소. 걱정없소. 내가 며칠후 혼마사령관과 함께 신경에 올라가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소. 문제는 그동안에 유격대의 소재지를 똑똑히 찍는거요. 계속 태평촌을 감시하시오. 누구든 숲속으로 갈터이니 뒤를 밟아야 하오.》

준삼은 들을만해 앉아서 입을 다물었다. 적수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18

오래간만에 신경사령부청사에 돌아온 시마끼는 사령부내 장교들의 당황망조한 표정들에도 놀랐지만 부참모장 이와구니소장의 꺼칠해진 얼굴을 보고 더 놀랐다. 언제나 잘 다스려진, 부드러운 미소가 어려있던 그 퍼르스름한 아래턱은 며칠째 면도날이 가지 않아서 풋밤송이처럼 되였으며 향수내대신 담배진내가 역하게 풍기였다. 그는 밤에도 청사내에 앉아 그냥 화담배만 피워댄다고 한다.

《그래, 그 자리에서 불태우란말이다. 유골만 간편하게 해서 날라오되 일체 비밀에 붙여야 한다.》

이와구니는 수화기를 이 손 저 손으로 바꿔쥐면서 초조한 목소리로 웨쳤다. 상대는 할힌골 6군 지휘부에 나가있는 자기의 대리인 작전참모였다.

가까스로 통화를 끝낸 이와구니는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충분히 잘 열려져있는 창문을 다시 와락 열어젖히고 자기 자리에 가 털썩 주저앉았다.

《오기스라는자는 송장을 절반도 못거둔채 노몽한강을 내주었다네. 그놈은 고마쯔하라보다 더한놈이야.》

이와구니는 담배를 빽빽 빨다가 성이 차지 않는지 중둥을 뚝 잘라 내버리고 다시 불을 달았다.

《오기스중장이 직접 전선을 지휘했는가요?》

시마끼는 이와구니의 날카로와진 신경을 될수록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자들은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네. 오히려 우리가 내보낸 사람이 일선에 제일 가깝게 나가있는 형편이라니까… 덜돼먹은것들, 이제 두고보세. 노몽한강기슭에 수만의 시체를 쌓고도 국경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질자들이 이 사령부건물안에만 있지는 않을걸세.》

시마끼는 을씨년스러운것을 느끼며 방바닥만 내려다보다가 흥심없이 물었다.

《지금 동맹국들의 움직임은 어떠합니까?》

《흥, 말 말게, 그자들도 다 정보망을 가지고있네. 노몽한전선이 시원치 않다는것을 우리이상으로 독일대사관에서도 냄새맡고있네. 어떤놈이 스파이짓을 하는게 틀림없어. 극비에 붙이는데도 자꾸 새여나가거던. 소문에 히틀러는 쏘련과 무슨 교섭을 시작했다는것 같은데 심상치 않네. 그자가 동방에 기대를 걸 형편이 못되니까 우선 련합국들의 압력에서 벗어나보려는것이지. 그렇게 되면…》

하고 이와구니는 새빨간 입술을 한참이나 짓씹다가 내뱉듯이 말을 맺었다.

《우리는 대단히 어렵게 될걸세.》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시마끼는 더 물어불 말도 없었거니와 이 겹치는 난국이 백두산동북부일대에서 어떤 파탄을 초래할것인가 하는 생각이 너무나 현실적인 위협으로 떠올랐다.

두사람이 기다리는 혼마중장은 약속보다 10분이나 지나서야 도착하였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떠났는데 오는도중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지체되였다는 그의 변명을 이와구니는 랭담한 표정으로 듣고나서 좀 쉰듯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자동차가 고장난것은 천행이요. 나는 또 당신이 공산유격대의 습격을 받아 시체를 맞이하게 되지나 않겠는가 걱정했소.》

혼마는 짜증을 억지로 참고있는 이와구니를 이윽히 바라보더니 어처구니없다는듯이 중얼거렸다.

《몇백리 바깥에 있는 사람을 부르면서 10분정도의 여유도 줄수 없는것이 현하 제국의 실정이야 아니겠지요?》

이와구니는 흘끔하고 혼마를 돌아보았다. 시마끼는 긴장되였다.

무엇인가 폭발할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다행히 이와구니는 이마에 주름을 새기며 가까스로 신경질을 누르더니 지도를 펼치였다.

《시간이 없소. 지금 6군에 2사와 11사가 보강되고 새로운 비행부대들이 증강되고있소. 이번이 마지막 결전으로 될것이요. 그런데 응당 공고한 후방으로 되여주어야 할 당신네 전선이 최근에 와서는 더 소란스러우니 이래서야 전쟁을 어떻게 해먹겠소. 나는 이제는 당신들에게 이 여름에 당장 공산유격대를 다 없애라고 요구하지도 않겠소. 락엽이 질 때까지 최종적인 토벌의 준비를 갖추며 그때까지는 최소한의 병력으로 좁은 지역에 봉쇄하라는것이 고작 큰 요구란말이요. 그런데 그 최소한의 병력이라는것이 자그만치 4만명이니… 참 기가 막힐 일이지. 어디 그뿐인가? 최근에 와서 못견뎌내겠다고 아우성을 쳐서 목단강, 연길, 봉천 등지에 있는 예비무력들을 있는만큼 다 돌려주었지. 당신들이 목단강이나 연길지구에서 병력을

빼돌린다는것이 쏘만국경의 긴장된 병력균형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가. 봉천에 있는 부대들이 어디로 갈 부대라는것을 모르는가? 그런데 또 2개사단을 내라니… 당신들이 국책을 알고 제국이 처한 형편을 알고나 있는가?》

혼마와 시마끼는 묵묵히 낯익은 지도의 부호와 지명들을 들여다보면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듯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잠시 말을 중단한 이와구니는 그들의 허위적인 신중한 표정을 훑어보더니 마침내 자제력을 잃고 부르짖었다.

《당장 떠나들 가시오. 가와사끼의 부대를 련합토벌사령부 관하로 넘기겠소. 그리고 두개 비행부대를 보내겠소. 그것이면 병력이 모자라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근거는 없소. 우선 길회선과 빈돈선의 보급로를 정상화하여 할힌골전선에 난관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소. 이것은 아마 나도 포함한 관동군의 실제 운명을 좌우하는 판가리로 된다는것을 명심하시오. 몇백리를 오는데 자동차사고로 10분씩 지체시킨것이 당신들과 나사이에는 통용될지 모르지만 조선인민혁명군과의 전투에서는 통용되지 않을거요.》

잠시후 두사람은 간신히 이와구니앞에서 놓여나와 현관앞에 나란히 섰다.

시마끼는 자기 부서의 사업도 알아보고 또 오늘저녁에 사령부안에 박혀있을 끄나불들을 통하여 복잡하게 꼬여가는 정국을 료해할 예정이였다. 그러나 하루도 신경에서 지체할수 없다는것은 이와구니의 위협적인 말자체보다도 이 무시무시한 무더위속에서조차 서늘하게 떠도는 청사내의 살기가 뚜렷이 말해주고있었다.

잠시 인사삼아 만나본 우에다사령관이나 이소다니참모장의 표정에서도 어떤 일시적인 전투의 실패가 아니라 진펄에 빠져 서서히 죽음의 심연으로 빨려들어가는 인간의 공포같은것이 그림자처럼 비껴있었다.

《어디서 만날가요?》

시마끼는 혼마의 눈치를 살펴보며 은근히 떠보았다.

《그걸 미리 약속할 필요가 있겠나. 가와사끼를 주겠다니 그를 우선 보내겠네. 난 길림으로 가서 우리 참모들과 이 일을 의논해본 다음 움직이도록 할테니 그때 다시 련계를 취하도록 하세. 음산한 날씨로군.》

《그럼 가와사끼부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와사끼는 사령부에서 직접 보낸것이니까 우선 적세가 그중 우심한 안도, 화룡방향으로 급히 파견하는수밖에 없겠지. 내가 길림에 가서 우선 가와사끼에게 그런 명령부터 떨굴테니까 시마끼군은 가와사끼에게 들려보겠으면 들려보게.》

혼마는 이쯤 말하고나서 씁쓸해서 고장이 났다고 하는 자기의 멀쩡한 차를 타고 떠나버렸다.

시마끼는 자기 역시 서둘 필요가 없다는것을 깨닫고 다시 자기의 방으로 올라갔다. 무엇때문인지 문서철들이며 서류장들을 정리하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났다.

먼지를 뒤집어쓰며 한참 서류궤를 정리하던 그는 문득 이 놀음이 꼭 떠나는놈이나 죽을놈이 하는짓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손맥이 탁 풀렸으나 하던 일을 중단할수도 없어 건성건성 끝내버리고말았다.

19

세번째로 유경무가 보내는 물자를 접수하러 갔던 장경수는 500컬레의 로동화와 돛천 한통구리, 광목 스무필 그밖의 물자들과 함께 리성림의 통신을 가지고 돌아왔다.

물자들은 전번과 마찬가지로 물홈골짜기부근의 비밀장소에 일단 묻어두고 왔다는것이였다.

《성림동무가 그 물건을 나르는 인부들속에 섞여있었습니다. 상당히 급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장경수는 통신을 접수하던 경로를 보고드리면서 고개를 기웃하였다. 느낌이 심상치 않다는 말이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유통사의 간청도 있고 적들의 움직임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다 어차피 그들 문제를 처리해야 할것이기때문에 얼마전에 유경무를 먼저 돌려보내시였다.

돌려보낼 때도 데리고올 때와 같이 일단 남쪽으로 숲속을 따라 빙빙 에돌아가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문득 우심산기슭에 나가게 함으로써 후날 그가 다시 찾아오고싶어도 찾아올수 없게 로정을 정하였다.

그와의 련계를 취한것은 주로 장경수였다.

유경무는 떠난지 닷새후에 충실하게 물자를 가지고왔고 그 다음에도 정한 시간에 약속된 물자를 가지고왔으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약속을 리행하였다.

바로 며칠사이에 어김없이 꼭꼭 물자가 온다는것자체가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하였다.

유경무가 돌아갔을 때 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것은 뻔한 일이다. 물론 그 일을 조직하는데 유경무뿐아니라 현경찰국장이 직접 간참하고있겠으니 일정한 정도로는 담보가 있다고 볼수도 있었다. 그러나 왜놈들이 전혀 아무런 눈치도 못챘을수는 없는것이다. 전에 보내온 공작조의 통보에 의하면 특수선무공작반에서는 일부러 모른체하고 앉아있으면서도 유경문의 동태를 날카롭게 살피고있으며 유경문은 유경문대로 그런 속에서 자기 관하 경찰 무력을 풀어 우심산지구에 든든한 경계망을 펴고있다는것이였다.

그런속에 리성림이가 물자운반에 직접 끼여들었다면 이것은 적들의 일정한 움직임을 말해주는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무엇때문에 박인섭이를 통한 정상적인 통보체계를 밟지 않고 직접 장경수를 만나는것과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가?

해답은 역시 통신자체의 내용에서 찾아야 할것이였다. 통신내용은 대체 다음과 같은것이였다.

– 관동군 특무기관은 유경무가 돌아왔으며 그를 통하여 물자가 유격대로 들어간다는것을 알고 여러 갈래로 특무들을 포치하였다. 우심산에 간 인부들은 절반은 유경문의 밀정이고 절반은 특수선무공작반의 밀정이다.

– 유상춘이 석방되여 돌아오는 날이 현경찰《토벌대》의 공격 날자로 될것이다.

– 일제는 할힌골에서 대타격을 받고 최종적인 전투를 계획하면서 안도, 화룡 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을 획책하고있다.

새로운 부대가 길림방향에서 증원되여온다고 한다. 구체적인 시일은 추후로 통보하겠다.

그런데 바로 추후로 통보하겠다던 그 구체적인 시일이 끝머리에 찍혀져있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것이다. 처음에 공작조를 통하여 보내기로 하고 작성된 통보였으나 적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자 사전에 그것을 사령부에 통보하기 위하여 모험을 한것이였다.

날자는 사흘밖에 여유가 없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통신을 불사르신후 오전중 내내 적들의 새로운 기도를 어떻게 짓부실것인가를 생각하시였다.

7련대는 지금 와룡호방향으로 진출하면서 집단부락들을 들이치고 간데족족 조직들을 일으켜세우고있다. 8련대 역시 2도구, 3도구, 양초구 방향에서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고있다.

그 부대들을 하루사이에 부를길은 도저히 없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당면하여 각 부대들에서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주신 다음 오백룡을 부르시여 당장 고동하방향으로 떠날 차비를 하라고 지시하시였다. 성원은 강철룡을 책임자로 하여 10명을 넘지 않도록 조직하라고 이르신후 자신께서 부대들을 다녀오실동안 뒤일을 오백룡에게 책임지우시면서 김준삼공작조와의 련계를 정상적으로 가지도록 만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하시고 김정숙동지께와 옥금에게 지금 진행중인 동복제작을 시급히 끝내도록 다시한번 강조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점심식사를 마치시자마자 곧 길을 떠나시였다.

사령관동지의 일행과 함께 적의 군사거점과 병참기지들에 대한 공격을 더욱 적극화할데 대한 명령을 가지고 7, 8련대로 떠나는 통신원들도 출발하였다. 각

방면군부대들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 도처에 널린 적들에게 결정적인 공격을 들이댐으로써 이해 여름에 놈들이 꾀하는 전략적기도를 결정적으로 짓부실 시기는 마침내 온것이다.

호위성원으로서 강철룡이 책임진 기관총수 다섯명과 세 전령병, 여기에 전날 김준삼소부대에 속하여 고동하일대에서 활동한적이 있는 두동무가 길안내로 따라섰다.

고동하의 흐름은 그사이 여러 차례의 큰비에 불어나서 전날 김준삼소부대가 활동하던 로정을 그대로 따라갈수 없는데가 많았다. 숲은 더 울창해졌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그냥 길을 재촉하시였다. 길안내가 떨떨해서 강기슭을 오르내리면 사령관동지께서는 몸소 지도를 펴놓으시고 길을 정하군하시였다.

밤이 들어가지고도 행군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달이 높이 솟아오르기전 얼마동안만 우등불곁에서 대원들을 잠재우신 그이께서는 지도와 수첩을 펴놓으시고 작전을 구상하시였다.

일행은 이튿날 점심참이 못되여 주영찬부대에 도착하였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의에 도착하신 사령관동지를 뵈옵고 주영찬은 어쩔바를 몰라하였으며 강철룡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귀속말로 묻군 하였다. 그러면서도 오래간만에 그리웁던 사령관동지를 뵈옵게 된 행복감때문에 그는 커다란 몸을 어떻게 건사할지 몰라 두손을 맞비비며 그이곁을 서성거리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지간의 전투보고를 들으시고나서 우선 이웃부대들에 통신원을 보내여 지휘관들을 부르도록 하시였다. 한편으로는 당장 출발할수 있게 부대의 전투준비를 갖추도록 하시였다.

주영찬은 사령관동지의 분부로 보나 수행해온 호위성원들의 긴장된 표정으로 보나 무슨 일인가 벌어질 모양이라고 넘겨짚고 그도 긴장되여 돌아쳤다.

밤중에 최서범사단장을 비롯한 1방면군과 3방면군산하의 지휘관들이 도착하였다.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사령관동지께서는 주영찬과 함께 부대를 돌아보시였다.

《주영찬동무, 전투를 큼직하게 한번 해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주영찬은 그이의 심중하신 어조에 저도모르게 긴장되는것을 느끼며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어 말씀드리였다.

《적들이 지금 안도-화룡 방향으로 큰 <토벌>무력을 새로 증강시키려 하고있습니다. 그놈들을 쳐없앨뿐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전반적전략을 총파탄에로 이끌도록 진공전투를 대대적으로 조직해야겠습니다.》

《그럼…》

주영찬은 말씀자체의 뜻보다도 이 기회에 해명을 받고싶은것이 있어서 말끝을 흐리였다.

《전날 통신원편에 보낸 동무의 보고도 보았고 직접 그 동무한테서 형편이야기도 대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먼산을 바라보시였다.

주영찬은 언젠가 남패자의 뒤언덕 갈대숲속에서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던 날을 생각하였다. 그때로부터 1년도 채 못지났는데 자기가 아직 립장이 철저하지 못하여 그이께 또 심려를 끼쳐드리는것만 같아 절로 몸이 옹송그려졌다.

《지금은 문자 그대로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사령부와 멀리 떨어져있는 일부 동무들이 갈피를 못잡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왔으니 오늘저녁 모두 모이면 허심하게 의견을 나누어봅시다. 나는 편지를 통하여 주영찬동무가 이 문제에서 확고부동한 립장에 있다는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반가왔습니다.》

겸허하신 목소리로 담담하게 이어나가시는 **김일성**동지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 주영찬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지난날 마인구철교에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에게 가해지던 가혹한 비판의 말들이 오늘날에는 차라리 가벼웠던것처럼 생각되였다.

《사령관동지, 저도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신념이 부족하기때문에…》

주영찬은 떨리는 목소리로 웨치다싶이 말했다.

《됐습니다.》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주영찬의 커다란 손을 더듬어잡아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정세가 복잡할 때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준비된 동무들도 얼떨떨해질수 있습니다. 그런 동무들을 제때에 도와주어야 합니다. 근본은 명백합니다. 우리 혁명은 우리 손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 혁명도 지원해야 합니다. 세계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우리에게 휴식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편안하기를 원하거나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각 부대 지휘관들이 모여왔을 때 사령관동지께서는 그지간 각 부대들이 북대정자회의결정을 받들고 싸워온 전투로정을 보고받으신 다음 성과와 부족점을 일일이 갈라주시고 이어 새롭게 변천된 국제국내정세를 풍만한 자료로 렬거하시면서 예리하게 분석하시였다. 계속하여 자기 힘으로 해방을 이룩하려는 우리 혁명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을 다시한번 밝히시면서 당면하게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나선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제기하시였다.

최서범, 주영찬을 비롯한 많은 지휘관들이 토론에 참가하여 지나간 전투로정을 자기비판적으로 총화하였으며 사령관동지께서 다시금 밝혀주신 투철한 방침을 받들고 군사정치활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결의를 다졌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앙양된 회의분위기속에서 미리 준비하여가지고 떠나시였던 명령서를 하달하시였다.

전체 부대 지휘관, 병사들에게 보내는 그 력사적인 명령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있었다.

…자기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전사동지들과 당, 군정 간부들은 철석같이 단결하여 조중인민의 공동의 원쑤 일본제국주의강도들을 반대하여 9년간이나 간고하고도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여왔다. 그동안 강도일제는 아군의 부단한 공격에 의하여 수만명의 유생력량과 수많은 전투기자재들을 손실당하였다. 강도 일제의 대중침략전쟁이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8로군을 핵심으로 한 광범한 중국인민의 혁명력량에 부닥치여 계속 파탄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놈들은 또다시 형제적몽고인민공화국을 침공하고있다. 일제의 몽고인민공화국에 대한 침공은 나아가서 쏘련령토내에 침입하여 씨비리 철도간선을 절단하며 쏘련으로부터 원동을 떼여낼것을 목적하고있다. 이것은 바로 1938년 8월 일제의 쏘련 연해주남단 하싼호침공의 연장이다…

명령서는 일제가 당한 치명적인 타격에 언급하고나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쏘련인민과 붉은군대는 일제강도들의 어떠한 공세라도 제때에 박멸하리라는것은 추호도 의심할바 없다…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할 때는 왔다. 자기 조국의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중인민이…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며 형제적몽고인민의 정의의 전쟁을 원조하기 위하여 일제의 후방인 조선과 동북에서 놈들의 뒤통수를 때려부시는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투쟁인 동시에 긴급하고도 신성한 의무로 된다…

명령서는 계속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대와 매개 지휘관, 병사들앞에 나서는 과업을 제기하고 마감으로 항일무장투쟁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피력하였다.

전투조직이 끝났을 때 **김일성**동지께서는 통쾌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제놈들의 새로운 침략기도를 이룩할 때까지 우리들을 좁은 지역에 봉쇄해놓고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하나하나 소멸하겠다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들더러 가만있어달라는것이 그놈들의 희망입니다. 천만에! 우리는 이와 같이 그놈들이 딱

싫어하고 바라지 않는 일만 할것이며 치되 제일 아파하는데를 칠것입니다. 이제 동무들이 대전자일대에서 놈들의 증원부대를 들이치고 빈돈선과 길회선을 마비시키며 한편 7, 8련대동무들이 화룡지구에서 대대적인 진공전투를 벌린다면 제놈들이 더 큰 무력을 들이밀지 않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력을 어디서 빼오겠습니까? 결국 놈들의 침략기도는 중국전선이나 몽고전선이나 총파탄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전투를 통하여 우리가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를 다같이 훌륭하게 수행한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회의참가자들은 우렁찬 박수로써 그이의 웅대하고 심원한 전략적구상에 열렬히 호응하였다. 이어 각 부대들은 명령을 받들고 모두 그날밤과 이튿날아침까지 용약 싸움터를 향해 떠나갔다.

이튿날 벌써 대전자에서 사령관동지의 력사적인 명령을 받들고 첫 전투의 봉화가 터져올랐으며 다음날 수송도중인 적 가와사끼부대를 대전자부근의 15리도로구간에서 매복습격하여 완전소멸하는 통쾌한 전투가 진행되였다.

계속하여 전투의 불길은 한총령, 한총구, 황구령 전투에로 더 크게, 더 넓게 번져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관회의에서 토의결경된대로 화룡지구에 큰 규모의 진공전투를 조직하시기 위하여 급히 귀로에 오르시였다.

20

수련이가 준삼이를 알아보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공작조에서는 심각한 론의가 벌어졌다. 박인섭은 무조건 자취를 감추어야 한다고 내우겼으며 최병규는 고개를 기웃거리면서도 역시 안전한 길을 택하는것이 옳다고 말하였다.

성림은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수련이가 준삼이를 알아보았다면 결국 자기도 같은 정도로 위험한 셈인데 그래서 두사람 다 몸을 피하게 된다면 공작은 누가 하겠는가 하는 태도였다.

《우리 공작조에서 절대로 안전하다고 볼 사람이야 없지요. 인섭동무는 뭐 그렇게 안전한가요?》

부드럽게 하는 말이였으나 성림의 립장은 확고하였다.

하기는 이제 겨우 발판을 만들어놓은 셈인데 그것을 온전히 한번 리용해보지도 않고 제김에 물러선다는것은 누가 생각하기에도 맹랑한 일이였다.

장시간의 론의끝에 결국 준삼이와 성림이가 언제나 서로 엄호할수 있고 막아줄수 있도록 련계를 취하면서 당분간 적어도 유경무가 마지막 물자를 들여보내는 기회에 시마끼가 꼭 무슨 음모를 꾸밀수 있으니 그때까지만이라도 공작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황판단과 처리는 그리 빗나간것 같지 않았다.

준삼은 때마침 신경에서 돌아온 시마끼를 만났으며 이어 가와사끼부대의 이동에 대한 정보를 손에 쥘수 있었다. 그때 성림은 바로 그곁에 붙어다녔다. 그러나 시간이 촉급해서 공작조와 련계를 취할 여유는 없었다. 하는수없이 성림이가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물자를 실은 마차를 따라갔으며 거기서 장경수를 만났다. 며칠후 대전자와 대장강에서 가와사끼부대가 전멸되였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준삼은 회파람을 불며 현성거리를 활보하였다.

시마끼는 이와구니로부터도 혼마로부터도 지휘부안에 간첩이 있다고 추궁을 받았으나 실지 그런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와사끼 부대가 아니면 《련합토벌사령부》내에 있을것이라고 내우겼다. 어떤 의미에서 준삼의 안전은 시마끼가 담보하고있는 셈이였다.

어느날 오후였다.

준삼은 시마끼가 혼마나 이와구니의 추궁에 대해 반발은 하였지만 내심 딴 궁리를 할것이 틀림없다고 넘겨짚고 유경무가 유격대에 물자를 들여보내면서 련계를 가지고있는것만큼 그자들형제를 통해서 유격대에 비밀이 들어간다고 보는것이 과학적이며 따라서 그자들을 잡아족칠 필요가 있다는것을 미리 귀띔해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동아물산》으로 갔다. 그런데 해빛 안드는 그 우중충한 뒤골목에 낯익은 마차 한대가 서있는것이 보여 몸을 감추었다.

자세히 보니 유경문의 마차였다.

시마끼가 유경문을 찾아갔다면 몰라도 유경문이가 《동아물산》에 나타났다는것은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다. 시마끼가 벌써 자기가 생각한것과 같은 추리를 하고 잡아족칠 생각을 했는가? 준삼은 본능적으로 신경이 곤두섰다.

그는 옆골목으로 빠져나가 몸을 숨기고 마차의 동태를 살폈다. 마차주인은 인차 나타났다. 그것은 유경문이가 아니라 그의 동생 유경무였다.

《아하》하고 준삼은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저자가 정 급해맞아서 가장 졸렬한 수를 써보자는것이 아닌가? 눈을 처매고 원시림속을 빙빙 에둘러 돌아온놈을 통해서

사령부의 소재지를 알아내자고 들었을수는 없고 혹시 다음물자운반때 <토벌>력량을 들이밀어보자는것인가?》

어쨌든 이 사실은 직접 사령부의 안전과 관련되는만큼 인차 통보를 날려야 할것이다. 그는 그길로 금천동으로 달렸다. 공작조의 련락소는 그후 금천동 뒤산 어느 한 폐갱속으로 옮겼던것이다.

한편 《동아물산》의 뒤방에서 유경무를 내보낸 시마끼는 잔뜩 이마살을 찌프리고 습기찬 창밖의 담벽을 뚫어지게 쏘아보고있었다. 겉보기는 매우 랑패한듯한 인상이다. 그러나 실상 그는 오늘 예상치도 못한 굉장한 수확을 거둔것이였다.

사실 그가 광산주권때문에 흥정할 일이 있으니 동생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유경문에게 전화질을 할 때까지만 해도 별 자신이 없었다. 준삼이가 추측한대로 덮어놓고 유경무를 족치면 무슨 단서이든 잡히지 않겠는가 해서 초조한김에 억지공사를 벌렸던것이다.

아닌게아니라 유경문은 자기네가 유격대에 물자를 대주고있는것을 여태 시마끼가 모르겠거니 하고 앉아있다가 그러한 전화를 받고 몹시 놀랐다. 그리고 자기로서는 특별히 감출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자운반을 하면서도 유격대사령부의 소재지를 탐지할 대책은 다 세우고있으며 이러한 일은 극비에 붙여야 하기때문에 알리지 않았을뿐이라고 저저이 변명하였다.

시마끼는 당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그럴듯하다고 일단 추어주고나서 동생을 보내라고 말했다.

불과 몇시간후에 유경무가 사색이 되여 이 방에 나타났다. 그는 시마끼가 묻기도전에 다 알고있는 사실을 거북할만큼 장황하게 곱씹어가며 늘어놓더니 마감에 가서 시마끼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 한마디를 비쳤다.

《사령부라는데에 숱한 사람들이 찾아옵디다. 군대만이 아닙니다. 농민같은 사람도 있고 인부같은 사람도 있고 신사차림을 한 사람도 찾아옵디다. 물자를 넘겨주는데도 별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광산 있는데서 본 사람도 거기 하나 왔던데요…》

《뭐요? 그게 누구요?》

축음기에 태엽을 감아놓은 다음 소리판이 돌아가는대로 귀를 기울이고있는 음악애호가처럼 듣는데만 정신이 팔려있는듯하던 시마끼가 불시에 물었다.

그 목소리는 특별히 크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지만 어느덧 혼자 지껄이는데 익숙해진 유경무는 시마끼가 별안간 이야기에 끼여드는바람에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다.

시마끼는 다시는 말을 하지 않고 뚫어지도록 유경무의 눈만 들여다보았다. 유경무는 당황하여 제풀에 다시 지껄이기 시작하였다.

《누군지 이름은 알수 없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낯익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어디서 본 사람인지조차 생각나지 않습디다. 워낙 물자를 넘겨주는곳에 유격대가 나와있을것이 뻔하기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였지요. 그런데 전날 거리에 나왔다가 조인식씨를 만났습니다. 그 홍아목재상의 대리인이라는 청년말입니다. 그제야 물자를 넘겨줄 때 본 그 인부생각이 떠오르더란말입니다. 언젠가 금천동에서 리호철씨와 함께 마차를 타고 금천동고개를 넘어서다가 신통히 조인식씨와 같은 사람을 보았단말입니다. 우리는 그때 청지동으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던길이였지요. 헌데 그 사람은 인부란말입니다.

리호철씨는 암만해도 조인식이같다고 세우라는것을 나는 반주를 좀 한 뒤라 취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그냥 마차를 내몰았지요. 아니나다를가 청지동에 가니 그 조인식씨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제야 호철씨도 맹랑해서 그런지 다시는 그 말을 입밖에 내지 못하더군요. 헌데 내가 물자를 가지고가서 본 그 인부는 그날밤 조인식씨 비슷하게 생긴 로동자와 함께 가던 사람이더란말입니다. 그날밤 그옆에 또 한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나이든 령감같습디다…》

이건 참으로 묘한 이야기다.

시마끼는 더는 유경무의 횡설수설을 듣고싶지 않았으나 실컷 지껄이게 내버려두고 그때부터 생각에 잠긴것인데 그가 돌아간지 이슥한 지금토록 명확한 판단이 가지 않았다.

유경무라는 인간자체가 한번은 술에 취해보았다는것이요 또한번은 유격대에 포위된 상태에서 틀림없이 얼이 빠져보았다는 사람이니만큼 여러가지 의문과 억측이 떠올랐다. 문제는 당장 조인식을 체포하여 달아매면 간단히 의문이 풀릴수도 있다. 그러나 시마끼의 올빼미눈은 여전히 광명이 지나치게 눈에 부신듯 침침한 벽만 바라보며 천천히 끔뻑거렸다.

조인식의 체포는 곧 흥아목재상의 정체를 의심스럽게 하는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이와구니나 혼마로 하여금 자기 목을 어느때나 달아맬수 있게 하는 구실을 줄것이다. 무엇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것인가.

그럴것이 아니라 이 줄을 거꾸로 잘 리용하여 **김일성**사령부의 소재지를 밝힐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조인식이란자가 대체 진짜 공작원은 공작원인가? 그렇다면 응당 홍아목재상의 아들도 그렇다고 보아야 할것이 아닌가.

문득 그의 눈은 둔한 빛을 뿌렸다.

유경무가 숲에서 돌아온 바로 그날밤 태평촌 유가네 집에서 벌어졌던 장면이 떠올랐다. 수련이라는 녀자는 전혀 알 까닭이 없는 홍아목재상의 아들에 대해 분명 필요이상 강한 반응을 보이였다. 목재상의 아들 또한 충격을 받은듯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수련이가 유격대에 잡혔다가 놓여났다는것은 그 녀자가 제 입으로 꺼리낌없이 지껄이고 다니는 사실이다. 물론 수련이라는 녀자는 경박한 소부르죠아 인테리처녀에 불과하다. 그런 계집애가 류행을 따라 사회주의서적을 몇권 읽었다고 해서 대단할것은 없지만 유격대공작원과 련결이 되였다면 내쳐둘수 없는 문제이다.

현상액속에서 흐릿하던 형상들이 차츰 선명하게 인화지에 옮겨지듯 복잡한 사건들의 련관관계와 론리가 뚜렷하게 두드러져올랐다.

시마끼의 올빼미눈은 날카로운 빛을 뿌렸다.

(그렇다고 내가 공개적으로 체포하지는 않을것이다. 나자신이 보고자료를 걷어쥐기전에는 그 누구도 손을 못댄다.)

그는 전화로 금천동 만주광업출장소를 찾았다. 거기 태반의 감독들은 바로 그의 직속 끄나불들이며 광산에는 그의 개인관할하에 있는 비밀감방이 있었다.

21

사령관동지께서 올기강기슭의 밀영지로 돌아오시니 벌써 겉보기부터 어수선한것이 느껴지시였다.

한쪽에서는 천막을 거두고있고 다른쪽에서는 짐을 꾸리고있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영접보고를 하러 나온 오백룡은 한편 반갑고 한편 당황하기도 하여 그답지 않게 더듬거리며 말씀을 드렸다.

《사령관동지, 어서 몸을 피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준삼동무가 사령관동지를 마중하러 떠나려던 참입니다.》

그러고보니 정말 행군차림을 한 김준삼이가 뒤에 서있다.

그의 인사를 받으신 사령관동지께서는 벌써 무슨 일이 있었다는것을 짐작하시고 부산한 밀영지를 돌아보시였다. 작식대의 천막도 다 거두고 작식도구들을 한창 정리하고있다.

오백룡은 그이의 반석같이 동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뵈옵자 차츰 침착성을 회복하고 말을 이었다.

《리성림동무가 체포되였습니다. 김준삼동무와 박인섭동무도 가까스로 빠져나왔는데 공작조의 뒤수습을 하느라고 시간을 좀 지체하다나니 조금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지휘관회의를 열고 우선 사령부의 위치를 옮기며 적들이 올수 있는 길목에

차단대를 배치하도록 8련대 정위동지에게 통신을 띄웠습니다. 그사이라도 혹시 사령관동지께서 여기로 곧장 오시게 되면 좋지 못할것 같아서 길을 잘 아는 김준삼동무가 영접을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한번 밀영지를 살펴보시였다. 풍이며 행장들을 꾸리고있던 동무들은 일손을 멈추고 그이의 안색만 살피고있다.

그이께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니 오백룡은 뒤를 따르며 절절한 어조로 설명을 계속하였다.

《리성림동무를 체포한것은 경찰이 아니라 관동군특수선무공작반놈들입니다. 지금은 리성림동무의 체포경위도 명확치 않기때문에 그놈들이 무슨 수를 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혹 놈들이 리성림동무를 체포하는것과 동시에 손을 쓴다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유통사를 먼저 이동시키려고 준비해놓았습니다. 유경문은 아무래도 제 삼촌의 생명이 우리 수중이 있으니 함부로 덤비지 못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동군놈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으시였다. 밀영지를 한바퀴 도신 다음 재봉대귀틀집으로 향하시였다. 새초 우거진 산등에 오르시니 경위중대의 태반의 성원들이 재봉대의 짐을 꾸리고있었다.

옥금이가 달려나왔다. 아직 목재판 인부차림을 한 인섭이도 거기에 있다가 인사를 드리였다.

옥금이의 보고에 의하면 동복제작은 거의 끝나가는데 다 된것들은 지금 비밀장소로 옮기는중이라고 한다.

《이번에 인섭동무가 일을 잘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도 넘어보고, 좋은 경험도 쌓고…》

사령관동지께서는 다른 동무들의 동의를 구하시듯 지휘관들을 돌아보시였다.

박인섭은 이런 때 사령관동지의 치하를 받는것이 뜻밖이여서 송구한 표정으로 그이를 우러러볼뿐이였다.

오백룡은 조마조마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다시 그이의 앞으로 나섰다.

《사령관동지, 우선 사령부를 옮기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짐들을 옮기는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휘관들뿐아니라 모든 대원들이 그것을 바라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백룡의 거듭되는 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을 주시지 않고 뒤전에 고개를 숙이고 서있는 준삼에게로 다가가시였다.

준삼은 그이께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들으시려는것으로 짐작하고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보고를 듣는것이 그리 급하지 않다는듯이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준삼동무가 용케 빠져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했겠는데…》

준삼은 그이의 너그러우신 말씀에 눈을 슴뻑거리며 말씀드리였다.

《저는 무엇인가 륙감으로 느껴지는게 있어서… 그러나 뚜렷한 근거가 없었기때문에 동무들에게 일반적으로 경각성을 높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태를 규명해보려고 유경문이한테 간 사이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유경문이네 집에서 불질을 하면서도 빠져나왔지만 성림동무는 화룡광산

사무실에서 유경무와 마주앉아있다가 느닷없이 광산순사놈들에게 걸렸습니다. 그놈들이 실은 다 관동군 특수선무공작반의 끄나불들입니다.》

《그래 뒤수습은 다 됐습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없는 부드러운 어조로 물으시였다.

《박인섭동무는 아무래도 좀 로출된것 같아 일단 데리고오고 최병규동무는 농촌조직으로 보내여 비교적 안전한 장대선동무한테 피신시켰습니다. 광산지구와 목재판의 조직들은 든든하기때문에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그대로 제기된 과업을 내밀도록 하고 직접 공작조와 련결된 핵심들만 일시 위장대책을 세웠습니다. 조직은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디여낼것 같습니다.》

김준삼은 자기가 책임진 공작조에서 문제가 생겨 사령관동지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것이 죄송한 나머지 시종 고개를 들지 못하고 보고를 드리였다.

《잘했습니다. 조직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가볍게 준삼의 어깨를 쓸어주시고나서 천천히 걸음을 옮겨놓으시였다.

이때 박덕산이 보낸 8련대의 통신원이 숨가쁘게 달려들었다.

8련대는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하여 화룡거리로부터 사령부로 통하는 모든 길목에 차단대를 배치할것이라는 통보와 함께 경위중대는 사령관동지의 안전을 담보할 만단의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덧붙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그에 대해서도 별말씀 없이 또 걸음을 옮겨놓으시였다.

재봉대귀틀집앞에서는 녀대원들이 절절한 눈길로 사령관동지를 지켜보고있었다.

문득 그이께서는 뒤를 따르는 지휘관들과 호위성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또 세울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금천동지구의 공작조에서 취한 대책은 정확하며 지하공작원칙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령부인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사령부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있으며 우리는 지금 오히려 더 많은 적들을 유인해오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 각 방면군 지휘관들의 회의에서 큼직한 진공전투를 조직하기로 결정하고왔습니다. 그러나 사령부를 지켜야겠다는 동무들의 생각은 옳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데 있습니다.》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였다가 준엄하신 안색으로 물으시였다.

《리성림동무가 체포된것이 곧 적들의 습격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순간 그이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눈길은 아래로 숙어졌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어조를 바꾸시여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회의를 하고 이러한 대책을 세운 심정은 리해가 됩니다. 박덕산동무가 보낸 통신을 봐도 그 심정을 알만한것입니다. 특히 리성림동무가 체포된 경위를 잘 모르는 조건에서 그가 아무리 잘 싸운다 하더라도 놈들의 손길이 어느쪽으로 뻗쳐올지 모른다는것이 동무들의 기본타산이라는것을 나도 리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는것은 리성림동무입니다. 성림동무는 또다시 어려운 고비를 겪게

되였습니다. 만일 리성림동무가 동무들의 이러한 모양을 본다면 그가 무슨 힘을 가지고 그 시련을 견디여내겠습니까?》

괴롭게 갈려나오시는 그이의 말씀에 웅성거리던 밀영지는 숨소리를 죽여버렸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준삼이를 향하여 실무적으로 물으시였다.

《혜산에는 사람을 보냈습니까?》

《저 정귀하로인에게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것은 천험의 요새에 막혀있는 이 숙영지가 아니라 정귀하로인입니다. 급한 때일수록 침착해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깊은 심려가 어리신 안색으로 낮게 말씀하시고 뚜벅뚜벅 걸음을 옮겨놓으시다가 다시 멈추어서시였다.

《물론 동무들은 모든 일을 실수없이 하자고 그러는것이겠지만 무엇보다 전우들을 믿어야 합니다. 우선 리성림동무가 혁명의 비밀을 그렇게 호락호락 내놓을 동무가 아닙니다. 동무들이 우려하는것처럼 혹 그놈들이 리성림동무를 체포한외에 또 다른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놈들이 접어들면 든든히 답새겨주면 될것입니다. 지금 필요한것은 이런 이동준비가 아니라 동지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결단성있게 돌아서시더니 오백룡에게 즉시 밀영지의 질서를 정상상태로 복구할것을 명령하시였다. 그리고 8련대 통신원에게 차단대를 철수시키며 종전대로 공작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를 주어서 돌려보내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장경수를 부르시였다.

《동무들은 이길로 옥돌골을 거쳐 국내로 나가야겠습니다. 때가 늦었을수도 있습니다. 적들이 성림동무를 체포하면서 같은 시기에 김준삼동무에게 손을 썼다면 정귀하로인 역시 이미 잘못됐을수도 있습니다. 리학렬동무에게 무슨 련락이 와있을수도 있으니 만나서 대책을 토의해보시오. 이미 체포되였다면 놈들은 불원간 로인을 이리로 호송할것입니다. 호송도중에 기회를 봐서 빼낼수도 있을것입니다. 아예 든든한 동무들을 몇동무 데리고가서 결사전을 벌릴 각오를 하시오.》

재봉대 귀틀집앞에는 여러짝으로 갈라묶은 동복퉁구리들이 가려져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퉁구리들짬으로 웃자락이며 소매끝을 뽑아 재여보시기도 하시고 솜두께를 가늠해보시기도 하시였다. 그러시다가 귀틀집안에서 갑자기 세차게 돌아가는 재봉기소리를 들으시고 고개를 드시였다.

《이것은 무슨 소리요?》

《저…》

하고 조진범이 급히 다가오며 말씀드리였다.

《김정숙동무가 필네동무를 데리고 마지막 동복을 만드느라고 그럽니다. 사령관동지께서 돌아오시기전에 명령하신 일을 끝내려고 재봉대원들을 이끌고 간밤에도 밝히더니 짐을 다 꾸려놓은 지금도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정확히 집행하는것 역시 사령관동지를 보위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일에 정신이 팔려 사령관동지께서 돌아오신것도 모르는것 같습니다.》

옥금이가 그이께서 오신것을 알리려고 귀틀집안으로 달려들어가려 하였다. 그런것을 손짓으로 막으신 사령관동지께서는 천천히 거니시며 갈수록 재봉기소리가 높아지는 귀틀집안을 바깥에서 살펴보시였다.

두대의 재봉기를 나란히 놓고 앉아 기관총을 내쏘듯 그렇게 세차게 손잡이를 돌려대는 두 녀대원은 겉보기는 무슨 재미있는 일이나 하듯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이미 다된 동복을 이어나가시고 필네는 바지가랭이를 붙이고있었다. 필네가 다 걷어내간 귀틀집안을 둘러보며 무슨 말인가 물었다. 그러자 김정숙동지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순간 주먹을 쳐들어 힘차게 내리치는 시늉을 하시였다. 그사이에도 재봉기는 그냥 돌아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필네의 얼굴을 가끔가끔 돌아보며 무슨 말씀인가 계속하시였다.

모두가 이동준비를 하느라고 부산하게 돌아가는 속에서도 끝까지 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겠다고 드팀없이 앉아계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바깥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혀주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동복퉁구리들앞으로 걸어나오시였다.

《재봉대에서 교양사업이 괜찮게 되는것 같습니다. 필네도 이제는 제법이군…》

사령관동지께서는 누구에게라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흡족하신듯 동복퉁구리를 쓸어보셨다.

《옷이 아주 잘되였습니다. 이쯤하면 눈속에서 뒹굴어도 끄떡없겠습니다. 자, 이것은 계획된대로 비밀장소에 보관하시오. 아직 나머지 일감이 많소?》

옥금이가 자그마한 수첩을 꺼내들고 수자를 들어가며 대답을 올리였다.

《시침은 전량이 다 됐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제 김정숙동무와 필네동무가 마무리를 끝내면 나머지는 단추만 해달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번 여름에 재봉대가 아주 큰일을 제꼈습니다. 동복들이 벌써 이렇게 준비되고 신도 있고 새로운 무기도 많이 로획한데다 탄약까지 넉넉하니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성림동무를 구원하는것입니다. 내가 좀 생각해보겠습니다. 그사이 김준삼동무와 박인섭동무는 사령부에서 대기하시오. 자 이제는 자기 사업들을 하시오.》

얼마후 장경수는 두사람의 기관총수들을 데리고 급히 옥돌골방향으로 떠나갔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강기슭으로 내려오시다가 문득 돌아서시였다.

《참, 그사이 누가 낚시질을 좀 해봤습니까?》

너무나 뜻밖의 질문을 받은 오백룡은 떨떨해서 미처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침을 꿀꺽 삼켰다.

《아무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고기가 살이 졌겠는데… 오늘은 바람결도 좋고 물빛이 좋습니다. 큰 고기가 나옴직한 날씹니다. 재영동무, 어서가서 낚시대를 가져오시오.》

사령관동지께서 전투가방을 내려놓으시고 풀메뚜기를 잡기 시작하시자 준삼이와 오백룡은 서로 눈길을 마주쳤다. 사령부를 옮기자는 말씀을 다시 드려봐야 전혀 소용없다는것을 알게 된 그들은 서둘러 달려갔다.

김일성동지께서 강가에 낚시대를 드리우실무렵 사령부의 천막은 다시 일어섰다.

사령관동지의 안전을 생각하여 일시 황황해서 돌아가던 유격대원들은 강가에 낚시대를 드리우고 앉으신 그이의 모습을 뵈옵자 모두 마음들이 진정되였다. 지나는 사람마다 사령관동지의 모습을 한참씩 지켜보다가 빙그레 웃으며 속삭이였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또 산천어국을 먹게 됐는걸.》

《그 우리도 덤비며 돌아갈것이 아니라 고기나 잡을걸 그랬는데…》

밀영지의 질서가 회복되여가는것을 한옆으로 바라보시며 한마리, 두마리, 산천어를 걸어내시는 사령관동지의 가슴은 실상 이때 몹시도 답답하시였다.

그이의 가슴을 무겁게 해드리는것은 위험앞에 놓인 정귀하로인이다. 이미 적의 수중에 떨어진 리성림의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결심이 계시였다. 이번 각 부대 지휘관회의의 결정대로 화룡지구에서 큰 전투를 벌려야 하겠으니 그 기회에 그를 구원하시자는것이였다. 그러나 그것 역시 실천으로 옮기는데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걸려들었다. 어쩐지 사색이 집중되지를 않으시였다.

《옳지, 네가 감히 나를 속여보려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생각에 잠기신 사이 감쪽같이 미끼를 따고 달아나려는 산천어 한놈을 재빨리 채여올리시며 입밖에 내여 말씀하시였다.

《사령관동지.》

언제 나타났는지 풀밭에서 풀떡풀떡 뛰는 고기를 침착하게 한손으로 누르고 따내면서 김준삼이 심중한 어조로 보고를 드리였다.

《밀영지의 질서는 종전대로 희복되였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준삼동무가 생각한것은 무엇입니까?》

사령관동지께서는 미끼를 꿰시던 손을 멈추시고 밝은 안색으로 준삼을 돌아보시였다.

《강가에 낚시를 드리우고 앉아계시는 사령관동지를 뵈오니 제가 너무 일면적으로 생각한것 같습니다. 사령부의 안전을 소극적인 면에서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관습화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리성림동무가 사령관동지의 신임에 보답하기 위하여 어떠한 결심으로 싸워왔으며 또 싸워나갈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나 우리 부대의 강력한 전투력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준삼동무.》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천천히 낚시를 치시며 따뜻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중에서도 우리 동무들은 특히 믿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그사람의 전부일수는 없습니다. 그래 이러한것은 준삼동무가 이미 깨달았으니 오래 이야기할것이 없고 …문제는 그를 구원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금천동으로 나가 성림동무를 구원하는 전투를 하겠습니다.》

준삼은 사령관동지를 간절히 지켜보며 비장한 어조로 말씀드리였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은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준삼동무가 급히 가서 동원할수 있는 력량이라는게 뻔한데 그 힘으로 일을 감당하기 어렵고 잘못하다가는 애써 꾸려놓은 조직만 로출시킬수 있습니다. 전투를 한다면 차라리 그곳에 가까이 있는 7련대를 불러서 시키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 지휘관회의에서

우리가 화룡지구에 큼직한 진공전투를 벌리기로 결정하고 왔습니다. 겸사겸사해서 아주 잘됐습니다. 이번 전투는 7련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합시다. 그다음…》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어느덧 열이 오르시여 손짓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다가 낚시대가 방해되자 옆에 밀어놓으시고 이으시였다.

《강철룡동무를 우심산쪽으로 내보냅시다.》

《우심산쪽으로 말입니까? 그쪽은…》

준삼은 우심산이 금천동과는 왕청같은곳에 있다는것을 말씀드리려다가 아무래도 그이께 깊은 타산이 계신듯하여 입을 다물고 활기에 넘치시는 그이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였다.

옆으로 가로눕혀놓은 낚시대가 후들후들한다. 고기가 달린 모양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귀찮으신듯 더 좀 멀리로 낚시대를 밀어놓으시고 바른손 둘째손가락으로 수북한 잔디풀을 이리저리 헤갈라보이시며 말씀하시였다.

《유통사를 이런식으로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동무들은 유통사가 돌아가는 날이 곧 현경찰의 공격의 날로 될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놈들이 공격해오는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상철동무는 가서 경위중대장동무와 박인섭동무 그리고 기관총소대장동무를 좀 불러오시오.》

해가 뉘엿이 기울어졌다. 올기강우에 노을이 물든 하늘이 어리였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지도를 꺼내시여 연필로 이곳저곳의 거리를 재여보시였다.

《200리는 넘는단말이지. 길이 험한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너무 좋은것도 문제로군.》

김일성동지께서는 와룡호어방에서 현성까지의 거리를 재여보시고 그 주변의 지형을 살펴보시며 혼자 뇌이시였다.

오백룡과 박인섭은 함께 달려오고 좀 떨어져서 강철룡이 달려왔다.

《중대장동무.》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지도를 한옆으로 밀어놓으시고 근엄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김준삼동무가 리성림동무를 구원할 전투를 조직해야겠다고 제기합니다. 아주 좋은 제기입니다. 그래서 좀 토의해보자는것입니다. 내 보기에 현성부근에서 경찰무력을 빼돌려버리면 훨씬 전투목적을 달성하기가 쉬울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리성림동무 문제가 아니라도 적들의 후방을 숨쉴틈없이 들이쳐야 하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화룡지구에 대한 진공전투를 크게 벌릴것으로 이번 지휘관회의에서 결정을 하고왔는데 이 기회에 금천동으로 진공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사령관동지.》

오백룡은 잠시 쭈밋거리다가 말씀드리였다.

《금천동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부대는 7련대입니다. 만일 7련대방향에서 진공전투를 진행한다면 올기강기슭만 넘겨다보고있는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혼란에 빠뜨려넣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경위중대장동무까지 찬성을 하니 우리는 이미 승리한것이나 같습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말끝마다 사령부호위문제를 들고나오는 경위중대장을 오늘과 같은 분위기속에서 쉽게 설복하신것이 가장 큰 난관을 극복한듯하시여 우선우선하시며 다시 지도를 여러사람들옆으로 펼쳐놓으시였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는것입니다. 우선 오늘저녁으로 강철룡동무가 2개소대정도의 전투조를 데리고 물자를 접수하던 물홈골짜기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지점을 약속하고 래일 아침에 재영이가 종전의 로정을 따라 유통사를 데리고 우심산기슭에 가서 석방시키고 옵시다. 이때 유통사가 물홈골짜기의 우리 동무들을 충분히 볼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백룡이와 준삼은 한꺼번에 머리를 쳐들었다.

그러나 사령관동지께서는 못보신듯 그냥 말씀을 이어나가시였다.

《유경문은 그길로 밸풀이를 하자고 경찰을 물홈골짜기방향으로 들이밀것입니다. 그때 강철룡동무는 기껏 놈들을 답새겨야 합니다. 그러되 아주 혼이 나서 도망가지는 않게 발목을 잡아매두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아직도 의문을 버리지 못하고있는 오백룡과 준삼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오늘중으로 인섭동무는 와룡호쪽으로 나가 오중흡동무를 만나야겠습니다. 물홈골짜기에 적의 경찰무력이 집중되는 틈을 타서 7련대는 금천동을 들고쳐야 합니다. 이때에 김준삼동무는 미리 금천동에 깊숙이 잠복해들어가서 공작조와 조직핵심들을 동원하여 리성림동무를 구원할 만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짐작에 저놈들도

성림동무를 호락호락 다루지는 않을것입니나. 그러니 실수가 없도록 물샐틈없는 대책을 세웠다가 전투가 붙으면 감쪽같이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고 사령관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중단하시고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곧 결단을 내리시고 말씀을 이으시였다.

《암만해도 김준삼동무가 완전히 로출된 조건에서 빠른 시일안에 이 모든 준비를 하자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필네동무를 련락원으로 데리고가는것이 좋겠습니다. 필네동무는 마음대로 나다닐수도 있는것만큼 많은 도움을 줄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단련도 시켜야 합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 선전사업을 들이댈 때 필네를 단정한 군복차림으로 내세워 낯익은 광부들앞에서 연설을 한번 시켜보시오. 아주 효과가 클것입니다. 모든것을 오중흡동무와 만나서 세밀하게 짜시오. 전투가 끝난후 7련대는 고동하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종전대로 군사정치활동올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준삼동무는 리성림동무를 호위하여 병원밀영까지 데리고가야 하겠습니다. 알만합니까?》

오백룡과 준삼 그리고 강철룡과 인섭, 재영이들은 한꺼번에 벌떡 일어났다.

《알았습니다.》

그들의 힘찬 대답소리를 들으시자 그이의 안색은 비로소 밝아지시였다. 사실 다 듣고보니 사령관동지의 구상은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도 선명하고 빈틈이 없었다. 노을이 고동색으로 변하자 사령관동지께서는 비로소 낚시대를 거두시고 사령부로 돌아오시였다.

활기찬 발걸음소리, 구령소리들이 숲속을 울리였다.

22

유상춘의 귀환은 태평촌집을 란가와 같이 만들었다. 처음에는 죽은것으로 치부한 로인이 돌아왔다고 집안에서뿐아니라 이웃동네들에서와 멀리 현성에서까지 유지인사들이 축하인사를 오고 밤낮으로 잔치를 벌렸다. 한적한 벽파당은 가무소리에 떠가는듯 하였고 온 집안에 기름내, 술내가 떠돌았다.

만사람이 다 죽은것으로 치부했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온것을 보면 벽파선생이 과연 보통사람이 아니라고 모두 입을 모아 그의 천복을 치하하였다. 그러던것이 경문이가 한잔 얼근해서 내 기어코 삼촌의 원쑤를 갚아 유씨문중의 치욕을 씻고야말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바람에 숙질간에 말다툼이 붙었다.

《가만히 있거라.》

유상춘은 피곤에 못이겨 침상으로 옮아가 앉으며 손을 내저었다.

《너희들이 아무리 덤벼봐야 유격대를 어찌해보겠다는것이 마치 말똥구리가 수레바퀴를 굴리자는 수작과 같아서 도시 가망이 없는 일이다.》

그 자리에는 경찰동료들도 와있고 시마끼와 련결된 인물들도 적지 않았다. 여느때같으면 유경문이도 충분히 리성을 발휘했겠지만 그자신 술이 좀 거나했는데다 여때까지 삼촌의 생명때문에 경찰을 풀어놓고도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해 선무공작반이나 성경찰청의 지청구를 겪던 일을 생각하면 울컥하고 화가 치밀었다.

《아니 삼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삼촌께서 욕을 보신것이 원통해서 모두 이를 가는터에 삼촌당자가 이렇게 주견 없는 말을 망탕 해서야 되겠습니까. 삼촌이 암만 봐야 술이 좀 과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촌의 말을 곧이듣지 마시오. 나는 래일 어떻게 하나 삼촌을 토벌의 앞장에 내세우고 공산유격대를 휩쓸어버리겠습니다.》

《무엇이 어째, 이놈!》

유상춘은 앞에 놓인 걸상을 와르르 잡아끌며 소리쳤다.

《네가 나를 앞장에 내세워? 되지 못한놈! 네놈이 아재비를 팔아서 공을 세워보려는것이냐, 아니면 아재비 몸값으로 물건을 내보낸것이 분해서 그러느냐?》

유경문은 얼굴이 시꺼멓게 질리여 삼촌을 쏘아보았으나 감히 사람들앞에서 맞불질을 하지는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그바람에 술자리는 다 망가지고 손님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날 밤이 깊어서 유경문은 다시 벽파당으로 찾아갔다. 단둘이 마주앉아서 한시간나마 서로 목청을 돋구어 웨쳐대더니 어떻게 락착이 됐는지 유경문은 이튿날 함지박골방향으로 《토벌대》를 끌고 떠나버렸으며 유상춘은 머리를 동이고 벽파당에 몸져누워버렸다.

그는 자기가 《토벌대》의 길잡이를 서는것을 펄펄 뛰며 반대하였을뿐아니라 네놈도 살고싶거든 유격대앞에 죄를 짓지 않는것이 좋다고 아까보다 더 엄하게 말했다.

사람들이 흔히 **김일성**장군은 축지법을 쓴다고들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김일성**장군의 비범한 모습의 한 측면이다.

김일성장군의 인품에 한번 접하면 모든 사람이 다 머리를 숙인다.

현경찰국장이라는놈이 제집에 쳐들어오는 유격대도 막지 못한 주제에 광활한 천지를 활개치며 다니는 유격대를 어찌해보겠다는것이 제 죽을 구멍에 다리를 들이미는것인줄 모르겠느냐-

삼촌의 이러한 말에 유경문도 더는 우길 말이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현경찰국장으로서의 체면과 립장이 있는것만큼 무슨짓이든 하지 않을수 없었다.

서로 옥신각신한끝에 유상춘은 조카를 푸접없이 내몰아버렸다.

그때로부터 령감이 어찌나 괴벽을 부리며 온 집안사람들을 못살게 구는지 곁에 사람이 붙어있을수가 없었다.

수련이는 꼴이 꼴같지 않아서 곧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하였다. 본시 아버지가 **김일성**장군님을 직접 뵈온터라 유상춘이 유격대에 끌려가서 죽었다고 떠도는 소문을 듣더니 너도 겪은바 있지만 유격대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것을 알려주어 그 집안을 진정시키라고 해서 오기 싫은 걸음을 하는수없이 떠나온 수련이였다. 아버지는 **김일성**장군님과 하루밤 력사이야기를 나누고나서부터는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어떤 악선전도 곧이듣지 않았다. 수련이는 그런 아버지를 보는것이 행복하였다. 자기가 유격대원을 만나 겪은 이야기에 대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자기보다 유격대에 대해 더 호의적으로 나오는것을 보았을 때 어쩐지 이 시대의 막을수 없는 흐름을 보는듯 하였다. 인심도 천심도 모두 **김일성**장군님께로 기울어졌다. 수련이는 그 흐름속에서 자기 재생의 길을 찾아보려고 모색하면서 태평촌에서 마지막 며칠간을 보내고있었다.

그럴판에 유경무가 나타나서 금천동으로 소풍삼아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끌었다. 유경무라는 인간은 평소에는 아무런 흥미도 없는 수전노에 불과하였지만 최근 그가 유격대에 끌려갔다온 다음부터는 어딘가 몸가짐에 비극적인 색조가 가미되여서 퍽 흥미를 끄는 존재로 되였다. 좋은 날씨에 집안에 박혀있을 재미도 없었다. 수련이는 쾌히 동의하고 마차에 올라탔다.

해빛은 따가왔으나 물쿠는 날씨는 아니였다. 현성거리를 그대로 꿰질러나간 마차는 금천동쪽을 향해 속력을 높이였다. 서늘한 바람이 가슴깊이 스며들자 수련이의 마음도 밝아졌다.

《아저씨는 유격대에 가보고 제일 인상이 강한것이 무어예요? 그들이 소문과는 다르지요?》

《음, 소문과는 물론 다르지. 이를테면 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란말이다.》

《그런데 큰아저씨는 그렇게 야단이예요?》

《수련아.》

하고 유경무는 새삼스럽게 몸을 돌려앉더니 훈시조로 말하였다.

《유격대가 애국자라는것이 골치거리란말이다. 바로 그때문에 백성들이 그네들을 도와주고 그네들이 이기기를 바라는게 아니냐. 그냥 두어두면 종당에는 우리들을 쓸어버릴것이다.》

《쓸어버리다니요?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때문에 아저씨를 놓아주겠나요?》

수련이는 이상한 소리도 한다는듯이 유경무의 질둔하게 생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네가 언제면 그 속내를 알겠는지… 사람은 그렇게 제속을 다 드러내고 살아서는 화를 스스로 끌어들이는 법이다. 너도 이제 곧 그 쓰거운 리치를 깨닫게 돼.》

유경무는 지그시 눈을 감고 더는 입을 벌리려 하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 내 생각하는것을 그대로 말하며 살겠어요. 그것이 누구에게 불편을 준단말이예요.》

수련이가 도전적으로 이렇게 내쏘았으나 경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마차는 어느덧 청지동으로 넘어가는 고개길을 지나 갈림길을 꺾어들었다. 먼눈에도 퇴락한것이 알려지는 금천동의 옛성문이 시야에 안겨왔다.

금천동은 그 옛날 이 지방일대에 욱실거리던 토호출신의 군벌이 틀고앉았던 성으로서 만일 10여년전에 유망한 금맥이 터져나와 삼선봉일대에 금광업자가 덮이지 않았더면 장마철의 개미굴처럼 무너져앉은지 오래 됐을 고장이였다. 금광경기를 타고 기울어져가던 옛집에 새로 단청이 오르고 새집이 들어섰으며 성문이 보수되였다.

북문뒤로는 만주광업주식회사의 출장소건물이 새로 들어앉고 그옆으로 개인업자들과 법인단체들의 광산사무소들이 잇닿아 늘어섰다.

항시 열어젖혀진채로 있는 북문은 옛거리와 새거리의 경계를 직관적으로 갈라주고있었다. 남문은 새로 보수하고 명색만 있던 포대우에 기관총을 걸어놓았다. 단속도 심하였다. 북문으로 나드는데는 광산종업원의 표식만 있으면 되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남문에서는 몸뒤짐을 당하기가 쉬웠다. 이것이 다 청지동에

유격대가 나타난 다음부터 겁을 집어먹고 시작한 놀음이였다. 만주광업회사자체로서도 경비와 순사인원을 부쩍 늘구었다. 거기에다 화룡수비대의 골간을 헤쳐 청지동과 금천동에 상주시키였다.

그래서 그런지 금천동거리는 살벌한 느낌을 자아냈다.

유경무네 화룡광업 현장사무실은 수련이도 가본적이 있었다. 삼신봉비탈에 있는 그 집 언저리는 만일 눈앞에 얼씬거리는 버럭더미, 고역에 시달리는 인부들, 제복을 입고 몽둥이를 들고 돌아치는 감독, 순시, 뽀얗게 먼지를 피워올리는 자동차, 밀차, 이따위 어수선한 얼룩들만 없다면 절경이라 할만한곳이였다.

마차는 그 절경앞을 본체도 안하고 지나쳐갔다.

수련이는 자기가 길을 잘못보았나 해서 사위를 두리번거렸다.

컴컴한 토담성벽을 끼고 널장으로 씌운 림시건물들이 다닥다닥 늘어붙은 로동현장거리가 분명했다.

《어디로 가요?》

하고 물었으나 유경무는 못들은척하고 바깥만 살핀다.

이윽고 어느 단층 회색벽돌집앞에 마차가 멎었다.

그것은 만주광업출장소의 경비계였다. 제복을 입어서 경찰이나 다름없는 험상궂은 화상들이 열어젖힌 방안에 앉아있거나 서있었다. 떠들고 웨치는자들도 있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붙들려온 로동자들이 매를 맞기도 하고 꿇어앉아있기도 하였다.

《여기는 왜 왔어요?》

수련이는 어쩐지 자기의 정갈한 여름옷이 덮어질것만 같은 위구심이 들어 옷자락을 쳐들고 앞뒤를 겁먹은 눈매로 살피며 다시 물었으나 역시 대답은 없었다.

어느 구석진 방문앞에서 유경무는 멎었다. 여느 방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일 구석진곳에 자리잡은 그 방은 그 언저리에 지나는 사람 하나 없는데도 창고문처럼 꽁꽁 닫겨져있다는 점이였다. 빈방같이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경무가 바투 문가에 붙어서서 몇번 가볍게 손끝으로 두드리자 별안간 문이 안으로부터 벌컥 열리였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소매 짧은 바둑판무늬 샤쯔를 입은 감독같이 생긴 중년의 왜놈인데 목소리는 썩 구석쪽에서 울리여왔다.

수련이는 유경무에게 등을 떠밀리여 저도모르는 사이 방안에 들어섰다.

바닥과 천장과 벽을 모두 일매지게 양회로 뿌옇게 칠해버린 음산한 방이였다. 지글지글 열기가 내풍기였다. 그런 방 한가운데 든든하게 생긴 책상 하나가 놓여있는데 시마끼가 담배연기를 입가로 슬슬 흘리며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하였다.

《오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러고보니 여기까지 온것은 자기의 자유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마끼가 불러서 온것이였다. 수련이는 여태 모른척하고있었지만 형부를 통하여 이미 시마끼의 정체를 알고있었다.

《저를 문초하려고 불렀나요?》

수련이는 입술을 짓씹다가 야무지게 물었다.

《그렇소.》

시마끼는 태연하게 응수하더니 유경무에게 나가라고 턱질을 하였다.

유경무는 공손히 문을 열고 나갔다. 조금 있더니 그 감독같이 생긴 사나이도 시마끼의 말없는 눈짓에 따라 바깥으로 나갔다.

《문초해보시지요.》

수련이는 제발로 시마끼의 책상앞으로 걸어가 그옆에 가로놓인 걸상에 그채로 앉았다.

《덤빌 필요는 없다. 이제 흥미있는것을 보여줄테다.》

시마끼의 말투는 대뜸 거칠어졌다. 수련이는 낯색이 파랗게 질렸다. 새삼스럽게 방안을 살펴보았다. 뿌연 양회천장, 뿌연 양회벽, 뿌연 양회바닥, 어디에도 그의 자존심과 아름다움과 순진성을 알아줄만한 구석은 없었다.

《흥.》

수련이는 쓸쓸한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다. 무엇에 대한 코웃음인지, 시마끼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선지 여태 소중히 간직해온 자기자신의 한푼싸지 않는 그 모든것들에 대해선지 그자신도 알수 없었다.

시마끼는 여전히 담배를 물고 피우는것이 아니라 슬슬 연기를 날리기만 하면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이 무덥고 안타까운 침묵속의 시간을 즐기고있다.

방문이 열렸다. 수련이는 그 어떤 해방감같은것을 느끼며 시마끼보다 먼저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리고 놀랐다.

온몸이 찢기고 터져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방금 결박된 두팔을 풀리우고 비틀거리며 방안에 들어섰다.

수련이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것은 성림이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자기가 경솔하게 일어섰다는것을 깨닫고 그 어떤 절망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주저앉았다.

《알아보겠는가?》

시마끼의 침울한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왔다.

《글쎄, 잘은… 언젠가 홍아목재상의 아들이라는 사람과 함께 가는것을 본적이 있을뿐이예요.》

그것은 거짓말이였다. 그는 그 숲에서의 상봉이후에는 성림이를 만난적이 없었다. 그러나 저도모르게 벌떡 일어난 돌이킬수 없는 실수를 갑자기 메꾸자니 이런 서툰 거짓말이라도 할수밖에 없었다.

《흥!》

시마끼는 코방귀를 내불었다.

《그 홍아목재상의 아들이 누구지?》

《광산 사러 다니는 사람이라면서요.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수련이는 차츰 침착성을 회복하자 반발적으로 되물었다.

《홍아목재상이라… 그렇다고 하자. 그날은 그래도 지금처럼 벌떡 일어나기까지 놀라지는 않았으니 일단 홍아목재상의 아들이라고 하잔말이다. 그런데 이자는 누구냐? 왜 그렇게 놀랐지?》

《피투성이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놀랄밖에 있어요? 난 녀성이예요.》

《흥, 숲속에서 유격대를 만나도 꿈쩍 않는 네가 피투성이된 사람을 봐서 놀랐다고… 이봐, 네가 떠벌이기 좋아하는 그 리성으로 돌아가는게 어때? 낯이 익지?》

《무엇이말이예요?》

《전에 숲에서 만난적이 있지?》

시마끼는 목소리를 낮추면서 그 올빼미눈에 불을 켜달고 송곳처럼 날카롭게 찌르고들었다.

《전혀 본적이 없는데요.》

《이년!》

시마끼가 세멘바닥을 구르며 책상을 탕 쳤다

《누구를 속여보려고… 세상 쓴맛을 좀 봐야 바른말을 하겠는가?》

시마끼는 한팔로 책상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수련이도 반사적으로 따라일어서서 몸을 돌렸다.

《여보시오, 시마끼선생.》

하고 리성림이가 방금까지 수련이가 앉아있던 자리에 천천히 걸터앉으며 말하였다.

《현경찰국장의 처제되는 아가씨에게 너무 무례하지 않소? 내가 홍아목재상의 대리인으로서 유경무씨네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화룡거리도 적잖게 돌아다닌만큼 이 아가씨가 나를 보았다는것이 그리 놀라울거야 없지 않소. 또 설사 내가 유격대원이라하더라도 이 화룡일판에 유격대가 쫙 깔려있는데 이 아가씨가 숲에서 유격대를 만났다니 그게 바로 나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도 유치한 삼단론법이 아니요?

여보시오, 시마끼선생, 당신이 그만하면 추리를 괜찮게 했는데 무엇때문에 이런 미덤성없는 증인을 새삼스럽게 끌어들여서 사태를 복잡하게 하겠소? 그렇소, 당신이 생각한것처럼 나는 유격대공작원이요. 이 처녀가 그 어디서 나를 만났다든가 안만났다든가 하는것이 이제는 그닥 의의가 없지 않소? 설마 내가 공작과정에 저 녀자를 리용했다고 생각지는 않겠지요?》

시마끼는 당장 물어뜯을것처럼 리성림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성림이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재털이옆에 놓인 담배갑에서 담배 한대를 뽑아물고 불을 청하였다.

시마끼는 오만상을 찌프리고 담배불을 내주며 턱질을 하였다.

수련이더러 나가도 좋다는 소리다.

수련이는 무엇인가 한마디 하고싶었으나 입만 벌리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것 같아 홱 돌아서서 힘껏 문을 열어젖히고 복도에 나섰다.

우중충하고 뜨끈뜨끈하게 괴여오르는듯한 탁한 공기가 가득 들어찬 복도를 나오면서 보니 같은 복도가 아까보다 훨씬 더 좁고 우불구불 구부러져있는것 같이 생각되였다.

바깥은 이미 석양녘이였다. 그러나 해빛은 여전히 따가왔다.

마차가 아까 내렸던 자리에 그대로 서있는것으로 보아 유경무는 아직 이 비인간적인 건물속에 남아있는듯하였으나 수련이는 돌아보지도 않고 길에 나섰다. 마부대에서 끄떡끄떡 졸던 마부가 알아보고 뭐라고 소리쳤고 또 얼마후에는 유경무의 목소리도 울려왔으나 수련이는 꼿꼿이 거리를 누벼나갔다.

난생처음으로 겪은 모욕과 자기환멸과 또 숲에서 만난적 있는 그 유격대원의 상처투성이몸에서 내풍기던 정신적위력은 수련이로 하여금 이 인간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한순간에 뒤집어엎게 했다. 그는 그 어떤 인간앞에서도 허위적인 인사치레를 할 필요가 없다는것을 통감하면서 당장 이 밤으로 그나마 자기 생활이 있는 목단강의 학교로 돌아가리라는 결심을 굳게 다졌다.

세상은 겉보기와 같이 어지럽고 추악하기만 한것이 아니다. 억눌리고 짓밟히는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우는 의로운 혁명가들이 있다는것, 그들에 의하여 이 어수선한 지구도 마침내 참다운 인간들을 위한 아름답고 깨끗한 유성으로 변하고말리라는 력사의 엄숙한 진실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리라는 강력한 지향이 억세게 머리를 쳐드는것이였다.

수련이가 떠나간 다음 방안에는 잠시 어성버성한 분위기가 떠돌았다.

시마끼는 한참이나 성림의 웃는것 같기도 하고 방심한것 같기도 한 옆모습을 뜯어본 다음에야 이 방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따라서 이야기를 주동적으로 꺼내야 할 사람도 자기자신이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래 모두 말하겠는가?》

《무엇을 말이요?》

성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역시 그의 입가에는 웃음의 흔적이 엷게 떠돌고있었다.

《몰라서 묻는가?》

시마끼는 으르릉거리며 노려보았다.

《유치하게 굴지 말라구.》

하고 리성림은 담배불을 비벼끄더니 정색하였다.

《당신은 그 녀자를 불러다대면 내가 립장이 좀 딱해지리라고 생각했는가?》

《증거가 명백하니까.》

시마끼는 성림의 말에 끌려들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어쩔수 없이 한마디 하고말았다.

《그래서 내가 유격대원임을 시인한줄 아는가? 그렇게 해서는 정보사업을 하기가 힘들겠는걸. 내가 유격대원이라는것을 증명하는것이 그처럼 힘들어서야 당신들이 그렇게 알고싶어하는 유격대 사령부의 소재지는 도저히 알아내기 어렵겠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알수 있다.》

《어떻게?》

《네놈의 입을 쥐여짜서 알아내겠단말이다.》

《여보 시마끼선생, 당신은 당신과 마주앉아있는것이 소매치기나 절도가 아니라 혁명가라는것을 모르겠는가. 전에도 말했지만 네놈이 그따위로 버릇없이 굴면 나는 여기서 우리 집 개와 상대하는 식으로 네놈을 대할것이다.》

《뭐야?》

시마끼는 왝- 소리를 치고 벌떡 일어났으나 성림이가 어처구니 없다는듯 아래우로 훑어보는바람에 여기가 질려 어물어물 주저앉고말았다.

그는 멋적은김에 담배 한대를 붙여물고 슬쩍 중얼거렸다.

《정 되지 못하게 굴면 지하감방에 데리고가서 이야기하겠다.》

《지하감방이 좀 덥기는 하지만 산에서 사는 나에게는 제 신념을 꺾을만큼 고통스러운것도 아니다. 기왕 말이 난김에 말이지만 내 이 손바닥을 좀 보아라. 여기에는 송곳으로 맞구멍을 뚫은 자리가 있다. 내가 이 구멍에 연필대같은 8번 선을 꿰여가지고 끌려다닌것이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성림은 마치 옛말을 하듯 버럭더미밖에 보이지 않는 창밖을 내다보며 조용한 어조로 말하였다.

《나에게 신념이 두텁지 못할 때 그것은 참을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신념이 없고보니 진실이 없고 이 세상에 고귀한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단 신념이 가슴깊이 자리잡고보면 손바닥에 구멍이 뚫리는것이 아니라 심장에 구멍이 뚫려도 두렵지를 않다. 당신은 이미 내 손톱, 발톱을 다 뽑아내고 장딴지의 뼈를 부스러뜨렸지만 아무것도 알아낸것이 없다. 자, 이제 내가 유격대원이라는것도 시인했으니 무엇을 더 알고싶은가? 그 청지동으로 넘어가는 고개길에서 함께 가던 사람에 대해 알고싶다고 했지? 그 사람 역시 우리 공작원이다. 짐작컨대 유경무가 물자를 가지고가서 그 사람을 보고온듯한데 또 3자대면을 시켜보겠는가?》

《필요없다. 내가 알고싶은것은 쥐여짜면 결국 한가지, **김일성**사령부의 소재지다. 그것만 대면 다른것은 크게 문제시할것이 없다.》

《이야기가 명백해서 좋다.》

하고 성림은 일어섰다.

《나는 엄격히 조직선에 련결된 공작원이다. 내 스스로는 그런 문제를 당신들에게 말할 권리가 없다.》

《그 조직선은 어데 있는가?》

《그것 역시 아무에게도 말할수 없게 되여있다. 지하감방으로 가지 않겠는가?》

시마끼는 뿌연 방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제발로 고문을 겪으러 가겠다고 나서는 이런자에게 육체적고통을 가해서 얻어낼것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것이

의문스러웠다. 그러나 입씨름을 해가지고는 더구나 승산이 없다는것을 느낀 그는 움쭉 일어났다.

《그래 가자.》

그리고는 바깥을 향하여 대기하고있는 졸개들을 불렀다.

성림이를 다시 묶어 졸개에게 먼저 끌고가라고 내보낸 다음 시마끼는 경비계장실에 잠간 들려 전화를 걸었다. 현성공작반에서는 혜산의 흥아목재상에 매복을 조직했으나 아직 수상한 인물이 접근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현지경찰의 회보를 알려왔을뿐 별다른것이 없다고 하였다.

유경문의 《토벌대》는 예견한대로 함지박골어방에 헤매고있으나 아무런 소득도 없다는것이였다.

23

리성림은 그 옛날 화약고자리에 갇혀있었다. 일반적으로 광산의 화약고가 견고한데다 습기도 없고 외따로 떨어져있어서 시마끼로서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을것이다.

아닌게아니라 김준삼이 삼선봉폐갱속에 들어박혀 7련대가 올 때까지 거리와 광산의 형편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따져보니 전투자체도 문제지만 리성림을 구원하는 일이 조련하지 않을것 같았다.

그 화약고는 삼선봉에 만주광업의 첫 광굴이 뚫리던 당시에 지었던것으로서 광산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너무 작기때문에 몇해전에 그옆에 새로 큼직한 화약고를

짓고 옮겼는데 그것을 시마끼가 비밀감방으로 리용하면서부터 경비가 전보다 더 강해졌다. 원래 화약고경비는 철저히 하는것이기때문에 바로 옆에 적지 않은 경비인원이 주야로 눈을 밝히고있으니 이중으로 경비를 돌파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선다. 물론 7련대가 전투를 해서 적의 기본무력은 제압하겠지만 그 견고한 화약고앞에서 전투를 벌리는 사이면 시마끼는 열번도 더 성림이를 죽일수 있을것이다.

윤원구의 보고에 의하면 시마끼는 며칠째 화룡에 들어가지도 않고 광산경비계에 붙박혀있다고 한다. 어제 현성에서 의사가 점심경에 왔다가 해질무렵에 돌아갔다. 그것은 리성림이가 아직 살아있다는것과 동시에 거의 빈사지경에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준삼은 속이 바질바질 탔다.

그는 언젠가 성림이가 금천동지구에 조직을 내오기 위한 모임을 조직하였던 바로 그 폐갱의 통기갱속에 들어박혀있었다.

한가지 유리한 점은 이 폐갱의 어느 한 편도막장이 바로 그 화약고밑에 거의 다 들어가있다는 점이였다.

광산조직에서는 자기네의 조직원이였던 성림의 구출문제에 대해 적극적인데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그처럼 심려하신다는 말을 전해듣자 발벗고나섰다.

광산핵심들과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했을 때 윤원구는 심중한 생각끝에 화약고를 날려버렸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 의견은 좀 뜻밖이여서 처음에는 다소 론의들이 구구하였으나 전투가 한창 진행될 때 갑자기 화약고가 터져오르면 적들은 말할것 없고 금천동일판의 사람들이 모두 정신이 얼떨떨해질것이다. 그럴 때 바로 코앞에 있는 광산사무실을 들이치면 살아남은 경비놈들이 내뛰든가 저항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쏠릴것이 틀림없다. 그 틈에 낡은 화약고에서 성림이를 업어내면 되지 않겠는가. 바로 옆에서 화약고가 터지면 바깥에 있는 경비놈들은 죽거나 얼이 빠질것이고 견고한 화약고안에 갇혀있는 성림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없을것이다. 이러한 윤원구의 침착한 설명을 듣자 모두 그럴듯하다고 수긍해나섰다.

만주광업의 김성필이가 화약고폭파에 필요한 폭약과 신관, 도화선따위는 일체 자기네 조직에서 해결하겠다고 나섰고 춘길이는 자기가 오랜 선산 몇사람을 데리고 한 이틀 수굴을 하면 문제없이 화약고 바로 밑창까지 뚫어낼수 있다고 장담해나섰다.

《까짓거, 그놈들의 화약을 몇t씩 날려보내는것만 해도 얼마나 속이 시원하오다. 그게 한꺼번에 튀는 날이면 그놈들 몽땅 죽어 자빠지지 않으면 얼이라도 쑥 빠질거우다. 그렇게 되면 전투하기도 퍽 쉬울거우다.》

춘길이의 말은 시원시원해서 준삼이에게도 그럴듯하게 느껴졌다.

어쨌든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다. 7련대가 도착하기전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내야 한다.

준삼은 그날부터 가장 로련한 선산들만 선발한 굴진조에 섞여 정질을 하고 버럭을 마대에 넣어 물속으로 끌어내기도 하면서 정찰과 습격전투의 계획을 무르익혀나갔다.

그 편도가 화약고 바로 밑창까지 뻗어나간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화약을 재워서 터뜨릴만한 지점까지 가자면 상당한 거리를 파들어가야 하였다. 남포 한방 못튀우고 땅땅 굳은 현무암층을 이틀동안에 몇사람이서 뚫어낸다는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였다. 게다가 여기에 동원된 광산핵심들은 누구나 밤대거리든 낮대거리든 일을 마치고 가족의 눈마저 속이며 이 굴속으로 들어와서 돌짬에 들어엎디여 가까스로 몸이나 빠질만한

굴을 뚫어야 하였다. 상기란놈은 준삼이가 오는 날 밤으로 처단해서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어느 폐갱의 침수된 편도에 집어던져버렸다. 그러나 아직 밀정이 어디에 박혀있는지 모르니 모든 일은 극도로 은밀히 해야 하였다.

갱내로동이라는것을 해보지 못한 준삼은 몸을 달팽이처럼 가드라뜨리고 석수바닥에 엎디여 메질, 곡괭이질을 해야 하는 일이 대단한 숙련을 요구한다는것을 몇참이 못가서 깨달았다. 그러나 사령관동지의 뜻을 받들고 그이의 웅대한 전략적구상을 실현하며 혁명전우를 구원하는 이 중요한 일에서 물러설수 없었다. 윤원구와 춘길이가 밀어내다싶이 말렸지만 어느새 물집이 잡힌 손바닥이 해여져서 벌건 속살이 드러나고 게다가 자기의 익숙치 못한 일솜씨로 하여 굴을 뚫는 일자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다는것을 깨달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앉았다.

물러나가지고도 가만있을수 없었다. 그는 떨어져나온 돌덩이들을 마대에 긁어담아가지고 든든한 바줄로 동인 다음 엇비듬히 엎디여 운반갱까지 끌어냈다. 순전히 남포를 놓기 위해서 뚫는 굴이라 꼬부리고앉기도 거북할만큼 좁았다. 그런 굴속에서 버럭더미를 끌어내자니 자루주둥이를 바줄로 묶어서 끌수밖에 없었다. 정 좁은데서는 바줄끝을 허리에 감고 기여나가야 하였다. 바닥은 석수가 흘러내려 엎드리거나 누우면 한절반 물에 잠겼다.

간데라를 한손으로 쳐들고 바줄을 든든히 움켜쥔 다음 천천히 버럭자루를 끌며 한걸음, 한걸음 물속을 기여나오니 사지가 부서져나가는것처럼 아파났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준삼이를 괴롭히는것은 딴 문제였다. 땅속으로 굴을 뚫고들어가서 과연 화약고밑에 똑바로 가내겠는가 하는 걱정이 한시도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광부들은 장담한다. 통기갱이 화약고옆구리를 빠져나온만큼 편도가 갈라져나간 방향과 길이를 대중해서 뚫고들어가면 문제가 없다는것이였다. 관영 만주광업회사의 오랜 선산인 김성필의 형 김용필이는 워낙 그 편도를 굴진도중에 내던진것이 바로 그앞에 화약고가 일어서게 되였기때문인데 무슨 걱정이냐고 장담해나섰다.

그러나 땅속 물계에 어두운 준삼은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준삼이가 겨우 운반갱도까지 나와 허리를 일으키는데 저벅저벅 하고 발걸음을 옮겨놓는 물소리가 울리여왔다. 누가 들어오는 모양이다.

준삼은 얼른 간데라를 죽이고 편도벽에 바싹 붙어섰다. 발소리는 점점 큰 메아리를 일으키더니 저만치 구부러진 굴벽에 불빛이 어룽어룽한다. 필네가 련락을 가지고오는것일가? 혹은 7련대를 마중나간 최병규일것일가? 아니면 진호 어머니가 또 밥을 날라오는것일가?

어쨌든 우리 동무들일것이다. 굴아가리에는 무장을 가진 든든한 광부 두사람이 지키고있다. 굴아가리뿐아니라 지금 금천동 요소요소에는 광산의 조직핵심들이 박혀있지 않는데가 없었다.

가까이 다가오는것을 보니 필네였다. 준삼이가 마음을 놓고 자기 간데라에 불을 붙이자 필네는 주춤하더니 곧 마음을 놓고 잰 걸음으로 달려왔다. 원래 어릴 때부터 광산에서 치여난 처녀라 물이 찬 굴속을 달리는것이 평지를 달리나 다름없었다.

《중대장동지, 또 의사가 왔어요.》

하고 필네는 버럭자루앞에 쪼그리고앉더니 다급하게 속삭였다.

《아직 있소?》

준삼은 심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은 있는것 같아요. 그러나 인력거를 세워둔것을 보면 곧 돌아갈 눈치예요. 무슨 일일가요?》

《고문에 상했겠지. 일이 없소. 성림동무가 고통은 겪겠지만 생명은 일없을거요. 그놈들도 성림동무를 기어이 살려서 비밀을 뽑아내자고 할테니까… 걱정 마오.》

준삼은 간데라불빛 아래 떠오르는 잔뜩 수심이 낀 처녀의 얼굴을 침착하게 바라보며 위로를 하였으나 실상 그자신의 마음도 불안하였다. 그 랭혈동물같이 스산하고 집요하고 음흉한 시마끼란놈이 성림의 혁명적절개를 꺾어보려고 무슨짓인들 안할것인가. 그는 천천히 자루를 쳐들어 돌덩이를 물속에 쏟으며 마음속으로 빌었다.

(성림동무, 제발 견디여주오. 사령관동지께서 그처럼 심려하시는데 동무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한 몸으로 어엿한 승리자가 되여 그이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오.)

필네는 준삼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가늠해보듯 자루속에서 한알한알 굴러떨어지는 돌덩이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참, 최병규동지한테서 련락이 왔어요. 7련대가 15리밖에 있는 밀림속까지 왔대요. 어두우면 삼선봉으로 안내해오겠대요.》

《그렇소? 그럼 다 됐군. 이젠 굴만 뚫리면 될판이요.》

준삼은 기쁨에 넘쳐 말했다. 7련대가 왔다는것이 든든하기도 하고 가슴답답한 속을 오중흡이에게 터놓고 의논도 하고싶었다.

《그래 필네동무는 준비가 다 됐소?》

《무슨 준비말이예요?》

필네는 갑자기 주눅이 들어서 고개를 숙이며 가느다랗게 되물었다.

《사령관동지께서 전투가 있은 다음 필네동무가 나서서 선동사업을 하는게 좋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소.》

필네는 쭈밋쭈밋하며 준삼의 눈치를 살피더니 꺼져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령관동지께서 말씀하셨으니 생각은 그냥 하는데 전 정말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는지 통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언제 사람들앞에 나서서 말이라고 해본줄 알아요. 이거 좀 봐주세요.》

하며 필네는 고개를 숙인채 품에서 차곡차곡 접힌 종이를 꺼냈다.

《허허허, 필네동무가 이런걸 보면 한태혁동무의 누이동생이라는것이 확실하구만. 이렇게 척 준비해놓고도 시치미를 따고있으니…》

준삼은 필네가 꺼내주는 종이장을 받으며 밝게 웃었다.

《그게 뭐 되기나 한줄 알아요.》

준삼은 웃으며 종이장을 무릎우에 펴놓고 간데라를 쳐들었다.

아이들 글씨같이 큼직큼직하게 박아쓴 글씨가 떠오른다. 정성을 다해서 썼기때문인지 국문을 겨우 깨쳤다는 필적으로서는 놀랄만큼 시원시원하고 알아보기도 좋았다. 그러나 내용은 최근 정치학습에서 배운 말들을 그대로 옮겨놓은것이 많아서 너무 일반적이고 생동성이 부족하였다. 다만 난생처음 써본다는 글이 이만큼 됐다는것은 놀라운 일이였다.

《잘 썼소.》

하고 준삼은 다정한 어조로 말했다.

《처음 써보는 글치고는 아주 잘 썼소. 그러나 내 생각에는 전투가 끝나면 필네동무가 잘 아는 사람들앞에 나서게 되겠는데 잘아는 사람끼리 하는 말로서는 좀 딱딱할것 같구만.》

《그러게말이예요. 저도 그래서 걱정이예요. 제가 갑자기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을 억압착취하는 최대의 원쑤입니다. 오늘 국제정세의 일반적특징은… 하고 소리치면 이상하게 생각할것 같애요.》

필네는 비로소 수집음을 버리고 진지한 태도로 준삼이를 바라보았다.

《필네동무의 말이 옳소. 그러니까 이렇게 연설투로 하지 말고 가령 나는 필네입니다. 김장로밥집에서 부엌데기노릇을 하던 한필네입니다. 여러분, 그사이 얼마나 고생스럽게들 살아가십니까, 이런 투로 시작하면 어떻겠소?》

《아니, 그렇게 해도 일없어요?》

《일없지 않구, 선동사업이란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고 사령관동지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소.》

두사람이 필네의 선동연설내용을 가지고 한참 열을 올려 토론하고있을 때 막장쪽에서 춘길이가 급히 다가왔다.

《공작원동지.》

《웬일이요?》

《뚫렸소다.》

춘길이는 얼굴에 튕긴 석수를 뻑 훔치며 숨가쁘게 말했다.

《뚫리다니?》

《정통으로 뚫렸단말이오다. 화약고밑창의 기초가 드러났소다.》

《그렇소?》

준삼은 너무나 기뻐 춘길을 으스러지게 그러안았다.

24

모든 준비는 끝났다.

7련대는 삼선봉기슭에 진출하였으며 화약고에는 김성필이 넉넉히 구해온 화약을 쟁이고 도화선을 늘여놓았다. 윤원구는 폐갱구석에 숨어 줄담배를 피우며 심지에 불을 달 때만 기다리고있으며 그쪽으로 접근할수 있는 요소마다에 광산의 조직핵심들이 목을 지키고있다. 오중흡이와 김준삼은 사령관동지의 전략적구상을 받들고 진행되는 기본부대의 전투와 리성림을 구원하기 위한 습격조의 행동을 빈틈없이 짜놓았다.

그러나 싸움은 암만해도 간단히 끝날것 같지 않았다. 새로 보수한 남문포대는 견고하기도 하려니와 여러문의 기관총으로 요새화하다싶이하였고 성문 또한 견고하였다. 광산에 폭약이 흔하다보니 광산지구의 구축물이라는것은 무엇이나 든든한것을 위주로 삼는다.

그런데다 성문을 돌파하면 인차 수비대의 병영이였다. 청지동에서 습격전투가 있은 다음 현성에서 이리로 기본력량을 증강한데다가 제법 군기가 서있고 첫째 겁이 나서 깊이 잠들줄 모르는놈들이였다.

단순히 성을 들이치는것이 목적이라면 응당 주력을 접근하기 쉬운 삼선봉에 그대로 매복시켜두었다가 북문으로 쳐나가면 좋겠지만 삼선봉비탈에 있는 비밀감방에서 리성림을 구원하자면 전투의 중심이 북문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될것이였다. 오중흡의 생각에도 남문포대를 돌파하고 수비대주력을 제압하는 문제보다 아무래도 리성림을 무사히 빼내는것이 어렵게 생각되여 그쪽으로 력량을 더 돌리는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박인섭이 가지고온 통신과 명령에 의하면 사령관동지께서는 쏘련과 몽고 인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배후타격과 함께 리성림의 문제에 대해 여간 심려하시는것이 아니였다. 오중흡이 자신의 판단에 의하더라도 리성림이가 놈들에게 든든히 걸려들었으며 이번에 구원하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것으로 생각되였다.

그래서 그로서는 필요이상이라고 할만큼 력량도 배치하고 이모저모로 타산을 하였지만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지금까지 미타한 소리를 하다가 준삼이와 함께 다시 광산사무실을 습격하게 된 4중대로 왔다.

《중대장동무, 필네동무를 꼭 데리고가야겠소?》

《련대장동무가 데리고가라고 했기때문에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요.》

박태진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고 이게 혹시 금덩어리가 섞인 돌이 아닐가 하고 이리저리 뜯어보다가 대답하였다.

《동무 생각에는 어떤가말이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신길남동무가 최병규동무를 따라서 아까 또 가보고 오기는 했지만 필네동무가 같이 가게 되면 길을 더 잘 알테니 밤길을 가기도 좋고 또 녀자이니까 앞에 내세우고 가면 적정을 알기도 쉬울것 같습니다.》

오중흡은 외면하였다. 들어보나마나한 소리다.

《중대장동무.》

한참 동안을 두었다가 이번에는 더 좀 신중한 어조로 불렀다.

《이번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모퉁이를 동무네가 지켜야 하오. 번개불처럼말이요.》

《알고있소다.》

박태진은 이제는 너무 많이 들은 소리라 심상하게 받아넘겼다.

《사실 나는 신길남동무도 일이 없고 그 동무네 소대에서 다 난다뛴다 하는 동무들만 모였으니 다른것은 걱정이 없는데…》

《제가 걱정스럽단말이지요?》

《그렇소. 바로 중대장동무가 걱정이요. 어떻소, 오늘밤은 좀 빨랑빨랑할수 있을것 같소?》

《해봐야지요. 뭐 되겠지오다.》

박태진은 여전히 돌을 이리저리 뒤집어보며 역시 심상한 어조로 대답했다.

좀 약을 올려서 화끈 달아오르게 만들고싶었지만 원래 사람됨됨이 속이 깊어서 통 겉으로 생각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오중흡은 입맛을 다시며 움쭉 일어났다.

《그럼 우린 저쪽으로 또 가봅시다. 어떻게나 하고들 있는지…》

하고 오중흡은 준삼을 돌아보며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지금쯤 주력은 떠나야 하지 않을가요.》

박태진이 비로소 허리를 일으키고 뒤따라서며 말했다.

《내 걱정은 마오. 포대와 성문에 대고 우리가 먼저 불을 걸테니 거기 경비놈들이 남문으로 쏠릴 때까지 동무들은 꼼짝하지 말고 엎뎌있어야 하오.》

《모기에 뜯길 생각을 하면… 하여간 견뎌야지요.》

《사람두 참…》

오중흡은 어처구니없어 저도모르게 웃고말았다.

삼선봉기슭, 청지동으로 넘어가는 오솔길에서 동쪽으로 훨씬 치우쳐있는 원시림속이였다.

유격대원들은 숲속 여기저기에 구분대별로 흩어져서 사닥다리를 만들고있었다. 토성을 넘기 위한것이였다.

그중 구석진곳에 신길남소대의 10여명대원들이 박인섭을 둘러싸고 웅성거리고있었다.

《이게 지금 화약고란말이요. 자 동무, 여기 좀 서라구. 그러니까 이쯤 비켜있는것이 지금 그놈들이 쓰는 화약고란말이요. 새것하고 낡은것하고 헛기면 야단이요》

박인섭은 한 대원의 어깨를 끌어다 적당한 자리에 세우고 그자리에서 서너걸음 물러나 자기의 한쪽팔을 쳐들어보이였다. 지형을 설명하고있는것이다.

오중흡이와 김준삼은 걸음을 멈추었다. 좀 뒤에서 따라오던 박태진이만이 스스럼없이 대원들속으로 끼여들었다.

《그앞에 이쯤서부터 철조망을 쳐놓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두놈이 경비를 서고있단말이요. 자- 이 동무가 서있는곳이 그 보초놈의 위치요. 그러니까 길은 이렇게 나있지, 그앞을 통과할 때가 제일 문제거던.》

《가만.》

하고 신길남소대장이 인섭을 제지하며 나섰다.

《최동무 선곳이 보초놈 위치라면 이쪽으로 가는것이 더 좋지 않는가? 그쪽으로도 길이 나있던것 같던데…》

《길이야 있지요. 그러나 그쪽은 더 위험하우다. 거기에 요즘 노다지가 난다는 굴이 있어서 감독놈들이 개싸다니듯하는데 그 감독이라는것들이 다 특무들이고 태반이 무기를 가지고있소다.》

《그래? 그럼 하는수 없지, 설명을 계속하라구.》

신길남은 인차 물러서고 인섭이 설명을 계속하였다.

《윤원구동무네가 화약창고에 불을 달 때까지 소대장동무네는 이 모퉁이에 나가있어야 한단말이요. 모르기는 해도 화약창고가 튀는 소리가 굉장할텐데 귀마개랑 든든히 하는게 좋을거우다.》

《뭐 귀마개?》

모두 제귀들을 만져보며 웅성거린다.

《어떻소? 비슷하오?》

오중흡은 박태진에게 슬그머니 물었다.

《틀림없지요.》

《동무는 설명을 안들어도 되오? 지휘관이?》

《낮에 나하고 같이 가보고 같이 짰는데요.》

《그래? 그러니 신길남동무네가 광산사무실을 들이치자는건가?》

《그렇지요. 그 틈에 준삼동무네가 감방에 뛰여들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좀 작을뿐이지 화약창고던데요.》

오중흡은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여 대꾸를 않고 습격조원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런데 필네동무는 어디에 있소?》

《저기 있습니다. 뭐 옛동무를 만나서 지금 한창 담화중입니다.》

인섭이가 저쪽 컴컴한 관목숲을 고개짓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죽여 대답하였다.

《옛동무라니?》

《참 별일도 다 있지요. 우리 강정섭동무와 하칠소에서 한목재판에 있었다는군요.》

《그렇소?》

오중흡이도 놀라서 감탄의 소리를 질렀다.

《참 일이 묘하게 번져갑니다. 습격조원들을 선발해놓고 인사를 시키는데 서로 마주 손을 잡고 필네동무, 정섭동무하고 눈물을 찔끔찔끔…》

박인섭이 신파조로 엮어대자 신길남이가 옆구리를 툭 쳤다.

《에이 여보, 혁명동지간의 감격적인 상봉을 그렇게 우습게 말해서야 되오.》

하고 신길남은 오중흡을 향하여 우선우선해서 말하였다.

《일이 잘될것 같습니다. 모든것이 딱딱 맞아떨어지는것이 아주 제격입니다.》

《그래.》

오중흡은 김준삼과 마주보고 고개를 끄떡끄떡하였다. 일이 괜찮게 될듯하다는 눈짓들이였다. 김준삼은 거기서 떨어졌다. 오중흡이도 화약고폭파때 대원들이 놀라거나 귀를 상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는 지시를 주고 떠나려다가 돌아섰다.

《중대장동무.》

박태진은 언제나 듣고있다는듯이 마주 쳐다보았다.

《그 강정섭동무가 어떻소?》

《그거야 련대장동무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만큼 데리고다니며 개별교양을 하고도 나한테 묻습니까?》

《나는 나고 동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말이요?》

오중흡은 일부러 딱딱하게 말했다.

《나야 련대장동무와 똑같은 의견이지요. 이제 곧 기관총을 메울 생각입니다.》

《벌써?》

오중흡은 내심 기뻤으나 놀란체 물었다.

《벌써가 뭡니까? 괜찮게 쏩니다. 와룡호싸움때 한번 맡겼댔소다. 머지 않아 한다하는 유격대원이 될거오다.》

《그렇소? 그러나 그렇게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되오. 진짜배기 유격대원이 된다는것이 어디 헐한 일이요. 어디에 내다놓아도 우리 장군님의 전사로서 빠지는 구석이 없게 정찰도, 지하공작도, 학습도… 척척 할뿐아니라 나가서는 바느질이나 음식솜씨까지 있는 그런 알짜 조선인민혁명군전사로 길러야 한단말이요. 사령관동지의 뜻을 실속있게 받들어야 하오.》

《나도 그래서 하는건데… 무슨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오다.》

박태진은 련대장이 암만해도 말하기 거북한 말이 있는 모양이라고 짐작하고 넘겨짚었다.

오중흡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에없이 태진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뗐다.

《동무가 다 잘 아는데 뭐 특별한 의견이 있겠소. 그 저 말이요, 오늘저녁에 그 동무를 한번 급한 모퉁이에 내세워보면 어떻겠는가 하는거요. 담보도 키워주고 앞으로 혼자서 무슨 임무나 수행할수 있게말이요.》

《알만하오다. 좀 생각해보겠소다.》

오중흡은 태진의 대답이 좀 뜨뜨미지근하게 들렸으나 사람됨됨이 본시 그러니 하는수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섰다.

관목숲쪽으로 에돌아가는데 젊은 남녀의 속삭임소리가 들리여왔다.

어쩐지 발길이 자꾸 그쪽으로 끌리면서 필네와 정섭이를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들었으나 한편으로는 좀 싱겁다는 생각도 들어서 어쨌든 전투를 잘 결속지어놓고보리라 생각하였다.

《아니 그렇다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 할것 아니야. 내가 한태혁동지를 얼마나 연구했는지 알아.》

《우리 오빠를 동무가 왜 연구를 해요?》

《사령관동지께서 나더러 한태혁이와 같은 명사수가 되라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동무가 한태혁동지의 누이동생이라니… 참 기가 막혀서… 업은 아이 3년 찾는다는격이 아닌가말이야.》

《내가 오빠의 누이동생이라는데는 뭐 어쨌어요?》

《뭐 어쨌다니? 그래 정 이럴내기야?》

《너무 떠들지 말아요. 누가 듣겠어요.》

《들으면 뭐 어쨌어?》

《아이 정말…》

입을 싸쥐고 웃는 소리가 들린다.

오중흡은 여태까지 불안스럽던 가슴속이 환히 트이고 초조감 대신 유연하고 다정한 생각이 가슴속에 가득히 차오르는것을 느꼈다. 신길남이의 말과 같이 모든 일이 잘되여나갈것이다. 사령관동지의 한품에서 만난 태혁의 누이동생과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강정섭의 상봉이야기는 구원된 리성림과 함께 전사들때문에 언제나 마음을 못놓으시는 사령관동지께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드릴것이다.

그날밤 자정이 훨씬 기울어서 금천동습격전투가 벌어졌다.

주력부대가 남문쪽으로 떠나고 이어 리성림을 구원하기 위한 습격조도 떠났다.

철조망이 저만치 바라보이는데서 그들은 다시 두패로 갈라져 김준삼이네는 낡은 화약창고쪽으로 에돌아가고 신길남이네는 좀 아래로 떨어져서 큰 화약창고 있는데로 다가갔다. 그들은 광산사무실을 습격하는것이 기본임무인만큼 화약고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되였지만 매복해야 할곳이 바로 그 화약고앞인데다 거기에는 행길과의 사이에 가시철망이 늘여져있고 그 출입구옆에 두놈의 경비가 서있었다.

필네까지 합하여 열한명의 대원들이 소리없이 산비탈 오솔길을 조심조심 내려가는데 웬일인지 선두에 선 필네가 자꾸 기침이 북받쳐 입을 틀어막으며 가빠하였다. 첫 전투때면 누구나 겪게 되는 흥분과 초조감때문일것이다.

정섭이는 필네를 바투 따라가며 뒤를 흘깃 돌아보았다. 중대장이 여라문걸음 떨어져서 소풍이나 나온 사람처럼 흔들흔들 태평으로 따라온다.

(저쯤 돼야 유격대원같우한데…)

이런 생각을 하던 정섭이는 필네가 또 두손으로 입을 싸쥐고 갑자르는것을 보았다. 마음이 죄여들었다. 언젠가 회양동뒤산에서 련대장과 함께 정찰을 따라갔다가 소동을 피우던 생각이 났다. 그때로부터 벌써 아득한 세월이 흘러간듯하다. 인제는 혼자서 적의 포대를 까부시라고 해도 무섭지 않다. 한번은 중대장도 부사수로 조금만 더 치여나면 인차 기관총을 맡길듯이 귀띔하였다.

그러나저러나 필네가 정작 매복장소에 가서 기침이라도 터뜨린다면 야단이 아닌가. 정섭이는 다시한번 뒤를 흘깃 돌아보고 휘적휘적 필네곁으로 다가갔다.

《뭘 자꾸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침이 자꾸 나와요. 참자니까 더하지 않아요.》

필네는 입을 그냥 싸쥐고 짜증스럽게 속삭였다.

《마음이 든든하지 못해서 그래. 오빠 생각을 하라구. 겁날게 없단말이야. 저 혼자 가는것도 아닌데…》

정섭이는 중대장이 바투 따라올가봐 뒤를 돌아보며 수군거렸다.

내가 옆에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말해주고싶었으나 그 말만은 어쩐지 목덜미가 후끈하고 혀바닥이 굳어지면서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필네는 그런 눈치를 챈듯 만만찮게 돌아보았다. 따귀라도 한대 맞은듯 볼편이 얼얼하다.

정섭이는 오솔길옆에서 쑥잎을 한줌 훑어서 내밀었다.

《정 견디기 어려우면 이걸 씹으라구. 매복할 때는 더 급할거야.》

필네는 어둠속에 정섭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말없이 쑥잎을 받아서 그중 몇잎을 입에 물었다.

정섭이는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한편 가슴에 그들먹이 들어차는 흥분을 느끼며 필네곁에서 떨어졌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하였다.

잠시후 필네는 바위너설이 비죽이 내민 굽인돌이에 멎어섰다.

뒤따라 열명의 습격조원들이 그 량옆에 흩어져서 무릎을 꿇고앉았다. 광산사무실과 경비계가 바로 비탈아래 바라보였다. 광산사무실에서 행길을 가로질러 화약고에 이르는 출입문은 가시철망을 따라 더 좀 아래로 내려가야 있었다. 바로 그앞이 지형이나 시간으로 보아 가장 좋은 매복장소로 정해졌는데 그 어간에 보초가 서있는것이다.

필네는 손을 들어 으슴푸레 떠오르는 그림자를 가리켰다.

《한놈은 어디 있소?》

박태진은 별로 조심하는 빛도 없이 물었다.

《저 나무밑둥에 기대앉았어요. 조는 모양이예요.》

《그럼 교대교대 조는 모양인가?》

박태진은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주머니에서 사슬에 달린 회중시계를 꺼내보았다. 사실 그는 주력부대의 공격과 폭파조의 불다는 시간 그리고 습격조의 행동개시시간을 중간에서 조절해야 할 매우 중대한 책임을 지고있었으나 겉보기는 여느때나 다름없이 태평스러웠다.

《비슷하게 시간이 된것 같은데… 그럼 슬렁슬렁 시작해볼가.》

중대장의 말이 떨어지자 신길남이 저쪽에서 허리를 솟구쳤다. 뒤따라 정섭이가 보총을 필네에게 내밀었다. 필네는 영문을 몰라 총을 받으면서 옆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어찌자는것인가?

《신동무가 저 잠든놈을 맡으라구. 선잠이 깬놈은 놀라서 소래기를 치기 잘하니까 아무래도 나살이나 먹은 소대장이 낫겠지. 대번에 목을 바싹 틀어낀 다음에 찔러야 해.》

중대장의 말은 원두막에 참외 따러 보내는것처럼 심상하다. 그러나 그것이 보초놈을 찍소리 한마디 못지르게 제끼라는 말임은 누구에게나 짐작이 갔다.

그러면서도 필네는 설마하고 하회를 기다렸다. 그런데 신길남이와 함께 정섭이가 중대장에게 경례를 붙이더니 단도를 쑥 뽑아 입에 물고 바위너설을 기여 넘어간다. 필네는 저도모르는 사이 앗 소리를 지를번하였다.

처음에 7련대에서도 한다하는 싸움군만 열명을 골라냈다는 습격조를 만났을 때 그가운데 정섭이가 끼여있는것을 보고 어지간히 놀란 필네였다. 그렇게 보고싶어하다가 정작 만나니 가슴은 널뛰듯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보일수 없었던 그는 말이 동강난 틈에 동무가 어떻게 이런데 다 뽑히게 되였느냐고 물었었다. 정섭이는 전에 하던

버릇대로 내가 왜 이런데 못뽑힐 사람이냐고 우쭐해서 코날개를 벌름거렸다. 그러다가 이어 사령관동지께서 몸소 자기에게 사격술을 가르쳐주셨다고 감격이 새로운 목소리로 말했었다. 필네가 보기에도 그는 벌써 의젓하고 당당한 유격대원이였다. 그러나 이런 책임이 중하고 아슬아슬한 임무를, 유명한 신길남소대장이 직접 맡아나선 그런 일을 정섭이가 감당하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다.

필네는 저도모르는 사이 바위너설에 한절반 몸을 솟구고 눈정기를 모았다. 옆에서도 모두 긴장된듯 숨소리가 가빠지는것이 알린다.

철조망 울타리옆에 바싹 붙어서 신길남소대장이 앞서나가고있다. 정섭이는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갔는가? 달이라도 좀 밝았으면… 필네는 자기가 어망결에 소리라도 칠것만 같아 손에 움켜쥐고있던 쑥잎을 입에 물였다.

한참이나 지나서 (사실은 한순간이였는지 모른다.) 철조망과 마주서있는 나무덤불옆으로 웬 그림자가 언뜻 나타났는가싶더니 어느새 또 없어졌다. 그런데 그것은 벌써 가시철망을 둘러친 출입문가였다. 바로 코앞에 보초놈이 서성거리고있다.

너무나 긴장되여 저도모르는 사이 마른침을 꿀꺽 삼키였다. 쌉쌀한 쑥내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 순간 어둠속에서 무엇인가 번쩍하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어 씹어삼키는듯한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큰 바위밑에라도 깔린듯한 비명 그리고 무던히도 오래 버드럭거리는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필네는 그 모든것을 가위눌린 사람처럼 모지름을 쓰며 온몸으로 느끼였을뿐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표상도 포착하지

못하였다. 다만 중대장이 《가기오.》 하고 일어났을 때에야 제정신을 차렸다. 과연 모든것이 끝이 났단말인가.

보초소앞을 지나니 송장은 이미 보이지 않고 신길남소대장과 정섭이는 벌써 매복장소에 나가 자리를 잡고있다가 중대장이 다가가자 무릎을 꿇고앉은채 보고를 하였다.

짙은 그늘을 드리운 오리나무밑에 두사람이 나란히 엎디였을 때 필네는 자기 몸이 화락하니 식은땀에 젖은것을 깨달았다. 돌아보니 정섭이는 도로 넘겨받은 총을 깐깐히 살피고있다.

무엇인가 말을 하고싶었지만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여있다. 얼마나 듬직해졌는가. 그렇게 큰일을 눈깜빡할 사이에 해제끼고도 덤덤해앉아 총만 매만지고있는 그를 곁눈질해보느라니 다감한 생각이 가슴을 채워 숨이 가빴다.

총을 구석구석 살펴본 정섭이는 필네를 돌아보고 히죽이 웃더니 경비계사무실쪽으로 총구를 면바로 내대고 편안히 엎드렸다. 넓은 이마가 현관 외등의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다. 땀이 나는 모양이다. 멀리서 보는 사람도 이렇게 땀에 떴는데 오죽하랴. 필네는 품속깊이 감추어둔 명주수건을 더듬어찾았다.

목덜미를 간지럽히는 부드러운 촉감에 놀란 정섭이는 흠칫 몸을 뒤채더니 수건끝을 잡아챘다. 다른 한끝이 필네의 손에서 빠져나갔다. 필네는 모른척하고 앞만 살폈다. 정섭이는 목소리를 죽이고 속삭였다.

《이건 뭐야?》

《…》

《명주수건 아니야?》

《회양동에다 버리고 간거. 땀이나 훔치지요.》

필네는 속삭임소리속에도 원망을 풍겨보이려고 애쓴다.

《뭐 회양동에?》

정섭이는 한옆으로 몸을 일으킨채 바로 회양동을 바라보듯 먼 곳을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는다.

《거기 갔댔어?》

필네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순간 《쉿!》 하고 신길남소대장의 목소리가 울리여왔다. 두사람은 장난을 하다가 들킨 아이들처럼 키득거리며 풀덤불속에 머리가 묻힐만큼 깊숙이 엎드렸다. 그러나 다음순간 정섭이는 또 지꿎게 고개를 살짝 쳐들고 돌아보았다.

《거기는 왜?… 이 수건은 누가?》

필네는 어둠속에 눈을 흘기면서도 한마디만 대답하려고 하였다. 《바지저고리》라는 말을 듣고 인차 알아맞혔다는것을… 그러나 벌써 그 누구도 입을 벌릴 짬이 없었다. 신성한 전투의 메아리가 금천동 밤하늘을 뒤흔들었던것이다…

주력부대가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토성을 포위한 유격대의 주력은 남문포대를 향하여 집중사격을 퍼부었다.

적들도 필사적으로 저항하였다. 포대의 기관총이 어찌나 세차게 불을 뿜어대는지 사닥다리를 타고 성벽우에 올라섰던 동무들이 몇사람이나 굴러떨어졌다.

《수류탄을 뿌려라!》

오중흡은 권총을 높이 쳐들고 이렇게 웨치며 사닥다리 하나를 제가 디디고 올라섰다.

《련대장동지, 위험합니다.》

밑에서 누가 웨쳤다. 그러나 오중흡은 들은척도 않고 어느새 토담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 순간 예광탄이 새빨간 탄도를 그으며 그의 정수리를 누비고 지나갔다. 모자가 락엽처럼 날아오르더니 맴을 돌며 떨어졌다.

《이건 뭐야.》

오중흡은 이마전이 화끈하는바람에 손을 가져다대니 무엇인가 따끈한것이 살가죽에 박혀있다. 끄집어내여 살펴보니 탄알이다. 어떤놈이 쏘았는지 탄알이 습기를 받았거나 총신에 녹이 쓸었던 모양이다.

《넨장, 왜놈의 탄알로는 내 이마를 뚫지 못해. 자 수류탄을 좀 올려보내라구.》

오중흡은 수건으로 이마를 질끈 동이고는 옆구리에 차고있던 수류탄을 어느새 다 집어던져버리고 아래로 손을 내밀었다.

토담안을 내려다보니 수많은 적들이 모여들어 바글바글 끓는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놈들이 저마다 웨쳐대는데 어찌나 소란을 피워대는지 이쪽에서도 정신을 차릴수가 없다. 수류탄이건 기관총이건 보총이건 마구 불을 뿜는다. 적들은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를 탄알에 맞아 픽픽 쓰러졌다.

《포대를 갈겨라!》

어느새 토담우에는 여러 사람이 올라섰다. 기관총화력이 성문포대에 집중되자 방금까지 발악하던 포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척이 없어졌다. 이때라고 생각한 오중흡은 수리개마냥 성안을 향하여 높다란 토담우에서 몸을 날렸다.

《돌격앞으로!》

남문으로 적들이 집중되는 틈에 측면에서 유격대원들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수비대병영에 불이 달렸다. 북문쪽에서 적들의 한개 서렬이 총질을 하며 달려온다.

(이때다! 태진이, 제발 꾸물대지 말고…)

오중흡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연신 방아쇠를 당겼다. 폐갱속에 대기하고있는 윤원구에게 폭파신호를 보내는것은 박태진이가 하게 되여있었다.

《일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

와- 하고 유격대원들의 돌격함성이 화답하였다. 이때 오중흡의 타는 마음을 시원히도 틔워주는 거대한 폭발이 터져올랐다.

금천동거리가 그대로 하늘에 떴다가 무너져앉는것 같았다.

오중흡은 미리 약속한대로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귀를 틀어막았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서 흔들흔들하던 발밑의 땅이 바로 선 다음에도 귀속은 그냥 메인것처럼 멍멍하였다.

(그 동무들이 진짜 귀마개를 했는지 모르겠다.)

오중흡은 이런 생각을 하며 천천히 거리중심으로 걸어갔다. 전투는 이미 한물이 져서 유격대원들은 골목골목으로 누벼다니며 수색전을 벌리고있었다.

이보다 좀 앞서 김준삼이와 박인섭, 최병규는 리성림이가 갇혀있는 감방턱밑에 바싹 접근해있었다.

전투가 남문포대쪽에서 본격적으로 타번질 때까지도 화약고와 감방 그리고 광산사무실앞에 우글거리는 경비인원들은 갈팡질팡할뿐 결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럴즈음 화약고가 터지자 박태진이 인솔한 습격조가 기관총과 보총의 일제사격으로 우물거리던놈들을 휩쓸어버리고 사무실과 경비계를 타고앉았다.

그런데 사무실현관문으로 한놈이 비칠거리며 달려나오더니 경비계쪽을 향하여 감방을 지키라고 소리쳤다. 자세히 보니 시마끼였다. 경비계에서 몇놈이 달려나오고 이어 옷을 주어입으며 비틀비틀하는놈들이 또 한패거리 쓸어나왔다. 바깥에 있다가 폭파소리에 어리친놈들도 차츰 정신을 차리고 총을 찾아들었다.

광산사무실과 그 앞마당에서 치렬한 불질이 벌어졌다. 화약고가 타오르고 포대에 불이 달려서 거리와 산비탈은 환하였다.

신길남이가 총창을 번쩍거리며 달려가고 강정섭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침착하게 묘준사격을 하고있다. 현관벽에 붙어서서 권총을 갈기는 필네의 모습도 똑똑히 보인다. 먼눈에도 귀가 벌쭉한 당나귀같이 생긴놈이 악을 쓰며 필네앞까지 달려오다가 처녀의 권총에 정통을 맞고 벌렁 나가번져졌다.

《이젠 우리 차례요.》

김준삼은 권총을 뽑아 안전장치를 푼 다음 박인섭이와 최병규에게 고개짓을 하였다.

영구화점처럼 견고하게 만들어놓은 옛화약고는 크지 않은 대신 돌덩이처럼 단단해보였다. 주먹만한 자물쇠가 채워져있을뿐 그앞은 텅 비여있었다. 최병규가 미리 준비해가지고간 쇠메로 자물쇠를 짓조기는데 무엇인가 발끝에 뭉클하고 밟혔다.

《이게 뭐야?》

최병규가 놀라서 한걸음 물러섰다.

《이 동무는 유격대원이라는게 시체만 보면 질색하누만.》

하고 박인섭이가 폭풍에 나가넘어진 감방보초놈의 시체를 한옆으로 끌어내다 치워버렸다.

《에, 기분나쁘게시리…》

최병규는 화김에 힘껏 메를 휘둘러 내리쳤다. 그러자 자물쇠가 절컥하고 떨어져나갔다.

인섭이를 문가에 세워놓고 준삼이와 최병규가 뛰여드니 성림이는 캄캄한 콩크리트바닥에 거적 한장을 깔고 쓰러져있었다. 처음에는 뭐가뭔지 분간할수가 없어 성냥을 켜들어보고서야 사람의 형상을 알아본 두사람은 한꺼번에 성림이를 그러안았다.

《성림동무!》

《여보 성림동무!》

그러나 신음소리만 가까스로 새여나올뿐 다른 반응은 없었다.

《제꺽 업소.》

준삼은 언제 증상을 확인해볼 사이도 없이 이렇게 소리치고 먼저 문쪽으로 달려나갔다.

인섭이가 앞에 서고 준삼이가 뒤에 서서 우선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비탈에 섰다. 그때까지도 광산사무실앞에서는 접전이 벌어지고있었다.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서라도 모두 얼굴을 로출시키는것이 재미없을듯하여 그냥 비탈길을 타고 거리를 벗어나기로 하였다.

이때 불의에 총알이 발부리에 와서 흩어졌다. 돌아보니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대여섯놈의 광산경비놈들이 비탈을 기여올라온다. 인섭이는 연방 권총을 내쏘며 그리로 달려갔다.

《병규동무, 달리오!》

준삼은 앞뒤를 살피며 소리쳤다. 거리며 화약고에 타오르는 불길때문에 온몸이 홧홧 달아난다.

뒤쪽에서 총알이 쌩— 하고 날아왔다.

준삼은 제꺽 나무뒤에 몸을 숨기며 뒤를 돌아보았다. 어룽어룽하는 불빛에 나무그림자들이 춤을 추듯하는데 한 관목덤불뒤에서 웬놈이 권총을 쳐들고있다. 시마끼였다. 그놈의 총구는 면바로 성림을 업고 뛰는 최병규쪽을 겨누고있었다.

《엎드렷!》

하고 소리치며 준삼은 몸을 날려 그 탄도앞에 나섰다. 어깨가 띠끔한다. 그는 잠시 비칠거리다가 쓰러졌다.

최병규는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숲속으로 달려갔다.

시마끼가 권총을 든채로 달려오더니 준삼의 머리를 움켜쥐고 불빛쪽으로 쳐들었다.

《흥, 흥아목재상?》

그는 코웃음치듯 중얼거리더니 무릎을 꿇고 최병규를 겨누었다.

이때 죽은듯이 쓰러져있던 김준삼의 다리가 시마끼의 허리를 후려쳤다. 시마끼는 공중거리로 한바퀴를 돈 다음 땅바닥에 태질을 당했다. 준삼은 비호처럼 몸을 날려 그놈의 몸을 덮쳐누르고 목을 죄였다.

《네놈이 내가 유도3단이라는것을 믿지 않았지? 어디 좀 겪어봐라.》

시마끼는 얼마를 못가서 끅- 하고 숨거두는 소리를 하더니 시래기처럼 늘어져버렸다.

《아니 어떻게 된거오다?》

인섭이가 옆에서 달려나오며 다급하게 물었다.

《별거 아니요, 어서 앞을 엄호하시오.》

하고 준삼은 손을 툭툭 털며 일어섰다.

인섭이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앞으로 달려갔다.

준삼은 척척해오는 왼쪽어깨를 권총 쥔 손으로 눌러잡으며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어느새 총소리는 멎고 인민들이 달려나온다. 벌써 거리복판에서는 유격대원들이 삐라를 뿌리고있었다.

《…속옷들에는 피가 배여있었습니다. 그런 옷들을 빨 때마다 저는 남몰래 울었습니다. 그렇게 피멍이 들도록 일을 해도 여러분들은 일년내내 이밥 한끼 배불리 먹지 못하고 귀여운 자식들에게 글공부 하나 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조선사람들이 이렇게 못사는 까닭이 바로 왜놈들때문이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길은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쨍쨍한 녀대원의 목소리가 울리여온다. 필네의 목소리였다.

준삼은 저도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군중은 얼마나 흥분했는지 서로 어깨를 두드리고 목을 그러안으며 설레인다.

《필네다!》

《김장로밥집의 식모다.》

《야- 우리네 광부들속에서도 저런 혁명군이 났구나.》

이런 웨침, 속삭임소리속에 눈물을 흘리며 장군님의 은덕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들리여온다.

《우리 장군님께서 천덕꾸러기, 부엌데기를 저렇게 어엿하게 만들어주셨구만. 세상에 **김일성**장군님 같은분이 어데 또 계실가…》

필네도 흥분하여 삼선봉마루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여러분은 저 삼선봉의 돌을 저렇게 맨주먹으로 뜯어내다싶이 하여 금을 캤지만 여기서 누가 금을 보기나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마소보다도 더 심하게 일을 해주었지만 마소보다도 더 천대를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욕을 먹고… 나이 많은분들이 감독놈들한테 뺨을 얻어맞고 수염을 내둘리여도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야 살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원고에도 없는 말이였고 둘이 토론한 내용도 아니였다. 필네의 생활자체가 빚어낸 말이였다.

《더는 그렇게 살수 없다.》

《필네의 말이 옳다!》

《우리도 유격대에 참군하자!》

이런 웨침소리가 맞받아 울려왔다.

이때 가까운 산비탈 오솔길로 웬 아낙네가 아이를 지청구하며 급히 달려내려온다.

《에그, 빨리 좀 걸으라는데, 필네아지미가 보고싶지도 않니. 봐라! 필네아지미가 연설을 한다. 어서 좀 걸어라!》

윤원구의 안해였다. 등에 업힌 진철이는 영문도 모르고 좋아서 어-어- 소리를 치는데 어머니에게 손목을 끌리여 오솔길을 달려오던 진호가 필네의 목소리를 가려듣고 《아지미-》 하고 소리쳤다.

얼마후 바다처럼 뒤설레이는 군중들사이를 누벼나간 진호 어머니는 마침내 필네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아이구, 어쩌면 그사이 연설도 그렇게 잘하우? 어서 또 하랑이, 속이 시원하게, 가슴이 쩡 열리게 또 한마디 하랑이.》

필네는 군중의 면전에서 진호를 안아올렸다. 데롱데롱 매달리는 진호를 부둥켜안고 군중을 바라보는 필네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여 말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살길도, 이 진호같은 귀여운 조선의 아이들의 앞날도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심으로써만 환히 열려져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모두 정성을 다하여 장군님의 만수를 빕시다. 조선민족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장군님 만세!》

만세소리가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준삼은 주먹으로 축축히 젖어드는 눈굽을 뻑 훔치고 앞서간 일행을 따라잡기 위하여 산등을 넘어갔다.

25

하늘이 훨씬 높아졌다. 그사이 분주한 나날이 계속되여 언제 하늘이 높아졌다는것도 느낄 사이가 없었다.

그러던것이 문득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선선하다는 생각이 들어 고개를 쳐들어보니 어느새 시원하게 개인 푸른 하늘이 높다랗게 떠있는것이였다. 숲속에는 산열매가 무르익어 들크무레한 냄새가 강기슭까지 떠돈다. 고기도 살이 졌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오래간만에 낚시대를 드시고 강으로 나가시였다. 아침부터 재영이와 상철이를 7련대장과의 련락장소로 내보내시고보니 적어도 오늘 반나절은 누구의 성화도 받지 않으시고 낚시질을 할수 있을것 같으시였다.

처음 몇마리를 끌어내보시니 달포전하고는 손맛이 판 다르시였다. 훨씬 무게가 는데다가 세차기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허, 이놈 봐라, 제법 뛸 차비다.》

사령관동지께서는 말동무가 없으시니 고기와 터놓고 혼자말씀을 하시였다.

《그렇지, 부르죠아정객들처럼 오그랑수를 쓰지 말고… 그러다간 제풀에 코를 꿰인다니까, 이것 보지.》

그이께서는 미끼를 떼고 달아나려는놈을 재빨리 채올리시였다.

처음 몇마리는 크게 곡절 없이 재미를 보시였다. 그러다가 좀 소식이 뜸해진 틈을 타서 이 생각, 저 생각 더듬으시던 그이께서는 마침내 사색의 심연속으로 잠겨드시여 고기생각은 가맣게 잊어버리시였다.

미끼는 이미 떨어졌는지 낚시초리는 조용히 흔들리고 그끝에 물잠자리가 올라앉아 조는듯마는듯 날개를 쉬우고있었지만 그이께서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시였다.

머지 않아 오중흡이가 올것이다. 8련대가 가까이 있었다면 리철범이도 오라고 해서 이런 산천어국을 한그릇씩 먹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떠오르시였으나 역시 낚시질에 주의가 돌아가지는 않으시였다.

다만 동무들을 보고싶으신 생각만 간절해지시였다.

리성림은 예상했던것보다 더 심하다고 하였다. 어찌나 고문을 심하게 당했던지 장딴지에 골절이 와서 걸을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김준삼이에게 병원밀영으로 데려가도록 하시였지만 보내놓고보니 그렇게도 간고한 시련을 겪으면서 혁명적의리를 저버리지 않은 그 훌륭한 전사를 한품에 그러안지 못하시는 아쉬움에 날이 갈수록 가슴속이 허전하시였다.

그밖에도 만나보고싶은 동무들이 많았다. 오늘 옥돌골공작조에서 보내온 신문에는 일제의 주만대사가 바뀌였다는 소식이 나있고 그 뒤면 사회란에는 《혜산시내 홍아목재상에 화재, 원인은 실화인지 방화인지? 당국에서는 실종된 주인을 의심》하는 표제를 달고 정귀하로인이 적의 삼엄한 경계망속에서 몸을 뺀 사실이 보도되였다. 그가 옥돌골공작조를 거쳐 다시 아들이 있는 풍산쪽으로 나간 소식은 이미 사령부에 돌아온 강철룡네들을 통하여 보고를 받으시였다. 관동군 특무놈들의 말만 들어서 로인이 정작 무엇때문에 의심을 받았고 왜 감시를 하고있는지도 모르는 모양인 혜산경찰놈들의 놀아나는 꼴이 가소롭기도 하시였다.

주만대사가 갈리였다는것도 흥미있는 사실이였다. 말하자면 관동군사령관의 목이 떨어진것이다. 들리는 말에는 관동군사령관만 아니라 참모장까지 함께 목을 뗐다고 한다. 조직을 통해 올라온 보고에 의하면 조선인민혁명군과 대결해보겠다고 날치던

이와구니며 혼마며 그밖의 잡동사니들이 무데기로 목이 떨어지고 자살을 강요당하였다고 한다. 하기는 그까짓것들이 응당 가야 할 제갈길을 간것이야 무슨 새삼스러운 소식이랄것도 없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세계정치정세는 뜻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대전환을 일으키였다. 방금 전쟁의 불꽃이 터져오를것 같던 쏘련과 도이췰란드 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자 이른바 정치를 한답시고 분주히 돌아치던 부르죠아정객들, 외교관들, 장군들이 모두 입을 딱 벌리고 한동안 말을 못하였다.

도이췰란드를 부추겨서 쏘련과 싸움을 붙여놓고 그 틈바구니에 무엇인가 제 리속을 채워보겠다고 잔꾀를 피우던 제국주의렬강의 숱한 내각들이 무더기로 나가넘어졌다.

영국내각도 일본내각도 다 뒤집혔다. 무쏘리니의 외상 차노는 한달전까지만 해도 입을 맞추며 그러안군하던 리뻰도르프를 《그 이상 기분나쁜 악당이 있을수 있겠는가.》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상욕을 퍼부었다.

세계가 다 당황망조하였지만 그중에서도 당황망조한것이 일제였다. 히틀러와 반공협정을 맺고 쏘련으로 쳐들어간다는것을 골자로 하는 시종일관한 정책을 더는 고집할수 없게 되자 그럼 무엇을 내세우고 무엇을 반대하겠는가 하는것이 문제로 되였다. 그렇게도 많아보이던 로선과 방침들이 하나도 들어맞지 않게 되였다.

그래서 뒤집힌 히라누마내각이 누구에게 사업을 인계해야 할지 모를 형편이 되였다. 후계내각을 조직하는데 괘씸하지만 도이췰란드의 비위도 거슬리지 않고 그렇다고 영국의 비위도 거슬리지 않으며 더 복잡하게는 쏘련에서도 그닥 싫어하지 않는 말하자면 《무색투명》한 내각을 내와야겠는데 그런 내각을 끌고나갈만한 《무색투명

》한 황도주의자를 찾아낸다는것이 그렇게 흔해빠진 파쑈분자들가운데서도 쉽지 않았다. 결국 고르고 고르다 쥐고른다는 격으로 아베 노브유끼라는자를 골라놓고보니 고른자들까지 어처구니없는 맹물단지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임명하였다. 일제로서는 력사의 회오리바람에 태질을 당하여 동서남북을 분간 못할 방향상실의 시기였다.

히틀러는 8월 24일을 기하여 뽈스까에 대한 진공명령을 내리고 9월 3일에 영국과 프랑스는 대도선전포고를 하였다.

런던에서는 여태 상영금지되였던 쏘련의 반나치스영화 《맘로크 교수》가 대대적으로 상영되기 시작하고 《지그프리드요새로 빨래하러 가자》라는 괴상한 새 류행가가 퍼졌다.

그 류행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우리들은 지금 지그프리드선으로
빨래를 널러 간단다

어머니 아무거나 빨것 내놓세요
우리들은 지금 지그프리드선으로
빨래를 널러 간단다

근 60만의 병력과 5 000만t의 세멘트를 비롯한 방대한 물동에 도이췰란드 토목기계의 태반을 동원하여 게링그의 직접 지휘하에 1년간이나 다몰아쳐서 지난

5월에 완공했다는 지그프리드요새에서는 아직 그럴만한 전투도 없었건만 이따위 류행가부터 나와 돌아가는것을 보면 대포를 쏘는것보다 약이나 올리자는 심산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자아냈다. 그래서 그런지 히틀러의 관리들은 대단히 약이 올라서 영국정부에 대고 엄중항의를 들이댔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의 한편에서는 쏘도불가침조약의 론리적귀결로서 쏘일불가침조약의 체결문제가 일정에 올랐다는 여론이 내외에 떠돌았다. 그런가운데 석달나마 피투성이싸움을 해오던 할힌골에서의 전투도 조선인민혁명군에 의하여 발목이 붙잡힌 일제의 20일에 감행한 마지막 총공격이 수만의 시체더미를 만들어내는것으로써 끝장이 나고 모스크바주재 일본대사는 크레믈리로 허리를 낮추구부리고 화평교섭을 들어갔다.

이런 판에 정신없이 파쑈칼부림에 미쳐돌아가던 무리들이 불에 타죽고 목이 달아나고 배를 가르게 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까짓 무리들이 어떻게 되였건 력사는 눈섭 하나 까딱 않고 제 궤도를 줄달음쳐갈것이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정든 우리 사람들이 그리우시였다.

정귀하로인도 만나보고싶으시였고 정지성이와 류진옥이도 만나고싶으시였다.

그러나 실지로는 가까이에 있는 련대장들도 만나기가 쉽지 않으시였다.

하늘은 저렇게 높이 개이고 숲은 평화롭게 설레이고있지만 내외정세는 갈수록 복잡하게 뒤엉클어지고 새로운 태풍을 배태한 혁명의 저류가 땅덩어리를 겹겹이 휘감아치고있다.

남의 불에 게잡자고 잔꾀를 부리던 인간들의 운명은 그야말로 가을바람에 휘말린 락엽과 같이 함부로 나딩굴고있다.

그속에서 오직 자기 힘 하나를 믿고 억세게 싸워 이 여름에 커다란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전진에 중대한 기여를 한 전사들을 열렬히 축하하고싶으시였다.

그러나 싸움의 길은 아직도 아득하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제 새로운 진군길에 올라야 할것이다. 적들은 제놈들의 침략정책에 창을 낸 보복을 하려고 조선인민혁명군과의 최종적인 대결을 서두르고있다. 그것을 위하여 어제까지 피를 물고 싸우던 나라들과도 일시적인 화평을 유지하려고 갖은 꾀를 부리고있다.

여름에 사령관동지의 손바닥우에서 놀아나듯 수많은 부대들을 그이께서 의도하시는대로 화룡, 안도 지구로 끌어온 놈들은 제 그림자를 보고 짖다가 입에 문 고기마저 놓쳤다는 욕심 많은 개와 같이 아무데서나 불질을 하려들다가 조선인민혁명군과의 전선에서도, 만몽국경에서도, 중국전선에서도 대타격을 입었다.

놈들은 이제 화룡, 안도 지구에 끌어온 대무력으로 그 밸풀이를 하자고 들것이다. 죽어가는 제국주의의 단말마적발악상이 환히 떠오르시였다.

그러나 적들을 그러한 자기 파멸의 함정에로 유인하시기 위하여 이 한해여름을 보내신 **김일성**동지의 가슴속에는 이미 적들의 기도를 드넓은 전선에서 짓부셔버리실 구상이 무르익어져있었다.

이제 부대들은 다시 대부대로 한데 뭉쳐 광활한 대지를 무른 메주밟듯하면서 또다시 조국땅에로 나아갈것이다. 장엄한 구상이 도도한 흐름처럼 가슴을 쿵쿵 친다.

(오그랑수를 제아무리 쓴다 해도…)

사령관동지께서는 천천히 낚시대를 쳐드시여 서둘러 미끼를 꿰시고 신중하게 줄을 치시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의 사색은 다시금 혁명의 수만리로정을 톺아나가고있었다.

천막들이 서있는 강기슭, 바위우에는 두 녀대원이 구슬같이 부스러지는 물속에 그림자를 드리우고앉아 산나물을 다듬고있었다. 김정숙동지와 금숙이다. 요즘 철구아주머니는 부쩍 몸이 실해져서 앉아서 하는 일보다 나다니는것이 좋다고 부지런히 산나물을 뜯어들인다. 어찌나 세차게 나물을 해대는지 한개 중대성원이 먹고도 남아서 틈틈이 말리워 따로 건사하기도 하였다. 그것이 실없이 재미있다고 요즘은 끼니때도 잊어버리고 산나물 뜯는데 정신이 팔려 돌아갔다. 그러다나니 점심이나 저녁은 대개 김정숙동지께서 혼자 지으실 때가 많았다. 그런데 오늘은 금숙이가 어떻게 시간을 냈는지 찾아와서 일손을 거들어주었다. 이렇게 홀로 나선것을 보면 무슨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일부러 찾아온것 같기도 하였다.

아닌게아니라 금숙이는 나물보자기를 바위우에 풀어헤치자마자 김정숙동지를 향해 돌아앉았다.

《언니, 성림동무 이야기 들었어요?》

《응, 대체로 들었어.》

《참, 난 성림동무가 그런 동문줄은 몰랐어요. 필네동무가 그러는데 장딴지가 부러져서 어석어석 소리가 난다지 않아요? 손톱, 발톱을 집게로 다 뽑아내고…

그런데도 꿈쩍도 안하고 오히려 그놈들을 가지고 놀았다니… 정말 어쩌면 사람이 몇달사이에 그렇게 변할가요?》

《그러게말이야.》

하고 김정숙동지께서도 일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시였다.

《후방밀영에서 하던 행동을 보면… 난 사실 그 동무가 적후공작을 나갔다기에 놀라기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을 적들속에 들여보내서 일없을가 하고말이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을가요. 정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게 비슷한 말 같아요.》

《허지만 사령관동지께서는 다 내다보시지 않어? 내다보시는것보다 누구나 그렇게 억세게 싸우게끔 신념을 안겨주시고 신임을 보내주시는거야. 그 동무도 본시야 좋은 사람이지 그런데 엄광호같은놈한테 속았던것 같애. 우리 장군님께서는 누구나 몹쓸 사람으로 생각하던 사람들까지 다 훌륭한 혁명가로 키워내시지. 그런 사람을 적들속으로 들여보내신 그 믿음이 얼마나 가슴을 울려주는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 크나큰 믿음을 받으면 누구나 억세여질거라고 나는 확신해.》

《그런가봐요. 청봉밀영때 성림동무를 아는 사람이면 금천동에서 그렇게 잘 싸운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고 아무도 생각지 못할거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다시 일손을 놀리기 시작하시였다. 조국의 땅을 그러안고 눈물짓던 성림의 측은한 모습이 물결우에 그려지셨다. 그렇게 나약해보이던 사람이 그 죽음의 지하감방에서 모진 고통을 웃으며 겪었다니 새삼스럽게 놀라우시였다.

《빨리 나아서 돌아왔으면…》

금숙이도 나물을 물에 헹구며 혼자말처럼 속삭였다. 그들은 한동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일손을 놀렸다. 그러다가 금숙이가 가만히 귀전에 대고 소곤소곤 말하였다.

《필네가말이예요. 거기서 아는 동무를 만났대요.》

《누구를?》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 돌아보시였다.

《7련대에 있는 동문데 갓 입대한 동무래요. 산판에서 같이 있었다나요.》

《그런데?》

《그런데 말하는게 암만해도 좀 이상해요. 보통사이같지 않아요.》

《그럼?》

김정숙동지께서도 긴장되여 똑바로 쳐다보시였다. 금숙이는 제풀에 얼굴이 발깃해지면서 말하였다.

《뭐 어떻다고 말하는것은 없는데 별로 어색해하면서… 정작 누구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잡아떼기도 하고 좀 별스럽게 굴지 않아요. 언닌 그 동무 몰라요?》

《이름이 뭐래?》

《강정섭이라나요?》

《강정섭? 오—라 그 동무로구만.》

김정숙동지께서는 별안간 얼굴이 환히 밝아지면서 웃으시였다.

《어떤 동무예요?》

《금숙이는 몰라? 국내진공전투하고 돌아나와서 장산령을 행군할 때 입대하겠다고 이틀씩이나 부대를 따라온 동무말이야.》

《난 그때 정신이 딴데 팔려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것 같긴 한데 얼굴은 떠오르지 않아요. 어떤 동물가?》

《아이구 참 답답해라. 우리가 회양동에 있을 때 경위중대장동무가 그 동무를 〈바지저고리〉라고 불렀다 해서 련대장동무가 성이 나서 자기 옷을 내다 입히는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혼이 났어? 밤을 새면서 군복을 짓지 않았어?》

《아니 그 〈바지저고리〉? 이제는 생각나요. 그 동무로군요.》

금숙이는 별안간 심드렁해졌다. 어느새 필네의 후견인쯤으로 자처하고있는 그는 어쩐지 필네의 깨끗한 모양에 비해볼 때 정섭이라는 청년이 《바지저고리》라는 말과 같이 지나치게 어리숙하게 생각되는 모양이였다.

《호호호.》

하고 김정숙동지께서는 소리내여 웃으시였다. 대단한 어른처럼 심각한 표정이 되여 앉아있는 금숙이가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없이 측은하기도 하시였다.

《정섭동무가 어째서 그래? 그 회양동 우물틀이랑 딸따리랑 누가 만들었는지 알기나 해?》

금숙은 눈길을 들었다.

《그건 왜 그래요?》

《그게 다 그 동무가 한 일이야. 지금 얼마나 어엿한 유격대원이 됐다구그래. 사령관동지께서 밤새 데리고다니시며 사격훈련을 다 시키시고… 그래서 올기강전투때는 7련대에서도 열손가락안에 꼽힐만큼 적을 많이 잡았다는거야. 그리고 이번 금천동전투때는 한몫을 단단히 했대.》

《그래요? 그 우물이랑도 그 동무가 그랬다면 속은 깊은 동무같군요.》

금숙은 반신반의하며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였다.

《난 참 좋은 동무라고 생각해. 수더분하고 솔직하고… 옳지, 마침 그 동무가 저기 오는구만, 련대장동지랑…》

김정숙동지께서는 벌떡 일어나시였다.

강기슭을 따라 무엇인가를 둘러멘 재영이와 상철이가 앞장서오고 그뒤를 따라 키가 훨씬 큰 정섭이와 7련대장 전령병 영남이가 주위를 뚜릿뚜릿 살피며 걸어온다. 오중흡련대장은 정섭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참 웃다가 혼자 서서 옷차림을 더듬어보고 물을 움켜 신에 오른 먼지와 흙을 닦아낸다. 사령부에 올 때마다 하는 그의 버릇이였다.

《아니 저 동무가 강정섭동무예요?》

금숙이가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럼, 련대장동지가 사령부에 오면서 데리고다니는것만 봐도 똑똑하다는것을 알수 있지 않어.》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들을 마중나가며 고개를 돌리고 말씀하시였다.

아닌게아니라 금숙이의 인상에 남아있는 《바지저고리》는 어디에 가고 몇달사이에 보기만 해도 어엿한 유격대원으로 자라난 멋쟁이총각이 휘적휘적 걸어오고있었다. 금숙이의 깔끔한 눈에도 입가에도 따뜻한 미소가 엷게 퍼져갔다.

《누나ㅡ》

상철이가 더는 참을수 없었던지 뒤채를 멘 재영이야 따라오건 말건 냅다 달려온다.

《아니 그게 뭐예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무엇인가 이상한것을 느끼고 마주 달려가시였다.

《이거, 이거.》

상철이가 덤비며 말을 더듬자 재영이가 씩 웃으며 말했다.

《누나, 이렇게 큰고기 봤어요? 연어예요, 연어.》

《연어? 아이구, 난 이렇게 큰고기 처음 보네.》

그것은 엄청나게 큰 연어였다. 두 소년이 다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 어깨에 둘러멘것이 꼬리가 땅에 끌리였다.

《이런게 어디서 났어요?》

금숙이가 겁이 나는지 손끝으로 꼭꼭 찔러보며 눈이 커다래서 물었다.

《련대장동지 기다리며 길가에 앉아있는데…》

하고 상철이가 얼굴이 꽈리빛으로 익어가지고 두팔을 휘저으며 말했다.

《강바닥에서 무엇이 절벅절벅하잖아요. 보니까 모래불에 절반쯤 가라앉은게 꼬리를 툭툭 친단말이예요. 저게 뭘가 하는데 재영이가 연어다! 물고기다! 하지 않아요. 씨—》

《그러자 상철이가…》

하고 재영이가 뒤를 받아나섰다.

《어느새 총에다 날창을 끼우더니 번개같이 달려가서 콱— 이렇게…》

재영이는 상철이 옆구리를 꾹 찌르며 사뭇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단번에 찔러버렸지요뭐. 그러니까 알이 찍—하고 흘러나왔어요. 알 까러 올라왔던것 같아요.》

《야ㅡ참 혼났네.》

상철이는 자기 공로가 그럴듯하게 묘사되자 좀 게면쩍어졌는지 빨갛게 익은 코등의 땀을 뻑 씻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오늘 꼬마들이 굉장한 일을 했소.》

오중흡이가 재영이와 상철이의 어깨를 툭툭 치며 대견해서 말했다.

《련대장동지, 안녕하십니까?》

김정숙동지와 금숙은 한꺼번에 경례를 붙이며 인사를 하였다.

《동무들도 잘 있었소? 그런데 사령관동지께서는?》

《사령관동지께서는 아침부터 련대장동지를 기다리시고계십니다. 아까 강가에 나가셨는데… 저기 앉아계십니다.》

《어디?》

오중흡은 마음이 급한듯 낚시터를 향하여 걸음을 재게 옮겨놓았다. 재영이와 상철이 그리고 영남이까지 앞질러 달려가고 강정섭이는 김정숙동지와 금숙이 앞에 어색하게 서서 경례를 하였다.

《동지들,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반가와요. 그사이 잘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일부러 금숙이쪽을 돌아보며 말씀하시였다.

《잘 싸울게 뭡니까? 나무 베는것 하구는 퍽 달라요.》

《호호호.》

정섭이의 말에 김정숙동지와 금숙이는 허리를 잡고 웃었다.

그들도 오중흡이네의 뒤를 따랐다.

소년들은 강기슭에 앉아계시는 사령관동지의 모습이 보이자 막 달려가려고 하였다. 그들을 중흡이가 붙잡았다.

《가만, 떠들지들 말라구.》

《왜요, 고기 달아날가봐요? 사령관동지께서는 고기 잡으시지 않아요. 보라요. 먼산만 바라보시지 않아요.》

상철이가 한시바삐 자기의 성과를 그이께 보고드리고싶어 안달이 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아마 지금 사령관동지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것 같다. 그럴 때 방해를 해서는 안돼. 사령관동지께서 생각하시는것은 모두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의 큰 문제들이야. 그런 때는 동무들이 떠들지 않을뿐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떠들지 못하게 해야 한단말이야.》

그러면서 오중흡은 그이께서 보시지 못하도록 나무그늘로 몸을 숨기면서 이마의 땀을 씻었다.

《사령관동지께서 자주 저렇게 앉아계시오?》

《예, 짬만 있으면 강가에 나가세요. 그래서는 그냥 생각에 잠겨계시군해요.》

김정숙동지께서도 나무그늘속에서 강기슭을 내다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생각이 깊으신 모양입니다. 참, 오늘 우리 전령병동무들이 굉장한 고기를 잡았으니 그걸로 사령관동지께 회를 좀 쳐드립시다. 내가 마침 양념감을 좀 구해오는길인데…》

하고 오중흡은 안주머니에서 소중히 싼 작은 꾸레미 하나를 내놓았다.

《이게 뭡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꾸레미의 무게를 가늠해보며 물으시였다.

《뭐, 고추가루, 후추가루따위들이요. 오다가 어디 산마늘이라도 뜯어볼가 했더니 통 보이질 않더군.》

《아이, 정말 고마와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꾸레미를 가슴에 꼭 그러안고 기뻐서 어찌할바를 몰라하시였다.

장군님께 한끼라도 별다른 음식을 대접할수 있게 된것때문에 그리도 기뻐하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련대장과 세 전령병 그리고 금숙이와 정섭이의 마음도 기쁨에 넘치게 하였다.

그들은 새삼스럽게 경건한 마음이 되여 급류가 굽이치는 올기강기슭에 명상에 잠기시여 앉아계시는 사령관동지의 모습을 우러러보았다.

온 세계가 전쟁속에 휘말려들어 피를 흘리며 아우성치고 사람마다 제갈길을 잃고 남의 눈치를 살피며 갈팡질팡하는 이 동란의 때에 혁명하겠다는 인민들의 소박한 결의 하나를 믿으시고 사나운 력사의 난바다우에 억세게 노를 박여나가시는 조선혁명의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구의 동서남북이 제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끄떡 동하지 않으시고 낚시대는 흐름에 맡겨두신채 력사의 진정한 요인으로서의 인민의 힘을 키워나갈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히고계시였다.

이제 낚시대만 놓고 일어서시면 온 여름 마련하신 거대한 힘으로 혁명의 태풍을 휘몰아 천지를 주름잡아나가실것만 같은 숭엄한 분위기가 숲속에, 강기슭에 노을처럼 떠돌고있었다.

-> 이 도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습니다.